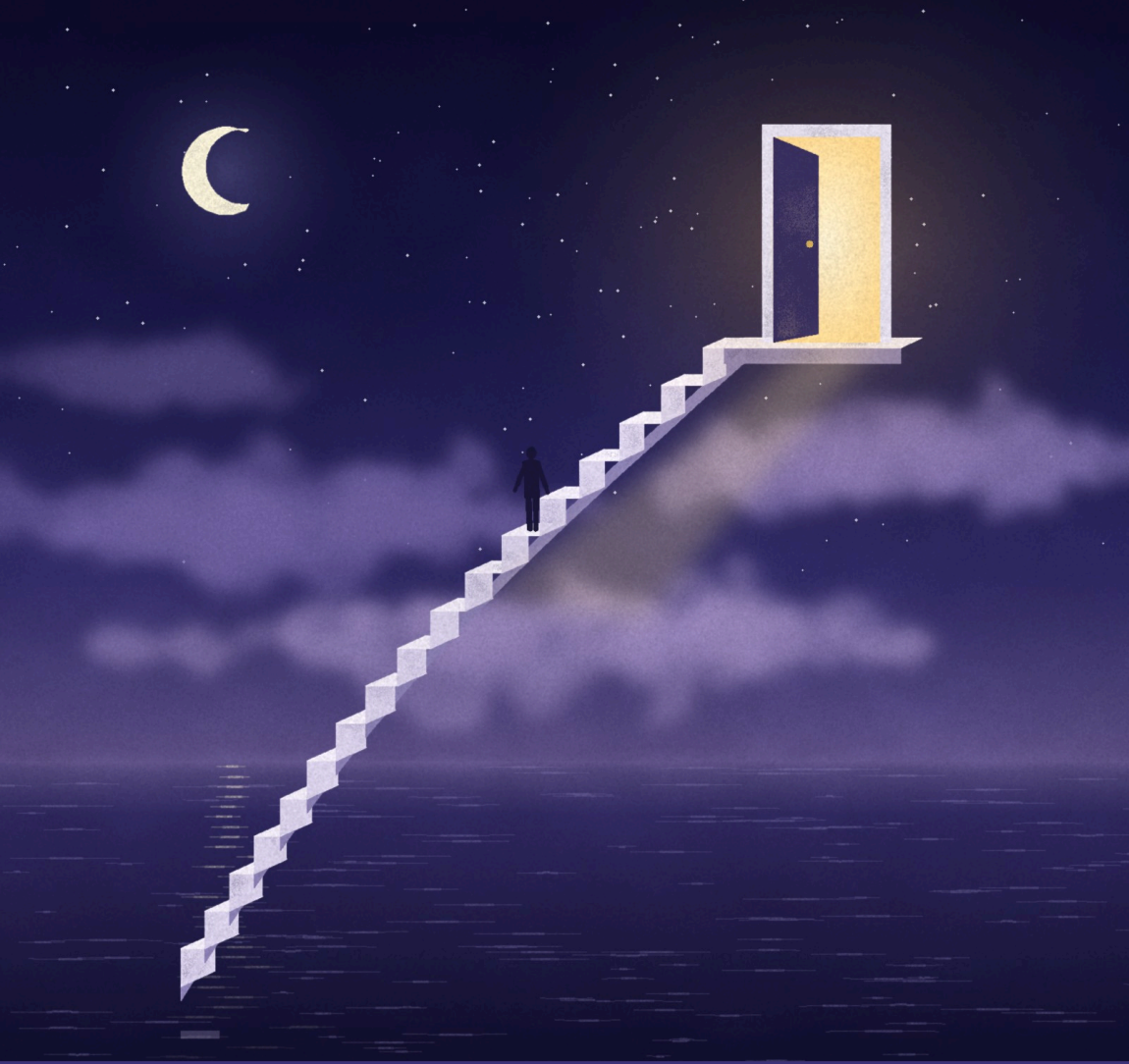


ETHER LIBRARY

0008

꿈의 해석

Die Traumdeutung

지크문트 프로이트

Sigmund Freud · 1900

심리학

꿈의 해석

The Interpretation of Dreams (A. A. Brill 영역본, 1913)

지크문트 프로이트

에테르 라이브러리 옮김

ETHER LIBRARY

Flectere si nequeo superos, Acheronta movebo.

〔천상의 신들을 꺾을 수 없다면, 저승을 움직이리라〕

일러두기

저본에 관하여

이 책은 **지크문트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을 한국어로 옮긴 것입니다. 다만 독일어 원전이 아니라 **A. A. 브릴(Abraham Arden Brill)의 영역본을 저본으로 삼은 중역(重譯)**입니다. 이 사실을 감추지 않고 첫 장에 밝혀 둡니다.

『꿈의 해석』은 1899년 11월에 나왔지만 속표지에는 1900년이 찍혔습니다. 프로이트는 그 뒤로 판을 거듭하며 이 책을 고치고 늘렸습니다. 브릴은 1911년에 나온 독일어 제3판을 옮겨 1913년에 내놓았고, 이것이 이 책의 첫 영역본입니다. 그러므로 이 한국어판은 **1911년 무렵의 『꿈의 해석』** 입니다. 제4판(1914) 이후에 더해진 대목 — 이를테면 따로 떨어져 나와 크게 불어난 상징의 절, 한동안 실렸던 오토 랑크의 글 두 편 — 은 여기에 없습니다.

프로이트는 1939년에, 브릴은 1948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두 사람의 저작권은 모두 소멸했습니다.

브릴은 프로이트를 처음으로 영어로 옮긴 사람이고, 영어권은 그의 번역으로 정신분석을 처음 읽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번역에는 뚜렷한 버릇이 있습니다. 독일어의 한 개념을 여러 영어 낱말로 옮기고, 앞에서 보고한 꿈을 뒤에서 다시 인용할 때 문구를 바꾸며, 몇 군데에서는 뜻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이 번역이 가장 공을 들인 것은 그 버릇을 다루는 일이었습니다.

영어 낱말이 아니라 가리키는 것을 따라

프로이트의 Affekt를 브릴은 affect로도, emotion으로도, feeling으로도 옮깁니다. 꿈속의 정동을 다루는 6장 (사)에서 emotion이라는 말은 마흔 번

넘게 나오는데, 대부분 바로 옆의 affect와 같은 것을 가리킵니다. 영어 낱말을 따라 옮기면 한국어 독자는 서로 다른 개념이 셋 있는 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번역은 역어를 **영어 낱말이 아니라 가리키는 대상에** 묶었습니다. 꿈과 신경증의 이론에서 표상과 짝을 이루는 것은 영어가 무엇이든 「정동」이고, 일상의 감정은 「감정」입니다.

거꾸로 브릴이 고집스럽게 지킨 말도 있습니다. 그는 cathexis라는 말을 한 번도 쓰지 않고 독일어 Besetzung을 occupation으로 옮깁니다. 이것을 「점령」으로 읽으면 7장이 무너집니다. 이 번역은 「집중」으로 옮겼습니다.

자주 나오는 말은 다음과 같이 옮겼습니다.

브릴의 영어	독일어	이 번역
dream-work, dream activity	Traumarbeit	꿈 작업
dream thoughts	Traumgedanken	꿈 사고
manifest / latent dream content	manifester / latenter Trauminhalt	외현적 / 잠재적 꿈 내용
wish-fulfilment	Wunscherfüllung	소원 성취
condensation · displacement	Verdichtung · Verschiebung	압축 · 전치
regard for presentability	Rücksicht auf Darstellbarkeit	표현 가능성에 대한 고려
secondary elaboration	sekundäre Bearbeitung	이차 가공
censor, censorship	Zensur	검열
presentation · affect	Vorstellung · Affekt	표상 · 정동
instance	Instanz	심급
occupation	Besetzung	집중
the system Unc. · the system Forec.	System Ubw · System Vbw	무의식계 · 전의식계
repression · suppression	Verdrängung · Unterdrückung	억압 · 억제
regression	Regression	퇴행

옮기면서 지킨 세 가지 원칙

하나, 없는 것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브릴의 영역본에 없는 것, 곧 1911년 뒤에 프로이트가 보탠 문장과 각주를 독일어판에서 가져와 채우지 않았습니다. 꿈속의 말장난도 한국어 말장난으로 갈아 끼우지 않았습니다. 꿈은 그 말이 아니면 그렇게 꾸어지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원어를 그대로 두고 〔 〕 안에 뜻을 적었습니다.

둘, 있는 것을 지우지 않았습니다. 이 책에는 꿈이 백팔십 편 넘게 나오고, 그 가운데 여러 편이 뒤에서 몇 번이고 다시 불립니다. 브릴은 그때마다 문구를 조금씩 다르게 옮겼습니다. 이 번역은 영어가 같으면 한국어도 글자 그대로 같게, 영어가 다르면 **다른 만큼만** 다르게 옮겼습니다. 이를테면 홀투른 꿈의 마지막 말은 6장에서 「그가 맞게 말했어.」 이고, 7장에서 다시 불릴 때는 「정말이지, 그가 맞게 말했어.」 입니다. 7장의 영어에 「Indeed」 가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꿈을 다시 이야기할 때 말이 바뀌는 일은 프로이트 자신이 7장 첫머리에서 따져 묻는 문제이기도 하므로, 그 흔들림을 고르게 펴지 않았습니다.

셋, 번역이 저본보다 매끄러워지지 않게 했습니다. 막히는 문장을 뚫어 주고 싶은 자리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막힌 것이 저본의 상태입니다.

저본을 거스른 곳

브릴의 전달 오류가 **내용을 뒤바꾸는 곳**만 바로잡았고, 그때마다 옮긴이 주로 밝혔습니다. 본문과 각주 열다섯 곳, 표제 세 곳입니다. 이를테면 이르마 꿈의 「귀의 안」은 「구강」으로, 꿈 보고의 변형을 두고 「결정성을 과대평가한다」고 한 문장은 「과소평가한다」로, 7장 (마)의 표제 끝 말 「퇴행」은 그 절이 실제로 다루는 「억압」으로 옮겼습니다.

단순한 오식(books를 hooks로, emission을 omission으로 찍은 것 따위)은 주 없이 뜻대로 옮겼습니다. 문헌 번호가 문헌 목록과 어긋난 여섯 곳(분트, 페히너 두 곳, 라데슈토크, 슈트륌펠, 델뵈프)은 바로잡았습니다.

쪽 참조와 찾아보기

영역본에는 「(p. 218 참조)」 처럼 이 책 자신의 쪽을 가리키는 말이 일흔 곳 넘게 나옵니다. 판이 바뀌면 이 쪽수는 뜻을 잃으므로, 가리키는 곳을 찾아 「5장 (라)」 처럼 장과 절로 바꾸어 적었습니다. 영역본이 쪽을 잘못 가리킨 몇 곳은 바른 자리로 고쳤습니다. 다른 저자의 책을 가리키는 쪽수는 그대로

두었습니다. 영역본 끝의 찾아보기는 그 쪽수에 기대는 것이어서 싣지 않았습니다.

그 밖에

각주 끝에 「— 영역자 브릴의 주.」가 붙은 것은 브릴이 단 주(열일곱 개)이고, 「— 옮긴이.」가 붙은 것은 이 번역에서 단 주(스물여섯 개)입니다. 나머지 백예순여덟 개는 모두 프로이트의 주입니다.

옮긴이 주는 해설이 아닙니다. 오역을 바로잡은 자리, 영역본의 표기가 흔들리는 자리, 독일어 말장난이 영어로 건너오며 가려진 자리, 그리고 읽는 데 꼭 필요한 몇몇 사정만 밝혔습니다. 프로이트 이론의 후대 전개는 적지 않았습니다.

영역본이 이탤릭으로 표시한 꿈 본문과 강조는 글꼴을 달리해 구분했습니다.

라틴어·프랑스어·독일어·이탈리아어 인용은 원문을 살리고 〔 〕 안에 뜻을 적었습니다.

사람을 가리키는 머리글자(M. 박사, R., P. 등)는 원문 그대로 두었습니다. 같은 머리글자가 서로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일이 잦습니다. 오토라는 이름만 해도 다섯 사람입니다.

이름 뒤의 번호(분트[76] 따위)는 제8장 문헌 목록의 번호입니다. 문헌 목록은 서지를 영역본 그대로 두었습니다.

7장 (나)의 도식 세 개는 영역본의 그림을 본떠 한국어 이름표로 다시 그렸습니다.

차례

머리말 11

제2판 서문 13

제3판 서문 15

영역자 서문 17

제1장 꿈 문제에 관한 학술 문헌 19

(가) 꿈과 깨어 있는 상태의 관계 22

(나) 꿈의 재료 — 꿈속의 기억 26

(다) 꿈 자극과 꿈의 원천 36

(라) 꿈은 왜 깨고 나면 잊히는가 58

(마) 꿈의 심리학적 특성 63

(바) 꿈속의 윤리적 감정 80

(사) 꿈 이론과 꿈의 기능 90

(아) 꿈과 정신 질환의 관계 104

제2장 꿈 해석의 방법: 견본 꿈 하나의 분석 114

제3장 꿈은 소원 성취다 141

제4장 꿈의 왜곡 153

제5장 꿈의 재료와 원천 181

(가) 꿈속의 최근 인상과 사소한 인상 182

(나) 꿈의 원천으로서의 유년기 체험 201
(다) 꿈의 신체적 원천 230
(라) 전형적인 꿈 250

제6장 꿈 작업 320
(가) 압축 작업 321
(나) 전치 작업 345
(다) 꿈의 표현 수단 349
(라) 표현 가능성에 대한 고려 375
(마) 예시 — 꿈속의 계산과 말 384
(바) 부조리한 꿈 — 꿈속의 지적 활동 398
(사) 꿈속의 정동 431
(아) 이차 가공 458

제7장 꿈 과정의 심리학 481
(가) 꿈의 망각 484
(나) 퇴행 501
(다) 소원 성취 517
(라) 꿈에 의한 깨어남 — 꿈의 기능 — 불안 꿈 535
(마) 일차 과정과 이차 과정 — 억압 548
(바) 무의식과 의식 — 현실 568

제8장 문헌 목록 583
꿈에 관한 정신분석 문헌 589

머리말

꿈의 해석을 논해 보려 하면서도, 나는 신경병리학적 관심의 테두리를 넘어섰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심리학적으로 탐구해 보면 꿈은 비정상적인 심리적 형성물들이 이루는 사슬의 첫 고리임이 밝혀지는데, 그 사슬의 다른 고리들인 히스테리성 공포증과 강박과 망상은 실제적인 이유에서 의사의 관심을 요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꿈은 (뒤에서 드러나겠지만) 그에 맞먹는 실제적 의의를 내세울 수 없다. 그러나 범례로서 꿈이 지니는 이론적 가치는 그만큼 더 크며, 꿈 영상이 어디서 비롯하는지 설명하지 못하는 사람은 공포증과 강박 관념과 망상 관념을, 그리고 그것들이 치료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해하려고 애써도 헛수고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 주제가 중요성을 얻는 것도 이 관계 덕분이지만, 지금 내놓는 이 저작에 결함이 생긴 것도 바로 이 관계 탓이다. 이 논의에서 그토록 자주 눈에 띌 부러진 단면들은 저마다, 꿈 형성의 문제가 정신병리학의 더 포괄적인 문제들과 맞닿는 접점에 해당하는데, 그 문제들은 여기서 논할 수 없으니 시간과 힘이 넉넉하고 재료가 더 모인다면 훗날 공들여 다루게 될 것이다.

꿈의 해석을 설명하려고 내가 쓴 재료에 특수한 점들이 있어서 이 책을 펴내기가 어려웠다. 문헌에 실린 꿈이나 남들이 모은 꿈이 왜 하나같이 내 목적에 쓸모없을 수밖에 없었는지는 이 책 자체에서 드러날 것이다. 예로 쓸 꿈은 나 자신의 꿈과, 정신분석 치료를 받던 환자들의

꿈 가운데서 골라야 했다. 후자의 재료를 쓰기를 삼간 것은, 거기서는 신경증적 특징이 뒤섞여 꿈 과정이 달갑지 않게 복잡해진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한편 내 꿈을 쓰는 데에는, 내가 바라는 것보다도, 또 시인이 아니라 자연 연구자인 저자가 대개 떠맡는 것보다도 더 많이 내 정신생활의 내밀한 부분을 드러내야 한다는 사정이 떼려야 뗄 수 없이 붙어 있었다. 괴로웠지만 피할 수 없는 일이었다. 내 심리학적 성과가 참임을 증명하는 일을 아예 단념하지 않으려면 불가피한 것을 감수해야 했다. 물론 나는 몇몇 경솔한 누설을 생략과 치환으로 위장하고 싶은 유혹을 아무리 해도 뿌리치지 못했고, 그럴 때마다 내가 든 예들의 가치는 적잖이 깎여 나갔다. 나로서는 이 책의 독자가 내 어려운 처지가 되어 보고 너그러이 보아주기를, 그리고 여기 실은 꿈 가운데 어느 것에든 언짢아할 법한 모든 사람이 적어도 꿈 생활에만은 사고의 자유를 인정해 주기를 바랄 수 있을 뿐이다.

제2판 서문

다소 까다로운 이 책을 두고 10년이 채 지나기도 전에 제2판을 내자는 요구가 생겼다면, 그 일로 내가 고마워할 대상은 앞의 몇 문장에서 호소했던 전문가 집단의 관심이 아니다. 정신의학계의 내 동료들은 꿈에 대한 나의 새로운 견해가 불러일으킨 첫 놀라움을 떨쳐 내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듯하다. 또 꿈 생활의 문제를 의식 상태의 한 부분으로 다루면서 거기에 몇 문장을, 그것도 대개는 서로 똑같은 문장을 할애하는 데 익숙한 직업 철학자들은, 이 분야에서 우리의 심리학 이론을 근본부터 바꿔 놓을 수밖에 없는 온갖 것을 찾아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한 모양이다. 학계 비평가들의 태도만 보아서는 나의 이 저작이 망각 속에 묻힐 운명이라고 예상할 수밖에 없었다. 정신분석을 의학에 적용하는 일에서 나의 지도를 따르고, 꿈을 분석해 그 분석을 신경증 환자의 치료에 활용하는 일에서도 나를 본받는 용감한 제자들의 작은 무리만으로는 이 책의 초판이 다 팔리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빚을 졌다고 느끼는 쪽은 진리를 찾는 지각 있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그보다 넓은 층이다. 그들이 힘을 보태 준 덕분에 나는 아홉 해 만에 이 어렵고도 여러 면에서 근본적인 작업을 새로 손보아 달라는 청을 받았다.

고칠 데가 거의 없었다고 말할 수 있어 기쁘다. 여기저기 새 재료를 끼워 넣고, 넓어진 경험에서 얻은 새로운 견해를 덧붙이고, 몇몇 대목을 고쳐 보려 했다. 그러나 꿈과 그 해석에 관한 본질적인 것은 모두,

거기서 이끌어 낸 심리학적 명제들과 더불어 바뀌지 않고 남았다. 적어도 주관적으로는 시간의 시험을 견뎌 냈다. 정신신경증의 병인과 기제를 다룬 나의 다른 저작들을 아는 사람이라면, 내가 한 번도 미완성인 것을 완성된 것처럼 내놓은 적이 없고 견해가 나아감에 따라 내 주장을 고치려고 늘 애써 왔다는 것을 알 것이다. 하지만 꿈 생활의 영역에서만은 처음의 선언을 그대로 지킬 수 있었다. 신경증의 문제들과 씨름한 긴 세월 동안 나는 거듭 회의에 부딪혔고 자주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때마다 내가 방향을 되찾은 곳은 언제나 「꿈의 해석」이었다. 그러니 나의 수많은 학문적 반대자들이 꿈 연구라는 이 영역으로는 나를 따라 들어오기를 거부할 때, 그들은 유난히 확실한 본능을 보여 주는 셈이다.

마찬가지로, 이 책에서 꿈 해석의 규칙을 예시하려고 쓴 재료, 곧 주로 그 뒤에 일어난 일들에 밀려 빛이 바래고 뒤처져 버린 내 꿈들에서 가져온 재료도 개정 과정에서 큰 변경을 허락하지 않는 끈질김을 보였다. 사실 나에게 이 책은 또 하나의 주관적 의미를 지니는데, 책을 다 쓰고 난 뒤에야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던 의미다. 알고 보니 이 책은 나에게 자기 분석의 한 부분, 곧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반응이었다. 한 남자의 생애에서 가장 의미심장한 사건이며 가장 깊은 상실인 그 일에 대한 반응이었던 것이다. 이것을 깨닫고 나자 이 영향의 흔적을 지워 없앨 힘이 내게 없다고 느꼈다. 그러나 독자로서는 어떤 재료로 꿈을 평가하고 해석하는 법을 배우든 아무 상관이 없다.

1908년 여름, 베르히테스가덴에서

제3판 서문

이 책의 초판과 제2판 사이에는 아홉 해가 흘렀지만, 제3판은 겨우 한 해 남짓 만에 필요해졌다. 이 변화를 기뻐할 까닭은 있다. 그러나 예전에 독자가 내 저작을 외면했던 것을 그 저작이 보잘것없다는 증거로 여기지 않았듯이, 지금 드러나는 관심에서 그 저작이 뛰어나다는 증거를 찾을 수도 없다.

학문적 지식의 진보는 『꿈의 해석』에도 영향을 미쳤다. 내가 1899년에 이 책을 쓸 때만 해도 「성 이론」은 아직 나와 있지 않았고, 복잡한 형태의 정신신경증을 분석하는 일도 겨우 걸음마 단계였다. 꿈의 해석은 신경증의 심리학적 분석을 돕게 되어 있었으나, 그 뒤로는 신경증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된 것이 거꾸로 꿈에 대한 우리의 견해에 되돌아와 작용했다. 꿈 해석 연구 자체도 이 책의 초판에서는 충분히 강조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계속 발전해 왔다. 나는 그 뒤로 나 자신의 경험에서, 또 W. 슈테켈을 비롯한 여러 사람의 저작에서 배워, 꿈에서 (아니 그보다는 무의식적 사고에서) 상징 표현이 차지하는 범위와 의의를 더 높이 평가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 한 해 동안 고려해야 할 것이 많이 쌓였다. 나는 본문 곳곳에 여러 대목을 끼워 넣고 각주를 덧붙여 이 새 재료를 제대로 다루려고 애썼다. 이렇게 보탠 것들이 때로 원래의 논의를 뒤틀어 놓을 듯하거나, 그런 도움을 받고도 원래 본문을 지금 우리 견해의 수준까지 끌어올리지 못했다면, 책에 난 빈틈을 너그러이 보아 달라고 청할 수밖에 없다. 그 빈틈들은 오늘날 우리

지식이 빠르게 발전하는 데서 생긴 결과요 그 발전을 알리는 징후일 뿐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나는 『꿈의 해석』의 다음 판들이 — 행여 그런 판이 요구된다면 — 이번 판과 어떤 다른 방향에서 달라질지도 감히 미리 말해 두고자 한다. 그 판들은 한편으로는 시, 신화, 언어 관용, 민속의 풍부한 재료에서 가려 뽑은 것들을 담아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꿈이 신경증 및 정신 질환과 맺는 관계를 더 깊이 다루어야 할 것이다.

오토 랑크 씨는 추가할 내용을 고르는 일과 교정쇄를 읽는 일로 내게 값진 도움을 주었다. 그에게, 그리고 여러모로 기여하고 잘못을 바로잡아 준 다른 많은 이들에게 고마운 빚을 지고 있다.

1911년 봄, 빈에서

영역자 서문

저자의 『히스테리와 기타 정신신경증에 관한 논문 선집』과 『성 이론에 관한 세 편의 에세이』[1]가 나온 뒤로 프로이트의 저작을 두고 많은 말과 글이 오갔다. 우리 독자 가운데 몇몇은 저자의 이론을 검증하고 활용해 보려고 성실히 노력했지만, 몹시 어려운 독일어를 막힘없이 읽지 못해 애를 먹었다. 지금까지 영어 독자가 읽을 수 있는 프로이트의 저작은 두 권뿐이었기 때문이다. 그런 이들에게 이 책은 더없이 값진 도움이 될 것이다. 물론 근래 우리 문헌에도 프로이트의 심리학을 다룬 글이 숱하게 나왔다.'[2] 그러나 이렇게 흩어진 논문들은 원저를 모르는 사람이 읽으면 깨우쳐 주기보다 헷갈리게 하는 일이 많다. 프로이트는 소책자 몇 권, 아니 그의 원저 한두 권을 읽는 것으로 통달할 수 있는 저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내가 누누이 해 온 말을 되풀이하겠다. 프로이트의 신경증 이론, 곧 『꿈의 해석』, 『성 이론에 관한 세 편의 에세이』, 『일상생활의 정신병리학』, 『농담과 무의식의 관계』를 철저히 익히지 않은 사람, 그리고 자신과 남의 꿈과 정신병리적 행위를 분석해 본 경험이 상당히 쌓이지 않은 사람은 누구도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방법을 쓰거나 평가할 참된 자격이 없다. 정상 심리학과 이상 심리학에서 철저한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것도 두말할 나위가 없다.

『꿈의 해석』은 저자의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저작이다. 저자가 자신의 정신분석 기법을 펼쳐 보이는 곳이 바로 이 책인데, 이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그 기법을 철저히 아는 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므로 이 책을 번역하는 어려운 일에 나선 것은 무엇보다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방법으로 실제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이들을 돕기 위해서였다. 실용적 목적을 떠나서 보더라도 이 책에는 심리학자와 일반 독자가 흥미를 느낄 만한 것이 많다. 근래 여러 해 동안 많은 유능한 관찰자가 꿈을 탐구해 왔지만 그 해명에 손에 잡히는 무언가를 보탠 이는 몇 되지 않으며, 꿈에서 신비를 벗겨 내고 그 수수께끼를 푼 사람은 프로이트였기 때문이다. 그는 꿈이 의미로 가득 차 있음을 보여 주었을 뿐 아니라, 꿈이 정상적인 정신생활과도 비정상적인 정신생활과도 긴밀하게 이어져 있음을 넉넉히 증명했다. 꿈 해석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비정상적인 정신 상태를 치료하는 데서 찾아야 한다. 꿈은 환각, 망상, 공포증, 강박, 그 밖의 정신병리적 상태에 숨은 기제를 우리에게 드러내 줄 뿐 아니라, 그것들을 없애는 가장 강력한 도구이기도 하다.[3]

원고를 읽어 주고, 번역에서 부딪힌 거의 넘을 수 없을 듯한 어려움들을 이겨 내도록 나를 도와준 F. C. 프레스콧 교수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표한다.

A. A. 브릴

뉴욕에서

---

1. A. A. 브릴 옮김(『신경정신질환 저널』 출판사).

2. 어니스트 존스, 제임스 J. 퍼트넘, 필자,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저작 참조.

3. 이 사실들을 보여 주는 예에 관해서는 나의 저서 『정신분석: 그 이론과 실제 적용』, W. B. 손더스 출판사, 필라델피아·런던 참조.

제1장 꿈 문제에 관한 학술 문헌[1]

이제부터 나는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심리학적 기법이 있다는 것, 그리고 이 방법을 적용하면 모든 꿈이 의미를 지닌 심리학적 구조물로 드러나 깨어 있는 상태의 심리 활동 안에 그 자리를 지정해 끼워 넣을 수 있는 것임을 증명하려 한다. 나아가 꿈을 낯설고 모호하게 만드는 과정들을 해명하고, 그 과정들을 실마리 삼아, 서로 힘을 합치기도 하고 서로 맞서기도 하면서 꿈을 빚어내는 심리적 힘들의 본성을 밝혀내려 애쓸 것이다. 여기까지 해내면 내 연구는 끝난다. 그 지점에서 꿈의 문제는 더 넓은 문제들과 만나게 되고, 그 문제들의 해결은 다른 재료를 가지고 시도해야 하기 때문이다.

나는 독자가 앞선 저자들의 업적과 꿈 문제를 둘러싼 오늘날 학계의 형편을 이미 알고 있다고 전제할 수밖에 없다. 이 논고를 써 나가는 동안 그것들로 되돌아갈 기회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수천 년 동안 애써 왔는데도 꿈을 학문적으로 이해하는 일은 거의 진척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점은 저자들이 하나같이 인정하는 바여서 개개인의 의견을 따로 인용할 필요도 없어 보인다. 책 끝 문헌 목록에 실린 글들에서 우리 주제에 관한 시사적인 관찰과 흥미로운 재료는 얼마든지 찾을 수 있지만, 꿈의 참된 본성에 관한 것이나 꿈의 수수께끼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결정적으로 풀어 주는 것은 거의 또는 전혀 없다. 교양 있는 일반인에게까지 전해진 것은 물론 그보다도 적다.

꿈을 심리학의 대상으로 다룬 최초의 책은 아리스토텔레스[1]의 것(『꿈과 꿈 해석에 관하여』)인 듯하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꿈이 신적인 성질은 아니지만 다이몬적인 성질을 지니며, 바르게 해석하기만 하면 실로 깊은 뜻을 담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꿈 생활의 몇 가지 특성도 알고 있었다. 이를테면 꿈이 잠자는 동안 느끼는 사소한 감각을 커다란 감각으로 바꾸어 놓는다는 것을 알았다(「몸의 이 부분이나 저 부분이 조금만 따뜻해져도, 사람은 자기가 불 속을 걸어가며 뜨거움을 느낀다고 상상한다」). 이로부터 그는, 몸에 변화가 막 시작되어 낮에는 알아차리지 못한 채 지나가더라도 꿈이 그 첫 징후를 의사에게 쉽게 누설해 줄 수 있으리라는 결론을 끌어냈다. 나는 준비가 모자라고 숙련된 도움도 얻지 못해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논고를 더 깊이 파고들 수 없었다.

누구나 알다시피 아리스토텔레스 이전의 고대인들은 꿈을 꿈꾸는 정신의 산물이 아니라 신이 불어넣은 것으로 여겼다. 그리고 꿈 생활을 평가할 때 어느 시대에나 보이는 서로 대립하는 두 흐름이 고대에 이미 눈에 띄었다. 고대인들은 꿈꾼 사람에게 경고하거나 앞날을 알려 주려고 보낸 참되고 값진 꿈과, 그를 그릇된 길로 이끌거나 파멸로 몰아넣으려는 헛되고 거짓되고 공허한 꿈을 구별했다.[2] 고대인의 이 전(前)과학적인 꿈 관념은 분명 그들의 인생관 전반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졌다. 그들의 인생관은 마음속에서만 실재하는 것을 외부 세계에 실재로 투사하곤 했다. 게다가 이 관념은 아침에 꿈이 남긴 기억이 깨어 있는 생활에 주는 주된 인상도 설명해 주었다. 이 기억 속에서 꿈은 나머지 심리 내용과 견주어 볼 때 어딘가 낯선 것, 말하자면 다른 세계에서 온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꿈이 초자연적인 데서 비롯한다는 이론을 오늘날에는 따르는 사람이 없으리라고 여긴다면 그 또한 잘못이다. 편협하고 신비주의적인 저자들은 모두 제쳐 두자. 한때 드넓었던 초자연의 영역에서 남은 잔재가 과학적 설명에 쓸려 나가기

전까지는, 그들이 그 잔재에 매달리는 것도 전적으로 정당하다. 그들 말고도, 모험적인 것이라면 무엇이든 꺼리는 명민한 사람들 가운데에도 꿈이라는 현상을 설명할 수 없다는 사실에 기대어 초인적인 힘이 존재하고 관여한다는 종교적 믿음을 세우기까지 하는 이들이 있다(하프너[32]). 몇몇 철학 학파, 이를테면 셸링 학파가 꿈 생활에 부여하는 타당성은 고대에 꿈의 신성(神性)이 의심받지 않던 일의 뚜렷한 메아리다. 꿈의 점술적인 힘, 곧 예언하는 힘에 관한 논의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지금까지 시도된 심리학적 설명이 쌓여 있는 재료를 감당해 내기에는 너무도 불충분하기 때문이다. 과학적 사고방식에 몸담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런 주장은 물리쳐야 한다고 아무리 강하게 느낀다 해도 말이다.

꿈 문제에 관한 우리의 학문적 지식은 그 역사를 쓰기가 무척 어렵다. 그 지식의 어떤 부분들이 아무리 값졌다 해도, 일정한 방향으로 나아간 진보를 알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뒤따르는 연구자들이 그 위에 계속 쌓아 올릴 수 있는, 확실한 성과로 다져진 토대는 세워지지 않았다. 오히려 새 저자는 저마다 같은 문제를 처음부터 새로 붙잡는다. 내가 저자들을 연대순으로 따라가며 각자가 꿈의 문제에 관해 품은 견해를 개관한다면, 이 주제에 관한 지식의 현재 상태를 명료하고 완결된 그림으로 그려 낼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저자가 아니라 주제를 따라 논의를 짜기로 했고, 꿈의 문제마다 그것을 풀기 위해 문헌에 나와 있는 재료를 인용하려 한다.

그러나 나는 여기저기 널리 흩어져 있고 다른 주제의 문헌과도 얽혀 있는 이 문헌을 모두 섭렵하지는 못했으니, 내 서술에서 근본적인 사실이나 중요한 관점이 빠지지만 않았다면 그것으로 만족해 달라고 독자에게 청할 수밖에 없다.

최근까지 대부분의 저자는 잠과 꿈을 한데 묶어 다루는 쪽으로 이끌렸고, 거기에 더해 정신병리학의 유사한 상태들이나 환각, 환영 따위의 꿈 비슷한 상태들도 으레 함께 다루었다. 반면에 더 최근의 저작들에는 주제에 좀 더 바짝 붙어서 꿈 생활의 단 한 가지 물음만을 대상으로 삼으려는 경향이 나타났다. 나는 이 변화가, 이처럼 어두운 문제에서는 세부 연구를 여럿 쌓아 가야만 해명과 합의에 이를 수 있다는 확신의 표현이라고 본다. 내가 여기서 내놓으려는 것도 바로 그런 세부 연구, 그중에서도 특별히 심리학적인 성격의 연구다. 잠의 문제는 본질적으로 생리학적 문제이므로[3] 나로서는 그것을 연구할 계기가 별로 없다. 심리 장치의 기능을 규정하는 조건들이 바뀐다는 점도 잠의 특성에 포함되어야 하겠지만 말이다. 그러므로 잠에 관한 문헌은 여기서 다루지 않겠다.

꿈이라는 현상 자체에 대한 학문적 관심은 부분적으로 서로 얽혀 있는 다음과 같은 물음들로 이어진다.

(가) 꿈과 깨어 있는 상태의 관계

막 잠에서 깬 사람은 소박하게 이렇게 판단한다. 꿈은, 다른 세계에서 온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꿈꾼 사람을 다른 세계로 데려갔다는 것이다. 꿈의 현상을 세심하고 분별 있게 기술해 준 옛 생리학자 부르다흐[8]는 자주 인용되는 한 대목(474쪽)에서 이 확신을 이렇게 표현했다. 「깨어 있는 생활은 그 시련과 기쁨, 즐거움과 괴로움을 안은 채 되풀이되는 법이 없다. 오히려 꿈은 우리를 그런 것에서 벗어나게 하려 한다. 우리 마음이 온통 한 가지 일로 가득 차 있을 때에도, 깊은 슬픔이 가슴을 찢어 놓았거나 어떤 과제가 우리 정신의 힘을 송두리째 요구하고 있을 때에도, 꿈은 우리에게 전혀 낯선 것을 주거나, 현실에서

몇 가지 요소만 가져다 조합하거나, 아니면 그저 우리 기분의 가락에 끼어들어 현실을 상징으로 나타낼 뿐이다.」

L. 슈트륌펠[66]도 어디서나 마땅히 높이 평가받는 연구서 『꿈의 본성과 기원』(16쪽)에서 같은 취지로 말한다. 「꿈꾸는 사람은 깨어 있는 의식의 세계에 등을 돌린다」(17쪽). 「꿈속에서는 깨어 있는 의식의 질서 정연한 내용과 그 정상적인 움직임에 대한 기억이 거의 완전히 사라진다」(19쪽). 「꿈속의 정신이 깨어 있는 상태의 규칙적이고 정상적인 내용과 경과에서 거의 완전히 고립되어 있다는 것…….」

그러나 압도적 다수의 저자는 꿈과 깨어 있는 생활의 관계를 이와 반대로 보았다. 이를테면 하프너[32]는 이렇게 쓴다(19쪽). 「무엇보다 꿈은 깨어 있는 상태의 연속이다. 우리 꿈은 언제나 바로 얼마 전까지 우리 의식 속에 있던 표상들과 결합한다. 주의 깊게 살펴보면 꿈이 전날의 체험과 이어져 있는 실마리를 거의 언제나 찾아낼 수 있다.」 바이간트[75]는 앞에서 인용한 부르다흐의 말을 정면으로 반박한다(6쪽). 「꿈이 우리를 일상생활에서 풀어 주기는커녕 곧장 일상생활로 도로 이끌어 간다는 것을 자주 관찰할 수 있고, 아마 대다수의 꿈이 그러할 것이기 때문이다.」 모리[48]는 간결한 공식으로 이렇게 말한다(56쪽). 「Nous rêvons de ce que nous avons vu, dit, désiré ou fait.」〔우리는 우리가 보고, 말하고, 바라고, 행한 것을 꿈꾼다.〕 예센[36]은 1855년에 펴낸 『심리학』(530쪽)에서 조금 더 자세히 말한다. 「꿈 내용은 개인의 인격에 따라, 나이와 성별과 신분과 교육과 습관에 따라, 그리고 지나온 삶 전체의 사건과 체험에 따라 많든 적든 정해진다.」

고대인들도 꿈 내용이 삶에 달려 있다는 점에 대해 같은 생각을 품었다. 라데슈토크[54]를 인용한다(139쪽). 「 크세르크세스가

그리스로 진군하기에 앞서 좋은 조언을 듣고 그 결심을 거두었는데도 꿈이 되풀이하여 원정을 부추기자, 페르시아인의 옛 합리적 꿈 해석가 가운데 한 사람인 아르타바노스는 꿈 영상에는 대개 깨어 있을 때 생각하던 것이 담긴다고 그에게 아주 적절하게 일러 주었다.」

루크레티우스의 교훈시 『사물의 본성에 관하여(De Rerum Natura)』(제4권 959행)에는 이런 구절이 나온다.

「Et quo quisque fere studio devinctus adhaeret,」〔저마다 대개 어떤 일에 마음이 묶여 매달려 있든,〕

「aut quibus in rebus multum sumus ante morati」〔우리가 앞서 어떤 일에 오래 머물렀든,〕

「atque in ea ratione fuit contenta magis mens,」〔그리하여 마음이 그 일에 더 골몰해 있었든,〕

「in somnis eadem plerumque videmur obire;」〔꿈속에서 우리는 대개 같은 일을 하는 듯 보인다.〕

「causidici causas agere et componere leges,」〔변호인은 소송을 변론하고 법조문을 짜는 듯하고,〕

「induperatores pugnare ac proelia obire,」〔장군은 싸우고 전투를 치르는 듯하다,〕 등등.

키케로(『예언에 관하여(De Divinatione)』 제2권)도 아주 비슷한 말을 하고, 훨씬 뒤에 모리도 같은 말을 한다.

「Maximeque reliquiae earum rerum moventur in animis et agitantur, de quibus vigilantes aut cogitavimus aut egimus.」〔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깨어 있을 때 생각했거나 행한 일들의 잔재가 마음속에서 움직이며 요동친다.〕

꿈 생활과 깨어 있는 생활의 관계를 두고 이 두 견해가 드러내는 모순은 참으로 풀 길이 없어 보인다. 그러니 여기서 F. W. 힐데브란트

[35](1875)의 서술을 소개해 두어도 좋을 것이다. 그는 꿈의 특성들은 대체로 「겉보기에 모순으로까지 번져 가는 일련의 대조」라고 부르는 것 말고는 달리 기술할 길이 없다고 본다(8쪽). 「 이 대조 가운데 첫째는, 한편으로는 꿈이 참되고 실제적인 삶에서 엄격히 고립되고 격리되어 있다는 점, 다른 한편으로는 둘이 끊임없이 서로를 침범하며 늘 서로에게 기대고 있다는 점으로 이루어진다. 꿈은 깨어 있는 동안 체험하는 현실과 완전히 갈라져 있는 무엇이다. 현실의 삶과는 건널 수 없는 깊은 틈으로 갈라진 채 밀봉된 하나의 존재라고 불러도 좋을 것이다. 꿈은 우리를 현실에서 풀어 주고, 현실에 대한 정상적인 기억을 꺼 버리며, 우리를 다른 세계, 전혀 다른 삶 속에 데려다 놓는다. 그 삶은 근본적으로 현실과 아무런 공통점이 없다…….」 힐데브란트는 이어서, 잠이 들 때 우리의 존재 전체가 그 모든 존재 형식과 함께 「보이지 않는 뚜껑문 아래로 꺼지듯 」 사라진다고 주장한다. 이를테면 꿈속에서 우리는 유폐된 나폴레옹에게 일품 모젤 포도주를 바치려고 세인트헬레나로 항해하고 있다. 전(前) 황제는 우리를 더없이 다정하게 맞아 주고, 깨어나면서 이 흥미로운 착각이 깨지면 우리는 거의 서운하기까지 하다. 그러면 이제 꿈의 상황을 현실과 견주어 보자. 꿈꾼 사람은 포도주 상인이었던 적이 한 번도 없고 그렇게 되고 싶은 마음도 없다. 그는 바다 항해를 해 본 적이 없으며, 설령 그런 항해를 한다 해도 세인트헬레나는 그가 행선지로 고를 리 없는 곳이다. 꿈꾼 사람은 나폴레옹에게 아무런 호감도 없고, 오히려 애국심에서 우러난 강한 증오를 품고 있다. 끝으로 나폴레옹이 그 섬에서 죽었을 때 꿈꾼 사람은 아직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다. 그러니 그가 나폴레옹과 개인적으로 무슨 관계를 맺었을 가능성은 아예 없다. 이처럼 꿈의 체험은 서로 완벽하게 들어맞으며 이어지는 두 시기 사이에 끼워 넣어진 낯선 무엇으로 나타난다.

「그렇지만」 하고 힐데브란트는 말을 잇는다. 「그 반대도 겉보기에 똑같이 참되고 옳다. 나는 이 격리 및 고립과 나란히, 그럼에도 가장 긴밀한 관계와 연관이 있을 수 있다고 믿는다. 꿈은 무엇을 내놓든 그 재료를 현실에서, 그리고 이 현실을 둘러싸고 펼쳐지는 정신생활에서 찾아낸다고 말해도 무방하다. 꿈이 아무리 기이해 보여도 결코 현실에서 떨어져 나갈 수는 없으며, 꿈의 가장 숭고한 구조물도 가장 익살맞은 구조물도 그 기본 재료를 언제나 외부 세계에서 우리가 눈으로 본 것에서, 아니면 전에 우리가 깨어 있을 때의 생각 어딘가에 자리 잡았던 것에서 빌려 와야 한다. 달리 말해 그 재료는 우리가 객관적으로든 주관적으로든 이미 체험한 것에서 가져온 것이어야 한다.」

(나) 꿈의 재료 — 꿈속의 기억

꿈 내용을 이루는 재료는 모두 어떤 식으로든 체험에서 비롯하며 꿈속에서 재생되거나 기억된다는 것, 적어도 이것만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진리로 받아들여도 좋다. 그러나 꿈 내용과 현실 사이의 이런 연관이, 비교를 해 보기만 하면 뻔한 결과로 쉽사리 드러나리라고 생각한다면 잘못이다. 오히려 그 연관은 공들여 찾아야 하며, 많은 경우 오랫동안 용케 발견을 피해 간다. 그 까닭은 꿈속 기억이 드러내는 여러 특성에 있다. 이 특성들은 누구나 아는 것이면서도 지금까지 설명을 완전히 피해 왔다. 이것들을 샅샅이 살펴볼 만하다.

꿈 내용에 어떤 것이 나타났는데, 나중에 깨어 있을 때 그것이 자기 지식이나 체험에 속한다는 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일이 흔히 있다. 문제의 그 일에 대해 꿈꾼 것은 잘 기억하면서도, 그것을 체험한 사실이나 그 시기는 떠올리지 못한다. 그래서 꿈꾼 사람은 꿈이 어떤 원천에서 길어 왔는지 알지 못한 채 어둠 속에 있고, 꿈 쪽에 독자적으로

무언가를 만들어 내는 활동이 있다고 믿고 싶은 유혹마저 느낀다. 그러다가 흔히 한참 뒤에야 새로운 일이 일어나, 잃어버린 줄 알았던 예전 체험을 기억 속에 불러오고 그렇게 꿈의 원천을 드러낸다. 그러니 깨어 있는 동안에는 기억에서 빠져나가 있던 무언가를 꿈속에서는 알고 기억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

델뵈프[16]는 자기 체험에서 이런 종류의 특히 인상적인 예를 들려준다. 그는 꿈에서 눈에 덮인 자기 집 안뜰을 보았고, 눈 속에 파묻혀 반쯤 얼어붙은 작은 도마뱀 두 마리를 발견했다. 동물을 아끼는 그는 도마뱀들을 집어 들어 몸을 녹여 준 다음, 담벼락에 그것들의 자리로 마련해 둔 틈새에 도로 넣어 주었다. 담에 자라던 작은 고사리 잎도 몇 장 주었는데, 도마뱀들이 그 잎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꿈속에서 그는 그 식물의 이름을 알고 있었다. Asplenium ruta muralis였다. 꿈은 이어졌고, 한동안 딴 데로 흘렀다가 다시 도마뱀에게로 돌아왔다. 그러자 놀랍게도 델뵈프의 눈에 다른 작은 짐승 두 마리가 남은 고사리에 달려드는 것이 보였다. 탁 트인 들판 쪽으로 눈을 돌리자 다섯째, 여섯째 도마뱀이 담의 구멍으로 달려 들어가고 있었고, 마침내 거리는 도마뱀 행렬로 뒤덮였는데, 모두 한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 등등.

깨어 있을 때 델뵈프가 아는 식물의 라틴어 이름은 몇 개 되지 않았고, Asplenium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다. 그런데 그는 이런 이름의 고사리가 실제로 있으며, 올바른 이름은 Asplenium ruta muraria이고 꿈이 그것을 조금 왜곡했다는 것을 확인하고 크게 놀랐다. 우연의 일치라고는 거의 생각할 수 없었다. 그러나 꿈속에서 Asplenium이라는 이름을 어디서 알게 되었는지는 델뵈프에게 수수께끼로 남았다.

꿈을 꾼 것은 1862년이었다. 열여섯 해 뒤, 이 철학자는 한 친구의 집에 머무르다가 말린 식물을 담은 작은 앨범 하나를 보게 되었다.

스위스 여러 곳에서 관광객에게 기념품으로 파는 앨범과 비슷한 것이었다. 불현듯 어떤 기억이 떠올랐다. 그가 식물 표본첩을 펼쳐 보니 꿈에 나왔던 Asplenium이 거기 있었고, 곁들여 적힌 라틴어 이름에서 자기 필적을 알아볼 수 있었다. 이제 연관을 더듬어 갈 수 있었다. 1860년, 그러니까 도마뱀 꿈을 꾸기 두 해 전에 이 친구의 누이가 신혼여행 중에 델뵈프를 찾아왔다. 그때 그녀는 그 친구에게 주려던 이 앨범을 가지고 있었고, 델뵈프는 식물학자 한 사람이 불러 주는 대로 말린 식물마다 그 아래에 라틴어 이름을 적어 주는 수고를 했다.

이 귀중한 사례를 보고할 수 있게 해 준 운 좋은 우연은, 델뵈프가 이 꿈의 또 다른 부분을 잊혔던 원천까지 거슬러 추적할 수 있게도 해 주었다. 1877년 어느 날 그는 어느 삽화 잡지의 묵은 합본 한 권을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거기에 1862년에 꿈에서 본 그대로 도마뱀 행렬 전체가 그려져 있었다. 그 합본에는 1861년이라는 날짜가 적혀 있었고, 델뵈프는 자기가 창간호부터 그 잡지를 구독했다는 것을 기억해 낼 수 있었다.

꿈이 깨어 있는 상태에서는 닿을 수 없는 기억을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주목할 만하고 이론적으로도 중요한 사실이어서, 다른 「기억 과잉 꿈(Hypermnesic Dreams)」을 몇 가지 더 보고하여 이 사실에 더 큰 주의를 촉구하고 싶다. 모리[48]의 이야기에 따르면, 한동안 낮에 뮈시당이라는 낱말이 곧잘 그의 머리에 떠올랐다. 그는 그것이 프랑스의 한 도시 이름이라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몰랐다. 어느 날 밤 그는 어떤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는 꿈을 꾸었는데, 그 여자는 자기가 뮈시당에서 왔다고 하면서 그 도시가 어디 있느냐는 그의 물음에 이렇게 대답했다. 「뮈시당은 도르도뉴 도(道)의 군청 소재지예요.」 깨어난 모리는 꿈에서 얻은 이 정보를 조금도 믿지 않았다. 그러나 지리 사전을 찾아보니 그 정보는 완벽하게 옳았다. 이 경우 꿈이 더 뛰어난

지식을 지녔다는 것은 확인되지만, 그 지식의 잊힌 원천은 찾아내지 못했다.

예센[36]은 더 먼 옛날에 있었던 아주 비슷한 꿈 이야기를 전한다(55쪽). 그 밖에 여기서 아버지 스칼리제르의 꿈을 들 수 있다(헤닝스, 앞의 책, 300쪽). 그는 베로나의 이름난 사람들을 기리는 시를 지었는데, 꿈에 브루그놀루스라는 사람이 나타나 자기가 빠졌다고 불평했다. 스칼리제르는 그런 사람에 대해 들어 본 기억이 없었지만 그를 기리는 시구 몇 줄을 지었고, 나중에 그의 아들이 베로나에서, 예전에 브루그놀루스라는 사람이 그곳에서 비평가로 이름을 떨쳤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마이어스는 이런 기억 과잉 꿈을 한가득 모아 『심령연구학회 회보』에 발표했다고 하는데, 아쉽게도 나는 그것을 구해 볼 수 없다. 꿈을 다루어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꿈이 깨어 있는 사람은 모르는 일을 알고 기억한다는 증거를 보여 주는 것이 아주 흔한 현상임을 인정하리라고 나는 믿는다. 뒤에서 이야기할 신경증 환자들에 대한 정신분석적 연구에서, 나는 매주 한 번이 넘게 환자들의 꿈을 근거로 삼아, 그들이 인용구나 음란한 표현 따위를 잘 알고 있으며 깨어 있는 상태에서는 잊어버렸는데도 꿈속에서 그것을 쓴다는 것을 본인에게 납득시킬 수 있다. 여기서는 꿈에 그 지식을 가져다준 원천을 쉽게 찾아낼 수 있었던 까닭에, 기억 과잉 꿈의 간단한 사례 하나를 들겠다.

한 환자가 길게 이어지는 꿈을 꾸었는데, 그 속에서 그는 카페에서 「콘투슈프카(Kontuszówka)」를 주문했다. 그는 이 꿈을 이야기한 뒤, 그런 이름은 들어 본 적이 없는데 무슨 뜻이냐고 물었다. 나는 콘투슈프카가 폴란드 술이며, 그 이름은 오래전부터 광고에서 보아 나도 익히 알고 있으니 그가 꿈에서 지어냈을 리 없다고 대답해 줄 수 있었다. 환자는 처음에는 내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며칠 뒤 꿈에서 본

카페 일을 실제로 해 보고 나서, 그는 길모퉁이의 간판에서 그 이름을 발견했다. 몇 달 동안 적어도 하루 두 번은 지나다녀야 했던 길모퉁이였다.

꿈 요소 몇몇의 출처를 알아내는 일이 얼마나 우연에 크게 달려 있는지, 나는 내 꿈에서 배웠다. 이를테면 이 책을 쓰기 전 여러 해 동안, 본 기억이 나지 않는 아주 단순한 모양의 교회 탑 영상이 나를 따라다녔다. 그러다가 잘츠부르크와 라이헨할 사이의 작은 역에서 불현듯 그 탑을 틀림없이 알아보았다. 1890년대 후반의 일이었는데, 나는 1886년에 처음으로 그 길을 지나간 적이 있었다. 그 뒤 여러 해가 지나 이미 꿈 연구에 한창 몰두해 있을 무렵, 어느 독특한 장소의 꿈 영상이 자꾸 되풀이되는 바람에 나는 꽤 성가셨다. 나는 그것을 내 몸을 기준으로 한 일정한 위치 관계 속에서 보았다 — 내 왼쪽으로, 어두운 공간이 있고 거기서 기괴한 사암 조각상 여럿이 두드러져 나와 있었다. 썩 믿음이 가지 않는 어렴풋한 기억이 그것은 지하 맥줏집 입구라고 일러 주었지만, 이 꿈 영상의 의미도 출처도 나는 설명할 수 없었다. 1907년에 나는 아쉽게도 1895년 이후로 다시 가 보지 못했던 파도바에 우연히 가게 되었다. 이 아름다운 대학 도시를 처음 찾았을 때는 흡족하지 못했다. 마돈나 델라레나 성당에 있는 조토의 프레스코화를 보지 못했으니, 그리로 가던 길에 그 작은 성당이 그날은 문을 닫는다는 말을 듣고 발길을 돌렸던 것이다. 열두 해 뒤 두 번째로 찾아갔을 때 나는 그때 놓친 것을 벌충하리라 마음먹고, 무엇보다 먼저 마돈나 델라레나로 길을 나섰다. 그리로 이어지는 거리의 내 왼쪽에서, 아마도 1895년에 내가 발길을 돌렸던 바로 그 자리에서, 나는 꿈에서 그토록 자주 보았던 그 장소를 사암 조각상들과 함께 발견했다. 그것은 실제로 어느 음식점 정원의 입구였다.

꿈이 재생할 재료, 그것도 일부는 깨어 있을 때의 생각 속에서 떠오르지도 쓰이지도 않는 재료를 길어 오는 원천 가운데 하나는 어린 시절에 있다. 이 점을 관찰하고 강조한 저자 몇 사람만 인용하겠다.

힐데브란트[35](23쪽): 「꿈이 때로 놀라운 재생 능력으로 아주 이른 시기의 먼 체험, 심지어 잊힌 체험까지 정신에 되살려 놓는다는 것은 이미 분명하게 인정된 바 있다.」

슈트륌펠[66](40쪽): 「꿈이 때로, 아주 어린 시절의 체험 위에 훗날의 세월이 쌓아 올린 가장 깊고 무거운 지층 사이에서, 말하자면 어떤 장소와 사물과 인물의 영상을 전혀 손상되지 않은 채 처음의 싱싱함 그대로 끌어낸다는 것을 떠올리면 이 문제는 더욱 흥미로워진다. 이것은 생겨날 때 생생하게 의식되었거나 강한 심리적 타당성을 띠고 새겨졌다가, 나중에 꿈에서 진짜 회상으로 돌아와 깨어난 의식에 기쁨을 주는 인상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오히려 꿈 기억의 깊은 곳에는 인물, 사물, 장소, 어린 시절 체험의 영상 가운데, 의식된 정도가 미미하고 심리적 가치는 전혀 없었거나, 아니면 그 둘을 오래전에 잃어버린 영상들도 들어 있다. 그래서 그것들은 예전의 출처가 밝혀질 때까지는 꿈에서나 깨어 있는 상태에서나 전혀 낯설고 알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폴켈트[72](119쪽): 「유년기와 청년기의 회상이 얼마나 쉽게 꿈속에 들어오는지는 특히 주목할 만하다. 우리가 오래전에 생각하기를 그만둔 것, 오래전에 우리에게 아무 중요성도 없게 된 것을 꿈은 끊임없이 다시 불러낸다.」

주지하다시피 유년기의 재료는 대개 의식적 기억의 빈틈을 차지하고 있는데, 꿈이 이 재료를 마음대로 부리는 덕분에 흥미로운 기억 과잉 꿈들이 생겨난다. 그 가운데 몇 가지를 여기 보고하겠다.

모리[48]가 전하는 바에 따르면(92쪽), 그는 어린 시절 고향 도시 모에서 이웃한 트릴포르로 자주 갔는데, 그곳에서 아버지가 다리 공사를

감독하고 있었다. 어느 날 밤 꿈이 그를 트릴포르로 데려갔고, 그는 다시 그 도시의 거리에서 놀고 있었다. 무슨 제복 같은 것을 입은 남자 하나가 그에게 다가왔다. 모리가 이름을 묻자 그 남자는 자기 이름이 C――이며 다리 경비원이라고 소개했다. 잠에서 깬 모리는 그 회상이 진짜인지 여전히 의심스러워서, 어린 시절부터 곁에 있던 늙은 하녀에게 그런 이름의 남자를 기억하느냐고 물었다. 「 그럼요. 」 하는 대답이 돌아왔다. 「 그 사람은 그때 아버님께서 놓고 계시던 다리의 파수꾼이었지요.」

모리는 꿈에 나타나는 유년기 회상이 얼마나 믿을 만한지를 그에 못지않게 멋지게 보여 주는 예를 하나 더 전한다. 어린 시절 몽브리종에서 살았던 F―― 씨는 스물다섯 해 만에 고향과 집안의 옛 벗들을 찾아가기로 했다. 떠나기 전날 밤 그는 꿈에서 목적지에 이르러 몽브리종 근처에서 얼굴을 모르는 한 남자를 만났는데, 그 남자는 자기가 F. 씨이며 그의 아버지의 친구라고 했다. 꿈꾼 사람은 어렸을 때 그런 이름의 신사를 알았다는 것은 기억했지만, 깨어나서는 그 얼굴을 더는 떠올릴 수 없었다. 며칠 뒤 정말로 몽브리종에 도착한 그는 모르는 곳이라 여겼던 꿈속의 장소를 찾아냈고, 거기서 한 남자를 만났는데 곧바로 꿈에 나온 그 F. 씨임을 알아보았다. 실제 인물은 꿈 영상 속의 사람보다 나이가 더 들었을 뿐이었다.

여기서, 기억된 인상이 연상으로 대체된 내 꿈 하나를 이야기해도 좋겠다. 꿈에서 나는 어떤 사람을 보았는데, 꿈을 꾸는 동안 그가 내 고향 마을의 의사라는 것을 알아보았다. 얼굴은 흐릿했고, 지금도 이따금 만나는 학창 시절 선생님 한 분의 영상과 뒤섞여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연상 관계가 있는지는 깨어나서도 알아낼 수 없었다. 그러나 어머니에게 내가 아주 어렸을 때의 그 의사에 관해 물어보고서, 그가 외눈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꿈속에서 그 의사의 모습을

가리고 있던 내 선생님도 외눈이었다. 나는 서른여덟 해 동안 그 의사를 보지 못했고, 턱에 난 흉터를 보면 그의 도움이 떠오를 법도 했건만 내가 아는 한 깨어 있을 때 그를 생각한 적도 없다.

꿈속에서 유년기 인상이 맡는다고 하는 막대한 역할과 균형을 맞추려는 듯이, 많은 저자는 대다수의 꿈이 가장 최근의 요소를 보여 준다고 주장한다. 이를테면 로베르트[55]는 정상적인 꿈은 대개 최근 며칠의 인상만을 다룬다고 단언한다(46쪽). 하기야 알고 보면 로베르트가 내세운 꿈 이론은 오래된 인상은 뒤로 밀어내고 최근의 인상은 앞으로 끌어낼 것을 절대적으로 요구한다. 그렇지만 로베르트가 주장하는 사실은 실제로 있다. 나 자신의 연구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미국 저자 넬슨[50]은 꿈에서 가장 자주 발견되는 인상은 이삼일 전의 것이라고 생각한다. 꿈 바로 전날의 인상은 아직 충분히 약해지지도 멀어지지도 않았다는 듯이 말이다.

꿈 내용과 깨어 있는 상태가 긴밀하게 이어져 있다고 확신하는 많은 저자는 한 가지 사실에 주목한다. 깨어 있는 정신을 강하게 사로잡았던 인상은 깨어 있을 때의 사고 작업에서 어느 정도 밀려난 뒤에야 꿈에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래서 대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아직 슬픔에 짓눌려 있는 동안에는 그 사람의 꿈을 꾸지 않는다. 그런데 가장 최근의 관찰자 가운데 한 사람인 핼럼 양[33]은 바로 그 반대의 양상을 보여 주는 예들을 모았고, 이 점에 관해 개인 심리학의 권리를 주장한다.

꿈속 기억의 셋째 특성이자 가장 주목할 만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특성은 재생되는 재료를 고르는 데서 드러나니, 가장 의미 있는 회상뿐 아니라 가장 사소하고 피상적인 회상에도 무게가 실리는 것이다. 이 점에 관해서는 가장 강한 어조로 놀라움을 표현한 저자들을 인용하겠다.

힐데브란트[35](11쪽): 「왜냐하면 꿈이 대개 전날의 크고 뿌리 깊은 사건이나 강력하고 절박한 관심사에서가 아니라 하찮은 일에서, 곧

최근의 체험이나 더 먼 과거에서 나온 가장 쓸모없는 조각에서 그 요소를 가져온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집안에 더없이 충격적인 죽음이 닥치면 그 인상 때문에 우리는 밤늦도록 잠을 이루지 못한다. 그런데도 그 죽음은 우리 기억에서 지워져 있다가, 잠에서 깨는 첫 순간에야 우리를 짓누르는 힘으로 되돌아온다. 반면에 지나가던 낯선 사람의 이마에 난 사마귀는, 그 사람이 시야에서 사라진 뒤로 우리가 한순간도 생각하지 않았는데도 우리 꿈에서 제 몫을 한다.」

슈트륌펠[66](39쪽): 「……꿈을 분석해 보면, 전날이나 그 전날의 사건에서 나온 것이긴 하지만 깨어 있는 상태에서는 너무도 하찮고 쓸모없어서 드러나자마자 곧 망각 속으로 녹아드는 요소들이 밝혀지는 그런 경우들. 그런 것들은 우연히 들은 남의 말이나 건성으로 본 행동일 수도 있고, 사물이나 사람을 스치듯 지각한 것이나 책에서 본 한 구절 따위일 수도 있다.」

해블록 엘리스[23](727쪽): 「깨어 있는 생활의 깊은 감정, 우리가 의지적인 정신 에너지를 주로 쏟는 물음과 문제는 대개 꿈 의식에 곧바로 나타나지 않는다. 가까운 과거에 관한 한, 꿈에 다시 나타나는 것은 대부분 일상생활의 하찮고 우연하고 『잊힌』 인상들이다. 가장 강렬하게 깨어 있는 심리 활동이 가장 깊이 잠드는 활동이다.」

빈츠[4](45쪽)는 앞에서 말한 꿈속 기억의 특성들을 계기로, 자신도 찬동했던 꿈 설명들에 불만을 드러낸다. 「그리고 정상적인 꿈도 비슷한 물음을 던진다. 우리는 왜 뚜렷한 까닭도 없이 까마득히 뒤에 놓인 거의 잊힌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는 대신, 늘 지난 며칠의 기억 인상을 꿈꾸지 않는가? 꿈속에서 의식은 왜 그토록 자주 사소한 기억 이미지의 인상을 되살리는 반면, 체험의 가장 예민한 기록을 간직한 뇌세포들은 깨어 있는 동안 바로 얼마 전에 급격히 되살아나 흥분하지 않은 한 대부분 꼼짝 않고 마비된 채로 있는가?」

꿈 기억은 일상 체험 가운데 사소한, 그래서 눈여겨보지 않은 세부를 묘하게 편애한다. 그 탓에 우리가 보통은 꿈이 깨어 있는 상태에 기대고 있다는 사실을 아예 간과하거나, 적어도 개별 사례에서 그것을 증명하기 어려워지리라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리하여 휘턴 콜킨스 양[12]은 자신과 친구의 꿈을 통계적으로 다루면서, 전체의 11퍼센트가 깨어 있는 상태와 아무 관계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 기원을 추적하는 데 시간과 재료를 충분히 들이기만 하면 우리의 꿈 영상은 모두 발생적으로 설명할 수 있으리라는 힐데브란트의 주장은 분명 옳았다. 물론 그는 이것을 「더없이 지루하고 보람 없는 일」이라고 부른다. 그 일은 기껏해야 기억의 방 가장 외진 구석에서 온갖 쓸모없는 심리적 재료를 들추어내고, 아마 나타난 지 한 시간 만에 묻혀 버렸을 먼 과거의 아주 사소한 순간들을 밝혀내는 데 그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통찰력 있는 저자가, 첫머리가 그토록 가망 없어 보였던 그 길을 따라가기를 삼간 것은 아쉽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그 길은 그를 곧장 꿈 문제의 한복판으로 이끌었을 것이다.

꿈속에서 기억이 보이는 행태는 기억 일반에 관한 모든 이론에 틀림없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것은 「우리가 한번 심리적으로 소유했던 것은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숄츠[59])는 것을 가르쳐 준다. 또는 델뵈프의 표현을 빌리면 「que toute impression même la plus insignifiante, laisse une trace inaltérable, indéfiniment susceptible de reparaître au jour,」〔아무리 하찮은 인상이라도 모든 인상은 변하지 않는 흔적을 남기며, 그 흔적은 언제까지고 다시 햇빛 아래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신생활의 다른 수많은 병리적 현상도 우리를 이 결론으로 몰아간다. 그러면 이제 꿈속 기억의 이 비상한 능력을 마음에 새겨 두자. 그래야 뒤에서 언급할 몇몇 꿈 이론이 꿈의 부조리와 두서없음을 우리가 낮에 알던 것의 부분적 망각으로

설명하려 애쓸 때 떠안을 수밖에 없는 모순들을 생생하게 알아볼 수 있다.

꿈꾸는 현상을 아예 기억 현상으로 환원하여, 꿈을 밤에도 쉬지 않으며 그 자체가 목적인 재생 활동이 드러난 것으로 보자는 생각까지 해 볼 수 있을지 모른다. 필츠[51]가 내놓은 것 같은 견해가 이를 뒷받침할 것이다. 그 견해에 따르면, 깊은 잠 속에서 꿈이 재생하는 인상은 가장 먼 과거에 속하는 반면 아침 무렵에 재생되는 인상은 최근에 생긴 것이라는 사실로 보아, 꿈꾸는 시각과 꿈 내용 사이에 긴밀한 관계가 있음을 증명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견해는 기억해야 할 재료를 꿈이 다루는 방식 때문에 처음부터 그럴듯하지 않다. 슈트륌펠[66]은 꿈속에서는 체험이 되풀이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정당하게 우리의 주의를 돌린다. 물론 꿈은 그쪽으로 애를 쓰기는 한다. 그러나 다음 고리가 빠져 있거나, 바뀐 모습으로 나타나거나, 전혀 새로운 것으로 대체된다. 꿈은 재생의 조각만을 보여 준다. 이것이 규칙이라 할 만큼 흔해서 이론에 적용해도 될 정도다. 그래도 꿈이 깨어 있을 때의 기억만큼이나 빠짐없이 한 사건을 되풀이하는 예외가 있다. 델뵈프는 자기 대학 동료 한 사람이 기적처럼 사고를 면했던 위험한 마차 여행을 꿈속에서 세세한 데까지 모두 되풀이했다고 전한다. 콜킨스 양[12]은 내용이 전날의 일을 정확히 재생한 꿈 두 개를 언급한다. 그리고 나도 뒤에서 기회를 보아, 내가 알게 된 사례 하나를 보고하겠다. 어린 시절의 체험이 바뀌지 않은 채 꿈에 돌아온 사례다.[4]

(다) 꿈 자극과 꿈의 원천

꿈 자극과 꿈의 원천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꿈은 위장에서 나온다」는 속담을 끌어와 설명할 수 있다. 이 생각 속에는 꿈을 수면이 방해받은

결과로 보는 이론이 숨어 있다. 잠자는 동안 무언가 방해하는 것이 생기지 않았다면 우리는 꿈을 꾸지 않았을 것이고, 꿈은 이 방해에 대한 반응이라는 것이다.

저자들의 서술에서 가장 많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꿈을 일으키는 원인에 대한 논의다. 꿈이 생물학적 연구의 대상이 되고 나서야 비로소 이 문제가 떠오를 수 있었다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꿈을 신의 계시로 여긴 고대인들에게는 꿈의 자극원을 찾아 나설 까닭이 없었다. 그들에게 꿈은 신적인 힘이나 다이몬적인 힘의 뜻에서 나오는 것이었고, 꿈의 내용은 그 힘들이 알고 있거나 뜻한 바의 산물이었다. 그러나 과학은 곧 꿈을 일으키는 자극이 언제나 같은지 아니면 여러 가지일 수 있는지를 묻기 시작했고, 그리하여 꿈의 인과적 설명이 심리학의 몫인지 아니면 오히려 생리학의 몫인지를 묻는 데까지 나아갔다. 대부분의 저자는 수면을 방해하는 원인, 따라서 꿈의 원천이 여러 가지 성질의 것일 수 있으며, 신체적 자극과 정신적 자극이 모두 꿈 유발 요인의 역할을 맡을 수 있다고 가정하는 듯하다. 어느 꿈의 원천을 더 중시하느냐, 원천들의 서열을 어떻게 매기느냐, 나아가 꿈이 생겨나는 데 그것들이 저마다 얼마나 중요하냐를 두고서는 의견이 크게 엇갈린다.

꿈의 원천을 빠짐없이 열거한 곳에서는 결국 네 가지 형태를 만나게 되며, 이 넷은 꿈을 분류하는 데에도 쓰인다.

I. 외적(객관적) 감각 자극.

II. 내적(주관적) 감각 자극.

III. 내적(기관적) 신체 흥분.

IV. 순수하게 심리적인 자극원.

I. 외적 감각 자극. — 아들 슈트륌펠은, 잘 알려져 있듯이, 피부 전체의 감각을 잃고 몇몇 고등 감각 기관까지 마비된 한 환자를 관찰하여 보고했다. 그의 아버지는 이 주제에 관한 저술로 꿈의 문제에서 이미

여러 번 우리의 길잡이가 되어 준 철학자다. 이 환자는 외부 세계로 통하는 얼마 남지 않은 감각 통로마저 막히면 잠에 빠져들었다. 우리도 잠들고 싶을 때면 슈트륌펠의 실험과 비슷한 상황을 만들려고 애쓰곤 한다. 가장 중요한 감각 통로인 눈을 감고, 나머지 감각에는 거기에 작용하는 모든 자극과 자극의 모든 변화가 닿지 않도록 힘쓴다. 그러고 나면 잠이 드는데, 이 준비가 완벽하게 성공하는 일은 결코 없다. 우리는 감각 기관에서 자극을 완전히 떼어 놓을 수도 없고, 감각 기관의 흥분성을 완전히 꺼 버릴 수도 없다. 언제라도 더 강한 자극에 잠이 깰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정신이 잠자는 동안에도 물질세계와 끊임없이 교류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줄 것이다. 잠자는 동안 우리에게 닿는 감각 자극은 쉽게 꿈의 원천이 될 수 있다.

이런 성질의 자극은 무척 많다. 잠자는 상태가 가져오거나 적어도 이따금 잠자는 상태 때문에 생겨서 피할 수 없는 자극에서부터, 잠을 끝내기에 알맞거나 아예 잠을 끝내도록 마련된, 우연히 닥치는 깨우는 자극에 이르기까지 그 폭도 넓다. 이를테면 강한 빛이 눈으로 파고들 수도 있고, 어떤 소리가 들려올 수도 있으며, 냄새를 풍기는 어떤 물질이 코의 점막을 자극할 수도 있다. 잠결에 저절로 뒤척이다가 몸의 일부를 드러내 차가운 감각에 내맡길 수도 있고, 자세를 바꾸다가 압박 감각과 촉각을 일으킬 수도 있다. 파리가 물 수도 있고, 밤에 일어난 작은 사고가 한꺼번에 여러 감각을 덮칠 수도 있다. 관찰자들은 깨어나서 확인한 자극과 꿈 내용의 일부가 서로 들어맞아 그 자극을 꿈의 원천으로 알아볼 수 있었던 꿈을 줄줄이 지적해 왔다.

여기서 예센[36]이 모은 꿈 몇 가지를 인용하겠다(527쪽). 모두 다소간 우연한 객관적 감각 자극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꿈이다. 「흐릿하게 지각된 소리는 모두 그에 상응하는 꿈 영상을 낳는다. 천둥이 우르릉거리면 우리는 전투의 한복판으로 들어가고, 수탉이 우는

소리는 사람이 겁에 질려 지르는 비명으로 바뀔 수 있으며, 문이 삐걱거리는 소리는 도둑이 집에 침입하는 꿈을 불러낼 수 있다. 밤중에 이불 한 장이 흘러내리면 알몸으로 돌아다니거나 물에 빠지는 꿈을 꿀 수 있다. 침대에 비스듬히 누워 발이 가장자리 밖으로 삐져나오면, 무시무시한 낭떠러지 끝에 서 있거나 가파른 높이에서 떨어지는 꿈을 꿀 수 있다. 어쩌다 머리가 베개 밑으로 들어가면, 커다란 바위가 머리 위에 걸려 있다가 그 무게로 우리를 짓뭉개려 한다고 상상할 수도 있다. 정액이 쌓이면 관능적인 꿈을 꾸고, 국부의 통증은 학대를 당하거나, 적의 공격을 받거나, 뜻하지 않은 사고로 몸을 다친다는 생각을 낳는다.」

「 마이어(『 몽유 해명 시론(Versuch einer Erklärung des Nachtwandelns) 』 , 할레, 1758, 33쪽)는 언젠가 여러 사람에게 습격을 당하는 꿈을 꾸었다. 그들은 그를 땅바닥에 납작하게 쓰러뜨리고 엄지발가락과 둘째 발가락 사이로 땅에 말뚝을 박았다. 꿈속에서 이런 일을 떠올리고 있던 그는 갑자기 잠이 깼고, 발가락 사이에 지푸라기 하나가 끼어 있는 것을 느꼈다. 헤닝스(『꿈과 몽유에 관하여(Von den Traumen und Nachtwandeln)』, 바이마르, 1784, 258쪽)에 따르면, 같은 저자는 또 한번은 셔츠가 목 둘레에 좀 꽉 조이게 여며져 있을 때 교수형을 당하는 꿈을 꾸었다. 호프바우어는 젊은 시절 높은 담에서 떨어지는 꿈을 꾸었는데, 깨어 보니 침대 틀이 무너져 실제로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그레고리가 이야기하기로는, 언젠가 발에 뜨거운 물병을 대고 잤더니 에트나산 꼭대기로 여행하는 꿈을 꾸었고, 그곳 땅의 열기가 거의 견딜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한다. 두 번째 사람은 머리에 발포고(發疱膏)를 붙이고 난 뒤 인디언에게 머리 가죽이 벗겨지는 꿈을 꾸었고, 셔츠가 축축했던 세 번째 사람은 개울 속으로 끌려가는 꿈을 꾸었다. 통풍 발작이 일어나자 그 환자는 자기가 종교 재판소의 손아귀에 들어가 고문의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믿었다(맥니시).」

자극과 꿈 내용이 서로 닮았다는 데 근거한 논증은, 자극을 체계적으로 가해서 그 자극에 상응하는 꿈을 만들어 내는 데 성공하면 한층 힘을 얻는다. 맥니시에 따르면 지롱 드 뷔자랭그가 이미 이런 실험을 했다. 「그는 무릎을 드러낸 채 잤더니 밤에 역마차를 타고 여행하는 꿈을 꾸었다. 그는 이와 관련하여, 밤에 마차 안에서 무릎이 얼마나 차가워지는지는 여행자라면 잘 알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번은 뒷머리를 덮지 않은 채 잤더니 야외에서 열리는 종교 의식에 참석하는 꿈을 꾸었다. 그가 살던 지방에서는 그런 때가 아니면 언제나 머리를 가리고 있는 것이 관습이었다.」

모리[48]는 자기 자신에게 일으킨 꿈에 대한 새로운 관찰을 보고한다. (다른 여러 시도는 아무 성과도 거두지 못했다.)

1. 깃털로 그의 입술과 코끝을 간질였다. 그는 끔찍한 고문을 당하는 꿈을 꾸었다. 즉 역청으로 만든 가면이 얼굴에 붙었다가 억지로 뜯겨 나가면서 살갗까지 함께 벗겨 갔다.

2. 가위를 집게에 대고 갈았다. 그는 종이 울리는 소리를 듣고, 이어 경종 소리를 들었는데, 그 소리가 그를 1848년 6월의 그날들로 데려갔다.

3. 그의 코에 오드콜로뉴(퀼른 향수)를 발랐다. 그는 카이로에 있는 요한 마리아 파리나의 가게에 와 있었다. 그 뒤로 황당무계한 모험이 이어졌는데, 그는 그것을 되살려 낼 수 없었다.

4. 그의 목을 살짝 꼬집었다. 그는 몸에 발포고가 붙는 꿈을 꾸었고, 어린 시절 자기를 치료해 준 의사를 떠올렸다.

5. 뜨겁게 달군 쇠를 그의 얼굴 가까이 가져갔다. 그는 chauffeurs〔불 때는 자들〕[5] 무리가 집에 쳐들어와, 집 안 사람들의 발을 이글거리는 숯불 속에 밀어 넣으며 돈을 내놓으라고 윽박지르는 꿈을 꾸었다. 이어

아브랑테스 공작 부인이 들어왔는데, 꿈속에서 그는 자신이 그 부인의 비서라고 상상하고 있었다.

6. 그의 이마에 물 한 방울을 떨어뜨렸다. 그는 자신이 이탈리아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오르비에토산 백포도주를 마시고 있다고 상상했다.

7. 불붙은 초의 빛을 붉은 종이 너머로 그에게 거듭 모아 비추자, 그는 날씨와 더위, 그리고 언젠가 영국 해협에서 겪은 바다의 폭풍을 꿈꾸었다.

에르베[34], 바이간트[75] 등도 실험으로 꿈을 일으키려는 다른 시도를 했다.

꿈이 외부 세계에서 갑자기 들어온 인상을 제 구조 속에 짜 넣어, 서서히 준비되고 도입된 파국처럼 보여 주는 놀라운 솜씨는 많은 사람이 눈여겨보았다(힐데브란트[35]). 이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예전에 나는 아침 일정한 시각에 어김없이 일어나려고 이따금 자명종을 썼다. 이 기계의 소리가 겉보기에 무척 길고 줄거리가 이어진 꿈에 꼭 들어맞은 일이 아마 수백 번은 있었을 것이다. 마치 꿈 전체가 오로지 그 소리를 위해 특별히 짜인 것처럼, 꿈이 그 소리에서 제게 걸맞고 논리적으로 없어서는 안 될 정점을, 피할 수 없는 결말을 찾아낸 것처럼 말이다.」

이 자명종 꿈 가운데 세 편을 다른 목적을 위해 인용하겠다.

폴켈트는 이렇게 전한다(68쪽). 「 어떤 작곡가가 꿈에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었는데, 마침 학생들에게 무언가를 설명하는 중이었다. 설명을 거의 마쳤을 때 그는 한 소년에게 돌아서서 물었다. 『알아들었니?』 소년은 무엇에 홀린 사람처럼 『Ya』〔예〕 하고 소리쳤다. 이에 화가 난 그는 소리를 지른다고 소년을 꾸짖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반 전체가 『Orya』, 이어서 『Euryo』, 마침내 『Feueryo』

〔불이야〕 하고 외쳐 댔다. 그때 그는 거리에서 실제로 울린 화재 경보에 잠이 깼다.」

라데슈토크[54]가 전하는 바로는, 가르니에(『영혼의 능력에 관한 논고(Traité des Facultés de l'Âme)』, 1865)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 나폴레옹 1세는 마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폭발 때문에 꿈에서 깨어났는데, 그 폭발이 그에게 탈리아멘토강 도하와 오스트리아군의 포격을 되살려 놓아서, 그는 「우리 밑에 지뢰가 묻혔다!」 하고 외치며 벌떡 일어났다.

모리[48]의 다음 꿈은 유명해졌다. 그는 병이 나서 자리에 누워 있었고, 어머니가 곁에 앉아 있었다. 그러다 그는 대혁명 시대의 공포 정치를 꿈꾸었다. 끔찍한 살육 장면에 가담했고, 마침내 그 자신이 재판소에 불려 나갔다. 거기서 그는 로베스피에르, 마라, 푸키에탱빌을 비롯해 그 잔혹한 시대의 한심한 영웅들을 모두 보았다. 자신에 대해 해명해야 했고, 기억에 남지 않은 온갖 일을 겪은 끝에 사형 선고를 받았다. 엄청난 군중이 뒤따르는 가운데 그는 처형장으로 끌려갔다. 그는 처형대에 올랐고, 사형 집행인은 그를 판자에 묶었으며, 판자가 기울고, 단두대의 칼날이 떨어졌다. 그는 머리가 몸통에서 잘려 나가는 것을 느꼈고, 끔찍한 불안에 휩싸여 깨어났다. 깨어 보니 침대 윗부분이 떨어져 내려, 정말로 단두대의 칼날처럼 그의 경추를 내리친 것이었다.

이 꿈을 계기로 르 로랭[45]과 에게르[20]가 『철학 평론』(Revue philosophique)에서 시작한 흥미로운 논쟁이 벌어졌다. 문제는, 깨우는 자극을 지각한 순간부터 깨어나기까지의 짧은 시간 안에 꿈꾼 사람이 겉보기에 그토록 많은 꿈 내용을 몰아넣는 일이 가능한가, 가능하다면 어떻게 가능한가 하는 것이었다.

이런 예들을 보면 잠자는 동안의 객관적 자극이야말로 모든 꿈의 원천 가운데 가장 확실하게 입증된 것처럼 보인다. 실제로 일반인의 지식에서

조금이라도 역할을 하는 자극은 이것 하나뿐이다. 교양은 있지만 꿈에 관한 문헌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꿈이 어떻게 생기느냐고 물어보라. 그는 틀림없이 자기가 아는 사례, 곧 깨어난 뒤에 알아낸 객관적 자극으로 꿈이 설명된 사례를 들어 대답할 것이다. 그러나 과학적 연구는 여기서 멈출 수 없다. 잠자는 동안 감각에 작용하는 자극은 꿈에서 결코 제 참모습으로 나타나지 않고, 그것과 어떤 식으로든 관련된 다른 표상(presentation)으로 대체된다. 이 관찰이 연구를 더 밀고 나가도록 부추기는 것이다. 그런데 모리[47]에 따르면 자극과 꿈의 결과 사이의 관계는 「une affinité quelconque mais qui n'est pas unique et exclusive」〔 이런저런 친연성, 그러나 유일하지도 배타적이지도 않은 친연성 〕 이다(72쪽). 이를테면 힐데브란트의 「자명종 꿈」 세 편을 읽어 보면, 같은 자극이 어째서 그토록 여러 가지 결과를 낳았는지, 그리고 왜 하필 이 결과들이고 다른 결과는 아닌지를 물을 수밖에 없다.

(37쪽). 「아름다운 봄날 아침, 나는 산책을 하고 있다. 푸른 들판을 지나 이웃 마을까지 한가로이 걸어가는데, 마을 사람들이 나들이옷을 차려입고 찬송가 책을 옆구리에 낀 채 떼 지어 교회로 가는 것이 보인다. 오늘이 일요일이고 곧 아침 예배가 시작된다는 것이 떠오른다. 나도 예배에 가기로 하지만, 몸이 좀 달아올라 있어서 교회를 둘러싼 묘지에서 먼저 땀을 식히기로 한다. 이런저런 묘비명을 읽고 있는데, 교회지기가 탑으로 올라가는 소리가 들리고, 이제 곧 예배 시작을 알릴 작은 마을 종이 둥근 지붕 안에 보인다. 종은 잠시 더 꼼짝 않고 매달려 있다가 흔들리기 시작하고, 갑자기 그 소리가 너무도 맑고 날카롭게 울려서 내 잠은 거기서 끝나 버린다. 그런데 그 종소리는 자명종에서 나고 있다.」

「두 번째 조합. 맑게 갠 날이고, 거리는 깊은 눈에 덮여 있다. 나는 썰매 타기에 함께하기로 약속했는데, 썰매가 우리 집 앞에 와 있다는 전갈이 오기까지 한참을 기다려야 했다. 이제 썰매에 오를 채비를 한다. 모피를 걸치고 토시를 매만진 뒤, 마침내 내 자리에 앉는다. 그러나 출발은 여전히 미뤄지다가, 드디어 고삐가 조바심 내는 말들에게 알아챌 만한 신호를 준다. 말들이 달리기 시작하자, 이제 세차게 흔들리는 썰매 방울이 귀에 익은 예니체리 군악을 울리기 시작하는데, 그 기세가 어찌나 센지 내 꿈의 거미줄이 단번에 찢어지고 만다. 이번에도 그것은 내 자명종의 날카로운 소리일 뿐이다.」

세 번째 예를 하나 더 들어 보자. 「부엌 하녀가 접시 수십 개를 쌓아 들고 복도를 따라 식당으로 걸어가는 것이 보인다. 그녀가 안고 가는 도자기 기둥은 금방이라도 균형을 잃을 것만 같다. 나는 소리친다. 『조심하게, 그러다 몽땅 떨어뜨리겠네.』 으레 돌아오는 말대꾸가 물론 빠지지 않는다. 이런 일에는 익숙하다는 것이다. 그러는 동안에도 나는 걱정스러운 눈길로 그녀를 계속 좇는다. 아니나 다를까! 문턱에서 깨지기 쉬운 그릇들이 떨어지고, 넘어지고, 수백 조각이 나서 바닥을 굴러간다. 그러나 나는 곧 끝없이 이어지는 그 소리가 실은 쨍그랑거리는 소리가 아니라 진짜 따르릉 울리는 소리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이 따르릉 소리와 함께 꿈꾼 사람은 이제 자명종이 제 할 일을 다했다는 것을 깨닫는다.」

꿈꾸는 정신은 왜 객관적 감각 자극의 성질을 잘못 판단하는가. 이 물음에 슈트륌펠[66]은, 그리고 거의 같은 식으로 분트[76]도, 잠자는 동안 덮쳐 오는 자극에 대한 정신의 반응은 착각의 형성으로 결정된다고 답했다. 감각 인상이 충분히 강하고 뚜렷하고 오래 지속되며 우리에게 이렇게 따져 볼 시간이 넉넉하다면, 우리는 그 인상을 알아보고 올바르게 해석한다. 즉 이전의 모든 경험에 비추어 그 인상이 속하는

기억 무리에 그것을 넣는다. 이 조건들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인상을 일으킨 대상을 잘못 알아보고, 그 인상을 바탕으로 착각을 만든다. 「탁 트인 들판을 걷다가 멀리 있는 물체를 흐릿하게 지각하면, 처음에는 그것을 말로 여기는 일이 있을 수 있다.」 더 가까이서 보면 쉬고 있는 소의 이미지가 비집고 들어올 수도 있고, 마침내 그 표상은 앉아 있는 한 무리의 사람들로 확실히 판명될 수도 있다. 잠자는 동안 정신이 외부 자극을 통해 받는 인상도 이처럼 흐릿하다. 그런 인상이 착각을 낳는 것은, 인상이 많든 적든 기억 이미지를 불러내고 그 기억 이미지를 통해 심리적 가치를 얻기 때문이다. 고려할 수 있는 수많은 기억 영역 가운데 어느 영역에서 그에 상응하는 이미지가 깨어나는지, 그리고 가능한 연상 연결 가운데 어느 것이 그때 작동하는지는 슈트륌펠에 따르더라도 확정할 수 없으며, 말하자면 정신생활의 변덕에 맡겨져 있다.

여기서 우리는 둘 가운데 하나를 고를 수 있다. 꿈 형성의 법칙은 사실 더는 추적할 수 없다고 인정하고, 감각 인상이 불러일으킨 착각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또 다른 조건에 달려 있는지 아닌지는 묻지 않기로 할 수도 있다. 아니면 잠을 파고드는 객관적 감각 자극은 꿈의 원천으로서 보잘것없는 역할만 하며, 불러낼 기억 이미지를 고르는 것은 다른 요인들이라고 가정할 수도 있다. 사실 내가 일부러 자세히 소개한 모리의 실험 꿈들을 꼼꼼히 살펴보면, 그 실험이 실제로 설명하는 것은 꿈 요소 하나의 기원뿐이고, 나머지 꿈 내용은 실험으로 끌어들인 요소와 들어맞아야 한다는 단 하나의 요구로 설명하기에는 사실 너무 독자적이고 너무 세세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생각하기 쉽다. 잠자는 동안 객관적 인상이 때로는 더없이 기묘하고 억지스러운 해석을 겪는다는 것을 알게 되면, 착각 이론은 물론이고 꿈을 형성하는 이 인상의 힘마저 의심하기 시작한다. 이를테면 M. 시몽[63]은 거인 같은

체구의 사람들이[6] 식탁에 둘러앉아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이 음식을 씹으며 턱을 맞부딪쳐 내는 끔찍한 딱딱 소리를 똑똑히 들은 꿈을 이야기한다. 깨어나 보니 그의 창밖으로 말 한 마리가 달려 지나가며 말굽이 따각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말굽 소리가 『걸리버 여행기』라는 기억 영역에서, 곧 브롭딩낵의 거인들 곁에 머문 이야기와 덕성스러운 말 종족 이야기에서 표상을 불러낸 것이라면 — 저자의 도움 없이 내가 해석한다면 아마 그렇게 되겠지만 — 자극에 비해 그토록 흔치 않은 기억 영역을 고른 데에는 다른 동기에서 나오는 설명이 더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II. 내적(주관적) 감각 자극. — 온갖 반론이 있지만, 꿈을 만들어 내는 객관적 감각 자극의 역할은 반박할 수 없이 확립되었다고 인정해야 한다. 그런데 이 자극들이 성질로 보나 빈도로 보나 모든 꿈 영상을 설명하기에는 아마 모자라 보인다면, 우리는 비슷한 방식으로 작용하는 다른 꿈의 원천을 찾아보아야 한다. 외부 감각 자극과 더불어 내부(주관적) 자극도 고려해야 한다는 생각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나는 모르지만, 사실 최근의 꿈 원인론 서술은 모두, 얼마나 충실하냐는 차이가 있을 뿐 이 일을 하고 있다. 분트[76]는 이렇게 말한다(363쪽). 「꿈 착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주관적인 시각 감각과 청각 감각이다. 우리는 깨어 있을 때 이것을 어두운 시야 속의 빛나는 혼돈으로, 귀 울림이나 윙윙거림 따위로, 특히 망막의 자극으로 익히 알고 있다. 꿈이 비슷하거나 똑같은 대상을 여럿 늘어놓아 눈을 속이는 두드러진 경향도 이것으로 설명된다. 그래서 우리 눈앞에는 수없이 많은 새, 나비, 물고기, 색색의 구슬, 꽃 따위가 펼쳐진다. 여기서는 어두운 시야 속의 빛나는 먼지가 환상적인 형상을 띠었고, 꿈은 그 먼지를 이루는 수많은 빛나는 점을 그만큼 많은 낱낱의 영상으로 구체화하며, 빛나는 혼돈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 영상들은 움직이는 대상으로

여겨진다. 꿈이 더없이 복잡한 동물 형상을 몹시 좋아하는 것도 여기에 뿌리가 있다. 형태가 다채로운 것은 주관적 빛 영상의 형태를 쉽게 따르기 때문이다.」

주관적 감각 자극은 꿈의 원천으로서 객관적 자극과 달리 외부의 우연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분명한 이점이 있다. 말하자면 설명에 필요할 때면 언제든 불러다 쓸 수 있다. 그러나 관찰과 실험이 객관적 감각 자극에 대해서는 꿈 유발 요인의 역할을 입증했지만 주관적 감각 자극에 대해서는 그 역할을 확인하기가 어렵거나 아예 불가능하니, 이 점에서 주관적 감각 자극은 객관적 감각 자극에 뒤진다. 주관적 감각 흥분에 꿈을 유발하는 힘이 있다는 주된 증거는 이른바 입면(入眠) 환각에서 나온다. 요하네스 뮐러가 「환상적 시각 현상」이라고 기술한 것이다. 입면 환각은 많은 사람에게 잠이 드는 동안 규칙적으로 나타나는 무척 생생하고 변화무쌍한 영상으로, 눈을 뜬 뒤에도 잠시 남아 있을 수 있다. 이 환각에 적잖이 시달린 모리[48]는 이를 철저히 연구하여, 입면 환각이 꿈 영상과 관련되어 있다고, 아니 오히려 꿈 영상과 똑같다고 주장했다. 이것은 이미 요하네스 뮐러가 주장한 바다. 모리의 말로는, 입면 환각이 생기려면 어느 정도의 심리적 수동성이 필요하며 주의의 긴장이 풀려야 한다(59쪽). 그러나 체질이 여느 사람과 다르지 않더라도 한순간 그런 무기력에 빠져들기만 하면 입면 환각이 생길 수 있다. 그 뒤 아마 다시 깨어나고, 이 과정이 여러 번 되풀이되다가 마침내 잠으로 끝난다. 모리에 따르면 그 뒤 곧 깨어나면, 잠들기 전에 입면 환각으로 지각한 것과 같은 영상을 꿈속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134쪽). 한번은 모리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 일그러진 얼굴에 기이한 머리 장식을 한 기괴한 형상들의 영상 한 무리가 잠들 무렵 믿기지 않을 만큼 끈덕지게 그에게 밀려들었는데, 깨어나 보니 바로 그것을 꿈에서 보았다는 것이 기억났다. 또 한번은 꽤 엄격한 식이 요법을 지키느라

배고픔에 시달리던 그가 입면 상태에서 접시 하나를 보았고, 포크를 든 손 하나가 그 접시에서 음식을 조금 집어 가는 것을 보았다. 꿈에서 그는 음식이 푸짐하게 차려진 식탁에 앉아 있었고, 식사하는 사람들이 포크로 내는 달그락 소리를 들었다. 또 다른 때에는 눈이 따갑고 아픈 채로 잠들었는데, 현미경으로나 보일 만큼 작은 글자가 보여 그것을 하나하나 애써 판독해야 하는 입면 환각을 겪었다. 한 시간 뒤 잠에서 깨어났을 때 그는 아주 작은 글자가 적힌 책이 펼쳐져 있고, 그것을 끝까지 힘겹게 읽어 내야 했던 꿈을 기억해 냈다.

이런 영상과 마찬가지로 낱말이나 이름 따위의 청각적 환각도 입면 상태에서 나타났다가, 뒤이을 오페라의 주요 모티프를 미리 알리는 서곡처럼 꿈속에서 되풀이될 수 있다.

입면 환각의 좀 더 최근 관찰자인 G. 트럼불 래드[40]는 요하네스 뮐러와 모리가 걸은 길을 그대로 따라간다. 그는 연습을 거듭한 끝에, 서서히 잠이 들고 2분에서 5분이 지났을 때 눈을 뜨지 않은 채 갑자기 깨어나는 능력을 얻었고, 덕분에 막 사라져 가는 망막의 감각을 기억에 남아 있는 꿈 영상과 비교할 기회를 얻었다. 그는 둘 사이의 밀접한 관계를 언제나 알아볼 수 있다고 장담한다. 망막의 자발광이 만드는 빛나는 점과 선이 말하자면 심리적으로 지각된 꿈 형상의 밑그림이나 도식을 그려 준다는 뜻에서다. 이를테면 눈앞에 또렷이 인쇄된 글줄이 보여 그것을 읽고 공부하는 꿈은 망막 속의 빛나는 점과 선이 평행한 줄로 배열된 것에 상응했다. 그 자신의 말로 하면 이렇다. 「꿈속에서 그가 읽고 있던 또렷이 인쇄된 책장은, 깨어 있는 지각에는 종이에 뚫린 작은 구멍을 통해 너무 멀어서 뚜렷이 알아볼 수 없는 거리에서 들여다본 실제 인쇄물의 일부처럼 보이는 대상으로 바뀌었다.」 래드는 이 현상에서 중추적인 부분을 조금도 과소평가하지 않으면서도, 망막의 이런 내적 자극 상태가 공급하는 재료에 바탕을 두지 않은 시각적 꿈은

우리 마음속에 거의 생기지 않는다고 믿는다. 어두운 방에서 잠든 직후에 꾸는 꿈은 특히 그렇고, 아침에 깨어날 무렵에 꾸는 꿈은 밝아진 방에서 눈으로 스며드는 객관적인 빛에서 자극을 받는다. 망막의 자발적 발광 흥분이 이리저리 옮겨 다니며 끝없이 변하는 성질은, 꿈에서 우리 앞에 펼쳐지는 영상들이 변덕스럽게 잇따르는 모습과 정확히 들어맞는다. 래드의 관찰을 조금이라도 중요하게 여긴다면, 이 주관적 흥분의 원천이 꿈에 얼마나 풍부하게 이바지하는지를 얕잡아 볼 수 없다. 시각 영상이 우리 꿈의 주된 구성 요소를 이루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청각을 빼면, 다른 감각 영역에서 오는 몫은 그보다 보잘것없고 들쭉날쭉하다.

III. 내적(기관적) 신체 흥분. — 꿈의 원천을 유기체의 바깥이 아니라 안에서 찾으려 한다면, 우리 내부 기관은 거의 모두 건강할 때는 제 존재를 좀처럼 드러내지 않지만, 우리가 흥분 상태라고 부르는 상태에 있거나 병이 들면 극심한 통증을 주는 감각의 원천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떠올려야 한다. 이 감각은 통증과 감각 자극을 일으키는 외부의 자극원과 동등하게 다루어야 한다. 이를테면 슈트륌펠[66]이 다음과 같이 단언하는 것도 아주 오래된 경험에 근거한 것이다. 「잠자는 동안 정신은 깨어 있을 때보다 훨씬 깊고 넓게 신체와의 연관을 의식하게 되며, 깨어 있을 때는 자각하지 못하는 신체 부위와 신체 변화에서 비롯되는 자극적인 인상을 받아들이고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아리스토텔레스[1]조차 이미, 꿈이 인상을 과장해 주기 때문에 깨어 있을 때는 전혀 알아채지 못한 초기의 병적 상태에 꿈이 우리의 주의를 돌리게 하는 일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꿈에 예언하는 힘이 있다고 믿는 것과는 분명 거리가 멀었던 몇몇 의학 저자도, 적어도 병을 예고하는 일에서는 꿈에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 (M. 시몽, 31쪽과 그 밖의 여러 옛 저자들을 참조하라.)

오늘날에도 꿈이 이렇게 진단 능력을 발휘한 사례로 확인된 것이 모자라지는 않은 듯하다. 이를테면 티시에[68]는 아르티그(『 꿈의 증후학적 가치에 관한 시론(Essai sur la Valeur séméiologique des Réves)』)에게서 마흔세 살 된 한 여성의 병력을 인용한다. 이 여성은 겉보기에 완벽하게 건강했던 몇 해 동안 불안 꿈에 시달렸는데, 나중에 진찰해 보니 초기의 심장 질환이 드러났고, 얼마 뒤 그녀는 그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내부 기관의 심각한 장애는 상당히 많은 사람에게서 꿈의 유발 요인으로 작용하는 듯하다. 심장병과 폐병에서 불안 꿈이 잦다는 점은 꽤 널리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꿈 생활의 이런 관계는 많은 저자가 워낙 두드러지게 앞세우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문헌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치겠다. (라데슈토크[54], 슈피타[64], 모리, M. 시몽, 티시에.) 티시에는 병든 기관이 제 특징적인 면모를 꿈 내용에 새겨 넣는다고까지 가정한다. 심장병을 앓는 사람의 꿈은 대개 아주 짧고, 겁에 질려 깨어나는 것으로 끝난다. 그 내용에는 끔찍한 상황에서 죽음을 맞는 장면이 거의 언제나 한몫을 한다. 폐병을 앓는 사람은 질식하는 꿈, 사람들 틈에 끼여 짓눌리는 꿈, 도망치는 꿈을 꾸며, 그 가운데 상당수는 잘 알려진 가위눌림에 시달린다. 덧붙이자면 뵈르너는 엎드려 누워 호흡 기관의 구멍을 막는 방법으로 이 가위눌림을 실험적으로 만들어 내는 데 성공했다. 소화 장애가 있으면 꿈에는 향락과 혐오의 영역에서 나온 표상이 담긴다. 끝으로 성적 흥분이 꿈 내용에 미치는 영향은 누구나 경험으로 충분히 알 수 있으며, 기관 감각이 꿈을 자극한다는 이론 전체를 가장 강력하게 뒷받침한다.

게다가 꿈에 관한 문헌을 훑어보면, 몇몇 저자(모리[48], 바이간트[75])가 자신의 병적 상태가 제 꿈의 내용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꿈 문제를 연구하게 되었다는 것이 아주 분명히 드러난다.

그러나 의심할 여지 없이 확립된 이 사실들이 꿈의 원천에 보태 주는 것은 짐작만큼 중요하지 않다. 꿈은 건강한 사람에게서, 아니 아마 모든 사람에게서 밤마다 일어나는 현상이며, 기관의 병적 상태는 꿈에 없어서는 안 될 조건 가운데 하나가 아닌 듯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는 특별한 꿈들이 어디서 생기느냐가 아니라, 정상인이 꾸는 평범한 꿈의 자극원이 무엇일 수 있느냐다.

그러나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앞에서 든 어느 원천보다 풍부하고 실로 어떤 경우에도 마르지 않을 듯한 꿈의 원천을 찾을 수 있다. 신체 기관이 병이 들면 꿈의 자극원이 된다는 것이 확립되었고, 잠자는 동안 외부 세계에서 돌아선 정신이 몸 내부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어떤 식으로든 꿈 영상으로 자라날 자극이 잠든 정신에 닿기 위해 기관이 반드시 병들어야 할 필요는 없다고 쉽게 가정할 수 있다. 깨어 있을 때 우리가 그 질로만 구별할 수 있는 전신 감각으로 막연하게 지각하는 것, 의사들의 견해로는 모든 기관 계통이 저마다 제 몫을 보태는 것, 바로 이 전신 감각이 밤이면 강력한 힘을 얻고 그 개별 성분들로 활동하게 되어, 자연히 꿈 표상을 만들어 내는 가장 강력하면서도 가장 흔한 원천이 될 것이다. 그러나 기관 감각이 어떤 규칙에 따라 꿈 표상으로 바뀌는지는 아직 살펴보아야 할 문제로 남아 있다.

방금 말한 꿈의 기원 이론은 모든 의학 저자가 가장 즐겨 내세우는 이론이었다. 티시에는 우리 존재의 본질을 「moi splanchnique」〔내장의 자아〕라고 부른다. 이 본질을 우리 앎에서 가리고 있는 어둠과 꿈의 기원을 둘러싼 어둠은 너무도 잘 들어맞아서 둘을 서로 연관 지을 수밖에 없다. 기관 감각을 꿈의 유발 요인으로 삼는 이 생각의 흐름은 의사에게 또 다른 매력도 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서 그토록 많이 일치하는 꿈과 정신 질환을 원인론의 측면에서 하나로

묶기에 유리하다는 점이다. 기관 감각의 변화와 내부 기관에서 나오는 흥분은 둘 다 정신병의 발생에서 폭넓은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신체 감각 이론의 뿌리를 좇아가면 그것을 저마다 독자적으로 내세운 창시자가 여럿 나온다는 것도 놀랄 일이 아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1851년에 전개한 생각의 흐름은 여러 저자에게 영향을 주었다. 우주에 대한 우리의 관념은, 우리 지성이 바깥에서 들어오는 인상을 시간과 공간과 인과성이라는 거푸집에 다시 부어 빚어내는 데서 생겨난다. 유기체 내부에서 교감 신경계를 거쳐 나오는 감각은 낮에는 대개 무의식적인 영향을 우리 기분에 미친다. 그러나 밤이 되어 낮의 인상이 휘두르던 압도적인 영향이 더는 느껴지지 않으면, 안에서 위로 밀고 올라오는 인상이 주의를 끌 수 있게 된다. 낮에는 소음에 묻혀 들리지 않던 샘물의 졸졸 소리가 밤이면 들리는 것과 같다. 그렇다면 지성이 이 자극에 반응하는 길이 제 특유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 말고 달리 무엇이 있겠는가? 지성은 자극을 공간과 시간을 채우며 인과성의 첫머리에서 움직이는 형상으로 바꿀 것이고, 그렇게 해서 꿈이 생겨난다. 셰르너[58]와 그 뒤를 이은 폴켈트[72]는 신체 감각과 꿈 영상 사이의 더 긴밀한 관계를 파고들려 했다. 그러나 이 시도들에 대한 논의는 꿈 이론을 다루는 이 장 (사)로 미루어 두자.

정신의학자 크라우스[39]는 특히 논리 정연하게 전개된 한 연구에서, 꿈의 기원과 섬망 및 망상의 기원을 같은 요소, 즉 신체 기관에 따라 결정되는 감각에서 찾았다. 이 저자에 따르면 유기체 안에서 꿈이나 망상의 출발점이 될 수 없는 곳은 거의 없다. 그런데 신체 기관에 따라 결정되는 감각은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1) 전신 감각(total feeling)에 속하는 감각(general sensations), (2) 식물적 유기체의 주요 계통에 내재하는 특수 감각. 이것은 다시 다섯 무리로 나눌 수

있다. (ㄱ) 근육 감각, (ㄴ) 호흡 감각, (ㄷ) 위 감각, (ㄹ) 성 감각, (ㅁ) 말초 감각(두 번째 논문의 33쪽).」

크라우스는 신체 감각을 바탕으로 꿈 영상이 생겨나는 과정을 다음과 같이 파악한다. 일깨워진 감각은 어떤 연상 법칙에 따라 그것과 관련된 표상을 불러내고, 이 표상과 결합하여 하나의 유기적 형성물을 이룬다. 그러나 의식은 이 형성물에 대해 정상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는다. 의식은 감각 자체에는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오로지 거기에 따라붙은 표상에만 매달리기 때문이다. 문제의 사태가 그토록 오랫동안 오해받아 온 까닭도 여기에 있다(11쪽 이하). 크라우스는 이 과정에 「감각의 꿈 영상으로의 실체 변화(transubstantiation)」라는 독특한 이름을 붙인다(24쪽).

내부 신체 감각이 꿈 형성에 얼마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오늘날 거의 누구나 인정한다. 그러나 둘 사이의 관계에 깔린 법칙이 무엇이냐는 물음에는 여러 가지 답이 나오고, 그 답은 흔히 모호한 말로 되어 있다. 신체 흥분 이론에 서면, 꿈 해석의 특별한 과제는 꿈의 내용을 그 원인이 된 기관 자극까지 거슬러 올라가 추적하는 일이다. 그런데 셰르너[58]가 내놓은 해석 규칙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기관의 자극원이 오직 꿈의 내용에서만 드러난다는 곤란한 사실에 자주 부딪히게 된다.

그러나 거의 같은 내용으로 무척 많은 사람에게서 되풀이되기 때문에 「전형적」이라고 불리는 여러 형태의 꿈을 해석하는 데서는 어느 정도 의견이 일치한다.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꿈, 이가 빠지는 꿈, 하늘을 나는 꿈, 알몸이거나 옷을 제대로 걸치지 않아 당혹스러워하는 꿈처럼 잘 알려진 꿈들이 여기에 속한다. 마지막 꿈은 그저, 잠결에 이불을 걷어차서 몸이 드러나 있다는 것을 지각하기 때문에 생긴다고 한다. 이가 빠지는 꿈은 「치아 자극」으로 설명되는데, 그렇다고 이것이

반드시 치아의 병적인 흥분 상태를 뜻하지는 않는다. 슈트륌펠[66]에 따르면 비행 꿈은, 흉부의 피부 감각이 무감각해진 뒤 폐엽이 오르내리면서 생기는 흥분량을 해석하려고 정신이 쓰는 적절한 영상이다. 날아간다는 표상과 연관된 감각을 일으키는 것은 바로 이 뒤의 사정이다. 꿈에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것은, 피부 압박 감각이 의식에서 소실된 상태에서 팔이 몸에서 흘러내리거나 구부린 무릎이 갑자기 펴지면서 피부 압박 감각이 다시 의식에 돌아오고, 의식으로 넘어가는 이 이행이 심리적으로 떨어지는 꿈으로 구현되는 데 그 원인이 있다고 한다. (슈트륌펠, 118쪽.) 그럴듯한 이 설명 시도들의 약점은 분명, 아무런 해명도 덧붙이지 않은 채 이런저런 기관 감각 무리를 설명에 유리한 배치가 갖추어질 때까지 심리적 지각에서 사라지게 하거나 거기에 밀고 들어오게 한다는 데 있다. 그러나 나는 뒤에서 전형적인 꿈과 그 기원을 다시 다룰 기회가 있을 것이다.

M. 시몽[63]은 비슷한 꿈 여러 편을 비교하여, 기관 감각이 그 결과로 생기는 꿈을 결정하는 데 미치는 영향에 관해 몇 가지 규칙을 세우려고 애썼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34쪽). 「잠자는 동안, 평소 어떤 정동을 표현하는 데 관여하는 신체 기관이 무슨 이유에서든 그 정동이 흔히 불러일으키는 흥분 상태에 빠져들면, 그렇게 해서 생겨난 꿈에는 그 정동에 들어맞는 표상이 담긴다.」

또 다른 규칙은 다음과 같다(35쪽). 「어떤 신체 기관이 잠자는 동안 활동이나 흥분이나 교란 상태에 있으면, 꿈은 그 기관이 수행하는 기관 기능의 발휘와 관련된 표상을 가져온다.」

무를리 볼[73]은 신체 감각 이론이 가정하는 영향을 한 영역에 한정하여 실험으로 입증하려고 했다. 그는 잠든 사람의 팔다리 자세를 바꾸는 실험을 하고, 그 결과로 생긴 꿈을 자기가 가한 변화와 비교했다. 그 성과로 그는 다음과 같은 이론을 보고한다.

1. 꿈속 팔다리의 자세는 실제 자세와 대략 일치한다. 즉 우리는 실제 상태에 상응하는 팔다리의 정지 상태를 꿈꾼다.

2. 움직이는 팔다리를 꿈꿀 때는 그 움직임을 수행하는 동안 나타나는 자세 가운데 하나가 언제나 실제 자세와 일치한다.

3. 꿈에서는 자기 팔다리의 자세가 다른 사람의 것으로 돌려질 수 있다.

4. 또 그 움직임이 가로막히는 꿈을 꿀 수도 있다.

5. 어떤 특정한 자세를 취한 팔다리가 꿈에 동물이나 괴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이 경우 둘 사이에는 어떤 유사성이 성립한다.

6. 팔다리의 자세는 꿈에서 그 팔다리와 이런저런 관련이 있는 표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를테면 손가락을 놀리고 있으면 숫자 꿈을 꾼다.

이런 결과를 보면 나로서는, 신체 감각 이론조차 불러일으켜질 꿈 영상이 결정되는 데서 드러나는 겉보기의 자유를 완전히 없애지는 못한다고 결론짓게 된다.[7]

IV. 심리적 자극원. — 꿈과 깨어 있는 생활의 관계, 그리고 꿈 재료의 기원을 다루면서 우리는, 가장 오래된 연구자든 가장 최근의 연구자든 사람은 낮에 하는 일과 깨어 있을 때 관심을 두는 일을 꿈꾼다는 데 의견이 일치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깨어 있는 생활에서 잠 속으로 이어지는 이 관심은 꿈을 삶에 이어 주는 심리적 끈일 뿐 아니라 얕잡아 볼 수 없는 꿈의 원천이기도 하며, 여기에 잠자는 동안 관심을 끌며 활동하게 되는 자극들을 더하면 모든 꿈 영상의 기원을 설명하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우리는 위의 주장과 정반대되는 주장도 들었다. 꿈은 잠든 사람을 낮의 관심사에서 떼어 놓으며, 대개 우리는 낮 동안 주의를 쏟은 일을 그것이 깨어 있는 생활에서 현재성의 자극을 잃고 난 뒤에야 꿈꾼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꿈 생활을 분석하다 보면 우리는 걸음마다, 「흔히」 「대체로」 「대부분의 경우」 같은 말로 표현되는 단서를

달아 두지 않고 예외가 성립할 여지도 마련해 두지 않은 채 일반 규칙을 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의식적인 관심이 내부 및 외부 수면 자극과 함께 꿈의 원인론을 다 감당할 수 있다면, 우리는 꿈의 모든 요소의 기원을 만족스럽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면 꿈의 원천이라는 수수께끼는 풀리고, 남는 과제는 개개의 꿈에서 심리적 꿈 자극과 신체적 꿈 자극이 맡은 몫을 가려내는 일뿐일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꿈 하나를 이렇게 완전히 풀어낸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더구나 그렇게 풀어 보려 한 사람은 누구나, 대부분의 경우 원천을 설명할 수 없는 꿈의 성분이 아주 많이 남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꿈의 심리적 원천으로서 일상의 관심은, 우리 모두가 깨어 있을 때의 일을 꿈에서도 계속한다는 자신만만한 주장을 정당화할 만큼 멀리 미치지 못하는 것이 분명하다.

꿈의 다른 심리적 원천은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러므로 뒤에서 언급할 셰르너[58]의 꿈 설명을 아마 예외로 치면, 문헌에서 찾을 수 있는 설명은 모두 꿈에 가장 특징적인 표상 영상의 재료가 어디서 오는지를 밝히는 대목에 이르면 커다란 공백을 드러낸다. 이런 곤경에서 대다수 저자는, 접근하기가 그토록 어려운 꿈 자극의 심리적 요인을 되도록 깎아내리는 경향을 키워 왔다. 물론 그들은 꿈을 크게 신경 자극 꿈과 연상 꿈으로 나누고, 연상 꿈은 오로지 재생에서 원천을 얻는다고 주장한다(분트[76], 365쪽). 그러나 그들은 연상 꿈이 「심리적 자극에 떠밀리지 않고서는 나타나지 않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아직 떨쳐 내지 못한다(폴켈트[72], 127쪽). 순수한 연상 꿈의 특징적 성질도 모자란 것으로 드러난다. 폴켈트의 말을 인용하면 이렇다(118쪽). 「본래의 연상 꿈에서는 그런 단단한 핵을 더는 말할 수 없다. 여기서는 느슨한 짜임이 꿈의 중심부까지 파고든다. 이미 이성과 지성에서 풀려난 표상 활동은 여기서 보다 중요한 심리적·정신적 자극에 더는 한데

묶이지 않고, 목적 없이 제멋대로 떠돌며 완전한 혼란에 내맡겨진다.」 분트도 「꿈의 환영을 순수한 환각으로 여기는 것은 분명 부당하며, 아마 대부분의 꿈 표상은 실은 착각일 것이다. 잠자는 동안 결코 꺼지지 않는 희미한 감각 인상에서 나오기 때문이다」라고 선언함으로써 꿈 자극에서 심리적 요인을 깎아내리려 한다(338쪽 이하). 바이간트[75]는 이 견해에 동의하면서 그것을 일반화한다. 그는 「모든 꿈 표상의 첫째 원천은 감각 자극이며, 여기에 재생적 연상이 뒤따라 붙는다」 고 주장한다(17쪽). 티시에[68]는 심리적 자극원을 깎아내리는 데서 한층 더 나아간다(183쪽). 그는 「Les rêves d'origine absolument psychique n'existent pas」〔순전히 심리적인 기원을 지닌 꿈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다른 곳에서는(6쪽) 「Les pensées de nos rêves nous viennent de dehors……」〔우리 꿈의 생각은 바깥에서 우리에게 온다……〕라고 한다.

영향력 있는 철학자 분트처럼 중도를 택하는 저자들은, 대부분의 꿈에서 신체 자극과 꿈을 부추기는 심리적 요인이 함께 작용하며, 뒤의 것은 알려져 있지 않거나 낮의 관심사로 밝혀진다는 점을 빠뜨리지 않고 지적한다.

꿈 형성의 수수께끼가 생각지도 못한 심리적 자극원을 밝혀냄으로써 풀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뒤에서 알게 될 것이다. 지금으로서는 정신생활에서 비롯되지 않은 자극들이 꿈 형성에서 과대평가되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기로 하자. 그런 자극만이 쉽게 찾아낼 수 있고 실험으로 확인할 수도 있기 때문만은 아니다. 꿈의 기원에 대한 신체적 견해가 오늘날 정신의학에서 유행하는 사고방식과 완전히 맞아떨어지기 때문이기도 하다. 물론 뇌가 유기체를 지배한다는 점은 특히 강조된다. 그러나 정신생활이 증명할 수 있는 기질적 변화에서 독립해 있음을, 또는 정신생활의 발현에 자발성이 있음을 입증할 만한 것은 무엇이든

오늘날의 정신의학자를 불안하게 만든다. 마치 그런 것을 인정하면 자연철학의 시대와 심리적 본질에 대한 형이상학적 견해가 틀림없이 되돌아오기라도 할 것처럼 말이다. 정신의학자의 불신은 말하자면 정신을 후견인 밑에 두었고, 이제는 정신의 어떤 감정도 제 고유한 능력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고 요구한다. 그러나 이런 태도는 물질적인 것과 심리적인 것 사이에 뻗어 있는 인과 사슬이 튼튼하다는 것을 별로 믿지 못한다는 표시다. 조사해 보니 심리적인 것이 어떤 현상의 일차적 원인으로 드러나는 곳에서도, 언젠가는 더 깊이 파고든 연구가 심리적인 것의 기질적 결정 요인에 이르는 길을 이어서 찾아낼 것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지식으로는 심리적인 것을 종착점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곳에서, 그렇다고 해서 심리적인 것을 부인해서는 안 된다.

(라) 꿈은 왜 깨고 나면 잊히는가

꿈이 아침이면 「스러져 버린다」는 말은 속담처럼 굳어 있다. 물론 꿈은 기억해 낼 수 있다. 우리는 깨어난 뒤에 꿈을 떠올려야만 꿈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꿈을 불완전하게만 기억한다고, 밤에는 꿈이 더 있었다고 믿는 일이 무척 잦다. 아침까지만 해도 생생하던 꿈의 기억이 낮 동안 사라져 작은 조각 몇 개만 남는 것을 지켜볼 수도 있다. 꿈을 꾸었다는 것은 알지만 무슨 꿈이었는지는 모르는 일도 흔하다. 게다가 우리는 꿈이 잊히기 쉽다는 사실에 워낙 익숙해서, 아침에 꿈의 내용도, 꿈을 꾸었다는 사실도 전혀 모를 때조차 실은 꿈을 꾸었을지 모른다는 가능성을 터무니없다고 물리치지 않는다. 반면에 꿈이 놀라울 만큼 끈질기게 기억에 남는 일도 있다. 나는 환자들과 함께 그들이 스물다섯 해도 더 전에 꾼 꿈을 분석해 볼 기회가 있었고, 나 자신도 지금으로부터 적어도 서른일곱 해 전에 꾼 꿈 하나를

기억하는데, 그 꿈은 내 기억 속에서 신선함을 조금도 잃지 않았다. 이 모든 것은 매우 주목할 만하며, 지금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다.

꿈의 망각을 가장 자세히 다룬 사람은 슈트륌펠[66]이다. 이 망각은 분명 복잡한 현상이다. 슈트륌펠이 그것을 한 가지 이유가 아니라 꽤 많은 이유로 설명하는 것만 보아도 그렇다.

첫째로, 깨어 있을 때 망각을 일으키는 요인은 모두 꿈의 망각에도 결정적으로 작용한다. 깨어 있을 때 우리는 수많은 감각과 지각을 금세 잊곤 하는데, 그것들이 너무 약하고 거기에 실린 감정도 아주 적기 때문이다. 많은 꿈 영상도 마찬가지다. 너무 약해서 잊히고, 그 곁의 더 강한 영상은 기억된다. 그렇다고 강도라는 요인 하나만이 꿈 영상의 보존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슈트륌펠도, 다른 저자들(콜킨스)도 인정하듯, 생생했던 것으로 알려진 꿈 영상이 금세 잊히는 일이 잦은 반면, 기억에 남는 영상 가운데는 아주 흐릿하고 몽롱한 것이 많다. 또 깨어 있을 때 우리는 한 번만 일어난 일은 쉽게 잊고, 되풀이되는 일은 더 쉽게 기억해 두곤 한다. 그런데 꿈 영상은 대부분 한 번뿐인 체험이며,[8] 이 특성 역시 모든 꿈의 망각에 한몫한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망각의 셋째 동기다. 감정, 표상, 생각 따위가 어느 정도 기억에 남으려면, 따로 떨어져 있지 않고 알맞은 종류의 결합과 연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짧은 시구의 낱말들을 가져다 뒤섞어 놓으면 그것을 기억하기란 무척 어려울 것이다. 「알맞은 순서로 잘 배열되어 있으면 한 낱말이 다른 낱말을 돕고, 전체가 하나의 뜻으로서 쉽고도 단단하게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다. 모순된 것은 대개 뒤죽박죽 흐트러진 것만큼이나 어렵게, 드물게만 간직된다.」 그런데 꿈에는 대부분 뜻도 질서도 없다. 꿈의 구성물은 그 본성상 기억될 수 없으며, 대개 바로 다음 순간 허물어져 버리기 때문에 잊힌다. 물론 이런 결론은, 우리가

가장 기이한 꿈을 가장 잘 기억한다는 라데슈토크[54]의 관찰(168쪽)과 온전히 들어맞지는 않는다.

슈트륌펠에 따르면, 꿈의 망각에는 이 밖에도 꿈과 깨어 있는 상태의 관계에서 비롯하는 요인들이 작용한다. 깨어 있는 의식이 꿈을 잘 잊는 것은 분명 앞서 말한 사실의 이면일 뿐이다. 곧 꿈은 깨어 있을 때의 기억을 순서대로 이어진 채 넘겨받는 일이 (거의) 없고, 그 기억의 몇몇 세부만을, 그것도 깨어 있을 때 그 기억이 떠오르던 익숙한 심리적 연관에서 뜯어내어 가져온다는 사실 말이다. 그러므로 꿈의 구성물은 정신을 채우고 있는 심리적 계열들 사이에 끼일 자리가 없다. 기억을 돕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꿈의 구조물은 말하자면 우리 정신생활의 토양에서 솟아올라, 하늘의 구름처럼 심리적 공간을 떠돌다가 다음 바람 한 줄기에 금세 흩어진다」(87쪽). 깨어나는 순간 밀려드는 감각 세계가 곧바로 주의를 사로잡고, 이 힘을 버텨 낼 수 있는 꿈 영상은 극히 적다는 사실도 여기에 한몫한다. 꿈 영상은 햇빛 앞의 별빛처럼, 깨어난 아침의 새 인상 앞에서 스러진다.

꿈의 망각을 돕는 마지막 요인으로, 대부분의 사람이 자기 꿈에 대체로 별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한동안 꿈을 연구하며 꿈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은 대개 그 기간에 다른 어느 때보다 꿈을 많이 꾼다. 다시 말해 자기 꿈을 더 쉽게, 더 자주 기억한다.

보나텔리가 슈트륌펠의 이유에 덧붙인 꿈 망각의 다른 두 이유(베니니[3]가 전한다)는 실은 이미 그 안에 들어 있다. 곧 (1) 잠든 상태와 깨어 있는 상태 사이에 전신 감각이 바뀌는 탓에 두 상태가 서로를 재생하기 어렵다는 것, 그리고 (2) 꿈에서는 표상 재료의 배열이 달라서, 말하자면 깨어 있는 의식으로는 꿈을 번역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슈트륌펠이 말하듯, 꿈을 잊게 하는 이 모든 이유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많은 꿈이 기억에 남는다는 것은 그만큼 더 주목할 만하다.

저자들이 꿈의 기억에 관한 법칙을 세우려고 줄곧 애써 왔다는 것 자체가, 여기에도 수수께끼 같고 풀리지 않은 무언가가 있음을 인정하는 셈이다. 최근에는 꿈의 기억에 관한 몇 가지 특이한 점이 특히 주목을 받았다. 이를테면 아침에 잊혔다고 여긴 꿈이, 잊힌 꿈 내용을 우연히 건드리는 어떤 지각을 계기로 낮 동안에 다시 떠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라데슈토크[54], 티시에[68]). 꿈의 기억 전체에는, 비판적인 눈으로 보면 그 가치를 크게 떨어뜨릴 만한 반론이 따라붙는다. 꿈에서 그토록 많은 것을 빠뜨리는 우리의 기억이 남겨 둔 것마저 변조하지 않았는지 의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슈트륌펠은 이렇게 말하며 꿈 재현의 정확성에 대한 이런 의심을 드러낸다. 「그러므로 능동적인 의식이 꿈을 회상하면서 저도 모르게 많은 것을 끼워 넣는 일이 쉽게 일어난다. 사람들은 실제 꿈에 들어 있지 않던 온갖 것을 꿈꾸었다고 여긴다.」

예센[36]은 아주 단호하게 말한다(547쪽). 「게다가 지금까지 거의 주목받지 못한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된다. 질서 있고 논리적인 꿈을 조사하고 해석할 때, 우리는 꿈을 기억에 떠올리면서 거의 언제나 진실을 가지고 장난을 친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무의식중에, 자기도 모르게 빈틈을 메우고 꿈 영상을 보충한다. 앞뒤가 이어진 꿈이 기억 속에서 보이는 만큼 정말로 이어져 있었던 적은 드물고, 어쩌면 한 번도 없었을 것이다. 진실을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과장하거나 꾸미지 않고 꿈을 이야기하기는 어렵다. 모든 것을 연관 속에서 파악하려는 인간 정신의 경향은 워낙 강해서, 꿈이 조금이라도 앞뒤 없이 떠오르면 모자란 연관을 자기도 모르게 채워 넣는다.」

V. 에게르[20]의 관찰은 분명 독자적으로 얻은 것일 텐데도, 예센의 말을 거의 번역해 놓은 것처럼 들린다. 「…… L'observation des rêves a ses difficultés spéciales et le seul moyen d'éviter toute

erreur en pareille matière est de confier au papier sans le moindre retard ce que l'on vient d'éprouver et de remarquer; sinon, l'oubli vient vite ou total ou partiel; l'oubli total est sans gravité; mais l'oubli partiel est perfide; car si l'on se met ensuite à raconter ce que l'on n'a pas oublié, on est exposé à compléter par imagination les fragments incohérents et disjoints fourni par la mémoire ……; on devient artiste à son insu, et le récit, périodiquement répété s'impose à la créance de son auteur, qui, de bonne foi, le présente comme un fait authentique, dûment établi selon les bonnes méthodes…….」

〔……꿈을 관찰하는 데에는 특유의 어려움이 있다. 이런 문제에서 모든 오류를 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방금 겪고 알아챈 것을 조금도 지체하지 말고 종이에 적어 두는 것이다. 그러지 않으면 망각이 금세 찾아온다. 완전한 망각일 수도 있고 부분적인 망각일 수도 있다. 완전한 망각은 대수롭지 않다. 그러나 부분적인 망각은 음험하다. 나중에 잊지 않은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기억이 건네준 앞뒤 맞지 않고 서로 동떨어진 조각들을 상상으로 메우게 되기 쉽기 때문이다……. 사람은 저도 모르게 예술가가 되고, 이따금 되풀이되는 이야기는 이야기한 사람 자신의 믿음마저 사로잡는다. 그는 선의로, 그것을 올바른 방법에 따라 제대로 확인된 진짜 사실인 양 내놓는다…….〕

슈피타[64]도 비슷하다. 그는 느슨하게 이어져 있는 꿈 요소들을 우리가 정돈하는 것은 꿈을 재현하려 할 때뿐이라고 생각하는 듯하다. 그것은 「연관 없는 것에서 연관을 만드는 일, 곧 꿈에는 없는 논리적 결합의 과정을 덧붙이는 일」이라는 것이다.

우리 기억의 신뢰성을 가늠할 객관적 통제 수단이 지금으로서는 달리 없고, 우리 자신의 체험이며 기억만이 유일한 원천인 꿈을 검토할

때에는 그런 통제가 애초에 불가능하므로, 꿈에 대한 우리의 회상에 과연 어떤 가치를 둘 수 있는지는 여전히 물음으로 남는다.

(마) 꿈의 심리학적 특성

꿈을 학문적으로 연구할 때 우리는 꿈이 우리 자신의 심리 활동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그런데도 다 만들어진 꿈은 우리에게 어딘가 낯선 것으로 다가온다. 그것이 우리가 지어낸 것이라고 인정해야 한다는 압박을 우리는 거의 느끼지 않아서, 「나는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만큼이나 쉽게 「내게 꿈이 나타났다」고도 말할 수 있다. 꿈의 이 「심리적 낯섦」은 어디에서 오는가? 꿈의 원천에 관한 앞의 논의에 따르면, 그것은 꿈 내용에 이르는 재료에 달려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이 재료는 대부분 꿈 생활과 깨어 있는 생활에 공통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꿈에서 이런 인상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심리 과정의 변화가 아닌지 물을 수 있고, 그렇게 해서 꿈의 심리학적 특성을 가려내 보려 할 수 있다.

G. Th. 페히너[25]는 『정신물리학 원론』(520쪽, 제2부)의 몇몇 소견에서, 꿈과 깨어 있는 생활의 본질적 차이를 누구보다 강하게 강조하고 이 차이를 누구보다 멀리 나아가는 결론에 이용했다. 그의 생각으로는, 「의식적 정신생활이 주 문턱 아래로 그저 가라앉는 것」도, 외부 세계의 영향에서 주의가 딴 데로 돌려지는 것도, 깨어 있는 생활과 비교한 꿈 생활의 특성을 설명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오히려 그는 꿈의 무대가 깨어 있을 때의 표상 생활과는 다른 곳에 마련되어 있다고 믿는다. 「정신물리적 활동의 무대가 잠든 상태와 깨어 있는 상태에서 똑같다면, 내 생각에 꿈은 더 낮은 강도로 유지되는, 깨어 있을 때의 표상 활동의 연장일 수밖에 없을 것이고, 게다가 그 재료와 형식도

깨어 있을 때의 표상 활동과 함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사정은 전혀 다르다.」

페히너가 정말 무엇을 뜻했는지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고, 내가 아는 한 그가 이 말로 실마리를 보여 준 그 길을 더 따라가 본 사람도 없다. 생리학적인 뇌 기능 국재화(局 在 化)의 뜻으로, 또는 대뇌 피질의 조직학적 구획과 관련지어 이 말을 해부학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분명 배제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생각을 여러 심급(instance)이 앞뒤로 차례차례 놓여 짜인 심리 장치(psychic apparatus)에 적용할 수 있다면, 재치 있고 알찬 생각임이 드러날지도 모른다.

다른 저자들은 꿈 생활의 뚜렷한 심리학적 특성 가운데 이런저런 것을 부각하는 데 만족했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을 더 멀리 나아가는 설명 시도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꿈 생활의 주요 특성 가운데 하나는 잠드는 상태에서 이미 나타나며 그것을 잠을 불러들이는 현상이라고 불러야 한다는 지적은 옳다. 슐라이어마허[61](351쪽)에 따르면, 깨어 있는 상태의 특징은 심리 활동이 영상보다는 관념으로 이루어진다는 데 있다. 그러나 꿈은 영상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잠이 다가오면 의지적 활동이 어려워지는 딱 그만큼 비의지적 활동이 나타나며, 이 비의지적 활동은 모두 영상의 부류에 속한다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우리가 의도해서 바란다고 느끼는 표상 작업을 해낼 수 없게 되는 것, 그리고 이런 흐트러짐과 어김없이 결부되어 영상이 나타나는 것, 이 두 가지는 꿈에서 늘 변함없는 성질이며, 꿈을 심리학적으로 분석할 때 꿈 생활의 본질적 특성으로 인정해야 한다. 이 영상들, 곧 입면 환각에 관해서는 그 내용마저 꿈 영상과 똑같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아냈다.

그러므로 꿈은 주로 시각 영상으로 생각하지만, 오로지 시각 영상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청각 영상도 쓰고, 그보다 덜하지만

다른 감각의 인상도 쓴다. 깨어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그저 생각되거나 상상되는 것도 많다(아마 낱말 표상의 잔재로 나타나는 것이리라). 그래도 꿈에 특징적인 것은 내용 가운데 영상처럼 작용하는 요소, 곧 기억 표상보다 지각을 더 닮은 요소뿐이다. 정신과 의사라면 누구나 아는 환각의 본성에 관한 온갖 논의는 제쳐 두고, 우리는 사정에 밝은 모든 저자와 함께 꿈은 환각을 일으킨다고, 다시 말해 생각을 환각으로 대체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 점에서는 시각 표상과 청각 표상 사이에 아무 차이가 없다. 잠들 무렵 떠올리던 일련의 소리에 대한 기억이 잠에 빠져드는 사이에 같은 선율의 환각으로 바뀌었다가, 깨어나면 질적으로 달리 형성된 더 부드러운 기억 표상에 다시 자리를 내주며, 이런 일이 선잠에 빠져들 때마다 거듭 번갈아 일어날 수 있다는 것도 관찰되었다.

표상이 환각으로 바뀌는 것만이, 꿈이 그에 대응할지도 모르는 깨어 있을 때의 생각에서 벗어나는 점은 아니다. 꿈은 이 영상들로 하나의 상황을 만들어 내고, 무언가를 현재의 일로 펼쳐 보이며, 슈피타[64](145쪽)의 말대로 관념을 극화한다.[9] 그러나 꿈 생활의 이런 측면이 온전히 특징지어지려면, 꿈꾸는 동안 우리는 생각하고 있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체험하고 있다고 여긴다는 점, 곧 환각을 온전히 믿고 받아들인다는 점을 함께 떠올려야 한다. 대개는 그렇다는 말이고, 예외는 따로 설명이 필요하다. 이것은 체험한 것이 아니라 독특한 방식으로 생각한 것, 곧 꿈꾼 것일 뿐이라는 비판은 깨어나서야 비로소 떠오른다. 이 특성이 잠잘 때 꾸는 진짜 꿈과, 결코 현실과 혼동되지 않는 백일몽을 가른다.

지금까지 살펴본 꿈 생활의 특징을 부르다흐[8]는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요약했다(476쪽). 「꿈의 특징으로 다음을 덧붙일 수 있다. (ㄱ) 우리 정신의 주관적 활동이 객관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우리의 지각 능력이 상상력의 산물을 마치 감각 활동인 것처럼 지각하기

때문이다…… (ㄴ) 잠은 자기 통제를 없애 버린다. 그러므로 잠들려면 어느 정도의 수동성이 필요하다……. 잠결의 영상은 자기 통제가 느슨해진 데서 생긴다.」

이제 꿈 환각을 정신이 곧이곧대로 믿어 버리는 까닭을 설명해 보아야 한다. 이 환각은 어떤 의지적 활동이 멈춘 뒤에야 나타날 수 있다. 슈트륌펠[66]은 이 점에서 정신이 올바르게, 제 메커니즘에 맞게 행동한다고 주장한다. 꿈의 요소는 결코 단순한 표상이 아니라, 깨어 있을 때 감각을 거쳐 나타나는 체험과 비슷하게 정신이 실제로 겪는 참된 체험이다(34쪽). 깨어 있을 때 정신은 낱말 영상과 언어로 표상하고 생각하지만, 꿈에서는 실제로 손에 잡힐 듯한 영상으로 표상하고 생각한다(35쪽). 게다가 꿈은 깨어 있을 때와 똑같이 감각과 영상을 외부 공간으로 옮겨 놓음으로써 공간 의식을 드러낸다(36쪽). 그러므로 꿈속의 정신은 자기 영상과 지각에 대해 깨어 있을 때와 같은 관계에 있다고 인정해야 한다(43쪽). 그런데도 정신이 이 때문에 길을 잃는다면, 그것은 안에서 오는 감각 지각과 밖에서 오는 감각 지각을 가려낼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비판이 잠 속에서는 없기 때문이다. 정신은 자기 영상의 객관적 실재성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시험에 그 영상들을 부칠 수 없다. 나아가 마음대로 바꿔 넣을 수 있는 영상과 자유로운 선택이 끼어들 수 없는 영상을 구별하는 일도 소홀히 한다. 정신이 오류를 범하는 것은 자기 내용에 인과 법칙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58쪽). 요컨대 정신이 외부 세계에서 소외되어 있다는 데에, 주관적인 꿈의 세계를 믿는 까닭 또한 들어 있다.

델뵈프[16]는 조금 다른 논증을 거쳐 같은 결론에 이른다. 우리가 꿈 영상을 현실로 믿는 것은, 잠 속에서는 꿈 영상과 견주어 볼 다른 인상이 없기 때문이며 외부 세계와 차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환각을 참이라고 믿는 것은 어쩌면 잠 속에서 시험을 해 볼 수 없어서가

아닐지도 모른다. 꿈은 이 모든 시험을 거치게 하고도 우리를 속일 수 있다. 꿈에서 보는 장미를 만질 수 있다고 믿게 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꿈을 꾸고 있을 뿐이다. 델뵈프에 따르면, 무언가가 꿈인지 의식된 현실인지를 보여 주는 타당한 기준은 깨어난다는 사실 말고는 없으며, 그나마도 실제로 대개 그렇다는 정도의 기준일 뿐이다. 「깨어나서 내가 옷을 벗은 채 침대에 누워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면, 나는 잠들 때부터 깨어날 때까지 겪은 모든 것을 헛것이라고 판정한다」(84쪽). 「잠자는 동안 내가 꿈 영상을 실재한다고 여긴 것은, 잠재울 수 없는 정신의 습관, 곧 내 자아와 맞세울 수 있는 외부 세계를 지각하는 습관 때문이다.」[10]

외부 세계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이 꿈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들의 표지로 여겨지는 만큼, 잠든 정신과 외부 세계의 관계를 밝혀 주는 동시에 위의 추론을 과대평가하지 않도록 막아 줄, 옛 학자 부르다흐[8]의 재치 있는 관찰 몇 가지를 소개해 둘 만하다. 부르다흐는 말한다. 「잠은 정신이 감각 자극에 흥분하지 않는다는 조건에서만 생긴다…… 그러나 잠의 조건은 감각 자극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각 자극에 관심이 없는 것이다. 어떤 감각 인상은 정신을 가라앉히는 데 쓰이는 한 오히려 필요하기까지 하다. 그래서 방앗간 주인은 제 방아 돌아가는 덜거덕 소리를 들어야만 잠들 수 있고, 조심하느라 밤에 불을 켜 두어야 하는 사람은 어둠 속에서는 잠들지 못한다」(457쪽).

「정신은 잠자는 동안 외부 세계와 스스로를 격리하고 주변부에서 물러난다……. 그렇다고 연결이 완전히 끊기는 것은 아니다. 잠자는 동안에도 듣고 느끼지 못하고 깨어난 뒤에야 듣고 느낀다면, 사람은 결코 깨어나지 못할 것이다. 감각이 계속된다는 것은, 우리를 깨우는 것이 늘 인상의 감각적 힘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인상의 심리적 관계라는 사실에서 더 분명히 드러난다. 하찮은 말에는 잠든 사람이 깨지 않지만

이름을 부르면 깨어난다…… 그러므로 정신은 잠자는 동안에도 감각을 가려낸다……. 바로 그래서, 어떤 중요한 것의 표상과 관련된 감각 자극이라면 그것이 없어지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깨어날 수 있다. 등불이 꺼지면 사람이 깨어나고, 방아가 멈추면 방앗간 주인이 깨어난다. 다시 말해 깨어나는 것은 어떤 감각 활동이 멈추었기 때문이며, 이는 그 감각 활동이 지각되고 있었고, 대수롭지 않은 것, 아니 오히려 흐뭇한 것이어서 정신을 방해하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한다」(460쪽 이하).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이 반론들을 무시하기로 하더라도, 외부 세계에서 물러남으로써 생겨나는, 지금까지 살펴본 꿈 생활의 성질들로는 꿈의 낯섦을 온전히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꿈의 환각을 다시 표상으로, 꿈의 상황을 다시 생각으로 되돌려 놓을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꿈 해석이라는 과제를 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깨어난 뒤 기억을 더듬어 꿈을 재현할 때 우리가 하는 일이 바로 이것이며, 이 역번역에 온전히 성공하든 부분적으로만 성공하든 꿈은 그 신비로움을 조금도 잃지 않는다.

게다가 모든 저자는 깨어 있는 생활의 표상 재료에 그보다 더 깊은 변화가 일어난다고 서슴없이 가정한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인 슈트륌펠[66]은 이렇게 말한다(17쪽). 「객관적으로 활동하는 시야와 정상적인 의식이 멈추면, 정신은 감정, 욕망, 관심, 행동이 뿌리내리고 있던 토대를 잃는다. 깨어 있을 때 기억 이미지에 달라붙어 있던 심리 상태, 감정, 관심, 가치 평가도 …… 어떤 모호한 압력에 굴복하며, 그 결과 이것들과 이미지의 연결이 끊어진다. 깨어 있을 때 지각한 사물, 사람, 장소, 사건, 행동의 이미지는 하나하나 무척 풍부하게 재생되지만, 그 어느 것도 제 심리적 가치를 함께 데려오지 않는다. 심리적 가치는 이미지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이미지들은 제 힘에만 기대어 정신 속을 떠돈다…….」

이미지가 이처럼 심리적 가치를 빼앗기는 것은 이 또한 외부 세계에서 벗어나 있는 데서 비롯하는 일인데, 슈트륌펠에 따르면 우리 기억 속에서 꿈이 낯설게 느껴지는 인상은 주로 이 때문이다.

이미 들었듯이, 잠드는 것만으로도 심리 활동 가운데 하나, 곧 표상의 흐름을 의지로 이끄는 일을 내려놓게 된다. 그러니 다른 근거들로도 짐작되는 추측, 곧 수면 상태가 심리 기능에까지 영향을 미칠지 모른다는 추측이 절로 떠오른다. 이 기능들 가운데 어떤 것은 아예 멈추어 버릴지도 모른다. 나머지 기능이 방해받지 않고 계속 작동하는지, 이런 조건에서도 정상적으로 일을 해낼 수 있는지가 다음 물음이다. 꿈의 특성을 수면 상태의 열등한 심리 활동으로 설명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 꿈이 깨어 있을 때의 우리 판단에 남기는 인상이 이런 견해를 뒷받침한다.[11] 꿈은 앞뒤가 맞지 않고, 가장 심한 모순도 서슴없이 한데 묶으며, 불가능한 일을 허용하고, 낮에 얻은 권위 있는 지식을 무시하며, 윤리적·도덕적으로 둔감하다. 깨어 있을 때 꿈이 그 상황들 속에서 하듯 행동하는 사람은 미친 사람으로 여겨질 것이다. 깨어 있을 때 꿈 내용에 나오는 식으로 말하거나 그런 일을 보고하는 사람은 정신이 혼란하고 박약하다는 인상을 줄 것이다. 그러니 꿈속의 심리 활동을 하찮게 평가할 때, 특히 꿈에서는 고등한 지적 활동이 멈추거나 적어도 크게 손상된다고 선언할 때, 우리는 그저 사실에 알맞은 말을 찾고 있을 뿐이라고 믿는다.

저자들은 보기 드물게 한목소리로(예외는 다른 곳에서 다루겠다) 꿈에 대한 판단을 내렸는데, 그 판단은 곧바로 꿈 생활에 관한 특정한 이론이나 설명으로 이어지는 성격의 것이다. 이제 방금 내가 한 개관을, 꿈의 심리학적 성격에 관해 여러 저자, 곧 철학자와 의사들이 한 발언을 모아 보충할 때가 되었다.

르무안[42]에 따르면, 꿈 영상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 꿈의 유일한 본질적 성격이다.

모리[48]도 같은 생각이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163쪽). 「Il n'y a pas des rêves absolument raisonnables et qui ne contiennent quelque incohérence, quelque anachronisme, quelque absurdité.」〔완전히 이치에 맞아서 얼마간의 앞뒤 안 맞음, 얼마간의 시대착오, 얼마간의 부조리도 담지 않은 꿈이란 없다.〕

슈피타[64]가 인용한 헤겔에 따르면, 꿈에는 객관적이고 이해할 수 있는 연관이 전혀 없다.

뒤가[19]는 말한다. 「Le rêve, c'est l'anarchie psychique, affective et mentale, c'est le jeu des fonctions livrées à elles-mêmes et s'exerçant sans contrôle et sans but; dans le rêve l'esprit est un automate spirituel.」〔꿈, 그것은 심리적이고 감정적이며 정신적인 무정부 상태이고, 제멋대로 내버려진 채 통제도 목적도 없이 움직이는 기능들의 놀이다. 꿈속에서 정신은 하나의 정신적 자동인형이다.〕

「중심 자아의 논리적 힘으로 한데 묶여 있는 표상 생활이 느슨해지고, 풀어지고, 뒤섞이는 것」은 폴켈트[72]조차 인정한다(14쪽). 그의 이론에 따르면 잠자는 동안의 심리 활동은 결코 목적 없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데도 말이다.

꿈에 나타나는 표상 결합의 부조리를 키케로(『예언에 관하여(De Divin.)』 제2권)보다 더 강하게 단죄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Nihil tam praepostere, tam incondite, tam monstruose cogitari potest, quod non possimus somniare.」〔아무리 앞뒤가 뒤집히고, 아무리 어지럽고, 아무리 기괴하더라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이라면 우리가 꿈꾸지 못할 것은 없다.〕

페히너[25]는 말한다(522쪽). 「마치 심리 활동이 이성적인 존재의 뇌에서 바보의 뇌로 옮겨 간 것 같다.」

라데슈토크[54]는 말한다(145쪽). 「이 부조리한 활동에서 어떤 확고한 법칙을 알아보기란 정말 불가능해 보인다. 깨어 있을 때의 표상 생활을 이끄는 이성적 의지와 주의의 엄격한 단속에서 벗어난 꿈은, 모든 것을 미친 듯한 놀이 속에서 만화경처럼 어지럽게 휘돌린다.」

힐데브란트[35]는 말한다(45쪽). 「꿈꾸는 사람은, 이를테면 추론의 사슬에서, 얼마나 놀라운 비약을 스스로에게 허락하는가! 가장 익숙한 경험 법칙이 뒤집히는 것을 얼마나 태연하게 바라보는가! 흔히 말하듯 일이 너무 지나쳐 무의미가 한계까지 부풀어 오른 끝에 잠이 깨기 전까지, 자연과 사회의 질서에서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순을 견뎌 내는가!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곱셈을 한다. 셋에 셋을 곱하면 스물이다. 개가 우리에게 시를 읊어 주어도, 죽은 사람이 제 발로 무덤까지 걸어가도, 바위가 물 위를 헤엄쳐 다녀도 우리는 조금도 놀라지 않는다. 우리는 지엄한 명을 받들어 자못 진지하게 베른부르크 공국이나 리히텐슈타인 공국으로 그 나라 해군을 시찰하러 가고, 폴타바 전투 직전에 카를 12세의 의용병으로 입대하기도 한다.」

빈츠[4]는 이런 인상에서 나오는 꿈 이론을 짚는다(33쪽). 「꿈 열 가운데 적어도 아홉은 내용이 부조리하다. 우리는 꿈에서 서로 조금도 관계없는 사람이나 사물을 한데 묶는다. 다음 순간 만화경 속에서처럼 배열이 바뀌는데, 할 수만 있다면 앞의 것보다 더 무의미하고 비합리적인 배열로 바뀐다. 이렇게 불완전하게 잠든 뇌의 변덕스러운 놀이가 이어지다가, 마침내 우리는 깨어나 이마에 손을 얹고, 내게 정말 아직 이성적으로 상상하고 사고하는 능력이 있는지 스스로 묻는다.」

모리[48]는 꿈 영상이 깨어 있을 때의 생각과 맺는 관계를 두고, 의사에게 무척 인상적인 비유를 찾아낸다(50쪽). 「La production de

ces images que chez l'homme éveillé fait le plus souvent naître la volonté, correspond, pour l'intelligence, à ce que cont pour la motilité certains mouvements que nous offrent la chorée et les affections paralytiques…….」〔깨어 있는 사람에게서는 대개 의지가 불러일으키는 이 영상들의 산출이 지성에 대해 갖는 의미는, 무도병과 마비성 질환에서 보이는 어떤 운동들이 운동성에 대해 갖는 의미와 같다…….〕 그 밖에도 그는 꿈을 「toute une série de dégradation de la faculté pensant et raisonant」〔생각하고 추론하는 능력이 줄줄이 퇴락해 가는 과정 전체〕로 여긴다(27쪽).

모리의 이 주장을 개개의 고등 심리 활동에 대해 되풀이하는 저자들의 발언은 굳이 들 필요가 없을 것이다.

슈트륌펠[66]에 따르면 꿈에서는 관계와 연관에 바탕을 둔 몇몇 논리적 정신 작용이 사라지며, 무의미가 드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물론 그렇다(26쪽). 슈피타[64](148쪽)에 따르면 꿈속의 표상은 인과법칙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다. 라데슈토크[54]와 다른 저자들은 꿈에서 판단과 결단이 약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요들[37](123쪽)에 따르면 꿈에는 비판이 없고, 의식 전체의 내용으로 일련의 지각을 바로잡는 일도 없다. 같은 저자는 「꿈에서도 의식적 활동의 모든 형식이 나타나지만, 그것들은 불완전하고, 제지되어 있으며, 서로 고립되어 있다」고 말한다. 꿈에 드러나는, 우리의 의식적 지식에 어긋나는 모순을 슈트리커[77][78](그리고 다른 많은 사람)는 꿈에서는 사실이 잊히고 표상 사이의 논리적 관계가 사라진다는 근거로 설명한다(98쪽). 기타 등등.

이처럼 꿈속의 심리 능력을 대체로 나쁘게 말하는 저자들도, 꿈에 심리 활동의 어떤 잔여가 남아 있다는 것만은 인정한다. 꿈 문제를 다루는 다른 많은 연구자에게 가르침으로 영향을 준 분트[76]는 이를

분명히 인정한다. 꿈에 나타나는 정신생활의 잔여가 어떤 종류이며 어떻게 움직이는지 물어볼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거의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바로는, 재생 능력, 곧 꿈속의 기억이 가장 적게 손상된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깨어 있는 생활의 같은 기능보다 어느 정도 뛰어날 수도 있다(이 장 (나) 참조). 물론 꿈의 부조리 가운데 일부는 바로 꿈 생활의 이런 망각으로 설명해야 하지만 말이다. 슈피타[64]에 따르면, 잠에 사로잡히지 않고 남아 꿈을 이끄는 것은 마음의 정서 생활이다. 「심정(Gemüth)이란 인간의 가장 내밀한 주관적 본질로서 감정들을 변함없이 아우르는 것을 말한다」(84쪽).

솔츠[59](37쪽)는 꿈 재료가 겪는 「우의적 해석」에서 꿈에 드러나는 심리 활동을 본다. 지베크[62]는 정신이 지각하고 바라보는 모든 것에 가하는 「보충적 해석 활동」(11쪽)을 꿈에서도 확인한다. 겉보기에 가장 높은 심리 기능인 의식에 대해서는, 꿈의 경우 판단하기가 특히 어렵다. 우리는 무엇이든 의식을 거쳐서만 알 수 있으므로 꿈에서 의식이 유지된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슈피타는 꿈에서 유지되는 것은 의식뿐이고 자기의식은 유지되지 않는다고 믿는다. 델뵈프[16]는 이런 구별을 도무지 생각할 수 없다고 고백한다.

관념의 결합을 지배하는 연상 법칙은 꿈 영상에도 들어맞는다. 아니, 꿈에서는 다른 어디에서보다 그 지배가 더 순수하고 강하게 드러난다. 슈트륌펠[66]은 말한다(70쪽). 「꿈은 보기에 오로지 꾸밈없는 표상의 법칙만을 따르거나, 아니면 그런 표상과 더불어 기관 자극을 따른다. 다시 말해 숙고와 이성, 미적 감각, 도덕적 판단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내가 여기 견해를 소개한 저자들은 꿈 형성을 대략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다른 곳에서 논한 여러 원천에서 와서 잠에 작용하는 감각 자극의 총합이 먼저 정신 속에 한 무리의 표상을 일깨우고, 이 표상들은 환각으로 나타난다(분트에 따르면 외부 자극과 내부 자극에서

생겨나므로 착각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편이 더 정확하다). 이 표상들은 알려진 연상 법칙에 따라 서로 결합하고, 같은 규칙에 따라 다시 새로운 일련의 표상(영상)을 불러낸다. 그러고 나면 아직 활동하고 있는, 정리하고 사고하는 정신 능력의 잔여가 이 재료 전체를 되도록 잘 가공한다(분트[76]와 바이간트[75] 참조). 그러나 객관적으로 생겨나지 않은 영상들이 깨어날 때 이런저런 연상 법칙을 따르도록 결정하는 동기를 찾아낸 사람은 아직 아무도 없다.

그러나 꿈 표상들을 서로 잇는 연상이 특별한 종류의 것이어서 깨어 있을 때의 정신 활동에서 보는 연상과 다르다는 것도 여러 번 관찰되었다. 그래서 폴켈트[72]는 말한다. 「꿈에서는 표상들이 우연한 유사성과 거의 알아챌 수 없는 연관에 기대어 서로 쫓고 쫓긴다. 모든 꿈에는 이런 느슨하고 자유로운 연상이 배어 있다.」 모리[48]는 표상 사이의 이런 결합 방식을 매우 중시하는데, 이 특징 덕분에 그는 꿈 생활을 어떤 정신 장애들에 더 가깝게 견줄 수 있었다. 그는 délire 〔섬망〕의 두 가지 주요 특징을 이렇게 든다. 「(1) une action spontanée et comme automatique de l'esprit; (2) une association vicieuse et irrégulière des idées」〔(1) 정신의 자발적이고 거의 자동적인 활동, (2) 관념의 그릇되고 불규칙한 연합〕(126쪽). 모리는 자기 꿈에서 뛰어난 예를 두 가지 들려주는데, 거기서는 소리가 비슷하다는 것 하나만으로 꿈 표상들이 이어진다. 한번은 그가 예루살렘인지 메카인지로 순례(pélerinage)를 떠나는 꿈을 꾸었다. 숱한 모험 끝에 그는 화학자 펠티에(Pelletier)와 함께 있었다. 펠티에는 이야기를 좀 나누더니 그에게 아연 삽(pelle)을 하나 주었는데, 이어진 꿈 조각에서 그 삽은 그의 기다란 장검이 되었다(137쪽). 또 한번은 꿈에서 큰길을 걸으며 이정표에 적힌 킬로미터(kilometres)를 읽었다. 이윽고 그는 한 향신료 상인과 함께 있었는데, 상인에게는 모리의

몸무게를 달 커다란 저울이 있었다. 그러고 나서 상인이 그에게 말했다. 「파리에 계신 게 아니라 질롤로(Gilolo) 섬에 계신 겁니다.」 그 뒤로 여러 영상이 이어졌는데, 그 속에서 그는 로벨리아(Lobelia) 꽃을 보았고, 이어서 얼마 전 사망 소식을 읽었던 로페스(Lopez) 장군을 보았다. 마침내 그는 로토(lotto) 놀이를 하다가 잠에서 깼다.

그러나 꿈의 심리 활동을 이렇게 깎아내리는 데 반대편의 반박이 없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을 각오는 충분히 되어 있다. 물론 여기서 반박하기란 어려워 보인다. 꿈 생활을 깎아내리는 사람 가운데 하나인 슈피타[64](118쪽)가 깨어 있는 상태를 지배하는 것과 같은 심리학적 법칙이 꿈도 지배한다고 장담하거나, 또 다른 사람(뒤가[19])이 「Le rêve n'est pas déraison ni même irraison pure」〔꿈은 이성의 상실도 아니고, 순전한 비이성조차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도, 두 사람 모두 자기들이 묘사한 꿈속의 심리적 무정부 상태와 모든 기능의 해체를 이 평가와 조화시키려고 전혀 애쓰지 않는 한 그다지 의미가 없다. 그러나 다른 이들에게는, 꿈의 광기에도 어쩌면 나름의 조리가 있을지 모른다는, 곧 어쩌면 덴마크 왕자의 광기처럼 꾸민 것에 지나지 않을지 모른다는 가능성이 떠오른 듯하다. 여기 인용한 재치 있는 판단은 바로 그 왕자의 광기를 두고 한 말이다. 이 저자들은 겉모습으로 판단하기를 삼갔거나, 아니면 꿈이 그들에게 보여 준 겉모습이 전혀 달랐을 것이다.

해블록 엘리스[23]는 꿈의 겉보기 부조리에 머무르려 하지 않고, 꿈을 「거대한 감정과 불완전한 생각으로 이루어진 태곳적 세계」로 여기며, 그 세계를 연구하면 정신생활의 원시적 발달 단계를 알게 될지도 모른다고 본다. 델뵈프[16] 같은 사상가는 이렇게 단언하는데, 물론 반대되는 자료에 맞설 증거는 대지 않았으니 실로 부당한 단언이다. 「Dans le sommeil, hormis la perception, toutes les facultés de l'esprit, intelligence, imagination, mémoire, volonté,

moralité, restant intactes dans leur essence; seulement, elles s'appliquent à des objets imaginaires et mobiles. Le songeur est un acteur qui joue à volonté les fous et les sages, les bourreaux et les victimes, les nains et les géants, les démons et les anges」〔잠 속에서도 지각을 빼면 정신의 모든 능력, 곧 지성, 상상력, 기억, 의지, 도덕성은 그 본질에서 온전히 남아 있다. 다만 그것들이 상상의 대상, 움직이는 대상에 적용될 뿐이다. 꿈꾸는 사람은 미치광이와 현자, 사형 집행인과 희생자, 난쟁이와 거인, 악마와 천사를 마음대로 연기하는 배우다〕(222쪽). 에르베 후작은 모리[48]에게 날카롭게 반박당한 사람이고, 나는 온갖 애를 썼지만 그의 저작을 구하지 못했다. 그런데 그는 꿈속 심리 능력의 과소평가에 누구보다 힘차게 맞서 싸운 듯하다. 모리는 그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19쪽). 「M. le Marquis d'Hervey prête à l'intelligence, durant le sommeil toute sa liberté d'action et d'attention et il ne semble faire consister le sommeil que dans l'occlusion des sens, dans leur fermeture au monde extérieur; en sorte que l'homme qui dort ne se distingué guère, selon sa manière de voir, de l'homme qui laisse vaguer sa pensée en se bouchant les sens; toute la différence qui séparé alors la pensée ordinaire du celle du dormeur c'est que, chez celui-ci, l'idée prend une forme visible, objective et ressemble, à s'y méprendre, à la sensation déterminée par les objets extérieurs; le souvenir revêt l'apparence du fait présent.」〔에르베 후작은 잠자는 동안에도 지성에 행동과 주의의 자유를 온전히 인정하며, 잠이란 감각이 막히는 것, 곧 감각이 외부 세계를 향해 닫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는 듯하다. 그래서 그의 견해로는 잠자는 사람은 감각을 막은 채 생각이

떠돌도록 내버려 두는 사람과 거의 다르지 않다. 그때 평소의 생각과 잠자는 사람의 생각을 가르는 차이는 오직 하나, 잠자는 사람에게서는 관념이 눈에 보이는 객관적 형태를 띠고, 외부 대상이 일으키는 감각과 혼동할 만큼 닮는다는 것이다. 기억이 눈앞의 사실이라는 겉모습을 입는 것이다.〕

그러나 모리는 이렇게 덧붙인다. 「Qu'il y a une différence de plus et capitale à savoir que les facultés intellectuelles de l'homme endormi n'offrent pas l'équilibre qu'elles gardent chez l'homme l'éveillé.」〔차이가 하나 더 있으며, 그것도 결정적인 차이다. 곧 잠든 사람의 지적 능력은 깨어 있는 사람에게서 유지하는 균형을 보여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꿈을 심리적 산물로 보고 매기는 평가는 문헌에서 그 폭이 매우 넓다. 그것은 우리가 이미 그 표현을 알게 된 가장 낮은 과소평가에서 시작해, 아직 드러나지 않은 가치가 있으리라는 생각을 거쳐, 꿈을 깨어 있는 생활의 능력보다 훨씬 높이 두는 과대평가에까지 이른다. 알다시피 심리학적 특징들을 세 가지 이율배반으로 그려 낸 힐데브란트[35]는, 그 셋째 대립에서 이 계열의 양 끝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19쪽). 「그것은 한편의 고조, 흔히 거장다운 경지에까지 이르는 거듭된 상승과, 다른 한편의 정신생활의 뚜렷한 감퇴와 쇠약, 흔히 인간의 수준 아래로까지 떨어지는 감퇴와 쇠약 사이에 있다.」

「첫째 것에 관해서라면, 꿈의 정령이 지어내고 엮어 내는 것 속에 때로 감정의 깊이와 진실함, 섬세한 느낌, 명료한 시야, 예리한 관찰, 재빠른 재치가 드러난다는 것을, 곧 우리가 깨어 있는 동안 늘 지닌 자질이라고는 겸손하게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 모든 것이 드러난다는 것을 제 경험으로 확인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꿈에는 놀라운 시정(詩 情), 뛰어난 우의(寓 意), 비할 데 없는 유머, 매혹적인

아이러니가 있다. 꿈은 독특한 이상화의 옷을 입혀 세계를 바라보며, 흔히 그 현상들이 주는 효과를 끌어올려 그 바탕에 놓인 본질을 더없이 재치 있게 이해하는 데까지 이른다. 꿈은 지상의 아름다움을 참으로 천상의 광채 속에, 숭고한 것을 최고의 위엄 속에, 실제로 무서운 것을 가장 소름 끼치는 모습 속에, 우스운 것을 이루 말할 수 없이 걸쭉한 익살 속에 그려 보인다. 그리고 때로는 깨어난 뒤에도 이런 인상 가운데 하나로 가슴이 가득 차서, 현실 세계는 이런 것을 한 번도 우리에게 베풀어 준 적이 없다고 여기게 된다.」

어떤 이는 이렇게 물을 것이다. 깎아내리는 말과 이 열광적인 찬사는 정말로 같은 대상을 두고 하는 말인가? 찬사를 보내는 이들은 어리석은 꿈을, 깎아내리는 이들은 사려 깊고 재치 있는 꿈을 못 보고 지나친 것은 아닌가? 그리고 두 종류가 다 있다면, 곧 이렇게도 저렇게도 판단받아 마땅한 꿈이 다 있다면, 꿈의 심리학적 성격을 찾는 것은 헛된 일로 보이지 않는가? 꿈에서는 정신생활의 가장 낮은 저하에서부터 깨어 있을 때에는 보기 드문 고양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이 해결책은 편리하기는 하지만 이런 반론에 부딪힌다. 모든 꿈 연구자의 노력 뒤에는, 본질적인 특징에서 보편적으로 타당하고 이런 모순들을 없애 줄, 규정할 수 있는 꿈의 성격이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듯하다는 것이다.

정밀한 자연 과학보다 철학이 지성인들의 정신을 지배하던, 이제는 지나간 그 지적 시대에 꿈의 심리 능력이 더 빠르고 더 따뜻하게 인정받았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꿈은 정신을 외부 자연의 힘에서 해방하며 영혼을 감각적인 것의 사슬에서 풀어 준다는 슈베르트의 발언, 그리고 꿈을 정신생활이 더 높은 단계로 날아오르는 것으로 그린 아들 피히테[12]와 그 밖의 사람들이 표명한 비슷한 견해는, 오늘날 우리에게는 거의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 이런 말은

신비주의자와 신심 깊은 이들이나 되풀이할 뿐이다. 과학적 사고방식이 발전하면서 꿈의 평가에도 반동이 일어났다. 꿈의 심리 활동을 하찮고 가치 없는 것으로 가장 쉽게 깎아내리는 사람은 사실 의학계 저자들이다. 반면에 철학자와 비전문 관찰자, 곧 아마추어 심리학자들은 대중의 생각과 더 잘 맞게 대체로 꿈의 심리적 가치를 고수해 왔는데, 이 분야에서 이들의 기여는 결코 간과할 수 없다. 꿈속 심리 능력을 낮게 평가하는 쪽으로 기우는 사람은 당연히 꿈의 원인론에서 신체적 자극원을 더 중시한다. 꿈꾸는 정신에게 그 능력의 대부분을 남겨 두는 사람은, 꿈꾸기에 독자적인 자극도 있다고 인정하지 않을 이유가 당연히 없다.

냉정하게 견주어 보아도 꿈 생활에 돌리고 싶어지는 뛰어난 활동 가운데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기억이다. 이 사실을 증명하는 흔한 경험은 이미 충분히 논했다. 옛 저자들이 자주 칭송한 꿈 생활의 또 다른 우월성, 곧 꿈은 시간과 공간의 거리를 뛰어넘어 군림할 수 있다는 것은 착각임을 쉽게 알 수 있다. 힐데브란트[35]가 지적하듯 이 우월성은 착각에 지나지 않는다. 꿈도 깨어 있을 때의 사고만큼 시간과 공간을 고려하는데, 꿈은 사고의 한 형식일 뿐이기 때문이다. 꿈은 시간과 관련해 또 하나의 이점을 누린다고 여겨진다. 곧 또 다른 의미에서 시간의 흐름에 매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앞에서 이야기한 모리[48]의 단두대 꿈 같은 꿈들은, 꿈이 아주 짧은 시간 안에, 깨어 있는 정신에서 우리의 심리 활동이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지각 내용을 몰아넣을 수 있음을 보여 주는 듯하다. 그러나 이 결론은 많은 논거로 반박되었다. 르 로랭[45]과 에게르[20]의 논문 「꿈의 겉보기 지속 시간에 관하여」는 길고도 흥미로운 논쟁을 불러일으켰는데, 이 미묘하고 파장이 큰 물음에 대해 그 논쟁이 마지막 말을 한 것은 아마 아닐 것이다.

꿈이 낮의 지적 작업을 이어받아 낮 동안 결말을 보지 못한 것을 매듭지을 수 있다는 것, 의심과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것, 시인과 작곡가에게 새로운 영감의 원천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수많은 보고와 샤바네[11]가 엮은 모음집이 보여 주듯 논란의 여지가 없는 듯하다. 그러나 사실 자체에는 이견이 없다 해도, 그 사실의 해석은 원칙적으로 수많은 의문에 열려 있다.

끝으로, 꿈에 있다고들 하는 예언의 힘은 논쟁의 대상이며, 여기서 넘어설 수 없는 냉엄한 숙고가 고집스럽고 끈질긴 믿음과 맞부딪친다. 이 문제에서 사실에 바탕을 둔 것을 모조리 부정하지 않도록 삼가는 것은 실로 옳은 일이다. 그런 사례 가운데 몇몇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심리학적 근거로 설명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바) 꿈속의 윤리적 감정

나 자신의 꿈 연구를 알고 난 뒤에야 비로소 이해될 이유로, 나는 깨어 있는 삶의 도덕적 성향과 감정이 꿈속까지 미치는지, 미친다면 어디까지 미치는지 하는 부분 문제를 꿈의 심리학에서 떼어 놓았다. 다른 모든 심리적 능력에 관한 저자들의 서술에서 우리를 놀라게 했던 모순이 여기서도 다시 눈에 띈다. 어떤 이들은 꿈이 도덕적 의무를 전혀 모른다고 단호히 주장하고, 다른 이들은 인간의 도덕적 본성이 꿈 생활에서도 그대로 남는다고 그만큼 단호히 주장한다.

밤마다 겪는 꿈의 경험을 떠올려 보기만 해도 첫째 주장이 옳다는 것은 의심할 나위가 없어 보인다. 예센[36]은 이렇게 말한다(553쪽). 「꿈속에서 사람이 더 나아지거나 더 덕스러워지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꿈속에서는 양심이 입을 다무는 듯하다. 꿈에서는 동정을 느끼지

않으며, 도둑질과 살인과 암살 같은 가장 나쁜 범죄도 더없이 무심하게, 나중에 뉘우치지도 않고 저지를 수 있기 때문이다.」

라데슈토크[54](146쪽)는 이렇게 말한다. 「 눈여겨볼 것은, 꿈속에서는 연상이 맺어지고 표상이 결합하되 숙고와 이성, 미적 취향과 도덕적 판단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이다. 판단력은 극도로 약해지고, 윤리적 무관심이 모든 것을 지배한다.」

폴켈트[72](23쪽)는 이렇게 표현한다. 「누구나 알다시피 꿈속의 성적 관계는 유난히 고삐가 풀려 있다. 꿈꾼 사람 자신이 더할 나위 없이 파렴치하고 도덕적 감정과 판단을 송두리째 잃어버린 것처럼, 그는 다른 사람들, 심지어 가장 존경하는 이들까지도, 깨어 있을 때라면 생각 속에서조차 그들과 결부시키기를 부끄러워했을 행위를 하고 있는 모습으로 본다.」

꿈속에서 사람은 누구나 자기 성격대로 행동하고 말한다는 쇼펜하우어 같은 이들의 발언은 앞에서 든 말들과 가장 날카롭게 대조된다. R. P. 피셔[13]는, 주관적인 감정과 욕망, 또는 정동과 정념이 꿈 생활의 자의성 속에서 드러나며, 한 사람의 도덕적 특성이 그의 꿈에 비쳐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하프너[32](25쪽): 「드문 예외를 빼면…… 덕 있는 사람은 꿈에서도 덕이 있을 것이다. 그는 유혹을 물리치고, 증오와 시기와 분노를 비롯한 온갖 악덕에 조금도 마음을 주지 않을 것이다. 반면 죄 많은 사람은 대개 깨어 있을 때 눈앞에 두는 영상을 꿈에서도 발견할 것이다.」

숄츠[59](36쪽): 「꿈속에는 진실이 있다. 오만으로 가리든 겸손으로 가리든 온갖 가면을 쓰고 있어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 자신을 알아본다……. 정직한 사람은 꿈에서도 명예롭지 못한 죄를 저지르지 않으며, 설령 그런 일이 생기더라도 자기 본성에 낯선 무언가를 대하듯 그 일에 소스라친다. 황제의 목을 베는 꿈을 꾸었다는 이유로 신하

하나를 처형하게 한 로마 황제는, 그런 꿈을 꾸는 자라면 깨어 있을 때도 비슷한 생각을 품고 있음이 틀림없다는 근거를 들어 자기 처사를 정당화했는데, 그것은 잘못이 아니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도무지 자리할 수 없는 일을 두고 우리는 의미심장하게도 『그런 일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한다.」

파프[14]는 잘 알려진 속담을 바꾸어 이렇게 말한다. 「한동안 꾼 꿈을 내게 말해 보라. 그러면 네가 속으로 어떤 사람인지 말해 주겠다.」

내가 이미 숱하게 인용한 힐데브란트[35]의 짧은 저작은, 내가 문헌에서 찾아낸 어느 것 못지않게 완결되고 생각이 풍부한 꿈 문제 연구로서, 꿈속의 도덕성 문제를 관심의 한가운데에 놓는다. 힐데브란트에게도 삶이 깨끗할수록 꿈도 깨끗하고, 삶이 더러울수록 꿈도 더럽다는 것은 엄격한 규칙이다.

인간의 도덕적 본성은 꿈에서도 남아 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뻔한 계산 착오에도, 아무리 낭만적으로 학문을 뒤집어 놓은 것에도, 아무리 재치 있는 시대착오에도 기분이 상하거나 의심을 품지 않으면서도, 선과 악, 옳음과 그름, 덕과 악덕의 차이만은 놓치지 않는다. 낮 동안 우리를 따라다니던 것이 잠자는 시간에 아무리 많이 사라진다 해도, 칸트의 정언 명령만은 떼어 낼 수 없는 길동무처럼 우리 발꿈치에 달라붙어 잠결에도 떨쳐 버릴 수가 없다……. 그러나 이것은 오직, 인간 본성의 근본인 도덕적 본질이 너무나 단단히 뿌리박혀 있어서, 꿈속에서 상상력과 이성과 기억과 그 밖의 같은 급의 능력들이 휩쓸려 드는 만화경 같은 뒤흔들림에 끼어들지 않는다는 사실로만 설명할 수 있다」(45쪽 이하).

이 문제를 더 논의해 나가면서 우리는 두 무리의 저자 모두에게서 기묘한 왜곡과 비일관성을 보게 된다. 엄밀히 말하면, 꿈속에서는 사람의 도덕적 인격이 허물어진다고 주장하는 이들에게 부도덕한 꿈은

더는 관심거리가 못 될 것이다. 그들은 꿈이 부조리하다는 데서 깨어 있을 때의 지적 생활이 보잘것없음을 증명하려는, 겉보기에 비슷한 시도를 물리쳤던 것과 똑같이 태연하게, 꿈꾼 사람에게 그 꿈의 책임을 지우고 꿈이 나쁘다는 데서 그의 본성에 악한 기질이 있다고 추론하려는 시도도 물리칠 수 있을 것이다. 「정언 명령」이 꿈속까지 미친다고 보는 다른 쪽 사람들은 부도덕한 꿈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다만 그들 자신을 위해서는, 그들이 꾼 불미스러운 꿈 때문에 평소 굳게 지켜 온 자기 도덕성에 대한 평가를 저버리게 되는 일이 없기를 바랄 따름이다.

그렇지만 자기가 얼마나 선한지 얼마나 악한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는 듯하고, 자기가 꾼 부도덕한 꿈의 기억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도 없는 듯하다. 꿈의 도덕성을 평가하는 데서 이미 말한 대립 말고도, 두 무리의 저자는 모두 부도덕한 꿈이 어디서 생겨나는지 설명하려고 애쓰는데, 그 기원을 정신생활의 기능에서 찾느냐 신체적 원인으로 정신생활이 입는 손상에서 찾느냐에 따라 새로운 대립이 생겨나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사실이 절박하게 밀어붙이는 힘에 떠밀려, 꿈 생활의 책임을 주장하는 쪽도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쪽도 꿈의 부도덕성에 특별한 심리적 원천이 있다는 것만은 함께 인정하게 된다.

꿈속에서도 도덕성이 이어진다고 인정하는 이들도 모두 자기 꿈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지는 것만은 경계한다. 하프너[32]는 이렇게 말한다(24쪽). 「우리는 꿈에 책임이 없다. 우리의 삶이 진리와 실재성을 지니게 해 주는 유일한 토대가 우리의 생각에서 떨어져 나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꿈속에서 바라는 일도 꿈속에서 행하는 일도 있을 수 없고, 덕도 죄도 있을 수 없다.」 그래도 사람은 죄스러운 꿈을 간접적으로 불러오는 한에서는 그 꿈에 책임이 있다. 깨어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도덕적 마음을 깨끗이 할 의무가 있으며,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더욱 그렇다.

꿈의 도덕적 내용에 대한 책임을 한편으로 물리치고 한편으로 인정하는 이 뒤섞인 태도를 힐데브란트는 훨씬 더 깊이 분석해 들어간다. 그는 꿈의 극적인 표현 방식, 가장 복잡한 숙고 과정을 아주 짧은 시간에 몰아넣는 일, 그리고 그 자신도 인정하는 꿈속 표상 요소의 가치 저하와 혼란을 꿈의 부도덕한 측면에 불리한 사정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조목조목 밝힌다. 그런데도 그는 더없이 진지한 숙고에 떠밀려, 허물과 꿈속의 죄에 대한 책임을 모두 그냥 부인하고 싶어진다고 고백한다.

(49쪽): 「어떤 부당한 비난, 특히 우리의 의도와 신념에 관계된 비난을 아주 단호하게 물리치고 싶을 때, 우리는 자연스레 그런 일은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표현을 쓴다. 물론 이 말로 우리가 하려는 이야기는, 꿈의 영역이야말로 우리가 자기 생각에 책임을 져야 할 가장 마지막이자 가장 먼 곳이라고 여긴다는 것이다. 그곳의 생각은 우리의 참된 존재와 느슨하게, 앞뒤 없이 이어져 있을 뿐이어서 우리 자신의 생각으로 여기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영역에서조차 그런 생각이 있었다는 것을 굳이 부정해야겠다고 느끼는 바로 그 점에서, 우리는 우리의 해명이 그곳까지 미치지 않으면 완전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동시에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셈이다. 그리고 나는 우리가 여기서 비록 자기도 모르게나마 진실의 언어를 말하고 있다고 믿는다.」

(52쪽): 「꿈에 떠오른 생각치고, 그 첫 동기가 깨어 있을 때 이미 어떤 소원이나 욕망이나 충동으로 마음을 스쳐 가지 않은 것은 상상할 수 없다.」 이 본래의 충동에 대해서는, 꿈이 그것을 찾아낸 것이 아니라고 말해야 한다. 꿈은 그것을 흉내 내고 늘려 놓았을 뿐이며, 우리 안에서 찾아낸 역사적 재료 한 조각을 극의 형식으로 가공했을 뿐이다.

꿈은 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자라는 사도의 말을 극으로 옮겨 보일 뿐이다. 그리고 깨어나서 자신의 도덕적 힘을 의식하게 되면 우리는 타락한 꿈이 대담하게 지어 올린 건축물을 보고 웃을 수도 있지만, 그 건축물을 빚어낸 본래의 재료에는 우스운 구석이 조금도 없다. 사람은 꿈꾼 사람의 잘못에 대해, 그 전액은 아니더라도 일정한 비율만큼은 책임을 느낀다. 「반박하기 어려운 이런 뜻에서 우리는, 마음에서 악한 생각이 나온다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해한다. 꿈에서 저지른 죄는 하나하나가 적어도 희미한 최소한의 죄책을 함께 가져온다는 확신을 우리는 좀처럼 떨쳐 버릴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힐데브란트는 꿈의 부도덕성이 생겨나는 원천을, 낮 동안 유혹하는 생각으로 우리 마음을 스쳐 가는 악한 충동의 싹과 기미에서 찾으며, 이 부도덕한 요소도 인격의 도덕적 평가에 넣어 셈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알다시피 어느 시대에나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들이 자신은 악한 죄인이라고 탄식하게 만든 것도 바로 이 같은 생각, 이 생각에 대한 이 같은 평가였다.

이런 대조되는 표상이 대부분의 사람에게, 그것도 윤리 영역이 아닌 곳에서도 두루 나타난다는 것은 분명 의심할 이유가 없다. 이 표상들에 대한 판단이 때로는 그리 심각하지 않았다. 슈피타[64]에게서 우리는 이와 관련된 A. 첼러의 다음과 같은 말을 발견한다(에르슈와 그루버가 엮은 『학문 일반 백과사전(Allgemeinen Encyklopädie der Wissenschaften)』의 「광기(Irre)」 항목, 144쪽). 「정신이 늘 충분한 힘을 지녀서, 평소의 맑은 생각의 흐름을 거스르는 비본질적인 표상뿐 아니라 아주 터무니없는 표상에도 방해받지 않을 만큼 행복하게 짜여 있는 경우는 드물다. 실로 가장 위대한 사상가들도, 꿈처럼 어지럽히고 괴롭히는 이 표상의 무리가 자신의 가장 깊은 사색과 가장 거룩하고 진지한 정신 작업을 망쳐 놓는다고 한탄할 까닭이 있었다.」

이 대조 표상이 심리학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지는 힐데브란트의 또 다른 관찰이 더 밝게 비추어 준다. 꿈은 때로 깨어 있을 때에는 대개 닫혀 있는 우리 존재의 깊고 가장 내밀한 곳을 들여다보게 해 준다는 것이다(55쪽). 칸트도 『인간학』에서 같은 인식을 드러낸다. 꿈은 우리에게 숨은 성향을 드러내 보이고, 우리가 무엇인지가 아니라 다른 교육을 받았더라면 무엇이 되었을지를 보여 주려고 존재한다는 것이다. 라데슈토크[54](84쪽)는 꿈이 흔히 우리가 스스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을 드러내 보일 뿐이며, 그래서 우리가 꿈을 거짓말쟁이요 사기꾼이라고 부당하게 욕한다고 말한다. 우리 의식에 낯선 충동이 나타나는 것은, 깨어 있을 때에는 없거나 보잘것없는 역할밖에 하지 않는 다른 표상 재료를 꿈이 마음대로 다루는, 이미 익숙한 그 방식과 비슷한 일일 뿐이다. 이 점을 일깨워 준 것은 베니니[3] 같은 이들의 관찰이다. 베니니는 이렇게 말한다. 「Certe nostre inclinazione che si credevano soffocate a spente da un pezzo, si ridestano; passioni vecchie e sepolte rivivono; cose e persone a cui non pensiamo mai, ci vengono dinanzi」〔오래전에 숨이 막혀 꺼져 버린 줄 알았던 우리의 어떤 성향이 다시 깨어나고, 묻혀 있던 옛 정념이 되살아나며, 우리가 한 번도 생각하지 않는 사물과 사람이 눈앞에 나타난다〕(149쪽). 폴켈트[72]도 비슷하게 말한다. 「거의 알아차리지 못한 채 우리 의식에 들어왔고 어쩌면 한 번도 망각에서 불려 나온 적이 없는 표상조차, 꿈에서 제가 마음속에 있음을 알려 오는 일이 흔하다」(105쪽). 끝으로, 슐라이어마허[61]에 따르면 잠들어 가는 상태에는 원치 않는 표상(영상)이 나타난다는 것도 여기서 말해 두어 무방할 것이다.

부도덕한 꿈에서도 부조리한 꿈에서도 나타나 우리를 놀라게 하는 이 표상 재료 전체를 「원치 않는 표상」이라는 이름 아래 묶을 수 있다. 중요한 차이는 하나뿐이다. 도덕 영역의 원치 않는 표상은 우리의 다른

감정과 대립하는 반면, 다른 것들은 그저 낯설게 보일 뿐이라는 점이다. 더 깊이 파고드는 인식으로 이 차이를 없앨 수 있게 해 줄 만한 일은 아직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렇다면 꿈속에 원치 않는 표상이 나타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대조되는 윤리적 충동이 이렇게 밤에 드러나는 데서, 깨어 있는 정신과 꿈꾸는 정신의 심리학을 위해 어떤 추론을 끌어낼 수 있는가? 여기서 우리는 새로운 견해 차이와, 또 한 번 달라진 저자들의 편 가르기를 보게 된다. 힐데브란트와 그의 기본 견해를 대변하는 다른 이들이 따라온 생각의 흐름은 이렇게밖에는 이어 갈 수 없다. 곧 부도덕한 충동에는 깨어 있을 때에도 어떤 힘이 있고 다만 그 힘이 행동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제지당하고 있다고 보는 것, 그리고 잠자는 동안에는 무언가가 떨어져 나가는데 바로 그것이 제지로 작용하여 우리가 그런 충동의 존재를 알아차리지 못하게 막아 왔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꿈은 인간의 본성을, 그 전부는 아니더라도 참모습을 보여 주며, 숨은 정신생활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해 주는 수단이다. 힐데브란트가 꿈에 영혼의 도덕적 황폐를 일깨워 주는 경고자의 역할을 맡길 수 있는 것도 오직 이런 가정 위에서다. 의사들이 보기에 꿈이 아직 눈에 띄지 않은 몸의 병을 알려 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슈피타[64] 역시 이와 다른 견해에 이끌렸을 리 없다. 그는 예컨대 사춘기에 정신으로 밀려드는 흥분의 흐름을 언급하면서, 깨어 있는 동안 엄격하게 덕스러운 삶을 살고, 죄스러운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억제하려고 애쓰고, 그 생각이 무르익어 행동이 되지 못하게 막았다면 꿈꾼 사람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한 것이라며 그를 위로한다. 이 견해에 따르면 우리는 「원치 않는」 표상을 낮 동안 「억제된」 표상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이 나타나는 데서 실제의 심리적 현상을 인정해야 한다.

다른 저자들을 따른다면 이 마지막 추론을 내릴 권리는 우리에게 없을 것이다. 예센[36]에게 원치 않는 표상은 꿈에서도 깨어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또 열병이나 그 밖의 섬망에서도, 그저 「휴식에 들어간 의지 활동의 성격, 그리고 내적 충동이 불러일으킨 영상과 표상의 다소 기계적인 진행이라는 성격」을 띨 뿐이다(360쪽). 부도덕한 꿈이 꿈꾼 사람의 정신생활에 대해 증명하는 것은, 그가 어떤 식으로든 문제의 표상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뿐이다. 그것은 결코 그 자신의 심리적 충동이 아니다. 또 다른 저자 모리[48]를 읽으면, 그 역시 꿈의 상태에 심리적 활동을 목적 없이 파괴하는 대신 그 구성 요소로 나누는 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그는 도덕의 경계를 넘어서는 꿈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Ce sont nos penchants qui parlent et qui nous font agir, sans que la conscience nous retienne, bien que parfois elle nous avertisse. J'ai mes défauts et mes penchants vicieux; à l'état de veille, je tache de lutter contre eux, et il m'arrive assez souvent de n'y pas succomber. Mais dans mes songes j'y succombe toujours ou pour mieux dire j'agis, par leur impulsion, sans crainte et sans remords……. Évidemment les visions qui se déroulent devant ma pensée et qui constituent le rêve, me sont suggérées par les incitations que je ressens et que ma volonté absente ne cherche pas à refouler」〔말하고 우리를 행동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성향이다. 양심은 때로 경고는 할지언정 우리를 붙들지는 않는다. 나에게도 결점과 악한 성향이 있다. 깨어 있을 때 나는 그것과 싸우려고 애쓰고, 꽤 자주 거기에 굴복하지 않는다. 그러나 꿈에서는 언제나 굴복한다. 더 정확히 말하면, 두려움도 뉘우침도 없이 그 충동에 떠밀려 행동한다……. 분명

내 생각 앞에 펼쳐져 꿈을 이루는 환영은, 내가 느끼되 자리를 비운 내 의지가 물리치려 하지 않는 부추김이 내게 불어넣은 것이다〕(113쪽).

꿈에는 꿈꾼 사람에게 실제로 있으면서도 억압(repressed)되었거나 감추어진 부도덕한 성향을 드러내는 능력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라면, 모리의 다음 말(115쪽)보다 더 힘주어 자기 의견을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En rêve l'homme se révèle donc tout entier à soi-même dans sa nudité et sa misère natives. Dès qu'il suspend l'exercice de sa volonté, il dévient le jouet de toutes les passions contre lesquelles, à l'état de veille, la conscience, le sentiment d'honneur, la crainte nous défendent.」〔그러므로 꿈에서 인간은 타고난 벌거숭이 모습과 비참함 그대로 자기 앞에 온전히 드러난다. 의지의 행사를 멈추자마자 인간은 온갖 정념의 노리개가 되는데, 깨어 있을 때에는 양심과 명예심과 두려움이 그 정념에서 우리를 지켜 준다.〕 다른 곳에서는 이런 인상적인 말도 한다(462쪽). 「Dans le rêve, c'est surtout l'homme instinctif que se révèle……. L'homme revient pour ainsi dire à l'état de nature quand il rêve; mais moins les idées acquises ont pénétré dans son esprit, plus les penchants en désaccord avec elles conservent encore sur lui d'influence dans le rêve.」〔꿈에서 드러나는 것은 무엇보다 본능적인 인간이다……. 인간은 꿈꿀 때 이를테면 자연 상태로 돌아간다. 그러나 습득한 관념이 그의 정신에 덜 스며들었을수록, 그 관념과 어긋나는 성향이 꿈속에서 여전히 그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이어서 그는 한 예로, 자신이 글에서 가장 격렬하게 공격하는 바로 그 미신의 희생자로 꿈에 나타나는 일이 잦다고 말한다.

그러나 모리는 이 모든 재치 있는 관찰이 꿈 생활의 심리학적 인식에 대해 지닐 수 있는 가치를 스스로 깎아 버린다. 자기가 그토록 정확하게

관찰한 현상을, 그가 보기에 꿈 생활을 지배하는 「automatisme psychologique」〔심리적 자동성〕의 증거로만 보려 하기 때문이다.[15] 그는 이 자동성을 심리적 활동과 완전히 대립하는 것으로 파악한다.

슈트리커[77]의 의식 연구에는 이런 대목이 있다. 「꿈이 망상으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예컨대 꿈에서 강도를 두려워한다면, 강도는 물론 상상의 것이지만 두려움은 실제의 것이다. 이로써 우리는 꿈속에서 생겨나는 정동은 나머지 꿈 내용에 내리는 판단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주목하게 되고, 꿈속의 심리적 과정 가운데 어느 부분이 실제의 것일 수 있는가, 즉 그 가운데 어느 부분이 깨어 있는 상태의 심리적 과정 안에 편입되기를 요구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생긴다.」

(사) 꿈 이론과 꿈의 기능

꿈에서 관찰되는 여러 특징을 되도록 하나의 관점에서 설명하려 하는 동시에, 꿈이 더 넓은 현상 영역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규정하는 꿈에 관한 진술을 꿈 이론이라고 부를 수 있다. 개별 꿈 이론들은 꿈의 이런저런 특징을 두드러지게 내세우고 거기에 설명과 관계를 이어 붙인다는 점에서 서로 구별될 것이다. 이론에서 꿈의 기능, 즉 꿈의 쓸모나 그와 같은 어떤 작용을 반드시 끌어낼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대개 목적론에 맞추어져 있는 우리의 기대는, 꿈의 기능을 이해하게 해 주리라 약속하는 이론을 그래도 반길 것이다.

이런 뜻에서 어느 정도 꿈 이론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꿈에 관한 견해를 우리는 이미 여럿 알게 되었다. 꿈은 사람의 행동을 이끌려고 신들이 보낸 것이라는 고대인의 믿음은, 꿈에 관해 알 만한 모든 것을 알려 주는 완전한 꿈 이론이었다. 꿈이 생물학 연구의 대상이 된 뒤로 이론의 수는 더 많아졌지만, 그 가운데 몇몇은 매우 불완전하다.

완전함을 바라지 않는다면, 꿈속 심리적 활동의 정도와 방식에 대한 기본 견해를 기준으로 꿈 이론들을 다음과 같이 느슨하게 묶어 볼 수 있다.

1. 델뵈프[16]의 이론처럼, 깨어 있는 상태의 심리적 활동이 온전히 꿈속으로 이어진다고 보는 이론. 여기서는 정신이 잠들지 않는다. 정신의 장치는 온전하게 남아 있으며, 다만 깨어 있을 때와 다른 조건 아래 놓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활동하면서도 깨어 있을 때와는 다른 결과를 내놓을 수밖에 없다. 이 이론들에서 문제는, 꿈꾸는 사고와 깨어 있는 사고의 차이를 모조리 수면 상태의 조건에서 끌어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게다가 이 이론들에는 꿈의 기능에 다가갈 길이 없다. 사람이 왜 꿈을 꾸는지, 심리 장치의 복잡한 기제가 겉보기에 자신에게 맞지 않는 조건 아래 놓였는데도 왜 계속 돌아가는지를 이해할 수 없다. 합당한 반응으로는 꿈 없이 자는 것과 방해하는 자극이 다가올 때 깨어나는 것, 이 두 가지만 남을 뿐이고, 셋째 반응인 꿈꾸기는 들어설 자리가 없다.

2. 이와 반대로, 꿈에서는 심리적 활동이 줄어들고 연결이 느슨해지며 쓸 수 있는 재료가 빈약해진다고 보는 이론. 이 이론들을 따르면 수면에 대해 델뵈프가 부여한 것과는 전혀 다른 심리학적 성격을 가정해야 한다. 수면은 정신을 훨씬 넘어서까지 미친다. 수면은 단지 정신을 외부 세계에서 차단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오히려 정신의 기제 속으로 파고들어 때로는 그것을 쓸모없게 만든다. 정신의학의 재료에서 비교를 하나 끌어와도 된다면, 첫째 이론들은 꿈을 편집증처럼 짜 맞추고, 둘째 이론들은 치매나 아멘티아를 본으로 삼아 꿈을 만든다고 말할 수 있겠다.

수면으로 마비된 심리적 활동의 한 조각만이 겉으로 드러난다는 이론은 의학 저술가들 사이에서도 학계에서도 단연 가장 사랑받는다. 꿈

해석에 대한 관심이 좀 더 널리 있다고 전제할 수 있는 한, 이 이론을 지배적인 꿈 이론이라고 불러도 좋을 것이다. 이 이론이 모든 꿈 해석을 위협하는 가장 험한 암초, 곧 꿈에 담긴 대조 가운데 하나에 부딪혀 난파하는 일을 얼마나 손쉽게 비켜 가는지는 강조해 둘 만하다. 이 이론은 꿈을 부분적 각성의 결과로 보기 때문에(또는 헤르바르트의 『심리학』이 꿈을 두고 말하듯 「점진적이고 부분적이며 동시에 몹시 변칙적인 깨어남」의 결과로 보기 때문에), 점점 더 깨어나 마침내 완전히 깨어나기에 이르는 일련의 상태를 따라감으로써, 꿈의 부조리에서 드러나는 열등한 활동에서부터 정신 활동이 온전히 집중된 상태에 이르기까지 그 전 계열을 포괄해 낸다.

심리학적 표현 방식을 빼놓을 수 없다고 여기는 사람이나 더 과학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이 꿈 이론이 빈츠[4]의 논의(43쪽)에 다음과 같이 표현되어 있음을 볼 것이다.

「그러나 이 [마비] 상태는 이른 아침 시간이 되면 차츰 끝나 간다. 뇌의 단백질 속에 쌓인 피로 물질이 차츰 줄어든다. 피로 물질은 차츰 분해되거나, 쉼 없이 흐르는 혈액 순환에 실려 나간다. 여기저기서 몇몇 세포 덩어리가 깨어난 것으로 구별되지만, 그 둘레에서는 모든 것이 아직 무감각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 이제 흐릿한 우리 의식 앞에 **개별 집단의 고립된 작업**이 나타난다. 이 의식은 연상을 다스리는 뇌의 다른 부분의 통제를 받지 못한다. 그래서 만들어지는 영상은 대개 가까운 과거의 객관적 인상에 들어맞지만, 서로 거칠고 불규칙하게 맞물린다. 풀려나는 뇌세포의 수는 점점 늘어나고, 꿈의 비합리성은 점점 줄어든다.」

꿈을 불완전한 부분적 각성 상태로 보는 견해, 또는 그 영향의 흔적은 근대의 생리학자와 철학자 누구에게서나 틀림없이 찾아볼 수 있다. 이 견해를 가장 완전하게 대변하는 사람은 모리[48]다. 이 저자는 깨어

있음과 잠들어 있음을 해부학적 부위별로 머릿속에 그리는 듯이 보일 때가 많다. 어쨌든 그에게는 해부학적 영역 하나하나가 특정한 심리적 기능과 이어져 있는 듯하다. 여기서는 다만, 부분 각성설이 확증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정교하게 다듬는 데에는 할 일이 많이 남으리라는 것만 말해 둔다.

이렇게 꿈 생활을 보는 견해에서 꿈의 기능을 찾아낼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오히려 꿈의 위상과 중요성에 대한 평가는 빈츠의 다음 말(357쪽)에 일관되게 표명되어 있다. 「보다시피 모든 사실은 꿈을, 어느 경우에나 쓸모없고 많은 경우 병적이기까지 한 신체적 과정으로 규정하라고 우리를 몰아붙인다.」

꿈에 대해 쓰는 「신체적」이라는 말은 이 저자 덕분에 두드러지게 되었는데, 이 말은 한 방향만 가리키지 않는다. 먼저 이 말은 꿈의 원인론을 가리킨다. 독물을 투여해 실험적으로 꿈을 만들어 내는 연구를 한 빈츠에게는 이 원인론이 특히 분명했다. 되도록 꿈의 발동을 오로지 신체적 기원에 돌리는 것은 분명 이런 종류의 꿈 이론에 걸맞은 일이다. 이것을 가장 극단적인 형태로 말하면 이렇다. 자극을 치워 스스로 잠든 뒤에는 아침까지 꿈을 꿀 필요도 계기도 없을 것이다. 아침이 되면 밀려드는 자극으로 차츰 깨어나는데, 그 과정이 꿈꾸기라는 현상에 비쳐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잠을 자극 없이 지켜 낼 수가 없다. 메피스토가 생명의 싹을 두고 투덜거리듯, 자극은 사방에서 잠든 사람에게 닿는다. 바깥에서도, 안에서도, 심지어 깨어 있을 때에는 한 번도 신경 쓰이게 하지 않는 몸의 어떤 부위에서도 닿는다. 그래서 잠은 방해를 받는다. 정신은 이번에는 이 사소한 일에, 다음에는 저 사소한 일에 깨어나, 깨어난 부분으로 한동안 일하다가 다시 잠들 수 있게 되면 반가워한다. 꿈은 잠을 방해하는 자극에 대한 반응이다. 물론 순전히 쓸데없는 반응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정신 기관의 활동인 꿈을 신체적 과정이라고 부르는 데에는 또 다른 뜻이 있다. 꿈에 심리적 과정이라는 품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이다. 「음악을 모르는 사람의 열 손가락이 악기 건반 위를 내달리는 것」이라는 아주 오래된 비유를 꿈에 적용한 것이야말로, 정밀 과학의 대표자들이 꿈 활동을 어떻게 평가해 왔는지를 아마 가장 잘 보여 줄 것이다. 이런 뜻에서 꿈은 도무지 번역할 수 없는 것이 된다. 음악을 모르는 연주자의 열 손가락이 어떻게 음악을 만들어 낼 수 있겠는가?

부분 각성설은 일찍부터 반론을 피하지 못했다. 이를테면 부르다흐[8]는 1830년에 이렇게 말한다. 「꿈을 부분적 각성이라고 말한다면, 첫째로 그것으로는 깨어 있는 상태도 잠든 상태도 설명되지 않는다. 둘째로 그 말은, 꿈속에서 정신의 어떤 힘은 활동하고 다른 힘은 쉬고 있다는 것 이상을 표현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런 불균등은 평생에 걸쳐 일어난다…….」(483쪽).

꿈을 「신체적」 과정으로 보는 기존의 꿈 이론 가운데에는, 1866년 로베르트[55]가 처음 내놓은 매우 흥미로운 꿈 견해가 하나 있다. 꿈에 기능 또는 유용한 목적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견해다. 로베르트는 이 이론의 토대로, 우리가 꿈 재료를 살펴보면서 이미 논의한 두 가지 사실을 관찰에서 가져온다(이 장 (나) 참조). 그 사실이란, 사람은 낮의 사소한 인상을 꿈꾸는 일이 매우 많고, 낮에 마음을 온통 사로잡은 관심사를 꿈으로 가져가는 일은 드물다는 것이다. 로베르트는 오직 이것만이 옳다고 단언한다. 완전히 매듭지어진 일은 결코 꿈의 유발 요인이 되지 않으며, 마음속에 미완으로 남아 있거나 마음을 스치듯 건드린 일만이 꿈을 유발한다는 것이다(11쪽). 「우리가 대개 자기 꿈을 설명하지 못하는 것은, 꿈의 원인이 꿈꾼 사람이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전날의 감각 인상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어떤 인상이

꿈에 이르는 조건은, 그 인상이 처리 도중에 방해를 받았거나, 너무 사소해서 그런 처리를 요구할 자격이 없거나, 둘 중 하나다.

그래서 로베르트는 꿈을 「그 반응이 심리적으로 나타나면서 인식에 이르게 된 신체적 배설 과정」으로 파악한다. 꿈은 싹에서 잘린 생각들의 배설이다. 「꿈꾸는 능력을 빼앗긴 사람은 틀림없이 머지않아 정신의 균형을 잃을 것이다. 끝맺지 못하고 풀리지 않은 수많은 생각과 피상적인 인상이 그의 뇌에 쌓이고, 그 압력에 눌려 완성된 전체로서 기억에 통합되어야 할 것이 모조리 짓눌려 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꿈은 짐을 너무 많이 진 뇌의 안전판 구실을 한다. 꿈에는 치유하고 짐을 덜어 주는 성질이 있다(32쪽).

꿈속의 표현이 어떻게 정신의 짐을 덜어 줄 수 있느냐고 로베르트에게 묻는다면 잘못일 것이다. 이 저자는 꿈 재료의 저 두 가지 특성에서, 잠자는 동안 쓸모없는 인상을 그렇게 내다 버리는 일이 신체적 과정으로 이루어지며, 꿈꾸는 것은 특별한 심리적 과정이 아니라 그런 배설에 대해 우리가 얻는 앎일 뿐이라고 결론지은 듯하다. 물론 잠자는 동안 정신에서 일어나는 일이 배설만은 아니다. 로베르트 자신도, 낮의 자극이 처리되기도 하며 「마음속에 놓인 소화되지 않은 생각 재료 가운데 배설되지 못한 것은 상상력에서 빌려 온 생각의 실로 하나의 완성된 전체로 엮이고, 그렇게 해서 무해한 공상 영상으로 기억에 편입된다」고 덧붙인다(23쪽).

그러나 로베르트가 지배적인 이론과 가장 노골적으로 맞서는 것은 꿈의 원천을 비판하는 대목에서다. 기존 이론에 따르면 외부와 내부의 감각 자극이 거듭 정신을 깨우지 않는다면 꿈은 없을 것이지만, 로베르트에 따르면 꿈을 꾸게 하는 충동은 정신 자체에 있다. 그 충동은 방출을 요구하는 과잉 부하에 있다. 그리고 신체 상태에 달린 꿈의 결정 원인은 부차적인 지위에 머물며, 깨어 있는 의식에서 가져온 꿈 형성의

재료가 전혀 없는 정신에서는 꿈을 일으킬 수 없다고 주장할 때, 로베르트는 완벽하게 일관된 판단을 내리고 있다. 다만 정신의 깊은 곳에서 생겨나는 공상 영상이 신경 자극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인정한다(48쪽). 그러므로 로베르트에 따르면 꿈은 신체적 요소에 그렇게까지 의존하지는 않는다. 물론 꿈은 심리적 과정이 아니며, 깨어 있는 상태의 심리적 과정 가운데 들어설 자리도 없다. 꿈은 정신 활동을 맡은 장치 안에서 밤에 일어나는 신체적 과정이며, 수행해야 할 기능이 있다. 곧 이 장치를 과로에서 지키는 것, 비유를 바꾸어 말하면 정신을 청소하는 것이다.

또 다른 저자 이브 들라주[15]는 꿈 재료를 고르는 방식에서 드러나는 꿈의 같은 특징 위에 자기 이론을 세운다. 같은 사실을 조금만 달리 파악해도 최종 결과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른다는 것을 보면 배울 점이 많다.

들라주는 매우 아끼던 사람을 여읜 뒤, 낮 동안 우리를 골똘히 사로잡는 일은 꿈에 나오지 않거나, 낮의 다른 관심사에 가려진 뒤에야 비로소 꿈에 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을 자기 경험으로 알게 되었다. 다른 사람들을 상대로 조사해 보니 이런 사정이 보편적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신혼부부의 꿈에 대해서도 들라주는 이런 종류의 멋진 관찰을 내놓는다. 일반적으로 들어맞는 것으로 드러난다면 말이다. 「S'ils ont été fortement épris, presque jamais ils n'ont rêve l'un de l'autre avant le mariage ou pendant la lune de miel; et s'ils ont rêve d'amour c'est pour être infidèles avec quelque personne indifférente ou odieuse.」〔 두 사람이 서로 몹시 사랑했다면, 결혼 전에도 신혼 기간에도 서로를 꿈꾼 일은 거의 없다. 그리고 사랑의 꿈을 꾸었다면 그것은 아무래도 좋은 사람이나 밉살스러운 사람과 바람을 피우는 꿈이다.〕 그렇다면 사람은 무엇을

꿈꾸는가? 들라주는 우리 꿈에 나오는 재료가 앞선 며칠과 그 이전 시기의 인상에서 떨어져 나온 파편과 잔재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아본다. 우리 꿈에 나타나는 모든 것, 처음에는 꿈 생활의 창조물로 여기고 싶어지는 것도 더 철저하게 조사해 보면 알아보지 못한 재생, 곧 「souvenir inconscient」〔무의식적 기억〕임이 드러난다. 그런데 이 표상 재료에는 공통된 성격이 있다. 그것은 우리의 정신보다 감각을 더 세게 건드렸을 인상, 또는 나타나자마자 곧 주의가 딴 데로 돌려진 인상에서 나온다. 인상이 덜 의식되었을수록, 그러면서도 강할수록 다음 꿈에서 한몫을 할 가망이 커진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로베르트[55]가 강조한 것과 같은 두 부류의 인상, 곧 사소한 인상과 매듭지어지지 않은 인상이다. 그러나 들라주는 이 인상들이 꿈의 소재가 되는 것은 사소해서가 아니라 매듭지어지지 않아서라고 가정함으로써 둘의 연관을 바꾸어 놓는다. 사소한 인상도 어떤 의미에서는 완전히 매듭지어지지 않았다. 사소한 인상 역시 새 인상이라는 본성상 「autant de ressorts tendus」〔그만큼의 팽팽히 당겨진 용수철〕이며, 잠자는 동안 풀려나게 된다. 약하고 거의 알아차리지 못한 인상보다 꿈에서 한 역할을 맡을 자격이 더 큰 것은, 처리 도중에 우연히 붙들려 있거나 의도적으로 억압된 강한 인상이다. 낮 동안 제지나 억제로 쌓인 심리적 에너지가 밤에는 꿈의 원동력이 된다.

아쉽게도 들라주는 생각의 흐름을 여기서 멈춘다. 그는 꿈속의 독자적인 심리적 활동에 아주 작은 몫밖에 인정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의 꿈 이론은 뇌의 부분 수면이라는 지배적인 학설로 되돌아간다. 「En somme le rêve est le produit de la pensée errante, sans but et sans direction, se fixant successivement sur les souvenirs, qui ont gardé assez d'intensité pour se placer sur sa

route et l'arrêter au passage, établissant entre eux un lien tantôt faible et indécis, tantôt plus fort et plus serré, selon que l'activité actuelle du cerveau est plus ou moins abolie par le sommeil.」〔요컨대 꿈은 목적도 방향도 없이 떠도는 생각의 산물이다. 그 생각은 제 길 위에 자리 잡고 지나가는 자신을 붙들 만큼 강도를 간직한 기억들에 차례로 머물며, 뇌의 현재 활동이 잠으로 얼마나 없어졌느냐에 따라 그 기억들 사이에 때로는 약하고 모호한, 때로는 더 강하고 촘촘한 연결을 맺는다.〕

셋째 무리에는, 꿈꾸는 정신에 깨어 있을 때에는 전혀 해낼 수 없거나 불완전하게밖에 해낼 수 없는 특별한 심리적 활동을 할 능력과 성향이 있다고 보는 꿈 이론들을 넣을 수 있다. 이 능력이 활동하면 대개 꿈의 유용한 기능이 생겨난다. 옛 심리학 저자들이 꿈에 부여한 품위는 주로 이 부류에 속한다. 그러나 나는 그들 대신 부르다흐[8]의 주장을 인용하는 것으로 만족하겠다. 그에 따르면 꿈은 「개체성의 힘에 제한받지 않고, 자기의식에 방해받지 않으며, 자기 결정에 이끌리지 않는 정신의 자연스러운 활동이자, 자유로운 유희에 몸을 맡긴 감각적 중심점의 생명 상태다」(486쪽).

부르다흐를 비롯한 이들은 자기 힘을 자유롭게 쓰며 한껏 즐기는 이 상태를, 정신이 원기를 되찾고 낮일을 위해 새 힘을 얻는 상태, 이를테면 휴가 같은 것으로 여기는 듯하다. 그래서 부르다흐는 시인 노발리스가 꿈의 위력을 찬미한 멋진 말을 공감하며 인용한다. 「꿈은 삶의 규칙성과 평범함을 막아 주는 방벽이며, 묶여 있던 상상력의 자유로운 휴식이다. 꿈속에서 상상력은 삶의 온갖 영상을 뒤섞고, 어른들의 끝없는 진지함을 즐거운 아이들 놀이로 끊어 놓는다. 꿈이 없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더 일찍 늙을 것이다. 그러니 꿈은 어쩌면 위에서

곧바로 내려온 선물은 아니더라도, 무덤을 향한 순례길의 즐거운 과업이요 다정한 길동무로 여길 수 있을 것이다.」

원기를 돋우고 병을 고치는 꿈의 활동은 푸르키녜[53]가 더욱 인상 깊게 그려 낸다. 「특히 생산적인 꿈이 이런 기능을 수행할 것이다. 그런 꿈은 낮의 일과 아무 관련이 없는 상상의 가벼운 유희다. 정신은 깨어 있는 삶의 긴장을 이어 가려 하지 않고, 그것을 풀고 거기서 회복하려 한다. 정신은 무엇보다 깨어 있는 상태와 반대되는 상태를 만들어 낸다. 슬픔은 기쁨으로, 근심은 희망과 기분을 밝게 돌려 주는 영상으로, 미움은 사랑과 다정함으로, 두려움은 용기와 자신감으로 고친다. 의심은 확신과 굳은 믿음으로, 헛된 기대는 실현으로 달랜다. 낮이 줄곧 벌려 놓는 마음의 수많은 상처를, 잠은 덮어 주고 새로운 흥분에서 지켜 줌으로써 낫게 한다. 시간의 치유 효과도 부분적으로는 여기에 바탕을 둔다.」 잠이 정신생활에 이롭다는 것은 우리 모두 느끼는 바이며, 대중 의식의 막연한 짐작은 꿈은 잠이 제 혜택을 나누어 주는 방법 가운데 하나라는 생각을 결코 놓지 않는 듯하다.

꿈을 잠든 상태에서만 자유롭게 펼쳐질 수 있는 정신의 특별한 활동으로 설명하려 한 시도 가운데 가장 독창적이고 가장 멀리 나아간 것은 1861년 셰르너[58]가 내놓은 것이다. 셰르너의 책은 무겁고 과장된 문체로 쓰였고, 주제에 대한 거의 도취한 열광에 들떠 있어서 우리를 함께 휩쓸어 가지 못하면 도리어 밀어낼 수밖에 없다. 그 책에는 분석을 가로막는 어려움이 워낙 많아서, 우리는 철학자 폴켈트[72]가 셰르너의 이론을 소개한 더 명료하고 짧은 서술에 기꺼이 기댄다. 「신비로운 덩어리들과 화려하고 장엄한 온갖 물결 속에서 참으로 심상치 않은 의미의 빛이 번쩍이며 뿜어져 나오기는 하지만, 그것으로 철학자의 길이 더 밝아지지는 않는다.」 셰르너의 서술을 두고 그의 추종자 한 사람이 내린 비평이 이렇다.

셰르너는 정신이 제 능력을 조금도 줄이지 않고 꿈 생활로 가져간다고 보는 저자들에 속하지 않는다. 물론 그는 꿈에서 자아의 중심성과 자발적 에너지가 어떻게 힘을 잃는지, 이 탈중심화로 인식과 감정과 의지와 상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이 심리적 힘의 잔재에는 어떻게 참된 정신의 성격은 없이 기계 장치의 성질만 남는지를 설명한다. 그러나 그 대신 상상력이라 불리는 정신 활동이 모든 이성적 지배에서 풀려나 완전히 고삐가 풀린 채 꿈속에서 절대적인 주권에 오른다. 물론 상상력은 마지막 건축 자재를 깨어 있는 상태의 기억에서 가져오지만, 그것으로 깨어 있는 상태의 건물과는 낮과 밤만큼 다른 건물을 짓는다. 상상력은 꿈에서 재생할 뿐 아니라 생산하기도 한다. 상상력의 특성이 꿈 생활에 그 기이한 성격을 준다. 상상력은 한없는 것, 과장된 것, 엄청난 것을 좋아하지만, 걸림돌이 되는 사고 범주에서 풀려났기 때문에 더 큰 유연성과 민첩성과 새로운 즐거움을 얻는다. 상상력은 마음의 섬세한 정서적 자극과 격동하는 정동에 극도로 민감하며, 내면의 삶을 재빨리 바깥의 조형적 선명함으로 바꾸어 빚어낸다. 꿈의 상상력에는 관념의 언어가 없다. 하고 싶은 말은 눈에 보이게 그려 내야 하고, 이제 관념이 강하게 작용하므로 그 표현 방식의 풍부함과 힘과 거대함으로 그려 낸다. 그래서 그 언어는 아무리 단순하다 해도 장황하고 거추장스럽고 무거워진다. 언어가 명료해지기가 특히 어려운 것은, 상상력이 대상을 그 자신의 영상으로 표현하기를 싫어하고, 대상에서 묘사하고 싶은 바로 그 계기만 표현할 수 있다면 낯선 영상을 더 좋아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상상력의 상징화 활동이다……. 게다가 꿈의 상상력이 대상을 세부까지 베끼지 않고 윤곽만, 그것도 아주 대략적으로만 베낀다는 점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그 그림은 재기 넘치게 가볍고 우아해 보인다. 그러나 꿈의 상상력은 대상을 그저 표현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안에서부터 떠밀려

대상에 꿈 자아를 많든 적든 섞어 넣으며, 그렇게 해서 하나의 행위를 만들어 낸다. 예컨대 시각 꿈은 거리에 떨어진 금화를 그려 낸다. 꿈꾼 사람은 금화를 주워 들고 기뻐하며 가져간다.

셰르너에 따르면 꿈의 상상력이 예술 활동을 펼치는 재료는 주로, 낮에는 그토록 모호한 기관 감각 자극이다(이 장 (다) 참조). 그래서 셰르너의 공상적인 이론과, 분트를 비롯한 생리학자들의 어쩌면 지나치게 냉철한 이론은 다른 점에서는 정반대이면서도 꿈의 원천과 꿈을 일으키는 자극에 대한 가정에서는 완전히 일치한다. 그러나 생리학적 이론에 따르면, 내부 신체 자극에 대한 심리적 반응은 그 자극에 맞는 어떤 표상이 깨어나는 것으로 끝나 버린다. 그 표상이 연상의 길을 따라 다른 표상을 불러 도움을 받고, 이 단계에서 심리적 과정의 사슬은 끝나는 것처럼 보인다. 반면 셰르너에 따르면 신체 자극은 심리적 힘에 재료를 대 줄 뿐이고, 심리적 힘은 그 재료를 제 공상적 의도에 복무하게 할 수 있다. 셰르너에게 꿈 형성은, 다른 이들의 견해에서 그것이 끝나는 바로 그 자리에서 비로소 시작된다.

꿈의 상상력이 신체 자극을 다루는 방식은 분명 목적에 맞는다고 볼 수 없다. 상상력은 신체 자극을 가지고 애태우는 장난을 치며, 해당하는 꿈에서 자극을 낳은 기관이라는 원천을 어떤 조형적 상징 표현으로든 나타낸다. 게다가 셰르너는, 폴켈트를 비롯한 다른 이들은 동의하지 않는 의견이지만, 꿈의 상상력에는 유기체 전체를 나타내는 즐겨 쓰는 표현이 있다고 본다. 그 표현이 바로 집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다행히도 상상력은 서술할 때 이 재료에만 매이지는 않는 듯하다. 거꾸로 집 여러 채를 한꺼번에 써서 기관 하나를 가리킬 수도 있다. 예컨대 창자의 흥분에는 아주 길게 줄지어 선 집들을 쓴다. 또 어떤 때는 집의 특정 부분이 실제로 몸의 특정 부분을 나타낸다. 예컨대 두통 꿈에서는 방의

천장이(꿈은 그 천장이 파충류 같은 징그러운 거미로 뒤덮여 있다고 본다) 머리를 나타낸다.

집의 상징 표현과는 전혀 상관없이, 꿈을 자극하는 이 신체 부위를 표현하는 데에는 알맞은 다른 대상이라면 무엇이든 쓰일 수 있다. 「그래서 숨 쉬는 허파는 가스가 윙윙거리며 타오르는 난로에서, 심장은 속이 빈 상자와 바구니에서, 방광은 둥글거나 자루 모양이거나 그저 속이 파인 물건에서 제 상징을 찾는다. 남성의 성적 흥분 꿈에서 꿈꾼 사람은 거리에서 클라리넷의 윗부분을, 그 옆에서 담뱃대의 같은 부분을, 또 그 옆에서 모피 한 조각을 발견한다. 클라리넷과 담뱃대는 남성 성기의 대략적인 모양을 나타내고, 모피는 음모를 나타낸다. 여성의 성적 꿈에서는 바싹 맞붙은 두 허벅지 사이의 비좁음이 집들로 둘러싸인 좁은 안뜰로, 질은 그 안뜰을 지나가는 아주 좁고 미끄럽고 부드러운 오솔길로 상징될 수 있는데, 꿈꾼 사람은 이를테면 어느 신사에게 편지를 전하려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 (폴켈트, 39쪽). 특히 주목할 것은, 이렇게 몸을 자극하는 꿈이 끝날 무렵이면 상상력이 이를테면 가면을 벗고, 자극하는 기관이나 그 기능을 숨김없이 드러내 표현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이를 자극하는 꿈」은 대개 꿈꾼 사람이 입에서 이를 하나 꺼내는 것으로 끝난다.

그러나 꿈의 상상력은 자극하는 기관의 모양에만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그 기관에 담긴 물질을 상징화의 대상으로 삼기도 한다. 그래서 예컨대 창자 흥분의 꿈은 우리를 진창길로 이끌고, 방광을 자극하는 꿈은 거품 이는 물로 이끈다. 또는 자극 자체와 그 흥분의 방식, 그리고 자극이 탐내는 대상이 상징적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꿈 자아가 자기 상태의 상징화와 구체적으로 결합하기도 한다. 예컨대 통증 자극이 있을 때 우리가 사나운 개나 날뛰는 황소와 필사적으로 싸우거나, 성적인 꿈에서 꿈꾼 여자가 벌거벗은 남자에게 쫓기는 자신을

보는 경우가 그렇다. 공들여 꾸미느라 생길 수 있는 온갖 장황함을 제쳐 두면, 모든 꿈의 중심 동력으로 남는 것은 상징화하는 상상력의 활동이다. 그다음으로 폴켈트[72]는 섬세하고 열정적으로 쓴 책에서 이 상상력의 성격을 더 깊이 파고들고, 그렇게 알아낸 심리적 활동에 철학적 관념 체계 안의 자리를 정해 주려 했다. 그러나 그 체계는 철학적 사고방식을 공감하며 이해할 수 있도록 미리 교육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너무나 이해하기 어렵다.

셰르너는 꿈속에서 상징화하는 상상력의 활동에 아무런 유용한 기능도 결부시키지 않는다. 꿈에서 정신은 제 손에 쥐어진 자극을 가지고 논다. 정신이 온당치 않게 논다고 짐작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 누군가는 우리에게, 셰르너의 꿈 이론이 자의적이며 모든 연구의 규칙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이 너무도 뻔한데, 그 이론을 이렇게 꼼꼼히 살펴서 무슨 쓸모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느냐고 물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셰르너의 이론을 검토도 없이 물리치는 것은 너무 오만한 일이라고 말해 그런 거부를 미리 막아 두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 이론은 자기 꿈에 큰 주의를 기울였고 개인적으로도 모호한 심리적 사건을 추적하는 데 매우 잘 맞는 듯한 한 사람이, 자기 꿈에서 받은 인상 위에 세운 것이다. 게다가 이 이론이 다루는 대상은 수천 년 동안 인류에게 신비롭게 보였으면서도 내용과 연관이 풍부한 것이며, 엄격한 과학은 스스로 고백하듯 그 대상을 밝히는 데 세간의 정서와 정반대로 그 대상의 실질과 의의를 부정하려 한 것 말고는 아무것도 보태지 못했다. 끝으로 솔직히 인정하자. 꿈을 밝히려는 우리의 시도에서도 공상적인 것은 피할 수 없는 듯하다. 공상적인 신경절 세포라는 것도 있으니 말이다. 빈츠[4]처럼 냉철하고 정밀한 연구자에게서 끌어와 이 절에 인용한 대목, 곧 깨어남의 여명이 대뇌의 잠든 세포 덩어리를 따라 번져 가는 모습을 그린 대목은, 공상성에서도 있을 법하지 않음에서도

셰르너의 해석 시도에 조금도 뒤지지 않는다. 나는 셰르너의 해석 시도 밑에 무언가 실제적인 것이 깔려 있음을 보여 줄 수 있기를 바란다. 물론 그것은 흐릿하게만 관찰되었고, 꿈 이론을 자처할 자격을 줄 만한 보편성도 지니지 못했지만 말이다. 당장은 셰르너의 꿈 이론이 의학적 이론과 대조를 이룸으로써, 꿈 생활의 설명이 아직도 어떤 두 극단 사이에서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는지를 아마 깨닫게 해 줄 것이다.

(아) 꿈과 정신 질환의 관계

꿈과 정신 장애의 관계를 말할 때 우리는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1) 병인론적·임상적 관계. 꿈이 정신병 상태를 대신하거나 그 발단이 되는 경우, 또는 그런 상태를 뒤로하고도 이어지는 경우가 그렇다. (2) 정신 질환에서 꿈 생활이 겪는 변화. (3) 꿈과 정신병 사이의 내적 관계, 곧 둘이 긴밀히 이어져 있음을 가리키는 유사점들. 두 계열의 현상 사이에 얽힌 이 다양한 관계는 의학사의 이른 시기에 의학 저술가들이 즐겨 다룬 주제였고, 근래에 들어 다시 그런 주제가 되었다. 슈피타[64], 라데슈토크[54], 모리[48], 티시에[68]가 모아 놓은 관련 문헌을 보면 알 수 있는 일이다. 최근에는 산테 데 상크티스가 이 관계에 눈을 돌렸다. 우리 논의의 목적에는 이 중요한 주제를 잠깐 훑어보는 것으로 충분하다.

꿈과 정신병의 임상적·병인론적 관계에 대해서는 다음 관찰들을 본보기로 들겠다. 혼바움은 광기의 첫 발작이 불안하고 무서운 꿈에서 비롯되는 일이 많고, 지배 관념도 이 꿈과 이어져 있다고 주장한다(크라우스, 39쪽 참조). 산테 데 상크티스는 편집증 환자들에게서 얻은 비슷한 관찰을 내놓으면서, 그 가운데 몇몇 환자에게는 꿈이 「vraie cause déterminante de la folie〔광기의 진정한 결정 원인〕」라고

단언한다. 정신병은 정신 장애를 일으키고 그 장애를 설명해 주는 내용까지 품은 꿈과 함께 느닷없이 생겨날 수도 있고, 아직 의심과 싸워야 하는 꿈이 거듭되면서 서서히 자라날 수도 있다. 데 상크티스의 한 사례에서는 마음을 뒤흔든 그 꿈에 가벼운 히스테리 발작이 따랐고, 이 발작에 이어 다시 불안한 멜랑콜리 상태가 찾아왔다. 페레(티시에의 인용)는 히스테리성 마비를 일으킨 꿈을 언급한다. 여기서 꿈은 정신 장애의 병인으로 우리 앞에 제시된다. 하지만 정신 장애가 꿈 생활에서 처음 모습을 드러낸다고, 곧 꿈속에서 처음 터져 나온다고 말해도 실제 사정을 그 못지않게 올바로 헤아리는 셈이다. 다른 사례에서는 꿈 생활이 병적 증상을 담고 있었거나, 정신병이 꿈 생활에만 머물렀다. 이를테면 토마예르[70]는 간질 발작의 등가물로 보아야 할 불안 꿈에 주의를 환기한다. 앨리슨은 야간 광기를 기술했다(라데슈토크의 인용). 이 병에 걸린 사람은 낮에는 겉보기에 멀쩡하다가도 밤만 되면 어김없이 환각이나 광란 발작 따위를 일으킨다. 데 상크티스와 티시에도 비슷한 관찰을 보고한다(알코올 중독자의 편집증적 꿈 등가물, 아내의 부정을 고발하는 목소리). 티시에는 병적인 성격을 띤 행동(망상이나 강박 충동에 바탕을 둔 행동)이 꿈에서 비롯된 근래의 관찰 사례를 풍부하게 보고한다. 기슬랭은 잠이 간헐적 광기로 대체된 사례를 기술한다.

의사가 언젠가 꿈의 심리학과 더불어 꿈의 정신병리학까지 다루게 되리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거의 없다.

광기에서 회복되어 가는 사례에서는, 낮의 기능은 정상인데도 꿈 생활은 여전히 정신병에 속해 있을 수 있다는 점이 유난히 뚜렷하게 드러날 때가 많다. 이런 사례에 처음 주목한 사람은 그레고리라고 한다(크라우스[39]의 인용). 마카리오(티시에의 보고)는 한 조증 환자의 사례를 전한다. 이 환자는 완전히 회복되고 일주일이 지난 뒤에 꿈속에서 병을 앓을 때의 사고 비약과 격정적인 충동을 다시 겪었다.

만성 정신병 환자의 꿈 생활이 겪는 변화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이루어진 연구가 아주 적다. 반면에 꿈과 정신 장애 사이의 내적 관계에는 일찍부터 관심이 쏠렸다. 이 관계는 양쪽에 나타나는 현상이 폭넓게 일치한다는 데서 드러난다. 모리[47]에 따르면 카바니스가 『인간의 신체와 정신의 관계(Rapports du physique et du moral)』에서 처음으로 이 점에 주목했고, 그 뒤를 렐뤼와 J. 모로, 그리고 누구보다 철학자 멘 드 비랑이 이었다. 물론 이런 비교 자체는 그보다 더 오래되었다. 라데슈토크[54]는 이 비교를 다루는 장의 첫머리에 꿈과 광기의 유사성을 보여 주는 말들을 한데 모아 놓았다. 칸트는 어디에선가 이렇게 말한다. 「미치광이는 깨어 있는 상태에서 꿈꾸는 사람이다.」 크라우스는 「광기란 감각이 깨어 있는 꿈이다」라고 한다. 쇼펜하우어는 꿈을 짧은 광기라 부르고, 광기를 긴 꿈이라 부른다. 하겐은 섬망을 잠이 아니라 병이 불러일으킨 꿈 생활이라고 묘사한다. 분트는 『생리학적 심리학』에서 이렇게 단언한다. 「실제로 우리는 정신병원에서 마주치는 증상 거의 전부를 꿈속에서 몸소 겪을 수 있다.」

이런 동일시를 수긍하게 해 주는 구체적인 일치점들은 슈피타[64]가 열거했다. 모리 역시 아주 비슷하게 다음과 같이 묶어서 열거했다. 「(1) 자기의식이 정지하거나 적어도 느려진다. 그 결과 자신이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고, 그래서 놀랄 줄 모르며 도덕의식도 없다. (2) 감각 기관의 지각이 달라진다. 곧 지각이 꿈에서는 줄어들고, 광기에서는 대개 높아진다. (3) 관념과 관념의 결합이 오로지 연상과 재생의 법칙만을 따른다. 그래서 관념이 저절로 무리를 짓고, 그 때문에 관념 사이의 관계가 균형을 잃는다(과장, 환영).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결과로, (4) 인격이, 때로는 성격의 특성까지 바뀌거나 변형된다(비뚤어짐).」

라데슈토크는 재료 면에서 드러나는 특징, 곧 유사점을 몇 가지 덧붙인다. 「환각과 착각은 대부분 시각과 청각, 그리고 전신 감각의 영역에서 나타난다. 꿈에서와 마찬가지로 후각과 미각이 내놓는 요소는 가장 적다. 열병 환자는 꿈꾸는 사람처럼 먼 과거의 회상에 시달린다. 깨어 있는 건강한 사람이 잊은 듯한 것이 잠 속에서, 또 병 속에서 다시 떠오른다.」 꿈과 정신병의 유사성은 가족끼리 닮은 모습이 그렇듯, 미세한 표정의 움직임과 얼굴 표정에 드러나는 저마다의 특징에까지 미칠 때에야 비로소 온전한 가치를 얻는다.

「육체와 정신의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에게 꿈은 현실이 허락하지 않은 것, 곧 몸의 안녕과 행복을 베풀어 준다. 광인들도 그처럼 행복과 위대함과 숭고함과 부의 찬란한 영상을 본다. 가졌다고 믿는 재산과 상상 속의 소원 성취가 섬망의 주된 내용을 이루는 일이 많은데, 바로 그것이 허락되지 않거나 무너진 일이 광기의 심리적 원인이었다. 몹시 사랑하던 아이를 잃은 여인은 섬망 속에서 어머니의 기쁨을 누리고, 재산을 날린 남자는 자기가 어마어마한 부자라고 여기며, 버림받은 처녀는 다정한 사랑의 행복에 잠긴 자신을 그려 본다.」

위에 인용한 라데슈토크의 글은 그리징어[31]의 예리한 논의(111쪽)를 간추린 것으로, 꿈과 정신병에 공통된 상상의 한 특징으로서 소원 성취(wish fulfilment)를 더없이 선명하게 드러낸다. (내가 연구하면서 배운 바로는, 꿈과 정신병에 관한 심리학적 이론의 열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관념의 부조리한 결합과 판단력의 약함이 꿈과 광기의 주된 특징이다.」 자기 정신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것은 맑은 정신으로 판단하면 부조리해 보이지만, 꿈에서도 광기에서도 똑같이 나타난다. 꿈속에서 생각이 빠르게 흘러가는 것은 정신병의 사고 비약에 대응한다. 둘 다 시간의 척도라고는 전혀 모른다. 꿈속의 인격 해리는 이를테면

자기가 아는 것을 두 인물에게 나누어 주어 그 가운데 낯선 인물이 꿈속에서 자기 자아를 바로잡게 하기도 하는데, 이는 환각성 편집증에서 잘 알려진 인격 분열에 고스란히 대응한다. 꿈꾸는 사람도 낯선 목소리가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을 듣는다. 고정된 망상조차 판에 박힌 듯 되풀이되는 병적인 꿈(rêve obsédant〔강박적인 꿈〕)에 그 닮은꼴이 있다. 섬망에서 회복된 환자가 병이 마치 언짢은 꿈 같았다고 털어놓는 일은 드물지 않다. 아니, 병을 앓는 동안에도 이따금 자기가 그저 꿈을 꾸고 있을 뿐이라고 느꼈다고 알려 주기도 한다. 잠잘 때 꾸는 꿈에서 흔히 그러듯이 말이다.

이 모든 점을 생각하면, 라데슈토크가 자신의 견해와 다른 많은 사람의 견해를 다음과 같이 요약한 것도 놀랄 일이 아니다. 「광기는 비정상적인 질병 현상으로서, 주기적으로 되풀이되는 정상적인 꿈 상태가 고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228쪽).

크라우스[39]는 꿈과 광기의 관계를 병인에(아니, 그보다는 자극원에) 근거 지으려 했는데, 그럼으로써 둘이 드러내는 현상의 유사성만으로 가능했던 것보다 그 관계를 한층 더 긴밀하게 만들었는지도 모른다. 크라우스에 따르면 둘에 공통된 근본 요소는, 앞에서 보았듯이, 신체 기관에 따라 결정되는 감각, 곧 신체 자극의 감각이며, 모든 기관이 저마다 몫을 보태어 만들어 내는 전신 감각이다. 모리[48]가 인용한 페스를 참조하라(60쪽).

꿈과 정신 장애가 특징적인 세부에 이르기까지 부정할 수 없이 일치한다는 사실은 꿈 생활에 관한 의학적 이론을 가장 강하게 떠받치는 근거에 속한다. 이 이론은 꿈을 쓸모없고 방해만 되는 과정이자 저하된 심리 활동의 표출로 그린다. 그렇다고 정신 장애에서 꿈에 대한 궁극적인 설명을 끌어낼 수 있으리라 기대할 수는 없다. 정신 장애의 기원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얼마나 불만족스러운 상태에 머물러

있는지는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꿈에 대한 견해가 바뀌면 정신 장애의 내적 기제에 관한 우리의 생각도 바뀔 수밖에 없을 공산이 매우 크다. 그러니 꿈의 비밀을 밝히려고 애쓸 때 우리는 정신병을 해명하는 일에도 매달리고 있는 셈이라고 말해도 좋다.

꿈 문제에 관한 문헌을 요약하면서 이 책의 초판이 나온 때부터 제2판이 나온 때까지의 시기를 다루지 않은 데 대해서는 해명을 해야겠다. 이 해명이 독자에게 그리 만족스럽지 않게 보일지 몰라도, 내가 그렇게 한 것은 어디까지나 이 이유 때문이었다. 문헌이 꿈을 어떻게 다루어 왔는지 요약하게 한 주된 동기는 앞의 서론으로 이미 다 충족되었다. 이 작업을 이어 갔다면 엄청난 수고가 들었을 테고, 얻는 이득이나 지식은 보잘것없었을 것이다. 앞서 말한 9년 동안, 꿈을 이해하는 데 새롭거나 값진 것은 실제 재료로도 관점으로도 하나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뒤에 나온 출판물 대부분에서 내 연구는 언급되지도 고려되지도 않았다. 관심을 가장 적게 기울인 것은 당연하게도 이른바 「꿈 연구자」들이었고, 그들은 이로써 새로운 것을 배우기 싫어하는 학자 특유의 성향을 보여 주는 훌륭한 본보기가 되었다. 냉소가 아나톨 프랑스는 「Les savants ne sont pas curieux〔학자들은 호기심이 없다〕」라고 했다. 학문에도 복수할 권리라는 것이 있다면, 나 역시 이 책이 나온 뒤의 문헌을 무시해도 떳떳할 것이다. 학술지에 실린 몇 안 되는 서평은 어리석음과 오해로 가득해서, 나를 비판한 이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대답은 이 책을 다시 한번 읽어 달라는 부탁뿐이다. 어쩌면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 달라고 부탁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정신분석 치료법을 쓰는 의사들(융, 아브라함, 리클린, 무트만, 슈테켈, 랑크 등)은 자기 저작에서 수많은 꿈을 보고하고 내 지침에 따라 해석했다. 이 저작들이 내 주장을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간

경우에는, 그 성과를 내 논의의 맥락 안에서 밝혀 두었다. 이 새 출판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들은 책 끝 문헌 목록 후반부에 보충으로 모아 두었다. 산테 데 상크티스가 꿈에 관해 쓴 방대한 책은 나오자마자 독일어 번역본이 나왔는데, 말하자면 내 책과 엇갈려 지나갔다. 그래서 그 이탈리아 저자가 나를 참고할 수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나도 그를 참고할 수 없었다. 유감스럽지만 한마디 더 해야겠다. 공을 많이 들인 이 저작은 생각이 지극히 빈약하다. 얼마나 빈약한지, 이 책만 읽어서는 내가 다룬 문제들이 있다는 것조차 짐작할 수 없을 정도다.

끝으로, 꿈 문제를 다루는 내 방식과 가까운 관계를 보여 주는 출판물 두 가지를 언급해야겠다. 젊은 철학자 H. 스보보다는 W. 플리스가 발견한 생물학적 주기성(23일 단위와 28일 단위)을 심리 영역으로 넓히려고 나섰는데, 그렇게 해서 내놓은 상상력 넘치는 저작[16]에서 다른 여러 문제와 함께 이 열쇠로 꿈의 수수께끼도 풀었다. 이 이론대로라면 꿈 해석은 형편없는 대접을 받았을 것이다. 꿈에 담긴 재료는, 그날 밤 생물학적 주기 가운데 하나를 처음으로 또는 n번째로 채우는 모든 기억이 한데 겹친 결과로 설명될 테니 말이다. 저자가 개인적으로 해 준 말 때문에, 나는 그 자신도 이 이론을 더는 진지하게 내세울 생각이 없으리라고 짐작했다. 그러나 이 결론은 잘못이었던 것 같다. 스보보다의 주장과 관련된 관찰 몇 가지를 다른 곳에서 보고하겠지만, 그 주장의 결론에 대해서는 확신이 서지 않는다. 뜻밖의 곳에서, 본질적인 면에서 내 견해와 완전히 일치하는 꿈에 대한 견해를 우연히 발견했을 때는 훨씬 더 기뻤다. 시기로 보아 이 견해가 내 책을 읽고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은 없다. 그러므로 나는 이것을 문헌 가운데 내 꿈 이론의 본질과 일치한다고 입증할 수 있는 유일한 사례로 반겨야 한다. 내가 염두에 둔, 꿈에 관한 대목이 실린 책은 륑코이스의 『어느

현실주의자의 공상(Phantasien eines Realisten)』으로, 1900년에 제2판이 나왔다.

---

1. 이 책의 초판이 나온 1900년까지.

2. 이와 달리 O. 그루페, 『그리스 신화와 종교사(Griechische Mythologie und Religionsgeschichte)』, 390쪽을 참조하라. 「꿈은 두 부류로 나뉘었다. 첫째 부류는 현재(또는 과거)의 영향만 받았고 미래에 대해서는 중요하지 않았다. 여기에는 주어진 표상이나 그 반대를, 이를테면 배고픔이나 배부름을 곧바로 만들어 내는 ἐνυπνια, 곧 insomnia와, 주어진 표상을 공상적으로 가공하는 φανταśματα, 이를테면 가위눌림, 곧 ephialtes가 들었다. 둘째 부류는 이와 달리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었다. 여기에 속하는 것은 (1) 꿈속에서 받는 직접적인 예언(χρηματισμός, oraculum), (2) 앞으로 일어날 사건의 예고(ὅραμα), (3) 상징적인 꿈, 곧 해석이 필요한 꿈(ὄνειρος, somnium)이다. 이 이론은 여러 세기 동안 이어져 왔다.」

3. 영역본은 이 자리를 「psychological problem」(심리학적 문제)이라 했으나, 바로 앞에서 저자가 「특별히 심리학적인 성격의 연구」를 내놓겠다고 하고 뒤따르는 양보절(「심리 장치의 기능 조건이 바뀐다는 점도 포함되어야 하겠지만」)과도 맞지 않는다. 독일어 원문(wesentlich physiologisches Problem)에 따라 「생리학적 문제」로 옮겼다. — 옮긴이.

4. 그 뒤의 경험으로 말할 수 있거니와, 짐 꾸리기나 음식 장만, 부엌일 따위처럼 깨어 있을 때 하는 무해하거나 대수롭지 않은 일이 꿈에서 되풀이되는 경우는 결코 드물지 않다. 그러나 그런 꿈에서 꿈꾼 사람 자신이 강조하는 것은 기억의 성격이 아니라 그 현실성이다. 「이건 다 제가 낮에 정말로 한 일이에요.」

5. Chauffeurs는 방데 지방에서 이런 식의 고문을 일삼던 강도떼였다.

6. 꿈에 거인들이 나오면 그 꿈이 꿈꾼 사람의 어린 시절 한 장면을 다루고 있다고 가정해도 된다.

7. 꿈을 빠짐없이 서술한 이 노르웨이 저자의 책 제1권이 최근 독일어로 나왔다. 문헌 목록 [74a]번을 보라.

8. 주기적으로 되풀이되는 꿈이 거듭 관찰되었다. 샤바네[11]의 모음집 참조.

9. 질베러는 졸음이 오는 상태에서는 추상적인 생각마저 같은 것을 표현하는 구체적이고 조형적인 영상으로 바뀔 수 있음을 멋진 예들로 보여 주었다(블로일러·프로이트 엮음, 『정신분석·정신병리 연구 연보(Jahrbuch)』 제1권, 1900).

10. 하프너[32]도 델뵈프와 비슷하게, 온전한 심리 장치의 평소에는 올바른 기능 속으로 비정상적인 상태를 끌어들일 수밖에 없는 어떤 변화를 바탕으로 꿈 활동을 설명하려 했지만, 그 상태를 조금 다른 말로 그려 냈다. 그에 따르면 꿈의 첫째 표지는 시간과 공간이 없다는 것, 곧 표상이 개인에게 공통된 시간과 공간의 질서 속 제자리에서 풀려난다는 것이다. 이와 이어진 꿈의 둘째 근본 특성은 환각과 상상과 공상의 조합을 객관적 지각으로 오인하는 것이다. 고등한 심리적 힘의 총체, 특히 한편으로는 관념 형성, 판단, 추론, 다른 한편으로는 자유로운 자기 결정이 감각적인 공상 영상과 결합하며, 언제나 그것을 기반으로 삼는다. 그러므로 이 활동들도 꿈 표상의 불규칙성에 가담한다. 가담한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판단 능력과 의지력 자체는 잠자는 동안 조금도 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활동에 관한 한 우리는 깨어 있을 때와 똑같이 예리하고 똑같이 자유롭다. 사람은 꿈에서도 사고 법칙을 거슬러 행동할 수 없다. 곧 자기에게 모순으로 드러나는 것과 화합할 수 없다, 등등. 꿈에서도 그는 자기에게 선으로 표상되는 것만을 욕구할 수 있다(sub ratione boni〔선이라는 명목 아래〕). 그러나 사고와 의지의 법칙을 이렇게 적용하는 가운데, 인간 정신은 꿈에서 한 표상을 다른 표상으로 오인함으로써 길을 잃는다. 그래서 우리는 꿈에서 더없이 큰 모순을 지어내고 저지르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가장 날카로운 판단과 가장 조리 있는 추론의 사슬을 펼쳐 보이고, 가장 덕스럽고 거룩한 결심을 할 수도 있다. 꿈에서 우리의 상상력이 펼치는 비상의 비밀은 오로지 방향 감각의 결여에 있으며, 비판적 숙고와 타인과의 상호 이해가 없다는 것이 꿈에서 우리의 판단과 희망과 소원이 분별없이 치닫는 주된 원천이다(18쪽).

11. 영역본은 「which is contrary to such a conception」(이런 견해에 반한다)이라 했으나, 이어지는 문장들은 모두 이 견해를 뒷받침하는 인상(앞뒤가 맞지 않음, 모순, 도덕적 둔감)을 늘어놓는다. 독일어 원문의 entgegenkommen(맞아떨어지다, 뒷받침하다)을 반대의 뜻으로 읽은 것으로 보아, 앞뒤 논지에 따라 옮겼다. — 옮긴이.

12. 하프너[32]와 슈피타[64] 참조.

13. 『인간학 체계 강요(Grundzüge des Systems der Anthropologie)』. 에를랑겐, 1850(슈피타가 인용).

14. 『꿈의 생활과 그 해석(Das Traumleben und seine Deutung)』, 1868(슈피타가 인용, 192쪽).

15. 영역본은 「refuses to recognise … any proof of」(…의 증거를 조금도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라 했으나, 그래서는 관찰의 가치를 깎아 버린다는 앞 말과 이어지지 않는다. 독일어 원문의 nur Beweise … sehen will(증거로만 보려 한다)을 반대의 뜻으로 읽은 것으로 보아, 원문과 앞뒤 논지에 따라 옮겼다. — 옮긴이.

16. H. 스보보다, 『인간 유기체의 주기(Die Perioden des Menschlichen Organismus)』, 1904.

제2장 꿈 해석의 방법: 견본 꿈 하나의 분석

내가 이 논고에 붙인 제목은, 꿈을 논하면서 내가 어떤 전통을 출발점으로 삼으려 하는지 알려 준다. 나는 꿈을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일을 내 과제로 삼았다. 방금 다룬 꿈 문제들을 푸는 데 무언가 보탬이 된다면, 그것은 나 자신의 특정한 문제를 매듭짓는 과정에서 부산물로나 나올 수 있을 뿐이다. 꿈을 해석할 수 있다는 가설을 세우는 순간 나는 지배적인 꿈 과학과, 아니 셰르너의 이론을 뺀 모든 꿈 이론과 곧바로 모순에 빠진다. 「꿈을 해석한다」는 것은 꿈의 의미를 밝힌다는 뜻, 곧 꿈을 우리 심리 활동의 연쇄 속에서 온전한 중요성과 가치를 지닌 고리로서 제자리를 차지하는 무언가로 바꿔 놓는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보았듯이, 꿈에 관한 과학 이론들에는 꿈 해석이라는 문제가 들어설 자리가 없다. 무엇보다 이 이론들에 따르면 꿈은 심리적 행위가 아니라, 기호로써 심리 장치에 제 존재를 알리는 신체적 과정이기 때문이다. 대중의 생각은 언제나 이와 사뭇 달랐다. 대중은 비논리적으로 나아갈 특권을 내세우며, 꿈이 이해할 수 없고 부조리하다고 인정하면서도 꿈에 아무 의미도 없다고 잘라 말할 결단은 끝내 내리지 못한다. 오히려 어렴풋한 직관에 이끌려 이렇게 가정하는 듯하다. 꿈에는 숨어 있기는 해도 의미가 있고, 꿈은 다른 어떤 사고 과정을 대신하려는 것이며, 꿈의 숨은 뜻에 이르려면 이 대리물을 올바르게 드러내기만 하면 된다고.

그래서 일반인은 언제나 꿈을 「해석」 하려고 애써 왔고, 그러면서 본질적으로 다른 두 가지 방법을 시도했다. 첫째 방법은 꿈 내용을 하나의 전체로 보고, 이해할 수 있으면서 어떤 점에서 그와 닮은 다른 내용으로 바꿔 놓으려 한다. 이것이 상징적 꿈 해석이다. 이 방법은 이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뒤죽박죽이기까지 한 꿈 앞에서는 당연히 처음부터 무너지고 만다. 성서의 요셉이 파라오의 꿈에 붙인 풀이가 이 방법의 한 예다. 살진 암소 일곱 마리 뒤에 여윈 암소 일곱 마리가 와서 앞의 소들을 잡아먹는 것은, 이집트 땅에 일곱 해 동안 기근이 들어 일곱 해 풍년이 쌓아 둔 잉여를 모조리 삼켜 버리리라는 예언을 상징으로 대신한다. 작가들이 지어낸 인공적인 꿈은 대부분 이런 상징적 해석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졌다. 그런 꿈은 작가가 품은 생각을, 우리가 경험으로 아는 꿈의 특징에 들어맞는 위장으로 감싸 다시 그려 내기 때문이다.[1] 꿈은 주로 미래의 일을 다루며 그 경과를 미리 헤아린다는 생각은 한때 꿈에 부여되던 예언적 의미의 흔적인데, 이 생각이 이제는 상징적 해석으로 찾아낸 꿈의 의미를 「~하리라」 라는 말로 미래에 옮겨 심는 동기가 된다.

이런 상징적 해석에 어떻게 이르는지는 물론 보여 줄 수 없다. 성공은 재치 있는 추측, 직접적인 직관에 달린 일로 남는다. 그래서 꿈 해석은 자연히 하나의 기예로 떠받들어졌고, 이 기예는 비범한 재능에 기대는 것처럼 보인다.[2] 민간의 두 가지 꿈 해석법 가운데 다른 하나는 이런 요구를 아예 내려놓는다. 이 방법은 「암호 해독법」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꿈을 일종의 비밀 암호문으로 다루어, 정해진 열쇠에 따라 모든 기호를 뜻이 알려진 다른 기호로 옮기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내가 편지 꿈을 꾸고, 또 장례식이나 그 비슷한 것의 꿈도 꾸었다고 하자. 「해몽서」를 찾아보면 「편지」는 「언짢은 일」로, 「장례식」은 「결혼, 약혼」으로 옮겨야 한다고 나온다. 이제 남은 일은 해독해 낸 이

횡설수설을 엮어 하나의 연관을 세우는 것이고, 그 연관 역시 미래에 관한 것이라고 여겨야 한다. 이 암호 해독 방식의 흥미로운 변형이 달디스의 아르테미도로스[2]가 쓴 꿈 해석서에 나온다. 이 변형은 기호를 순전히 기계적으로 옮겨 놓기만 하는 이 방식의 성격을 어느 정도 바로잡는다. 여기서는 꿈 내용뿐 아니라 꿈꾼 사람의 인품과 사회적 처지까지 고려한다. 그래서 같은 꿈 내용이라도 부자, 기혼자, 연설가에게는 가난한 사람, 미혼자, 이를테면 상인에게와는 다른 의미를 지닌다. 그러니 이 방식의 요점은 해석 작업이 꿈 전체가 아니라 꿈 내용의 각 부분을 따로따로 겨냥한다는 데 있다. 마치 꿈이, 조각 하나하나가 저마다의 처리를 요구하는 집합체라도 되는 것처럼 말이다. 앞뒤가 맞지 않고 뒤죽박죽인 꿈이야말로 틀림없이 암호 해독법을 낳은 장본인일 것이다.'[3]

이 두 가지 민간 해석법이 이 주제를 과학적으로 다루는 데 쓸모없다는 것은 한순간도 의심할 여지가 없다. 상징적 방법은 적용 범위가 좁고, 일반적으로 입증할 길이 없다. 암호 해독법에서는 모든 것이 열쇠, 곧 해몽서를 믿을 수 있느냐에 달려 있는데, 이를 보증해 줄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철학자와 정신의학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꿈 해석의 문제를 공상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치워 버리고 싶어질 법도 하다.

그러나 나는 달리 생각하게 되었다. 오래되고 끈질기게 지켜져 온 민간의 믿음이 오늘날 지배적인 학문의 판단보다 사태의 진실에 더 가까이 다가간 듯 보이는 경우가 드물지 않은데, 여기서도 또 그런 경우를 만났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나는 꿈에 실제로 의미가 있으며, 꿈 해석에 과학적인 절차가 가능하다고 주장해야겠다. 내가 이 절차를 알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나는 몇 해 전부터 치료를 목적으로 히스테리성 공포증, 강박 관념 따위에 나타나는 어떤 정신병리학적 구조물을 해결하는 일에 매달려 왔다. 요제프 브로이어의 중요한 보고를 알게 된 뒤부터 그랬는데, 병적 증상으로 여겨지는 이런 구조물에서는 해결과 치료가 함께 간다는 보고였다.[4] 그런 병적 관념을, 그것이 생겨난 환자 정신생활의 요소로까지 거슬러 올라가 추적할 수 있었던 곳에서는 그 관념이 허물어졌고, 환자는 그것에서 풀려났다. 우리의 다른 치료 노력이 실패한 것을 보나, 이런 상태가 수수께끼 같다는 것을 보나, 온갖 어려움이 있더라도 브로이어가 걸어간 길을 따라 이 문제를 완전히 이해할 때까지 밀고 나가고 싶은 마음이 인다. 이 절차의 기법이 마침내 어떤 형태를 띠게 되었는지, 그간의 노력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는 다른 자리에서 자세히 보고해야 할 것이다. 이런 정신분석 연구를 하다가 나는 꿈 해석과 마주쳤다. 주어진 주제와 관련해 떠오르는 착상이며 생각을 빠짐없이 알려 달라고 요구하자, 내 환자들은 꿈 이야기를 했다. 그리하여 나는 병적 관념을 출발점으로 삼아 기억 속으로 거슬러 따라가야 하는 심리적 연쇄 속에 꿈도 끼워 넣을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그다음 걸음은 꿈을 하나의 증상으로 다루고, 그런 증상을 위해 다듬어 놓은 해석 방법을 꿈에도 적용하는 것이었다.

그러려면 환자를 어느 정도 심리적으로 준비시켜야 한다. 환자에게서 두 가지를 함께 이끌어 내려고 애쓴다. 하나는 자기 심리적 지각에 주의를 기울이게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기 안에 떠오르는 생각을 볼 때 평소 버릇처럼 들이대는 비판을 걷어 내는 것이다. 주의를 모아 자기 관찰을 하려면 환자가 편안한 자세를 취하고 눈을 감는 것이 좋다. 그리고 자기가 지각하는 사고 형성물에 대한 비판을 내려놓으라고 분명히 지시해야 한다. 또 정신분석의 성공은 머릿속을 스쳐 가는 모든 것을 알아차리고 말하는 데 달려 있으니, 어떤 생각은 중요하지 않거나

주제와 상관없어 보인다는 이유로, 또 어떤 생각은 터무니없어 보인다는 이유로 억제해서는 안 된다고 일러 주어야 한다. 떠오른 생각에 대해서는 치우침 없는 태도를 지켜야 한다. 꿈이나 강박 같은 것을 바라던 대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 탓은 바로 이 비판에 있을 테니까.

정신분석 작업을 하면서 나는 숙고하는 사람의 마음 상태가 자기 심리 과정을 관찰하는 사람의 마음 상태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숙고할 때는 아무리 주의 깊은 자기 관찰을 할 때보다도 심리적 활동이 더 활발하게 움직인다. 숙고하는 사람의 긴장된 자세와 찌푸린 이마가 자기 관찰하는 사람의 편안한 표정과 대조를 이루며 이를 보여 준다. 두 경우 모두 주의를 집중해야 하지만, 숙고할 때는 그 밖에도 비판을 행한다. 그래서 지각한 생각 가운데 어떤 것은 물리치고, 어떤 것은 도중에 끊어 버려 그 생각이 열어 줄 생각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으며, 또 다른 생각들에 대해서는 아예 의식되지 않도록 처신하기도 한다. 다시 말해 그런 생각은 지각되기도 전에 억제된다. 반면 자기 관찰에서는 비판을 억제하는 일만 하면 된다. 여기에 성공하면, 다른 때라면 도저히 붙잡을 수 없었을 떠오른 생각이 한없이 의식으로 밀려든다. 자기 관찰을 위해 새로 얻은 이 재료의 도움으로 병적 관념뿐 아니라 꿈 이미지도 해석할 수 있다. 보다시피 요점은, 심리 에너지(옮겨 갈 수 있는 주의)의 배분이라는 면에서 잠들기 직전의 상태(그리고 최면 상태)와 어느 정도 비슷한 심리 상태를 만들어 내는 데 있다. 잠들 때는 우리가 표상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도록 허락하는 어떤 자의적인(그리고 분명 비판적이기도 한) 작용이 느슨해지면서 「원치 않는 표상」이 떠오른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느슨해지는 까닭을 「피로」로 돌린다. 그 까닭으로 떠오르는 원치 않는 표상은 시각적·청각적 이미지로 바뀐다. (1장 (마)에서 본 슐라이어마허[61] 등의 견해를 참조하라.) 꿈과 병적 관념을 분석하는 데 쓰는 상태에서는 이 작용을 일부러,

자의적으로 그만둔다. 그렇게 아낀 심리 에너지는, 혹은 그 일부는, 이제 떠오르는 원치 않는 생각을 주의 깊게 따라가는 데 쓰인다. 이 생각들은 표상으로서의 제 모습을 그대로 지닌다(잠들 때의 상태와 다른 점이 이것이다). 「원치 않는 표상」은 이렇게 「원하는」 표상으로 바뀐다.

겉보기에 「자유롭게 떠오르는」 표상에 평소 행사하던 비판을, 여기서 요구하는 대로 멈추기란 어떤 사람들에게는 쉽지 않다. 「원치 않는 표상」은 걸핏하면 더없이 격렬한 저항(resistance)을 불러일으키고, 이 저항은 그 표상이 떠오르지 못하게 막으려 한다. 그러나 우리의 위대한 시인 철학자 프리드리히 실러의 말을 믿는다면, 시 창작의 조건도 이와 아주 비슷한 너그러움이어야 한다. 실러가 쾨르너와 주고받은 편지 가운데, 창작력이 모자란다고 하소연하는 벗에게 실러가 답하는 대목이 있다. 이 대목을 알게 된 것은 오토 랑크 씨 덕분이다. 실러는 이렇게 쓴다. 「자네가 불평하는 까닭은, 내가 보기에, 자네의 지성이 상상력에 채우는 속박에 있는 것 같네. 여기서 한 가지 관찰을 말하고, 그것을 비유 하나로 풀어 보아야겠네. 이미 밀려들어오는 착상들을 지성이, 말하자면 성문 앞에서부터 너무 꼼꼼히 검사하는 것은 이로워 보이지 않을뿐더러 정신의 창조 작업에 해롭기까지 하네. 따로 떼어 놓고 보면 어떤 착상은 아주 하찮고 아주 엉뚱할지 모르지만, 뒤따라오는 착상 덕분에 중요해질 수도 있고, 똑같이 부조리해 보일지 모르는 다른 착상들과 어떤 식으로 이어지면 아주 쓸모 있는 구성물을 이룰 수도 있네. 지성이 그것들을 다른 것들과 이어서 볼 수 있을 만큼 오래 붙잡아 두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없다네. 그런데 창조적인 정신의 경우에는 지성이 성문에서 파수꾼을 거두어들여 착상들이 뒤죽박죽 밀려들게 하고, 그런 뒤에야 비로소 그 커다란 더미를 훑어보며 비판적으로 검토하네. 비평가 양반들, 아니 자네들이 스스로를 뭐라고 부르든, 자네들은 모든 창조자에게서 볼 수

있는 순간적이고 덧없는 광기를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네. 그 광기가 오래가느냐 짧게 끝나느냐가 생각하는 예술가와 몽상가를 가르는데도 말일세. 그러니 자네들이 불모를 한탄하는 걸세. 너무 일찍 물리치고 너무 엄격하게 가려내니 말이네」(1788년 12월 1일의 편지).

그런데도 실러가 말하는 「지성의 성문에서 파수꾼을 거두어들이는 일」, 곧 비판 없는 자기 관찰의 상태로 옮겨 가는 일은 결코 어렵지 않다.

내 환자들은 대부분 처음 지시를 받고 나서 곧 해낸다. 나 자신은 떠오른 생각을 적어 가며 이 일을 거들면 아주 완벽하게 해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비판 활동을 얼마만큼 줄이고 자기 관찰의 강도를 얼마만큼 높일 수 있는지는, 심리 에너지로 따져 보면, 주의를 고정해야 할 주제에 따라 크게 다르다.

이 절차를 적용하는 첫걸음에서 우리는, 꿈 전체가 아니라 그 내용의 부분들만을 따로따로 주의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을 배운다. 아직 익숙하지 않은 환자에게 「이 꿈과 관련해 무엇이 떠오릅니까?」 하고 물으면, 대개 그는 자기 심리적 시야에서 아무것도 붙잡지 못한다. 그러니 꿈을 한 조각씩 내밀어야 한다. 그러면 그는 조각마다 떠오른 생각을 줄줄이 내놓는데, 이것을 꿈의 그 부분의 「배후의 생각」이라 부를 수 있다. 이 첫째가는 중요한 조건에서, 내가 쓰는 꿈 해석 방법은 전설로 이름난 민간의 전통적인 상징 해석을 피하고 둘째 방법인 「암호 해독법」에 다가간다. 암호 해독법처럼 내 방법도 세부를 하나하나 해석하지 통째로(en masse) 해석하지 않으며, 암호 해독법처럼 꿈을 처음부터 짜 맞춰진 것으로, 곧 심리적 이미지의 집합체로 다룬다.

신경증 환자를 정신분석하면서 나는 이미 수천 개의 꿈을 해석했지만, 꿈 해석의 기법과 이론을 소개하는 이 자리에서는 이 재료를 쓰고 싶지 않다. 그것은 신경병 환자의 꿈이니 거기서 끌어낸 결론을 건강한

사람의 꿈에 다시 적용할 수 없다는 반론을 받으리라는 점은 제쳐 두더라도, 이 재료를 물리칠 수밖에 없는 까닭이 또 하나 있다. 이런 꿈이 다루는 주제는 당연히 언제나 신경증의 원인이 된 병의 내력이다. 그런 꿈을 다루자면 아주 긴 서론과 함께 정신신경증의 본성과 논리적 조건을 파고들어야 할 텐데, 이것들은 그 자체로 더없이 새롭고 낯설어서 꿈 문제에서 주의를 흩뜨릴 것이다. 내 목적은 오히려 꿈을 해결함으로써 신경증 심리학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터를 닦는 쪽에 있다. 그러나 신경증 환자의 꿈을 빼 버린다면 나머지를 너무 까다롭게 가려서는 안 된다. 남는 것은 아는 사람 가운데 건강한 이들이 이따금 들려준 꿈이나, 꿈 생활에 관한 문헌에서 예로 찾아낸 꿈뿐이다. 안타깝게도 이런 꿈에는 모두 분석이 빠져 있는데, 분석 없이는 꿈의 의미를 찾을 수 없다. 내 절차는 물론, 주어진 꿈 내용을 정해진 열쇠에 따라 옮기는 민간의 암호 해독법만큼 쉽지 않다. 나는 오히려 같은 꿈이라도 사람이 다르고 맥락이 다르면 다른 의미를 감출 수 있다고 각오하고 있다. 그러니 나는 내 꿈에 기댈 수밖에 없다. 내 꿈은 대략 정상인 사람이 내놓는, 일상생활의 숱한 일들과 관련된 풍부하고 손쉬운 재료다. 이런 「자기 분석」을 믿을 수 있느냐는 의심을 물론 받게 될 것이다. 여기서는 자의성을 결코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내 생각에는 남을 관찰할 때보다 자기를 관찰할 때 조건이 오히려 유리하기 쉽다. 어쨌든 자기 분석으로 얼마나 해낼 수 있는지 시험해 보는 것은 허락될 만하다. 내 안에서 비롯되는 어려움도 넘어서야 한다. 자기 정신생활의 은밀한 것들을 그토록 많이 드러내기를 꺼리는 마음은 쉽게 이해할 만하고, 낯선 이들이 잘못 해석하지 않을까 마음이 놓이지도 않는다. 그러나 이런 것쯤은 넘어설 수 있어야 한다. 델뵈프[16]는 이렇게 쓴다. 「Toute psychologiste est obligé de faire l’aveu même de ses faiblesses s’il croit par là jeter du jour sur quelque problème

obscure.」〔심리학자라면 누구나, 그렇게 해서 어떤 모호한 문제를 밝힐 수 있다고 믿는다면 자기 약점까지도 털어놓아야 한다.〕 그리고 독자의 경우, 내가 저지를 수밖에 없는 무분별한 폭로에 쏠리는 당장의 관심은 머지않아 그 폭로가 비추어 주는 심리학적 문제에 오롯이 몰두하는 쪽으로 자리를 내주리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내 꿈 하나를 골라 그것으로 내 해석 방법을 밝혀 보려 한다. 그런 꿈에는 저마다 예비 설명이 필요하다. 이제 독자에게 부탁하건대, 한동안 내 관심사를 자기 관심사로 삼고 나와 함께 내 삶의 더없이 사소한 세부에 빠져들어 주기 바란다. 꿈의 숨은 의미에 관심을 두려면 이런 전이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예비 설명: 1895년 여름, 나는 한 젊은 여성을 정신분석으로 치료했다. 그녀는 나와도, 내 가까운 사람들과도 두터운 친분이 있었다. 이렇게 관계가 얽히면 의사에게, 특히 정신 치료를 하는 의사에게 여러 가지 감정이 생길 수 있음은 짐작할 만하다. 의사 개인의 관심은 더 커지고, 권위는 더 작아진다. 치료에 실패하면 환자 가족과의 우정이 무너질 수도 있다. 치료는 부분적인 성공으로 끝났다. 환자는 히스테리성 불안에서는 벗어났지만 신체 증상을 모두 떨쳐 내지는 못했다. 그때 나는 히스테리 사례가 최종적으로 매듭지어졌음을 알려 주는 기준을 아직 확실히 알지 못했고, 그녀에게는 받아들일 만해 보이지 않는 해결책을 그녀가 받아들이기를 기대했다. 이렇게 의견이 엇갈린 채, 우리는 여름철이라는 이유로 치료를 중단했다. 어느 날 나보다 젊은 동료이자 가장 친한 벗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찾아왔다. 그는 시골 휴양지에 가 있던 환자 이르마와 그 가족을 방문하고 오는 길이었다. 그녀가 어떻더냐고 묻자, 이런 대답이 돌아왔다. 「좋아지긴 했는데, 아주 다 나은 건 아니에요.」 나는 내 친구 오토의 그 말에, 혹은 그 말을 하던 말투에 화가 났다는 것을 안다. 그 말에서 비난을 들은 것

같았다. 아마 내가 환자에게 너무 많은 것을 약속했다는 비난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옳든 그르든, 오토가 내 반대편에 섰다고 여긴 것을 환자 가족의 영향 탓으로 돌렸다. 내 짐작에 그 가족은 내 치료를 한 번도 탐탁해한 적이 없었다. 게다가 이 불쾌한 인상은 내게 뚜렷해지지도 않았고, 나는 그것을 입 밖에 내지도 않았다. 바로 그날 저녁 나는 이르마의 병력을 적었다. 마치 내 정당함을 밝히려는 듯이, 그것을 우리 두 사람의 벗이자 당시 우리 모임에서 주도적인 인물이던 M. 박사에게 건넬 생각이었다. 그날 밤(아니 어쩌면 새벽녘에) 나는 다음과 같은 꿈을 꾸었고, 깨어나자마자 곧바로 적어 두었다.

1895년 7월 23~24일의 꿈

커다란 홀 — 우리가 맞는 많은 손님들 — 그 가운데 이르마가 있는데, 나는 곧바로 그녀를 한쪽으로 데려간다. 마치 그녀의 편지에 답하려는 듯, 아직 「해결책」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그녀를 나무라기 위해서다. 나는 그녀에게 말한다. 「아직도 통증이 있다면, 그건 정말 오로지 본인 탓입니다.」 그녀가 대답한다. 「지금 제 목과 위와 배의 통증이 얼마나 심한지 아시기만 한다면요. 몸이 조여들어요.」 나는 겁이 나서 그녀를 바라본다. 그녀는 창백하고 부어 보인다. 결국 내가 어떤 기질적 질환을 놓치고 있는 게 틀림없다고 나는 생각한다. 나는 그녀를 창가로 데려가 목구멍을 들여다본다. 그녀는 틀니 한 벌을 해 넣은 여자처럼 여기에 얼마간 저항을 보인다. 어차피 그녀에게는 그것들이 필요 없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러자 입이 정말로 어려움 없이 열리고, 나는 오른쪽에서 커다란 흰 반점을 발견한다. 또 다른 곳에서는 기묘하게 꼬불꼬불 말린 구조물에 붙은, 넓게 퍼진 회백색 딱지를 본다. 그 구조물은 분명 비갑개처럼 생겼다 — 나는 급히 M. 박사를 부르고, 그는 진찰을 되풀이하고는 그것을 확인한다……. M. 박사의 모습은 평소와 전혀 다르다. 그는 몹시 창백하고, 다리를 절며, 턱에 수염이 없다……. 내 친구 오토도 이제 그녀 곁에

서 있고, 내 친구 레오폴트는 그녀의 작은 몸을 타진하며 말한다. 「왼쪽 아래에 탁음이 좀 있네요.」 그러고는 왼쪽 어깨 피부의 침윤된 부분도 지적한다(옷을 입었는데도 내가 그처럼 느끼는 것)……. M.이 말한다. 「틀림없이 감염이지만 괜찮아요. 이질도 생길 테고, 독은 배설될 거예요.」 …… 우리는 감염의 출처도 곧바로 안다. 내 친구 오토가 얼마 전 그녀가 몸이 안 좋았을 때 프로필 제제로 주사를 놓았다, 프로필류……. 프로피온산 …… 트리메틸아민(그 화학식이 굵은 글씨로 인쇄되어 내 눈앞에 보인다)……. 그런 주사는 그렇게 경솔하게 놓는 게 아니다……. 아마 주사기도 깨끗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꿈은 다른 많은 꿈보다 나은 점이 있다. 꿈이 전날의 어떤 일과 이어져 있는지, 무엇을 주제로 삼는지가 대번에 뚜렷하다. 예비 설명이 이 점을 알려 준다. 오토에게서 들은 이르마의 건강 소식과 밤늦게까지 적던 병력이 잠든 동안에도 내 심리 활동을 붙들고 있었다. 그런데도 예비 설명을 읽고 꿈 내용을 아는 사람 가운데 이 꿈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아맞힌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나 자신도 모른다. 꿈에서 이르마가 호소하는 병적 증상이 의아하다. 내가 치료해 준 증상과 같지 않기 때문이다. M. 박사와의 협진을 생각하면 웃음이 나온다. 프로피온산 주사라는 터무니없는 생각에도, M. 박사가 시도하는 위로에도 웃음이 나온다. 꿈은 끝으로 갈수록 처음보다 더 모호하고 더 간결해지는 듯하다. 이 모든 것의 의미를 알려면 철저하게 분석하는 수밖에 없다.

분석

홀 — 우리가 맞는 많은 손님들.

그해 여름 우리는 벨뷔에 살고 있었다. 칼렌베르크 가까이 솟은 언덕 가운데 하나에 외따로 선 집이었다. 이 집은 원래 유흥 장소로 지어져서, 방들이 여느 집과 달리 천장이 높고 홀처럼 넓다. 이 꿈을 꾼 것도 벨뷔에서였고, 아내의 생일을 며칠 앞둔 때였다. 그날 낮에 아내는

생일에 몇몇 벗이, 그 가운데 이르마도, 손님으로 와 주리라고 기대하는 말을 했다. 그러니 내 꿈은 이 상황을 앞당겨 보여 준다. 아내의 생일이고, 많은 사람이, 그 가운데 이르마도, 벨뷔의 커다란 홀에서 우리가 맞는 손님이 된다.

나는 이르마가 해결책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나무란다. 나는 말한다. 「아직도 통증이 있다면, 그건 본인 탓입니다.」

이 말은 깨어 있을 때도 했을 법하고, 실제로 하기도 했다. 그 무렵 나는 내 과제가 환자에게 그 증상의 숨은 의미를 알려 주는 데서 그친다고 생각했다(나중에 틀렸다고 깨달았다). 그다음에 환자가 성공을 좌우하는 해결책을 받아들이든 말든, 그것은 내 책임이 아니었다. 다행히 지금은 극복한 이 오류에 나는 고마워한다. 어쩔 수 없이 무지했으면서도 성공적인 치료를 해내야 했던 시절, 이 오류 덕분에 한결 살기가 편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꿈속에서 내가 이르마에게 하는 말을 보면, 나는 무엇보다 그녀가 아직 느끼는 통증이 내 탓이 되기를 바라지 않는다. 그것이 이르마 본인의 탓이라면 내 탓일 수는 없다. 꿈의 의도를 이쪽에서 찾아야 할까?

이르마의 호소. 목과 배와 위의 통증. 그녀는 몸이 조여든다.

위통은 내 환자의 증상군에 속하기는 했지만 그리 두드러지지 않았다. 그녀가 호소한 것은 오히려 메스껍고 역겨운 느낌이었다. 목과 배의 통증, 목이 조여드는 증상은 그녀의 경우 거의 아무 구실도 하지 않았다. 내가 왜 이런 증상들을 골랐는지 의아한데, 지금으로서는 그 까닭도 찾지 못하겠다.

그녀는 창백하고 부어 보인다.

내 환자는 늘 혈색이 좋았다. 여기서는 다른 사람이 그녀 대신 들어앉은 게 아닌가 싶다.

내가 어떤 기질적 질환을 놓쳤음이 틀림없다는 생각에 나는 겁이 난다.

독자도 쉽게 믿겠지만, 이것은 거의 신경증 환자만 보면서 다른 의사들이 기질적인 것으로 다루는 숱한 증세를 히스테리 탓으로 돌리는 데 익숙한 전문의에게 늘 따라다니는 두려움이다. 한편으로 나는 어디서 오는지 모를 희미한 의심에 시달린다. 내 두려움이 과연 온전히 정직한 것일까 하는 의심이다. 이르마의 통증이 정말 기질적인 원인에서 온 것이라면 나는 그것을 고칠 의무가 없다. 내 치료는 물론 히스테리성 통증만 없애 주니까. 사실 나는 진단에서 오류를 찾아내고 싶은 것 같다. 그러면 치료에 실패했다는 비난을 벗을 수 있을 테니까.

나는 목구멍을 들여다보려고 그녀를 창가로 데려간다. 그녀는 틀니를 해 넣은 여자처럼 조금 저항한다. 그녀에게는 그것들이 어차피 필요 없다고 나는 생각한다.

나는 이르마의 구강[5]을 들여다볼 기회가 한 번도 없었다. 꿈속의 이 일을 보니, 얼마 전 어느 가정교사를 진찰했던 일이 떠오른다. 그녀는 처음에는 젊고 아름다워 보였지만, 입을 벌리게 되자 이를 감추려고 이런저런 수를 썼다. 진찰에 얽힌 다른 기억들, 그리고 진찰하는 사람에게나 진찰받는 사람에게나 달갑지 않게 진찰로 드러나는 작은 비밀들에 관한 기억이 이 경우에 이어진다. 「그녀에게는 그것들이 어차피 필요 없다」는 말은 처음에는 아마 이르마에 대한 칭찬일 것이다. 하지만 나는 다른 뜻이 있지 않나 싶다. 주의 깊게 분석하다 보면, 기대할 만한 「배후의 생각」을 다 길어 냈는지 아닌지 느낌이 온다. 이르마가 창가에 서 있는 모습을 보니 문득 다른 경험이 떠오른다. 이르마에게는 친한 여자 친구가 하나 있는데, 나는 그녀를 매우 높이 평가한다. 어느 저녁 그녀를 찾아갔더니, 그녀가 꿈에 재현된 바로 그 자세로 창가에 있었고, 그녀의 주치의인 바로 그 M. 박사가 그녀에게 디프테리아 막이 있다고 말했다. M. 박사라는 인물과 그 막은 꿈이 진행되면서 다시 나타난다. 이제 생각해 보니, 지난 몇 달 동안 나는 이

부인도 히스테리라고 여길 만한 이유를 충분히 얻었다. 그렇다, 이르마 자신이 이것을 내게 털어놓았다. 그러나 나는 그녀의 상태에 대해 무엇을 아는가? 단 한 가지, 그녀도 꿈속의 이르마처럼 히스테리성 질식 발작을 겪는다는 것뿐이다.[6] 그러니 나는 꿈에서 내 환자를 그녀의 친구로 바꿔 놓은 것이다. 이제 기억나는데, 나는 이 부인도 증상을 덜어 달라고 내게 치료를 맡기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자주 만지작거렸다. 그러나 그때도 그럴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아주 수줍은 성격이기 때문이다. 꿈이 보여 주듯 그녀는 저항한다. 또 다른 설명은 그녀에게는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것일지 모른다. 실제로 그녀는 지금까지 바깥의 도움 없이 자기 상태를 다스릴 만큼 강하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이제 이르마에게도 그 친구에게도 돌릴 수 없는 특징 몇 가지만 남는다. 창백함, 부기, 틀니. 틀니는 나를 그 가정교사에게로 이끈다. 이제는 나쁜 이로 만족하고 싶어진다. 그러자 이 특징들이 가리킬 법한 또 다른 사람이 떠오른다. 그녀는 내 환자가 아니고, 나는 그녀가 내 환자가 되기를 바라지도 않는다. 그녀가 내 앞에서 편안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렸고, 고분고분한 환자라고 여기지도 않기 때문이다. 그녀는 대개 창백한데, 유난히 몸이 좋았던 어느 때에는 부어 있었다.[7] 그러니 나는 내 환자 이르마를, 마찬가지로 치료에 저항할 다른 두 사람과 견준 셈이다. 꿈에서 내가 그녀를 그 친구와 바꿔 놓은 것은 무슨 뜻일까? 어쩌면 그녀를 바꾸고 싶다는 뜻일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더 강한 호감이 가든가, 그 사람의 지성을 더 높이 사든가. 나는 이르마가 내 해결책을 받아들이지 않으니 어리석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이라면 더 분별이 있을 테고, 그러니 더 잘 따를 것이다. 그러자 입이 정말로 어려움 없이 열린다. 그녀라면 이르마보다 더 많이 털어놓을 것이다.[8]

목구멍 속에서 내가 보는 것. 흰 반점과 딱지 앉은 콧구멍.

흰 반점은 디프테리아를, 그러니까 이르마의 친구를 떠올리게 하지만, 그 밖에도 두 해 전 내 맏딸이 앓았던 중병과 그 불행한 시절의 온갖 불안을 떠올리게 한다. 콧구멍의 딱지는 내 건강에 대한 걱정을 떠올리게 한다. 그 무렵 나는 코의 성가신 종창을 가라앉히려고 코카인을 자주 썼는데, 며칠 전에 똑같이 하던 한 여성 환자가 코 점막에 광범위한 괴사를 입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1885년에 코카인을 권했다가 나는 심한 비난을 받기도 했다. 1895년에 이미 세상을 떠난 한 소중한 벗은 이 약을 잘못 써서 죽음을 재촉했다.

나는 급히 M. 박사를 부르고, 그는 진찰을 되풀이한다.

이것은 그저 M.이 우리 사이에서 차지하던 위치에 들어맞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런데 「급히」라는 말은 따로 설명이 필요할 만큼 눈에 띈다. 이 말은 한 가지 슬픈 의료 경험을 떠올리게 한다. 당시만 해도 무해하다고 여겨지던 약(설포날)을 계속 처방하다가 나는 한 여성 환자에게 심한 중독을 일으킨 적이 있었고, 그때 황급히 나이 많고 경험 많은 동료에게 도움을 청했다. 내가 정말로 이 사례를 염두에 두었다는 것은 부수적인 사정 하나가 확인해 준다. 중독으로 목숨을 잃은 그 환자는 내 맏딸과 이름이 같았다.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일이다. 이제 보니 그것은 거의 운명의 응보처럼 여겨진다. 마치 여기서 인물을 바꿔 놓는 일을 다른 의미로 이어 가야 한다는 듯이. 이 마틸다 대신 저 마틸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마치 나는 의사로서 양심이 모자랐다고 스스로를 나무랄 기회를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는 것 같다.

M. 박사는 창백하고, 턱에 수염이 없으며, 다리를 전다.

이 가운데 맞는 것은, 그의 건강하지 못한 모습이 자주 벗들의 걱정을 산다는 점이다. 나머지 두 특징은 다른 사람의 것임에 틀림없다. 외국에 사는 형제 하나가 떠오르는데, 그는 턱을 말끔히 면도하고 다니며, 내 기억이 맞다면 꿈속의 M.은 대체로 그와 좀 닮았다. 며칠 전 그 형제가

고관절의 관절염 때문에 다리를 절게 되었다는 소식이 왔다. 내가 꿈에서 두 사람을 하나로 녹여 합친 데는 까닭이 있을 것이다. 생각해 보니 실제로 나는 비슷한 이유로 두 사람 모두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 두 사람 다 내가 얼마 전에 한 어떤 제안을 거절했다.

내 친구 오토가 이제 병든 여자 곁에 서 있고, 내 친구 레오폴트는 그녀를 진찰하며 왼쪽 아래의 탁음을 지적한다.

내 친구 레오폴트도 의사이며 오토의 친척이다. 두 사람은 같은 전문 분야에서 일하는 탓에 운명에 떠밀려 경쟁자가 되었고, 늘 서로 비교를 당한다. 내가 아직 신경병을 앓는 아이들을 위한 공공 진료소를 이끌던 시절, 두 사람은 여러 해 동안 나를 도왔다. 꿈에 재현된 것과 같은 장면이 거기서 자주 벌어졌다. 내가 어떤 사례의 진단을 두고 오토와 토론하는 동안, 레오폴트가 아이를 새로 진찰해 판단에 뜻밖의 보탬을 주곤 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브레지히 감독관과 그의 친구 찰스 사이의 차이와 비슷한 성격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한 사람은 재기가 번뜩였고, 다른 한 사람은 느리고 생각이 깊지만 철저했다. 내가 꿈에서 오토와 신중한 레오폴트를 대비시킨다면, 보아하니 레오폴트를 치켜세우기 위해서다. 이는 앞에서 말 안 듣는 환자 이르마와 더 분별 있다고 여겨지는 그녀의 친구를 견준 것과 비슷한 비교다. 이제 나는 꿈의 생각이 연상을 타고 나아가는 길 가운데 하나를 알아차린다. 병든 아이에게서 아동 보호 시설로 가는 길이다. 왼쪽, 아래쪽의 탁음은 그것과 세세한 데까지 들어맞는 어떤 사례를 떠올리게 하는데, 그 사례에서 레오폴트는 철저함으로 나를 놀라게 했다. 그 밖에 전이성 질환 같은 것이 어렴풋이 떠오르지만, 그것은 오히려 내가 이르마 대신 두고 싶은 여성 환자를 가리키는 것일지도 모른다. 내가 헤아리는 한, 이 부인은 결핵을 앓는 여자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왼쪽 어깨 피부의 침윤된 부분.

나는 이것이 밤늦게까지 깨어 있으면 늘 느끼는 내 어깨 류머티즘이라는 것을 곧바로 안다. 꿈속의 말투도 두 가지로 들린다. 옷을 입었는데도 내가 …… 느끼는 것. 「내 몸에서 느낀다」는 뜻이다. 게다가 「피부의 침윤된 부분」이라는 표현이 낯설게 들려 눈에 띈다. 우리가 익숙한 말은 「왼쪽 위 뒤쪽의 침윤」이다. 이것이라면 폐를 가리키고, 따라서 다시 결핵 환자를 가리킬 것이다.

옷을 입었는데도.

이것은 물론 끼워 넣은 말일 뿐이다. 진료실에서 우리는 당연히 아이들의 옷을 벗기고 진찰한다. 이것은 다 큰 여성 환자를 진찰해야 하는 방식과는 일종의 모순을 이룬다. 어느 저명한 임상의는 늘 옷 위로만 환자의 몸을 진찰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곤 했다. 나머지는 내게 모호하다. 솔직히 말해 나는 이 문제를 더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없다.

M. 박사가 말한다. 「감염이지만 괜찮아요. 이질이 생길 테고, 독은 배설될 거예요.」

이 말은 처음에는 우스꽝스럽게 보인다. 그래도 다른 모든 것처럼 꼼꼼히 분석해야 한다.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일종의 의미가 있는 듯하다. 내가 환자에게서 발견한 것은 국소적인 디프테리티스였다. 딸이 아팠을 때 디프테리티스와 디프테리아를 두고 벌어진 논의가 기억난다. 디프테리아는 국소적인 디프테리티스에서 번져 나가는 전신 감염이다. 레오폴트는 탁음으로 이런 전신 감염이 있음을 입증하며, 그러니 탁음은 전이성 병변을 암시한다. 그러나 내가 알기로 바로 이런 종류의 전이는 디프테리아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것은 오히려 농혈증을 떠올리게 한다.

괜찮아요라는 말은 위로다. 이 말이 들어맞는 방식은 다음과 같은 것 같다. 꿈의 바로 앞 대목에서 나온 내용은, 환자의 통증이 심각한 기질적 질환의 결과라는 것이었다. 이것으로 나는 내 책임을 떠넘기려는 것일

뿐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한다. 디프테리아성 질환이 계속되는데 대해 심리 치료가 책임을 질 수는 없다. 그런데 이번에는, 오로지 나를 변명하려고 이르마에게 그토록 심각한 고통을 지어낸다는 데 마음이 불편해진다. 잔인해 보인다. 나는 (따라서) 결과가 좋으리라는 보증이 필요하고, 위로의 말을 M. 박사의 입에 넣어 준 것도 잘못된 선택은 아닌 듯하다. 그런데 여기서 나는 꿈보다 한 수 위에 있다고 여기는데, 이것은 설명이 필요한 사실이다.

그런데 이 위로는 왜 이토록 터무니없을까?

이질:

병적 물질이 장을 거쳐 빠져나갈 수 있다는, 억지스러운 이론적 생각 같은 것. 나는 이런 식으로, 억지 설명을 잔뜩 쌓아 두고 기묘한 병리적 연관을 찾아내는 M. 박사의 버릇을 놀리려는 것일까? 이질은 다른 것도 암시한다. 몇 달 전 나는 배변할 때 이상한 통증을 겪는 젊은이를 맡았는데, 동료 의사들은 그를 「 영양 불량을 동반한 빈혈 」 로 치료했다. 나는 그것이 히스테리의 문제라는 것을 알아차렸지만, 그에게 내 정신 치료를 쓰고 싶지 않아서 바다 여행을 보냈다. 그런데 며칠 전 그가 이집트에서 절망에 찬 편지를 보내왔다. 거기서 새로 발작을 일으켰는데 의사가 이질이라고 진단했다는 것이다. 나는 그 진단이, 히스테리에 속아 넘어가는 무지한 동료의 오류일 뿐이라고 짐작한다. 그래도 그 환자를 히스테리에 더해 장의 기질적 질환까지 걸릴 수 있는 처지로 내몬 데 대해 나 자신을 탓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이질〔dysentery〕은 디프테리아〔diphtheria〕와 소리가 닮았는데, 디프테리아라는 말은 꿈에 나오지 않는다.

틀림없이 나는 「이질이 생길 테고, 운운」 하는 위로의 예후로 M. 박사를 놀리고 있다. 여러 해 전 그가 다른 동료를 두고 아주 비슷한 이야기를 농담 삼아 한 적이 있다는 것이 기억나기 때문이다. 그는 이

동료와 함께 몹시 위중한 여성 환자를 협진하게 되었는데, 매우 낙관하는 듯한 그 의사에게 환자의 소변에서 단백이 나왔다는 사실을 들이밀어야겠다고 느꼈다. 그러나 그 동료는 조금도 개의치 않고 태연히 대답했다. 「 그건 괜찮습니다, 박사님. 단백은 틀림없이 배설될 겁니다.」 그러니 꿈의 이 대목에 히스테리를 모르는 동료들에 대한 조롱이 담겨 있다는 것을 나는 더는 의심할 수 없다. 이를 확인이라도 해 주듯, 이제 내 마음에 이런 물음이 떠오른다. 「M. 박사는 자기 환자, 곧 우리 친구 이르마에게서 결핵을 걱정하게 하는 증상도 히스테리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까? 그는 이 히스테리를 알아보았을까, 아니면 어리석게도 무시했을까?」

그런데 이 벗을 이렇게 푸대접하는 내 동기는 무엇일까? 아주 간단하다. M. 박사도 이르마 못지않게 내 해결책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니 나는 이 꿈에서 이미 두 사람에게 복수한 셈이다. 이르마에게는 「 아직도 통증이 있다면, 그건 본인 탓입니다 」 라는 말로, M. 박사에게는 그의 입에 넣어 준 터무니없는 위로의 문구로.

우리는 감염의 출처를 곧바로 안다.

꿈속에서 이렇게 곧바로 안다는 것은 매우 주목할 만하다. 바로 앞에서만 해도 우리는 그것을 몰랐다. 감염을 처음 밝혀낸 것은 레오폴트였으니까.

내 친구 오토가 얼마 전 그녀가 몸이 안 좋았을 때 주사를 놓았다.

오토는 실제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이르마의 가족을 잠깐 방문했을 때 갑자기 몸이 아파진 누군가에게 주사를 놓으러 이웃 호텔에 불려 갔다는 것이다. 주사는 또 코카인으로 제 몸을 중독시킨 불행한 벗을 떠올리게 한다. 나는 모르핀을 끊는 동안 먹는 약으로만 쓰라고 그에게 그 약을 권했는데, 그는 한번 코카인을 제 몸에 주사했다.

프로필 제제로 …… 프로필류 …… 프로피온산. 이것이 대체 어떻게 떠올랐을까? 꿈을 꾸기 전에 병력의 일부를 적은 바로 그날 저녁, 아내가 「Ananas」〔아나나스, 곧 파인애플〕[9]라는 상표가 붙은 리큐어 한 병을 땄다(우리 친구 오토가 선물한 것이었다. 그는 기회만 있으면 선물을 하는 버릇이 있었다. 언젠가 아내를 얻으면 이 버릇이 고쳐지기를 바란다).[10] 그 리큐어에서 퓨젤유 냄새가 어찌나 심하게 나던지 나는 맛보기를 마다했다. 아내가 「이 병은 하인들한테 주자」라고 하자, 나는 한술 더 떠 조심스럽게 그것마저 막으며 박애 정신이 넘치는 말을 했다. 「그 사람들도 중독되면 안 되지.」 퓨젤유(아밀……) 냄새가 이제 보아하니 내 기억 속에서 프로필, 메틸 등으로 이어지는 계열 전체를 깨웠고, 여기서 꿈의 프로필 제제가 나왔다. 사실 여기서 나는 대치를 하나 썼다. 아밀 냄새를 맡고서 프로필 꿈을 꾸었으니 말이다. 그러나 이런 종류의 대치는, 특히 유기 화학에서는, 허용될 만할 것이다.

트리메틸아민. 나는 꿈에서 이 물질의 화학식을 본다. 아마 내 기억이 크게 애썼다는 증거일 것이다. 게다가 그 화학식은 굵은 글씨로 인쇄되어 있다. 마치 앞뒤 맥락과 구별해 특별히 중요한 무언가를 강조하려는 듯이. 이토록 강하게 내 주의를 끈 이 트리메틸아민은 어디로 이어지는가? 그것은 또 다른 벗과 나눈 대화로 이어진다. 그는 여러 해 전부터 내가 싹 틔우던 작업을 모두 알고 있고, 나도 그의 작업을 그렇게 알고 있다. 그때 그는 성 화학에 관한 자기 생각 몇 가지를 막 들려주었는데, 그 가운데 트리메틸아민이 성적 물질대사의 산물 가운데 하나라고 본다는 말도 있었다. 그러니 이 물질은 나를 성으로, 곧 내가 고치려 애쓰는 신경 질환이 생기는 데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내가 믿는 그 요인으로 이끈다. 내 환자 이르마는 젊은 과부다. 그녀의 치료가 실패한 것을 변명하고 싶다면, 그녀의 숭배자들이 기꺼이

바꿔 주고 싶어 할 이 처지를 끌어대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다. 이런 꿈은 또 얼마나 기막히게 짜여 있는가! 꿈에서 이르마 대신 내 환자로 삼는 다른 여자도 젊은 과부다.

트리메틸아민의 화학식이 왜 꿈에서 그토록 두드러졌는지 짐작이 간다. 이 한 낱말에 중요한 것이 아주 많이 모여 있다. 트리메틸아민은 압도적인 요인인 성을 암시할 뿐 아니라, 내 견해 때문에 외톨이가 되었다고 느낄 때 그 공감을 흐뭇하게 떠올리게 되는 한 사람을 암시하기도 한다. 내 삶에서 이토록 큰 몫을 하는 이 벗이 꿈의 생각 사슬에 다시 나타나지 않을 리 있겠는가? 물론 나타나야 한다. 그는 코와 부비강의 질환에서 비롯되는 결과를 특히 잘 알고, 비갑개와 여성 성기 사이의 매우 주목할 만한 관계 몇 가지를 학계에 밝혀냈다(이르마의 목구멍 속 꼬불꼬불한 구조물 세 개). 나는 이르마의 위통이 코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그에게 이르마를 진찰받게 했다. 그러나 그 자신이 화농성 비염을 앓고 있어 걱정하는데, 꿈의 전이 가운데 내 눈앞에 어른거리는 농혈증은 아마 이것을 암시할 것이다.

그런 주사는 그렇게 경솔하게 놓는 게 아니다. 여기서 부주의하다는 비난이 내 친구 오토에게 곧장 날아간다. 그날 오후 그가 말과 눈빛으로 내 반대편에 선다는 것을 내비치는 듯했을 때, 나도 이런 생각을 조금 했던 것 같다. 아마 이런 생각이었을 것이다. 「저 친구는 얼마나 쉽게 휘둘리는지. 얼마나 부주의하게 판정을 내리는지.」 게다가 위의 문장은 다시, 그토록 가볍게 코카인 주사에 기댔던 세상을 떠난 벗을 가리킨다. 앞서 말했듯이 나는 그 약을 주사하라고 한 적이 전혀 없었다. 오토를 비난하면서 나는 다시 불행한 마틸다의 이야기를 건드리고 있음을 안다. 거기서는 똑같은 비난이 나를 향해 일어난다. 분명 나는 여기서 나 자신의 양심적인 태도를 보여 주는 예를, 그러나 그 반대의 예도 모으고 있다.

아마 주사기도 깨끗하지 않았을 것이다. 오토를 향한 또 하나의 비난이지만, 출처는 다른 데 있다. 전날 나는 우연히 여든두 살 된 부인의 아들을 만났다. 나는 그 부인에게 날마다 모르핀 주사를 두 번씩 놓아야 한다. 부인은 지금 시골에 가 있는데, 정맥염을 앓고 있다고 들었다. 나는 곧바로 주사기가 오염되어 생긴 감염이라고 생각했다. 두 해 동안 그 부인에게 감염을 한 번도 일으키지 않은 것이 내 자랑이다. 물론 나는 주사기를 완벽하게 깨끗이 하려고 늘 신경을 쓴다. 나는 양심적이니까. 정맥염에서 나는 아내에게로 돌아간다. 아내는 임신 중에 색전증을 앓은 적이 있다. 그러자 서로 관련된 세 가지 상황이 기억 속에 떠오른다. 아내와 이르마와 세상을 떠난 마틸다에 얽힌 상황이다. 이 세 사람이 같다는 것은 내가 그들을 서로의 자리에 바꿔 놓은 것을 분명히 정당화해 준다.

이제 꿈 해석을 마쳤다.[11] 해석하는 동안 나는 꿈 내용과 그 뒤에 숨은 꿈 사고(dream thoughts)를 견주면서 떠올랐을 생각을 모두 붙잡으려고 무척 애썼다. 그러는 사이 꿈의 「의미」가 떠올랐다. 꿈으로써 실현되는 어떤 의도, 꿈을 꾸게 한 동기였음이 틀림없는 의도를 나는 의식하게 되었다. 이 꿈은 전날 저녁의 일들(오토의 소식, 그리고 병력을 적은 일)이 내 안에 일깨운 여러 소원을 이루어 준다. 꿈이 내놓는 결론은, 이르마가 아직 겪는 고통이 내 탓이 아니라 오토 탓이라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토는 이르마가 완전히 낫지 않았다는 말로 나를 화나게 했다. 꿈은 그 비난을 오토 자신에게 되돌려 줌으로써 나 대신 그에게 복수한다. 꿈은 이르마의 상태를 다른 원인들 탓으로 돌려 나를 책임에서 풀어 주는데, 그 원인들은 참으로 많은 설명을 내놓는다. 꿈은 어떤 사태를 내가 바라는 대로 나타낸다. 그러니까 꿈의 내용은 소원 성취이고, 그 동기는 소원이다.

여기까지는 첫눈에 드러난다. 그러나 꿈의 세부 가운데 많은 것도 소원 성취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해가 된다. 나는 오토가 성급하게 내 반대편에 섰다는 이유로, 그를 부주의한 의료 행위(주사)로 고발함으로써 그에게 복수할 뿐 아니라, 퓨젤유 냄새가 나는 그 형편없는 리큐어에 대해서도 앙갚음을 한다. 그리고 두 비난을 하나로 묶는 표현을 꿈에서 찾아낸다. 프로필 제제로 놓은 주사가 그것이다. 그래도 성이 차지 않아, 나는 그를 더 믿음직한 경쟁자와 견주면서 복수를 이어 간다. 이로써 나는 이렇게 말하는 것 같다. 「나는 당신보다 그 사람이 더 좋아요.」 그러나 내 분노를 맛보아야 할 사람은 오토만이 아니다. 나는 말 안 듣는 환자를 더 분별 있고 더 고분고분한 환자와 바꿈으로써 그녀에게 복수한다. M. 박사의 반대도 그냥 넘기지 않고, 그가 이 문제에 대해 무식한 사람의 처지에 있다는 내 의견을 뻔한 암시로 드러낸다(「이질이 생길 테고」 운운).

정말이지 나는 그를 제쳐 두고 더 잘 아는 사람(트리메틸아민에 대해 일러 준 내 벗)에게 호소하는 것 같다. 이르마에게서 그녀의 친구에게로 돌아섰듯이, 오토에게서 레오폴트에게로 돌아선다. 이 세 사람을 치워 버리고 내가 고른 다른 세 사람으로 바꿔 달라, 그러면 나는 받아 마땅한 것이 아니었으면 하는 비난에서 풀려날 것이다! 이 비난이 부당하다는 것 자체가 꿈에서 더없이 공들인 방식으로 내게 증명된다. 이르마의 통증은 내 책임이 아니다. 그녀가 내 해결책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니 그녀 자신의 탓이다. 이르마의 통증은 내가 알 바가 아니다. 그것은 기질적인 것이어서 심리 치료로는 도무지 고칠 수 없다. 이르마의 고통은 그녀가 과부라는 것으로 충분히 설명된다(트리메틸아민!). 물론 이것은 내가 바꿀 수 없는 사실이다. 이르마의 병은 오토가 알맞지 않은 물질로 조심성 없이 놓은 주사 때문에 생겼다. 나라면 결코 그런 식으로 주사를 놓지 않았을 것이다. 이르마의 고통은 불결한 주사기로 놓은

주사의 결과다. 내가 돌보는 노부인의 정맥염처럼 말이다. 그런데 나는 주사를 놓으면서 그런 해를 끼친 적이 한 번도 없다. 물론 나는 한목소리로 나를 무죄로 만들어 주는 이르마의 병에 대한 이 설명들이 서로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아니 서로를 배제하기까지 한다는 것을 안다. 이 꿈은 변론일 뿐 다른 무엇도 아닌데, 이 변론 전체는 빌린 주전자를 망가진 채 돌려주었다고 이웃에게 고소당한 사람의 항변을 생생하게 떠올리게 한다. 첫째로, 그는 주전자를 멀쩡하게 돌려주었다고 했다. 둘째로, 빌렸을 때 이미 구멍이 나 있었다고 했다. 셋째로, 그는 이웃에게서 주전자를 빌린 적이 아예 없다고 했다. 그러나 그럴수록 더 좋다. 이 세 가지 변론 가운데 하나만이라도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사람은 무죄로 풀려나야 하니까.

꿈에는 또 다른 주제들도 섞여 있는데, 이르마의 병에 대한 책임을 벗는 것과의 관계가 그리 투명하지 않다. 내 딸의 병과 딸과 이름이 같은 환자의 병, 코카인의 해로움, 이집트를 여행하는 내 환자의 병, 아내와 형제와 M. 박사의 건강에 대한 걱정, 내 몸의 탈, 그리고 화농성 비염을 앓는, 멀리 있는 벗에 대한 걱정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한눈에 놓고 보면, 이것들은 하나의 생각의 흐름으로 합쳐진다. 거기에 이름표를 붙인다면 아마 이렇게 될 것이다. 나와 남의 건강에 대한 걱정 — 직업적 양심. 오토가 이르마의 상태를 전해 주었을 때 뭐라 규정할 수 없는 불쾌한 느낌이 들었던 것이 기억난다. 끝으로, 꿈에 섞여 든 생각의 흐름의 일부인 이 덧없는 느낌의 표현을 적어 두고 싶다. 마치 오토가 내게 이렇게 말한 것 같다. 「의사로서 할 일을 충분히 진지하게 여기지 않으시는군요. 양심적이지도 않고, 약속도 지키지 않으시고요.」 그러자 이 생각의 흐름이 내 편이 되어 주었고, 덕분에 나는 내가 얼마나 양심적인지, 가족과 친구와 환자의 건강을 얼마나 깊이 걱정하는지 증거를 내보일 수 있었다. 이상하게도 이 생각 재료에는 괴로운 기억도

몇 가지 들어 있는데, 이것들은 나에 대한 고발보다는 오히려 오토에게 돌린 탓에 들어맞는다. 재료는 공평무사해 보이지만, 꿈이 기대고 있는 이 넓은 재료와, 이르마의 병에 대해 결백하고 싶다는 소원을 낳는 꿈의 더 좁은 주제 사이의 연관은 그래도 틀림없다.

꿈의 의미를 남김없이 밝혀냈다거나 해석에 흠이 없다고 주장하고 싶지는 않다.

이 꿈에 아직 많은 시간을 들일 수도 있을 것이다. 거기서 설명을 더 끌어내고, 이 꿈이 생각해 보라고 내미는 새로운 문제들을 들춰낼 수도 있을 것이다. 생각의 연상을 더 따라갈 수 있는 지점들도 알고 있다. 그러나 자기 꿈이면 어느 꿈에나 따르게 마련인 여러 고려 때문에 나는 해석 작업을 여기서 멈춘다. 이런 신중함을 탓하려는 사람은 나보다 더 솔직해지도록 스스로 애써 볼 일이다. 나는 방금 이룬 발견으로 만족한다. 여기서 보인 꿈 해석 방법을 따르면, 꿈에는 정말로 의미가 있으며 꿈은 저자들이 우리에게 믿게 하려는 것처럼 조각난 뇌 활동의 표현이 결코 아님을 알게 될 것이다. **해석 작업을 끝내고 나면 꿈은 소원 성취임을 알 수 있다.**

---

1. 작가 W. 옌젠의 소설 『그라디바』에서 나는 우연히 인공적인 꿈 몇 개를 발견했는데, 그 꿈들은 흠잡을 데 없이 올바르게 짜여 있어서 지어낸 것이 아니라 실제 사람이 꾼 꿈인 것처럼 해석할 수 있었다. 내가 물어보자 작가는 내 꿈 이론을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나는 내 연구와 작가의 창작이 이렇게 들어맞는다는 것을 내 꿈 분석 방법이 옳다는 증거로 삼았다(「W. 옌젠의 『그라디바』에 나타난 망상과 꿈」, 내가 엮은 『응용 정신학 총서』 제1권, 1906). 그 뒤 알프레트 로비체크 박사는 괴테의 『에그몬트』에서 주인공이 꾸는 꿈도 실제로 꾼 꿈만큼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에그몬트의 꿈 분석」, 블로일러·프로이트 엮음, 『연보』 제2권, 1910).

2. 원고를 끝낸 뒤 슈툼프[65]의 논문 한 편이 눈에 들어왔다. 이 논문은 꿈이 의미로 가득하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 한다는 점에서 내 작업과 뜻을 같이한다.

그러나 그 해석은 알레고리식 상징 표현에 기대고 있으며, 그 방법이 두루 적용될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

3. 알프레트 로비체크 박사가 일러 준 바에 따르면, 동방의 해몽서는 꿈 요소를 대개 낱말의 소리와 모양이 닮은 데 따라 해석하며, 우리 해몽서는 그것을 초라하게 베낀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관계는 우리 언어로 옮기면서 사라질 수밖에 없으니, 우리 민간 「해몽서」의 대치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도 그 때문일 것이다. 고대 동방의 문화 체계에서 말장난과 익살이 지녔던 비상한 의미에 대해서는 후고 빙클러의 저술에서 알 수 있다. 고대로부터 전해 오는 꿈 해석 가운데 가장 멋진 예도 말놀이에 기대고 있다. 아르테미도로스[2]는 이렇게 전한다(225쪽). 「 내가 보기에 아리스탄드로스는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드로스에게 멋진 해석을 해 준 것 같다. 알렉산드로스는 티로스를 에워싸고 포위하고 있었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허비해 화가 나고 울적해 있던 참에, 사티로스 하나가 자기 방패 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꿈을 꾸었다. 마침 아리스탄드로스는 티로스 근처에서, 시리아인과 전쟁을 벌이던 왕을 수행하고 있었다. 그는 사티로스〔Satyros〕라는 낱말을 σα〔사: 『네 것』〕와 τύρος〔티로스〕로 갈라 왕이 포위 공격을 더 거세게 밀어붙이도록 부추겼고, 그리하여 왕은 그 도시의 주인이 되었다. (Σα τύρος — 티로스는 네 것이다.)」 꿈은 참으로 말의 표현과 긴밀하게 얽혀 있어서, 페렌치[87]가 모든 언어에는 저마다의 꿈 언어가 있다고 말한 것도 옳다. 꿈은 대개 다른 언어로 옮길 수 없다.

4. 브로이어와 프로이트, 『히스테리 연구』, 빈, 1895; 제2판 1909.

5. 영역본은 aural cavity(귀의 안)라 했으나 장면에 맞지 않아 구강으로 옮겼다. — 옮긴이.

6. 영역본은 「like Irma she suffers from hysterical choking in dreams」(이르마처럼 꿈속에서 히스테리성 질식을 겪는다)라 했으나, 독일어 원문은 「꿈속의 (나의) 이르마처럼」이다. 꿈에서 이르마가 목과 위와 배가 아파 몸이 조여든다고 호소한 것과 같은 증상을 이 친구가 실제로 지니고 있다는 뜻이어서 바로잡았다. — 옮긴이.

7. 아직 설명하지 않은 복통 호소도 이 셋째 인물에게 돌릴 수 있다. 물론 문제의 인물은 다름 아닌 내 아내다. 복통은 아내의 수줍음이 내게 드러났던 일 가운데 하나를 떠올리게 한다. 이 꿈에서 내가 이르마와 아내를 그리 정중하게 대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 자신도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변명하자면, 나는 두 사람을 용감하고 고분고분한 여성 환자라는 기준으로 재고 있다.

8. 이 대목의 해석은 숨은 의미를 모두 따라갈 만큼 멀리 나아가지 못한 것 같다. 세 여자를 계속 견주다 보면 너무 멀리 벗어나게 될 것이다. 모든 꿈에는 헤아릴 수 없는 지점이 적어도 하나 있다. 말하자면 꿈을 미지의 것과 이어 주는 중심점이다.

9. 게다가 「Ananas」는 내 환자 이르마의 성과 소리가 놀랍도록 닮았다.

10. 이 점에서 꿈은 예언이 되지 못했다. 그러나 다른 의미에서는 맞았다. 내가 책임지고 싶지 않았던 「해결되지 않은」 위통은 담석으로 인한 중병의 전조였기 때문이다.

11. 이해하겠지만, 해석 작업을 하며 떠오른 것을 내가 모두 밝힌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말이다.

제3장 꿈은 소원 성취다

좁은 협곡을 빠져나와 길이 갈라지고 사방으로 시야가 탁 트이는 높은 곳에 올라서면, 잠시 걸음을 멈추고 이제 어느 쪽으로 향할지 궁리해 보아도 좋다. 이 첫 꿈 해석을 해낸 지금, 우리도 그와 비슷한 처지에 있다. 우리는 갑자기 찾아온 인식의 환한 빛 속에 서 있다. 꿈은 연주자의 손길 대신 바깥의 어떤 힘에 얻어맞은 악기가 내는 불규칙한 소리에 견줄 것이 아니다. 꿈은 무의미하지도, 부조리하지도 않으며, 우리 표상의 저장고 가운데 한 부분은 잠들어 있고 다른 부분은 깨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지도 않는다. 꿈은 온전한 가치를 지닌 심리적 현상이며, 그것도 소원 성취다. 깨어 있을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심리적 행위들의 연쇄 속에 제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우 복잡한 지적 활동이 쌓아 올린 것이다. 그러나 이 발견을 기뻐하려는 바로 그 순간, 한 무리의 물음이 우리에게 밀려든다. 해석이 보여 주듯 꿈이 이루어진 소원을 나타낸다면, 이 성취가 그토록 기이하고 낯선 방식으로 표현되는 까닭은 무엇인가? 꿈 사고는 우리가 깨어나서 기억하는 외현적 꿈으로 바뀌기 전에 어떤 변화를 겪었는가? 이 변환은 어떤 식으로 일어났는가? 꿈으로 가공된 재료는 어디서 오는가? 꿈 사고에서 관찰되는 특이한 점들, 이를테면 꿈 사고가 서로 모순될 수 있다는 점은 어디서 비롯하는가? (주전자 비유, 2장) 꿈은 우리 내면의 심리 과정에 대해 무언가 새로운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가? 꿈 내용은 우리가 낮 동안 품었던 견해를 바로잡을 수 있는가? 나는 이 물음들을

당분간 모두 제쳐 두고 길 하나만 따라가자고 제안한다. 우리는 꿈이 소원을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낸다는 것을 알아냈다. 다음으로 우리가 관심을 기울일 일은, 이것이 꿈의 보편적인 특성인지, 아니면 우리가 분석을 시작한 그 꿈(「 이르마의 주사 」 꿈)이 우연히 지닌 내용일 뿐인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모든 꿈에 의미와 심리적 가치가 있다고 마음을 정하더라도, 그 의미가 꿈마다 같지는 않을 가능성은 여전히 열어 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살펴본 첫 꿈은 소원 성취였지만, 다른 꿈은 현실이 된 걱정으로 드러날지도 모르고, 셋째 꿈은 어떤 숙고를 내용으로 삼을지도 모르며, 넷째 꿈은 그저 어떤 회상을 재현할 뿐일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소원 꿈이 또 있는가? 아니면 혹시 소원 꿈밖에 없는 것은 아닐까?

꿈이 소원 성취라는 성격을 흔히 위장 없이, 알아보기 쉽게 드러낸다는 것은 어렵지 않게 보여 줄 수 있다. 그래서 꿈의 언어가 어째서 진작 이해되지 않았는지 의아할 정도다. 이를테면 내가 원할 때마다, 말하자면 실험하듯 불러일으킬 수 있는 꿈이 하나 있다. 저녁에 안초비나 올리브, 그 밖에 몹시 짠 음식을 먹으면 나는 밤중에 목이 말라 잠이 깬다. 그런데 깨어나기 전에 꼭 꿈을 꾸고, 그 내용은 매번 같다. 내가 물을 마시고 있는 꿈이다. 나는 물을 길게 들이켜는데, 목이 바싹 탔을 때 시원한 음료만이 줄 수 있는 그런 단맛이 나고, 그러고 나서 나는 깨어나 정말로 물이 마시고 싶어진다. 이 꿈의 계기는 갈증이며, 나는 깨어나서 그 갈증을 느낀다. 물을 마시고 싶다는 소원은 이 감각에서 생겨나고, 꿈은 이 소원을 이루어진 것으로 내게 보여 준다. 그렇게 해서 꿈은 어떤 기능을 하는데, 그 기능이 무엇인지 나는 곧 짐작한다. 나는 잠을 잘 자는 편이라, 몸의 욕구 때문에 잠이 깨는 일에는 익숙하지 않다. 물을 마시고 있다는 꿈으로 갈증을 달래는 데 성공하면, 갈증을 풀려고 깨어날 필요가 없다. 그러니 이것은 편의 꿈

(dream of convenience)이다. 삶의 다른 자리에서도 그렇듯, 꿈이 행동을 대신한다. 안타깝게도 갈증을 풀 물에 대한 욕구는 오토와 M. 박사에게 복수하려는 내 갈증처럼 꿈으로 채워지지는 않지만, 의도는 같다. 바로 이 꿈이 얼마 전에는 모양을 바꾸어 나타났다. 그때 나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목이 말라서, 침대 옆 작은 협탁에 놓인 물컵을 비웠다. 몇 시간 뒤 한밤중에 다시 갈증이 덮쳐 왔고 몸이 불편했다. 물을 마시려면 일어나서 아내의 머리맡 협탁에 놓인 컵을 가져와야 했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아주 알맞게도 아내가 항아리에 담긴 물을 내게 마시게 해 주는 꿈을 꾸었다. 이 항아리는 내가 이탈리아 여행에서 가지고 돌아왔다가 그 뒤 남에게 줘 버린 에트루리아의 유골 단지였다. 그런데 그 안의 물이 너무 짜서(아마 재 때문이었을 것이다) 나는 깨어날 수밖에 없었다. 꿈이 얼마나 편리하게 일을 꾸밀 줄 아는지 알 수 있다. 꿈의 유일한 목적은 소원 성취이므로 꿈은 철저하게 이기적일 수 있다. 편안함을 좋아하는 마음은 사실 남을 배려하는 마음과 잘 어울리지 않는다. 유골 단지가 끼어든 것도 아마 또 하나의 소원 성취일 것이다. 이 항아리가 이제 내 곁에 없다는 것이 나는 아쉽다. 아내 곁의 물컵과 마찬가지로 그것에도 내 손이 닿지 않는다. 유골 단지는 이제 한층 강해진 짠맛의 감각에도 들어맞는데, 나는 그 짠맛 때문에 결국 깨어나게 되리라는 것을 안다.[1]

이런 편의 꿈은 젊은 시절 내게 아주 잦았다. 늘 밤늦게까지 일하는 버릇이 들어 있었던 터라,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은 내게 언제나 고역이었다. 그 무렵 나는 이미 침대에서 나와 세면대 앞에 서 있는 꿈을 꾸곤 했다. 얼마가 지나도 나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할 수가 없었지만, 그사이에 한동안 잠을 잤다. 나는 젊은 동료 하나가 꾼 똑같은 게으름 꿈도 알고 있다. 이 동료도 나처럼 잠이 많은 모양이다. 그는 병원 근처에서 하숙하고 있었는데, 하숙집 주인은

아침마다 제시간에 그를 깨우라는 엄한 분부를 받아 두었다. 하지만 그 분부를 실행하려 할 때마다 주인은 여간 애를 먹는 게 아니었다. 어느 날 아침에는 잠이 유난히 달았다. 주인 여자가 방 안에 대고 외쳤다. 「조 씨, 일어나요. 병원에 가셔야 해요.」 그러자 잠자던 사람은 병원의 병실 하나와, 자기가 누워 있는 침대 하나와, 머리 위에 핀으로 꽂힌 차트 하나를 꿈에 보았다. 차트에는 「조 H.…… cand. med. 〔의학 후보생〕 22세」라고 적혀 있었다. 그는 꿈속에서 혼잣말을 했다. 「내가 이미 병원에 있으면 거기 갈 필요가 없지.」 그러고는 돌아누워 계속 잤다. 그러니까 자기가 꿈을 꾸는 동기를 스스로 솔직하게 인정한 셈이다.

다음은 잠자는 동안에 자극이 작용하는 또 다른 꿈이다. 내 여성 환자 가운데 한 사람은 턱 수술을 받았으나 결과가 좋지 않았고, 의사들의 지시에 따라 아픈 쪽 뺨에 냉각기를 대고 있어야 했다. 그런데 그녀는 잠이 들기만 하면 냉각기를 벗어 던지는 버릇이 있었다. 어느 날 나는 그 일로 좀 나무라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또 냉각기를 바닥에 내던졌던 것이다. 환자는 이렇게 자신을 변호했다. 「이번에는 정말 어쩔 수가 없었어요. 밤에 꾼 꿈 때문이었거든요. 꿈에서 저는 오페라 극장의 칸막이 좌석에 앉아 공연을 아주 재미있게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카를 마이어 씨는 요양원에 누워서 턱 통증 때문에 애처롭게 앓는 소리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속으로 말했지요. 『나는 통증이 없으니 냉각기도 필요 없어.』 그래서 그걸 내던진 거예요.」 이 가엾은 환자의 꿈은, 우리가 불쾌한 처지에 놓였을 때 절로 입에 오르는 말 「난 그보다 훨씬 재미있는 걸 알아」에 담긴 생각과 비슷하다. 꿈은 바로 이 훨씬 재미있는 것을 보여 준다. 꿈꾼 사람이 자기 통증을 떠넘긴 카를 마이어 씨는, 그녀가 아는 청년 가운데 떠올릴 수 있는 가장 대수롭지 않은 사람이었다.

건강한 사람들에게서 모은 꿈 몇 가지에서도 소원 성취를 찾아내기는 어렵지 않다. 내 꿈 이론을 알고 그것을 아내에게도 전해 준 한 친구가 어느 날 내게 말했다. 「아내가 자네한테 전해 달라더군. 어제 월경하는 꿈을 꾸었다고 말일세. 그게 무슨 뜻인지는 자네가 알 테지.」 물론 나는 안다. 젊은 아내가 월경하는 꿈을 꾼다면 월경이 멎은 것이다. 어머니 노릇의 고생이 시작되기 전에 그녀가 좀 더 오래 자유를 누리고 싶었으리라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첫 임신을 알리는 재치 있는 방법이었다. 또 다른 친구는 편지로, 자기 아내가 얼마 전 블라우스 가슴께에 젖 얼룩이 묻은 것을 알아차리는 꿈을 꾸었다고 알려 왔다. 이것 역시 임신을 알리는 표시지만 이번에는 첫 임신이 아니며, 젊은 어머니는 둘째 아이에게는 첫아이 때보다 먹일 것이 더 넉넉하기를 바라고 있다.

어떤 젊은 부인은 전염병을 앓는 아이를 간호하느라 몇 주 동안 사교와 담을 쌓고 지냈는데, 병이 무사히 끝나자 한 사교 모임의 꿈을 꾼다. 그 자리에는 A. 도데, 부르제, M. 프레보를 비롯한 여러 사람이 있고, 모두 그녀에게 몹시 상냥하고 더없이 즐겁게 해 준다. 꿈에 나온 작가들은 저마다 초상에서 본 그대로의 얼굴을 하고 있다. 그녀가 초상을 본 적이 없는 M. 프레보는 생김새가 — 전날 병실을 소독하고, 오랜만에 처음으로 그 방에 들어선 방문객이 되었던 소독부 같다. 아무래도 이 꿈은 이렇게 고스란히 번역할 수 있을 것 같다. 「이제 이 끝없는 간병보다는 좀 더 즐거운 일이 있을 때도 됐어.」

이만큼 골라 놓은 예로도, 오직 소원 성취로만 이해할 수 있고 제 내용을 숨김없이 드러내는 꿈이 자주, 그것도 더없이 복잡한 조건 아래서도 발견된다는 것을 증명하기에 충분할 것이다. 이런 꿈은 대개 짧고 단순해서, 저자들의 주의를 주로 끌어 온 어지럽고 빽빽한 꿈 구성물과 기분 좋은 대조를 이룬다. 그렇더라도 이 단순한 꿈에 얼마간

시간을 들일 보람은 있다. 가장 단순한 꿈은 아마 아이들에게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아이들의 심리 활동은 분명히 어른보다 덜 복잡하기 때문이다. 내 생각에 아동 심리학은, 하등 동물의 해부와 발달을 연구하는 일이 가장 고등한 동물의 구조를 탐구하는 데 해 주는 것과 비슷한 구실을 하도록 불려 나와야 한다. 지금까지 이런 목적으로 아동 심리학을 활용하려는 의식적인 노력은 몇 번 되지 않았다.

어린아이의 꿈은 단순한 소원 성취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른의 꿈에 견주면 조금도 흥미롭지 않다. 풀어야 할 문제는 하나도 내놓지 않지만, 꿈이 그 본질에서 소원 성취를 뜻한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자료로서는 물론 더할 나위 없이 귀중하다. 나는 내 아이들이 제공한 재료에서 이런 꿈의 예를 몇 가지 모을 수 있었다.

두 꿈은 1896년 여름 아름다운 할슈타트로 간 소풍 덕분에 얻었다. 하나는 당시 여덟 살 반이던 내 딸의 꿈이고, 다른 하나는 다섯 살 석 달 된 사내아이의 꿈이다. 먼저 예비 설명을 해 두어야겠다. 그해 여름 우리는 아우스제 근처의 언덕 위에서 지냈는데, 날씨가 좋으면 집 지붕에서 다흐슈타인의 멋진 경치를 즐길 수 있었다. 망원경으로 보면 지모니 산장도 쉽게 알아볼 수 있었다. 아이들은 망원경으로 산장을 보려고 자주 애썼지만, 성공했는지는 모르겠다. 소풍을 가기 전에 나는 아이들에게 할슈타트가 다흐슈타인 기슭에 있다고 말해 두었다. 아이들은 그날을 손꼽아 기다렸다. 할슈타트에서 우리는 에헤른 계곡으로 들어갔는데, 시시각각 모습을 바꾸는 풍경에 아이들은 무척 즐거워했다. 그런데 그중 하나인 다섯 살배기 사내아이는 점점 시무룩해졌다. 산이 눈에 들어올 때마다 아이는 「저게 다흐슈타인이야?」 하고 물었고, 그러면 나는 「아니, 그냥 앞산이야」 하고 대답해야 했다. 이 물음이 몇 번 되풀이되자 아이는 아예 입을 다물어 버렸고, 폭포로 올라가는 계단에는 도무지 따라오려 하지

않았다. 나는 아이가 지쳤으려니 했다. 그런데 이튿날 아침 아이는 기쁨으로 얼굴을 빛내며 내게 와서 말했다. 「나 어젯밤에 꿈꿨는데, 우리가 지모니 산장에 있었어.」 그제야 나는 아이를 이해했다. 내가 다흐슈타인 이야기를 했으니, 아이는 할슈타트로 소풍을 가면 그 산에 올라가서, 망원경 앞에서 그토록 말이 많았던 산장을 눈앞에서 보게 되리라고 기대했던 것이다. 그런데 앞산과 폭포나 대접받고 말 처지라는 것을 알게 되자, 실망해서 시무룩해졌다. 꿈이 그 보상을 해 주었다. 나는 꿈의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려 했지만 건진 것은 별로 없었다. 「계단을 여섯 시간 올라가야 해」라는 것이었는데, 아이가 전에 들은 그대로였다.

이 소풍에서 여덟 살 반 된 딸아이의 마음에도, 꿈에서나 채워질 운명인 소원이 생겨났다. 우리는 이웃집의 열두 살 난 아들을 할슈타트에 데려갔다. 그 소년은 벌써 어엿한 신사였는데, 내가 보기에는 이미 이 꼬마 숙녀의 호감을 한 몸에 받고 있었던 것 같다. 그리하여 이튿날 아침 딸아이는 이런 꿈 이야기를 했다. 「있잖아, 꿈에서 에밀이 우리 식구였어. 에밀이 아빠랑 엄마를 아빠, 엄마라고 불렀고, 우리 집 남자애들처럼 큰 방에서 잤어. 그러다가 엄마가 방에 들어와서 막대 초콜릿을 한 움큼 가득 우리 침대 밑에 던졌어.」 꿈 해석의 재주는 물려받지 못한 것이 분명한 딸아이의 사내 형제들은 저자들과 똑같이 단언했다. 「그 꿈은 말도 안 돼.」 딸아이는 적어도 꿈의 한 부분만은 변호했는데, 그것이 어느 부분이었는지는 신경증 이론의 관점에서 알아 둘 만하다. 「에밀이 우리 식구라는 건 말도 안 되지만, 초콜릿 얘기는 말이 돼.」 그런데 내게는 바로 이 뒷부분이 알 수 없는 대목이었다. 이것은 엄마가 설명해 주었다. 기차역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이들은 자동판매기 앞에 멈춰 서서, 금속처럼 번쩍이는 종이에 싼 바로 그런 막대 초콜릿을 갖고 싶어 했다. 아이들이 겪어 봐서

알기로 그 기계에서 파는 물건이었다. 그러나 어머니는 그날 소원 성취는 이만하면 충분하다고 옳게 판단하고, 이 소원은 꿈에서 채우도록 남겨 두었다. 이 작은 장면을 나는 보지 못했다. 딸아이가 퇴짜 놓은 꿈의 그 부분은 나도 곧바로 이해했다. 그 얌전한 손님이 아이들에게 아빠나 엄마가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이르는 것을 나도 직접 들었던 것이다. 어린 딸을 위해 꿈은, 소년이 우리와 잠시 맺은 이 관계를 바탕으로 영구적인 입양을 이루어 냈다. 그 여린 마음은 함께 지내는 방식으로는 꿈에 나온 것, 곧 제 형제들에게서 가져온 방식 말고는 아직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막대 초콜릿을 왜 침대 밑에 던졌는지는 물론 아이에게 물어보지 않고서는 설명할 수 없었다.

한 친구에게서 내 아들의 꿈과 아주 비슷한 꿈 이야기를 들었다. 여덟 살 난 여자아이의 꿈이었다. 아버지가 아이들을 데리고 도른바흐로 산책을 나섰다. 로러 산장에 들를 생각이었지만 날이 너무 저물어 발길을 돌렸고, 이 실망은 다음에 꼭 메워 주겠다고 아이들에게 약속했다. 돌아오는 길에 일행은 아모로 가는 길을 가리키는 표지판을 지났다. 아이들은 이번에는 그곳에도 데려가 달라고 졸랐지만, 같은 이유로 다른 날로 미루는 것에 만족해야 했다. 이튿날 아침 여덟 살 난 딸이 흡족한 얼굴로 아버지에게 와서 말했다. 「아빠, 어젯밤 꿈에 아빠가 우리랑 같이 로러 산장에도 가고 아모에도 올라갔어.」 아이의 조바심이 이렇게 꿈속에서, 아버지가 한 약속이 지켜지는 것을 앞당겨 놓은 것이다.

아우스제의 그림 같은 아름다움이 당시 세 살 석 달이던 딸에게 불러일으킨 또 다른 꿈도 그에 못지않게 단순명쾌하다. 아이는 처음으로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넜는데, 아이에게는 그 뱃길이 너무 빨리 끝나 버렸다. 선착장에 닿자 아이는 배에서 내리지 않으려 하며 서럽게 울었다. 이튿날 아침 아이가 우리에게 말했다. 「어젯밤에 나 호수에서

배 탔어.」 이번 꿈속 뱃놀이의 길이는 아이에게 좀 더 흡족했기를 바라자.

당시 여덟 살이던 맏아들은 벌써 자기 공상이 실현되는 꿈을 꾸고 있었다. 아이는 아킬레우스와 함께 전차를 타고 달렸고, 디오메데스가 그 전차를 몰았다. 물론 아이는 그 전날, 누나가 선물로 받은 『그리스 신화』에 큰 관심을 보였다.

아이들의 잠꼬대도 꿈의 범주에 든다는 것을 인정해 준다면, 내가 모은 꿈 가운데 가장 최근 것의 하나로 다음 꿈을 보고할 수 있겠다. 당시 생후 열아홉 달이던 막내딸이 어느 날 아침 토하는 바람에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이렇게 굶주린 하루가 지나고 맞은 밤, 아이가 잠결에 흥분해서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안나 프(로)이트, 딸기, 산딸기, 오믈렛, 죽!」[2] 아이가 자기 이름을 이런 식으로 쓴 것은 소유의 관념을 나타내기 위해서였다. 이 차림표에는 아이가 보기에 먹음직스러운 음식이 거의 다 들어 있었을 것이다. 딸기류가 두 번이나 나온 것은 집안의 위생 규칙에 맞선 시위였고, 보모가 아이의 탈을 딸기를 너무 많이 먹은 탓으로 돌렸다는 사정, 아이가 결코 흘려듣지 않았던 그 사정에 근거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아이는 꿈속에서 이 못마땅한 의견에 앙갚음을 했다.[3]

어린 시절이 아직 성욕을 모르기에 행복하다고 부른다면, 삶의 커다란 충동 가운데 다른 하나가 어린 시절에 얼마나 풍부한 실망과 체념의 원천이, 따라서 꿈 자극의 원천이 될 수 있는지를 잊어서는 안 된다.[4] 이것을 보여 주는 두 번째 예가 있다. 생후 스물두 달 된 내 조카가 내 생일을 축하하며 선물로 작은 체리 바구니를 건네는 일을 맡았다. 그 무렵 체리는 아직 제철이 아니었다. 아이에게는 이 일이 어려웠던 모양이다. 「체리 들었어」 하고 몇 번이고 되풀이하면서, 아무리 달래도 바구니를 손에서 놓으려 하지 않았으니 말이다. 그러나 아이는

보상을 챙길 줄 알았다. 그때까지 아이는 아침마다 엄마에게 「흰 병사」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버릇이 있었다. 흰 병사란 흰 망토를 두른 근위대 장교로, 아이가 언젠가 거리에서 넋을 잃고 바라본 사람이었다. 생일 다음 날 아이는 기뻐하며 잠에서 깨어, 꿈에서가 아니면 나올 수 없었을 소식을 알렸다. 「헤(르)만이 체리 다 먹었어!」[5]

동물이 무슨 꿈을 꾸는지 나는 모른다. 그런데 독자 한 사람에게서 얻어들은 속담 하나는 그것을 안다고 주장한다. 「거위는 무슨 꿈을 꾸나?」 하고 묻고는 「옥수수 꿈!」 하고 답하기 때문이다. 꿈이 소원 성취라는 이론 전체가 이 두 문장에 담겨 있다.[6]

이제 우리는, 일상 언어의 쓰임을 살펴보기만 했더라도 꿈의 숨은 의미에 관한 우리 이론에 가장 빠른 길로 다다랐으리라는 것을 깨닫는다. 물론 속담의 지혜는 때로 꿈을 꽤나 업신여기는 투로 말한다. 「꿈은 한낱 물거품」이라는 의견을 내세워 학문의 손을 들어 주려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일상 언어에서 꿈은 여전히 소원을 너그러이 이루어 주는 존재다. 「아무리 허황한 꿈에서라도 이런 건 상상도 못 했을 거야!」 현실이 기대를 넘어선 것을 본 사람은 이렇게 외친다.

---

1. 갈증 꿈에 관한 사실은 바이간트[75]도 알고 있었다. 그는 이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11쪽). 「무엇보다 가장 정확하게 기록되는 것은 바로 갈증의 감각이다. 이 감각은 언제나 갈증 해소의 표상을 불러일으킨다. 꿈이 갈증 해소 행위를 그려 내는 방식은 여러 가지이며, 특히 최근의 회상에 따라 형성되기 쉽다. 여기서도 보편적인 현상이 하나 있는데, 갈증이 풀렸다는 생각이 들자마자 곧바로, 마셨다고 여긴 음료의 효험이 보잘것없다는 실망이 찾아온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자극에 대한 꿈의 반응이 보편적이라는 사실을 간과한다. 밤에 갈증에 시달리는 다른 사람들이 미리 꿈을 꾸지 않고 깨어난다고 해도, 그것은 내 실험에 대한 반론이 되지 못한다. 오히려 그 사람들이 잠을 설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 줄 뿐이다.

2. 영역본은 이 이름을 「Anna Feud」로 적어, 아이가 제 성 Freud(프로이트)에서 r 소리를 빼고 말했음을 보였다. 이 번역은 아이가 빠뜨린 소리를 괄호에 넣었다. — 옮긴이.

3. 그 뒤 꿈은 손녀에게 해 준 것과 똑같은 일을, 아이보다 일흔 살쯤 많은 할머니에게도 해 주었다. 할머니는 유주신(遊走腎)이 말썽을 부리는 바람에 며칠 동안 굶어야 했는데, 그러자 꽃다운 처녀 시절의 행복한 때로 옮겨 간 듯, 자기가 「초청을 받아」 중요한 두 끼 식사에 모두 손님으로 불려 가서 매번 더없이 맛있는 음식을 대접받는 꿈을 꾸었다.

4. 물론 아이의 정신생활을 더 깊이 파고들어 보면, 너무 오래 간과되어 온 유년기 형태의 성적 추진력이 아이의 심리 활동에서 꽤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렇다면 어른들이 나중에 상상하는 아이의 행복이라는 것도 얼마간 의심스러워진다. 저자의 『성 이론에 관한 세 편의 에세이』(A. A. 브릴 옮김, 『신경정신질환 저널』 출판사)를 참조하라.

5. 아이들도 때로는 복잡하고 더 모호한 꿈을 꾸며, 반대로 어른들도 어떤 조건에서는 흔히 유년기의 성격을 띤 꿈을 꾼다는 점도 짚어 두어야 한다. 네다섯 살 아이들의 꿈에 생각지도 못한 재료가 얼마나 풍부하게 담겨 있을 수 있는지는 나의 「Analyse der Phobie eines fünfjährigen Knaben」〔다섯 살 소년의 공포증 분석〕(『연보』, 블로일러·프로이트 엮음, 1909)과 융의 「Ueber Konflikte der kindlichen Seele」〔아동 정신의 갈등에 대하여〕(같은 곳, 제2권, 1910)에 실린 예들이 보여 준다. 한편 유년기 유형의 꿈은 어른이 낯선 생활 조건으로 옮겨지면 특히 자주 다시 나타나는 것 같다. 그래서 오토 노르덴셸드는 자신의 책 『남극』(1904)에서 함께 겨울을 난 대원들에 대해 이렇게 쓴다. 「우리의 가장 깊은 생각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무엇보다 잘 보여 준 것은 우리의 꿈이었다. 꿈이 지금처럼 생생하고 많았던 적은 없었다. 예전에는 꿈을 꾸는 일이 드물던 동료들까지도, 아침에 공상의 세계에서 겪은 일을 서로 주고받을 때면 늘어놓을 긴 이야기가 있었다. 꿈은 모두 이제는 그토록 멀어진 저 바깥 세계에 관한 것이었지만, 흔히 우리가 지금 처한 형편에 들어맞았다. 특히 특징적인 꿈은 동료 하나가 학교 걸상에 다시 앉아 있다고 믿은 꿈이었는데, 거기서 그는 수업용으로 특별히 만든 조그만 바다표범의 가죽을 벗기라는 과제를 받았다. 우리 꿈은 대부분 먹고 마시는 일을 중심으로 모여 있었다. 밤마다 성대한 만찬에 가기를 즐기던 한 동료는 아침에 『세 코스로 된 정찬을 먹었다』고 보고할 수 있으면 더없이 기뻐했다. 또 어떤 이는 담배 꿈을 꾸었다 — 산더미 같은 담배 꿈을. 또 다른 이는 돛을 활짝 펴고 넓은 바다를 건너 다가오는 배를 꿈꾸었다. 한 가지 꿈은 더 이야기해 둘 만하다. 우편배달부가 우편물을 가져와서는, 왜 그렇게 오래 기다려야 했는지를 길게 설명했다. 엉뚱한 곳에 배달했다가 무진 애를 쓴 끝에야 도로 찾아올 수 있었다는 것이다. 물론 우리는 잠결에 이보다 더 있을 수 없는 일들에도

골몰했지만, 내가 직접 꾸었거나 남에게서 들은 꿈 거의 모두에 상상력이 없다는 점은 무척 눈에 띄었다. 그 꿈들을 모두 적어 둘 수 있었다면 틀림없이 심리학적으로 큰 흥밋거리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잠을 그리워했는지는 쉽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 우리 모두가 가장 간절히 바라던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잠뿐이었다.」

6. 페렌치[87]가 소개한 헝가리 속담은 더 분명하게 「돼지는 도토리 꿈을 꾸고, 거위는 옥수수 꿈을 꾼다」고 말한다.

제4장 꿈의 왜곡

모든 꿈의 뜻은 소원 성취이고 따라서 소원 꿈 말고는 어떤 꿈도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면, 나는 틀림없이 처음부터 더없이 단호한 반박에 부딪힐 것이다. 반론은 이런 취지일 것이다. 「소원 성취로 이해해야 하는 꿈이 있다는 사실은 새로운 것이 아니며, 오히려 저자들이 오래전부터 인정해 왔다. 라데슈토크[54](137~138쪽), 폴켈트[72](110~111쪽), 티시에[68](70쪽), 옥에 갇힌 트렝크 남작의 배고픔 꿈을 다룬 M. 시몽[63](42쪽), 그리고 그리징어[31]의 한 대목(11쪽)을 참조하라. 그러나 소원 성취의 꿈 말고는 아무것도 있을 수 없다는 가정은, 요즘 당신이 즐겨 내세워 스스로를 돋보이게 해 온 부당한 일반화가 또 하나 늘어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더없이 고통스러운 내용을 보여 주면서도 소원 성취의 흔적은 조금도 없는 꿈이 실로 얼마든지 있다. 소원 성취 이론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은 아마 염세주의 철학자 에두아르트 폰 하르트만일 것이다. 그는 『무의식의 철학』 제2부(연판본, 34쪽)에서 대략 다음과 같이 말한다.」

「『꿈으로 말하자면, 꿈은 깨어 있는 삶의 온갖 괴로움을 잠든 상태로 옮겨 놓는다. 다만 교양 있는 사람을 어느 정도나마 삶과 화해시킬 수 있는 단 한 가지, 곧 학문과 예술의 향유만은 옮겨 놓지 않는다…….』 그러나 그보다 세상에 불만이 덜한 관찰자들도 꿈속에서는 쾌감보다 고통과 혐오가 더 잦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숄츠[59](39쪽), 폴켈트[72](80쪽) 등이 그렇다. 심지어 세라 위드와 플로렌스 핼럼[33]이라는 두

여성은 자기들이 꾼 꿈을 정리해서, 꿈속에서는 불쾌가 우세하다는 사실을 수학적으로 표현해 내기까지 했다. 두 사람은 꿈의 58퍼센트를 불쾌한 꿈으로, 겨우 28.6퍼센트만을 확실히 유쾌한 꿈으로 분류한다. 삶의 고통스러운 감각을 잠자는 동안에도 이어 가는 꿈 말고도 불안 꿈이 있는데, 불안 꿈에서는 모든 불쾌한 감각 가운데 가장 끔찍한 감각인 불안이 우리가 깨어날 때까지 우리를 괴롭힌다. 아이들이 그토록 자주 시달리는 것도 바로 이 불안 꿈이다(야경증(Pavor Nocturnus)에 관해서는 드바케르[17] 참조). 당신이 위장되지 않은 소원의 꿈을 찾아낸 것이 바로 아이들에게서였는데도 말이다.」

사실 우리가 3장에서 예를 들어 세운 명제, 곧 꿈은 소원 성취라는 명제를 일반화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듯 보이는 것은 바로 불안 꿈이다. 불안 꿈은 이 명제에 부조리라는 낙인을 찍기까지 하는 것 같다.

그러나 결정적인 듯 보이는 이 반론들을 피해 가기는 어렵지 않다. 우리의 학설은 외현적 꿈 내용(manifest dream content)을 받아들이는 데 근거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해석을 거쳐 꿈 뒤에 놓여 있다고 밝혀지는 사고 내용을 가리킨다는 점에 유의해 주기 바란다. 외현적 꿈 내용과 잠재적 꿈 내용(latent dream content)을 맞세워 보자. 내용이 더없이 고통스러운 꿈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꿈을 해석하려고, 그 잠재 내용을 드러내려고 시도해 본 사람이 일찍이 있었던가? 없었다면 두 반론은 더 이상 우리에게 들어맞지 않는다. 고통스러운 꿈과 불안 꿈도 해석해 보면 소원 성취로 밝혀질 가능성은 언제나 남아 있다.[1]

학문 연구에서는 한 문제를 푸는 데 어려움이 있을 때 두 번째 문제를 함께 붙드는 편이 유리한 경우가 많다. 호두 두 알을 따로따로 깨기보다 한꺼번에 깨는 편이 쉬운 것과 같다. 그러니 우리 앞에 놓인 문제는 고통스러운 꿈과 불안 꿈이 어떻게 소원 성취일 수 있느냐는 것만이

아니다.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우리는 이런 물음도 던질 수 있다. 무덤덤한 내용을 보여 주면서도 소원 성취로 밝혀지는 꿈은 왜 그 뜻을 위장 없이 드러내지 않는가? 상세히 보고한 이르마의 주사 꿈을 보자. 이 꿈은 성격상 전혀 고통스럽지 않고, 해석해 보면 뚜렷한 소원 성취로 알아볼 수 있다. 그렇다면 애초에 왜 해석이 필요한가? 꿈은 왜 자기가 뜻하는 바를 곧바로 말하지 않는가? 사실 이르마의 주사 꿈조차 처음에는 꿈꾼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낸다는 인상을 주지 않는다. 독자도 그런 인상을 받지 못했을 것이고, 나 자신도 분석에 착수하기 전까지는 그것을 알지 못했다. 설명이 필요하다는 꿈의 이 특성을 꿈의 왜곡(distortion)이라는 사실이라고 부른다면, 두 번째 물음이 생긴다. 꿈의 이 왜곡은 어디서 비롯하는가?

이 문제에 대해 첫인상에 물어본다면 가능한 해답을 여럿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이를테면 잠든 동안에는 꿈 사고에 알맞은 표현을 찾아내지 못한다는 해답이 그렇다. 그러나 어떤 꿈들을 분석해 보면 꿈의 왜곡을 달리 설명할 수밖에 없다. 나는 나 자신의 두 번째 꿈을 들어 이것을 보여 주려 하는데, 이 꿈 역시 사사로운 일을 숱하게 털어놓게 만들지만 문제를 철저히 해명해 준다는 점에서 이런 개인적 희생을 보상해 준다.

예비 설명. — 1897년 봄, 나는 우리 대학의 교수 두 사람이 나를 원외 교수(조교수)로 임명하도록 추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뜻밖의 소식이었다. 사사로운 이해관계로는 설명할 수 없는, 두 저명한 인물이 나를 인정해 준다는 표시였으므로 나는 무척 기뻤다. 그러나 나는 곧바로 이 일에 어떤 기대도 걸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대학 당국은 지난 몇 해 동안 이런 추천을 번번이 묵살해 왔고, 나보다 나이가 많고 업적도 적어도 나만 한 동료 여럿이 그동안 임명을 헛되이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그들보다 나은 대접을 받으리라고 생각할 까닭이 없었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를 달래기로 마음먹었다. 내가 아는 한 나는 야심가가 아니며, 직함이라는 추천장이 없어도 만족스러운 성과를 거두며 진료하고 있다. 게다가 내가 포도를 달다고 여기느냐 시다고 여기느냐는 문제도 아니었다. 포도는 틀림없이 내게는 너무 높이 매달려 있었으니까.

어느 날 저녁 친구 하나가 나를 찾아왔다. 내가 그 처지를 보고 스스로 경계로 삼았던 동료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그는 우리 사회에서 의사를 환자들 사이의 반신(半 神)으로 끌어올려 주는 교수 자리를 바라고 오래전부터 승진 후보로 있었던 데다 나만큼 체념하지도 못한 사람이어서, 이따금 대학 당국의 사무실을 찾아가 자기 일을 진척시켜 달라고 청원하곤 했다. 그날도 그런 방문을 하고 오는 길이었다. 그는 이번에는 그 높으신 분을 궁지로 몰아넣고, 자기 임명이 미뤄지는 것이 사실은 종교적 고려 때문이 아니냐고 대놓고 물었다고 했다. 대답인즉 물론 — 현재의 여론 상황에서는 — 각하께서는 그럴 처지가 못 되신다 운운하는 것이었다. 「이제 적어도 내가 어떤 처지인지는 알겠군요.」 친구는 이렇게 말하며 이야기를 맺었다. 내게 새로울 것 없는 이야기였지만, 나를 체념 속에 더욱 굳게 붙들어 두기에는 알맞았다. 같은 종교적 고려가 내 경우에도 해당되었기 때문이다.

이 방문이 있은 다음 날 아침, 나는 다음과 같은 꿈을 꾸었다. 형식 때문에 주목할 만한 꿈이었다. 꿈은 생각 둘과 이미지 둘로 이루어져 있어서, 생각 하나와 이미지 하나가 번갈아 나왔다. 그러나 나머지 절반은 이 꿈을 인용해서 이루려는 목적과 아무 관계가 없으므로, 여기서는 꿈의 앞쪽 절반만 기록한다.

I. 친구 R.은 나의 삼촌이다 — 나는 그에게 큰 애정을 느낀다.

II. 나는 조금 달라진 그의 얼굴을 눈앞에 본다.

얼굴이 길쭉하게 늘어난 것 같고, 그 얼굴을 둘러싼 노란 수염이 유난히 또렷하게 강조되어 있다.

그다음에는 나머지 두 부분, 곧 또다시 생각 하나와 이미지 하나가 이어지지만, 이것은 생략한다.

이 꿈의 해석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오전 중에 이 꿈이 생각났을 때 나는 소리 내어 웃으며 말했다. 「이 꿈은 무의미해.」 그러나 꿈은 머리에서 떠나지 않고 하루 종일 나를 따라다녔으며, 마침내 저녁이 되자 나는 이런 말로 나 자신을 나무랐다. 「네 환자 가운데 누가 꿈을 해석하다가 『그건 무의미해요』라는 말밖에 할 말이 없다면, 너는 그를 꾸짖을 테고, 그가 드러내지 않으려는 무언가 불쾌한 일이 꿈 뒤에 숨어 있다고 의심하겠지. 너 자신에게도 똑같이 적용해 봐. 꿈이 무의미하다는 네 생각은 아마 꿈의 해석에 맞서는 내적 저항을 뜻할 뿐일 거야. 물러서지 마.」 그러고 나서 나는 해석에 착수했다.

「R.은 나의 삼촌이다.」 이게 무슨 뜻인가? 내게 삼촌은 단 한 분, 요제프 삼촌뿐이었다.[2] 삼촌의 사연은 사실 슬픈 것이었다. 삼촌은 서른 해도 더 전에, 법이 엄하게 처벌하는 거래에 손대고 싶은 유혹에 넘어갔고, 그때에도 역시 처벌을 받았다. 그 일로 며칠 사이에 슬픔으로 머리가 하얗게 센 아버지는, 요제프 삼촌이 결코 악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참으로 얼간이였다고 늘 말하곤 했다. 아버지는 그렇게 표현했다. 그렇다면 친구 R.이 나의 요제프 삼촌이라는 것은 「R.은 얼간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도무지 믿기지 않고, 몹시 불쾌한 일이다! 그러나 꿈에서 본 그 얼굴이 있지 않은가. 길쭉한 생김새에 노란 수염을 한 그 얼굴 말이다. 삼촌은 실제로 그런 얼굴이었다. 길쭉하고, 멋진 금빛 수염에 둘러싸인 얼굴이었다. 내 친구 R.은 머리칼이 새까맸다. 그런데 머리칼이 검은 사람들은 세기 시작하면 젊은 날의

영광에 대한 값을 치른다. 검은 수염이 한 올 한 올 보기 싫게 빛깔이 바뀌어, 처음에는 불그스름한 갈색이 되고, 다음에는 누르스름한 갈색이 되었다가, 마침내 확연한 회색이 되는 것이다. 내 친구 R.의 수염이 지금 이 단계에 있는데, 덧붙이자면 내 수염도 그렇고, 나는 이 사실을 서글프게 바라본다. 꿈에서 본 얼굴은 내 친구 R.의 얼굴이면서 동시에 삼촌의 얼굴이다. 그것은 골턴의 합성 사진과 같다. 골턴은 가족끼리 닮은 점을 강조하려고 여러 얼굴을 한 건판에 겹쳐 찍었다. 그러니 의심할 여지가 없다. 나는 정말로 내 친구 R.을 얼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 요제프 삼촌처럼.

내가 무엇 때문에 이런 관계를 지어냈는지는 아직 전혀 알 수 없다. 이것은 내가 무조건 반대할 수밖에 없는 관계다. 그러나 이 관계는 그리 멀리까지 미치지 않는다. 삼촌은 범죄자였지만 내 친구 R.은 결백하기 때문이다. 자전거로 견습공을 치어 넘어뜨렸다가 처벌받은 일을 빼면 말이다. 내가 이 잘못을 염두에 둔 것일까? 그렇다면 우스꽝스러운 비교가 될 것이다. 여기서 나는 다른 동료 N.과 나눈 또 다른 대화를 떠올린다. 그것도 바로 같은 주제에 관한 대화였다. 나는 길에서 N.을 만났다. 그 역시 교수 후보로 추천받은 사람인데, 내가 추천되는 영예를 입었다는 말을 듣고 축하해 주었다. 나는 단호히 사양하며 말했다. 「당신만은 이런 농담을 하시면 안 되지요. 추천이 얼마나 값어치가 있는지 당신이 몸소 겪어 보셨잖습니까.」 그러자 그는, 아마 진심은 아니었겠지만, 이렇게 말했다. 「그건 모르는 일이지요. 나한테는 아주 특별한 걸림돌이 있거든요. 전에 어떤 여자가 나를 고소한 일이 있었다는 걸 모르세요? 조사가 중지되었다는 건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되겠지요.[3] 비열한 공갈 시도였고, 나는 고소한 여자 본인이 처벌받지 않게 하느라 무진 애를 써야 했어요. 그런데 어쩌면 당국에서 나를 임명하지 않으려고 그 일을 들이대며 몰아붙일지도 모르지요. 하지만

당신은 흠잡을 데가 없잖아요.」 여기서 나는 범죄자 하나와 마주쳤고, 그와 동시에 꿈의 해석과 그 경향에도 이르렀다. 요제프 삼촌은 교수로 임명되지 못한 두 동료를 모두 나타낸다. 한 사람은 얼간이로, 다른 한 사람은 범죄자로. 이제 나는 무엇 때문에 이런 표현이 필요한지도 안다. 친구들의 임명이 미뤄지는 데 종교적 고려가 결정적인 요인이라면, 나의 임명도 의문에 부쳐진다. 그러나 두 친구가 거절당한 까닭을 나에게는 해당하지 않는 다른 원인으로 돌릴 수 있다면, 나의 희망은 흔들리지 않는다. 내 꿈은 이런 절차를 밟는다. 꿈은 한 사람, 곧 R.을 얼간이로, 다른 한 사람, 곧 N.을 범죄자로 만든다. 그런데 나는 얼간이도 범죄자도 아니므로 우리를 한데 묶던 이해의 공통성은 깨지고, 나는 교수로 임명되리라는 기대를 즐길 권리가 있으며, 그 고관이 R.에게 알려 준 사실을 나 자신에게 적용해야 하는 괴로운 일에서도 벗어난 것이다.

나는 이 꿈의 해석에 좀 더 매달려야 한다. 내 느낌으로는 아직 충분히 해명되지 않았다. 내가 교수직으로 가는 길을 트려고 존경받는 두 동료를 그토록 손쉽게 깎아내린다는 것이 여전히 마음에 걸린다. 물론 꿈속의 진술을 평가하는 법을 배운 뒤로는 내가 밟은 이 절차에 대한 불만도 줄어들었다. 내가 정말로 R.을 얼간이로 여기고 공갈 사건에 관한 N.의 이야기를 믿지 않는다고 누가 우긴다면, 나는 반박할 것이다. 이르마가 오토에게서 프로필 제제로 주사를 맞고 중병에 걸렸다고도 나는 믿지 않는다. 여기서도 앞의 꿈에서와 마찬가지로, 그것은 사정이 꿈이 표현하는 대로였으면 하는 소원일 뿐이다. 내 소원이 실현되는 진술은 첫 번째 꿈보다 두 번째 꿈에서 덜 부조리하게 들린다. 이번에는 사실을 연결점으로 삼는 솜씨가 더 능란해서, 말하자면 「뭔가 있긴 있는」 잘 짜인 중상모략과 비슷하다. 내 친구 R.은 당시 학부 교수 한 사람의 반대표를 받고 있었고, 내 친구 N.은 아무것도 모른 채 자기 입으로

나에게 중상의 재료를 건네주었으니 말이다. 그럼에도 거듭 말하지만, 이 꿈은 더 해명해야 할 것이 있는 듯하다.

이제 생각나는 것은, 이 꿈에 지금까지 우리의 해석이 고려하지 않은 부분이 하나 더 있다는 사실이다. 내 친구 R.이 나의 삼촌이라는 생각이 떠오른 뒤에, 나는 그에게 큰 애정을 느낀다. 이 감정은 누구의 것인가? 요제프 삼촌에게는 물론 나는 한 번도 애정의 감정을 품은 적이 없다. 내 친구 R.은 여러 해 전부터 내가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다. 그러나 내가 그를 찾아가 꿈속의 애정에 조금이라도 가까운 말로 그에 대한 내 감정을 표현한다면, 그는 틀림없이 놀랄 것이다. 그를 향한 나의 애정은 거짓되고 과장된 것으로 보인다. 그의 인격을 삼촌의 인격과 하나로 녹여 붙여서 내가 표현한, 그의 심리적 자질에 대한 나의 판단과 비슷하다. 다만 애정 쪽은 반대 방향으로 과장되어 있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사태가 분명해진다. 꿈속의 애정은 숨은 내용, 곧 꿈 뒤에 있는 사고에 속하지 않는다. 그것은 이 내용과 대립하며, 해석이 가져다줄 수 있는 정보를 감추는 데 알맞게 되어 있다. 아마 바로 이것이 그 목적일 것이다. 나는 내가 얼마나 저항하면서 해석 작업에 매달렸는지, 해석을 얼마나 오래 미루려 했는지, 그리고 이 꿈이 순전히 무의미하다고 단언했던 일을 떠올린다. 이런 단죄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나는 정신분석 치료를 하면서 알게 되었다. 그런 단죄는 무언가를 알려 주는 것으로서는 아무 가치가 없고, 오직 정동의 기록으로서만 가치가 있다. 내 어린 딸은 누가 권한 사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맛도 보지 않고 사과가 쓰다고 우긴다. 내 환자들이 이 어린 딸아이처럼 굴면, 나는 그들이 억제하고 싶어 하는 생각이 문제라는 것을 안다. 내 꿈에도 같은 이치가 적용된다. 나는 꿈을 해석하고 싶지 않다. 꿈에 내가 반대하는 무언가가 들어 있기 때문이다. 꿈의 해석을 다 끝낸 뒤에야 나는 내가 반대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알게 된다. 그것은 R.이 얼간이라는

주장이었다. 내가 R.에게 느끼는 애정은 숨은 꿈 사고가 아니라 오히려 나의 이 내키지 않는 마음에서 비롯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내 꿈이 숨은 내용과 비교해 이 지점에서 왜곡되어 있고, 게다가 정반대의 것으로 왜곡되어 있다면, 꿈에 드러난 애정은 왜곡에 이바지한다. 달리 말하면, 여기서 왜곡은 의도된 것임이 드러난다. 그것은 가장(假裝)의 수단이다. 나의 꿈 사고에는 R.에 대한 좋지 않은 언급이 들어 있다. 내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그 반대인 그를 향한 애정의 감정이 꿈속으로 밀고 들어오는 것이다.

여기서 알아낸 사실은 어쩌면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3장의 예들이 보여 주었듯이, 위장되지 않은 소원 성취인 꿈도 있다. 소원 성취가 알아볼 수 없게 감추어져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든 이 소원에 맞서는 반발심이 있을 것이 틀림없고, 이 반발 때문에 소원은 왜곡된 상태로밖에 표현되지 못한다. 내면의 정신생활에서 일어나는 이 일과 짝을 이루는 경우를 사회생활에서 찾아보겠다. 사회생활의 어디에서 심리적 행위의 이와 비슷한 왜곡을 볼 수 있을까? 두 사람이 관계되어 있는데, 한 사람은 어떤 권력을 쥐고 있고 다른 한 사람은 이 권력을 어느 정도 고려해야 하는 경우뿐이다. 그러면 이 두 번째 사람은 자신의 심리적 행위를 왜곡할 것이다. 달리 말해도 좋다면, 그는 가장할 것이다. 내가 날마다 지키는 예의도 대부분 이런 종류의 가장이다. 독자를 위해 내 꿈을 해석할 때에도 나는 이런 왜곡을 할 수밖에 없다. 시인도 이런 왜곡을 한탄한다.

「네가 아는 가장 좋은 것을 애송이들에게 말해서는 안 된다.」

정부에 불쾌한 진실을 말해야 하는 정치 저술가도 같은 처지에 놓인다. 그가 진실을 거리낌 없이 말하면 정부는 그것을 억누를 것이다. 말로 의견을 밝힌 경우에는 사후에, 인쇄해서 발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막는다. 저술가는 검열을 두려워해야 한다. 그래서 그는 자기 의견을

표현하는 말을 바꾸고 왜곡한다. 그는 이 검열이 얼마나 예민한가에 따라 특정한 공격 형식을 삼가거나, 대놓고 가리키는 대신 암시로 말할 수밖에 없게 된다. 아니면 거슬리는 발언을 해롭지 않아 보이는 옷으로 위장해야 한다. 이를테면 그는 자기 나라의 관리들을 염두에 두면서도 동양의 두 고관 사이에 일어난 일을 이야기할 수 있다. 검열의 지배가 엄격할수록 위장은 더 철저해지고, 독자를 진짜 뜻의 실마리로 되돌려 놓으려고 쓰는 수단은 흔히 더 익살스러워진다.

검열 현상과 꿈 왜곡 현상은 세부까지 추적할 수 있을 만큼 서로 대응하며, 이 대응은 둘 모두에 비슷한 조건을 가정해도 좋다는 근거가 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람마다 꿈 형성의 근본 원인으로서 두 가지 심리적 힘(흐름, 체계)이 있다고 가정해야 할 것이다. 그 가운데 하나는 꿈이 표현하는 소원을 형성하고, 다른 하나는 이 꿈 소원에 대해 검열관 노릇을 하면서 이 검열로써 소원의 표현에 왜곡을 강요한다. 남은 물음은 오직 하나, 이 둘째 심급[4]이 무엇에 근거한 권한으로 검열을 행사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5] 숨은 꿈 사고는 분석 전에는 의식되지 않지만 외현적 꿈 내용은 의식된 것으로 기억된다는 점을 떠올리면, 의식에 들어가도록 허락하는 일이 둘째 심급의 특권이라는 가정에 쉽게 이른다. 첫째 체계에서 나온 것은 무엇이든 먼저 둘째 심급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의식에 이르지 못한다. 그리고 둘째 심급은 자기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통과시키지 않으며, 의식에 들어가려는 후보에게 자기 마음에 드는 변경을 강요한다. 여기서 우리는 의식의 「본질」에 관해 매우 뚜렷한 견해를 세우고 있다. 우리가 보기에 의식된다는 것은 고정되거나 표상되는 것과는 다르고 그것과 무관한 하나의 특수한 심리적 행위이며, 의식은 다른 곳에서 주어진 내용을 지각하는 감각 기관으로 보인다. 정신병리학이 이런 기본 가정 없이는

결코 해 나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줄 수 있다. 이 가정들을 더 철저히 검토하는 일은 뒤로 미루어 두자.

두 심리적 심급과 그것들이 의식과 맺는 관계라는 생각을 염두에 두면, 꿈 해석 과정에서 그토록 깎아내려지는 내 친구 R.에게 내가 느끼는 유별난 애정과 아주 정확하게 들어맞는 비유를 정치 영역에서 찾을 수 있다. 자기 권리를 지키는 데 민감한 통치자와 살아 있는 여론이 서로 다투는 국가를 생각해 본다. 민중은 미워하는 관리에게 분개하여 그의 해임을 요구한다. 그러면 전제 군주는 민중의 소원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다른 때 같으면 내릴 까닭이 전혀 없었을 큰 영예를 보란 듯이 그 관리에게 내릴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의식으로 들어가는 길목을 지배하는, 앞서 말한 둘째 심급은, 첫째 체계의 소원 활동이, 마침 좇고 있는 특정한 이해관계에 따라 내 친구 R.을 얼간이로 깎아내리려 하기 때문에, 그에게 유별난 애정을 넘치도록 베풀어 그를 떠받드는 것이다.[6]

어쩌면 우리는 이제, 지금까지 철학에서 헛되이 기대해 온 우리 심리 장치의 구조에 관한 실마리를 꿈 해석이 줄 수 있으리라고 짐작하기 시작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이 길을 따라가지 않고, 꿈 왜곡의 문제를 해명하는 대로 원래의 문제로 돌아가겠다. 불쾌한 내용을 지닌 꿈이 어떻게 소원 성취로 분석될 수 있느냐는 물음이 제기되었다. 이제 우리는 꿈 왜곡이 일어난 경우, 곧 불쾌한 내용이 소원하는 것을 위장하는 구실만 하는 경우라면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안다. 두 심리적 심급에 관한 우리의 가정을 염두에 두고,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불쾌한 꿈은 실제로 둘째 심급에는 불쾌하지만 동시에 첫째 심급의 소원을 이루어 주는 무언가를 담고 있다. 불쾌한 꿈이 소원 꿈이라는 것은, 모든 꿈은 첫째 심급에서 비롯하고 둘째 심급은 꿈에 대해 창조하는 쪽이 아니라 오로지 물리치는 쪽으로만 작용한다는

의미에서다. 둘째 심급이 꿈에 보태는 것만을 고찰하는 데 그친다면, 우리는 결코 꿈을 이해할 수 없다. 그렇게 하면 저자들이 꿈에서 발견한 수수께끼는 모두 풀리지 않은 채 남는다.

꿈에 실제로 비밀스러운 뜻이 있고 그 뜻이 소원 성취로 밝혀진다는 것은, 사례마다 분석으로 새로 증명해야 한다. 그래서 나는 고통스러운 내용을 지닌 꿈 몇 가지를 골라 분석해 보려 한다. 그 가운데 일부는 히스테리 환자의 꿈이어서 긴 예비 설명이 필요하고, 이따금 히스테리에서 일어나는 심리 과정을 검토해야 할 때도 있다. 그러나 서술이 이렇게 한층 더 어려워지는 것은 피할 수 없다.

정신신경증 환자를 분석 치료할 때면, 앞서 말했듯이 꿈은 언제나 우리 사이에 오가는 이야기의 주제가 된다. 그러므로 나는 환자의 증상을 나 스스로 이해하게 해 준 심리학적 설명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환자에게 들려주어야 하는데, 여기서 나는 가차 없는 비판을 받는다. 그 날카로움은 아마 동료들에게서 각오해야 할 비판에 못지않을 것이다. 모든 꿈이 소원 성취라는 명제에 대한 반박은 내 환자들에게서 한 번도 빠짐없이 나온다. 이 명제를 반박하려고 환자들이 내게 내놓은 꿈 재료의 예를 몇 가지 들어 보겠다.

「선생님은 늘 꿈이 이루어진 소원이라고 하시죠.」 영리한 여성 환자 하나가 이렇게 말을 꺼낸다. 「그럼 내용이 정반대인 꿈, 제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꿈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걸 선생님 이론과 어떻게 맞추실 건가요? 꿈은 이래요.」

「저는 저녁 식사를 대접하고 싶은데, 집에 있는 것이라곤 훈제 연어 조금뿐이라 장을 보러 갈까 생각해요. 그런데 일요일 오후라서 가게가 모두 문을 닫았다는 게 떠올라요. 그다음에는 음식을 대 주는 집 몇 군데에 전화를 걸어 보려고 하지만 전화가 고장이에요. 그래서 저녁 식사를 대접하려던 소원을 접을 수밖에 없어요.」

나는 물론 이 꿈의 뜻은 분석만이 가려낼 수 있다고 대답한다. 얼핏 보기에는 이 꿈이 조리 있고 앞뒤가 맞아서 소원 성취와는 정반대처럼 보인다는 것을 인정하기는 하지만 말이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어서 이런 꿈을 꾸셨을까요?」 하고 나는 묻는다. 「아시다시피 꿈의 자극은 언제나 전날 겪은 일 가운데 있거든요.」

분석. — 환자의 남편은 정직하고 성실한 정육 도매상인데, 전날 아내에게 자기가 너무 살이 찌고 있으니 비만 치료를 시작해야겠다고 말했다. 일찍 일어나 운동을 하고 엄격한 식이 요법을 지키며, 무엇보다 저녁 식사 초대에는 더는 응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환자는 웃으며 이야기를 이어 간다. 남편이 어느 여관 식탁에서 한 화가와 알게 되었는데, 그 화가는 이렇게 표정이 풍부한 두상은 처음 본다며 남편의 초상화를 꼭 그리겠다고 우겼다. 그러나 남편은 특유의 거친 말투로, 영광이기는 하지만 자기 얼굴 전체보다는 예쁜 아가씨의 엉덩이 한쪽이 화가 마음에 훨씬 더 들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고 대답했다.[7] 환자는 그 무렵 남편을 무척 사랑했고 남편을 곧잘 놀려 댔다고 했다. 또 남편에게 캐비아를 보내지 말라고 부탁하기도 했단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

사실 환자는 오래전부터 오전마다 캐비아 샌드위치를 먹고 싶었지만 자기에게 그 돈을 쓰기가 아까웠다. 물론 남편에게 부탁하기만 하면 캐비아는 당장 생길 터였다. 그런데 환자는 거꾸로 캐비아를 보내지 말라고 남편에게 사정했다. 그 일로 남편을 더 오래 놀려 먹으려고 말이다.

이 설명은 억지스러워 보인다. 인정하고 싶지 않은 동기는 이런 석연찮은 설명 뒤에 숨는 버릇이 있다. 베르넴이 최면을 걸었던 피험자들이 떠오른다. 그들은 최면 후 명령을 수행하고 나서 동기를 묻는 말에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대답하는 대신, 누가 보아도 모자란 이유를 지어내야 했다. 내 환자의 캐비아도 아마 그와

비슷한 경우일 것이다. 환자가 실생활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소원을 하나 만들어 내야만 하는 처지라는 것을 나는 알아본다. 환자의 꿈도 그 소원의 재현을 이루어진 일로 보여 준다. 그런데 환자에게는 왜 이루어지지 않은 소원이 필요한 것일까?

지금까지 떠오른 생각만으로는 꿈을 해석하기에 모자란다. 나는 더 이야기해 달라고 청한다. 저항을 이겨 내는 데 해당하는 잠깐의 침묵 뒤에, 환자는 전날 한 친구를 찾아갔다고 털어놓는다. 남편이 늘 그 여자를 그렇게 칭찬하는 탓에 환자가 실은 질투하고 있는 친구다. 다행히 이 친구는 몹시 마르고 여위었는데, 환자의 남편은 풍만한 몸매를 좋아한다. 그러면 이 마른 친구는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 물론 살이 좀 쪘으면 좋겠다는 소원 이야기였다. 친구는 내 환자에게 이렇게 묻기도 했다. 「언제 또 우리를 초대해 줄 거예요? 댁은 늘 상을 참 잘 차리잖아요.」

이제 꿈의 뜻은 분명하다. 나는 환자에게 이렇게 말해도 좋을 것이다. 「그 부탁을 받았을 때 부인께서는 마치 이렇게 생각하신 것과 같습니다. 『그래, 초대하고말고. 우리 집에서 실컷 먹고 살이 쪄서 우리 남편 마음에 더 들도록 말이지. 차라리 저녁 식사는 더는 대접하지 않을래.』 그래서 꿈은 부인께서 저녁 식사를 대접할 수 없다고 말해 주고, 그렇게 해서 친구의 몸매를 풍만하게 하는 데 아무것도 보태지 않겠다는 부인의 소원을 이루어 줍니다. 살을 빼려고 저녁 식사 초대를 거절하겠다는 남편의 결심에서, 부인께서는 남들과 어울리는 자리에서 차려 낸 음식을 먹으면 살이 찐다는 것을 배우신 거지요.」 이제 이 풀이를 확인하는 데는 몇 마디 대화면 충분하다. 꿈에 나온 훈제 연어는 아직 그 출처를 밝히지 못했다. 「꿈에 나온 연어는 어떻게 떠오르신 걸까요?」 「훈제 연어는 그 친구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환자가 대답했다. 마침 나도 그 부인을 아는데, 내 환자가 캐비아를

아까워하는 것과 똑같이 그 부인도 연어를 아까워한다는 말로 이 대답을 뒷받침할 수 있다.

이 꿈은 또 다른, 더 정확한 해석도 허용하는데, 이 해석은 부차적인 사정 하나 때문에 필요해질 뿐이다. 두 해석은 서로 모순되지 않고 오히려 서로 겹치며, 꿈이, 그리고 다른 모든 정신병리적 형성물이 흔히 여러 뜻을 지닌다는 것을 보여 주는 좋은 예가 된다. 우리가 보았듯이, 환자는 소원의 거부를 꿈꾸는 바로 그때 현실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은 소원(캐비아 샌드위치)을 하나 마련하느라 애쓰고 있다. 친구도 소원을 하나 말했다. 살이 더 쪘으면 좋겠다는 소원이다. 그러니 이 부인이 친구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꿈을 꾸었더라도 우리는 놀라지 않았을 것이다. 친구의 소원, 곧 살이 찌고 싶다는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바로 환자 자신의 소원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환자는 그런 꿈 대신 자기 소원 하나가 이루어지지 않는 꿈을 꾼다. 꿈에서 가리키는 것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친구라면, 친구의 자리에 자기를 놓았다면, 말하자면 친구와 자기를 동일시했다면, 이 꿈은 새로운 해석이 가능해진다.

나는 환자가 실제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한다. 이 동일시(identification)의 표시로 환자는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소원을 하나 만들어 낸 것이다. 그러면 이 히스테리성 동일시는 무엇을 뜻할까? 이를 밝히려면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 동일시는 히스테리 증상의 기제에서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동일시 덕분에 환자들은 증상으로 자기 체험뿐 아니라 수많은 다른 사람의 체험까지 나타낼 수 있고, 말하자면 한 무리 사람 전체를 대신해 고통받을 수 있으며, 오로지 자기 한 사람의 인격만으로 한 편의 극에 나오는 모든 배역을 해낼 수 있다. 여기서 이런 반론이 나올 것이다. 그것은 잘 알려진 히스테리성 모방, 곧 히스테리 환자가 남에게 나타나 자기에게 인상을 남긴 증상이라면 무엇이든 따라

하는 능력이 아니냐고. 마치 동정심이 재현에 이를 만큼 자극받기라도 한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이것은 히스테리성 모방에서 심리 과정이 어떤 길로 풀려 나가는지를 가리킬 뿐이다. 심리적 행위가 진행되는 길과 그 행위 자체는 서로 다른 것이다. 행위 자체는 사람들이 흔히 상상하는 히스테리 환자의 모방보다 조금 더 복잡하다. 예를 하나 보면 알겠지만, 그것은 무의식적으로 결론을 끌어내는 과정에 해당한다. 병원의 한 병실에 다른 환자들과 함께 묵고 있는 여성 환자가 특이한 경련을 일으킨다고 하자. 그 환자를 맡은 의사는 어느 날 아침 이 독특한 히스테리 발작을 흉내 내는 환자들이 생겼다는 말을 들어도 놀라지 않는다. 그는 그저 이렇게 혼잣말을 한다. 다른 환자들이 그녀를 보고 똑같이 따라 했군. 심리적 감염이야. 그렇다. 하지만 심리적 감염은 대략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대개 환자들은 의사가 환자 하나하나에 대해 아는 것보다 서로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의사의 회진이 끝나면 서로의 일에 마음을 쓴다. 오늘 그 가운데 누군가 발작을 일으킨다. 곧 나머지 환자들 사이에, 집에서 온 편지라든가 다시 도진 상사병 같은 것이 그 원인이라는 사실이 알려진다. 그들의 공감이 일깨워지고, 의식에 이르지 않는 다음과 같은 삼단 논법이 그들 안에서 완성된다. 「그런 원인으로 이런 발작이 일어날 수 있다면 나도 이런 발작을 일으킬 수 있다. 나에게도 같은 이유가 있으니까.」 이것이 의식될 수 있는 생각의 고리라면 아마 같은 발작을 일으킬지 모른다는 불안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이 고리는 다른 심리 영역에서 일어나므로, 두려워하던 증상이 실현되는 것으로 끝난다. 그러므로 동일시는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 같은 병인을 내세울 수 있다는 데 바탕을 둔 공감이다. 동일시는 「마치 ~인 것처럼」을 표현하며, 무의식(the unconscious) 속에 남아 있는 어떤 공통점을 가리킨다.

히스테리에서 동일시는 성적인 공통점을 표현하는 데 가장 자주 쓰인다. 히스테리 여성은 자기와 성관계를 맺은 사람이나 자기와 같은 상대와 성관계를 맺는 사람과 — 오로지 그런 사람하고만은 아니지만 — 가장 쉽게 자기를 동일시한다. 언어도 이런 생각을 헤아리고 있다. 두 연인은 「하나」라고 하지 않는가. 꿈에서와 마찬가지로 히스테리성 공상에서도, 성관계를 생각하기만 하면 그것이 현실이 되든 안 되든 동일시에는 충분하다. 그러니 친구에 대한 질투를 표현할 때(게다가 그녀 스스로도 이 질투가 부당하다고 인정하며, 친구의 자리에 자기를 놓고 증상, 곧 거부된 소원을 만들어 냄으로써 친구와 자기를 동일시한다), 환자는 히스테리성 사고 과정의 규칙을 따를 뿐이다. 이 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밝히자면 이렇다. 환자가 꿈에서 친구의 자리에 자기를 놓는 것은, 친구가 남편과의 관계에서 자기 자리를 차지했기 때문이고, 남편의 존중을 받는 데서는 자기가 친구의 자리를 차지하고 싶기 때문이다.[8]

또 다른 여성 환자, 내가 만난 꿈꾼 사람들 가운데 가장 재치 있는 이 환자의 경우에는 내 꿈 이론에 대한 반박이 더 간단하게 풀렸다. 한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다른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뜻한다는 도식을 따르기는 했지만 말이다. 어느 날 나는 이 환자에게 꿈은 소원 성취라고 설명했다. 이튿날 환자는 시어머니와 함께, 둘이 같이 지낼 여름 휴양지로 가는 꿈을 가져왔다. 나는 그녀가 시어머니 가까이에서 여름을 보내지 않으려고 격렬하게 버텼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또 멀리 떨어진 시골 휴양지에 별장을 세내어 다행히 시어머니를 피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런데 꿈은 이 바라던 해결을 뒤집어 놓았다. 이것이야말로 꿈속의 소원 성취에 관한 내 이론과 정면으로 모순되지 않는가? 물론 이 꿈을 해석하려면 이 꿈에서 결론을 끌어내기만 하면 되었다. 이 꿈에 따르면 내가 틀렸다. 그러니까 내가 틀리기를 바라는 것이

그녀의 소원이었고, 꿈은 그녀에게 이 소원을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주었다. 그러나 시골집이라는 주제로 이루어진, 내가 틀리기를 바라는 소원은 더 심각한 문제와 관련되어 있었다. 그 무렵 나는 분석에서 나온 재료를 근거로, 그녀의 삶의 어느 시기에 병과 관련해 중요한 무슨 일이 일어났음이 틀림없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환자는 기억에 없다며 이를 부정했다. 그러나 우리는 곧 내가 옳았음을 알게 되었다. 그러므로 꿈으로 바뀐, 내가 틀리기를 바라는 환자의 소원은, 당시에는 짐작만 되었던 그 일들이 아예 일어나지 않았기를 바라는, 충분히 그럴 만한 소원에 해당했다.

분석 없이 순전히 추측만으로, 나는 김나지움 여덟 학년 내내 동급생이던 친구에게 일어난 작은 일을 감히 해석해 본 적이 있다. 그는 언젠가 내가 작은 모임에서 꿈은 소원 성취라는 새로운 주제로 한 강연을 들었다. 그러고는 집에 가서 자기가 소송에서 모두 졌다는 꿈을 꾸었고 — 그는 변호사였다 — 나를 찾아와 그 일로 불평을 늘어놓았다. 나는 「소송이야 다 이길 수는 없지」 하고 얼버무렸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했다. 「내가 여덟 해 동안 Primus〔수석〕 자리인 맨 앞 걸상에 앉아 있는 동안 그는 반 중간 어디쯤을 오르내렸으니, 그가 소년 시절부터 나도 한번쯤은 완전히 망신을 당했으면 하는 소원을 품었다 해도 자연스러운 일 아니겠는가?」

같은 식으로, 한 여성 환자가 내 소원 꿈 이론에 대한 반박으로 좀 더 음울한 꿈을 가져왔다. 젊은 처녀인 이 환자는 이렇게 말을 꺼냈다. 「기억하시겠지만, 언니에게는 이제 아들이 찰스 하나뿐이에요. 큰애 오토는 제가 아직 언니 집에 있을 때 잃었지요. 오토는 제가 제일 귀여워하던 아이였어요. 사실상 제가 키웠거든요. 다른 꼬마도 좋아하긴 하지만, 물론 죽은 애만큼은 어림도 없어요. 그런데 어젯밤 꿈에서 찰스가 죽어 제 앞에 누워 있는 것을 보았어요. 아이는 두 손을 모은 채 작은 관

속에 누워 있었고, 사방에 촛불이 켜져 있었어요. 한마디로 어린 오토가 죽었을 때와 똑같았어요. 그때 저는 정말 큰 충격을 받았거든요. 자, 말씀해 주세요. 이게 무슨 뜻이죠? 저를 아시잖아요. 제가 정말 언니가 하나 남은 아이마저 잃기를 바랄 만큼 못된 사람인가요? 아니면 이 꿈은, 제가 훨씬 더 좋아하는 오토 대신 차라리 찰스가 죽었으면 하고 바란다는 뜻인가요?」

나는 그런 해석은 있을 수 없다며 환자를 안심시켰다. 잠시 생각한 끝에 나는 환자에게 꿈의 해석을 내놓을 수 있었고, 나중에 환자에게서 그 해석이 옳다는 확인을 받았다.

그 처녀는 어려서 고아가 되어 나이 차가 한참 나는 언니 집에서 자랐는데, 그 집을 드나들던 친구와 손님 가운데서 한 남자를 만나 마음 깊이 오래 남을 인상을 받았다. 거의 입 밖에 내지 않은 이 관계가 한동안은 결혼으로 이어질 것처럼 보였지만, 이 행복한 결말은 언니 때문에 좌절되었고, 언니가 왜 그랬는지는 끝내 다 밝혀지지 않았다. 관계가 깨진 뒤 우리 환자가 사랑한 그 남자는 그 집에 발을 끊었다. 이제 그녀의 애정은 어린 오토에게 쏠려 있었는데, 오토가 죽고 얼마 뒤에 그녀 자신은 독립했다. 그러나 언니의 친구에게 한번 빠져든 마음에서는 벗어나지 못했다. 자존심 때문에 그를 피해야 했지만, 차례로 나타난 다른 구혼자들에게 사랑을 옮길 수는 없었다. 처녀가 사랑하는 그 남자는 문필가였는데, 그가 어디서든 강연을 한다고 알리면 처녀는 어김없이 청중 속에 있었다. 그 밖에도 그의 눈에 띄지 않게 멀리서 그를 볼 수 있는 기회라면 무엇이든 붙잡았다. 나는 전날 환자가, 그 교수가 어떤 음악회에 간다며 자기도 그를 보는 즐거움을 누리러 그 음악회에 가겠다고 했던 것을 떠올렸다. 그 말을 한 것은 꿈을 꾼 날이었고, 음악회는 환자가 내게 꿈 이야기를 한 바로 그날 열릴 예정이었다. 이제 나는 올바른 해석을 쉽게 알아볼 수 있었다. 나는

환자에게 어린 오토가 죽은 뒤에 있었던 일 가운데 떠오르는 것이 없느냐고 물었다. 환자는 곧바로 대답했다. 「있고말고요. 그때 그 교수님이 오랫동안 떠나 계시다가 돌아오셨고, 저는 어린 오토의 관 곁에서 그분을 다시 보았어요.」 내가 예상한 그대로였다. 나는 꿈을 이렇게 해석했다. 이제 다른 아이마저 죽는다면 같은 일이 되풀이될 겁니다. 언니와 하루를 함께 보내실 테고, 그 교수는 틀림없이 조문하러 올 테니, 그때와 같은 상황에서 그를 다시 보시겠지요. 이 꿈이 뜻하는 것은 그를 다시 보고 싶다는 소원, 속으로 맞서 싸우고 계신 바로 그 소원일 뿐입니다. 오늘 음악회 표를 가방에 넣어 다니신다는 것도 나는 압니다. 그 꿈은 조바심 꿈입니다. 오늘 있을 만남을 몇 시간 앞당긴 것이지요.

환자는 자기 소원을 위장하려고, 분명히 그런 소원이 흔히 억제되는 상황, 곧 슬픔이 가득해서 사랑 따위는 생각지도 못하는 상황을 골랐다. 그렇지만 꿈이 충실하게 베낀 실제 상황에서도, 곧 두 번째의, 더 사랑받던 아이의 상여 곁에서도, 환자가 그토록 오래 보지 못해 그리워하던 방문객에게 품은 애정 어린 감정을 억제하지 못했을 가능성은 아주 크다.

다른 여성 환자의 비슷한 꿈은 다르게 풀렸다. 이 환자는 젊은 시절 재치 있고 쾌활하기로 남달랐으며, 적어도 치료 중에 떠오르는 생각들에서는 여전히 그런 면모를 보여 주었다. 좀 더 긴 꿈의 한 대목에서, 이 부인은 열다섯 살 난 딸이 죽어 자기 앞에 상자〔box〕 속에 누워 있는 것을 보는 듯했다. 부인은 이 꿈 이미지를 소원 성취 이론에 대한 반론으로 삼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았지만, 상자라는 세부가 꿈을 다르게 보는 길로 이끌 것이라고 스스로도 짐작했다.[9] 분석하는 동안, 전날 저녁 모임에서 영어 낱말 「box」와, 그 말을 독일어로 옮기는 여러 가지 말, 이를테면 상자, 극장의 칸막이 좌석, 궤짝, 따귀

따위로 이야기가 흘렀던 일이 떠올랐다. 같은 꿈의 다른 구성 요소들에 비추어 이제 이렇게 덧붙일 수 있다. 부인은 영어 낱말 「box」와 독일어 Büchse〔통〕 사이의 친족 관계를 짐작했고, 그러고 나서 Büchse가 (「box」와 마찬가지로) 비속어에서 여성 성기를 가리킨다는 기억에 시달렸다. 그러므로 국소 해부학에 대한 부인의 생각을 어느 정도 너그럽게 보아 준다면, 상자 속의 아이는 어머니 태내의 아이를 뜻한다고 가정할 수 있었다. 풀이가 여기까지 오자 그녀는 꿈 영상이 정말로 자기 소원 하나에 해당한다는 것을 더는 부정하지 않았다. 다른 많은 젊은 여성처럼 부인도 임신했을 때 조금도 기쁘지 않았고,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죽었으면 좋겠다는 소원을 내게 여러 번 털어놓았다. 남편과 격렬하게 다툰 뒤에는 분에 못 이겨 배 속의 아이를 치려고 두 주먹으로 제 배를 때린 적도 있었다. 그러니 죽은 아이는 정말로 소원 성취였다. 다만 열다섯 해 동안 제쳐 두었던 소원이었으니, 그토록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그 소원의 성취를 더는 알아보지 못한 것도 놀랄 일이 아니다. 그사이 많은 것이 변했으니까.

방금 이야기한 두 꿈이 속하는 부류, 곧 사랑하는 친족의 죽음을 내용으로 하는 꿈들은 5장 (라) 「전형적인 꿈」에서 다시 살펴볼 것이다. 거기서 나는 새로운 예를 들어, 이 모든 꿈이 달갑지 않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도 소원 성취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 줄 수 있을 것이다. 다음 꿈 역시 내가 꿈속 소원에 관한 이론을 성급하게 일반화하지 못하도록 말리려고 들려준 것인데, 이 꿈은 환자가 아니라 내가 아는 총명한 법률가에게서 얻었다. 「꿈을 꾸는데요,」 내게 이 꿈을 들려준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제가 한 부인과 팔짱을 끼고 저희 집 앞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문이 닫힌 마차 한 대가 기다리고 있고, 한 신사가 제게 다가와 경찰관이라고 신분을 밝히더니 자기를 따라오라고 요구합니다. 저는 신변을 정리할 시간만 달라고 청합니다. 설마 이게 체포되고 싶다는 제

소원이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겠지요?」 「물론 아니지요.」 나도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무슨 혐의로 체포되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네, 영아 살해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영아 살해요? 하지만 그 죄는 어머니만이 자기가 갓 낳은 아이에게 저지를 수 있다는 걸 아시잖습니까?」 「그렇지요.」[10] 「그러면 어떤 사정에서 그 꿈을 꾸셨습니까? 전날 저녁에는 무슨 일이 있었지요?」 「그 이야기는 안 했으면 합니다. 미묘한 일이라서요.」 「하지만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꿈 해석을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말씀드리지요. 그날 밤 저는 집이 아니라 제게 아주 소중한 어떤 부인의 집에서 지냈습니다. 아침에 깨어났을 때 우리 사이에 또 그 일이 있었지요. 그러고 나서 다시 잠이 들었고, 말씀드린 그 꿈을 꾸었습니다.」 「그분은 남편이 있습니까?」 「네.」 「그러니 그분이 아이를 갖기를 바라지는 않으시겠군요?」 「바라지 않지요. 그랬다가는 우리 일이 드러날지도 모르니까요.」 「그렇다면 정상적인 성교는 하지 않으시겠군요?」 「사정하기 전에 빼도록 조심합니다.」 「그날 밤 그 요령을 여러 번 쓰셨고, 아침에는 그게 제대로 되었는지 자신이 없으셨다고 짐작해도 되겠습니까?」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그 꿈은 소원 성취입니다. 꿈으로써 당신은 아이를 만들지 않았다는 확신을, 같은 말이지만 아이를 죽였다는 확신을 얻는 겁니다. 이어 주는 고리도 쉽게 보여 드릴 수 있어요. 며칠 전에 우리가 결혼 생활의 곤궁(Ehenot)을 두고, 그리고 임신이 되지 않는 한 성교를 허용하면서도 난자와 정액이 만나 태아가 생긴 뒤의 위반은 모두 범죄로 처벌하는 모순을 두고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와 관련해서 우리는 영혼이 정확히 어느 순간 태아에 깃드느냐를 두고 벌어진 중세의 논쟁도 떠올렸지요. 살인이라는 개념은 그 순간부터야 성립할 수 있으니까요. 영아 살해와 피임을 같은 선상에 놓은 레나우의 섬뜩한

시도 물론 아시겠지요.」 「이상하게도 그날 오후에 마침 레나우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도 꿈에 울린 메아리입니다. 이제 꿈에 담긴 또 하나의 부차적인 소원 성취를 보여 드리지요. 당신은 그 부인과 팔짱을 끼고 댁 앞을 걷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듯 부인의 집에서 밤을 보내는 대신 부인을 당신 집으로 데려가는 겁니다. 꿈의 본질인 소원 성취가 이토록 불쾌한 형태로 위장한 데에는 아마 이유가 하나만은 아닐 겁니다. 불안 신경증의 병인에 관한 내 논문을 보시면, 내가 중단된 성교를 신경증적 불안을 일으키는 요인의 하나로 꼽는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앞서 말한 식의 동침을 되풀이한 뒤에 당신에게 언짢은 기분이 남았고, 그 기분이 이제 꿈을 구성하는 한 요소가 되었다면, 이 말과 들어맞겠지요. 당신은 이 불쾌한 마음 상태를 소원 성취를 감추는 데도 이용합니다. 그런데 영아 살해 이야기는 아직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여자만 저지르는 이 범죄가 왜 떠오르셨을까요?」 「고백하지요. 몇 년 전에 저는 그런 일에 휘말린 적이 있습니다. 제 잘못으로 한 아가씨가, 저와 맺은 liaison 〔정사〕 의 결과를 피하려고 낙태를 했습니다. 그 계획을 실행하는 데는 제가 아무 관여도 하지 않았지만, 그 일이 들통날까 봐 당연히 오랫동안 마음을 졸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요령을 서툴게 썼을지도 모른다는 짐작이 당신에게 괴로울 수밖에 없었던 두 번째 이유를 그 기억이 준 셈이군요.」

내 동료의 이 꿈이 이야기될 때 곁에서 들은 한 젊은 의사는 이 꿈에 자기도 걸려든다고 느꼈음이 틀림없다. 서둘러 자기 꿈에서 이 꿈을 흉내 내며 그 사고방식을 다른 주제에 적용했으니 말이다. 그는 전날 소득 신고서를 냈는데, 신고할 것이 별로 없었으므로 조금도 거짓 없는 신고였다. 그는 아는 사람 하나가 세무 위원회 회의에서 나와, 다른 소득 신고는 모두 아무 이의 없이 통과되었는데 그의 신고만은 모두의 의심을 샀으니 무거운 벌금을 물게 될 거라고 알려 주는 꿈을 꾸었다. 이 꿈은

수입이 많은 의사로 알려지고 싶다는 소원의 성취인데, 그것을 제대로 감추지도 못했다. 이 꿈은 또 한 처녀의 이야기를 떠올리게 한다. 처녀는 구혼자를 받아들이지 말라는 충고를 들었다. 성미가 급한 사람이라 결혼하고 나면 틀림없이 주먹 맛을 보여 줄 것이라는 이유였다. 처녀의 대답은 이랬다. 「그이가 저를 때리기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결혼하고 싶다는 소원이 얼마나 강했던지, 처녀는 결혼에 따른다고들 하고 자기에게도 닥치리라고 예고된 불편을 덤으로 받아들일 뿐 아니라, 그것을 아예 소원으로까지 끌어올린다.

내 이론과 정면으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종류의 꿈, 곧 소원의 거부나 분명히 바라지 않은 일을 담고 있는 꿈은 아주 흔한데, 이것들을 「반(反)소원 꿈」이라는 이름 아래 묶어 보면 모두 두 가지 원리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음을 알게 된다. 그 가운데 하나는 사람들의 꿈에서 큰 몫을 하는데도 아직 언급하지 않았다. 이런 꿈을 불러일으키는 동기 가운데 하나는 내가 틀린 것으로 드러났으면 하는 소원이다. 환자가 내게 저항을 보이면 치료 중에 이런 꿈이 어김없이 나타나며, 꿈은 소원 성취라는 내 이론을 환자에게 한 번 설명하고 나면, 나는 그런 꿈을 불러일으키리라고 상당히 확실하게 기대할 수 있다.[11] 심지어 그저 내가 틀린 것으로 드러났으면 하는 소원을 이루려고 꿈이 그렇게 되리라고 예상할 수도 있다. 치료 중에 나온 꿈 가운데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꿈도 바로 이것을 보여 준다. 친척들과, 조언을 구했던 권위자들의 뜻을 거슬러 가며 내 치료를 계속하려고 몹시 애써 온 한 처녀가 이런 꿈을 꾼다. 그녀는 집에서 더는 나한테 오지 말라는 금지를 받는다. 그러자 필요하면 무료로 치료해 주겠다던 내 약속을 나에게 일깨우고, 나는 그녀에게 「돈 문제에서는 사정을 봐 드릴 수 없습니다」 하고 말한다.

이 경우에 소원 성취를 입증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언제나 두 번째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풀면 첫 번째 문제도

풀린다. 환자가 내 입을 빌려 한 이 말은 어디서 가져온 것일까? 물론 나는 환자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러나 환자의 형제 가운데 하나, 환자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바로 그 형제가 친절하게도 나를 두고 그런 말을 해 주었다. 그러니 꿈의 목적은 이 형제가 옳은 것으로 남는 데 있다. 그리고 환자가 이 형제를 옳다고 하려는 것은 꿈에서만이 아니다. 그것이 환자의 삶의 목적이자 병의 동기다.

반소원 꿈의 또 다른 동기는 너무나 뻔해서 오히려 놓치기 쉽다. 나 자신도 한동안 그랬다. 많은 사람의 성적 기질에는 마조히즘적 요소가 있는데, 이것은 공격적이고 사디즘적인 요소가 그 반대로 바뀌어 생긴 것이다. 그런 사람이 자기에게 가해질 수 있는 몸의 통증이 아니라 굴욕과 영혼의 징벌에서 쾌감을 찾는다면 「관념적」 마조히스트라고 부른다. 그런 사람이 반소원 꿈과 불쾌한 꿈을 꿀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들에게 이런 꿈은 소원 성취, 곧 그들의 마조히즘적 성향을 충족시켜 주는 소원 성취일 뿐이다. 그런 꿈을 하나 들어 보자. 어린 시절 동성애적으로 끌리던 형을 괴롭혔지만 그 뒤로 성격이 완전히 바뀐 한 청년이 다음과 같은 꿈을 꾸는데, 이 꿈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 (1) 그는 형에게 「모욕」을 당한다. (2) 어른 둘이 동성애적 의도로 서로 애무하고 있다. (3) 형이, 청년이 장래에 자기가 경영하려고 남겨 두었던 사업체를 팔아 버렸다. 청년은 마지막 꿈에서 더없이 불쾌한 감정으로 깨어나지만, 이것은 마조히즘적 소원 꿈이며, 이렇게 옮길 수 있을 것이다. 형이 나에게 당한 온갖 괴롭힘에 대한 벌로 내 이익을 거슬러 그렇게 팔아 버린다면, 나는 그런 일을 당해도 싸다.

앞의 논의와 예들이면, 적어도 새로운 반론이 나오기 전까지는, 고통스러운 내용의 꿈도 소원 성취로 분석해야 한다는 것을 믿을 만하다고 여기게 하기에 충분하리라고 기대한다. 해석하다 보면 늘

말하기도 생각하기도 싫은 주제에 부딪히는 것 또한 우연으로 보이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꿈이 불러일으키는 불쾌한 느낌은, 우리가 그런 주제를 다루거나 논하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애쓰고 또 대개는 그 일에 성공하는 반감과 다를 바 없으며, 불쾌하더라도 그 문제를 손에 잡아야 할 필요가 있다면 우리 모두가 이겨 내야 하는 것도 바로 이 반감이다. 그러나 꿈에서도 나타나는 이 불쾌한 느낌이 소원이 있다는 사실을 배제하지는 않는다. 누구에게나 남에게 말하고 싶지 않은 소원, 자기 자신에게조차 인정하고 싶지 않은 소원이 있다. 우리는 다른 근거에서도, 이 모든 꿈의 불쾌한 성격을 꿈 왜곡이라는 사실과 연결하고, 이런 꿈이 왜곡되어 있고 그 속의 소원 성취가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위장되어 있는 까닭은 오로지 꿈의 주제나 꿈이 만들어 내는 소원에 대해 혐오, 곧 억제하려는 의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결론지을 권리가 있다. 그렇다면 꿈 왜곡은 실제로 검열의 행위임이 드러난다. 불쾌한 꿈의 분석이 밝혀낸 것을 모두 고려하려면 우리의 공식을 이렇게 고쳐 말하면 된다. **꿈은 (억제되거나 억압된) 소원의 (위장된) 성취다.**[12]

이제 고통스러운 내용의 꿈 가운데 특별한 종류로 불안 꿈이 아직 남아 있다. 불안 꿈을 소원 꿈에 넣는 것은 문외한들이 가장 받아들이기 힘들어할 것이다. 그러나 불안 꿈의 문제는 아주 간단히 정리할 수 있다. 불안 꿈이 드러낼지 모르는 것은 꿈 문제의 새로운 측면이 아니기 때문이다. 불안 꿈의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은 신경증적 불안 일반을 이해하는 일이다. 꿈에서 우리가 겪는 불안은 꿈 내용으로 설명되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 꿈 내용을 분석해 보면, 공포증의 불안이 그 공포증이 매달린 표상으로 정당화되지 않듯이 꿈 불안도 꿈 내용으로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를테면 창문에서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 창가에서는 얼마쯤 조심해야 한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에 해당하는 공포증에서 불안이 왜 그렇게 큰지, 왜 그 불안이 그 기원으로

정당화되는 정도를 훨씬 넘어 거기에 시달리는 사람을 따라다니는지는 설명할 수 없다. 그러니 공포증에 들어맞는 설명은 불안 꿈에도 그대로 들어맞는다. 두 경우 모두 불안은 그에 따르는 표상에 겉으로만 붙어 있을 뿐, 다른 원천에서 온다.

꿈 불안은 신경증적 불안과 밀접하게 얽혀 있으므로, 꿈 불안을 논하다 보면 신경증적 불안을 언급할 수밖에 없다. 나는 「불안 신경증」이라는 짧은 논문[13]에서, 신경증적 불안은 성생활에서 비롯하며, 대상에게서 등을 돌린 채 쓰일 데를 찾지 못한 리비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 뒤로 점점 더 뚜렷하게 타당성이 입증된 이 공식에서, 불안 꿈의 내용은 성적인 성질의 것이며 그 내용에 속하는 리비도가 불안으로 변환되었다는 결론을 끌어낼 수 있다. 뒤에서 나는 신경증 환자들의 꿈을 몇 편 분석하여 이 주장을 뒷받침할 기회를 얻을 것이다. 불안 꿈의 결정 요인들과 그것이 소원 성취 이론과 양립할 수 있는지는, 꿈 이론에 다시 다가가려 할 때 다시 다룰 것이다.

---

1. 독자와 비평가들이 얼마나 완고하게 이 점을 고려에서 빼 버리고, 외현적 꿈 내용과 잠재적 꿈 내용을 가르는 근본적인 구별을 거들떠보지도 않는지, 참으로 믿기 어려울 정도다.

2. 여기서 내 기억이 분석의 목적에 맞게 좁아지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 그것도 깨어 있는 동안에 말이다. 나는 삼촌을 다섯 분 알았고, 그 가운데 한 분을 사랑하고 존경했다. 그런데 꿈 해석에 대한 저항을 이겨 낸 순간, 나는 속으로 이렇게 말했다. 「내게 삼촌은 한 분뿐이야. 꿈에서 가리키는 바로 그분 말이야.」

3. 영역본은 「I need not assure you that an inquiry was made」(조사가 있었다는 건 말할 필요도 없다)라 했으나, 안심시키려는 이 말투에는 조사가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조사가 중지되었다는 것이 와야 뜻이 선다. 독일어 원문도 조사가 중지되었다(eingestellt)는 뜻이다. 영역자가 이를 「조사가 행해졌다」(angestellt)로 읽은 것으로 보아 바로잡았다. — 옮긴이.

4. 이 낱말(instance)은 여기서 라틴어 instantia의 본래 의미, 곧 활력, 지속, 또는 무언가를 끈질기게 해 나감이라는 뜻으로 쓰였다. — 영역자 브릴의 주.

5. 이 번역은 표준 역어 「심급」(법정의 심급처럼 층위를 이루는 기관)을 따른다. 브릴의 풀이는 이와 결이 다르다. — 옮긴이.

6. 이런 위선적인 꿈은 나에게도 다른 사람들에게도 드문 일이 아니다. 어떤 학문적 문제를 붙들고 연구하는 동안, 나는 여러 밤 잇달아 조금 혼란스러운 꿈을 꾼다. 오래전에 관계를 끊은 친구와 화해하는 내용의 꿈이다. 서너 번 시도한 끝에 나는 마침내 이 꿈의 뜻을 파악하는 데 성공했다. 그것은 그 사람에게 아직 남아 있던 얼마 안 되는 배려마저 버리고 그와 완전히 관계를 끊으라고 북돋우는 성격의 것이었는데, 꿈은 부끄러운 듯 정반대의 감정으로 자신을 위장했다. 나는 어떤 사람의 「위장된 오이디푸스 꿈」을 보고한 적이 있는데, 그 꿈에서는 꿈 사고의 적대적 감정과 죽음 소원이 외현적인 애정으로 대체되어 있었다. (「위장된 오이디푸스 꿈의 전형적 예(Typisches Beispiel eines verkappten Oedipustraumes)」, 『정신분석 중앙지(Zentralblatt für Psychoanalyse)』 제1권 1~11호, 1910.) 또 다른 부류의 위선적인 꿈은 다른 곳에서 보고하겠다.

7. 화가 앞에 모델로 앉는〔sit〕 일. 괴테: 「그런데 엉덩이가 없다면 그 귀인이 어떻게 앉는단 말인가?」

8. 히스테리의 정신병리학에서 이런 대목을 끌어들인 것을 나 스스로도 유감으로 여긴다. 이런 대목은 단편적으로 서술되고 주제와의 모든 연관에서 뜯겨 나와 있어서 그다지 깨우쳐 주는 바가 없을 것이다. 그래도 이런 대목이 꿈과 정신신경증 사이의 긴밀한 관계를 밝혀 줄 수 있다면, 내가 이것을 다룬 목적은 이룬 셈이다.

9. 미뤄진 저녁 식사 꿈의 훈제 연어 같은 것.

10. 꿈이 불완전하게 이야기되고, 빠진 부분의 기억이 분석 도중에야 떠오르는 일이 흔하다. 나중에 끼워 넣어지는 이 부분들이 어김없이 해석의 열쇠가 된다. 꿈의 망각에 관해서는 뒤의 7장 (가) 참조.

11. 지난 몇 해 동안 내 제자들이 비슷한 「반(反)소원 꿈」을 거듭 보고해 왔다. 그들은 「꿈의 소원 이론」을 처음 접하고 이렇게 반응한 것이다.

12. 여기서 오토 랑크가 내놓은, 이 기본 공식의 단순화이자 수정을 소개해 두어도 좋겠다. 「꿈은 억압된 유년기의 성적 재료를 바탕으로 그 도움을 받아, 현재의, 그리고 대개는 성애적이기도 한 소원을 위장되고 상징적인 형태로 어김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표현한다.」 (「스스로를 해석하는 꿈(Ein Traum, der sich selbst deutet)」, 『연보』(블로일러·프로이트 엮음) 제2권, 519쪽, 1910년.)

13. 『히스테리와 기타 정신신경증에 관한 논문 선집』 133쪽 참조. A. A. 브릴 옮김, 『신경정신질환 저널』 모노그래프 총서.

제5장 꿈의 재료와 원천

이르마의 주사 꿈을 분석하여 꿈은 소원 성취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우리의 관심은 이로써 꿈의 보편적 특성을 찾아낸 것인지 확인하는 쪽으로 옮겨 갔고, 그 해석 과정에서 떠올랐을지 모르는 다른 물음은 모두 당분간 제쳐 두었다. 이제 이 길들 가운데 하나에서 목표에 이르렀으니, 되돌아가서 꿈의 문제들 사이를 누비는 탐사의 새 출발점을 골라도 좋을 것이다. 아직 결코 남김없이 다루었다고 할 수 없는 소원 성취라는 주제를 한동안 시야에서 놓치게 되더라도 말이다.

우리의 해석 절차를 적용하여, 의미로 보면 **외현적** 꿈 내용을 훨씬 능가하는 **잠재적** 꿈 내용을 찾아낼 수 있게 된 지금, 우리는 개별적인 꿈 문제들을 새로 붙들어 보고 싶어진다. 외현 내용만 가지고 있을 때는 손이 닿지 않을 것처럼 보였던 수수께끼와 모순들이 이제는 만족스럽게 풀리지 않을지 알아보려는 것이다.

꿈과 깨어 있는 생활의 관계에 관한 저자들의 진술과, 꿈 재료의 원천에 관한 진술은 1장에서 자세히 소개했다. 꿈속 기억에는 자주 지적되었지만 한 번도 설명되지 않은 세 가지 특성이 있다는 것을 떠올려 보자.

1. 꿈은 앞선 며칠 동안의 인상을 뚜렷이 선호한다는 것(로베르트[55], 슈트륌펠[66], 힐데브란트[35], 그리고 위드·핼럼[33]).

2. 꿈은 깨어 있을 때의 기억과는 다른 원칙에 따라 재료를 고른다는 것.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차적이고 눈여겨보지 않은 것을

떠올린다는 점에서 그렇다(1장 (나) 참조).

3. 꿈은 우리 어린 시절의 가장 이른 인상들을 마음대로 쓸 수 있어서, 이 시기의 세부 가운데 역시 우리에게는 하찮아 보이고 깨어 있을 때는 오래전에 잊혔다고 여겨지던 것까지 끌어낸다는 것.[1]

꿈 재료를 고르는 데서 보이는 이런 특성들을 저자들은 물론 외현적 꿈 내용에서 관찰했다.

(가) 꿈속의 최근 인상과 사소한 인상

이제 꿈에 나타나는 요소들의 원천에 관해 내 경험에 물어보면, 나는 곧바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 모든 꿈에서 **가장 최근에 지나간 하루**의 체험과 이어지는 무언가를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다. 내 꿈이든 남의 꿈이든 어떤 꿈을 붙들어도 이 경험은 언제나 다시 확인된다. 이 사실을 알고 있으므로 나는 대개 꿈을 자극한 전날의 체험부터 알아보는 것으로 해석 작업을 시작할 수 있으며, 사실 많은 경우 이것이 가장 빠른 길이다. 2장과 4장에서 자세히 분석한 두 꿈(이르마의 주사 꿈과, 노란 수염을 한 삼촌 꿈)에서는 꿈이 전날과 이어져 있다는 것이 너무나 뚜렷해서 더 설명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이런 연관이 규칙적으로 입증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려고, 내 꿈 일지의 한 대목을 살펴보겠다. 꿈은 문제의 꿈 자극을 찾아내는 데 필요한 만큼만 보고하겠다.

1. 나는 어떤 집을 찾아가는데 간신히 들어가게 되고 운운, 그러는 사이에 한 여자를 **기다리게** 한다.

원천. — 저녁에 한 여자 친척과 나눈 대화. 그녀가 청한 어떤 도움은 운운할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이라는 이야기였다.

2. 나는 어떤 (불분명한) 식물 종에 관한 **연구서**를 썼다.

원천. — 나는 어느 서점 진열창에서 시클라멘속(屬)에 관한 연구서를 보았다.

3. 나는 거리에서 두 여자를 보는데, 어머니와 딸이고, 딸은 내 환자다.

원천. — 치료 중인 여성 환자 하나가, 자기가 치료를 계속하려는 데 어머니가 얼마나 훼방을 놓는지 내게 이야기했다.

4. 나는 S. & R. 서점에서 한 해에 20플로린 하는 정기 간행물을 구독 신청한다.

원천. — 낮에 아내가, 내가 자기 한 주 살림돈 가운데 아직 20플로린을 빚지고 있다고 일깨워 주었다.

5. 나는 사회민주당 위원회에서 통지를 받는데, 그 통지는 나를 회원으로 대하고 있다.

원천. — 나는 자유당 선거위원회와, 내가 실제로 회원으로 있는 박애협회의 회장에게서 동시에 통지를 받았다.

6. 바다 한가운데의 가파른 바위 위의 한 남자, 뵈클린풍으로.

원천. — 악마의 섬의 드레퓌스. 동시에 영국에 사는 친척들에게서 온 소식 운운.

꿈은 언제나 전날의 일과 이어져 있는가, 아니면 그 연관이 가까운 과거의 좀 더 긴 기간에서 온 인상에까지 넓혀질 수 있는가 하는 물음이 나올 수 있다. 아마 이 문제가 으뜸가는 중요성을 내세우지는 못하겠지만, 나는 꿈을 꾸기 바로 전의 하루(꿈 전날)에만 우선권이 있다는 쪽으로 판정하고 싶다. 이삼일 전의 인상이 꿈의 원천이었던 경우를 찾아냈다고 생각할 때마다, 꼼꼼히 조사해 보면 그 인상이 전날 다시 떠올랐다는 것, 곧 사건이 있던 날과 꿈을 꾼 때 사이에 입증할 수 있는 재생이 끼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게다가 옛 인상의 기억이 떠올랐을 법한 최근의 계기까지 짚어 낼 수 있었다. 반면에 꿈을 자극하는 낮의 인상과 그 인상이 꿈에서 되풀이되는 것 사이에 생물학적

의미를 지닌 규칙적인 간격(H. 스보보다는 이런 간격 가운데 첫째 것을 열여덟 시간으로 잡는다)이 있다는 것은 확신할 수 없었다.[2]

그러므로 나는, 모든 꿈의 자극은 아직 하룻밤 「자며 생각해 보지 않은」 체험들 가운데 있다고 본다.

그러니 가까운 과거의 인상들은(꿈을 꾼 밤의 전날은 빼고) 꿈 내용과 맺는 관계에서, 얼마든지 먼 과거의 인상들과 다를 바가 없다. 꿈은 삶의 모든 시기에서 재료를 고를 수 있다. 다만 꿈꾼 날의 체험 가운데 하나(「최근」 인상 가운데 하나)에서 출발한 생각의 사슬이 그 더 이른 인상들까지 거슬러 닿기만 하면 된다.

그렇다면 최근의 인상을 왜 이렇게 선호하는가? 이미 언급한 꿈 가운데 하나를 좀 더 정밀하게 분석해 보면 이 점에 관해 몇 가지 추측에 이를 것이다. 연구서 꿈을 골라 보겠다.

꿈 내용. — 나는 어떤 식물에 관한 연구서를 썼다. 그 책이 내 앞에 놓여 있고, 나는 마침 접힌 채색 도판 한 장을 넘기고 있다. 책마다 그 식물의 말린 표본이 한 점씩 함께 제본되어 있다. 마치 식물 표본집에서 나온 것처럼.

분석. — 오전에 나는 어느 서점 진열창에서 『시클라멘속(屬)』이라는 제목의 책을 보았다. 보아하니 이 식물에 관한 연구서였다.

시클라멘은 아내가 가장 좋아하는 꽃이다. 나는 아내가 바라는 대로 꽃을 사다 줄 생각을 좀처럼 하지 못하는 나 자신을 나무란다. 「꽃을 사다 주기」라는 주제와 관련해서, 얼마 전 친구들 모임에서 들려준 이야기 하나가 떠오른다. 망각은 아주 흔히 무의식이 의도한 바이며, 어쨌든 잊어버리는 사람의 은밀한 마음가짐을 추론할 근거가 된다는 내 주장을 입증하려고 한 이야기였다. 생일마다 남편에게서 꽃다발을 받아 온 한 젊은 부인이, 그런 축하할 날에 이 애정의 표시를 받지 못하자 울음을 터뜨린다. 남편이 다가오지만, 아내가 「오늘이 내 생일이에요」 하고 말하기 전까지는 아내가 왜 우는지 알지 못한다. 남편은 이마를

치며 「아니, 까맣게 잊고 있었네」 하고 외치고는 당장 나가서 꽃을 사오려 한다. 그러나 아내는 좀처럼 달래지지 않는다. 남편이 잊었다는 데서, 자기가 남편의 생각 속에서 예전과 같은 자리를 차지하지 못한다는 증거를 보기 때문이다. 이 L. 부인이 이틀 전에 내 아내를 만나, 요즘 잘 지낸다고 말하고 내 안부를 물었다. 그녀는 여러 해 전에 내게 치료를 받았다.

덧붙일 사실들: 나는 실제로 언젠가 식물에 관한 연구서 비슷한 것을 쓴 적이 있다. 코카나무에 관한 논문인데, 이 논문 덕분에 K. 콜러가 코카인의 마취 성질에 주목하게 되었다. 나는 발표한 글에서 이 알칼로이드를 그렇게 쓸 수 있다고 넌지시 비쳤지만, 그 문제를 더 파고들 만큼 철저하지는 못했다. 그러고 보니 생각나는 일이 있다. 꿈을 꾼 다음 날 오전(꿈을 해석할 짬은 저녁이 되어서야 났다)에 나는 일종의 낮의 공상 속에서 코카인을 생각했다. 혹시 내가 녹내장에 걸리기라도 하면 베를린에 가서, 베를린 친구의 집에서 그가 추천해 주는 의사에게 신분을 숨긴 채 수술을 받으리라는 공상이었다. 누구를 수술하는지 모르는 그 외과 의사는, 코카인이 도입된 뒤로 이런 수술이 얼마나 쉬워졌는지 여느 때처럼 자랑할 것이다. 나는 이 발견에 내가 한몫했다는 것을 눈짓 하나로도 내비치지 않으리라. 이 공상에는, 의사가 자기 몸을 위해 동료에게 진료를 청하기란 사실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생각이 이어져 있었다. 나를 모르는 베를린의 안과 의사에게라면 나도 다른 누구와 마찬가지로 진료비를 치를 수 있을 것이다. 이 백일몽을 떠올리고 나서야 나는 그 뒤에 어떤 구체적인 체험의 기억이 숨어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콜러의 발견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가 실제로 녹내장에 걸렸고, 내 친구인 안과 의사 쾨니히슈타인 박사에게 수술을 받았다. 코카인 마취는 콜러 박사가 맡았는데, 그는

그때 코카인 도입에 관여한 세 사람이 이 한 사례에 모두 모였다고 말했다.

이제 이 코카인 일을 마지막으로 떠올린 것이 언제였는지 생각해 본다. 며칠 전, 기념 논문집 한 권을 받았을 때였다. 고마움을 아는 제자들이 스승이자 실험실 책임자의 기념일을 기려 펴낸 책이었다. 그 실험실과 관계된 사람들의 공적을 꼽는 대목에서, K. 콜러가 그곳에서 코카인의 마취 성질을 발견했다는 기록이 눈에 띄었다. 이제 문득 이 꿈이 전날 저녁의 한 체험과 이어져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나는 쾨니히슈타인 박사를 집까지 바래다주면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내 관심을 강하게 불러일으키는 문제에 관해 그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현관에서 그와 이야기하고 있는데 게르트너 교수가 젊은 부인과 함께 다가왔다. 나는 두 사람 모두 건강해 보인다고 축하의 말을 건네지 않고는 배길 수 없었다. 그런데 게르트너 교수는 방금 말한 기념 논문집의 필자 가운데 한 사람이니, 그 책을 내게 떠올리게 했을 법하다. 마찬가지로, 생일에 실망했다고 앞서 이야기한 L. 부인도 쾨니히슈타인 박사와 나눈 대화에서 언급되었다. 물론 다른 맥락에서이기는 했지만.

이제 꿈 내용의 다른 결정 요인들을 설명해 보겠다. 그 식물의 말린 표본이, 마치 연구서가 식물 표본집이라도 되는 것처럼 연구서에 딸려 있다. 식물 표본집에는 김나지움(학교) 시절의 기억 하나가 이어져 있다. 우리 김나지움의 교장이 언젠가 상급반 학생들을 불러 모아 식물 표본집을 살펴보고 손질하게 한 적이 있었다. 작은 벌레들이 나왔던 것이다. 책벌레였다. 교장은 내 도움을 그다지 미덥게 여기지 않았던지 나에게는 겨우 몇 장만 맡겼다. 거기에 십자화과 식물이 있었다는 것을 나는 지금도 안다. 나는 식물학에 큰 흥미를 느낀 적이 없다. 식물학 예비 시험 때 십자화과 식물 하나를 알아맞혀야 했는데 나는 알아보지 못했다. 이론 지식이 구해 주지 않았다면 낭패를 보았을 것이다.

십자화과에서 국화과가 떠오른다. 아티초크는 사실 국화과 식물이며, 내가 가장 좋아하는 꽃이라고 할 만하다. 나보다 마음 씀씀이가 깊은 아내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이 꽃을 시장에서 자주 사 온다.

내가 쓴 연구서가 내 앞에 놓여 있는 것이 보인다. 이것도 연관이 없지 않다. 공상 속에 그려 본 그 친구가 어제 베를린에서 편지를 보내왔다. 「자네의 꿈 책 생각을 많이 하네. 그 책이 완성되어 내 앞에 놓여 있는 것이 보이고, 나는 그 책장을 넘기고 있네.」 그의 이 예언하는 능력이 얼마나 부러웠던지! 나도 그 책이 이미 완성되어 내 앞에 놓여 있는 것을 볼 수만 있다면!

접힌 채색 도판. — 의과 대학생 시절 나는 오로지 연구서로만 공부하려는 버릇 때문에 꽤 고생했다. 형편이 넉넉지 않았는데도 의학 학술지를 여럿 구독했는데, 거기 실린 채색 도판이 큰 즐거움을 주었다. 나는 이렇게 철저함을 좋아하는 성향을 자랑으로 여겼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논문을 발표하기 시작했을 때 논문에 실을 도판을 직접 그려야 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너무 형편없이 나와서 호의적인 동료 하나에게 놀림을 받은 기억이 있다. 여기서, 정확히 어떻게 이어지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어린 시절의 기억 하나가 떠오른다. 언젠가 아버지는 장난삼아 채색 도판이 든 책 한 권(『페르시아 여행기』)을 나와 내 누이동생들 가운데 맏이에게 넘겨주며 마음대로 찢게 했다. 교육적으로는 도무지 정당화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그때 나는 다섯 살, 누이는 세 살이었다. 우리가 더없이 즐겁게 이 책을 갈가리 찢는 광경(덧붙여 두자면, 아티초크처럼 한 잎 한 잎)은 그 나이 때의 일로 내 기억 속에 생생히 남아 있는 거의 유일한 그림이다. 나중에 대학생이 되자 나는 책을 모으고 소유하는 데 뚜렷한 애착을 보이게 되었다(연구서로 공부하려는 성향과 닮은 것으로, 꿈 사고에서 시클라멘과 아티초크와 관련해 나타나는 취미다). 나는 책벌레가 되었다(식물 표본집 참조).

지난 일을 되돌아보는 김에 말하자면, 나는 내 삶의 이 첫 열정을 언제나 이 어린 시절의 인상으로 거슬러 올라가 설명해 왔다. 아니, 그보다는 이 어린 시절 장면을 훗날 내가 책을 사랑하게 된 데 대한 「은폐 기억」으로 알아보았다.[3] 물론 나는 우리의 열정이 흔히 우리의 슬픔이 된다는 것도 일찍 깨달았다. 열일곱 살 때 나는 서점에 꽤 큰 외상값을 지고 있었는데 갚을 길이 없었고, 아버지는 내 취향이 그보다 나쁜 데 쏠리지 않았다는 변명을 좀처럼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청년 시절의 이 나중 체험을 꺼내고 보니, 곧바로 그날 저녁 친구 쾨니히슈타인 박사와 나눈 대화로 되돌아가게 된다. 꿈 전날 저녁의 그 대화에서, 내가 내 취미에 너무 빠져 있다는 해묵은 비난이 또 나왔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할 자리가 아닌 이유로 나는 이 꿈의 해석을 더 이어 가지 않고, 해석으로 가는 길만 가리켜 두겠다. 해석하는 동안 쾨니히슈타인 박사와 나눈 대화가 떠올랐는데, 그것도 한 대목만이 아니었다. 그 대화에서 건드린 주제들을 생각해 보면 꿈의 뜻이 분명해진다. 아내와 나의 취미에 관해, 코카인에 관해, 동료에게 진료를 받기 어렵다는 것에 관해, 연구서로 공부하기를 좋아하는 내 성향과 식물학 같은 특정 과목을 소홀히 한 것에 관해 떠오른 생각의 연상들, 이 모든 것이 여러 갈래로 뻗어 나간 그 대화의 어느 한 가지로 이어지고 거기에 맞닿는다. 이 꿈도 처음 분석한 이르마의 주사 꿈처럼 정당화의 성격, 곧 나의 권리를 변호하는 성격을 띤다. 심지어 그 꿈이 꺼낸 주제를 이어 가면서, 두 꿈 사이의 기간에 새로 쌓인 재료를 가지고 그 주제를 논한다. 겉보기에 무덤덤한 꿈의 표현 방식조차 새로운 중요성을 얻는다. 이제 그 뜻은 이렇다. 「나야말로 그 값지고 성공적인 (코카인에 관한) 논문을 쓴 사람이다.」 그때 내가 나를 정당화하려고 「나는 철저하고 부지런한 학생이다」라고 주장했던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니 두 경우 모두 「나는 그 정도는 해도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꿈을 더 해석하는 일은

그만두어도 좋겠다. 내가 이 꿈을 이야기한 목적은 오로지, 꿈 내용이 그것을 불러일으키는 전날의 체험과 맺는 관계를 살펴보는 데 있었기 때문이다. 이 꿈의 외현 내용만 알고 있는 동안에는 낮의 인상과 맺은 관계가 하나만 뚜렷이 드러난다. 해석을 하고 나면 같은 날의 다른 체험에서 꿈의 두 번째 원천이 드러난다. 꿈이 가리키는 이 인상들 가운데 첫째는 사소한 인상, 곧 부차적인 사정이다. 나는 진열창에서 책 한 권을 보는데, 제목이 잠깐 눈길을 붙들 뿐 내용은 내 흥미를 끌 리가 없다. 둘째 체험은 큰 심리적 가치를 지닌다. 나는 친구인 안과 의사와 한 시간쯤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 대화에서 우리 두 사람을 모두 깊이 건드렸을 것이 틀림없는 암시를 던졌으며, 그 암시들은 내 속마음의 더없이 다양한 감정을 드러내는 기억들을 일깨웠다. 게다가 이 대화는 친구 몇 사람이 끼어드는 바람에 끝을 맺지 못한 채 끊어졌다. 그렇다면 낮의 이 두 인상은 서로 어떤 관계에 있으며, 그다음 밤에 뒤따른 꿈과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외현 내용에서 나는 사소한 인상에 대한 암시만을 발견하며, 그러니 꿈은 본질적이지 않은 체험을 즐겨 제 내용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반대로 꿈 해석에서는 모든 것이 마땅히 주의를 요구할 만한 중요한 사건 하나로 모여든다. 분석에서 드러난 잠재 내용에 따라, 유일하게 올바른 방식으로 꿈을 판단하면,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새롭고 중요한 사실 하나에 이르게 된다. 꿈은 일상 체험의 쓸모없는 조각만 다룬다는 견해가 무너지는 것을 나는 본다. 또 깨어 있을 때의 정신생활은 꿈속에서 이어지지 않으며, 꿈은 그 대신 하찮은 재료에 심리적 활동을 낭비한다는 주장에도 반박할 수밖에 없다. 그 반대가 참이다. 낮 동안 우리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이 우리의 꿈 사고도 지배하며, 우리가 수고를 들여 꿈꾸는 것은 낮 동안 우리에게 생각할 거리를 준 일들뿐이다.

내가 낮의 어떤 사소한 인상을 꿈꾸는데도 정작 꿈의 계기가 되는 것은 마땅히 마음을 뒤흔들 만한 인상이라는 사실을 가장 손쉽게 설명하는 길은 아마, 이것을 또다시 꿈 왜곡의 한 현상으로 보는 것이리라. 앞에서 우리는 꿈 왜곡이 검열관 노릇을 하는 심리적 힘에서 비롯한다고 밝혔다. 시클라멘속에 관한 연구서의 기억은, 친구와 나눈 대화에 대한 암시인 것처럼 쓰인다. 미뤄진 저녁 식사 꿈에서 친구에 대한 언급이 「훈제 연어」라는 암시로 표현되는 것과 아주 비슷하다. 문제는 오로지, 연구서의 인상이 어떤 중간 단계들을 거쳐 안과 의사와 나눈 대화를 암시하는 관계에 들어서게 되었느냐는 것이다. 그런 관계가 곧바로 드러나 보이지는 않기 때문이다. 미뤄진 저녁 식사의 예에서는 그 관계가 처음부터 주어져 있다. 「훈제 연어」는 그 친구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므로, 꿈꾸는 부인에게 친구라는 인물이 불러일으킬 연상 계열에 곧바로 속한다. 우리의 새 예에는 서로 떨어진 두 인상이 있는데, 얼핏 보기에는 같은 날 일어났다는 것 말고는 공통점이 없는 듯하다. 연구서는 오전에 내 눈길을 끌고, 대화는 저녁에 나눈다. 분석이 내놓는 대답은 이렇다. 두 인상 사이의 그런 관계는 처음부터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인상의 표상 내용과 다른 인상의 표상 내용 사이에 나중에야 맺어진다. 분석을 기록하면서 나는 이 관계를 이루는 요소들을 방금 강조해 두었다. 시클라멘에 관한 연구서라는 생각에, 시클라멘이 아내가 가장 좋아하는 꽃이라는 생각을 결부시키는 것은 아마 무언가 바깥의 영향이 있을 때뿐일 텐데, 그 영향이란 아마 L. 부인이 받지 못한 꽃다발에 대한 기억이 덧붙은 것이리라. 이런 밑바탕의 생각들만으로 꿈을 불러낼 수 있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무덤에서 유령이 나올 필요는 없습니다, 왕자님,」

「그걸 우리에게 일러 주자고」

『햄릿』에 나오는 그대로다. 그러나 보라! 분석하다 보니, 우리 대화를 끊은 사람의 이름이 게르트너(Gärtner = 정원사)였고 그의 부인이 활짝 핀 꽃처럼〔blooming〕 건강해 보였다는 것이 떠오른다.[4] 이제는 플로라〔꽃의 여신〕라는 예쁜 이름을 지닌 내 여성 환자 하나가 한동안 우리 대화의 주된 화제였다는 것까지 기억난다. 나는 식물학이라는 관념에 속하는 연상 계열에서 나온 이 고리들로, 낮의 두 사건, 곧 사소한 사건과 마음을 뒤흔든 사건 사이의 연결을 완성했음이 틀림없다. 그러고 나서 다른 관계들이 맺어진다. 코카인의 관계가 그것인데, 코카인은 쾨니히슈타인 박사라는 인물과 내가 쓴 식물학 연구서를 잇는 중개자가 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알맞으며, 두 연상 계열이 하나로 녹아드는 것을 굳혀 준다. 그리하여 이제 첫째 체험의 한 부분이 둘째 체험을 암시하는 데 쓰일 수 있게 된다.

이 설명이 자의적이라거나 인위적이라는 공격을 받으리라는 것은 각오하고 있다. 게르트너 교수와 활짝 핀 꽃 같은 그의 부인이 다가오지 않았다면, 그리고 화제에 오른 환자의 이름이 플로라가 아니라 안나였다면 어떻게 되었겠는가? 그러나 대답은 쉽다. 이런 생각의 관계들이 없었다면 아마 다른 관계들이 골라졌을 것이다. 이런 종류의 관계를 맺기란 아주 쉽다. 우리가 날마다 재미 삼아 주고받는 농담 섞인 질문과 수수께끼만 보아도 충분히 알 수 있다. 재치가 미치는 범위에는 끝이 없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보자. 낮의 두 인상 사이에 충분히 풍부한 상호 관계를 맺을 수 없었다면, 꿈은 그저 다르게 나왔을 것이다. 무더기로 우리에게 왔다가 잊히는 낮의 다른 사소한 인상 하나가 꿈속에서 연구서의 자리를 차지하고, 대화의 내용과 연결을 맺어, 꿈속에서 그 내용을 표현했을 것이다. 이런 운명을 맞은 것이 다른 인상이 아니라 연구서의 인상이었으니, 아마 이 인상이 연결을 맺기에

가장 알맞았을 것이다. 레싱의 헨스헨 슐라우처럼 「세상에서 돈을 가장 많이 가진 것은 부자들이다」라는 데 놀랄 필요는 없다.

그래도 우리가 이해한 바대로 심리학적으로 중요한 체험 대신 사소한 체험이 들어서는 심리학적 과정은, 우리에게 여전히 이상하고 미심쩍어 보인다. 겉보기에 잘못된 이 작업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만드는 과제는 뒤의 한 장에서 떠맡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다루는 것은 이 절차의 결과뿐이며, 이 절차를 가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꿈 분석에서 규칙적으로 되풀이되는 경험 때문이다. 그런데 이 과정은, 그 중간 단계들을 거치는 동안 전치(displacement), 이를테면 심리적 강조점의 전치가 일어나서, 처음에는 약한 강도로 충전되어 있던 표상들이 처음부터 더 강한 강도를 지닌 표상들에게서 충전을 넘겨받아 의식으로 밀고 들어갈 수 있을 만큼의 힘에 이르는 것인 듯하다. 정동을 어디에 쏟느냐나 운동 행위 일반이 문제일 때에는 이런 전치가 조금도 놀랍지 않다. 결혼하지 않고 혼자 남은 여자가 동물에게 애정을 옮기고, 독신 남자가 열정적인 수집가가 되고, 병사가 알록달록한 천 조각, 곧 자기 깃발을 피 흘려 지키고, 연애할 때 한순간 손을 맞잡는 것만으로 더없이 행복해지고, 『 오셀로 』 에서 잃어버린 손수건 한 장이 분노를 폭발시킨다는 것, 이것들은 모두 우리가 보기에 의심할 여지가 없는 심리적 전치의 예다. 그러나 같은 방식으로, 같은 기본 원칙에 따라, 무엇이 우리 의식에 이르고 무엇이 의식에서 차단될지, 말하자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지가 결정된다면, 이것은 병적이라는 인상을 주며, 깨어 있는 생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그것을 사고의 오류라고 부른다. 뒤에서 할 논의의 결과를 여기서 미리 말해 두어도 좋겠다. 우리가 꿈 전치로 알아본 심리 과정은 병적으로 교란된 과정이 아니라, 좀 더 원시적인 성질을 띤다는 점에서만 정상과 다른 과정임이 밝혀진다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꿈 내용이 하찮은 체험의 잔재를 받아들인다는 사실에서 (전치로 일어나는) 꿈 왜곡이 드러난 한 모습을 발견한다. 그리고 우리가 이 꿈 왜곡을, 두 심리적 심급 사이의 통로를 지배하는 검열이 한 일로 알아보았다는 것을 떠올릴 수 있다. 그러니 우리는 꿈 분석이 낮의 생활 속에 있는 꿈의 참되고 의미 있는 원천, 곧 그에 대한 기억이 자기 강조점을 어떤 사소한 기억으로 옮겨 놓은 원천을 규칙적으로 드러내 주리라고 기대한다. 이런 견해는 우리를 로베르트[55]의 이론과 완전히 대립하게 만들며, 이로써 그 이론은 우리에게 아무 가치도 없게 된다. 로베르트가 설명하려던 사실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사실을 가정한 것은 오해, 곧 꿈의 외현 내용 대신 꿈의 참된 뜻을 놓지 못한 데서 비롯한다. 로베르트의 학설에는 또 다른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 특별한 심리적 활동으로 낮의 기억의 「찌꺼기」를 우리 기억에서 치워 없애는 것이 정말로 꿈의 임무라면, 우리의 잠은 깨어 있는 생활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어지럽고, 더 힘겨운 수고에 바쳐져야 할 것이다. 낮 동안 받아들이는 사소한 인상, 우리가 기억을 지키려고 막아 내야 할 그런 인상의 수는 분명 무한히 많으니, 그 일을 다 해내기에는 밤이 모자랄 것이다. 사소한 인상의 망각은 우리의 심리적 힘이 능동적으로 전혀 개입하지 않아도 일어난다고 보는 편이 훨씬 더 그럴듯하다.

그러나 무언가가 우리에게, 로베르트의 생각과 더 따져 보지도 않고 작별하지는 말라고 경고한다. 우리는 낮의 사소한 인상 가운데 하나가, 그것도 바로 전날의 인상이 어김없이 꿈 내용에 한몫 끼어든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않은 채 남겨 두었다. 이 인상과 꿈의 진짜 원천 사이의 관계가 언제나 처음부터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그 관계는 꿈 작업(dream-work)이 진행되는 동안에야, 마치 의도된 전치의 목적에 이바지하려는 듯이 나중에 맺어진다. 그러므로 최근의 인상, 비록

사소하지만 최근의 것인 인상과 바로 이 방향으로 연결을 맺어야 할 어떤 필연성이 있는 것이 틀림없다. 최근의 인상은 어떤 성질 때문에 이 목적에 특히 알맞은 것이 틀림없다. 그렇지 않다면 꿈 사고가 자기 연상 계열 안의 어떤 본질적이지 않은 고리에 강조점을 옮기는 것도 그만큼 쉬울 것이다.

다음 경험들이 설명으로 이끌어 줄 것이다. 하루 동안 꿈을 자극하기에 알맞은 체험이 둘 이상 있었다면, 꿈은 그 둘에 대한 언급을 하나의 전체로 녹여 붙인다. 꿈은 **그것들로 하나의 전체를 빚어내려는 충동**을 따른다. 예를 들면 이렇다. 어느 여름 오후 나는 기차의 한 칸에 올랐다가, 서로 모르는 두 친구를 만났다. 한 사람은 영향력 있는 동료였고, 다른 한 사람은 내가 주치의로 있던 명문가의 일원이었다. 나는 두 신사를 서로 인사시켰다. 그러나 긴 여행 동안 대화의 중개자는 나였으므로, 이 사람과는 이 이야기를, 저 사람과는 저 이야기를 번갈아 나누어야 했다. 나는 동료에게, 막 개업한 우리 둘의 공통된 친구를 추천해 달라고 부탁했다. 동료는 그 젊은이가 철저하다는 것은 믿지만, 외모가 볼품없어서 지체 높은 집안에 드나들기는 어려울 거라고 대답했다. 나는 「바로 그래서 추천이 필요한 거지요」 하고 대답했다. 얼마 뒤 나는 다른 동행에게 그의 숙모의 안부를 물었다. 그 부인은 내 환자 한 사람의 어머니로, 그때 중병으로 몸져누워 있었다. 이 여행을 한 날 밤, 나는 이런 꿈을 꾸었다. 내가 도움을 청해 주었던 그 젊은 친구가 화려한 살롱에서 엄선된 사람들을 앞에 두고 세련된 사교가의 태도로 추도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 추도사는 두 번째 동행의 숙모인 그 노부인(꿈을 위해 이제 죽은 사람이 되어 있었다)에 대한 것이었다. (솔직히 고백하건대 나는 이 부인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 이렇게 내 꿈은 낮의 두 인상 사이에 연결을 찾아냈고, 그 연결을 써서 하나로 통일된 상황을 짜 맞추었다.

비슷한 경험을 많이 하고 나니, 나는 꿈 작업에는 일종의 강박이 있어서, 쓸 수 있는 꿈 자극의 원천을 모두 꿈속에서 하나의 통일된 전체로 모으도록 몰아붙인다고 결론지을 수밖에 없다.[5] 뒤에 꿈 작업을 다루는 6장 (가)에서 우리는 이렇게 한데 모으려는 충동이, 또 하나의 일차적 심리 과정인 압축(condensation)의 일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제 논의할 물음은 이것이다. 꿈이 비롯하는 원천, 우리의 분석이 이르는 원천은 언제나 최근의 (그리고 의미 있는) 사건이어야 하는가? 아니면 주관적 체험, 말하자면 심리학적으로 가치 있는 체험의 기억, 곧 생각의 사슬도 꿈 자극 노릇을 할 수 있는가? 수많은 분석에서 더없이 분명하게 나오는 대답은 이렇다. 꿈의 자극은, 낮 동안의 정신 활동으로 말하자면 최근의 것이 된 주관적 사건일 수 있다. 여기서 꿈의 원천으로 알아볼 수 있는 여러 조건을 한눈에 정리해 두는 것도 아마 엉뚱한 일은 아닐 것이다.

꿈의 원천은 다음과 같을 수 있다.

(ㄱ) 꿈에 직접 표현되는, 최근의 심리학적으로 의미 있는 체험.[6]

(ㄴ) 꿈이 하나의 전체로 합치는, 최근의 의미 있는 여러 체험.[7]

(ㄷ) 같은 때의 사소한 체험을 언급하는 것으로 꿈에 표현되는, 최근의 의미 있는 체험 하나 또는 여럿.[8]

(ㄹ) 최근의 사소한 인상을 언급하는 것으로 꿈에 언제나 표현되는, 주관적이고 의미 있는 체험(기억, 생각의 흐름).[9]

보다시피 꿈 해석에서는, 꿈의 구성 요소 하나하나가 낮의 최근 인상을 되풀이한다는 조건이 처음부터 끝까지 굳게 지켜진다. 꿈에 표현되도록 정해진 요소는 실제 꿈 자극 자체를 둘러싼 표상들에 속할 수도 있고(그것도 그 자극의 본질적 요소로든 비본질적 요소로든),

사소한 인상의 언저리에서 나올 수도 있다. 이 사소한 인상은 많든 적든 풍부한 연상을 거쳐 꿈 자극을 둘러싼 생각들과 관계를 맺게 되었다. 여기서 조건이 여러 가지인 것처럼 보이는 것은 **전치가 일어났느냐 일어나지 않았느냐에 따른 양자택일** 때문이다. 그리고 이 양자택일은, 꿈의 의학적 이론(1장 (사) 참조)에서 부분적으로 깨어 있는 뇌세포부터 완전히 깨어 있는 뇌세포까지 올라가는 계열이 그러하듯이, 꿈의 대조를 손쉽게 설명해 준다는 점에 주목해도 좋겠다.

이 계열에 관해 또 주목할 만한 것은, 심리학적으로 가치가 있지만 최근의 것이 아닌 요소(생각의 흐름, 기억)가 꿈 형성을 위해 최근의 것이지만 심리학적으로 사소한 요소로 대체될 수 있다는 점이다. 다만 다음 두 조건은 지켜져야 한다. 1. 꿈은 최근에 체험한 무언가에 대한 언급을 담고 있어야 한다. 2. 꿈 자극은 심리학적으로 가치 있는 생각의 흐름으로 남아 있어야 한다. 오직 (ㄱ)의 경우에만 같은 인상이 두 조건을 모두 채운다. 여기에, 꿈에 쓰이는 바로 그 사소한 인상들이 최근의 것인 동안에만 쓰일 수 있고 하루(길어야 며칠)만 지나도 이 쓰임새를 잃는다는 사실을 덧붙이면, 인상이 새롭다는 것 자체가 꿈 형성에 대해 어떤 심리학적 가치를 인상에 부여하며, 이 가치는 정동으로 강조된 기억이나 생각의 흐름이 지니는 가치와 얼마쯤 맞먹는다고 가정할 수밖에 없다. 꿈 형성에서 **최근** 인상이 지니는 이 가치의 근거는, 뒤에 나올 어떤 심리학적 고찰의 도움을 받아야만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10]

덧붙여, 우리의 표상과 기억이 이루는 재료에 중요한 변화가 무의식적으로, 그것도 밤사이에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에 눈길이 간다. 어떤 일이든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하룻밤 자며 생각해 보라는 권고는 분명 충분히 근거가 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꿈의

심리학에서 잠의 심리학으로 넘어왔음을 알게 된다. 이런 걸음을 내디딜 기회는 앞으로도 자주 있을 것이다.

그런데 방금 우리가 이른 결론을 무너뜨릴 듯한 반론이 하나 떠오른다. 사소한 인상이 최근의 것일 때에만 꿈에 들어갈 수 있다면, 꿈 내용에서 우리 삶의 더 이른 시기의 요소들, 곧 최근의 것이었을 때에도 슈트륌펠의 표현대로 심리적 가치가 전혀 없었고, 그러니 오래전에 잊혔어야 했으며, 그러니 새롭지도 심리학적으로 의미 있지도 않은 요소들까지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어찌 된 일인가?

신경증 환자의 정신분석이 내놓은 결과에 기대면 이 반론은 충분히 물리칠 수 있다. 해답은 이렇다. 심리적 의미를 지닌 재료 대신 사소한 재료를 들여놓는 전치 과정은 (꿈꾸기에서나 생각하기에서나) 이미 삶의 그 이른 시기에 일어났고, 그 뒤로 기억 속에 고정되었다. 원래 사소했던 그 요소들은 심리학적으로 의미 있는 재료의 가치를 얻었으므로 사실은 더 이상 사소하지 않다. 정말로 사소한 채 남아 있는 것은 결코 꿈에서 재생될 수 없다.

지금까지의 논의로 보아, 내가 사소한 꿈 자극은 없으며 따라서 무해한 꿈도 없다고 주장한다고 여겨도 옳을 것이다. 아이들의 꿈과, 어쩌면 밤중의 감각에 대한 짧은 꿈 반응을 예외로 둔다면, 나는 전적으로, 그리고 예외 없이 그렇다고 믿는다. 무엇을 꿈꾸든 그것은 심리적으로 의미 있다는 것이 뚜렷이 알아보이거나, 아니면 왜곡되어 있어서 완전히 해석한 뒤에야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데, 그러고 나면 역시 심리적 의미를 지닌 것으로 알아볼 수 있다. 꿈은 결코 하찮은 일에 매달리지 않는다. 우리는 대수롭지 않은 일로 잠을 방해받게 두지 않는다. 겉보기에 무해한 꿈도 애써 해석해 보면 음흉한 꿈으로 드러난다. 이런 표현을 써도 된다면, 그런 꿈에는 모두 「짐승의 표」가 찍혀 있다. 이것 역시 반대에 부딪히리라고 예상되는 점이고, 또 꿈

왜곡이 작동하는 모습을 보여 줄 기회가 반가우므로, 여기서 내가 모은 꿈 몇 편을 분석해 보겠다.

1. 영리하고 교양 있지만 행실로 보면 속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 곧 우리가 「잔잔한 물」이라고 부르는 부류에 속하는 한 젊은 부인이 다음과 같은 꿈을 이야기한다.

남편이 묻는다. 「피아노를 조율해야 하지 않을까?」 그녀가 대답한다. 「그럴 값어치가 없어요. 해머에도 가죽을 새로 입혀야 할 테니까요.」 이 꿈은 전날 실제로 있었던 일을 되풀이한다. 남편은 정말로 그런 질문을 했고, 그녀는 비슷한 대답을 했다. 그러면 그녀가 그것을 꿈꾼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그녀는 피아노에 대해, 나쁜 소리를 내는 역겨운 낡은 상자라느니, 남편이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물건 가운데 하나라느니[11] 운운하며 이야기하지만, 진짜 풀이의 열쇠는 그럴 값어치가 없어요라는 말에 있다. 이 말은 전날 한 여자 친구를 찾아갔을 때 나왔다. 거기서 외투를 벗으라는 권유를 받았지만, 그녀는 「그럴 값어치가 없어요. 금방 가야 하거든요」 하고 사양했다. 여기서 나는, 어제 분석하던 중에 그녀가 단추 하나가 풀려 있던 외투를 갑자기 붙잡던 일을 떠올린다. 그러니 그녀는 이렇게 말한 것과 같다. 「이쪽은 보지 마세요. 그럴 값어치가 없어요.」 이렇게 해서 「상자〔box〕」는 「궤짝〔chest〕」으로, 곧 가슴 궤짝〔breast-box〕(「흉부〔bust〕」)로 발전하고, 꿈의 해석은 그녀가 자기 몸매에 불만을 품었던 신체 발달의 한 시기로 곧장 이어진다. 「역겨운」과 「나쁜 소리」를 고려에 넣고, 암시와 꿈에서 여성 몸의 작은 두 반구가 큰 반구들의 자리를 — 대리물로서, 또 대립물로서 — 얼마나 자주 차지하는지 떠올려 보면, 해석은 더 이른 시기로도 이어진다.

II. 여기서 이 꿈을 잠시 끊고, 한 젊은 남자의 짧고 무해한 꿈 하나를 끼워 넣어도 좋겠다. 그는 겨울 외투를 다시 입고 있었는데, 그것이

끔찍했다는 꿈을 꾸었다. 이 꿈의 계기는 겉으로 보기에 최근 다시 찾아온 추위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꿈의 짧은 두 부분이 잘 들어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 추울 때 무겁거나 두꺼운 외투를 입는 데 무엇이 「끔찍하다」는 말인가? 이 꿈의 무해함에는 안된 일이지만, 분석에서 처음 떠오른 생각은, 전날 한 부인이 자기 막내는 콘돔이 터지는 바람에 생겼다고 그에게 몰래 털어놓았던 기억이다. 그는 이제 이 실마리를 따라 자기 생각을 다시 짜 맞춘다. 얇은 콘돔은 위험하고, 두꺼운 콘돔은 좋지 않다. 콘돔은 「외투」(Überzieher〔위에 덧씌우는 것〕)다. 무언가 위에 씌우는 물건이기 때문이다. Ueberzieher는 독일어에서 얇은 외투를 가리키는 이름이기도 하다. 그 부인이 이야기한 것과 같은 일은 결혼하지 않은 남자에게는 정말 「끔찍한」 일일 것이다. — 이제 무해한 꿈을 꾼 다른 한 사람에게로 돌아가자.

III. 그녀는 촛대에 초를 꽂는다. 그런데 초가 부러져 있어서 똑바로 서지 않는다. 학교 여자아이들이 그녀더러 서툴다고 한다. 젊은 부인은 자기 잘못이 아니라고 대답한다.

여기서도 꿈에는 실제의 계기가 있다. 전날 그녀는 실제로 촛대에 초를 꽂았다. 다만 그 초는 부러져 있지 않았다. 여기에는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상징 표현이 쓰였다. 초는 여성 성기를 자극하는 물건이다. 초가 부러져 있어서 똑바로 서지 않는다는 것은 남자 쪽의 성 불능을 뜻한다(「자기 잘못이 아니다」). 그러나 조심스럽게 자랐고 온갖 외설과는 거리가 먼 이 젊은 여성이 초를 이렇게 쓴다는 것을 알고 있을까? 그녀는 마침 이 지식을 어떻게 얻었는지 이야기할 수 있다. 라인강에서 배를 타고 가는데, 대학생들을 태운 다른 배 한 척이 지나간다. 학생들은 신이 나서 노래를, 아니 고함을 지르고 있다. 「스웨덴 여왕이 닫힌 덧문과 아폴론의 초로…….」

그녀는 마지막 낱말을 듣지 못했거나 알아듣지 못한다. 그래서 남편에게 필요한 설명을 해 달라고 한다. 꿈 내용에서 이 노랫말은, 그녀가 언젠가 여자 기숙 학교에서 서툴게 해낸 심부름에 대한 무해한 기억으로 대체되는데, 이는 닫힌 덧문이라는 공통 요소를 거쳐 일어난다. 자위라는 주제와 성 불능이라는 주제의 연관은 충분히 분명하다. 잠재적 꿈 내용 속의 「아폴론」은 이 꿈을, 처녀신 팔라스가 등장했던 그 전의 꿈과 이어 준다. 이 모든 것은 분명 무해하지 않다.

IV. 꿈에서 꿈꾼 사람의 실제 사정에 관한 결론을 끌어내는 일이 너무 쉬워 보이지 않도록, 같은 사람에게서 나온, 역시 무해해 보이는 꿈 하나를 덧붙이겠다. 「꿈에서 저는 무언가를 했는데요,」 그녀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건 낮에 실제로 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작은 트렁크에 책을 너무 가득 채워서 닫기가 힘들었지요. 꿈은 실제로 있었던 일과 꼭 같았어요.」 여기서는 꿈을 이야기하는 당사자가 꿈과 현실이 일치한다는 데 가장 큰 무게를 둔다. 꿈에 대한 이런 비판과 논평은 모두, 깨어 있을 때의 생각 속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는 해도, 규칙적으로 잠재적 꿈 내용에 속한다. 뒤의 예들이 이것을 더 보여 줄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듣는 것은, 꿈이 이야기하는 일이 낮 동안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이다. 이 꿈을 해석하는 데 영어의 도움을 빌리자는 생각에 어떻게 이르렀는지 이야기하자면 너무 멀리 벗어날 것이다. 여기서는, 이번에도 더는 아무것도 들어갈 수 없을 만큼 가득 채워진 작은 상자〔box〕(4장의 상자 속 죽은 아이 꿈 참조)가 문제라는 것만 말해 두자. 이번에는 음흉한 것이 조금도 없다.

이 「무해한」 꿈들에서는 모두, 검열을 발동시키는 동기로서 성적 요인이 두드러지게 드러난다. 그러나 이것은 으뜸가는 중요성을 지닌 문제이므로 뒤로 미루어야 한다.

(나) 꿈의 원천으로서의 유년기 체험

꿈 내용의 셋째 특성으로 우리는, 깨어 있을 때의 기억으로는 마음대로 불러낼 수 없는 듯한 우리 삶의 가장 이른 시기의 인상이 꿈에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로베르트를 뺀) 모든 저자에게서 인용한 바 있다. 물론 이런 일이 얼마나 자주, 또 얼마나 드물게 일어나는지는 판단하기 어렵다. 깨어난 뒤에는 꿈의 해당 요소가 어디서 왔는지 알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루는 것이 어린 시절의 인상이라는 증명은 객관적으로 얻어 내야 하는데, 그러는 데 필요한 조건이 마침 한데 맞아떨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A. 모리[48]는 특히 결정적인 예로 한 남자의 이야기를 전한다. 그 남자는 스무 해 만에 자기가 태어난 곳을 찾아가기로 했다. 떠나기 전날 밤 그는 꿈을 꾼다. 꿈속에서 그는 전혀 낯선 고장에 있고, 거기서 낯선 남자를 만나 이야기를 나눈다. 그 뒤 고향에 돌아간 그는 그 낯선 고장이 고향 마을 근처에 실제로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꿈속의 낯선 남자는 그곳에 사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친구로 밝혀졌다. 이는 그가 어린 시절에 그 남자와 그 고장을 둘 다 보았다는 결정적인 증거임에 틀림없다. 덧붙이자면 이 꿈은 조바심 꿈으로 해석해야 한다. 저녁 음악회 표를 주머니에 넣어 다니는 처녀의 꿈(4장)이나, 아버지에게서 아모 소풍 약속을 받은 아이의 꿈 따위와 마찬가지다. 왜 하필 어린 시절의 이 인상이 꿈꾼 사람에게 재생되는지, 그 동기는 물론 분석 없이는 밝혀낼 수 없다.

내 강의를 듣는 사람 가운데 하나는 자기 꿈은 왜곡되는 일이 아주 드물다고 자랑하곤 했는데, 얼마 전 꿈에서 예전 가정교사가 자기 유모와 한 침대에 있는 것을 보았다고 내게 이야기했다. 유모는 그가 열한 살이 될 때까지 그 집에 있던 사람이었다. 이 장면이 어디였는지는 꿈속에서 떠오르지 않는다. 그는 몹시 궁금해져서 형에게 이 꿈 이야기를 했고,

형은 웃으면서 그것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확인해 주었다. 형은 그때 여섯 살이었으므로 그 일을 아주 잘 기억한다고 했다. 두 연인은 밤에 관계를 맺을 형편이 되면 으레 큰아이인 형에게 맥주를 먹여 취하게 만들곤 했다. 유모와 같은 방에서 자던 작은아이, 그러니까 당시 세 살이던 우리의 꿈꾼 사람은 방해가 된다고 여겨지지 않았다.

꿈 해석의 도움을 빌리지 않고도 꿈에 어린 시절의 요소가 들어 있다고 확실히 밝힐 수 있는 경우가 또 하나 있다. 그 꿈이 이른바 **평생 되풀이되는** 꿈, 곧 어린 시절에 처음 꾸고 나서 어른이 된 뒤에도 거듭거듭 다시 나타나는 꿈일 때다. 나 자신은 그런 평생 되풀이되는 꿈을 겪어 본 적이 없지만, 이미 알려진 예들에 이런 종류의 예를 몇 가지 덧붙여도 좋겠다. 서른 줄의 한 의사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오늘날까지 노란 사자 한 마리가 자기 꿈 생활에 자주 나타났다고 내게 이야기한다. 그는 이 사자에 관해 아주 자세한 것까지 일러 줄 수 있다. 꿈으로만 알던 이 사자의 실물이 어느 날 오래 잊혔던 도자기 물건으로 발견되었고, 그때 이 젊은이는 그것이 아주 어렸을 때 자기가 가장 좋아하던 장난감이었다는 사실을 어머니에게서 들었다. 그 자신은 더는 기억하지 못하는 사실이었다.

이제 외현적 꿈 내용에서 눈을 돌려 분석을 거쳐야만 드러나는 꿈 사고로 가 보면, 내용만 보아서는 그런 것을 짐작조차 못 했을 꿈에서도 어린 시절 체험이 함께 작용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런 꿈의 특히 재미있고 교훈적인 예를 나는 저 「노란 사자」의 주인공인 존경하는 동료에게서 얻었다. 그는 난센의 극지 탐험기를 읽은 뒤, 얼음 벌판에서 그 대담한 탐험가가 호소하는 허혈을 전기로 치료해 주는 꿈을 꾸었다! 이 꿈을 분석하다가 그는 어린 시절의 일화 하나를 떠올렸는데, 그 일화가 없으면 이 꿈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채로 남는다. 서너 살 난 아이였을 때 그는 어른들이 탐험 여행에 관해 나누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가, 이윽고 아빠에게 탐험이란 게 중병이냐고 물었다. 그는 분명히 「trips」〔여행〕를 「rips」〔찢어짐〕와 혼동했던 것이다. 형제자매들이 놀려 대는 바람에 그는 이 창피한 경험을 끝내 잊을 수 없었다.

시클라멘속(屬)에 관한 연구서 꿈을 분석하다가, 내가 다섯 살 난 꼬마였을 때 아버지가 채색 도판으로 꾸민 책 한 권을 내가 망가뜨리게 해 주었다는, 어린 시절부터 간직해 온 기억에 부딪힐 때도 사정은 아주 비슷하다. 이 기억이 정말로 꿈 내용을 짜는 데 한몫했는지 의심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분석 과정이 나중에야 그 연관을 만들어 냈다고 넌지시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토록 풍부하고 복잡하게 얽힌 연상의 끈이 내 설명이 옳음을 보증한다. 시클라멘 — 가장 좋아하는 꽃 — 가장 좋아하는 음식 — 아티초크. 아티초크처럼 한 잎 한 잎 뜯어 나누다(그 무렵 중국 제국의 분할을 두고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듣던 말이다) — 식물 표본집의 책벌레, 그것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책이다. 덧붙여 말해 두자면, 여기서 밝히지 않은 이 꿈의 궁극적인 의미는 이 어린 시절 장면의 내용과 더없이 긴밀하게 이어져 있다.

또 다른 일련의 꿈에서는, 꿈을 불러일으켰고 꿈이 곧 그 성취로 밝혀지는 소원 자체가 어린 시절에 생겨났다는 것을 분석을 통해 알게 된다. 그러다 보면 마침내 우리는 아이가 그 모든 충동을 지닌 채 꿈속에서 계속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놀라게 된다.

이제 이미 교훈을 준 바 있는 꿈 하나의 해석을 이어 가겠다. 친구 R.이 나의 삼촌인 꿈(4장) 말이다. 우리는 이 꿈의 해석을, 교수로 임명되고 싶다는 소원 동기가 손에 잡힐 듯 드러날 만큼은 밀고 나갔고, 꿈속에서 친구 R.에게 보인 애정은 꿈 사고 속에서 두 동료를 헐뜯은 것에 맞서 반대와 반항으로 지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것은 나 자신의 꿈이었으므로, 그때 얻은 해답에 내 감정이 온전히 만족하지

못했다고 밝히면서 분석을 이어 가도 좋을 것이다. 꿈 사고 속에서 그토록 푸대접받는 이 동료들에 대해, 깨어 있을 때라면 내가 전혀 다른 말로 의견을 밝혔으리라는 것을 나는 안다. 임명 문제에서 그들과 같은 운명을 겪고 싶지 않다는 소원의 힘은, 꿈속의 평가와 깨어 있을 때의 평가 사이의 어긋남을 설명하기에는 너무 약해 보였다. 새 직함으로 불리고 싶은 내 욕망이 그렇게까지 강하다면, 그것은 병적인 야심의 증거가 된다. 나는 내게 그런 야심이 있는 줄 몰랐고, 그런 것은 내 생각과는 거리가 멀다고 믿는다. 나를 안다고 생각하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할지는 모르겠다. 어쩌면 나는 정말로 야심가였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렇다 해도 내 야심은 벌써 오래전에 원외 교수(조교수)라는 직함과 지위가 아닌 다른 대상으로 옮겨 갔다.

그렇다면 꿈이 내게 덮어씌운 이 야심은 어디서 온 것일까? 여기서 나는 어린 시절에 자주 들은 이야기 하나를 떠올린다. 내가 태어났을 때 늙은 농사꾼 아낙 하나가 행복에 겨운 어머니에게(나는 어머니의 첫아이였다) 위대한 인물을 세상에 내놓았다고 예언했다는 이야기다. 이런 예언은 아주 흔할 것이 틀림없다. 기대에 부푼 행복한 어머니는 그토록 많고, 이 세상에서 힘을 잃은 탓에 미래로 눈을 돌린 늙은 농사꾼 아낙도 그토록 많으니 말이다. 그렇게 예언한다고 예언자가 손해 볼 일도 없었을 것이다. 위대함을 향한 내 갈망이 이런 데서 비롯한 것일까? 그러나 여기서 어린 시절 후반의 인상 하나가 떠오르는데, 이것이 설명으로는 더 나을 것이다. 내가 열한 살인가 열두 살 때 부모님이 나를 자주 데려가던 프라터[12]의 한 음식점에서 있었던 어느 저녁의 일이다. 우리는, 이 탁자 저 탁자를 돌아다니며 누가 무슨 주제를 주든 즉석에서 시구를 지어 읊는 사내 하나를 눈여겨보았다. 나는 이 시인을 우리 탁자로 모셔 오라는 심부름을 갔고, 그는 이 전갈을 고마워했다. 그는 주제를 묻기도 전에 나에 관한 운문 몇 줄을 뚝딱 지어 읊더니, 자기

영감을 믿어도 된다면 나는 아마 언젠가 「장관」 이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 두 번째 예언이 남긴 인상을 나는 지금도 또렷이 기억한다. 그때는 시민 내각[13]을 뽑던 무렵이었다. 아버지는 얼마 전에 내각에 뽑힌 사람들, 곧 헤르프스트, 기스크라, 웅거, 베르거 등의 초상을 집에 가져왔고, 우리는 이 신사들을 기려 그 초상에 불을 밝혀 두었다. 그 가운데는 유대인도 몇 사람 있었다. 그러니 부지런한 유대인 학생이라면 누구나 장관감이었던 셈이다. 대학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내가 법학을 공부하려다가 마지막 순간에야 계획을 바꾼 일조차 그 시절의 인상과 관련이 있음이 틀림없다. 의사에게는 장관이 되는 길이 어떤 경우에도 열려 있지 않다. 그럼 내 꿈으로 돌아가자! 이제야 알 것 같다. 이 꿈은 나를 음울한 현재에서 시민 내각을 뽑던 그 희망찬 시절로 옮겨 놓고, 그 시절의 내 소원을 한껏 이루어 준다. 존경할 만하고 학식 높은 두 동료를, 그들이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한 사람은 얼간이로, 다른 한 사람은 범죄자로 그토록 푸대접하면서 — 그렇게 하면서 나는 마치 내가 교육부 장관이라도 된 듯이 행동한다. 나는 그의 자리에 나 자신을 앉히는 것이다. 나는 각하에게 얼마나 철저하게 복수하고 있는가! 그는 나를 원외 교수로 임명하기를 거부하고, 나는 그 앙갚음으로 꿈속에서 그의 자리에 나 자신을 앉힌다.

또 다른 사례는, 꿈을 움직이는 소원이 현재의 것이라 해도 그 소원이 어린 시절의 기억에서 큰 힘을 얻는다는 사실을 입증해 준다. 로마에 가고 싶은 동경에 바탕을 둔 일련의 꿈을 두고 하는 말이다. 나는 이 동경을 앞으로도 오랫동안 꿈으로나 채워야 할 것 같다. 내가 여행에 쓸 수 있는 철에는 건강을 생각해서 로마에 머무는 것을 피해야 하기 때문이다.[14] 이를테면 나는 한번은 기차 칸 창문으로 테베레강과 산탄젤로 다리를 바라보는 꿈을 꾸었다. 그러다 기차가 떠나고, 나는 그 도시에 아예 들어가 본 적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 꿈에서 본 그 경치는

전날 어느 환자의 응접실에서 지나가며 흘깃 본 판화를 본뜬 것이었다. 또 한번은 누군가 나를 언덕 위로 데리고 가서 안개에 반쯤 싸인 로마를 보여 주는데, 로마가 워낙 멀리 있어서 나는 그 광경이 그토록 또렷한 데 놀란다. 이 꿈의 내용은 너무 풍부해서 여기서 다 전할 수는 없다. 「약속의 땅을 멀리서 바라보다」라는 모티프는 그 속에서 쉽게 알아볼 수 있다. 그 도시는 내가 처음에 안개 속에서 본 뤼베크이고, 언덕의 원형은 글라이헨베르크다. 세 번째 꿈에서 나는, 꿈이 일러 주는 바로는, 마침내 로마에 와 있다. 그런데 실망스럽게도 내 눈에 보이는 풍경은 도시다운 데라고는 전혀 없다. 검은 물이 흐르는 작은 강, 그 한쪽에는 검은 바위들, 다른 쪽에는 커다란 흰 꽃들. 어떤 추커 씨가 눈에 띄고(나와는 그저 안면만 있는 사이다), 나는 그에게 도시로 들어가는 길을 가르쳐 달라고 부탁하기로 마음먹는다. 깨어 있을 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도시를 내가 꿈속에서 보려고 헛되이 애쓰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 풍경을 요소별로 풀어 보면, 흰 꽃들은 내가 아는 라벤나를 가리킨다. 라벤나는 적어도 한동안은 이탈리아의 수도라는 으뜸 자리를 로마에게서 빼앗았던 도시다. 라벤나 주변의 늪지에서 우리는 검은 웅덩이 한가운데 핀 더없이 아름다운 수련을 보았다. 꿈은 그 수련을 우리 아우스제의 수선화처럼 풀밭에서 자라게 한다. 라벤나에서는 수련을 물에서 건져 내기가 그토록 성가신 일이었기 때문이다. 물가에 바짝 붙은 그 검은 바위는 카를스바트의 테플 계곡을 생생하게 떠올리게 한다. 이제 「카를스바트」 덕분에, 내가 추커 씨에게 길을 묻는다는 기묘한 사정이 설명된다. 이 꿈을 짜 맞춘 재료 속에는, 깊고 때로는 쓰디쓴 세상살이의 지혜를 그토록 많이 감추고 있어서 우리가 대화에서나 편지에서나 즐겨 인용하는 저 재미있는 유대인 일화도 두 편 나타난다. 하나는 「체질」 이야기다. 가난한 유대인 하나가 표도 없이 카를스바트행 급행열차에 몰래 올라탔다가 붙잡히고, 차장이 표 검사를 할 때마다 점점 더 험한

꼴을 당하는데, 그 비참한 여정 중에 어느 역에서 만난 친구가 어디로 가느냐고 묻자 이렇게 대답한다는 이야기다. 「카를스바트까지 가지. 내 체질이 버텨 준다면 말이야.」 기억 속에서 이것과 이어져 있는 또 다른 이야기는, 프랑스어를 모르는 유대인 하나가 파리에 가거든 리슐리외 거리로 가는 길을 물어보라는 분명한 지시를 받는다는 것이다. 파리는 여러 해 동안 나 자신의 동경의 대상이었다. 처음으로 파리의 포석을 밟았을 때 나는 크나큰 만족을 느꼈고, 그 만족을 다른 소원들의 성취에도 이르리라는 보증으로 여겼다. 길을 묻는 것 역시 로마를 곧바로 가리키는 암시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니까. 게다가 추커(Zucker, 「설탕」이라는 뜻)라는 이름은 다시 카를스바트를 가리킨다. 체질성 질환인 당뇨병(Zuckerkrankheit, 「설탕병」)을 앓는 사람이면 누구나 우리가 그리로 보내니 말이다. 이 꿈의 계기는 부활절에 프라하에서 만나자는 베를린 친구의 제안이었다. 내가 그와 의논해야 했던 일들 속에도 설탕과 당뇨병에 대한 암시가 더 있었다.

방금 말한 꿈 바로 뒤에 꾼 네 번째 꿈은 나를 다시 로마로 데려간다. 나는 눈앞에 길모퉁이 하나를 보는데, 거기 독일어 벽보가 그토록 많이 붙어 있는 것을 보고 놀란다. 전날 나는 친구에게, 앞일을 내다보기라도 한 듯, 프라하는 독일인 여행자에게 그리 편안한 곳이 못 될 것 같다고 편지에 썼다. 그러니 이 꿈은 그를 보헤미아의 도시가 아니라 로마에서 만나고 싶다는 소원과, 아마 학생 시절에 생겨났을, 프라하에서 독일어가 좀 더 너그럽게 받아들여졌으면 하는 욕망을 동시에 표현한 것이다. 게다가 나는 어린 시절 처음 세 해 동안은 체코어를 알아들었을 것이 틀림없다. 슬라브인이 사는 모라비아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기 때문이다. 열일곱 살 때 들은 체코어 동요 하나는 애써 외우지도 않았는데 기억에 깊이 새겨져서, 무슨 뜻인지 전혀 모르면서도

오늘날까지 그대로 욀 수 있다. 그러니 이 꿈들에도 내 생애 첫 몇 해의 인상과 맺은 갖가지 관계가 모자라지 않는 셈이다.

트라시메노 호를 비롯해 여러 곳을 거친 지난번 이탈리아 여행에서, 나는 마침내 영원의 도시를 향한 내 동경이 젊은 날의 인상에서 어떤 힘을 얻었는지 알아냈다. 테베레강을 보고 나서, 로마를 80킬로미터 앞둔 곳에서 쓰라린 감정을 안고 발길을 돌린 뒤의 일이었다. 이듬해에는 로마를 거쳐 나폴리로 가 보자는 계획을 막 꺼내던 참이었는데, 우리 고전 작가 가운데 누군가의 글에서 읽었음이 틀림없는 이런 문장이 떠올랐다. 「로마로 갈 계획을 세운 뒤 둘 가운데 누가 더 조바심치며 방 안을 서성였는지는 의문이다 — 교감 빙켈만인가, 위대한 장군 한니발인가.」 나 자신이 한니발의 발자취를 따라 걸었던 것이다. 그처럼 나도 로마를 보지 못할 운명이었고, 한니발 역시 온 세상이 그가 로마로 오리라 기대하던 때에 캄파니아로 가 버렸다. 이렇게까지 나와 닮은 데가 생긴 한니발은 김나지움 시절 내가 가장 좋아하던 영웅이었다. 또래의 많은 소년들처럼 나도 포에니 전쟁에서 로마인이 아니라 카르타고인에게 마음을 주었다. 그러다 마침내 이민족에 속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깨닫고, 급우들 사이의 반유대주의 정서 때문에 분명한 태도를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되자, 셈족 장군의 모습은 내 눈에 한층 더 커 보였다. 젊은 나에게 한니발과 로마는 유대인의 끈질김과 가톨릭교회의 조직 사이의 대립을 상징했다. 그 뒤로 반유대주의 운동이 우리의 감정 생활에서 지니게 된 의미는 그 이전 시절의 생각과 인상을 붙박아 두는 데 한몫했다. 그리하여 로마에 가고 싶다는 소원은 내 꿈 생활에서, 뜨겁게 품어 온 여러 소원을 덮어 가리는 덮개이자 상징이 되었다. 그 소원들은 실현하려면 저 포에니의 장군처럼 끈기 있게 한눈팔지 않고 매달릴 만한 것들이며, 그 성취는 로마에

들어가겠다던 한니발 필생의 소원만큼이나 때로 운이 따르지 않는 듯 보인다.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나는, 오늘날까지도 이 모든 감정과 꿈속에서 여전히 힘을 떨치는 소년 시절의 체험 하나에 부딪힌다. 아버지가 산책길에 나를 데리고 다니며,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세상일에 대한 당신의 견해를 털어놓기 시작한 것은 내가 열 살이나 열두 살쯤 되었을 때였을 것이다. 그렇게 한번은, 내가 당신보다 얼마나 더 좋은 시절에 태어났는지 보여 주려고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내가 젊었을 때 어느 토요일에 네가 태어난 마을의 거리를 걷고 있었단다. 옷을 잘 차려입고 새 털모자를 쓰고 있었지. 그런데 그리스도교인 하나가 다가오더니 내 모자를 한 방에 쳐서 진창에 떨어뜨리고는 『유대인, 인도에서 내려가!』 하고 소리치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는 어떻게 했어?」 「차도로 내려가서 모자를 주웠지.」 태연한 대답이었다. 꼬마인 내 손을 잡고 가던 그 크고 건장한 남자가 한 일치고는 영웅답게 보이지 않았다. 나는 마음에 들지 않는 이 장면을, 내 감정에 더 잘 맞는 다른 장면과 맞세워 보았다. 한니발의 아버지 하밀카르[15] 바르카가 집 안 제단 앞에서, 로마인에게 원수를 갚겠다는 맹세를 어린 아들에게 시킨 장면이다. 그때부터 한니발은 내 공상 속에 자리를 잡았다.

카르타고 장군을 향한 내 열광은 어린 시절 속으로 더 거슬러 올라가 추적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 아마 이미 형성된 감정 관계가 새로운 매개체로 전이된 것이리라. 글을 깨친 뒤 어린 내 손에 들어온 첫 책 가운데 하나가 티에르의 『통령정부와 제정(Konsulat und Kaiserreich)』이었다. 나는 나무 병정들의 납작한 등에 제국 원수들의 이름을 적은 작은 딱지를 붙였던 것, 그리고 그때 이미 마세나(유대인 이름으로는 메나세)가 내가 드러내 놓고 가장 좋아하는 인물이었던 것을 기억한다. 나폴레옹 자신도 알프스를 넘는

일에서 한니발의 뒤를 따른다. 그리고 어쩌면 이 군인다운 이상이 자라난 내력은 어린 시절 속으로 더 거슬러 올라가, 생애 첫 세 해 동안 나보다 한 살 많은 사내아이와 때로는 사이좋게, 때로는 적대적으로 어울렸던 일이 두 놀이 친구 가운데 약한 쪽에게 틀림없이 불러일으켰을 소원에까지 이를 수 있을지도 모른다.

꿈의 분석에 깊이 들어갈수록, 잠재적 꿈 내용에서 꿈의 원천 노릇을 하는 어린 시절 체험의 자취를 그만큼 더 자주 밟게 된다.

우리는 꿈이 체험을 재생해서, 그 체험이 줄어들지도 바뀌지도 않은 채 그것만으로 외현적 꿈 내용을 이루는 일은 아주 드물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1장 (나)). 그래도 이 과정을 보여 주는 확실한 예가 몇 가지 보고되어 있고, 나도 새로운 예를 몇 가지 덧붙일 수 있는데, 이것들 역시 유년기 장면과 관련된다. 내 환자 가운데 한 사람의 경우, 한번은 꿈이 어떤 성적인 사건을 거의 왜곡하지 않고 재생했는데, 그것이 정확한 회상이라는 것은 곧바로 알아볼 수 있었다. 사실 그 기억은 깨어 있는 생활에서 사라진 적이 없었지만 몹시 흐려져 있었고, 그것이 되살아난 것은 그에 앞선 분석 작업의 결과였다. 꿈꾼 사람은 열두 살 때 병으로 누워 있는 급우를 찾아간 적이 있었는데, 그 급우가 침대에서 몸을 움직이다가, 아마 그저 우연이었겠지만, 몸을 드러냈다. 그 성기를 보자 그는 일종의 강박에 사로잡혀 자기도 몸을 드러내고 상대 소년의 음경을 붙잡았다. 그러나 상대 소년이 놀라고 분개한 눈으로 그를 쳐다보자, 그는 당황해서 손을 놓았다. 스물세 해 뒤에 한 꿈이 그 장면에서 일어난 감정의 세부까지 빠짐없이 갖추어 이 장면을 되풀이했다. 다만 꿈꾼 사람이 능동적인 역할 대신 수동적인 역할을 맡았고, 급우라는 인물이 현재에 속하는 인물로 바뀌었다는 점만은 달랐다.

물론 대개는 어린 시절의 장면이 외현적 꿈 내용 속에 암시로만 표현되어 있어서, 해석을 거쳐 꿈에서 끄집어내야 한다. 이런 종류의 예는 들어 보아야 그다지 설득력이 있을 수 없다. 그것이 어린 시절의 체험이라는 보증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그 체험들이 삶의 더 이른 시기에 속한다면, 우리 기억은 그것들을 더는 알아보지 못한다. 그런 어린 시절의 체험이 대체로 꿈속에 들어 있다는 결론을 정당화하는 근거는 정신분석 작업에서 드러나는 수많은 요인에 있으며, 그 요인들은 전체로 놓고 보면 충분히 믿을 만해 보인다. 그러나 꿈 해석을 위해, 꿈이 어린 시절의 체험을 가리키는 이런 대목들을 그 맥락에서 떼어 내면 아마 별다른 인상을 주지 못할 것이다. 더구나 나는 해석의 근거가 되는 재료를 결코 다 내놓지 않는다. 그렇다고 이 때문에 몇 가지 예를 드는 일을 그만두지는 않겠다.

I. 다음 꿈은 또 다른 여성 환자의 것이다. 그녀는 온갖 기계가 있는 큰 방에 있는데, 짐작하기로는 아마 정형외과 시설인 것 같다. 그녀는 내가 시간이 없다는 말, 그리고 자기가 다른 다섯 사람과 함께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말을 듣는다. 그러나 그녀는 저항하며, 자기 몫으로 정해진 침대에 — 아니면 그게 무엇이든 — 눕지 않으려 한다. 그녀는 구석에 서서 내가 「그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하기를 기다린다. 그사이 다른 사람들은 그게 다 그녀가 어리석은 탓이라며 비웃는다. 그와 동시에 작은 네모를 많이 만들라는 요구를 받는 것 같기도 하다.

이 꿈 내용의 앞부분은 치료에 대한 암시이자 나에 대한 전이(transference)다. 뒷부분에는 어린 시절 장면에 대한 암시가 들어 있다. 두 부분은 침대라는 언급으로 이어진다. 정형외과 시설은, 치료를 그 기간과 성격에서 정형외과 치료에 견주었던 내 이야기 하나를 가리킨다. 치료를 시작할 때 나는 이 환자에게 당분간은 쓸 시간이 별로 없지만 나중에는 날마다 꼬박 한 시간을 바치겠다고 말해야 했다. 이

말이 환자 안에서 해묵은 예민함을 일깨웠는데, 이 예민함은 장차 히스테리 환자가 될 아이들의 주된 특징이다. 그런 아이들은 사랑을 바라는 욕망이 채워질 줄 모른다. 내 환자는 여섯 남매의 막내였고 (그래서 「다른 다섯 사람과 함께」 다), 막내인 만큼 아버지의 귀여움을 독차지했다. 그런데도 그녀는 사랑하는 아버지가 자기에게 시간과 관심을 너무 적게 쏟는다고 느꼈던 것 같다. 내가 「그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하기를 그녀가 기다린다는 세부는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재단사 집 견습 소년이 옷을 가져오자 그녀는 그에게 옷값을 치렀다. 그런 다음 그녀는 남편에게, 그 소년이 돈을 잃어버리면 자기가 돈을 또 내야 하느냐고 물었다. 남편은 아내를 놀리려고 「그렇다」 고 대답했고 (꿈속의 놀림), 그녀는 묻고 또 물으며 남편이 「그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하기를 기다렸다. 이제 잠재적 꿈 내용의 생각은 이렇게 풀이할 수 있다. 내가 그녀에게 두 배의 시간을 쏟으면, 그녀는 내게 두 배의 돈을 치러야 할까? 이것은 stingy or filthy〔인색하거나 더러운〕 생각이다. (어린 시절의 불결함은 꿈에서 흔히 돈 욕심으로 대체된다. 여기서는 filthy라는 낱말이 다리 노릇을 한다.) 내가 말해 줄 때까지 기다린다 운운하는 대목이 모두 「filthy」 라는 낱말을 꿈이 에둘러 표현한 것이라면, 구석에 서 있기와 침대에 눕지 않기도 이와 들어맞는다. 이 두 특징은 어린 시절 한 장면을 이루는 부분들이기 때문이다. 그 장면에서 그녀는 잠자리를 더럽혔고, 벌로 구석에 세워져 아빠가 이제 더는 자기를 사랑하지 않을 거라는 경고를 들었으며, 형제자매들은 그녀를 비웃었다, 등등. 조그만 네모들은 환자의 어린 조카딸과 관련된다. 조카딸은 그녀에게, 내 기억이 맞다면 아홉 칸이었을 텐데, 네모 칸들에 숫자를 써넣어 어느 방향으로 더해도 열다섯이 되게 하는 셈 재주를 보여 주었다.

II. 다음은 한 남자의 꿈이다. 그는 두 소년이 서로 맞붙어 싸우는 것을 보는데, 주위에 널린 연장으로 미루어 통장이 집 아이들이라고 결론짓는다.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넘어뜨렸는데, 쓰러진 아이는 푸른 보석이 박힌 귀고리를 하고 있다. 그는 잘못한 녀석을 혼내 주려고 지팡이를 치켜들고 급히 뒤쫓는다. 녀석은 나무 울타리에 기대 서 있는 한 여자에게로, 마치 그 여자가 제 어머니라도 되는 듯이 피신한다. 여자는 날품팔이의 아내인데, 꿈을 꾸고 있는 남자에게 등을 돌린다. 마침내 여자가 돌아서서 끔찍한 눈길로 그를 노려보자, 그는 겁에 질려 달아난다. 여자의 눈에서는 아래 눈꺼풀의 붉은 살이 도드라져 보이는 듯하다.

이 꿈은 전날의 사소한 일들을 넉넉히 이용했다. 전날 그는 실제로 거리에서 두 소년을 보았는데,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넘어뜨렸다. 싸움을 말리려고 그가 서둘러 다가가자 두 아이는 모두 달아났다. 통장이 집 아이들: 이것은 나중에 꾼 꿈으로만 설명되는데, 그 꿈을 분석하면서 그는 「통 밑바닥을 쳐서 빼 버리다」라는 표현을 썼다. 푸른 보석이 박힌 귀고리는 그가 관찰한 바로는 주로 매춘부들이 한다. 또 두 소년에 관한 흔한 속요 한 구절이 떠오른다. 「다른 한 녀석, 그 이름은 메리였다네」(곧 그 소년은 여자아이였다는 것이다). 서 있는 여자: 두 소년의 장면이 있은 뒤 그는 도나우강 둑을 산책했는데, 혼자인 틈을 타서 나무 울타리에 대고 소변을 보았다. 조금 더 걸어가는데, 점잖게 차려입은 나이 지긋한 부인이 그에게 아주 상냥하게 미소를 짓더니 자기 주소가 적힌 명함을 건네주려 했다.

꿈속에서 여자는 그가 소변을 볼 때처럼 서 있었으므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소변을 보는 여자이며, 이로써 「끔찍한 눈길」과 붉은 살이 도드라진 것이 설명된다. 이 붉은 살은 쪼그려 앉을 때 벌어지는 성기를 가리킬 수밖에 없다. 그는 어린 시절에 성기를 본 적이 있었고, 그것은 나중의 회상 속에서 「궂은살」로, 그리고 「상처」로

나타났다. 이 꿈은 꿈꾼 사람이 어린 소년이었을 때 어린 여자아이들의 성기를 볼 기회가 있었던 두 경우, 곧 한 아이를 넘어뜨렸을 때와 다른 아이가 소변을 보고 있을 때를 하나로 합친다. 그리고 또 다른 연상이 보여 주듯이, 그는 이런 기회에 소년이던 그가 드러낸 성적 호기심 때문에 아버지에게서 받은 벌이나 위협을 기억에 간직하고 있었다.

III. 다음에 드는 한 젊은 여성의 꿈 뒤에는, 공상 하나로 서둘러 뭉쳐 놓은 어린 시절의 기억이 한 무더기 숨어 있다.

그녀는 장을 보려고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집을 나선다. 그라벤[16]에서 주저앉은 듯이 무릎을 꿇는다. 많은 사람이, 특히 삯마차 마부들이 그녀 주위로 모여든다. 그러나 아무도 그녀가 일어나도록 돕지 않는다. 여러 번 애써 보지만 헛일이다. 마침내 성공한 게 틀림없다. 집으로 데려다줄 삯마차에 태워지니 말이다. 크고 짐이 잔뜩 든 바구니 하나(장바구니 같은 것)가 창문으로 그녀 뒤를 따라 던져진다.

이 여성은 어린 시절에 시달렸던 것처럼 꿈속에서도 늘 시달리는 바로 그 사람이다. 꿈의 첫 장면은 분명 쓰러진 말을 본 데서 따온 것이며, 「주저앉은」이 경마를 가리키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녀는 어린 시절에 말을 탔고, 그보다 더 어렸을 때는 아마 자신이 말이기도 했을 것이다. 문지기의 열일곱 살 난 아들이 거리에서 간질 발작을 일으켜 마차에 실려 집에 왔다는 그녀의 첫 어린 시절 기억은 쓰러짐이라는 표상과 이어져 있다. 물론 이 일은 들어서 알 뿐이지만, 간질 발작과 쓰러짐의 표상은 그녀의 공상에 큰 힘을 떨치게 되었고, 나중에는 그녀 자신의 히스테리 발작 형태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여성이 떨어지는 꿈을 꾸면 이는 거의 어김없이 성적인 뜻을 지닌다. 그녀는 「타락한 여자」〔fallen woman〕가 되는 것이다. 지금 살펴보는 꿈에서는 이 해석이 아마 가장 의심할 여지가 적을 것이다. 그녀가 쓰러지는 곳이 그라벤, 곧 매춘부들이 모여드는 곳으로 알려진 빈의 장소이기 때문이다.

장바구니는 한 가지 이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거절이라는 뜻으로 보면(독일어 Korb는 바구니이자 퇴짜, 곧 거절이다), 그녀는 처음에 구혼자들에게 숱하게 먹였던 퇴짜와, 나중에는 그녀 생각에 거꾸로 자기가 먹게 된 퇴짜를 떠올린다. 아무도 그녀를 일으켜 주려 하지 않는다는 세부도 여기에 속하는데, 그녀 스스로 이것을 업신여김을 받는 것으로 해석한다. 또 장바구니는 분석 과정에서 이미 나타난 공상들을 떠올리게 한다. 그 공상 속에서 그녀는 자기 신분보다 한참 낮은 사람과 결혼해서 이제는 몸소 장을 보러 다닌다고 상상한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장바구니는 하인의 표지로 해석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것은 어린 시절의 기억을 더 불러낸다. 도둑질을 해서 쫓겨난 요리사의 기억인데, 그 요리사도 무릎을 꿇고 자비를 빌었다. 꿈꾼 사람은 그때 열두 살이었다. 그리고 그 집 마부와 정분이 나서 해고된 하녀에 대한 기억도 있다. 덧붙이자면 그 마부는 나중에 하녀와 결혼했다. 그러니 이 기억은 꿈속의 마부들(그들은 실제와는 반대로 타락한 여자의 편을 들지 않는다)을 푸는 실마리를 준다. 그러나 바구니를 던지는 것, 그것도 창문으로 던지는 것은 아직 설명해야 할 것으로 남아 있다. 이것은 그녀를 철도로 짐을 부치는 일로, 시골의 Fensterln[17]으로, 그리고 어느 시골 휴양지에서 받은 사소한 인상들로 이끈다. 한 신사가 어떤 부인에게 창문으로 푸른 자두 몇 알을 던져 준 일, 그리고 지나가던 크레틴병 환자가 창문 안을 들여다보는 바람에 꿈꾼 사람의 어린 여동생이 겁에 질린 일이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서 열 살 때의 흐릿한 기억 하나가 떠오른다. 시골 휴양지에서 그 집 하인과 정분이 난 유모의 기억인데, 아이는 그 일을 얼마간 엿볼 기회가 있었고, 유모는 「fired」〔해고〕 당했다(밖으로 내던져졌다)(꿈에서는 그 반대로 「안으로 던져졌다」). 우리가 다른 여러 길로도 다가간 적이 있는 이야기다.

게다가 빈에서는 짐, 곧 하인의 트렁크를 낮잡아 「자두 일곱 알」이라고 부른다. 「네 자두 일곱 알 챙겨서 나가!」

물론 내가 모은 자료에는 이런 환자들의 꿈이 넉넉히 들어 있다. 그 꿈들을 분석하면, 흐릿하게만 기억되거나 전혀 기억되지 않으며 흔히 생애 첫 세 해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어린 시절의 인상에 이른다. 그러나 이 꿈들에서 꿈 일반에 적용될 결론을 끌어내는 것은 잘못이다. 우리가 다루는 것은 어느 경우에나 신경증 환자, 특히 히스테리 환자이며, 이런 꿈에서 어린 시절 장면이 맡는 역할은 꿈의 본성이 아니라 신경증의 본성에 따라 정해진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뚜렷한 병의 증상이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닌 내 꿈의 해석에서도, 나는 그에 못지않게 자주 놀라게 된다. 잠재적 꿈 내용 속에서 뜻밖에 어린 시절의 한 장면에 부딪히고, 한 무리의 꿈 전체가 갑자기 어린 시절 체험에서 끌어낸 결론과 나란히 줄을 맞추는 것이다. 이에 대한 예는 이미 들었고, 앞으로도 여러 기회에 더 들 것이다. 최근에 일어난 일과 오래 잊혔던 어린 시절의 체험이 함께 꿈의 원천으로 나타나는 내 꿈 몇 가지를 드는 것보다 이 절 전체를 더 알맞게 마무리하는 길은 아마 없을 것이다.

I. 여행을 하고 나서 배고프고 지친 채로 잠자리에 들자 삶의 크나큰 욕구들이 잠 속에서 제 권리를 내세우기 시작하고, 나는 다음과 같은 꿈을 꾼다. 나는 밀가루 음식을 주문하러 부엌에 들어간다. 거기에는 세 여자가 서 있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은 안주인으로, 경단을 빚기라도 하는 듯 손에 든 무언가를 돌리고 있다. 그녀는 자기가 다 마칠 때까지 내가 기다려야 한다고 대답한다(말로 또렷이 하는 것은 아니다). 나는 조바심이 나서 모욕을 느끼며 나가 버린다. 나는 외투를 입는다. 그런데 처음 걸쳐 본 외투는 너무 길다. 나는 그것을 벗고는, 거기에 모피 장식이 달려 있는 것을 보고 조금 놀란다. 두 번째 외투에는 터키풍 무늬가 든 기다란 천 띠가 꿰매어 붙어 있다. 긴 얼굴에 짧고 뾰족한 턱수염을 기른 낯선 남자가 다가와, 그 외투는 자기 것이라고 단언하며

내가 입지 못하게 막는다. 이제 나는 그에게 외투 전체에 터키식으로 수가 놓여 있는 것을 보여 준다. 그가 묻는다. 「터키 것(무늬, 천 띠……)이 당신과 무슨 상관이오?」 그러나 우리는 곧 서로 꽤 친해진다.

이 꿈을 분석하다 보니 아주 뜻밖에도 소설 한 편이 떠오른다. 내가 열세 살쯤에 읽은,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제1권 끝부분부터 읽기 시작한 소설이다. 그 소설의 제목도 작가의 이름도 끝내 알지 못했지만, 결말만은 지금도 기억에 생생하다. 주인공은 광기에 사로잡혀, 살아오는 동안 그에게 가장 큰 행운과 불운을 뜻했던 세 여자의 이름을 쉴 새 없이 부른다. 펠라지가 그 이름 가운데 하나다. 이 이름을 분석에서 어떻게 보아야 할지 나는 아직도 모르겠다. 세 여자와 관련해서는 이제 인간의 운명을 잣는 세 파르카이가 떠오르고, 나는 세 여자 가운데 한 사람, 곧 꿈속의 안주인이 생명을 주는 어머니이며, 게다가 내 경우가 그랬듯이 살아 있는 존재에게 첫 양식을 주는 어머니임을 안다. 사랑과 굶주림은 어머니의 젖가슴에서 만난다. 어떤 일화가 전하기로, 여성의 아름다움을 열렬히 찬미하게 된 한 젊은이는 어릴 적 자기에게 젖을 먹여 키운 아름다운 유모 이야기가 나오자, 그때 기회를 더 잘 이용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나는 정신신경증의 기제에서 사후성이라는 요인을 설명할 때 이 일화를 즐겨 든다……. 그러니까 파르카이 가운데 하나는 경단을 빚기라도 하는 듯 두 손바닥을 맞대고 비비고 있다. 운명의 여신이 하기에는 참으로 기이한 일이니, 설명이 꼭 필요하다! 그 설명은 이제 또 다른, 더 이른 어린 시절의 기억에서 찾을 수 있다. 여섯 살 때 어머니에게서 처음으로 가르침을 받던 무렵, 나는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졌으니 흙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믿으라는 말을 들었다. 그러나 그 말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나는 어머니의 가르침을 의심했다. 그러자 어머니는 두 손바닥을 맞대고 비볐고 — 경단을 빚을 때와 똑같았지만 손바닥 사이에 반죽이 없었을 뿐이다 —

그렇게 비벼서 떨어져 나온 거무스름한 표피 부스러기를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증거로 내게 보여 주었다. 눈앞에서 보여 준 이 증명에 나는 한없이 놀랐고, 훗날 「그대는 자연에 죽음 하나를 빚지고 있다」라는 말로 듣게 될 생각을 순순히 받아들였다.[18] 그러니 그 여자들은 정말로 파르카이이고, 나는 어린 시절 배가 고플 때면 그토록 자주 그랬듯이 부엌으로 그들을 찾아가는 것이다. 그럴 때면 어머니는 점심이 다 될 때까지 기다리라고 이르곤 했다. 그러면 이제 경단 차례다! 적어도 대학 시절 내 스승 가운데 한 분, 내가 조직학 지식(표피)을 빚지고 있는 바로 그분이라면 크뇌들(독일어 Knoedel은 경단이라는 뜻)이라는 이름에서, 자기 저술을 표절했다는 이유로 고소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을 떠올릴 것이다. 표절을 저지르는 것, 곧 남의 것이라도 손에 넣을 수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 제 것으로 삼는 것은 분명히 꿈의 둘째 부분으로 이어진다. 거기서 나는 한동안 강의실을 무대로 솜씨를 부리던 어떤 외투 도둑 취급을 받는다. 나는 표절이라는 표현을 — 아무 까닭 없이 — 그저 떠올랐기에 적어 두었는데, 이제 보니 그것은 잠재적 꿈 내용에 속하는 것이 틀림없다. 외현적 꿈 내용의 여러 부분 사이에 다리 노릇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펠라지〔Pélagie〕 — 표절〔plagiarism〕 — plagiostomi[19](상어) — 부레로 이어지는 연상의 사슬은 옛 소설을 크뇌들 사건과, 또 외투들(독일어 Überzieher는 위에 덧씌우는 것, 곧 외투 또는 콘돔이라는 뜻)과 이어 주는데, 이 외투들은 분명히 성생활의 기술에 속하는 물건을 가리킨다.[20] 물론 이것은 몹시 억지스럽고 비합리적인 연결이다. 그러나 꿈 작업이 이미 이어 놓지 않았더라면 깨어 있는 생활에서 내가 결코 이어 낼 수 없었을 연결이기도 하다. 실로 연결을 억지로 지어내려는 이 충동에는 신성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듯, 이제 그리운 이름 브뤼케(낱말의 다리, 위를 보라)는 내가 학생 시절 아무 근심 없이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낸 연구소를 떠올리게 하는데

(「그러면 그대는 앎의 젖가슴에서 날마다 한없이 더 큰 기쁨을 얻으리라」), 이것은 꿈꾸는 동안 나를 괴롭히는 절박한 욕망과 더없이 완벽한 대조를 이룬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떠오르는 것은, 이름이 역시 먹을 것처럼 들리는 또 한 분의 소중한 스승(플라이슐 — 독일어 Fleisch는 고기라는 뜻 — 크뇌들처럼)에 대한 기억, 그리고 표피 부스러기(어머니 — 안주인)와 광기(소설)와, 배고픔의 감각을 마비시키는 라틴 부엌의 약, 곧 코카인이 한몫을 하는 애처로운 장면에 대한 기억이다.

이런 식으로 나는 얽히고설킨 생각의 흐름을 더 멀리 따라가, 분석에서 빠져 있는 꿈 부분까지 남김없이 설명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자면 치러야 할 개인적 희생이 너무 크니 그만두어야겠다. 실마리 가운데 한 가닥만 집어 들겠다. 그 한 가닥이 이 혼란의 밑바닥에 놓인 꿈 사고로 우리를 곧장 이끌어 줄 것이다. 내가 외투를 입지 못하게 막으려는, 긴 얼굴에 뾰족한 턱수염을 기른 그 낯선 남자는 스팔라토에 있던 한 상인의 얼굴을 하고 있다. 아내는 그 상인에게서 터키 천을 넉넉히 사들였다. 그의 이름은 포포비치였는데, 수상쩍은 이름이다. 덧붙이자면 유머 작가 슈테텐하임은 이 이름 덕분에 의미심장한 한마디를 할 기회를 얻었다. 「그는 내게 이름을 대더니 얼굴을 붉히며 내 손을 잡고 흔들었다.」[21] 게다가 여기에도 앞에서 펠라지, 크뇌들, 브뤼케, 플라이슐에게 한 것과 똑같은 이름 남용이 있다. 이런 이름 놀이가 유치하고 무의미한 짓이라는 것은 반박당할 걱정 없이 단언할 수 있다. 내가 거기에 빠져든다면 그것은 일종의 보복 행위에 해당한다. 내 이름이야말로 이런 얼빠진 익살의 제물이 된 일이 헤아릴 수 없이 많기 때문이다. 괴테는 언젠가, 사람은 자기 이름을 피부처럼 자기와 함께 자라난 것으로 느끼기에 이름에 몹시 예민하다고 말한 적이 있다. 이에 헤르더는 괴테의 이름을 두고 다음과 같은 시구를 지었다.

「gods〔신들〕에게서, Goths〔고트족〕에게서, 아니면 Kot(진흙)에게서 태어난 그대여 —」

「그대의 godlike〔신 같은〕 형상들 또한 먼지로다.」

이름 남용을 두고 이렇게 곁길로 샌 것은 이 하소연을 준비하려는 것이었을 뿐임을 나는 깨닫는다. 그러나 여기서 그만두자……. 스팔라토에서 물건을 산 일은 카타로에서 있었던 또 한 번의 장보기를 떠올리게 한다. 거기서 나는 너무 조심스러웠던 탓에 탐나는 물건을 손에 넣을 기회를 놓쳤다. (유모의 젖가슴에서 기회를 놓친 일, 위를 보라.) 배고픔의 감각 때문에 꿈꾼 사람에게 생겨난 또 하나의 꿈 사고는 이렇다.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도 빠져나가게 두어서는 안 된다, 조금 잘못을 저지르게 되더라도. 어떤 기회도 놓쳐서는 안 된다, 인생은 그토록 짧고 죽음은 피할 수 없으니. 이 생각에는 성적인 의미도 있고 욕망은 잘못 앞에서 멈추려 하지 않으므로, 이 carpe diem〔오늘을 붙잡아라〕의 철학은 검열을 두려워해 꿈 뒤에 숨을 수밖에 없다. 이제 이것은 온갖 반대 사고를, 곧 꿈꾼 사람에게 정신의 양식만으로 충분했던 시절의 기억을 말로 드러내게 하고, 온갖 억압을 암시하며, 역겨운 성적 처벌의 위협까지 내비친다.

II. 두 번째 꿈은 좀 더 긴 예비 설명이 필요하다.

아우스제로 휴가 여행을 떠나려고 나는 차를 타고 서부역으로 가는데, 먼저 출발하는 이슐행 열차 시간에 늦지 않게 역에 닿는다. 거기서 나는 툰 백작을 보는데, 그는 또다시 이슐로 황제를 알현하러 가는 길이다. 비가 오는데도 그는 지붕 없는 마차를 타고 와서는 곧장 근교 열차용 출입구로 빠져나갔고,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표를 받으려는 개찰원을 손을 살짝 저어 물리쳤다. 이슐행 열차가 떠나자 나는 승강장에서 나가 더운 대합실로 돌아가라는 말을 듣지만, 간신히 그대로 남아 있어도 좋다는 허락을 얻어 낸다. 나는 뇌물을 써서 객실을 차지하는 사람들을

구경하며 시간을 보내다가, 내 권리를 주장하기로, 곧 나도 같은 특권을 요구하기로 마음먹는다. 그러는 동안 나는 혼자 무언가를 흥얼거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피가로의 결혼』에 나오는 아리아다.

「백작 나리께서 춤을 한번 춰 보시겠다면,」

「춤을 한번,」

「말씀만 하시라지,」

「내가 한 곡 연주해 드리지.」

(다른 사람이었다면 이 노래를 알아듣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오후 내내 나는 건방지고 시비를 걸고 싶은 기분이었다. 웨이터와 삯마차 마부에게도 거칠게 말했는데, 그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는 않았기를 바란다. 이제 온갖 대담하고 혁명적인 생각들이 머리에 떠오르는데, 피가로의 대사와, 내가 코메디 프랑세즈에서 본 보마르셰의 희극에 어울리는 생각들이다. 태어나는 수고를 한 위인들에 관한 대사. 알마비바 백작이 수전에게 행사하려 드는 귀족의 특권. 우리의 짓궂은 야당 기자들이 툰 백작(독일어 thun은 「하다」라는 뜻)의 이름을 두고 그를 Count Do-Nothing〔아무것도 하지 않는 백작〕이라고 부르며 하는 농담. 나는 그가 조금도 부럽지 않다. 그는 이제 황제 앞에서 어려운 임무를 치러야 하지만, 나는 휴가를 떠나는 참이니 진짜 Count Do-Nothing은 바로 나다. 이와 함께 휴가를 위한 온갖 즐거운 계획들. 이제 한 신사가 도착하는데, 내가 알기로 그는 의사 시험에 정부 대표로 나오는 사람이며, 그 자격으로 벌인 활동 덕분에 「정부의 동침자」라는 영예로운 별명을 얻었다. 그는 관직을 내세워 일등 객실 반 칸을 얻어 내고, 나는 승무원 하나가 다른 승무원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는다. 「일등 반 칸짜리 양반은 어디다 모시지?」 참 기막힌 특혜다. 나는 일등 객실 한 칸 값을 고스란히 내고 있는데. 이제 나는 객실 한 칸을 통째로 얻지만, 통로가 있는 객차가 아니어서 밤새 쓸 수 있는 화장실이 없다.

승무원에게 불평해 보지만 소용이 없다. 나는 분풀이 삼아, 승객들이 혹시 급할 때를 위해 이 객실 바닥에 구멍이라도 하나 뚫어 두라고 제안한다. 나는 새벽 3시 15분 전에 요의를 느끼며 실제로 깨어나는데, 그 전에 다음과 같은 꿈을 꾸었다.

사람들의 무리, 학생 집회……. 어떤 백작(툰 아니면 타페)이 연설을 하고 있다. 독일인에 대해 한마디 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그는 경멸 어린 표정으로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꽃은 관동화라고 단언하고는, 찢어진 잎사귀 같은 것, 실은 구겨진 채 잎맥만 남은 잎을 단춧구멍에 꽂는다. 나는 벌떡 일어선다, 그러니까 나는 벌떡 일어선다,[22] 그러나 나의 이런 생각에 놀란다. 이어서 더 흐릿하게: 현관 홀(Aula)인 것 같고, 출구들이 꽉 막혀 있어 마치 도망쳐야 할 것만 같다. 나는 호화롭게 꾸며진, 줄지어 이어진 방들을 헤치고 나아가는데, 관청의 방들인 듯하고, 가구는 갈색과 보라색 사이의 빛깔이다. 마침내 나는 한 통로에 이르는데, 거기에 가정부 하나, 나이 들고 뚱뚱한 여자(Frauenzimmer)가 앉아 있다. 나는 그녀와 말을 섞지 않으려 하지만, 그녀는 내게 통과할 권리가 있다고 여기는 모양이다. 등불을 들고 나를 따라가 줄지 묻기 때문이다. 나는 그녀에게 계단에 그대로 서 있으라고 알리는 신호를 보내는데, 이렇게 해서 마침내 감시를 피했으니 나 자신이 무척 영리해 보인다. 이제 나는 아래층에 있고, 좁고 가파른 길을 찾아내 그 길을 따라간다.

다시 흐릿하게……. 마치 앞서 할 일이 집에서 빠져나가는 것이었듯이, 두 번째 할 일은 도시를 벗어나는 것인 듯하다. 나는 말 한 필이 끄는 마차를 타고 가며, 마부에게 기차역으로 데려다 달라고 말한다. 내가 자기를 지치게 했다며 마부가 이의를 달자, 나는 「선로 위로는 자네와 함께 타고 갈 수 없네」 하고 말한다. 이때 나는 보통은 철도로 다니는 길을 이미 그와 함께 달려온 것 같다. 역들이 붐빈다. 나는 크렘스로 갈지 츠나임으로 갈지 궁리하지만, 거기에는 궁정이 있으리라 생각하고 그라츠나 그 비슷한 곳으로 가기로 한다. 이제 나는 전차 같은 객차에 앉아 있고, 단춧구멍에는 길게 땋은 것을 꽂고 있는데, 거기에

뻣뻣한 천으로 된 보랏빛 갈색 제비꽃들이 달려 있어 많은 사람의 눈길을 끈다. 여기서 장면이 끊긴다.

나는 다시 기차역 앞에 있는데, 이번에는 나이 든 신사와 함께다. 나는 남이 나를 알아보지 못하게 할 계책을 궁리해 내는데, 이 계획이 이미 실행된 것도 본다. 생각하는 것과 체험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자면 같은 것이다. 그는 눈이 먼 척을 한다, 적어도 한쪽 눈이. 그리고 나는 그의 앞에 남자용 소변기를 받쳐 든다(우리가 시내에서 사야 했거나 샀던 것이다). 그러니 나는 간병인이고, 그가 눈이 멀었으니 그에게 소변기를 건네야 한다. 차장이 이런 모습의 우리를 본다면, 티 내지 않고 우리를 지나쳐 가야 한다. 그와 동시에 앞서 말한 사람의 자세가 시각적으로 관찰된다. 그러고 나서 나는 요의를 느끼며 깨어난다.

꿈 전체가 일종의 공상처럼 보인다. 이 공상은 꿈꾼 사람을 혁명의 해 1848년으로 데려간다. 그해의 기억은 50주년을 맞은 1898년에 새로워졌고, 바하우로 짧은 나들이를 가서 엠머스도르프라는 소도시를 알게 된 일로도 새로워졌다. 나는 그곳을 학생 지도자 피슈호프가 잠든 곳으로 잘못 알고 있었는데, 꿈 내용의 몇몇 특징은 그를 가리키는 것일지도 모른다. 이어서 생각의 연상은 나를 영국으로, 형의 집으로 이끈다. 형은 테니슨 경의 시 제목을 따서 형수에게 「50년 전」 이야기를 농담 삼아 하곤 했고, 그러면 아이들은 「15년 전」 하고 바로잡곤 했다. 그러나 툰 백작을 본 일이 불러일으킨 생각들에 교묘하게 달라붙은 이 공상은, 뒤에 있는 건물과 유기적으로 이어지지 않은 채 덧붙여 세운 이탈리아 교회의 전면(파사드)과 같을 뿐이다. 다만 그런 전면과 달리 이 공상은 빈틈투성이에 뒤죽박죽이어서, 안쪽의 부분들이 여러 군데에서 뚫고 나온다. 꿈의 첫 상황은 여러 장면을 버무려 지어낸 것이어서, 나는 그것을 그 장면들로 갈라낼 수 있다. 꿈속 백작의 오만한 태도는 내가 열다섯 살 때 김나지움에서 있었던 한 장면을 베낀 것이다. 우리는 인기 없고 무식한 교사 하나를 겨냥해

음모를 꾸몄는데, 그 주동자는 영국의 헨리 8세를 본보기로 삼은 듯한 동급생이었다. 쿠데타를 실행하는 일은 내 몫이 되었고, 도나우강(독일어로는 Donau)이 오스트리아에 얼마나 중요한가(바하우!)를 두고 벌어진 토론이 일을 공공연한 분노로 번지게 한 계기가 되었다. 공모자 하나는 우리에게 단 하나뿐이던 귀족 출신 동급생이었는데 — 유난히 길쭉하게 자란 몸 때문에 「기린」 이라고 불렸다 — 학교의 폭군인 독일어 교수에게 꾸지람을 들을 때 그는 꼭 꿈속의 백작처럼 서 있었다. 가장 좋아하는 꽃에 대한 설명, 그리고 역시 꽃이었음이 틀림없는 무언가를 단춧구멍에 꽂는 일은(이것은 내가 같은 날 한 여자 친구에게 가져다준 난초와, 그 밖에 여리고의 장미를 생각나게 한다) 셰익스피어의 사극에서 붉은 장미와 흰 장미의 내전을 여는 장면을 두드러지게 떠올리게 한다. 헨리 8세를 언급한 것이 이 회상으로 가는 길을 터 주었다. 이제 장미에서 붉은 카네이션과 흰 카네이션까지는 그리 멀지 않다. 그러는 사이 짧은 노래 두 편이 분석 속으로 슬며시 끼어드는데, 하나는 독일어, 다른 하나는 스페인어로 된 노래다. 「장미, 튤립, 카네이션, 꽃은 모두 시든다」와 「Isabelita, no llores que se marchitan las flores」〔이사벨리타, 울지 마라, 꽃이 시드니〕. 스페인어 노래는 『피가로의 결혼』에서 따온 것이다. 이곳 빈에서는 흰 카네이션이 반유대주의자들의 표지가 되었고, 붉은 카네이션은 사회민주주의자들의 표지가 되었다. 그 뒤에는 아름다운 작센(앵글로색슨)을 기차로 여행하다가 반유대주의적인 도발을 당한 기억이 있다. 꿈의 첫 상황이 만들어지는 데 한몫한 셋째 장면은 내 대학 초년 시절에 있었던 일이다. 독일 학생 모임에서 철학과 일반 과학의 관계를 두고 토론이 벌어졌다. 유물론 학설에 한껏 물든 풋내기였던 나는 앞으로 나서서 몹시 일방적인 견해를 옹호했다. 그러자 명민한 선배 하나가 일어나 우리를 호되게 꾸짖었다. 그는 그 뒤로 사람들을 이끌고

대중을 조직하는 능력을 보여 주었고, 게다가 동물계에 속하는 이름을 지니고 있다. 그의 말인즉, 자기도 젊었을 때 돼지를 쳤지만 뉘우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다는 것이었다. 나는 (꿈에서처럼) 벌떡 일어섰고, 몹시 무례해져서는, 그가 돼지를 쳤다는 것을 알았으니 그의 말투가 놀랍지 않다고 대꾸했다. (꿈에서 나는 나의 독일 민족 감정에 놀란다.) 큰 소동이 벌어졌고 사방에서 내 말을 취소하라는 요구가 쏟아졌지만, 나는 꿋꿋이 버텼다. 모욕당한 사람은 결투를 신청하라는 주위의 권고를 따르기에는 너무 분별 있는 사람이어서, 일을 그냥 덮어 두었다.

꿈에서 이 장면의 나머지 요소들은 더 먼 데서 왔다. 백작이 관동화를 내세우는 것은 무슨 뜻인가? 여기서 나는 내 연상의 흐름에 물어보아야 한다. 관동화(독일어로는 Huflattich) — lattice〔격자〕 — lettuce〔상추〕 — 샐러드 개(자기가 먹지 못하는 것을 남도 먹지 못하게 하는 개). 여기에는 욕설이 잔뜩 숨어 있다. Gir-affe〔기린〕(독일어 Affe는 원숭이, 유인원이라는 뜻), 돼지, 암퇘지, 개. 어떤 이름을 거쳐 에둘러 가면 당나귀에 이를 방도도 찾을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다시 한 대학 교사에 대한 경멸에 이를 것이다. 게다가 나는 관동화(Huflattich)를 — 얼마나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 「pisse-en-lit」〔잠자리에 오줌 싸기. 민들레를 가리키는 프랑스어〕로 옮긴다. 이 생각은 졸라의 『제르미날(Germinal)』에서 얻었는데, 거기서 아이들은 이런 샐러드를 가져오라는 분부를 받는다. 개, 곧 chien은 그 이름이 큰일을 가리키는 말과 소리가 비슷하다(chier〔똥 누다〕. pisser〔오줌 누다〕가 작은일을 가리키듯이). 이제 곧 우리는 점잖지 못한 것을 그 세 범주 모두 눈앞에 두게 될 것이다. 앞으로 올 혁명과 깊은 관계가 있는 바로 그 『제르미날』에는 기체 배설물, 곧 flatus〔방귀〕를 내뿜는 데 달린 아주 기이한 시합이 묘사되어 있기 때문이다.[23] 그리고 이제 나는 이

flatus로 가는 길이 얼마나 오래전부터 닦이고 있었는지를 짚어 두어야겠다. 길은 꽃에서 시작해 이사벨리타의 스페인 노래를 지나 페르난도와 이사벨에 이르고, 헨리 8세를 거쳐 무적함대가 영국을 치러 원정하던 시대의 영국 역사에 이른다. 그 원정이 영국의 승리로 끝나자 영국인들은 「Afflavit et dissipati sunt」〔그분이 바람을 부시니 그들이 흩어졌다〕라는 글귀를 새긴 메달을 만들었다. 폭풍이 스페인 함대를 흩어 버렸기 때문이다. 언젠가 히스테리에 대한 나의 견해와 치료를 자세히 설명할 기회가 온다면, 나는 이 문구를 — 반쯤은 농담으로 — 「치료법」 장의 제목으로 삼을 생각이었다.

꿈의 둘째 장면은 검열을 생각해 이처럼 자세히 풀어 보일 수 없다. 이 대목에서 나는 저 혁명기의 어느 저명한 신사의 자리에 나 자신을 놓기 때문이다. 그 신사 역시 독수리와 얽힌 모험을 겪었고, 변실금을 앓았다는 등의 이야기가 전해지는 인물이다. 그러니 이 이야기들의 대부분을 내게 들려준 사람이 궁정 고문관(aula〔궁정, 넓은 홀〕, consilarius aulicus〔궁정 고문관〕)이기는 했지만, 나는 검열을 이 대목에서 통과할 정당한 권리가 없으리라고 믿는다. 꿈에 나오는 줄지어 이어진 방들은 각하의 전용 객차를 가리키는데, 나는 그 안을 잠깐 들여다볼 기회가 있었다. 그러나 그 방들은 꿈에서 흔히 그렇듯 여자를 뜻한다(Frauenzimmer. 독일어에서는 약간의 경멸을 담으려고 Frauen, 곧 여자에 Zimmer, 곧 방을 덧붙인다).[24] 가정부라는 인물로써 나는, 그 집에서 누린 환대와 숱한 재미있는 이야기에 대해 어느 총명한 노부인에게 박한 보답을 하고 있다……. 등불이라는 특징은 그릴파르처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는 이와 비슷한 성격의 매력적인 체험을 적어 두었다가 나중에 『헤로와 레안더〔Hero and Leander〕』(바다의 물결과 사랑의 물결 — 무적함대와 폭풍)에 활용했다.[25]

꿈의 남은 두 부분도 자세히 분석하는 일은 단념해야겠다. 두 개의 어린 시절 장면으로 이어지는 요소들만 골라내겠다. 내가 이 꿈을 다룬 것은 오로지 그 장면들 때문이다. 독자는 내가 이렇게 덮어 둘 수밖에 없는 것이 성적인 재료 때문이라고 짐작할 것이다. 그러나 이 설명에 만족할 필요는 없다. 남들 앞에서는 비밀로 다루어야 하는 많은 것도 자기 자신에게는 비밀이 아니다. 그리고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내가 해답을 숨기도록 만드는 배려가 아니라, 꿈의 진짜 내용을 나 자신에게 감추는, 내면의 검열이 품은 동기다. 그러니 이렇게 말해도 되겠다. 분석해 보면 꿈의 이 세 부분은 주제넘은 허풍이다. 깨어 있는 생활에서는 오래전에 억제된 부조리한 과대 관념이 넘쳐흐른 것인데, 이 관념은 한두 군데 삐져나온 곳(나 자신이 영리하게 여겨진다)을 통해 외현적 꿈 내용에 감히 모습을 드러내며, 꿈 전날 저녁의 오만한 기분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게 해 준다. 실로 모든 방면에 걸친 허풍이다. 이를테면 그라츠가 언급된 것은 돈이 남아돈다고 느낄 때 우리가 즐겨 쓰는 말, 그라츠는 값이 얼마냐는 말을 가리킨다. 라블레 선생이 『가르강튀아와 그 아들 팡타그뤼엘의 생애와 업적』을 비길 데 없이 그려 낸 것을 떠올리는 사람이라면, 꿈의 첫 부분에 암시된 허풍의 내용을 채워 넣을 수 있을 것이다. 약속한 두 어린 시절 장면에 속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나는 이 여행을 위해 새 트렁크를 샀는데, 그 빛깔인 갈색을 띤 보라가 꿈에 여러 번 나온다. (「아가씨 잡이」라고 불리는 물건 옆의, 뻣뻣한 천으로 만든 보랏빛 갈색 제비꽃 — 관청의 방들에 있던 가구.) 새것이 사람들의 눈길을 끈다는 것은 아이들이 흔히 믿는 바다. 그런데 나는 내 어린 시절에 관해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 나는 그 일 자체보다 그 이야기를 들은 것을 기억한다. 듣자니 나는 두 살 때에도 이따금 잠자리에 오줌을 쌌고, 그 일로 자주 꾸지람을 들었는데, 그럴 때면 N.(가장 가까운 큰 도시)에서 아름다운 빨간 새

침대를 사 드리겠다고 약속하며 아버지를 달랬다고 한다. (그래서 꿈에 우리가 소변기를 시내에서 샀거나 사야 했다는 세부가 끼어든 것이다. 약속은 지켜야 하는 법이니까. 나아가 남자용 소변기와 여성적인 트렁크, 곧 상자〔box〕가 같다는 점에도 주의를 돌려 둔다.) 아이의 과대망상이 이 약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아이에게서 배뇨 곤란 꿈이 지니는 의미는 앞서 어떤 꿈을 해석하면서 이미 살펴보았다(원서 145쪽의 꿈 참조).[26]

그런데 일곱 살인가 여덟 살 때 집에서 또 한 가지 일이 있었는데, 나는 그 일을 아주 잘 기억한다. 어느 날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 나는 부모님 침실에서 그것도 부모님이 보는 앞에서 볼일을 보지 말라는, 조심성이 명하는 바를 무시했고, 이 비행을 꾸짖으며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다. 「저 녀석은 절대 아무것도 못 될 거야.」 이 말은 내 공명심에 지독한 굴욕을 안겼음이 틀림없다. 이 장면에 대한 암시가 내 꿈에 거듭거듭 되돌아오고, 그때마다 어김없이 내 업적과 성공을 늘어놓는 일과 짝을 이루기 때문이다. 마치 「보세요, 저도 결국 뭔가가 되었잖아요」 하고 말하고 싶다는 듯이. 그런데 이 어린 시절 장면이 꿈의 마지막 이미지에 요소들을 대 준다. 물론 거기서는 앙갚음을 위해 역할이 뒤바뀌어 있다. 나이 든 남자는 분명히 내 아버지인데 — 한쪽 눈이 먼 것은 아버지의 한쪽 눈 녹내장[27]을 뜻하기 때문이다 — 이제 그가 내 앞에서 소변을 본다. 예전에 내가 그 앞에서 소변을 보았듯이. 녹내장으로 나는 코카인을 가리킨다. 코카인은 아버지가 수술을 받을 때 톡톡히 도움이 되었으니, 마치 내가 그로써 약속을 지킨 것 같다. 그 밖에도 나는 아버지를 놀려 댄다. 그가 눈이 멀었으니 나는 그의 앞에 소변기를 받쳐 들어야 하고, 내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히스테리 이론의 발견들을 넌지시 내비치며 고소해한다.[28]

소변을 보는 두 어린 시절 장면은 그렇지 않아도 위대해지려는 욕망과 긴밀하게 이어져 있지만, 아우스제로 가는 여행길에서 그 장면들이 되살아나는 데에는 우연한 사정이 더 거들었다. 내 객실에는 변소가 없었고, 그래서 가는 동안 곤란한 일을 겪으리라 예상할 수밖에 없었는데, 실제로 아침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 나는 몸의 욕구를 느끼며 깨어났다. 이 감각들이 꿈의 실제 자극이었다고 여기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다른 견해를 택하고 싶다. 곧, 요의를 불러일으킨 것은 꿈 사고였다는 것이다. 나는 무슨 욕구 때문에 잠을 방해받는 일이 무척 드물다. 적어도 이번에 깬 시각인 새벽 4시 15분 전에는 그렇다. 더 편안한 조건에서 한 다른 여행에서는 일찍 깬 뒤에 요의를 느낀 적이 거의 없다고 말해 두면, 반론 하나를 더 미리 막을 수 있겠다. 게다가 이 점은 결론을 내리지 않고 남겨 두어도 내 논증에 해가 되지 않는다.

나아가 나는 꿈 분석의 경험에서, 처음에는 해석이 완결된 듯 보이는 꿈에서도(꿈의 원천과 소원의 발동을 쉽게 입증할 수 있으므로) 가장 이른 어린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중요한 생각의 흐름이 언제나 남아 있다는 것을 배웠으므로, 이런 특징이 꿈꾸기의 본질적인 조건을 이루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물어볼 수밖에 없었다. 이 명제를 일반화한다면, 모든 꿈의 외현 내용에는 최근에 체험한 것과의 연결이, 그 잠재 내용에는 가장 먼 옛날에 체험한 것과의 연결이 한 부분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나는 히스테리 분석에서 이 먼 체험들이 참된 의미에서 오늘날까지 최근의 것으로 남아 있음을 실제로 보여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추측은 아직 증명하기가 매우 어려워 보인다. 가장 이른 어린 시절의 체험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는 아마 다른 맥락에서(7장) 다시 다루어야 할 것이다.

처음에 살펴본 꿈 기억의 세 가지 특성 가운데 하나, 곧 꿈 내용이 중요하지 않은 것을 선호한다는 특성은 꿈 왜곡으로 거슬러 올라가 만족스럽게 설명되었다. 나머지 두 특성, 곧 최근의 재료와 유년기의 재료를 고른다는 특성은 존재를 확인할 수는 있었지만, 꿈의 동기로 설명할 수는 없었다. 아직 설명하거나 평가해야 할 이 두 특징을 기억해 두자. 이것들이 들어설 자리는 다른 곳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수면 상태의 심리학에서든, 아니면 나중에 착수할 심리 장치의 구조에 관한 논의에서든 말이다. 그 논의는 꿈 해석으로 마치 창문을 들여다보듯 이 장치의 내부 본성을 관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뒤에 하게 될 것이다.

바로 여기서 최근 몇 개의 꿈 분석이 낳은 또 하나의 결과를 강조해 두고 싶다. 꿈은 흔히 여러 뜻을 지닌 것처럼 보인다. 예들이 보여 주듯 여러 소원 성취가 한 꿈에 합쳐질 수 있을 뿐 아니라, 한 의미나 한 소원 성취가 다른 의미나 소원 성취를 감출 수도 있어서, 마침내 맨 밑바닥에 이르면 가장 이른 어린 시절의 소원 성취와 마주치게 된다. 그리고 여기서도 이 문장의 「흔히」를 「어김없이」로 바꾸는 편이 더 정확하지 않은지 물어볼 수 있다.

(다) 꿈의 신체적 원천

교양 있는 일반인에게 꿈의 문제에 관심을 불러일으켜 보려고, 그런 목적으로 그의 생각에는 꿈이 어떤 원천에서 생겨나느냐고 물어보면, 질문을 받은 사람은 대개 자기가 해답의 일부를 이미 확실히 쥐고 있다고 여긴다. 그는 탈이 나거나 더딘 소화(「꿈은 위장에서 나온다」), 우연히 취한 몸의 자세, 잠자는 동안 일어나는 자잘한 일들이 꿈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곧바로 떠올리며, 이런 요인을 모두 헤아리고 나서도

여전히 설명되지 않은 무언가가 남는다는 것은 짐작조차 하지 못하는 듯하다.

꿈 형성에서 학술 문헌이 신체적 자극원의 몫으로 어떤 역할을 돌리는지는 첫 장에서 자세히 설명했으니(1장 (다)), 여기서는 그 검토의 결과를 되새기기만 하면 된다. 우리가 본 대로 신체적 자극원은 세 가지로 나뉜다. 외부 대상에서 오는 객관적 감각 자극, 주관적 근거만 있는 감각 기관 내부의 흥분 상태, 그리고 내부에서 생겨나는 신체 자극이다. 또 우리는 저자들이 이런 신체적 자극의 원천을 앞세우느라 꿈의 심리적 원천을 뒷전으로 밀어내거나 아예 무시하려 한다는 것도 눈여겨보았다(1장 (다)).

이 몇 부류의 신체적 자극원을 두고 내세우는 주장들을 검토하면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은 이렇다. 감각 기관의 객관적 자극은, 잠자는 동안 우연히 가해지는 자극이든 잠든 정신생활에서도 차단할 수 없는 자극이든, 그 의의가 수많은 관찰로 확실히 확립되었고 실험으로도 확인되었다(1장 (다)). 주관적 감각 자극이 하는 역할은 입면 감각 이미지가 꿈속에 되돌아오는 것으로 증명되는 듯하다. 그리고 이런 꿈 이미지와 표상을 가장 넓은 의미의 내부 신체 자극으로 돌리는 일은 세세한 데까지 다 증명할 수는 없지만, 소화 기관과 비뇨 기관과 성 기관의 흥분 상태가 우리 꿈의 내용에 미치는 잘 알려진 영향으로 뒷받침할 수 있다.

그렇다면 「신경 자극」과 「신체 자극」이 꿈의 신체적 원천일 테고, 여러 저자의 말대로라면 곧 꿈의 원천 전부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여러 의문에 부딪혔으며, 그 의문들이 겨누는 것은 신체적 자극 이론이 옳으냐보다는 그 이론으로 충분하냐인 듯하다.

이 이론의 대표자들이 모두 이론의 바탕이 되는 사실들을, 특히 꿈 내용에서 별 어려움 없이 알아볼 수 있는 우연한 외적 신경 자극에 관한

사실을 아무리 확신했다 해도, 꿈의 풍부한 표상 내용을 외적 신경 자극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는 것만은 그들 가운데 누구도 부인하지 못했다. 메리 휘턴 콜킨스 양[12]은 이 생각을 염두에 두고 여섯 주 동안 자기 꿈과 다른 한 사람의 꿈을 검토했는데, 외적 감각 지각이라는 요소를 증명할 수 있는 꿈은 13.2퍼센트에서 6.7퍼센트밖에 되지 않았고, 모은 꿈 가운데 기관 감각으로 돌릴 수 있는 것은 두 사례뿐이었다. 우리 자신의 경험을 대충 훑어보기만 해도 짐작했을 법한 것을 여기서 통계가 확인해 준다.

「신경 자극 꿈」을 확실히 자리 잡은 하위 종으로 삼아 다른 형태의 꿈과 구별하자는 결정은 여러 번 내려졌다. 슈피타[64]는 꿈을 신경 자극 꿈과 연상 꿈으로 나누었다. 그러나 꿈의 신체적 원천과 꿈의 표상 내용을 잇는 고리를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 해결책은 분명 만족스럽지 못한 채로 남았다.

외적 자극원이 충분히 자주 나타나지 않는다는 첫째 반론 말고도, 이런 종류의 꿈 원천을 끌어들여서는 꿈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는 둘째 반론이 생긴다. 따라서 이 이론의 대표자들은 두 가지를 설명해야 한다. 첫째, 꿈속의 외적 자극은 왜 한 번도 그 참모습대로 인식되지 않고 으레 다른 것으로 오인되는가(1장 (다)의 자명종 꿈 참조). 둘째, 이렇게 잘못 인식된 자극에 대해 그것을 받아들이는 정신의 반응은 왜 그토록 종잡을 수 없이 이리저리 바뀌는가. 이 물음에 대한 답으로 우리는 슈트륌펠[66]에게서, 정신은 잠자는 동안 외부 세계에서 돌아서 있기 때문에 객관적 감각 자극을 올바르게 해석하지 못하고 여러 방향에서 오는 막연한 자극을 바탕으로 착각을 만들어 낼 수밖에 없다는 말을 들었다. 그 자신의 말로는 이렇다(108쪽).

「잠자는 동안 외부나 내부의 신경 자극으로 말미암아 정신 속에 감각이나 감각 복합체나 느낌, 또는 일반적으로 어떤 심리적 과정이

생겨나 정신에 지각되자마자, 이 과정은 정신이 깨어 있을 때의 체험 범위에서 여전히 간직하고 있는 감각 이미지를, 곧 이전의 지각을, 꾸밈없는 그대로이든 거기에 딸린 심리적 가치와 함께이든 불러낸다. 이 과정은 말하자면 그런 이미지를 많든 적든 제 둘레에 모아들이는 듯하며, 신경 자극에서 비롯된 인상은 그 이미지들에서 심리적 가치를 얻는다. 깨어 있을 때의 사고를 두고 흔히 쓰는 말투를 빌려, 여기서도 정신이 잠자는 동안 신경 자극의 인상을 해석한다고들 한다. 이 해석의 결과가 이른바 신경 자극 꿈이다. 다시 말해 신경 자극이 재생의 법칙에 따라 정신생활에 제 작용을 미친다는 사실로 그 구성이 조건 지어지는 꿈이다.」

분트[76]의 견해도 본질적인 점에서는 모두 이 이론과 일치한다. 그의 말로는 꿈속의 표상은 아마 대부분 감각 자극, 특히 전신 감각의 자극에서 나온 결과이며, 그러므로 대개는 환상적인 착각, 아마 일부만 순수한 채 환각으로까지 높아진 기억 표상일 것이다. 이 이론에서 나오는 꿈 내용과 꿈 자극의 관계를 보여 주려고 슈트륌펠은 훌륭한 비유를 찾아냈다(84쪽). 그것은 마치 「음악을 모르는 사람의 열 손가락이 악기 건반 위를 헤매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이 비유에 담긴 뜻은, 꿈이 심리적 동기에서 비롯되는 심리적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생리적 자극의 결과로 나타나며, 자극을 받는 장치가 달리는 표현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 결과가 심리적 증상의 형태로 표현된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마이네르트가 강박 관념을 설명하려고 끌어온 유명한 비유, 곧 몇몇 숫자가 더 도드라지게 새겨져 있어서 두드러져 보이는 문자판의 비유도 비슷한 가정에 바탕을 두고 있다.

신체적 꿈 자극 이론이 아무리 널리 퍼지고 아무리 그럴듯해 보인다 해도, 그 약점을 보여 주기는 쉽다. 착각을 형성하게 하여 심리 장치에 해석을 부추기는 신체적 꿈 자극은 어느 것이든 그런 해석 시도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이 불러일으킬 수 있다. 다시 말해 엄청나게 많은 서로 다른 표상을 통해 꿈 내용 속에서 표현될 수 있다. 그런데 슈트륌펠과 분트의 이론은 외적 자극과 그것을 해석하려고 선택된 꿈 표상 사이의 관계를 좌우하는 동기를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며, 그러니 자극이 「재생 활동을 하는 가운데 꽤 자주 하는」 「기묘한 선택」도 설명하지 못한다(립스, 『정신생활의 근본 사실(Grundtatsachen des Seelenlebens)』, 170쪽). 착각 이론 전체의 근본 가정, 곧 잠자는 동안 정신은 객관적 감각 자극의 참된 성질을 알아볼 수 없는 상태라는 가정에 대해서도 다른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 옛 생리학자 부르다흐[8]는 정신이 잠자는 동안에도 자기에게 닿는 감각 인상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그 올바른 해석에 따라 반응할 능력이 충분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보인다. 그 근거로 그는, 사람마다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인상은 잠자는 동안의 무관심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것(유모와 아이), 그리고 하찮은 청각 인상보다는 제 이름에 더 확실하게 깨어난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 모든 것은 물론 정신이 잠자는 동안에도 감각을 구별한다는 것을 전제한다(1장 (마)). 부르다흐는 이 관찰에서, 잠든 상태에서 가정해야 할 것은 감각 자극을 해석할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감각 자극에 관심이 없는 것이라고 추론한다. 부르다흐가 1830년에 쓴 바로 그 논거가 나중에 1883년 립스의 저작에 조금도 바뀌지 않은 채 다시 나타나는데, 거기서는 신체적 자극 이론을 공격하는 데 쓰인다. 이에 따르면 정신은 일화 속의 잠자는 사람과 비슷해 보인다. 그는 「자?」 하고 물으면 「아니」라고 대답하지만, 다시 「그럼 10플로린만 빌려줘」 하는 말을 들으면 「나 자」라는 핑계 뒤로 숨는다.

신체적 꿈 자극 이론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은 다른 식으로도 보여 줄 수 있다. 관찰해 보면 외적 자극은, 내가 꿈을 꾸게 되면 그리고 꿈을

꾸는 즉시 꿈속에 나타나기는 해도, 나를 꿈꾸도록 몰아붙이지는 않는다. 잠자는 동안 받는 촉각 자극이나 압박 자극에 대해 나는 여러 가지로 반응할 수 있다. 그것을 그냥 넘겨 버리고 깨어난 뒤에야 다리가 이불 밖으로 나와 있었다거나 팔이 눌려 있었다는 것을 알아챌 수도 있다. 병리학은 여러 종류의 강력한 감각 자극과 운동 자극이 잠자는 동안 아무 효과도 내지 못하는 예를 숱하게 보여 준다. 또 아픈 자극일 때 대개 그렇듯이, 잠자는 동안 말하자면 잠을 뚫고 감각을 지각하면서도 그 통증을 꿈의 짜임 속에 엮어 넣지 않을 수 있다. 셋째로, 자극을 없애려고 그 자극 때문에 깨어날 수도 있다. 네 번째로 가능한 반응으로서야 비로소 나는 신경 자극에 떠밀려 꿈을 꿀 수 있다. 그러나 다른 가능성들도 꿈 형성의 가능성 못지않게 자주 실현된다. **꿈을 꾸는 동기가 꿈의 신체적 원천 바깥에 있지 않다면** 이럴 수는 없을 것이다.

방금 드러난, 신체적 자극으로 꿈을 설명하는 방식의 결함을 제대로 감안하여, 다른 저자들, 곧 셰르너[58]와 그에게 가세한 철학자 폴켈트[72]는 신체적 자극에서 다채로운 꿈 이미지가 생겨나게 하는 심리 활동을 좀 더 정확히 규정하려 했고, 그리하여 꿈의 본질을 다시 정신의 영역, 곧 심리 활동의 영역으로 옮겨 놓았다. 셰르너는 꿈 형성 과정에서 펼쳐지는 심리적 특성을 시인다운 감수성으로 음미하며 열정적이고 생생하게 그려 냈을 뿐 아니라, 정신이 제 손에 들어온 자극을 다루는 원리를 알아맞혔다고도 생각했다. 셰르너에 따르면 꿈 활동은, 낮 동안 채워져 있던 족쇄에서 상상력이 풀려나 고삐가 늦추어지고 나면, 자극을 내보내는 기관의 성질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려 애쓴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꿈을 해석하는 길잡이로 일종의 해몽서를 얻게 되고, 이것으로 꿈 이미지에서 신체 감각과 기관의 상태와 자극의 상태를 추론해 낼 수 있다. 「그래서 고양이의 형상은 화나고 불만스러운 기분을, 매끄러운 밝은색 과자 한 조각의 형상은 벌거벗은 몸을 나타낸다. 꿈의 상상력은

인간의 몸 전체를 집으로, 몸의 개별 기관 하나하나를 집의 한 부분으로 그린다. 『치통 꿈』에서는 높다란 둥근 천장의 현관이 입에, 계단이 목구멍에서 소화관으로 내려가는 길에 대응한다. 『두통 꿈』에서는 파충류 같은 징그러운 거미로 뒤덮인 방의 천장이 머리 윗부분을 가리키도록 선택된다」(폴켈트, 39쪽). 「꿈은 같은 기관에 여러 가지 다른 상징을 쓴다. 그래서 숨 쉬는 허파는 불길로 가득 차 바람이 윙윙거리는 화덕에서, 심장은 속이 빈 궤짝과 바구니에서, 방광은 둥글거나 자루 모양인 물건이나 그 밖에 속이 빈 것이면 무엇에서든 제 상징을 찾는다. 특히 중요한 것은 꿈이 끝날 무렵 자극을 일으키는 기관이나 그 기능이 위장 없이, 그리고 대개는 꿈꾼 사람 자신의 몸에서 표현된다는 점이다. 그래서 『치통 꿈』은 대개 꿈꾼 사람이 자기 입에서 이를 하나 뽑는 것으로 끝난다」(35쪽). 이 이론이 저자들에게서 큰 호응을 얻었다고는 할 수 없다. 무엇보다 이 이론은 터무니없어 보인다. 내 생각에는 이 이론에도 내세울 만한 정당성이 조금은 있는데, 그것을 찾아보려는 뜻조차 없었다. 보다시피 이 이론은 고대인들이 쓰던 상징 표현에 의한 꿈 해석을 되살리는 셈이다. 다만 해석의 근거를 끌어올 원천을 인간의 몸에 한정한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과학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해석 기법이 없으니 셰르너 이론을 적용할 수 있는 범위는 심하게 좁아질 수밖에 없다. 자극 하나가 꿈 내용 속에서 여러 표현으로 나타날 수 있으니 더더욱, 꿈을 해석할 때 자의성이 끼어들 길은 조금도 막혀 있지 않은 듯하다. 그래서 셰르너의 동료인 폴켈트부터가 몸을 집으로 표현한다는 것만은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 또 하나의 반론은, 여기서도 꿈 작업이 정신이 벌이는 쓸모없고 목적 없는 활동으로 여겨진다는 것이다. 문제의 이론에 따르면 정신은 자기가 다루는 자극을 두고 공상을 지어내는 것으로 만족할 뿐, 자극을 방출하는 것 같은 일은 조금도 염두에 두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꿈이 신체 자극을 상징화한다는 셰르너의 이론은 또 다른 반론에 큰 타격을 입는다. 이런 신체 자극은 언제나 있으며, 일반적인 가정에 따르면 정신은 깨어 있을 때보다 잠자는 동안 이 자극에 더 열려 있다. 그렇다면 정신이 왜 밤새 쉬지 않고 꿈을 꾸지 않는지, 왜 밤마다 모든 기관을 두고 꿈을 꾸지 않는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꿈 작업을 불러일으키려면 눈이나 귀나 이나 창자에서 특별한 자극이 나와야 한다는 조건을 달아 이 반론을 피하려 한다면, 이렇게 자극이 늘어난 것이 객관적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어려움에 부딪히는데, 그런 증명은 몇 안 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비행 꿈이 폐엽의 오르내림을 상징화한 것이라면, 슈트륌펠이 이미 지적했듯이 이 꿈을 훨씬 더 자주 꾸거나, 아니면 꿈을 꾸는 동안 호흡 기능이 두드러지게 강해진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 다른 경우, 그것도 무엇보다 그럴듯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어디에나 늘 있는 내장 감각에 주의를 돌리게 하는 특별한 동기가 이따금 작용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는 우리를 셰르너 이론의 범위 밖으로 데려간다.

셰르너와 폴켈트의 논의가 지닌 가치는, 설명이 필요하고 새로운 앎을 약속하는 듯한 꿈 내용의 여러 특징에 주의를 돌리게 한다는 데 있다. 꿈에 신체 기관과 그 기능의 상징화가 들어 있고, 꿈속의 물이 흔히 소변이 마렵다는 뜻이며, 남성 성기가 곧추선 막대기나 기둥 따위로 표현되는 일이 많다는 것은 전적으로 옳다. 다른 꿈들의 흐릿함과 달리 시야가 몹시 생동하고 색채가 찬란한 꿈을 「시각 자극 꿈」으로 해석하는 것은 물리치기 어렵다. 시끄러운 소리와 뒤엉킨 목소리가 담긴 꿈에서 착각 형성물이 한몫한다는 것을 반박하기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다. 셰르너가 전하는 꿈, 곧 금발의 잘생긴 소년들이 다리 위에서 두 줄로 마주 서서 서로 덤벼들었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기를 거듭하다가 마침내 꿈꾼 사람 자신이 다리 위에 앉아 턱에서 긴 이를

하나 뽑는 꿈, 또는 서랍 두 줄이 한몫을 하고 역시 이를 뽑는 것으로 끝나는 폴켈트의 비슷한 꿈처럼, 저자들이 무척 많이 전하는 이런 종류의 꿈 형성물을 보면 셰르너의 이론을 그 안에 든 진리의 알맹이를 찾아보지도 않은 채 쓸데없는 날조로 내버릴 수는 없다. 이제 우리 앞에는 치아 자극의 상징화로 여겨지는 것에 다른 종류의 설명을 붙여 주는 과제가 놓여 있다.

꿈의 신체적 원천에 관한 이론을 검토하는 내내, 나는 우리의 꿈 분석에서 끌어낼 수 있는 논거를 내세우지 않았다. 다른 저자들이 꿈을 연구하면서 쓰지 않은 방법으로, 꿈이 심리적 행위로서 그 나름의 가치를 지니고, 소원이 꿈 형성의 동기를 제공하며, 전날의 체험이 꿈 내용의 가장 가까운 재료를 대 준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우리가 성공했다면, 이토록 중요한 연구 방법을 소홀히 하여 꿈을 신체 자극에 대한 쓸모없고 미심쩍은 심리적 반응으로 보이게 만드는 다른 꿈 이론은 따로 논평할 것도 없이 물리쳐도 된다. 그렇지 않다면,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전혀 다른 두 종류의 꿈이 있어서 한쪽은 우리 눈에만 띄었고 다른 쪽은 예전의 꿈 감식가들 눈에만 띄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제 남은 일은, 널리 통용되는 신체적 꿈 자극 이론을 뒷받침하는 데 쓰이는 사실들에 우리 자신의 꿈 이론 안에서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다.

꿈 작업은 동시에 주어진 모든 꿈 자극을 하나의 통일된 전체로 가공할 수밖에 없다는 명제를 세우면서, 우리는 이미 이 방향으로 첫걸음을 내디뎠다(이 장 (가)). 우리가 본 대로, 인상을 남길 만한 체험이 전날에서 둘 이상 남아 있으면 거기서 생기는 소원들은 한 꿈으로 합쳐진다. 마찬가지로 심리적 가치를 지닌 인상과 전날의 사소한 체험도, 둘을 이어 줄 표상만 있으면 꿈 재료 속에서 합쳐진다. 그러니 꿈은 잠든 정신 속에 현재적인 것으로 동시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한

반응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꿈 재료를 분석한 바로는, 꿈 재료는 심리적 잔재와 기억 흔적의 모음이었고, 우리는 (최근의 재료와 유년기의 재료가 편애되는 것으로 보아) 여기에 현재성이라는 성격을 인정해야 했다. 다만 그 현재성의 성질은 당시로서는 규정할 수 없었다. 이제 이런 현재적인 기억들에 감각이라는 형태의 새 재료가 보태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견하기는 어렵지 않다. 이 자극들 역시 현재적이기 때문에 꿈에 중요해지며, 다른 현재적인 심리 요소들과 합쳐져 꿈 형성의 재료를 이룬다. 달리 말하면, 잠자는 동안 나타나는 자극은 가공되어 소원 성취 속으로 들어가고, 그 소원 성취를 이루는 다른 구성 요소는 우리가 익히 아는 낮의 잔재다. 그러나 이렇게 합쳐지는 것이 피할 수 없는 일은 아니다. 잠자는 동안 신체 자극에 대해 한 가지가 넘는 태도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들었다. 이렇게 합쳐진 곳이라면 어디서든, 신체적 원천과 심리적 원천이라는 두 부류의 꿈 원천을 모두 표현해 줄 표상 재료를 꿈 내용을 위해 찾아낼 수 있었던 것일 뿐이다.

꿈의 심리적 원천에 신체적 재료가 이렇게 더해진다고 해서 꿈의 본질이 바뀌지는 않는다. 현재적인 재료가 꿈이 드러나는 모습을 어떻게 결정하든 상관없이, 꿈은 여전히 소원 성취다.

외적 자극이 꿈에 대해 지니는 의의를 달리 보이게 하는 몇 가지 특이한 점을 나는 기꺼이 여기서 다루겠다. 내 생각에, 잠자는 동안 강한 객관적 자극을 받는 개개의 경우에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그때그때의 사정에 따라 조건 지어지는 개인적·생리적·우연적 요인들이 함께 작용해서 결정된다. 습관적인 것이든 우연한 것이든 잠의 깊이가 자극의 세기와 어우러져, 어떤 경우에는 자극을 억제하여 잠을 방해하지 않게 할 수 있을 것이고, 다른 경우에는 깨어날 수밖에 없게 만들거나, 자극을 꿈의 짜임 속에 엮어 넣어 이겨 내려는 시도를 도울 것이다. 이런 조합이 여러 가지인 만큼, 외적인 객관적 자극은 사람에 따라 더 자주

표현되기도 하고 덜 자주 표현되기도 할 것이다. 나는 잠을 아주 잘 자는 사람이고 잠을 방해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완강히 버티기 때문에, 외적인 자극 원인이 내 꿈에 섞여 드는 일은 무척 드물다. 반면 심리적 동기는 나를 무척 쉽게 꿈꾸게 하는 듯하다. 실제로 나는 통증을 주는 객관적 자극원을 증명할 수 있는 꿈을 단 하나만 적어 두었는데, 바로 이 꿈에서 외적 자극이 어떤 효과를 냈는지 살펴보면 배울 것이 무척 많을 것이다.

나는 회색 말을 타고 있는데, 처음에는 무언가에 그저 기대어 있을 뿐인 것처럼 머뭇머뭇 서툴게 탄다. 말에 올라탄 동료 P.를 만나는데, 그는 두꺼운 모직 양복을 입고 있다. 그가 무언가에 내 주의를 돌린다(아마 내 승마 자세가 나쁘다는 것이리라). 이제 나는 무척 영리한 그 말 위에서 점점 능숙해진다. 편안히 앉아 있고, 벌써 안장 위가 아주 제집 같다는 것을 알아챈다. 안장 대신 나는 일종의 깔개를 깔고 있는데, 그것이 말의 목과 엉덩이 사이를 빈틈없이 채우고 있다. 그렇게 나는 짐마차 두 대 사이로 힘겹게 말을 몰아 간다. 길을 따라 얼마쯤 올라간 뒤 나는 방향을 돌려 말에서 내리려 하는데, 처음에는 길가에 바싹 붙어 있는, 문이 열린 작은 예배당 앞에서 내리려 한다. 그러다 실제로는 그 첫 예배당 가까이에 서 있는 다른 예배당 앞에서 내린다. 호텔은 같은 거리에 있어서 말을 혼자 그리로 가게 할 수도 있겠지만, 나는 차라리 말을 끌고 간다. 말을 탄 채 그곳에 도착하면 부끄러울 것만 같다. 호텔 앞에는 급사 하나가 서 있는데, 그는 누가 주운 내 쪽지를 내게 보여 주며 그것을 두고 나를 놀린다. 쪽지에는 밑줄이 두 번 그어진 「아무것도 먹지 말 것」 이라는 말이 적혀 있고, 그다음에 (흐릿한) 둘째 문장이 「일하지 말 것」 비슷하게 적혀 있다. 동시에, 내가 어느 낯선 도시에 있고 거기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흐릿한 생각.

이 꿈이 통증 자극의 영향을 받아, 아니 오히려 그 강요를 받아 생겨났다는 것은 한눈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 전날 나는 종기에 시달렸다. 종기 때문에 몸을 움직일 때마다 고문을 받는 것 같았고,

마침내 음낭 밑동에 난 종기 하나가 사과만 하게 부풀어 올라 걸음을 뗄 때마다 견딜 수 없는 통증을 안겨 주었다. 열이 나서 몸이 나른하고 입맛이 없는 데다, 그런데도 낮 동안 억지로 해낸 고된 일까지 통증과 한데 어울려 내 기분을 망쳐 놓았다. 나는 의사로서 할 일을 제대로 해낼 형편이 전혀 아니었다. 그러나 병의 성질과 자리로 보아, 차라리 말 타기가 아닌 다른 일을 예상했을 법하다. 말 타기에는 내가 유난히 맞지 않는 처지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꿈이 나를 밀어 넣은 것이 바로 이 말 타기라는 활동이다. 이것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단호한 고통의 부정이다. 우선 나는 말을 탈 줄 모르고, 말 타는 꿈도 여느 때에는 꾸지 않으며, 말 등에 앉아 본 것은 딱 한 번, 그것도 안장 없이 앉았는데 그때도 편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 꿈에서 나는 회음부에 종기가 없다는 듯이 말을 탄다. 왜 그런가? 바로 종기 따위는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묘사로 보면 내 안장은 나를 잠들 수 있게 해 준 찜질약이다. 이렇게 보살핌을 받은 덕에 잠든 처음 몇 시간 동안은 아마 통증을 조금도 느끼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다 통증 감각이 기척을 내며 나를 깨우려 하자, 꿈이 찾아와 달래듯 말했다. 「계속 자. 어차피 깨지 않을 테니까! 너한테는 종기 같은 건 아예 없어. 말을 타고 있잖아. 그런 자리에 종기가 났다면 말은 못 타!」 그리고 꿈은 성공했다. 통증은 숨죽었고, 나는 계속 잤다.

그러나 꿈은 병의 표상과 양립할 수 없는 표상에 끈질기게 매달려 종기를 「암시로 없애 버리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다. 그렇게 하면서 꿈은 아이를 잃은 어머니의 환각성 광기처럼, 또는 손실로 재산을 날린 상인처럼 행동했다.[29] 꿈은 여기에 더해, 부정된 감각과 그 감각을 밀어내는 데 쓰인 이미지의 세부를 수단으로 삼아, 평소 정신 속에 현재적으로 있는 재료를 꿈 상황과 잇고 그 재료를 표현해 낸다. 나는 회색 말을 타고 있다 — 말의 빛깔은 내가 시골에서 동료 P.를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의 후추와 소금〔희끗희끗한 잿빛〕 옷차림과 꼭

맞아떨어진다. 양념이 센 음식이 종기증의 원인이라는 경고를 들은 적이 있는데, 어쨌든 병인론적 설명으로는 흔히 종기증을 떠올리게 하는 설탕보다 그편이 낫다. 내 친구 P.는 어느 여성 환자의 치료를 나 대신 맡은 뒤로 나를 상대로 즐겨 「높은 말을 탔다」〔거만하게 굴었다〕. 나는 그 환자를 데리고 대단한 묘기를 부렸지만(꿈에서 나는 처음에 곡마단 기수처럼 옆으로 걸터앉아 말을 탄다), 실은 그녀가 일요일에나 말을 타는 사람에 관한 일화 속의 말처럼 나를 제 가고 싶은 곳으로 끌고 다녔다. 그리하여 말은 한 부인 환자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 되었다(꿈속에서 말은 무척 영리하다). 「여기 위는 아주 제집 같다」는 것은, 동료 P.에게 자리를 넘겨주기 전까지 내가 그 환자의 집안에서 차지하고 있던 위치를 가리킨다. 「안장에 단단히 앉아 있는 줄 알았는데요.」 이 도시의 대가급 의사들 가운데 나를 좋게 봐 주는 몇 안 되는 사람 하나가 얼마 전 바로 그 집안 일을 두고 내게 한 말이다. 그런 통증을 안고 하루 열 시간씩 정신 요법을 한 것도 묘기였다. 그러나 몸이 완전히 건강하지 않으면 유난히 힘든 내 일을 오래 계속할 수 없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으며, 꿈은 그럴 경우에 닥칠 수밖에 없는 처지를 가리키는 음울한 암시로 가득하다(신경쇠약 환자들이 가지고 다니다가 의사에게 내미는 그런 쪽지). 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다. 더 해석해 보면, 꿈 작업이 말을 탄다는 소원 상황에서 아주 이른 유년기의 다툼 장면들로 가는 길을 찾아내는 데 성공했다는 것이 보인다. 그 다툼은 지금 영국에 살고 있고 더구나 나보다 한 살 위인 내 조카와 나 사이에 벌어졌을 것이 틀림없다. 그 밖에도 꿈 작업은 내 이탈리아 여행에서 요소들을 끌어들였다. 꿈속의 거리는 베로나와 시에나의 인상으로 합성되어 있다. 더 철저히 해석하면 성적인 꿈 사고에 이르게 되는데, 나는 이탈리아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한 여성 환자에게 저 아름다운 나라를 넌지시 가리키는 꿈이 어떤 의미를 지녔는지 떠올린다(이탈리아 — 독일어 gen Italien

〔이탈리아로〕 — Genitalien — 생식기). 동시에 내 친구 P.보다 앞서 내가 의사로 드나들던 그 집과, 종기가 난 자리에 대한 언급도 들어 있다.

3장에서 든 꿈들 가운데에는 이른바 신경 자극의 가공을 보여 주는 예로 쓸 만한 것이 여럿 있다. 한껏 들이켜는 꿈이 그런 것이다. 이 꿈에서는 신체적 흥분이 꿈의 유일한 원천이고, 감각, 곧 갈증에서 생기는 소원이 꿈을 꾸는 유일한 동기인 듯하다. 신체적 흥분만으로 소원이 만들어질 수 있다면, 다른 단순한 꿈들에도 비슷한 말을 할 수 있다. 밤에 뺨에서 냉각기를 벗어 던지는 아픈 여자의 꿈은, 통증을 주는 흥분에 소원 성취로 반응하는 특이한 방식을 보여 주는 한 예다. 환자는 자기 통증을 낯선 사람에게 떠넘김으로써 잠시나마 스스로를 통증을 못 느끼는 상태로 만드는 데 성공한 듯하다.

나의 세 파르카이 꿈은 분명 배고픔 꿈이지만, 음식에 대한 욕구를 어머니의 젖가슴을 향한 아이의 그리움으로 되돌리고, 그 해롭지 않은 욕망을 그렇게 드러내 놓고 표현되어서는 안 되는 더 심각한 욕망의 겉옷으로 삼을 방도를 찾아냈다. 툰 백작 꿈에서 우리는 우연한 신체적 욕구가 정신생활에서 가장 강렬하면서도 가장 강하게 억제된 충동과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보았다. 또 가르니에가 전하는 사례에서처럼 제1통령이 터지는 폭탄 소리를, 그 소리에 깨기 전에 전투 꿈 속에 끼워 넣을 때, 잠자는 동안 일어나는 감각에 심리 활동이 대체로 무엇을 위해 관여하는지가 유난히 뚜렷하게 드러난다. 처음 맡은 큰 파산 사건에 깊이 매달려 있다가 그 뒤 어느 오후에 잠이 든 젊은 변호사도 위대한 나폴레옹과 똑같이 행동한다. 그는 파산 사건 때문에 알게 된 후샤틴(Hussiatyn — 독일어 husten은 「기침하다」)의 G. 라이히라는 사람의 꿈을 꾸는데, 후샤틴이 자꾸만 더 그의 주의를 파고드는 바람에 결국

깨어나고, 기관지 카타르를 앓고 있는 아내가 심하게 기침하는 소리를 듣는다.

마침 잠을 아주 잘 자는 사람이기도 했던 나폴레옹 1세의 꿈을 졸린 의대생의 꿈과 견주어 보자. 이 학생은 하숙집 안주인이 병원에 가야 한다고 타이르며 깨우자, 곧 꿈으로 자신을 병원 침대에 눕혀 놓고는 다음과 같이 제 동기를 밝히며 계속 잔다. 내가 이미 병원 안에 있으면 거기 가려고 일어날 필요가 없겠지. 뒤의 꿈은 분명 편의 꿈이다. 잠자는 사람은 자기가 꿈을 꾸는 동기를 스스로 솔직하게 인정한다.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꿈꾸기 일반의 비밀 하나를 드러낸다. 어떤 의미에서 모든 꿈은 편의 꿈이다. 꿈은 깨어나는 대신 잠을 이어 가는 데 이바지한다. **꿈은 수면의 파수꾼이지 수면의 방해꾼이 아니다.** 이 견해가 깨어남의 심리적 요인에 대해서도 옳다는 것은 다른 곳에서 밝히겠다. 그러나 객관적인 외적 흥분이 미치는 영향에 이 견해가 들어맞는다는 것은 여기서 벌써 증명할 수 있다. 정신은 감각이 강하고 또 정신 자신도 잘 알고 있는 의미를 지녔는데도 그럴 수만 있다면 감각의 원인에 아예 관여하지 않는다. 아니면 꿈을 써서 이 자극을 부정한다. 아니면 셋째로, 자극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때에는 현재의 감각을 바라는 상황, 잠과 양립할 수 있는 상황의 한 구성 요소로 나타내 줄 자극 해석을 찾으려 한다. 현재의 감각은 그 현실성을 빼앗기 위해 꿈속에 엮여 들어간다. 나폴레옹은 계속 자도 된다. 그를 방해하려는 것은 아르콜레의 포성에 대한 꿈속의 회상일 뿐이다.[30]

의식적 자아를 멈추어 세우고 꿈 검열과 더불어 꿈에 제 몫을 보태는 수면 소원은, 그러므로 언제나 꿈 형성의 동기로 고려해야 하며, 성공한 꿈은 모두 이 소원의 성취다. 보편적이고 늘 있으며 변하지 않는 이 수면 소원이, 때로는 이것이 때로는 저것이 성취되는 다른 소원들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는 나중에 따로 설명하겠다. 우리는 수면 소원에서, 슈트륌펠과

분트의 이론에 모자란 점을 채우고 외부 자극을 해석할 때 드러나는 엉뚱함과 변덕을 설명해 줄 요인을 찾아냈다. 잠든 정신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올바른 해석은 적극적인 관심을 뜻할 것이고, 잠을 끝내라고 요구할 것이다. 그래서 가능한 해석 가운데에서도 신체적 소원의 절대적인 검열에 들어맞는 것만이 허용된다. 이를테면 이런 식이다. 저건 나이팅게일이지 종달새가 아니야. 종달새라면 사랑의 밤은 끝이니까. 그 순간 가능한 흥분의 해석들 가운데에서, 정신 속에 도사리고 있는 소원의 가능성들과 가장 잘 이어질 수 있는 해석이 선택된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확실하게 결정되어 있고, 변덕에 맡겨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잘못된 해석은 착각이 아니라, 굳이 말하자면 핑계다. 그러나 여기서도 우리는, 꿈 검열을 위해 전치를 통한 대체가 이루어지는 경우처럼, 정상적인 심리적 절차를 변형한 작용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

외부 신경 자극과 내부 신체 자극이 심리적 주의를 끌어당길 만큼 강하면, 그 자극은, 곧 그것이 깨어남이 아니라 꿈을 낳는 경우라면, 꿈 형성에서 하나의 고정점, 꿈 재료 속의 핵을 이룬다. 그리고 두 꿈 자극 사이에서 둘을 이어 줄 표상을 찾을 때와 비슷한 방식으로(앞을 보라) 이 핵에 알맞은 소원 성취를 찾게 된다. 그런 한에서는 여러 꿈에 대해, 신체적인 것이 그 꿈의 내용을 결정한다는 말이 옳다. 이 극단적인 경우에는 꼭 현재적이지는 않은 소원이 꿈 형성을 위해 일깨워진다. 그러나 꿈은 소원을 어떤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표현하는 일밖에 할 수 없다. 꿈은 말하자면, 지금 현재적인 상황을 수단으로 어떤 소원을 표현하고 성취할 수 있을지 찾아야 하는 과제 앞에 놓인다. 이 현재적인 재료가 고통스럽거나 불쾌한 성격의 것이라 해도 꿈 형성에 쓸모가 없지는 않다. 정신생활은 그 성취가 불쾌를 불러일으키는 소원까지도

거느리고 있다.[31] 이 말은 모순처럼 들리지만, 두 심리적 심급과 그 사이에 있는 검열을 고려하면 이해가 된다.

우리가 들은 대로 정신생활에는 첫째 체계에 속하고 둘째 체계가 그 성취에 맞서는 **억압된** 소원이 있다. 이런 소원이 있다는 것은, 그런 소원이 예전에 있었다가 그 뒤에 없어졌다는 역사적인 뜻으로 하는 말이 아니다. 정신신경증 연구에 없어서는 안 될 억압 이론이 주장하는 것은, 그런 억압된 소원이 그것을 내리누르는 제지와 동시에 지금도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런 충동을 두고 「억제」라고 말할 때 언어는 진실을 알아맞힌 것이다. 그런 소원을 실현하는 심리 장치는 보존된 채 언제든 쓸 수 있는 상태로 남아 있다. 그러나 그렇게 억제된 소원이 성취되는 일이 생기면, 둘째 체계(의식될 수 있는 체계)의 제지가 꺾였다는 것이 불쾌한 느낌으로 표현된다. 이 논의를 맺자면, 잠자는 동안 신체적 원천에서 나온 불쾌한 성격의 감각이 주어지면, 꿈 작업은 이 배치를 이용해 평소에는 억제되어 있는 소원의 성취를, 검열을 얼마간 유지한 채 표현한다.

이런 사정 때문에 여러 불안 꿈이 생길 수 있는 한편, 소원 이론에 불리한 꿈 형성물의 또 다른 계열은 다른 기제를 보여 준다. 꿈속의 불안은 정신신경증적 성질의 것일 수도 있고, 정신성적 흥분에서 비롯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뒤의 경우 불안은 억압된 **리비도**에 해당한다. 그러면 이 불안은 불안 꿈 전체와 마찬가지로 신경증 증상이라는 의미를 지니며, 우리는 꿈의 소원 성취 경향이 사라지는 경계선에 서게 된다. 그러나 다른 불안 꿈에서는 불안의 느낌이 신체적 원천에서 오고(예컨대 폐나 심장에 병이 있어 이따금 숨쉬기가 어려운 사람의 경우), 그러면 이 불안은 강력하게 억제된 소원이 꿈의 형태로 성취되도록 돕는 데 쓰인다. 그런 소원을 심리적 동기에서 꿈꾸었더라도 똑같이 불안이 풀려났을 것이다. 겉보기에 어긋나는 이 두 경우를 하나로 묶기는

어렵지 않다. 서로 긴밀하게 이어진 두 심리적 형성물, 곧 정동의 경향과 표상 내용 가운데 현재적으로 주어진 쪽이 꿈속에서 다른 쪽을 뒷받침한다. 때로는 신체에서 비롯된 불안이 억제된 표상 내용을 뒷받침하고, 때로는 억제에서 풀려나 성적 정동이 주는 추진력으로 나아가는 표상 내용이 불안의 방출을 돕는다. 앞의 경우에 대해서는 신체에서 비롯된 정동이 심리적으로 해석된다고 말할 수 있다. 뒤의 경우에는 모든 것이 심리적 기원을 지니지만, 억제되어 있던 내용이 불안에 들어맞는 신체적 해석으로 쉽게 대체된다. 이 모든 것을 이해하는 길을 가로막는 어려움은 꿈과는 별 관계가 없다. 그 어려움은 이 점들을 논하다 보면 불안의 발생과 억압이라는 문제에 닿게 된다는 데서 생긴다.

몸에서 오는 느낌 전체는 틀림없이 내부에서 생기는 강력한 꿈 자극에 넣어야 한다. 그것이 꿈 내용을 대 줄 수 있어서가 아니다. 그것은 꿈 사고가 꿈 내용 속에서 표현에 쓰일 재료 가운데서 선택을 하도록 강요한다. 재료 가운데 제 성격에 맞는 부분은 손 닿기 쉬운 곳에 가져다 놓고 나머지는 내주지 않음으로써 그렇게 한다. 게다가 낮에서 넘어온 이 전신 감각은 아마 꿈에 중요한 심리적 잔재와 이어져 있을 것이다.

잠자는 동안 생기는 신체적 흥분원, 곧 수면 중의 감각이 유별나게 강하지 않다면, 내 판단으로는 그것이 꿈 형성에서 하는 역할은 최근의 것으로 남아 있지만 사소한 낮의 인상이 하는 역할과 비슷하다. 다시 말해 그것은 심리적 꿈 원천의 표상 내용과 합쳐질 자격을 갖추었을 때에만 꿈 형성에 끌려 들어가고, 그 밖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그것은 값진 재료처럼 어떻게 쓰일지를 스스로 정해 주는 대신, 필요할 때마다 얼마든지 쓰이는 값싸고 언제나 준비된 재료로 다루어진다. 예술 애호가가 예술가에게 희귀한 돌, 이를테면 오닉스 한 조각을 가져와 그것으로 예술 작품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경우와 비슷하다. 돌의

크기와 색깔과 무늬가 거기에 어떤 흉상이나 어떤 장면을 표현할지 정하는 데 한몫한다. 반면 대리석이나 사암이 고르게 넉넉히 공급되는 경우라면 예술가는 제 마음속에서 모양을 갖추어 가는 착상만을 따른다.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해야만, 유별나게 강조되지 않은 신체적 흥분에서 비롯되는 꿈 내용이 모든 꿈에, 그리고 밤마다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 설명된다.

우리를 꿈 해석으로 되돌려 놓는 예 하나가 아마 내 뜻을 가장 잘 보여 줄 것이다. 어느 날 나는 그토록 자주 꿈에 나오고 불안과 그토록 가까운 감각들, 곧 가로막히는 감각,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하는 감각, 일을 끝내지 못하는 감각 따위가 무엇을 뜻하는지 이해하려 애쓰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다음과 같은 꿈을 꾸었다. 나는 옷을 아주 제대로 입지 못한 채로 1층 거처에서 계단을 올라 위층으로 간다. 그러면서 층계를 한 번에 세 칸씩 뛰어넘고, 층계를 이렇게 빨리 오를 수 있다는 것이 기쁘다. 갑자기 하녀 하나가 계단을 내려오는 것이, 곧 내 쪽으로 오는 것이 보인다. 나는 부끄러워 서둘러 달아나려 하는데, 이제 그 가로막히는 감각이 나타난다. 나는 층계에 달라붙어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가 없다.

분석: 꿈의 상황은 일상의 현실에서 가져온 것이다. 빈의 한 집에 나는 거처가 둘 있는데, 두 거처는 바깥 계단으로만 이어져 있다. 진료실과 서재는 조금 높여 지은 1층에 있고, 한 층 위에 살림방이 있다. 밤늦게 아래층에서 일을 마치면 나는 층계를 올라 침실로 간다. 꿈을 꾸기 전날 저녁 나는 실제로 조금 흐트러진 차림으로 이 짧은 길을 갔다. 곧 칼라와 넥타이와 커프스를 떼어 낸 채였다. 그러나 꿈에서는 이것이 좀 더 심하게 옷을 벗은 상태로 바뀌었는데, 그 정도는 여느 때처럼 분명하지 않다. 층계를 뛰어넘는 것은 내가 계단을 오르는 평소 방식이다. 게다가 이것은 꿈속에서 알아볼 수 있는 소원 성취이기도 하다. 이 일을 거뜬히 해내는 것을 보며 나는 내 심장 활동이 괜찮다고 안심하곤 했기

때문이다. 또 내가 계단을 오르는 방식은 꿈의 후반부에 나타나는 가로막히는 감각과 효과적인 대조를 이룬다. 증명할 필요도 없는 일이었지만, 그것은 꿈이 운동 행위를 완전하고 온전하게 수행되는 것으로 표현하는 데 아무 어려움이 없다는 것을 내게 보여 준다. 꿈속의 비행을 생각해 보라!

그러나 내가 올라가는 계단은 우리 집 계단이 아니다. 처음에는 그 계단을 알아보지 못한다. 나를 향해 다가오는 사람이 비로소 그 계단이 가리키려는 곳을 알려 준다. 이 여자는 내가 피하 주사를 놓으러 하루 두 번 찾아가는 노부인의 하녀이며, 계단도 내가 그 집에서 하루 두 번 올라야 하는 계단과 아주 비슷하다.

이 계단과 이 여자는 어떻게 내 꿈에 들어왔을까? 옷을 다 입지 않아 부끄러워하는 것은 틀림없이 성적인 성격을 띤다. 그런데 내가 꿈에서 본 하녀는 나보다 나이가 많고 퉁명스러우며 조금도 매력이 없다. 이 물음들은 정확히 다음과 같은 일들을 불러낸다. 아침에 이 집을 왕진할 때면 나는 대개 목에 걸린 것을 뱉고 싶어지고, 그러면 뱉은 가래가 층계에 떨어진다. 두 층 어디에도 타구가 없기 때문인데, 계단의 청결은 내가 떠맡을 일이 아니라 타구를 갖다 두어 해결할 일이라는 것이 내 생각이다. 가정부는 역시 나이 지긋하고 퉁명스러운 사람으로 깔끔함에 대한 본능이 있는데, 이 문제를 달리 본다. 그녀는 내가 앞서 말한 제멋대로의 짓을 하는지 보려고 나를 노리고 기다리며, 그것을 확인하고 나면 그녀가 투덜거리는 소리가 내게 똑똑히 들린다. 그러고는 며칠 동안 마주쳐도 늘 하던 인사를 하려 들지 않는다. 꿈을 꾸기 전날에는 하녀가 가정부의 입지를 거들어 주었다. 여느 때처럼 서둘러 환자를 보고 막 나오는데, 하녀가 곁방에서 나를 막아서더니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 오늘은 방에 들어오시기 전에 신발 좀 닦으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붉은 양탄자가 선생님 발 때문에 또 온통 더러워졌어요.」

계단과 하녀가 내 꿈에 나타날 권리로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이것이 전부다.

내가 계단을 날아오르는 것과 계단에 침을 뱉는 것 사이에는 긴밀한 관련이 있다. 인두염과 심장병은 둘 다 흡연이라는 악덕에 대한 벌이라고들 한다. 물론 이 악덕 때문에 나는 이 집에서나 저 집에서나 가정부에게 그리 깔끔하다는 평판을 듣지 못하는데, 꿈은 이 두 집을 하나의 영상으로 녹여 합친다.

이 꿈을 더 해석하는 일은 옷을 제대로 입지 못한 전형적인 꿈의 기원을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 미루어야겠다. 방금 인용한 꿈에서 잠정적인 결과로 적어 둘 것은 하나뿐이다. 행동이 제지되는 꿈 감각은 언제나 어떤 연관이 그것을 요구하는 자리에서 일깨워진다는 것이다. 잠자는 동안 내 운동성의 어떤 특별한 상태가 이 꿈 내용의 원인일 수는 없다. 바로 한순간 전에 나는, 마치 이 사실을 확인해 주기라도 하듯, 층계를 가볍게 서둘러 오르는 나 자신을 보았기 때문이다.

(라) 전형적인 꿈

대체로 우리는 다른 사람이 꿈 내용 뒤에 숨은 무의식적 사고를 내주려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꿈을 해석할 수 없으며, 그 때문에 우리 꿈 해석 방법을 실제로 쓸 수 있는 범위는 크게 줄어든다.[32] 그러나 개인은 여느 때 제 꿈 세계를 저마다의 특이한 모양으로 자유롭게 빚어내어 남이 알아들을 수 없게 만드는데, 이와 달리 거의 누구나 똑같은 방식으로 꾸어 온 꿈도 얼마쯤 있어서, 우리는 그런 꿈이 꿈꾸는 사람 누구에게서나 같은 의미를 지닌다고 가정하는 데 익숙해져 있다. 이 전형적인 꿈들에 각별한 관심이 가는 것은, 그것들이 아마 누구에게서나

모두 같은 원천에서 나오고, 따라서 꿈의 원천에 관해 알려 주는 데 특히 알맞기 때문이다.

전형적인 꿈은 더없이 철저하게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러나 나는 이 부류의 예 몇 가지만 좀 자세히 살펴보려 하며, 그러기 위해 먼저 이른바 알몸의 당혹 꿈과 가까운 사람이 죽는 꿈을 골라 보겠다.

낯선 사람들 앞에서 알몸이거나 옷을 변변히 걸치지 못한 채로 있는 꿈은, 자기는 그것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따위의 말이 덧붙은 채 나타나는 일이 있다. 그러나 알몸 꿈이 우리의 관심을 끌 만한 것은 그 꿈에서 부끄러움과 당혹감을 느낄 때, 달아나거나 숨고 싶어 할 때, 그리고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고 이 불쾌한 상황을 바꿀 힘이 없다는 기묘한 제지를 느낄 때뿐이다. 이런 연관 속에서만 이 꿈은 전형적이다. 그 밖의 점에서는 그 내용의 핵이 온갖 관계 속으로 끌려 들어가거나 개인적인 부연으로 대체될 수 있다. 본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부끄러움과 같은 성질의 불쾌한 감각이고, 주로 자리를 옮겨 감으로써 제 알몸을 감출 수 있기를 바라면서도 그것을 해내지 못하는 소원이다. 내 독자들도 대부분 언젠가 꿈속에서 이런 처지에 놓여 본 적이 있으리라고 나는 믿는다.

그 체험이 어떤 성질이고 어떤 모양새였는지는 대개 분명하지 않다. 흔히 「나는 셔츠 바람이었다」고들 보고하지만, 이것이 뚜렷한 영상인 경우는 드물다. 대부분은 옷이 모자란 상태가 무척 막연해서, 꿈 보고에서는 「 나는 슈미즈 바람이었거나 속치마 바람이었다 」 처럼 양자택일로 표현된다. 대체로 옷차림의 결함은 거기에 따르는 부끄러움을 정당화할 만큼 심하지 않다. 군대에 복무한 적이 있는 사람에게는 흔히 알몸 대신 규정에 어긋나는 복장이 나타난다. 「나는 군도를 차지 않은 채 거리에 있는데 장교들이 오는 것이 보인다 」

라든가, 「나는 넥타이를 매지 않고 있다」 라든가, 「나는 체크무늬 사복 바지를 입고 있다」 따위다.

그 앞에서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은 거의 언제나 얼굴이 정해지지 않은 채로 남은 낯선 사람들이다. 전형적인 꿈에서는 자기에게 당혹감을 안기는 옷차림 때문에 꾸지람을 듣거나, 하다못해 남의 눈에 띄는 일조차 결코 없다. 오히려 정반대로 사람들은 무심한 표정을 짓고 있거나, 내가 특히 선명한 꿈 하나에서 관찰할 기회가 있었듯이, 뻣뻣하게 엄숙한 얼굴을 하고 있다. 이것은 곰곰이 생각해 볼 만하다.

꿈꾸는 사람의 부끄러운 당혹감과 구경꾼들의 무심함은 꿈에서 자주 나타나는 모순을 이룬다. 낯선 사람들이 놀라서 그를 바라보며 비웃거나 분개한다면 꿈꾸는 사람이 느끼는 바에 더 잘 들어맞을 것이다. 그러나 내 생각에는, 이 뒤쪽의 불쾌한 특징은 소원 성취의 경향 때문에 없어졌지만 당혹감은 이런저런 까닭으로 보존되어 그대로 남았고, 그래서 두 부분이 서로 들어맞지 않게 된 것이다. 소원 성취의 경향 때문에 겉모습이 부분적으로 왜곡된 이 꿈이 제대로 이해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 주는 흥미로운 증거가 있다. 이 꿈이 우리 모두가 안데르센의 이야기로 잘 아는 동화[33]의 바탕이 되었고, 최근에는 L. 풀다가 『부적』에서 시적으로 형상화하기도 했다는 사실이다. 안데르센의 동화에서는 사기꾼 둘이 황제에게 값비싼 옷을 짜 주는데, 그 옷은 착하고 참된 사람의 눈에만 보인다고 한다. 황제는 이 보이지 않는 옷을 입고 행차에 나서고, 옷감이 일종의 시금석 노릇을 하는 바람에 모든 사람이 겁에 질려 황제가 알몸이라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한 척한다.

그런데 우리 꿈의 상황이 바로 이렇다. 이해할 수 없는 꿈 내용이 옷을 벗은 상태를 지어내도록 부추겼고, 기억에 떠오르는 상황이 그 상태 속에서 의미를 띠게 되었다고 가정하는 데는 그리 대단한 대담함이 필요하지 않다. 이때 그 상황은 본래의 의미를 빼앗기고 다른 목적에

봉사하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뒤에서, 꿈 내용에 대한 이런 오해가 둘째 심리 체계의 의식적 활동 때문에 자주 일어나며 최종적인 꿈 형성의 한 요인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 나아가 강박 관념과 공포증이 생겨날 때에도 비슷한 오해가, 역시 같은 심리적 인격 안에서, 주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 꿈에서 이 변형을 위한 재료가 어디서 왔는지도 설명할 수 있다. 사기꾼은 꿈이고, 황제는 꿈꾸는 사람 자신이며, 도덕을 설교하려는 경향은 잠재적 꿈 내용이 억압의 희생물이 된 금지된 소원들을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알고 있음을 드러낸다. 내가 신경증 환자들을 분석할 때 이런 꿈이 나타나는 연관을 보면, 이 꿈이 가장 이른 어린 시절의 기억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우리가 가족뿐 아니라 낯선 유모와 하녀와 손님들 눈에도 옷을 변변히 걸치지 못한 채로 보였으면서도 제 알몸을 부끄러워하지 않던 때는 오직 어린 시절뿐이었다.[34]

조금 더 자란 아이들은 옷을 벗으면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일종의 도취에 빠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아이들은 깔깔 웃고,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제 몸을 찰싹찰싹 두드린다. 그러면 어머니나 그 자리에 있는 누군가가 그러지 못하게 하며 이렇게 말한다. 「에그, 창피한 짓이야 — 그러면 못써.」 아이들은 흔히 노출하려는 갈망을 드러낸다. 우리 고장에서는 시골 마을을 지나노라면, 나그네 앞에서, 어쩌면 그에게 경의를 표하느라, 제 셔츠를 걷어 올리는 두세 살배기 꼬맹이를 만나지 않기가 어려울 정도다. 내 환자 한 사람은 여덟 살 때의 한 장면을 의식적인 기억으로 간직하고 있다. 잠자리에 들려고 막 옷을 벗은 그가 속셔츠 바람으로 춤을 추며 누이동생 방으로 들어가려 하자 하녀가 막았다는 것이다. 신경증 환자들의 어린 시절 이야기에서는 이성의 아이들 앞에서 알몸을 드러낸 일이 큰 역할을 한다. 편집증에서

옷을 입고 벗는 동안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망상은[35] 곧바로 이런 체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리고 도착된 채로 남은 사람들 가운데에는 이 아이다운 충동을 강박으로까지 키운 부류가 있으니, 바로 노출증 환자들이다.

수치심이 없는 이 유년기는 훗날의 우리 기억에는 하나의 낙원처럼 보이며, 낙원 자체도 개인의 어린 시절에서 나온 합성 공상에 지나지 않는다. 낙원에서 인간이 벌거벗고도 부끄러워하지 않다가, 수치심과 두려움이 깨어나는 순간이 오자 추방이 뒤따르고 성생활과 문화적 발달이 시작되는 것도 그 때문이다. 꿈은 밤마다 우리를 이 낙원으로 데려갈 수 있다. 우리는 이미, 가장 이른 어린 시절의 인상들(선사시대부터 대략 만 네 살이 될 무렵까지)이 그 자체로, 그 밖의 모든 것과 상관없이, 어쩌면 그 내용과도 더는 상관없이 재생되기를 갈망하며, 그것들이 되풀이되는 것은 소원 성취라는 추측을 감히 내놓은 바 있다. 그러니 알몸 꿈은 노출 꿈이다.[36]

어린아이의 모습이 아니라 현재에 속한 모습으로 보이는 자기 자신, 그리고 그 뒤에 쌓인 숱한 허술한 차림의 기억들 밑에 묻혀서 또는 검열 때문에 흐릿해지고 마는 변변찮은 옷차림이라는 표상 — 이 두 가지가 노출 꿈의 핵을 이룬다. 그다음이 그 앞에서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다. 유년기의 그 노출 장면을 실제로 구경한 사람들이 꿈에 다시 나타나는 예를 나는 하나도 알지 못한다. 꿈은 단순한 기억인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기묘하게도, 유년기에 우리의 성적 관심의 대상이었던 사람들은 꿈에서도, 히스테리에서도, 강박 신경증에서도 모든 재생에서 빠져 있다. 오직 편집증만이 구경꾼들을 제자리에 돌려놓고, 그들이 보이지 않는 채로 있는데도 그들이 거기 있다고 광신적으로 확신한다. 꿈이 이들 대신 들여놓는 「많은 낯선 사람들」, 곧 눈앞에 펼쳐진 구경거리에 아무 관심도 보이지 않는 이들은 바로, 노출이 향했던 단 한

사람의 친밀한 인물의 소원 반대물(wish-opposite)이다. 게다가 「많은 낯선 사람들」은 꿈에서 다른 어떤 알맞은 연관에서든 자주 나타나는데, 소원 반대물로서 그들은 언제나 「비밀」을 뜻한다.[37] 편집증에서 일어나는 옛 사태의 복원도 이 대립을 따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제 혼자가 아니다. 분명 누군가 지켜보고 있지만, 구경꾼들은 「많은 낯선, 기묘하게 막연한 사람들」이다.

나아가 노출 꿈에서는 억압도 한자리를 차지한다. 꿈의 불쾌한 감각은, 둘째 심리적 심급이 물리친 노출 장면이 그런데도 표현을 얻어내는 데 성공했다는 사실에 그 심급이 보이는 반응이기 때문이다. 이 감각을 피하려면 그 장면을 되살리지 않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제지되는 감각은 뒤에서 다시 다룰 것이다. 이 감각은 꿈이 의지의 갈등, 곧 부정(否定)을 표현하는 데 훌륭하게 쓰인다. 우리의 무의식적 의도에 따르면 노출은 계속되어야 하고, 검열의 요구에 따르면 멈추어야 한다.

우리의 전형적인 꿈이 동화나 그 밖의 문학 소재와 맺는 관계는 어쩌다 한 번 있는 것도, 우연한 것도 아니다. 시인은 대개 변형 과정의 도구인데, 때로는 시인의 예리한 통찰이 이 과정을 분석적으로 알아보고 거꾸로 따라가서, 말하자면 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 일도 있다. 한 친구가 G. 켈러의 『초록의 하인리히(Der Grüne Heinrich)』에 나오는 다음 대목에 내 주의를 돌려 주었다. 「친애하는 레 군, 오디세우스가 벌거벗은 채 진흙투성이가 되어 나우시카와 그 놀이 동무들 앞에 나타날 때, 그 처지에 담긴 독특하고 짜릿한 진실을 자네가 언젠가 몸소 겪어서 깨닫게 되기를 나는 바라지 않네! 그게 무슨 뜻인지 알고 싶은가? 그 일을 한번 가까이 들여다보세. 자네가 언젠가 고향과, 자네에게 소중한 모든 것과 헤어져 낯선 땅을 떠돌게 된다면, 그리하여 많은 것을 보고 겪고, 근심과 슬픔을 안고, 어쩌면 비참하고 버림받은

처지가 되기까지 한다면, 자네는 어느 날 밤 어김없이 고향에 다가가는 꿈을 꾸게 될 걸세. 고향이 더없이 아름다운 빛깔로 빛나며 반짝이는 것이 보이고, 매력 있고 우아하고 사랑스러운 모습들이 자네를 맞으러 나올 걸세. 그런데 자네는 문득 자기가 누더기를 걸치고, 벌거벗은 채 먼지투성이가 되어 돌아다니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지. 이름 모를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자네를 사로잡고, 자네는 몸을 가리고 숨으려 애쓰다가 땀에 흠뻑 젖어 깨어나네. 사람이 있는 한, 이것은 근심을 짊어지고 운명에 시달리는 사람의 꿈일 걸세. 그러니 호메로스는 그 상황을 인간의 영원한 본성 가장 깊은 곳에서 길어 온 것이지.」

시인이 듣는 이들에게서 건드리기를 흔히 노리는 인간의 이 깊고 영원한 본성은, 유년기에, 곧 나중에 선사 시대가 되는 그 시기에 뿌리를 둔 정신의 움직임들로 이루어져 있다. 유년기의 억제되고 금지된 소원들은, 고향 없는 사람이 품는 소원 가운데 나무랄 데 없고 의식될 수 있는 것들을 덮개 삼아 터져 나오며, 그래서 나우시카 전설에서 객관화된 꿈은 어김없이 불안 꿈의 형태를 띤다.

이 장 (다)에서 말한 내 꿈, 곧 계단을 서둘러 올라가다가 이내 층계에 달라붙어 있는 꿈으로 바뀌는 그 꿈도, 이런 꿈의 본질적인 구성 요소들을 보여 주므로 역시 노출 꿈이다. 그러니 이 꿈도 어린 시절의 체험으로 소급될 수 있어야 하며, 그런 체험을 손에 넣으면 하녀가 나를 대한 태도, 곧 내가 양탄자를 더럽혔다고 나무란 일이 꿈에서 그녀가 차지하는 자리를 얻는 데 어디까지 도움이 되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나는 바라던 설명을 내놓을 수 있다. 정신분석에서는 시간적인 가까움을 사실상의 연관으로 해석하는 법을 배운다. 겉보기에 아무 연관이 없는 두 생각이 곧바로 잇따라 나오면, 그 둘은 추론해 낼 수 있는 하나의 통일체에 속한다. 내가 a와 t를 나란히 적으면 한 음절 at으로 읽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38] 꿈들 서로의 관계도 이와 같다.

방금 인용한 계단 꿈은 한 계열의 꿈들에서 가져온 것이며, 그 계열의 다른 꿈들은 내가 해석해 보았기 때문에 잘 알고 있다. 이 계열에 들어 있는 꿈이라면 같은 연관에 속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계열의 다른 꿈들은 한 유모에 대한 기억에 바탕을 두고 있다. 나는 젖먹이 시절의 어느 때부터 두 살 반이 될 때까지 이 유모에게 맡겨져 있었고, 그녀에 대한 흐릿한 기억이 내 의식에 남아 있다. 최근에 어머니에게 들은 바로는, 그녀는 늙고 못생겼지만 무척 영리하고 야무진 사람이었다. 내 꿈에서 끌어낼 수 있는 추론에 따르면, 그녀는 나를 늘 가장 다정하게 대하지는 않았고, 내가 청결 교육을 받아들이는 소질을 넉넉히 보이지 못하면 모진 말을 했다. 그러니 이 교육 사업을 이어 가려 함으로써, 그 하녀는 꿈속에서 내게 선사 시대 노파의 화신으로 대접받을 권리를 얻는 것이다. 아이는 이 보모가 자기를 모질게 대했는데도 그녀에게 사랑을 쏟았다고 가정해야 한다.[,39,40]

전형적이라고 부를 만한 또 하나의 꿈 계열은 가까운 사람, 곧 부모나 형제자매나 자식 따위가 죽었다는 내용을 지닌 꿈들이다. 이런 꿈은 곧바로 두 부류로 나누어야 한다. 하나는 꿈꾸는 사람이 꿈을 꾸는 동안 슬픔에 흔들리지 않는 꿈이고, 다른 하나는 그 죽음 때문에 깊은 비탄을 느끼며, 심지어 잠자는 동안 뜨거운 눈물을 흘려 이 비탄을 드러내기까지 하는 꿈이다.

첫째 부류의 꿈은 제쳐 두어도 된다. 그런 꿈은 전형적인 꿈으로 꼽힐 권리가 없다. 분석해 보면 그 꿈들은 담고 있는 것과는 다른 무언가를 뜻하며, 다른 어떤 소원을 덮어 가리려는 것임이 드러난다. 언니의 하나뿐인 아들이 자기 앞에 상여에 누워 있는 것을 보는 이모의 꿈(4장)이 그렇다. 이 꿈은 그녀가 어린 조카의 죽음을 바란다는 뜻이 아니다. 우리가 알게 되었듯이, 이 꿈은 오랫동안 헤어져 있던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한번 보고 싶다는 소원을 감추고 있을 뿐이며, 그 사람은 그녀가

전에도 그만큼 오래 못 보다가 다른 조카의 장례식에서 다시 만났던 바로 그 사람이다. 꿈의 진짜 내용인 이 소원은 슬퍼할 까닭을 주지 않으며, 그래서 꿈에서도 슬픔이 느껴지지 않는다. 이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꿈에 담긴 정동은 꿈의 외현 내용이 아니라 잠재 내용에 속하며, 정동 내용은 표상 내용에 닥친 왜곡을 입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다.

사랑하는 친족이 죽는 것을 상상하고 슬픈 정동을 느끼는 꿈들은 사정이 다르다. 이 꿈들은 그 내용이 말하는 그대로, 그 사람이 죽었으면 하는 소원을 뜻한다. 여기서 나는 모든 독자와, 비슷한 꿈을 꾸어 본 모든 사람의 감정이 내 해석에 반발하리라고 예상할 수 있으므로, 될 수 있는 한 가장 넓은 바탕 위에 내 증명을 세우도록 애써야 한다.

꿈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표현되는 소원이 언제나 현재적인 소원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 주는 예를 우리는 이미 하나 보았다. 그것은 죽었거나 버려졌거나 덮였거나 억압된 소원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꿈에 다시 나타나는 것을 보면 우리는 그런 소원에 일종의 지속적인 존재를 인정해 주어야 한다. 그 소원들은 우리가 말하는 뜻에서 죽은 사람처럼 죽은 것이 아니라, 피를 마시자마자 일종의 생명을 얻어 깨어나는 『오디세이아』의 혼령들을 닮았다. 4장의 상자 속 죽은 아이 꿈에서 우리가 다룬 것은 열다섯 해 전에 현재적이었고 그때부터 솔직하게 인정되어 온 소원이었다. 꿈 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이 꿈의 밑바탕에도 가장 이른 어린 시절의 기억이 있다는 것을 덧붙이는 일이 아마 사소하지는 않을 것이다. 꿈꾼 사람은 어린아이였을 때, 언제였는지는 확실히 정할 수 없지만, 어머니가 자기를 배었을 때 깊은 우울에 빠져서 배 속의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죽기를 간절히 바랐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다. 이제 자라서 스스로 임신하게 되자 그녀는 어머니의 본을 따르는 것이다.

누군가 비탄을 드러내며 아버지나 어머니, 형제나 자매가 죽었다는 꿈을 꾼다면, 나는 그 꿈을 그가 지금 그들의 죽음을 바란다는 증거로 쓰지 않겠다. 꿈 이론은 그만큼까지 요구하지 않으며, 꿈꾼 사람이 그들의 죽음을 바란 적이 있다고 결론짓는 것으로 만족한다 — 어린 시절의 어느 한때에. 그러나 이렇게 한정한다고 해서 반대자들이 그리 잠잠해지지는 않을 것 같아 걱정이다. 그들은 지금은 그런 소원을 품고 있지 않다고 확신하는 것과 똑같이 힘차게, 자기가 언젠가 그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마저 반박할지 모른다. 그러므로 나는 현재가 아직 내놓는 증언을 바탕으로, 가라앉아 버린 유년기 심리의 한 부분을 재구성해야 한다.[41]

먼저 아이들과 그 형제자매의 관계를 살펴보자. 우리가 무슨 까닭으로 이 관계를 으레 사랑에 찬 관계라고 전제하는지 나는 모르겠다. 어른들 사이에서 형제자매가 서로 반목하는 예는 누구나 겪어 보아 알고 있고, 그런 불화가 이미 어린 시절에 비롯했거나 처음부터 줄곧 있었다는 것도 우리는 자주 알게 되니 말이다. 그러나 지금은 형제자매를 다정하게 아끼고 그들의 편이 되어 주는 많은 어른들도, 어린 시절에는 거의 끊임없는 적대 속에서 그들과 함께 살았다. 손위 아이는 손아래 아이를 못살게 굴고, 헐뜯고, 장난감을 빼앗았다. 손아래 아이는 손위 아이에게 어쩌지 못하는 분노로 속을 끓이며 그를 시기하고 두려워했고, 아니면 자유를 향한 첫 충동과 부당하다는 첫 감정을 이 압제자에게 돌렸다. 부모는 아이들이 서로 사이가 나쁘다고 말하면서도 그 까닭을 찾지 못한다. 얌전한 아이라 해도 그 성격이 우리가 어른에게서 보고 싶어 하는 성격이 아니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아이는 철저히 이기적이다. 아이는 제 욕구를 절실하게 느끼고 그것을 채우려고 가차 없이 애쓴다. 경쟁자인 다른 아이들, 그중에서도 맨 먼저 형제자매를 상대로는 더욱 그렇다. 그렇다고 우리는 아이를 악하다고 하지 않는다.

버릇없다고 할 뿐이다. 우리의 판단으로 보나 형법의 눈으로 보나 아이는 제 나쁜 짓에 책임이 없다. 그리고 그것은 정당하다. 우리가 유년기라고 부르는 바로 이 시기 안에 이 꼬마 이기주의자에게서 이타적 충동과 도덕이 깨어나고, 마이네르트의 말을 빌리면 이차 자아가 일차 자아를 덮어 누르리라고 기대해도 좋기 때문이다. 물론 도덕은 모든 영역에서 한꺼번에 발달하지 않으며, 게다가 도덕 없는 유년기가 얼마나 오래 이어지는지는 사람마다 다르다. 이런 도덕이 발달하지 않는 경우에 우리는 즐겨 「퇴화」를 들먹이지만, 그것은 분명 발달이 멈춘 경우다. 일차적 성격이 이미 나중의 발달에 덮여 버린 경우에도, 히스테리 발작이 일어나면 그것이 적어도 부분적으로 다시 드러날 수 있다. 이른바 히스테리성 성격과 버릇없는 아이의 성격이 서로 들어맞는다는 것은 눈에 띄게 뚜렷하다. 반면 강박 신경증은, 다시 고개를 드는 일차적 성격에 한층 강화된 제동으로서 덧씌워진 과잉 도덕에 해당한다.

그러니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그들이 죽으면 깊은 상실감에 빠질 많은 사람들도, 무의식적인 소원 가운데 예전부터 그들을 향해 품어 온 악한 소원을 지니고 있으며, 이 소원은 꿈속에서 실현될 수 있다. 세 살까지의 어린아이들이 형제자매를 대하는 태도를 관찰하는 것은 특히 흥미롭다. 그때까지는 아이가 혼자였는데, 이제 황새가 새 아기를 데려왔다는 말을 듣는다. 그 아이는[42] 새로 온 아기를 찬찬히 뜯어보더니 단호하게 제 의견을 밝힌다. 「황새가 그 애를 도로 데려가는 편이 낫겠어.」[43]

나는 아이가 새로 온 아기 때문에 자기가 입게 될 불이익을 헤아릴 줄은 안다는 견해에 진지하게 찬성한다. 내가 아는 한 부인은 지금 네 살 아래 여동생과 무척 사이가 좋은데, 여동생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렇게 대꾸했다고 한다. 「그래도 내 빨간 모자는 안 줄 거야.」 아이가 이런 사정을 나중에야 깨닫는다면, 적의는 그때 가서 깨어난다. 나는 세 살도 안 된 여자아이가 요람 속 젖먹이의 목을 조르려 한 경우를

알고 있다. 그 아기가 계속 곁에 있으면 자기에게 좋을 일이 없으리라는 예감이 들었던 것이다. 이 나이의 아이들은 시기심을 그 온전한 세기와 뚜렷함 그대로 품을 수 있다. 또 어쩌면 어린 동생이 정말로 얼마 안 가 사라졌을 수도 있다. 아이는 다시 온 집안의 애정을 독차지했는데, 그때 황새가 또 새 아기를 보낸다. 그렇다면 이 귀염둥이가, 그 사이에 받던 대접을 앞으로도 똑같이 받으려고 새 경쟁자 역시 먼젓번 아기와 같은 운명을 맞기를 바라는 것이 부자연스러운 일이겠는가? 물론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어린 동생을 대하는 아이의 이런 태도는 단순히 나이 차이에 따라 정해진다. 일정한 시기가 지나면 여자아이에게는 힘없는 갓난아기를 향한 모성 본능이 깨어날 것이다.

형제자매를 향한 적대적 감정은 어른들의 둔한 관찰이 알아채는 것보다 훨씬 더 자주 어린 시절에 나타나는 것이 틀림없다.

내 아이들은 잇달아 빨리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이런 관찰을 할 기회를 놓쳤다. 지금 나는 그 기회를 어린 조카에게서 되찾고 있다. 조카의 완전한 지배는 열다섯 달 만에 여자 경쟁자가 나타나면서 흔들렸다. 물론 이 젊은이가 어린 누이동생에게 무척 기사답게 굴어서 손에 입을 맞추고 쓰다듬어 준다는 말을 듣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나는 조카가 만 두 살이 되기도 전에 새로 익힌 말솜씨를 써서, 자기 눈에 쓸데없어 보이는 이 인물을 비판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야기가 동생에게로 흘러가기만 하면 그는 끼어들어 성난 목소리로 외친다. 「너무 쪼(그)매, 너무 쪼(그)매.」 요 몇 달 사이에 아기가 무럭무럭 자라 이 달갑잖은 비판을 벗어나자, 그는 동생이 그렇게까지 관심을 받을 만하지 않다는 자기 주장을 정당화할 다른 길을 찾아냈다. 기회만 있으면 그는 우리에게 일깨운다. 「쟤는 이가 하나도 없어.」[44] 우리 모두는 내 또 다른 누이의 큰딸도 기억하고 있다. 당시 여섯 살이던 그 아이는 한 시간 반 동안이나 이모들을 차례로 붙들고 「루시는 아직

그거 이해 못 하지, 그렇지?」 하고 물으며 다짐을 받으려 했다. 루시는 두 살 반 아래의 경쟁자였다.

형제자매가 죽는 이 꿈, 곧 부풀려진 적대감을 뜻하는 꿈을 나는 여성 환자들 누구에게서도 어김없이 찾아냈다. 예외는 단 하나뿐이었는데, 그것도 쉽게 달리 해석하여 규칙을 확증하는 예로 바꿀 수 있었다. 한번은 치료 시간에 한 부인에게 이런 사정을 설명하고 있었다. 지금 살펴보고 있는 증상과 관계가 있어 보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녀는 그런 꿈을 꾼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그녀는 이 문제와는 아무 상관이 없을 듯한 다른 꿈을 하나 떠올렸다. 네 살 때, 곧 집안의 막내였을 때 처음 꾸었고 그 뒤로 되풀이해서 꾼 꿈이었다. 「모두 꿈꾼 사람의 형제자매와 남녀 사촌들인 아주 많은 아이들이 풀밭에서 뛰놀고 있었다. 갑자기 모두 날개가 돋더니 날아올라 사라져 버렸다.」 그녀는 이 꿈의 뜻을 전혀 짐작하지 못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꿈이 형제자매 모두가 죽는 꿈이며, 그것도 검열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은 본래 형태 그대로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아볼 것이다. 나는 감히 다음과 같은 해석을 끼워 넣어 본다. 많은 아이들 가운데 하나가 죽었을 때 — 이 경우에는 두 형제의 아이들이 한 형제자매처럼 함께 자랐다 — 당시 아직 네 살이 안 된 우리의 꿈꾼 사람이 어느 지혜로운 어른에게 「아이들은 죽으면 어떻게 돼요?」 하고 물었을 법하지 않은가? 대답은 아마 「날개가 돋아서 천사가 된단다」였을 것이다. 이 설명에 따르면 꿈속의 형제자매와 사촌들은 이제 모두 천사처럼 날개가 있고 — 이것이 중요한 점인데 — 날아가 버린다. 우리의 꼬마 천사 제조자는 혼자 남는다. 생각해 보라, 그 많던 아이들 가운데 단 하나만 남는 것이다! 아이들이 풀밭 위에서 뛰논다는 특징은 거의 틀림없이 나비를 가리킨다. 마치 옛사람들이 프시케를 나비의 날개를 지닌 모습으로 떠올리게 된 것과 똑같은 연상에 아이도 이끌린 것 같다.

이제 누군가는 이렇게 반박할지도 모른다. 아이가 형제자매에게 적대적 충동을 품는다는 것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치자. 그러나 아이의 심성이 어떻게 경쟁자나 자기보다 힘센 놀이 친구가 죽기를 바랄 만큼 사악함의 극에 이를 수 있단 말인가? 마치 모든 잘못은 사형으로만 속죄할 수 있다는 듯이 말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죽어 있음」에 대한 아이의 관념이 우리의 관념과 낱말 말고는 공통점이 거의 없다는 것을 잊고 있다. 아이는 부패의 끔찍함도, 차가운 무덤 속에서 떠는 일도, 끝없는 무(無)의 공포도 알지 못한다. 저세상에 관한 모든 신화가 증언하듯, 어른은 이런 것을 생각 속에 품고 견디기를 그토록 힘들어하는데 말이다. 아이에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낯설다. 그래서 아이는 이 끔찍한 낱말을 가지고 놀며 다른 아이를 을러댄다. 「너 또 그러면 죽을 거야, 프랜시스가 죽은 것처럼.」 그러면 가엾은 어머니는 몸서리를 친다. 인간의 태반이 어린 시절을 넘겨 살지 못한다는 것을 아마 잊을 수 없기 때문이리라. 여덟 살이나 된 아이도 아직은 자연사 박물관에 다녀와서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엄마, 나 엄마 정말 사랑해. 엄마가 죽으면 박제로 만들어서 여기 방에 세워 둘 거야. 그러면 언제나, 언제나 엄마를 볼 수 있잖아!」 죽어 있음에 대한 아이의 관념은 이토록 우리의 관념과 닮은 데가 없다.[45]

죽기 전의 고통스러운 장면들을 보지 않고 지나온 아이에게, 죽어 있다는 것은 「가 버렸다」는 것, 곧 남은 사람들을 더는 귀찮게 하지 않는다는 것과 같은 뜻이다. 이 부재가 여행 때문인지, 사이가 멀어져서인지, 죽음 때문인지, 그것이 어떤 방식과 수단으로 생겨났는지를 아이는 가리지 않는다. 아이의 선사 시대에 유모가 내보내지고 그 뒤 얼마 안 가 어머니가 죽었다면, 분석으로 밝혀지듯 아이의 기억 속에서 두 체험은 서로 겹쳐진다. 아이가 곁에 없는 사람을 그리 애타게 그리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여름에 몇 주 동안 여행을

다녀와 물어보았다가 「아이들이 어머니를 한 번도 찾지 않았어요」라는 대답을 들은 많은 어머니들이 서글프게 깨달은 바다. 그러나 어머니가 정말로 저 「어떤 나그네도 그 경계에서 돌아오지 못한 미지의 나라」로 가 버리면, 아이들은 처음에는 어머니를 잊어버린 듯 보이다가 나중에야 비로소 죽은 어머니를 떠올리기 시작한다.

그러니 아이에게 다른 아이가 없어졌으면 하고 바랄 동기가 있다면, 이 소원에 그 아이가 죽었으면 하는 형태의 옷을 입히지 못하게 막을 제약은 하나도 없다. 그리고 죽음을 바라는 꿈에 대한 심리적 반응은, 내용이야 온갖 차이가 있을지언정 아이의 소원이 어른의 소원과 어떻게든 같은 것임을 증명한다.

형제자매를 향한 아이의 죽음 소원이 아이다운 이기주의, 곧 형제자매를 경쟁자로 여기게 만드는 이기주의로 설명되었다고 하자. 그렇다면 아이에게 사랑을 베풀고 욕구를 채워 주는 부모, 바로 그 이기적인 동기에서라도 아이가 무사하기를 바라야 마땅한 부모를 향한 같은 소원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이 어려움을 푸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부모가 죽는 꿈이 대개 부모 가운데 꿈꾸는 사람과 성이 같은 쪽에 관계한다는 경험이다. 그래서 남자는 주로 아버지가 죽는 꿈을, 여자는 어머니가 죽는 꿈을 꾼다. 이것이 늘 그렇다고 주장할 수는 없지만, 이 꿈이 앞서 말한 방식으로 압도적으로 많이 나타난다는 것은 너무도 뚜렷해서, 보편적으로 작용하는 어떤 요인으로 설명하지 않을 수 없다. 대담하게 말하자면, 이것은 마치 이른 시기에 성적 선호가 작동하기 시작하는 것 같고, 마치 사내아이는 아버지를 사랑의 경쟁자로 여기고 여자아이는 어머니에게 같은 태도를 취하는 것 같다 — 없애 버리면 자기에게 이득이 될 수밖에 없는 경쟁자로 말이다.

이 생각을 끔찍하다고 물리치기 전에, 독자는 부모와 자식 사이의 실제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란다. 문화와 공경의 요구가 이 관계에 바라는 것과, 매일의 관찰이 사실로 보여 주는 것을 구별해야 한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 속에 숨어 있는 적대적 감정의 원인은 하나가 아니다. 검열 앞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 소원이 일어나는 데 필요한 조건이 더없이 넉넉하게 갖추어져 있다. 먼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살펴보자. 나는 우리가 십계명의 계율에 부여해 온 신성함이 현실을 보는 우리의 눈을 흐린다고 생각한다. 인류의 대부분이 제5계명[46]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아마 감히 알아차리려 하지도 않는 것 같다. 인간 사회의 가장 낮은 층에서나 가장 높은 층에서나, 부모에 대한 공경은 다른 이해관계 앞에서 뒤로 물러나는 것이 예사다. 인간 사회의 태고 시대로부터 신화와 전설 속에 전해 오는 어렴풋한 소식들에서, 우리는 아버지의 권력과 그 권력을 휘두른 무자비함에 관해 불쾌한 생각을 얻게 된다. 크로노스는 멧돼지가 암퇘지의 새끼들을 집어삼키듯 제 자식들을 집어삼키고, 제우스는 아버지를 거세하고,[47] 그 자리를 차지해 지배자가 된다. 옛 가족에서 아버지가 전제적으로 다스릴수록 아들은 더욱 적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었을 것이며, 정해진 후계자로서 아버지가 죽은 뒤 스스로 주인이 되려는 조바심도 그만큼 컸을 것이 틀림없다. 우리 시대의 중산층 가정에서도 아버지는 아들이 제 운명을 스스로 정하지 못하게 하거나 그에 필요한 수단을 주지 않음으로써, 부자 관계에 본디 깃들어 있는 증오의 싹이 자라도록 거드는 것이 보통이다. 의사는 아버지를 잃은 아들의 슬픔이, 마침내 얻은 자유에 대한 만족감을 억누르지 못하는 것을 자주 보게 된다. 어느 아버지나 딱할 만큼 낡아 버린 potestas patris〔아버지의 권력〕 가운데 오늘날의 사회에 아직 남아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필사적으로 붙들고 있으며, 입센처럼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오래된 다툼을 작품의 전면에 내세우는

시인은 누구나 효과를 거두리라 확신할 수 있다. 어머니와 딸 사이의 갈등은, 딸이 자라 성적 자유를 바라는데 어머니가 자기를 감시하는 사람임을 알게 될 때, 그리고 거꾸로 어머니가 피어나는 딸의 아름다움을 보며 자신이 성적 요구를 단념할 때가 왔다는 경고를 받을 때 생겨난다.

이런 사정은 모두 누구나 아는 것이고 누구나 살펴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부모에 대한 공경이 오래전부터 범할 수 없는 것이 된 사람들도 부모가 죽는 꿈을 꾼다는 사실을 설명할 수 없다. 게다가 우리는 앞의 논의로 미루어, 부모를 향한 죽음 소원도 가장 이른 유년기에서부터 설명해야 하리라고 이미 예상하고 있다.

이 추측은 정신신경증 환자들에게 적용해 보면, 그들을 대상으로 한 분석을 통해 의심할 수 없을 만큼 확실하게 재확인된다. 여기서 드러나는 것은, 아이의 성적 소원이 — 싹트는 상태에서도 이런 이름으로 부를 만하다면 — 아주 이른 시기에 깨어나며, 여자아이의 첫 끌림은 아버지를, 사내아이가 처음 품는 아이다운 갈망은 어머니를 향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사내아이에게는 아버지가, 여자아이에게는 어머니가 성가신 경쟁자가 된다. 이런 감정이 아이를 죽음 소원으로 이끄는 데 얼마나 적은 것으로도 충분한지는 형제자매의 경우에서 이미 보여 주었다. 성적 선택은 대개 부모 쪽에서 일찍 드러난다. 아버지는 어린 딸을 귀여워하고 어머니는 아들들 편을 드는 것이 자연스러운 경향인데, 성의 마력이 판단을 흐리지 않는 한에서는 둘 다 아이들의 교육에 진지하게 힘쓴다. 아이는 어떤 편애든 아주 잘 알아채며, 부모 가운데 자기를 밀어내는 쪽에 맞선다. 어른에게서 사랑을 얻는다는 것은 아이에게 특정한 갈망의 충족일 뿐 아니라, 다른 면에서도 자기 뜻이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아이가 부모 가운데에서 부모의

선택에 상응하는 선택을 한다면, 아이는 자신의 성적 충동을 따르는 동시에 부모에게서 나오는 감정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런 유년기의 끌림을 보여 주는 징후는 대부분 흔히 간과되지만, 그중 몇몇은 유년기의 첫 몇 해가 지난 뒤에도 관찰할 수 있다. 내가 아는 여덟 살 소녀는 어머니가 식탁에서 불려 나가면 그 기회를 틈타 자기가 어머니의 후계자라고 선포한다. 「이제 내가 엄마야. 찰스, 채소 더 먹을래? 어서 좀 더 먹어.」 등등. 네 살이 채 안 된, 유난히 영리하고 활발한 한 소녀는 아이 심리의 이 대목이 남달리 훤히 들여다보이는데, 대놓고 이렇게 말한다. 「이제 엄마는 가 버려도 돼. 그러면 아빠는 나랑 결혼해야 하고, 나는 아빠의 아내가 될 거야.」 그렇다고 이 소원이 아이가 어머니를 다정하게 사랑할 가능성마저 아이의 삶에서 결코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아버지가 여행을 떠날 때마다 어린 사내아이가 어머니 곁에서 잘 수 있고, 아버지가 돌아오면 훨씬 덜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아이 방으로 돌아가야 한다면, 사랑하는 예쁜 엄마 곁의 자리를 지키려고 아버지가 늘 없었으면 하는 소원이 쉽게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아버지의 죽음은 분명 이 소원을 이루는 수단이다. 이를테면 할아버지처럼 「죽은」 사람들은 늘 없고 결코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아이는 경험으로 배웠기 때문이다.

어린아이들을 관찰한 결과는 억지를 쓰지 않아도 여기서 내놓은 해석에 잘 들어맞지만, 성인 신경증 환자의 정신분석이 의사에게 들이미는 것만큼 완전한 확신을 주지는 못한다. 이 경우에는 문제의 꿈들이, 소원 꿈이라는 해석을 피할 수 없게 만드는 서두와 함께 보고된다. 어느 날 나는 한 부인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것을 본다. 그녀가 말한다. 「이제 친척들을 보고 싶지 않아요. 다들 저를 보면 몸서리를 칠 게 틀림없어요.」 그러고는 거의 아무런 이음새도 없이, 꿈 하나가 기억난다고 이야기한다. 물론 그 꿈이 무슨 뜻인지는 모른다. 네

해 전에 꾼 꿈으로, 내용은 이렇다. 여우인지 스라소니인지가 지붕 위를 거닐고 있다. 그러다가 무언가가 떨어진다, 혹은 그녀가 떨어진다. 그 뒤에 그녀의 어머니가 죽어서 집 밖으로 실려 나간다 — 그러자 꿈꾼 사람은 서럽게 운다. 이 꿈은 어머니가 죽은 모습을 보고 싶다는 어린 시절의 소원을 뜻하는 것이 틀림없으며, 친척들이 자기를 보면 몸서리를 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이 꿈 때문이라고 내가 알려 주자마자, 그녀는 꿈을 풀 재료를 얼마간 내놓았다. 「스라소니 눈」은 그녀가 아주 어렸을 때 골목의 한 사내아이가 그녀에게 붙인 욕된 별명이었다. 그리고 그녀가 세 살 때 벽돌 하나가 어머니 머리 위로 떨어져 어머니가 피를 많이 흘린 일이 있었다.

나는 여러 가지 심리 상태를 차례로 거친 한 젊은 아가씨를 철저히 연구할 기회가 있었다. 병이 시작될 때의 광란에 가까운 흥분 상태에서 환자는 어머니에게 아주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 어머니가 침대에 다가오기만 하면 때리고 욕을 퍼부었지만, 한편으로 훨씬 나이 많은 언니에게는 여전히 다정하고 순종적이었다. 이어서 정신은 맑지만 다소 무감각하고 잠이 몹시 어지러운 상태가 뒤따랐다. 내가 그녀를 치료하고 꿈을 분석하기 시작한 것은 이 단계에서였다. 그 꿈들 가운데 엄청나게 많은 수가 다소 알아보기 어려운 방식으로 어머니의 죽음을 다루었다. 어떤 때는 그녀가 어느 노부인의 장례식에 참석해 있었고, 어떤 때는 자매들이 상복을 입고 식탁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이 꿈들의 뜻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회복이 더 진행되자 히스테리성 공포증이 나타났는데, 그 가운데 가장 괴로운 것은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는 생각이었다. 그녀는 어디에 있든 늘 집으로 서둘러 돌아가서 어머니가 아직 살아 있는지 확인해야 했다. 그런데 이 사례는 나의 다른 경험들에 비추어 볼 때 무척 교훈적이었다. 이 사례는 말하자면 여러 나라 말로 나란히 옮겨 놓은 번역처럼, 심리 장치가 흥분을 일으키는

같은 표상에 반응하는 여러 방식을 보여 주었다. 내가 둘째 심리적 심급이 제압된 상태로 이해하는 흥분 상태에서는, 어머니를 향한 무의식적 적의가 운동 충동으로서 힘을 얻었다. 이어 소요가 진압되어 평온이 찾아오고 검열의 지배가 회복되자, 이 적대감은 어머니가 죽었으면 하는 소원을 실현하려고 꿈의 영역에만 드나들 수 있었다. 그리고 정상 상태가 한층 더 굳건해진 뒤에는, 히스테리성 역반응이자 방어 현상으로서 어머니에 대한 지나친 걱정을 만들어 냈다. 이런 고찰에 비추어 보면, 히스테리가 있는 아가씨들이 왜 그토록 자주 어머니에게 유별나게 매달리는지도 더는 설명하지 못할 일이 아니다.

또 한번은 강박 신경증 때문에 삶을 거의 견딜 수 없게 된 한 젊은이의 무의식적 정신생활을 깊이 들여다볼 기회가 있었다. 그는 거리에 나갈 수가 없었는데, 마주치는 사람을 모두 죽이게 되리라는 강박 관념에 시달렸기 때문이다. 그는 시내에서 일어났을지도 모를 살인 사건의 혐의를 받게 될 경우에 대비해 알리바이 증거를 갖추는 데 하루하루를 보냈다. 이 사람이 교양이 높은 만큼 도덕적이기도 했다는 것은 굳이 말할 필요도 없다. 분석은 — 덧붙이자면 이 분석은 치유로 이어졌다 — 이 불쾌한 강박 관념의 바탕에서, 다소 지나치게 엄격했던 아버지를 향한 살해 충동을 찾아냈다. 그 충동은 본인도 크게 놀랐지만 일곱 살 때 이미 의식적으로 표출된 적이 있었고, 물론 그보다 훨씬 이른 유년기에 생겨난 것이었다. 아버지가 고통스러운 병을 앓다가 세상을 떠난 뒤, 젊은이가 서른한 살 때 낯선 사람들에게로 옮겨 간 강박적 자책이 앞서 말한 공포증의 형태로 나타났다. 제 아버지를 산꼭대기에서 낭떠러지로 떠밀고 싶어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와 그만큼 가깝게 맺어져 있지 않은 사람들의 목숨을 아껴 주리라고 믿을 수 없는 것도 당연하다. 그런 사람은 제 방에 틀어박혀 문을 걸어 잠그는 것이 옳다.

이제는 꽤 많이 쌓인 내 경험에 따르면, 나중에 신경증 환자가 되는 모든 사람의 유년기 심리에서 부모가 주역을 맡는다. 부모 가운데 한쪽을 사랑하게 되고 다른 쪽을 미워하는 일은 저 숙명적인 재료의 총체를 이루는 데 한몫하는데, 이 재료는 심리적 충동들이 제공하여 유년기에 형성된 것으로, 나중에 신경증에서 나타나는 증상에 더없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나는 정신신경증 환자가 이 점에서, 전혀 새롭고 자기들에게만 고유한 무언가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식으로 정상인과 뚜렷이 구별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정상적인 아이들을 이따금 관찰해 봐도 드러나듯, 정신신경증 환자들은 부모를 향한 애정 어린 소원이나 적대적 소원에서, 대부분의 아이들 마음속에 덜 뚜렷하고 덜 강하게 존재하는 감정을 과장된 형태로 보여 줄 뿐일 가능성이 훨씬 크다. 고대는 이 사실을 확인해 주는 전설의 재료를 우리에게 남겨 주었으며, 이 전설들이 지닌 깊고 보편적인 영향력은, 유년기 심리에 관한 앞의 가정에도 그와 비슷한 보편적 타당성을 인정할 때에만 설명할 수 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오이디푸스 왕의 전설과, 소포클레스가 쓴 같은 이름의 극이다. 테베의 왕 라이오스와 이오카스테의 아들 오이디푸스는 젖먹이 때 내버려진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게 되리라는 신탁이 아버지에게 내려졌기 때문이다. 그는 구조되어 다른 나라의 궁정에서 왕자로 자라다가, 제 출신이 의심스러워지자 그 역시 신탁에 묻는다. 그리고 고향을 피하라는 조언을 듣는데, 그가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의 남편이 될 운명이기 때문이다. 고향이라고 믿은 곳에서 멀어지는 길 위에서 그는 라이오스 왕을 만나, 갑자기 벌어진 다툼 끝에 그를 때려죽인다. 이어 테베의 성문에 이르러 길을 가로막고 있던 스핑크스의 수수께끼를 풀자, 테베 사람들은 감사의 뜻으로 그를 왕으로 뽑고 이오카스테를 아내로 준다. 그는 오랫동안 평화롭고 영예롭게

다스리며, 자기 어머니인 줄 모르는 그녀와의 사이에서 두 아들과 두 딸을 얻는다. 그러다 마침내 역병이 돌자 테베 사람들은 다시 신탁에 묻는다. 소포클레스의 비극은 여기서 시작된다. 사절들은 라이오스를 죽인 자를 나라에서 몰아내면 역병이 곧 그치리라는 조언을 가져온다. 그러나 그자는 어디에 숨어 있는가?

「그들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 아무런 추측도 발견으로 이어지지 않는 터에, 그토록 오래된 죄를 저지른 자들의 자취를 어떻게 더듬어 찾을 것인가?」[48]

이제 극의 줄거리는, 오이디푸스 자신이 라이오스를 죽인 자이며 죽은 그 사람과 이오카스테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대한, 차츰 완성되어 가면서도 교묘하게 늦추어지는 — 정신분석 작업을 닮은 — 폭로 하나로만 이루어진다. 자기도 모르게 저지른 끔찍한 짓들에 깊이 충격을 받은 오이디푸스는 스스로 눈을 멀게 하고 고향을 떠난다. 신탁은 이루어졌다.

『오이디푸스 왕(Oedipus Tyrannus)』은 이른바 운명 비극이다. 그 비극적 효과는 신들의 막강한 의지와, 파멸의 위협을 받는 인간들의 헛된 저항 사이의 대립에 있다고들 한다. 깊이 감동한 관객이 이 비극에서 배워야 할 교훈은 신의 뜻에 순응하고 자신의 무력함을 고백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 근대의 작가들은 같은 대립을 자기가 지어낸 이야기에 담아 비슷한 비극적 효과를 얻으려고 애써 왔다. 그러나 죄 없는 인간들이 온갖 몸부림을 쳐도 저주나 신탁의 선고가 그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도, 관객들은 무덤덤하게 앉아 있었다. 후대의 운명 비극들은 모두 아무런 효과도 거두지 못했다.

『 오이디푸스 왕 』 이 당대의 그리스인들을 움직였던 것 못지않게 근대인들도 움직일 수 있다면, 그 까닭은 그리스 비극의 효과가 운명과 인간 의지의 대립에 바탕을 둔다는 가정에만 있을 수는 없고, 그 대립을

보여 주는 재료의 독특한 성질에서 찾아야 한다. 우리가 『조상 할머니(Die Ahnfrau)』 나 후대의 다른 비극들에 나오는 상황은 제멋대로 지어낸 것이라고 정당하게 물리치면서도, 『오이디푸스 왕』에서는 운명의 강제하는 힘을 기꺼이 인정하게 되는 목소리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틀림없다. 그리고 오이디푸스 왕의 이야기 속에는 이 내면의 목소리에 호응하는 요인이 있는 것이 틀림없다. 그의 운명이 우리를 움직이는 까닭은 오직 그것이 우리의 운명일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신탁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그에게 내린 것과 같은 저주를 우리에게도 내렸으니 말이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최초의 성적 충동을 어머니에게, 최초의 증오와 난폭한 소원을 아버지에게 돌리도록 운명 지어졌는지도 모른다. 우리의 꿈을 보면 그렇다고 확신하지 않을 수 없다. 아버지 라이오스를 때려죽이고 어머니 이오카스테와 결혼한 오이디푸스 왕은 우리 어린 시절의 소원이 실현된 모습일 뿐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보다 운이 좋아서, 정신신경증 환자가 되지 않은 한, 그 뒤로 어머니에게서 성적 충동을 거두어들이고 아버지에 대한 질투를 잊는 데 성공했다. 이 원초적 소원이 이루어진 그 인물 앞에서, 우리는 이 소원들이 우리 안에서 겪어 온 억압의 온 힘으로 뒷걸음질 친다. 시인은 분석으로 오이디푸스의 죄를 드러내 보이면서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내면을 알아보라고 다그친다. 이 충동들은 억제되었을지언정 그 내면에 여전히 있다. 코로스가 우리를 떠나보내며 남기는 비유는 —

「 …… 보라! 이름난 수수께끼를 풀었고 덕이 빼어났던 이 오이디푸스를, 인기에도 시민들의 행운에도 기대지 않았던 이 사람을. 보라, 마침내 얼마나 거센 역경의 폭풍이 그를 덮쳤는가」(제5막 4장).

이 경고는 우리 자신과 우리의 자만을 겨눈다. 어린 시절 이래 스스로 보기에 그토록 지혜롭고 그토록 강해진 우리를 말이다. 오이디푸스처럼 우리는 도덕을 거스르는 소원들, 자연이 우리에게 떠안긴 소원들을 모른

채 살아가며, 그 소원들이 드러나고 나면 어린 시절의 장면들에서 모든 눈길을 돌려 버리고 싶어 한다.

소포클레스의 비극 본문 자체에도, 오이디푸스 전설이 아주 오래된 꿈 재료에서 비롯한다는 사실을 틀림없이 가리키는 대목이 있다. 그 재료란 최초의 성적 충동 때문에 부모와의 관계가 고통스럽게 흐트러지는 것이다. 아직 진상을 깨닫지 못했지만 신탁 때문에 걱정에 빠진 오이디푸스를, 이오카스테는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꾸는 꿈을 들려주며 위로한다. 그녀 자신은 그 꿈에 아무런 의미도 두지 않지만 —

「꿈속에서 스스로 제 어머니와 잠자리를 함께하는 자라고 여기는 것은 이미 많은 사람이 겪은 운명이니라. 허나 이런 일을 하찮게 여기는 자가 가장 수월하게 세상을 살아가느니라」(제4막 3장).

자기 어머니와 성교하는 꿈은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그 시절에도 많은 사람이 꾸었으며, 그들은 분개하고 놀라워하며 그 꿈을 이야기한다. 짐작할 수 있듯이, 이 꿈은 비극을 푸는 열쇠이며 아버지가 죽는 꿈을 보완하는 짝이다. 오이디푸스 이야기는 이 두 전형적인 꿈에 대한 상상의 반응이다. 그리고 어른이 이 꿈을 꿀 때 저항감을 느끼며 체험하듯, 전설도 공포와 자기 징벌을 담고 있을 수밖에 없다. 그 밖에 전설이 띠게 된 겉모습은, 이 재료를 신학적 목적에 쓰이게 하려는 몰이해한 이차 가공(secondary elaboration)의 결과다(이 절에서 다룬 노출증의 꿈 재료 참조). 신의 전능과 인간의 책임을 화해시키려는 시도는, 물론 다른 모든 재료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재료에서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49]

가까운 사람이 죽는 전형적인 꿈을 떠나기 전에, 이 꿈들이 꿈 이론 전반에 대해 지니는 의미를 조금 더 밝혀 두어야겠다. 이 꿈들은, 억압된 소원이 만들어 낸 꿈 사고가 검열을 완전히 벗어나 아무 변화 없이 꿈으로 옮겨지는 아주 드문 경우가 실현된 모습을 보여 준다. 이런

결과를 가능하게 하는 특별한 조건이 있어야 한다. 나는 다음 두 요인에서 이 꿈들에 유리한 사정을 찾는다. 첫째, 우리에게서 이보다 더 멀리 있다고 믿는 소원은 없다. 우리는 이런 소원이라면 「꿈에도 떠오르지 않으리라」고 믿는다. 그래서 꿈 검열은 이런 괴물 같은 것에 대비하고 있지 않다. 솔론의 입법이 부친 살해에 대한 형벌을 정해 두지 못했던 것과 마찬가지다. 둘째, 억압되어 짐작조차 되지 않는 이 소원은 바로 이 경우에 유난히 자주 낮의 경험의 한 조각, 곧 사랑하는 사람의 목숨에 대한 걱정과 맞닥뜨린다. 이 걱정은 같은 내용을 지닌 소원을 이용하는 것 말고는 달리 꿈에 기록될 길이 없다. 그러나 소원은 낮 동안 일깨워진 걱정 뒤에 제 모습을 감출 수 있다. 이 모든 것을 더 단순한 과정으로 여겨, 사람은 낮에 마음을 쓰던 일을 밤에 꿈속에서 이어 갈 뿐이라고 생각하고 싶다면,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 꿈은 꿈 설명과의 모든 연관에서 떨어져 나가고, 쉽게 풀 수 있는 문제 하나가 쓸데없이 남게 된다.

이 꿈들과 불안 꿈의 관계를 짚어 보는 것도 교훈적이다. 가까운 사람들이 죽는 꿈에서 억압된 소원은 검열을, 그리고 검열이 일으키는 왜곡을 피하는 길을 찾아냈다. 이 경우 반드시 뒤따르는 부수 현상은 꿈속에서 불쾌한 느낌을 받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불안 꿈은 검열이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제압될 때에만 생겨나며, 거꾸로 불안이 이미 신체적 원천에서 주어져 있을 때에는 검열을 제압하기가 쉬워진다. 이로써 검열이 무엇을 위해 제 직무를 수행하고 꿈 왜곡을 행하는지가 분명해진다. 검열은 불안이나 그 밖의 불쾌한 정동이 생겨나는 것을 막으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다.

앞에서 나는 유년기 마음의 이기주의에 관해 이야기했는데, 이제 이 주제를 다시 꺼내어, 꿈도 이 특성을 간직하고 있으며 — 그럼으로써 유년기의 삶과 이어져 있음을 보여 준다는 것을 시사해 두고자 한다.

모든 꿈은 철저하게 이기적이다. 모든 꿈에는 그 소중한 자아가, 비록 위장된 모습일지라도 나타난다. 꿈에서 실현되는 소원은 어김없이 이 자아의 소원이다.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꿈을 불러일으켰다고 여긴다면 그것은 겉모습에 속은 것일 뿐이다. 이 주장에 어긋나 보이는 예를 몇 가지 분석해 보겠다.

I. 아직 네 살이 안 된 사내아이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그는 곱게 차린 커다란 접시를 보았는데, 그 위에는 커다란 구운 고기 한 덩이가 놓여 있었다. 그런데 고기가 갑자기 — 잘게 썰린 것이 아니라 — 몽땅 먹혀 버렸다. 그는 그것을 먹은 사람을 보지 못했다.[50]

이 조그만 녀석이 꿈에서 본 호사스러운 식사, 그 식사를 한 이 낯선 사람은 대체 누구일까? 그 설명은 낮의 경험에서 얻어야 한다. 아이는 며칠째 의사의 처방에 따라 우유만 먹고 지냈는데, 꿈 전날 저녁에 말썽을 부리는 바람에 벌로 저녁밥을 거르게 되었다. 아이는 이런 굶기 치료를 이미 한 번 겪은 적이 있었고, 그때 아주 의젓하게 견뎌 냈다. 이번에도 먹을 것을 하나도 얻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았지만, 배가 고프다는 내색은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교육이 아이에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이다. 이것은 꿈 왜곡의 시초를 보여 주는 이 꿈에서도 드러난다. 이 푸짐한 식사, 그것도 구운 고기로 차린 식사를 바라는 사람이 아이 자신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아이는 이 식사가 자기에게 금지되어 있다는 것을 안다. 그래서 아이들은 꿈에서 흔히 몸소 식탁에 앉지만(3장의 우리 어린 안나의 딸기 꿈 참조), 이 아이는 감히 그러지 못한다. 그 사람은 익명으로 남는다.

II. 한번은 서점 진열대에서 『애서가 총서』의 새 권 하나를 보는 꿈을 꾼다. 내가 늘 사 보는 총서다(미술 연구서, 세계사 연구서, 이름난 예술 중심지 등). 새 총서의 이름은 『이름난 웅변가들(웅변집)』이고, 첫 권에는 레허 박사라는 이름이 붙어 있다.

분석을 해 보면, 독일계 야당의 장광설 연설가인 레허 박사의 명성이 꿈꾸는 동안 내 생각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은 있을 법하지 않아 보인다. 실은 며칠 전에 나는 새 환자 몇 사람의 심리 치료를 맡았고, 그 뒤로 하루에 열 시간에서 열두 시간씩 말을 해야 했다. 그러니 장광설 연설가는 바로 나 자신이다.

III. 또 한번은 내가 아는 대학 선생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꿈을 꾼다. 내 아들, 근시. 이어서 짧은 말과 대꾸로 이루어진 대화가 뒤따른다. 그다음에 꿈의 셋째 부분이 이어지는데, 여기에는 나와 내 아들들이 나온다. 잠재적 꿈 내용에 관한 한, 아버지와 아들과 M. 교수는 똑같이 나와 내 맏아들을 대신하는 허수아비에 지나지 않는다. 이 꿈은 또 다른 특이점 때문에 뒤에서 다시 살펴보겠다.

IV. 다음 꿈은 다정한 염려 뒤에 숨은, 참으로 비열한 이기적 감정의 예를 보여 준다.

내 친구 오토가 아파 보인다. 얼굴은 갈색이고 눈은 튀어나와 있다.

오토는 우리 집 주치의로, 나는 그에게 결코 다 갚을 수 없을 만큼 큰 빚을 지고 있다. 여러 해 동안 내 아이들의 건강을 지켜 주었기 때문이다. 그는 아이들이 병에 걸리면 번번이 잘 고쳐 주었고, 그 밖에도 선물할 핑계가 조금이라도 생기면 어김없이 아이들에게 선물을 안겼다. 꿈을 꾼 날 그가 우리 집에 들렀는데, 아내는 그가 피곤하고 지쳐 보인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러자 밤에 내 꿈이 찾아와 그에게 바제도병의 증상 몇 가지를 덧씌운다. 꿈 해석에 관한 내 규칙을 무시하는 사람이라면, 이 꿈을 내가 친구의 건강을 염려하고 있고 그 염려가 꿈에서 실현되었다는 뜻으로 이해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꿈은 꿈이 소원 성취라는 주장뿐 아니라, 꿈은 이기적 충동에만 열려 있다는 주장과도 모순될 것이다. 그러나 이 꿈을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은 내게 설명해 보라. 오토의 겉모습은 그런 진단을 내릴 근거를 조금도 주지

않는데, 나는 왜 그가 바제도병에 걸렸을까 봐 두려워하는가? 이와 달리 내 분석은 여섯 해 전에 일어난 일에서 가져온 다음과 같은 재료를 내놓는다. R. 교수를 포함한 우리 일행 몇 사람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마차를 타고, 우리 시골 별장에서 몇 시간 떨어진 N. 숲을 지나가고 있었다. 술이 덜 깬 마부가 우리를 마차째 둑 아래로 굴러떨어지게 했는데, 우리가 모두 다치지 않고 무사했던 것은 순전히 운 좋은 우연 덕분이었다. 그래도 우리는 가장 가까운 여관에서 밤을 보내야 했고, 그곳 사람들은 우리가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에 크게 동정했다. morbus Basedowii〔바제도병〕의 틀림없는 징후를 보이는 — 얼굴 피부가 갈색을 띠고 눈이 튀어나와 있었을 뿐 갑상선종은 없었다 — 한 신사가, 우리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다고 나서며 무엇을 해 드리면 좋겠느냐고 물었다. R. 교수는 특유의 단호한 말투로 대답했다. 「잠옷 한 벌만 빌려주십시오.」 그러자 우리의 너그러운 벗은 「죄송하지만 그건 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고는 가 버렸다.

분석을 이어 가자, 바제도가 의사의 이름일 뿐 아니라 이름난 교육자의 이름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떠오른다. (깨어 있는 지금은 이 사실을 그다지 확신하지 못하겠다.) 내 친구 오토는,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내 아이들의 신체 교육을 — 특히 사춘기 동안의 교육을(그래서 잠옷이 나온다) — 맡아 달라고 내가 부탁해 둔 사람이다. 꿈에서 오토를 앞서 말한 우리의 너그러운 은인의 병적 증상과 함께 봄으로써, 나는 분명 이렇게 말하려는 것이다.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그때 L. 남작이 호의 어린 제안을 했는데도 그에게서 기대할 것이 없었던 것만큼이나, 내 아이들도 오토에게서 기대할 것이 없을 것이다.」 이제 이 꿈이 어떻게 이기적으로 방향을 트는지 분명해졌을 것이다.[51]

그렇다면 소원 성취는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내 꿈에서 늘 험한 대접을 받는 것이 팔자인 듯한 내 친구 오토에게 앙갚음을 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사정에 있다. 꿈에서 오토를 L. 남작으로 나타내면서, 나는 동시에 나 자신을 다른 누군가와, 곧 R. 교수와 동일시했다. 앞서 말한 그 일이 있었을 때 R.이 L. 남작에게 무언가를 부탁했듯이, 나도 오토에게 무언가를 부탁해 두었기 때문이다. 바로 이것이 요점이다. R. 교수는 나와 얼마간 비슷하게 학파의 울타리 밖에서 홀로 제 길을 걸어왔고, 오래전에 받을 자격을 얻은 칭호를 늘그막에야 받았다. 그러니 나는 또다시 교수가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늘그막에」라는 말 자체가 소원 성취다. 내가 오래 살아서, 내 아들이 사춘기를 헤쳐 나가도록 몸소 이끌어 주리라는 뜻이기 때문이다.

이 책의 초판에서는 그 밖의 전형적인 꿈들을 짧게만 다루었다. 쓸 만한 재료가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뒤로 경험이 늘어난 덕분에, 이제는 이 꿈들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정말로 매번 같은 뜻을 지니는 꿈이고, 둘째는 내용이 똑같거나 비슷한데도 더없이 다양하게 해석해야 하는 꿈이다. 첫째 부류의 전형적인 꿈 가운데서 나는 시험 꿈과 이른바 치아 자극 꿈을 자세히 살펴보겠다.

졸업 시험에 합격해 졸업장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시험에 떨어진다거나 공부를 다시 해야 한다는 등의 불안 꿈이 얼마나 집요하게 자기를 쫓아다니는지 하소연한다. 대학 학위를 가진 사람에게는 이 전형적인 꿈 대신 다른 꿈이 나타난다. 이 꿈은 그가 박사 학위 시험을 치러야 한다고 보여 주고, 그는 잠결에 자기는 이미 여러 해째 일을 해 오고 있으며 이미 대학 강사이거나 법률 사무소의 대표라고 헛되이 이의를 제기한다. 이것은 우리가 어린 시절 저지른 잘못 때문에 받았던 벌에 대한 지워지지 않는 기억이다. 우리 학업의 두 고비에서 치른 엄한 시험의 그 dies irae, dies illa 〔진노의 날, 그날〕에 우리 안에서 되살아난 기억이다. 신경증 환자의 「시험 공포증」도 이 어린애다운 불안 때문에 강해진다. 학생 신분을 벗어나고 나면, 우리를 벌하는 것은

더 이상 처음처럼 부모나 보호자도, 나중처럼 선생님도 아니다. 삶의 가차 없는 인과의 사슬이 그 뒤의 교육을 떠맡는다. 이제 우리가 졸업 시험이나 박사 학위 시험 꿈을 꾸는 것은 — 의인의 무리에 드는 사람이라 한들 이런 시험 앞에서 주눅 들지 않은 이가 누가 있으랴? — 무언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또는 마땅히 해내야 할 만큼 해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어떤 결과가 우리를 벌하지나 않을까 두려울 때마다, 요컨대 책임의 무게를 느낄 때마다다.

시험 꿈의 본래 설명은 식견 있는 한 동료의 말 덕분에 얻었다. 그는 어느 학술 토론에서, 자기 경험으로는 시험 꿈은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만 나타나지 결코 시험에서 낙방한 사람에게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주장한 적이 있다. 점점 더 확인되고 있듯이 시험에 대한 불안 꿈은 꿈꾸는 사람이 이튿날 책임 있는 행동을 앞두고 망신당할 가능성을 내다볼 때 나타나는데, 그렇다면 이 꿈은 아마 과거의 한 계기, 곧 크나큰 불안이 근거 없는 것이었음이 드러나고 결과가 그 불안을 반박해 준 계기를 골라낸 셈이다. 이것은 깨어 있을 때의 심급이 꿈 내용을 잘못 이해하는 아주 두드러진 예일 것이다. 꿈에 대한 이의, 곧 「하지만 나는 이미 박사인데」 등의 분개한 항의로 여겨지는 그 이의는 실은 꿈이 건네는 위로일 것이며, 따라서 이런 뜻일 것이다. 「내일을 두려워하지 마라. 졸업 시험을 앞두고 네가 품었던 불안을 생각해 보아라. 그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너는 지금 이 순간 박사다」 등. 그러나 우리가 꿈의 탓으로 돌리는 불안은 낮의 잔재에서 비롯한다.

나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서 이 설명을 시험해 볼 수 있었는데, 그 수가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결과는 모두 들어맞았다. 이를테면 나는 박사 학위 시험에서 법의학 과목에 낙방했지만, 꿈에서는 이 일로 한 번도 마음을 쓴 적이 없다. 반면 꿈에서 식물학, 동물학, 화학 시험은 꽤 자주 치렀는데, 이 과목들은 근거 있는 불안을 안고 시험을 치렀지만 운이

좋았거나 시험관이 너그러웠던 덕분에 벌을 면했다. 졸업 시험 꿈에서 나는 어김없이 역사 시험을 치른다. 당시 훌륭하게 통과한 과목이지만, 고백하자면 그것은 순전히, 마음씨 좋은 교수가 — 다른 꿈에 나오는 나의 외눈의 은인 말이다(1장 (나) 참조) — 내가 문제지의 세 문제 가운데 둘째 문제에 줄을 그어 그 문제는 묻지 말아 달라는 뜻을 비쳤다는 것을 흘려 넘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 환자 가운데 한 사람은 졸업 시험을 앞두고 학교를 그만두었다가 나중에 따로 시험을 치렀지만, 장교 시험에서는 떨어져 장교가 되지 못했다. 그는 앞의 시험 꿈은 꽤 자주 꾸지만 뒤의 시험 꿈은 한 번도 꾸지 않는다고 말한다.

앞서 말한 동료(빈의 슈테켈 박사)는 「Matura」라는 낱말의 이중 의미(Matura — 졸업 자격 시험: 성숙한, 무르익은)에 주의를 돌리면서, 이튿날 성적인 시험이 기다리고 있을 때 시험 꿈이 아주 자주 나타나는 것을 관찰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니까 이 경우 두려워하는 망신은 정력이 약하다는 것이 드러나는 데 있을 것이다. 한 독일 동료는 이에 이의를 제기하는데, 아마 정당하게도, 독일에서는 이 시험을 Abiturium이라고 부르므로 이런 이중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정동적 인상이 비슷하다는 점에서, 기차를 놓치는 꿈은 시험 꿈 옆에 놓일 만하다. 그 설명도 둘의 이런 가까운 관계를 정당화해 준다. 이 꿈들은 꿈속에서 느끼는 또 다른 불안감, 곧 죽음에 대한 불안에 맞서는 위로의 꿈이다. 「떠나다」는 죽음의 상징 가운데서도 가장 흔하고 가장 쉽게 손에 잡히는 것에 속한다. 그러므로 꿈은 위로하며 이렇게 말한다. 「진정하여라, 너는 죽지(떠나지) 않는다.」 시험 꿈이 「두려워 마라, 이번에도 네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하고 우리를 달래는 것과 마찬가지다. 두 종류의 꿈을 이해하기 어려운 까닭은 불안감이 위로의 표현과 곧바로 이어져 있다는 데 있다. 슈테켈은 최근에 펴낸 책

『꿈의 언어(Die Sprache des Traumes)』에서 죽음의 상징 표현을 자세히 다룬다.

환자들에게서 꽤 자주 분석해야 했던 「치아 자극 꿈」의 의미는 오랫동안 나를 비껴갔다. 몹시 놀랍게도, 너무나 큰 저항이 그 해석을 가로막았기 때문이다.

마침내 압도적인 증거 앞에서 나는, 남자의 경우 이 꿈들에 추진력을 대 주는 것은 사춘기 시절의 자위에 대한 갈망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이런 꿈 두 개를 분석해 보겠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비행 꿈」이기도 하다. 두 꿈은 같은 사람의 것이다. 동성애 성향이 강하지만 실생활에서는 그것을 억압해 온 젊은 남자다.

그는 오페라 극장 1층 앞자리에서 『피델리오』 공연을 보고 있다. 그는 L. 옆에 앉아 있는데, L.은 그와 성격이 잘 맞는 사람이라 그는 L.과 친구가 되고 싶다. 그는 갑자기 1층 앞자리를 대각선으로 가로질러 저쪽 끝까지 날아간다. 그러고는 손을 입에 넣어 이를 두 개 뽑아낸다.

그 자신은 이 비행을 두고, 마치 공중으로 「던져진」 것 같았다고 묘사한다. 『피델리오』 공연이었으므로 그는 시인의 말을 떠올린다.

「어여쁜 아내를 얻은 자는——」

그러나 어여쁜 아내를 얻는 것조차 꿈꾼 사람의 소원에 들지 않는다. 다른 두 행이 더 잘 들어맞을 것이다.

「운 좋은 (큰) 던지기에 성공한 자,」

「친구의 친구가 되는 데…….」

그러므로 꿈에는 「운 좋은 (큰) 던지기」가 들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소원 성취이기만 한 것은 아니다. 거기에는, 우정을 얻으려 애쓰다가 번번이 「내던져지는」 불운을 겪었다는 고통스러운 생각과, 옆자리에서 함께 『피델리오』 공연을 즐긴 그 젊은이에게서도 이런 운명이 되풀이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숨어 있다. 이어서 이 고상한

꿈꾼 사람을 몹시 부끄럽게 하는 고백이 나온다. 한번은 한 친구에게서 그렇게 거절당한 뒤 타오르는 욕망에 못 이겨 성적 흥분에 빠져들었고, 잇달아 두 번 자위를 했다는 것이다.

다른 꿈은 다음과 같다. 그가 아는 대학 교수 두 사람이 나 대신 그를 치료하고 있다. 한 사람은 그의 음경에 무언가를 하고, 그는 수술을 두려워한다. 다른 한 사람은 쇠막대로 그의 입을 찔러서 그는 이를 두 개 잃는다. 그는 비단 천 네 장으로 묶여 있다.

이 꿈의 성적 의미는 거의 의심할 수 없다. 비단 천은 그가 아는 한 동성애자와의 동일시에 해당한다. 꿈꾼 사람은 성교를 이룬 적이 한 번도 없지만 실제로 남자와의 성교를 찾아 나선 적도 없는데, 그는 사춘기 시절에 한번 배운 자위를 본보기로 삼아 성교를 상상한다.

나는 전형적인 치아 자극 꿈에 흔히 나타나는 변형들 —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이 꿈꾸는 사람의 입에서 이를 뽑는 변형 — 도 같은 설명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고 믿는다. 그러나 「치아 자극」이 어떻게 이런 의미를 띠게 될 수 있는지 알기 어려울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나는 아주 자주 일어나는 아래에서 위로의 이동에 주의를 돌려도 좋을 것이다. 이 이동은 성적 억압에 봉사하며, 이것 덕분에 히스테리에서 나타나는, 본래 성기에서 일어나야 할 온갖 감각과 의도가 덜 거리끼는 신체 부위에서 실현될 수 있다. 무의식적 사고의 상징 표현에서 성기가 얼굴로 대체되는 것도 이런 이동의 한 경우다. 여기에는 엉덩이가 뺨과 닮았다는 사실이 한몫하고, nymphæ〔소음순〕를 입의 구멍을 둘러싼 입술과 닮았다 하여 「입술」이라고 부르는 언어 관용도 한몫한다. 코는 수많은 빗댐에서 음경에 견주어지는데, 이쪽에서나 저쪽에서나 털이 있다는 점이 닮음을 완성한다. 해부학적 부위 가운데 단 하나, 치아만은 무엇과도 견줄 가능성이 전혀 없다. 그리고 바로 이렇게 일치와

불일치가 한데 겹친다는 점 때문에, 치아는 성적 억압의 압력 아래에서 표현에 쓰이기에 알맞게 된다.

치아 자극 꿈을 자위 꿈으로 보는 해석이 정당하다는 것을 나로서는 의심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이 해석에서 모든 모호함이 걷혔다고 주장하고 싶지는 않다.[52] 나는 할 수 있는 데까지 설명을 밀고 나갈 뿐, 나머지는 풀지 못한 채로 남겨 둘 수밖에 없다. 그러나 어떤 관용 표현이 드러내 주는 또 다른 연관도 지적해 두어야겠다. 우리 고장에서는 자위 행위를 가리키는 점잖지 못한 말이 쓰이는데, 곧 「잡아 뽑다」, 또는 「잡아 내리다」라는 말이다.[,53] 이런 속된 말이 어디서 비롯하고 어떤 상징 표현에 바탕을 두는지는 말할 수 없지만, 두 말 가운데 앞의 것에는 치아가 잘 들어맞을 것이다.[,54,55]

하늘을 날거나 떠다니는 꿈, 떨어지는 꿈, 헤엄치는 꿈 따위는 전형적인 꿈의 둘째 무리에 속한다. 이 꿈들은 무엇을 뜻하는가? 이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진술을 할 수 없다. 앞으로 듣게 되겠지만, 이 꿈들은 경우마다 다른 것을 뜻한다. 다만 이 꿈들이 담고 있는 감각 재료만은 언제나 같은 원천에서 온다.

정신분석에서 얻은 재료로 보건대, 이 꿈들은 어린 시절의 인상을 되풀이한다고, 곧 아이에게 그토록 큰 매력을 지닌 운동 놀이를 가리킨다고 결론지을 수밖에 없다. 두 팔로 아이를 쭉 뻗쳐 들고 방을 가로질러 달리며 아이를 날게 해 주지 않은 삼촌, 또는 아이를 무릎에 앉혀 흔들다가 갑자기 다리를 쭉 펴거나 아이를 높이 들어 올렸다가 받치던 손을 빼는 척하며 떨어지기 놀이를 해 주지 않은 삼촌이 어디 있으랴. 그러면 아이들은 기뻐서 소리를 지르고, 특히 거기에 약간의 겁과 어지럼증이 따르면 지칠 줄 모르고 더 해 달라고 조른다. 훗날 그들은 이것을 꿈에서 되풀이하는데, 꿈에서는 자기들을 붙잡아 주던 손을 빼 버리므로 이제 홀가분하게 떠다니고 떨어진다. 어린아이라면

누구나 흔들기나 시소 같은 놀이를 좋아한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그리고 서커스에서 곡예를 보면 이 흔들기의 기억이 새로워진다. 어떤 소년들의 경우 히스테리 발작은 그저 이런 곡예를 재현하는 것일 뿐이며, 그들은 그것을 아주 능숙하게 해낸다. 그 자체로는 해롭지 않은 이런 운동 놀이로 성적 감각이 일어나는 일도 드물지 않다.[56] 우리 사이에서 흔히 쓰이며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낱말로 그 생각을 나타내자면, 날기, 떨어지기, 현기증 따위의 꿈이 되풀이하는 것은 어린 시절의 거친 놀이(「Hetzen」)이며, 그 놀이의 관능적인 느낌은 이제 불안으로 바뀌어 있다. 그러나 어머니라면 누구나 알듯이, 아이들의 거친 놀이는 결국 다툼과 울음으로 끝나는 일이 허다했다.

그러므로 나로서는, 잠자는 동안의 피부 감각 상태나 폐의 움직임이 일으키는 감각 따위가 비행 꿈과 떨어지는 꿈을 불러일으킨다는 설명을 물리칠 충분한 근거가 있다. 내가 보기에는 바로 이 감각들 자체가 꿈이 다루는 기억에서 재생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 감각들은 꿈 내용의 일부이지 꿈의 원천의 일부가 아니다.

성격과 기원이 비슷한 이 재료, 곧 운동 감각으로 이루어진 재료는 이제 온갖 꿈 사고를 표현하는 데 쓰인다. 대개 즐거움을 띠는 비행 꿈은 더없이 다양하게 해석해야 한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전적으로 특수한 해석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심지어 전형적인 성격의 해석이 필요하다. 내 여자 환자 한 사람은 땅에 닿지 않은 채 거리 위 어느 높이에 떠 있는 꿈을 아주 자주 꾸곤 했다. 그녀는 키가 아주 작게밖에 자라지 않았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데 따르는 온갖 더러움을 꺼렸다. 공중에 떠 있는 그녀의 꿈은 그녀의 두 소원을 모두 이루어 주었다. 발을 땅에서 들어 올려 주었고, 머리를 높은 곳에 우뚝 솟게 해 주었기 때문이다. 꿈을 꾼 다른 여성들의 경우에는 비행 꿈이, 내가 작은 새라면, 하는 동경을 뜻했다. 또 어떤 여성들은 낮에 천사라는 말을 듣지 못해서 밤에 이렇게

천사가 된다. 나는 것과 새라는 표상이 밀접하게 이어져 있으니, 남자들의 비행 꿈이 대개 노골적인 관능의 의미를 띠는 것도 이해할 수 있다.[57] 꿈꾸는 이들 가운데 누군가가 날 수 있는 자기 능력을 늘 몹시 자랑스러워한다는 말을 들어도 우리는 놀라지 않을 것이다.

파울 페데른 박사(빈)는 비행 꿈의 상당수가 발기 꿈이라는 매혹적인 이론을 내놓았다. 인간의 상상력을 그토록 끊임없이 사로잡는 발기라는 주목할 만한 현상이, 중력이 정지한다는 생각을 상상력에 강하게 새겨 놓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고대인들의 날개 달린 phalli 〔남근상〕 참조).

떨어지는 꿈은 대개 불안을 띤다. 여성이 이런 꿈을 꿀 때는 해석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여성은 떨어짐 〔타락(墮落)〕 의 상징적인 뜻, 곧 성애의 유혹에 몸을 맡긴다는 것을 에둘러 이르는 뜻을 언제나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떨어지는 꿈의 유년기 원천을 우리는 아직 다 길어 내지 못했다. 거의 모든 아이는 이따금 넘어졌다가 누군가 안아 일으켜 어루만져 준 적이 있으며, 밤에 침대에서 떨어지면 보모가 안아 올려 자기 잠자리로 데려갔다.

헤엄치는 꿈, 물결을 가르는 꿈 따위를 아주 즐겁게 자주 꾸는 사람들은 대개 잠자리에 오줌을 싸던 사람들이다. 그들은 오래전에 단념하는 법을 배운 쾌감을 이제 꿈에서 되풀이하는 것이다. 헤엄치는 꿈이 어떤 표현에 쉽게 쓰이는지는 이런저런 예에서 곧 알게 될 것이다.

불 꿈의 해석은, 밤에 잠자리에 오줌을 싸지 않도록 아이들에게 성냥불 장난을 금하는 아이 방의 금지를 정당화해 준다. 불 꿈 역시 어린 시절 enuresis nocturnus 〔야뇨증〕 의 회상에 바탕을 둔다. 「어느 히스테리 분석의 단편(Bruchstück einer Hysterieanalyse) 」(1905)[58]에서 나는 이런 불 꿈 하나를 꿈꾼 사람의 유년기 이력과

관련지어 완전히 분석하고 종합해 보였으며, 이 유년기 재료가 성숙한 나이에 어떤 충동을 표현하는 데 이용되었는지를 보여 주었다.

「전형적인」 꿈을 여러 사람의 꿈에서 같은 외현적 꿈 내용이 자주 되풀이되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그런 꿈을 상당수 더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를테면 좁은 골목을 지나가는 꿈, 줄지어 이어진 방들을 죄다 지나가는 꿈, 신경이 예민한 사람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미리 대비하는 밤도둑의 꿈, 사나운 짐승(황소, 말)에게 쫓기는 꿈, 칼이나 단검이나 창으로 위협받는 꿈이 그렇다. 마지막 두 꿈은 불안에 시달리는 사람들 등이 꾸는 외현적 꿈 내용으로서 특징적이다. 특별히 이 재료를 다루는 연구가 있다면 크게 보람이 있을 것이다. 그 대신 나는 두 가지 소견을 내놓겠는데, 이것들이 전형적인 꿈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I. 꿈 풀이에 몰두하면 할수록, 어른들의 꿈은 대부분 성적 재료를 다루며 성애적 소원을 표현한다는 것을 더욱 기꺼이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 문제에 대해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꿈을 실제로 분석하는 사람, 곧 꿈의 외현 내용에서 잠재적 꿈 사고로 밀고 들어가는 사람뿐이다. 외현 내용을 기록하는 데 만족하는 사람은 결코 그럴 수 없다(이를테면 성적인 꿈을 다룬 저작들에서 네케가 그렇듯이). 이 사실은 놀랄 일이 아니며, 오히려 꿈 설명의 기본 가정과 완전히 들어맞는다는 것을 곧바로 인정해 두자. 수많은 구성 요소를 지닌 성 충동만큼 어린 시절부터 많은 억제를 겪어야 했던 충동은 없으며,[59] 다른 어떤 충동에서도 그토록 많고 그토록 강렬한 무의식적 소원이 살아남지 않았다. 이 소원들이 이제 잠든 상태에서 작용해 꿈을 만들어 낸다. 꿈 해석에서는 성적 콤플렉스(sexual complexes)의 이런 의미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되지만, 물론 그것만이 전부라고 여길 만큼 과장해서도 안 된다.

많은 꿈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해석하면 그 꿈들을 심지어 양성적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박할 수 없는 이차 해석(secondary interpretation)이 나오고, 그 해석에서 그 꿈들이 동성애적 충동, 곧 꿈꾸는 사람의 정상적인 성 활동과 공통되는 충동을 실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W. 슈테켈[60]과 알프레트 아들러[61]가 주장하듯 모든 꿈을 양성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은, 내가 보기에 증명할 수 없는 만큼이나 있을 법하지도 않은 일반화이며, 나는 그것을 지지하고 싶지 않다. 무엇보다도 나는, 가장 넓은 뜻의 성애적 욕구가 아닌 다른 욕구를 채워 주는 꿈, 이를테면 배고픔 꿈, 갈증 꿈, 편의 꿈 등이 많다는 명백한 사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다. 마찬가지로 「모든 꿈 뒤에서는 사형 선고를 보게 된다」(슈테켈)라거나, 모든 꿈은 「여성적인 선에서 남성적인 선으로 이어지는 연속」을 보여 준다(아들러)는 비슷한 주장도, 내가 보기에는 꿈 해석에서 허용될 수 있는 범위를 한참 넘어선다.

눈에 띄게 순진한 꿈이 한결같이 노골적인 성애적 소원을 담고 있다는 것은 이미 다른 곳에서 주장한 바 있으며, 새로운 예를 수없이 들어 이를 확증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소해 보이고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으리라고는 전혀 의심받지 않을 많은 꿈도, 분석해 보면 틀림없이 성적인 소원 충동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그 소원 충동은 흔히 뜻밖의 성질을 띤다. 이를테면 다음 꿈에서 해석을 다 해내기 전에 누가 성적인 소원을 짐작하겠는가? 꿈꾼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한다. 위풍당당한 두 궁전 사이에 조금 뒤로 물러앉은 작은 집이 한 채 서 있는데, 그 집의 문은 닫혀 있어요. 아내가 저를 데리고 거리를 조금 걸어 그 작은 집까지 가서 문을 밀어 열어요. 그러자 저는 비스듬히 위로 기울어진 안뜰 안으로 재빠르고 수월하게 미끄러져 들어가요.

꿈을 번역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물론, 좁은 공간으로 파고드는 것과 잠긴 문을 여는 것이 가장 흔한 성적 상징 표현에 속한다는 것을 곧바로 알아차리고, 이 꿈에서 뒤에서 하는 성교의 시도(여체의 위풍당당한 두 엉덩이 사이로)를 표현한 것을 쉽게 찾아낼 것이다. 좁고 비스듬한 통로는 물론 질이다. 꿈꾼 사람의 아내가 도와준다는 대목은, 현실에서 그가 그런 시도를 하지 못하게 붙들어 두는 것은 오직 아내에 대한 배려뿐이라는 뜻으로 해석해야 한다. 게다가 물어보니, 꿈 전날 한 젊은 처녀가 꿈꾼 사람의 집안에 들어왔는데, 그는 그녀가 마음에 들었고, 그녀는 이런 식의 접근을 아주 싫어하지는 않으리라는 인상을 그에게 주었다. 두 궁전 사이의 작은 집은 프라하의 흐라트신〔성(城) 지구〕에 대한 회상에서 따온 것으로, 그리하여 다시 그 도시 출신인 그 처녀를 가리킨다.

내가 환자들에게 오이디푸스 꿈, 곧 자기 어머니와 성교하는 꿈이 얼마나 잦은지 강조하면 「그런 꿈은 기억나지 않는데요」라는 대답이 돌아온다. 그러나 곧바로 위장되어 있고 사소한 또 다른 꿈에 대한 기억이 떠오른다. 환자가 되풀이해서 꾼 꿈인데, 분석해 보면 바로 같은 내용의 꿈, 곧 또 하나의 오이디푸스 꿈임이 드러난다. 어머니와 성교하는 위장된 꿈이 같은 내용의 드러난 꿈보다 훨씬 더 잦다는 것을 나는 독자에게 장담할 수 있다.[62]

풍경과 장소에 관한 꿈 가운데는 「나는 전에 거기 가 본 적이 있다」는 확언에 언제나 무게가 실리는 꿈이 있다. 이 경우 그 장소는 언제나 어머니의 성기다. 사실 다른 어떤 장소에 대해서도 「전에 거기 가 본 적이 있다」고 이토록 확실하게 단언할 수는 없다.

흔히 불안으로 가득 차 있으며 좁은 공간을 지나가거나 물속에 머무는 것을 다루는 많은 꿈은, 태아 시절의 삶과 어머니 자궁 속에 머물던 일과

출생 행위에 관한 공상에 바탕을 둔다. 다음은 공상 속에서 이미 태아일 때 기회를 틈타 부모의 성교 행위를 엿본 젊은 남자의 꿈이다.

「그는 깊은 갱도 속에 있는데, 거기에는 제머링 터널에서처럼 창문이 하나 나 있다. 처음에 그는 이 창문으로 텅 빈 풍경을 보다가, 그 안에 그림 하나를 지어 넣는데, 그림은 곧바로 거기 나타나 빈 공간을 채운다. 그림은 어떤 농기구로 샅샅이 써레질하고 있는 밭을 나타내는데, 상쾌한 공기, 거기 따라붙는 고된 노동이라는 관념, 푸르스름한 검은 흙덩이들이 기분 좋은 인상을 준다. 그러고 나서 그는 계속 가다가 초등학교 하나가 문을 연 것을 보는데 …… 그리고 그 학교에서 아이의 성적 감정에 그토록 많은 주의를 기울인다는 데 놀라고, 그 일로 나를 떠올린다.」

여기 한 여자 환자의 예쁜 물 꿈이 있다. 이 꿈은 치료 과정에서 아주 요긴하게 쓰였다.

…… 호숫가의 여름 휴양지에서, 그녀는 창백한 달이 물에 비치는 자리에서 검은 물속으로 몸을 내던진다.

이런 종류의 꿈은 출산 꿈이다. 그 해석은 외현적 꿈 내용에 보고된 사실을 뒤집어서 이루어진다. 곧 「물속으로 몸을 던지는 것」 대신 「물에서 나오는 것」, 곧 「태어나는 것」으로 읽는 것이다. 사람이 어디에서 태어나는지는 프랑스어 「la lune」〔달〕의 나쁜 뜻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창백한 달은 흰 「엉덩이」(Popo)가 되는데, 아이는 머지않아 그곳을 자기가 나온 곳으로 알게 된다. 그렇다면 환자가 여름 휴양지에서 태어나기를 바란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꿈꾼 사람에게 이렇게 묻자 그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치료가 저를 다시 태어난 것처럼 만들어 주지 않았나요?」 그러므로 이 꿈은 이 여름 휴양지에서 치료를 계속해 달라는, 곧 그곳으로 그녀를 찾아와 달라는 초대가 된다. 어쩌면 이 꿈에는 스스로 어머니가 되고 싶다는 소원에 대한 아주 수줍은 암시도 담겨 있을 것이다.[63]

또 하나의 출산 꿈과 그 해석을 E. 존스[95]의 저작에서 옮겨 온다. 「그녀는 바닷가에 서서, 자기 아이인 듯한 어린 사내아이가 물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아이는 물이 자기를 덮을 때까지 그렇게 걸어 들어갔고, 그녀는 수면 가까이에서 아이의 머리가 오르락내리락하는 것만 볼 수 있었다. 그러고 나서 장면은 붐비는 호텔 홀로 바뀌었다. 남편이 그녀를 떠났고, 그녀는 한 낯선 남자와 『대화에 들어갔다』.」 분석해 보니 꿈의 뒷부분은 남편에게서 달아나 제삼자와 친밀한 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나타냈는데, 그 제삼자 뒤로는 앞서의 한 꿈에서 언급된 X. 씨의 형제가 뚜렷이 비쳐 보였다. 꿈의 앞부분은 꽤 뻔히 보이는 출생 공상이었다. 신화에서와 마찬가지로 꿈에서도, 아이를 자궁의 물 밖으로 낳는 일은 흔히 왜곡되어 아이가 물 속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표현된다. 다른 많은 예 가운데 아도니스, 오시리스, 모세, 바쿠스의 탄생이 잘 알려진 실례다. 물속에서 머리가 오르락내리락하는 모습은 환자에게 곧바로, 단 한 번의 임신 때 느꼈던 태동의 감각을 떠올리게 했다. 사내아이가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생각하자 몽상이 하나 이어졌는데, 그 몽상 속에서 그녀는 아이를 물에서 건져 내 아이 방으로 데려가 씻기고 옷을 입혀 자기 집안에 들이는 자신을 보았다.

그러므로 꿈의 뒷부분은 사랑의 도피에 관한 생각들을 나타내는데, 이 생각들은 바탕에 깔린 잠재 내용의 앞부분에 속했다. 꿈의 앞부분은 잠재 내용의 뒷부분인 출생 공상에 해당했다. 이런 순서의 역전 말고도, 꿈의 각 부분 안에서 또 다른 역전들이 일어났다. 앞부분에서는 아이가 물속으로 들어갔고, 그다음에 머리가 오르락내리락했다. 바탕에 깔린 꿈 사고에서는 먼저 태동이 일어났고, 그다음에 아이가 물을 떠났다(이중의 역전). 뒷부분에서는 남편이 그녀를 떠났다. 꿈 사고에서는 그녀가 남편을 떠났다.

아브라함[79]은 첫 해산을 앞둔 한 젊은 여성의 또 다른 출산 꿈을 전한다(22쪽). 집 바닥의 한 곳에서 지하 운하가 곧장 물속으로 이어진다(산도, 양수). 그녀가 바닥의 뚜껑문을 들어 올리자 곧바로 갈색 털가죽을 두른 생물이 하나 나타나는데, 물개와 거의 비슷하다. 이 생물은 꿈꾼 사람의 남동생으로 바뀌는데, 그녀는 늘 이 동생에게 어머니 같은 관계에 있었다.

「구조」 꿈은 출산 꿈과 이어져 있다. 구하는 것, 특히 물에서 구해 내는 것은 여자가 꾸는 꿈에서는 아이를 낳는 것과 같다. 그러나 꿈꾸는 사람이 남자일 때는 이 뜻이 달라진다.[64]

잠자리에 들기 전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이따금 잠을 방해하기까지 하는 강도, 밤도둑, 유령은 모두 하나의 같은 어린 시절 회상에서 비롯한다. 그들은 아이가 잠자리에 오줌을 싸지 않도록 요강에 앉히려고 아이를 깨우거나, 아이가 잠자면서 손을 어떻게 두고 있는지 똑똑히 보려고 이불을 들춰 본 밤의 방문객들이다. 나는 이런 불안 꿈 몇몇을 분석하면서 밤의 방문객에 대한 정확한 기억을 끌어낼 수 있었다. 강도는 언제나 아버지였고, 유령은 흰 잠옷을 입은 여성 인물에 해당할 가능성이 더 컸다.

II. 꿈에서 성적 재료를 표현하는 데 상징 표현이 풍부하게 쓰인다는 것을 잘 알게 되면, 자연히 이런 물음이 떠오른다. 이 상징들 가운데 많은 것이 속기 부호처럼 단단히 정해진 의미를 지니고 한결같이 나타나지는 않을까? 그리고 암호 해독법에 따라 새로운 해몽서를 엮어 보고 싶은 유혹을 느끼게 된다. 이와 관련해 말해 둘 것은, 이 상징 표현이 꿈에만 고유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의식적 사고, 특히 민중의 무의식적 사고에 속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 상징 표현은 한 민족의 꿈보다는 그 민족의 민간 전승, 신화, 전설, 말투, 속담, 유행하는 우스개에서 더 완전한 모습으로 발견된다.[65]

꿈은 잠재적 사고를 위장해 표현하려고 이 상징 표현을 이용한다. 이렇게 쓰이는 상징 가운데는 물론 어김없이, 또는 거의 어김없이 같은 것을 뜻하는 것이 많다. 다만 심리적 재료의 기묘한 가소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꿈 내용 속의 어떤 상징은 이따금 상징적으로가 아니라 본래의 뜻대로 해석해야 할 때가 있다. 또 어떤 때는 꿈꾸는 사람이 남다른 기억들 때문에, 보통은 그렇게 쓰이지 않는 것이라도 무엇이든 성적 상징으로 쓸 권리를 스스로 만들어 낼 수도 있다. 가장 자주 쓰이는 성적 상징도 매번 뜻이 하나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제한과 유보를 달아 둔 뒤에, 다음과 같은 것들을 지적해 두어도 좋겠다. 황제와 황후(왕과 왕비)는 대부분의 경우 정말로 꿈꾸는 사람의 부모를 나타내며,[66] 꿈꾸는 사람 자신은 왕자나 공주다. 길쭉한 물건, 막대기, 나무줄기, 우산(펼쳐 올리는 모습이 발기에 견줄 만하므로)은 모두, 그리고 길쭉하고 날카로운 무기, 칼, 단검, 창은 모두 남근을 나타낸다. 같은 것을 나타내는, 흔하지만 썩 이해가 가지 않는 상징으로 손톱 줄이 있다(문지르고 긁기 때문일까?). 작은 함, 상자, 보석함, 벽장, 난로는 여성의 그 부분에 해당한다. 자물쇠와 열쇠의 상징 표현은 울란트가 「에버슈타인 백작(Grafen Eberstein)」을 노래한 시에서 흔해 빠진 음담을 펼치는 데 아주 우아하게 쓴 바 있다. 한 줄로 늘어선 방들을 지나가는 꿈은 사창가 꿈이나 하렘 꿈이다. 계단, 사다리, 층층대, 또는 그것을 위로든 아래로든 오르내리는 것은 성행위의 상징적 표현이다.'[67] 기어오르는 매끄러운 벽이나, 흔히 큰 불안 속에서 타고 내려오는 집의 전면(파사드)은 곧추선 사람의 몸에 해당하며, 아마도 어린아이들이 부모나 양부모의 몸을 타고 기어오르던 회상을 꿈에서 되풀이하는 것이리라. 「매끄러운」 벽은 남자다. 불안 꿈에서는 흔히 집에서 튀어나온 어떤 부분을 꽉 붙들고 있다. 탁자, 차려 놓은 식탁, 널빤지는 여자인데, 아마 몸의 굴곡을 지워 버리는 대립 때문일 것이다.

「침대와 식탁」(mensa et thorus〔식탁과 침대〕)이 결혼을 이루므로, 꿈에서는 흔히 식탁이 침대를 대신하고, 할 수 있는 한 성적 표상 복합체가 먹는 일의 복합체로 옮겨 놓인다. 옷가지 가운데서는 여자의 모자를 흔히 남성 성기로 확실하게 해석할 수 있다. 남자의 꿈에서는 넥타이(cravat)가 음경의 상징으로 자주 나타난다. 이는 넥타이가 길게 늘어져 있고 남자에게 특유한 물건이기 때문일 뿐 아니라 마음대로 골라 맬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한데, 상징의 원본에 대해서는 자연이 이런 자유를 금하고 있다. 꿈에서 이 상징을 쓰는 사람들은 넥타이에 돈을 아끼지 않으며, 제대로 된 넥타이 수집품을 갖추고 있다.[68] 꿈에 나오는 복잡한 기계와 장치는 모두 성기일 가능성이 아주 크며, 그것을 묘사하는 데서 꿈의 상징 표현은 기지의 활동만큼이나 지칠 줄 모른다. 마찬가지로 꿈에 나오는 많은 풍경, 특히 다리나 숲이 우거진 산이 있는 풍경은 성기를 묘사한 것으로 쉽게 알아볼 수 있다. 끝으로, 알 수 없는 신조어가 나오면 성적 의미를 지닌 구성 요소들로 짜 맞춘 결합을 떠올려 볼 수 있다. 꿈에서는 아이도 흔히 성기를 뜻한다. 남자든 여자든 자기 성기를 다정하게 「꼬마」라고 부르곤 하기 때문이다. 남성 성기의 아주 새로운 상징으로 비행기를 들 수 있는데, 비행기가 이렇게 쓰이는 것은 나는 일과 관계가 있다는 점으로도, 때로는 그 생김새로도 정당화된다. 어린아이와 노는 것이나 꼬마를 때리는 것은 흔히 꿈이 자위를 표현한 것이다. 그 밖의 여러 상징을, 일부는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지만, 슈테켈[114]이 예를 들어 가며 제시한다. 그에 따르면 꿈에서 오른쪽과 왼쪽은 윤리적인 뜻으로 파악해야 한다. 「오른쪽 길은 언제나 올바름에 이르는 길을, 왼쪽 길은 범죄에 이르는 길을 뜻한다. 그러므로 왼쪽은 동성애, 근친상간, 성도착을 뜻할 수 있고, 오른쪽은 결혼, 매춘부와의 관계 등을 뜻한다. 그 의미는 언제나 꿈꾸는 사람 개인의 도덕적 관점에 따라 정해진다」(앞의 책, 466쪽). 꿈에서 친척은 대개

성기 역할을 한다(473쪽). 마차를 따라잡지 못하는 것을 슈테켈은 나이 차이를 따라잡지 못하는 데 대한 아쉬움으로 해석한다(479쪽). 여행할 때 들고 다니는 짐은 사람을 짓누르는 죄의 짐이다(같은 책). 꿈에 자주 나오는 수에도 슈테켈은 고정된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지만, 이 해석들은 충분히 검증되지도 않았고 보편타당하지도 않아 보인다. 물론 개별 사례의 해석은 대개 그럴듯하다고 인정할 수 있다. 내가 활용하지 못한 W. 슈테켈의 최근 저서 『꿈의 언어』에는 가장 흔한 성적 상징의 목록(72쪽)이 있는데, 그 목적은 모든 성적 상징이 양성적으로 쓰일 수 있음을 증명하는 데 있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상상력이 어떻게든 허락하기만 한다면) 남성적인 뜻과 여성적인 뜻으로 동시에 쓰일 수 없는 상징이 어디 있단 말인가!」 물론 괄호 속의 구절이 이 주장의 절대성을 상당 부분 덜어 낸다. 상상력은 이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경험으로는 슈테켈의 일반적 진술이 더 큰 다양성을 인정하는 쪽에 자리를 내주어야 한다는 것을 밝혀 두는 것도 쓸데없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남성 성기에나 여성 성기에나 똑같이 자주 쓰이는 상징들 말고도, 주로 또는 거의 전적으로 한쪽 성만을 가리키는 상징들이 있고, 남성의 의미나 여성의 의미 하나만 알려진 상징들도 있다. 길고 단단한 물건과 무기를 여성 성기의 상징으로, 또는 속이 빈 물건(궤짝, 상자, 주머니 등)을 남성 성기의 상징으로 쓰는 것은 정말이지 상상력이 허락하지 않는다.

물론 꿈과 무의식적 공상이 성적 상징을 양성적으로 이용하는 경향은 태곳적 특징을 드러낸다. 어린 시절에는 성기의 차이를 알지 못해서 두 성에 같은 성기가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이 몹시 불완전한 시사들이, 다른 사람들이 더 세심하게 수집하도록 자극하는 데는 충분할 것이다.[69]

이제 꿈에서 이런 상징 표현이 쓰인 예를 몇 가지 덧붙이겠다. 꿈의 상징 표현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꿈을 해석하기가 얼마나 불가능해지는지, 그리고 많은 경우 상징 표현이 얼마나 거역할 수 없이 밀고 들어오는지를 이 예들이 보여 줄 것이다.

1. 남자(남성 성기)의 상징인 모자:[70] (유혹에 대한 불안 때문에 광장 공포증을 앓던 젊은 여성의 꿈에서 가져온 한 조각).

「여름에 저는 거리를 걷고 있어요. 모양이 특이한 밀짚모자를 쓰고 있는데, 가운데 부분은 위로 휘어 올라가 있고 양옆 부분은 아래로 늘어져 있어요(여기서 서술이 막혔다). 그것도 한쪽이 다른 쪽보다 낮게요. 저는 명랑하고 마음이 든든해서, 젊은 장교 한 무리를 지나치며 속으로 생각해요. 당신들 가운데 누구도 나를 넘볼 수는 없어.」

모자에 대해 그녀가 아무 연상도 내놓지 못하자 나는 이렇게 말해 주었다. 「그 모자는 사실 남성 성기입니다. 가운데 부분이 솟아 있고 옆 부분 두 개가 아래로 늘어져 있으니까요.」 두 옆 부분이 고르지 않게 늘어져 있다는 세부는 일부러 해석하지 않았다. 해석으로 가는 길을 열어 주는 것이 바로 결정 요인들 속의 이런 개별적 특징인데도 말이다. 나는 이어서, 그렇게 남자다운 성기를 지닌 남자가 그녀에게 있기만 하면 장교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다시 말해 그들에게서 바랄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가 보호해 줄 사람이나 동행 없이는 나다니지 못하는 것은 주로 유혹에 관한 공상 탓이다. 그녀의 불안에 대한 이 마지막 설명은 다른 재료를 근거로 이미 여러 번 그녀에게 해 줄 수 있었다.

이 해석을 들은 뒤 꿈꾼 사람이 보인 태도는 참으로 주목할 만하다. 그녀는 모자에 대한 서술을 거둬들이고, 두 옆 부분이 아래로 늘어져 있었다고 말한 적은 없다고 우겼다. 그러나 나는 내가 들은 것을 너무도 확신했기에 넘어가지 않았고, 내 말을 굽히지 않았다. 그녀는 한동안

잠자코 있다가 용기를 내어, 남편의 고환 한쪽이 왜 다른 쪽보다 낮은지, 남자는 다 그런지 물었다. 이로써 모자의 특이한 세부가 설명되었고, 그녀는 해석 전체를 받아들였다. 모자 상징은 환자가 이 꿈을 이야기하기 훨씬 전부터 내게 익숙한 것이었다. 그만큼 빤히 들여다보이지는 않는 다른 사례들로 미루어, 나는 모자가 여성 성기로도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믿는다.

2. 성기로서의 꼬마 — 성교의 상징으로서 치이는 것(같은 광장공포증 환자의 또 다른 꿈).

「그녀의 어머니가 그녀의 어린 딸을 떠나보내서 혼자 가야 한다. 그녀는 어머니와 함께 철도로 가다가, 그녀의 꼬마가 선로 위를 곧장 걸어가는 것을 본다. 그래서 치이는 것을 피할 수 없다. 그녀는 뼈가 우두둑 부러지는 소리를 듣는다. (이때 그녀는 불편한 느낌을 받지만 진짜 공포는 느끼지 않는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차창 밖을 내다보며 뒤쪽에 그 부위가 보이지 않는지 살펴본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꼬마를 혼자 나가게 내버려 두었다고 어머니를 나무란다.」 분석. 이 꿈을 여기서 완전히 해석해 보이기는 쉽지 않다. 이 꿈은 일련의 꿈 가운데 하나여서, 나머지 꿈들과 연관 지어야만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 상징 표현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재료를 충분히 따로 떼어 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환자는 먼저 기차 여행을 역사적으로, 곧 어느 신경병 요양소를 떠난 일에 대한 암시로 해석해야 한다고 본다. 그녀는 물론 그 요양소의 원장을 사랑하고 있었다. 어머니가 그녀를 그곳에서 데리고 나왔는데, 떠날 때 그 의사가 기차역까지 나와 꽃다발을 건넸고, 어머니가 이 경의의 표시를 지켜보는 바람에 그녀는 마음이 불편했다. 그러므로 여기서 어머니는 그녀의 연애를 훼방하는 사람으로 나타나는데, 이 엄격한 여인이 딸의 소녀 시절에 실제로 맡았던 역할이 바로 그것이다. 다음에 떠오른 생각은 「그러고 나서 그녀는 뒤쪽에 그

부위가 보이는지 살펴본다」라는 문장에 관한 것이었다. 꿈의 전면(파사드)만 보면 당연히 치여서 짓이겨진 어린 딸의 신체 부위들을 떠올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생각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다. 그녀는 언젠가 욕실에서 아버지의 벗은 몸을 뒤에서 본 일을 떠올린다. 그러고는 성의 차이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더니, 남자는 뒤에서도 성기가 보이지만 여자는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해 이제 그녀는 스스로, 꼬마는 성기이고 그녀의 꼬마는(그녀에게는 네 살 난 딸이 있다) 그녀 자신의 성기라는 해석을 내놓는다. 그녀는 어머니가 자기더러 마치 성기가 없는 사람처럼 살기를 바란다고 어머니를 나무라며, 꿈의 첫 문장, 곧 어머니가 그녀의 꼬마를 떠나보내서 혼자 가야 한다는 문장에서 이 나무람을 알아본다. 그녀의 공상 속에서 혼자 거리를 간다는 것은 남자도 없고 성관계도 없다는 뜻이며(coire〔성교하다〕 = 함께 가다), 그녀는 그것이 싫다. 그녀가 한 모든 말에 따르면, 그녀는 소녀 시절 아버지를 더 따른다는 이유로 어머니의 질투를 사서 정말로 괴로워했다.

「꼬마」가 남성 성기나 여성 성기의 상징이라는 것은 슈테켈이 지적한 바 있는데,[71] 그는 이와 관련해 아주 널리 퍼진 언어 관용을 근거로 들 수 있다.

이 꿈의 더 깊은 해석은 같은 날 밤에 꾼 다른 꿈에 달려 있는데, 그 꿈에서 꿈꾼 사람은 자기를 남자 형제와 동일시한다. 그녀는 「선머슴」이었고, 남자아이로 태어났어야 했다는 말을 늘 들었다. 남자 형제와의 이 동일시는 「꼬마」가 성기를 뜻한다는 것을 유난히 분명하게 보여 준다. 어머니는 그를(그녀를) 거세하겠다고 위협했는데, 이 위협은 그 부위를 가지고 논 데 대한 벌로밖에는 이해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동일시는 그녀 자신이 어린 시절에 자위를 했다는 것을 보여 준다. 다만 이 사실을 그녀는 이제 남자 형제에 관한 기억 속에만 간직하고 있었다.

이 두 번째 꿈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그녀는 그 무렵 남성 성기에 대해 일찍이 알게 되었다가 나중에 그 앎을 잃어버렸음이 틀림없다. 게다가 두 번째 꿈은 남자아이가 거세되어 여자아이가 생겨난다는 유년기의 성 이론을 가리킨다. 내가 이 어린아이다운 믿음에 대해 이야기해 주자 그녀는 곧바로 한 일화로 그것을 확인해 주었다. 남자아이가 여자아이에게 「잘린 거야?」 하고 묻자 여자아이가 「아니, 원래부터 이랬어」 하고 대답했다는 일화였다.

그러므로 첫 번째 꿈에서 꼬마를, 곧 성기를 떠나보내는 것도 위협받은 거세를 가리킨다. 결국 그녀는 자기가 남자아이로 태어나지 못한 것을 두고 어머니를 탓한다.

「치이는 것」이 성교를 상징한다는 것은, 우리가 다른 많은 원천에서 그것을 확신하고 있지 않다면 이 꿈만으로는 분명하지 않을 것이다.

3. 건물·계단·갱도로 성기를 표현하기. (아버지 콤플렉스로 제지된 젊은 남자의 꿈.)

「그는 아버지와 함께 어떤 곳을 산책하고 있는데, 그곳은 틀림없이 프라터다. 로툰데가 보이기 때문이다.[72] 로툰데 앞에는 작은 앞 건물이 있고, 거기에 계류 기구가 하나 매여 있다. 그런데 기구는 완전히 쭈그러든 것 같다. 아버지가 이게 다 무엇에 쓰는 거냐고 그에게 묻는다. 그는 이에 놀라지만 아버지에게 설명해 준다. 그들은 어느 안뜰로 들어서는데, 거기에는 커다란 양철판이 한 장 놓여 있다. 아버지는 거기서 큼직한 조각을 하나 잡아 뜯으려 하면서도, 먼저 누가 보고 있지 않은지 둘러본다. 그는 아버지에게, 감시인에게 말만 하면 더는 아무 어려움 없이 원하는 만큼 가져갈 수 있다고 말한다. 이 안뜰에서 계단이 갱도 안으로 내려가는데, 갱도의 벽은 어딘가 가죽 지갑처럼 푹신하게 덧대어져 있다. 이 갱도 끝에는 좀 더 긴 층계참이 있고, 그다음에 새 갱도가 시작된다…….」

분석. 이 꿈을 꾼 사람은 치료의 관점에서 보면 반갑지 않은 유형의 환자에 속한다. 이런 환자들은 어느 지점까지는 아무런 저항도 보이지 않고 분석을 따라오지만, 그 지점부터는 거의 다가갈 수 없는 채로 머문다. 이 꿈은 그가 거의 혼자서 분석했다. 「로툰데는」 하고 그는 말했다. 「제 성기이고, 앞에 있는 계류 기구는 제 음경입니다. 저는 음경이 약한 게 늘 걱정이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더 자세히 해석해야 한다. 로툰데는 엉덩이인데, 아이는 으레 엉덩이를 성기와 결부한다. 더 작은 앞 건물은 음낭이다. 꿈에서 아버지가 이게 다 무엇에 쓰는 거냐고 그에게 묻는다. 곧 성기의 목적과 구조를 묻는 것이다. 이 사태를 뒤집어야 하며 질문하는 쪽은 그여야 한다는 것은 아주 분명하다. 아버지 쪽에서 그런 질문을 한 일은 실제로 한 번도 없었으므로, 우리는 이 꿈 사고를 소원으로 파악하거나, 다음과 같이 조건문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내가 아버지에게 성에 관해 깨우쳐 달라고 청하기만 했더라면.」 이 생각의 연속은 곧 다른 자리에서 찾게 될 것이다.

양철판이 펼쳐져 있는 안뜰은 우선은 상징적으로 파악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업장에서 비롯한 것이다. 나는 신중을 기하느라 아버지가 거래하는 다른 재료 대신 양철을 넣었지만, 꿈의 언어 표현은 조금도 바꾸지 않았다. 꿈꾼 사람은 아버지의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이윤이 주로 기대는 미심쩍은 관행에 몹시 넌더리를 내게 되었다. 그러므로 앞의 꿈 사고(「내가 그에게 청하기만 했더라면」)의 연속은 이럴 것이다. 「그는 손님들을 속이듯 나를 속였을 것이다.」 장사의 부정직함을 표현하는 데 쓰인 잡아 뜯기에 대해서는 꿈꾼 사람 자신이 두 번째 설명을 내놓는데, 바로 자위다.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할 뿐 아니라(이 절 앞부분 참조), 자위의 은밀함이 그 반대로(「아니, 그건 아주 드러내 놓고 해도 되는걸」) 표현된다는 사실과도 잘 들어맞는다. 게다가 꿈의 첫 장면에서 질문을 아버지에게 떠넘겼듯이 자위 행위를 다시

아버지에게 떠넘긴다는 것은 우리의 예상과 완전히 맞아떨어진다. 그는 벽이 푹신하게 덧대어져 있다는 점을 들어 갱도를 곧바로 질로 해석한다. 질 속의 성교 행위가 보통처럼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려가는 것으로 묘사된다는 것도 나는 다른 사례들에서 확인했다.[73]

첫 번째 갱도 끝에 좀 더 긴 층계참이 있고 그다음에 새 갱도가 시작된다는 세부를 그는 스스로 전기적(傳記的)으로 설명한다. 그는 한동안 여자들과 성관계를 가졌지만 그 뒤 제지 때문에 그만두었고, 이제 치료의 도움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러나 꿈은 끝으로 갈수록 흐릿해지며, 노련한 해석자라면 꿈의 둘째 장면에서 다른 주제의 영향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본다. 여기서 아버지의 사업과 그 부정직한 관행은 갱도로 표현된 첫 번째 질을 뜻하므로, 어머니를 가리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4. 인물로 상징된 남성 성기와 풍경으로 상징된 여성 성기.

(B. 다트너가 보고한, 남편이 순경인 하층 계급 여자의 꿈.)

…… 그때 누군가가 집에 침입했고, 겁에 질려 순경을 불렀다. 그러나 그는 떠돌이 둘과 서로 뜻을 맞추어 어느 교회로 들어갔는데,[74] 그 교회로는 계단이 아주 많이 이어져 있었다.[75] 교회 뒤에는 산이 하나 있었고,[76] 그 꼭대기에는 울창한 숲이 있었다.[77] 순경은 투구와 목가리개와 외투를 갖추고 있었다.[78] 순경을 따라 아주 순순히 함께 간 두 부랑자는 허리에 자루 같은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다.[79] 교회에서 산으로 길이 하나 나 있었다. 이 길 양쪽에는 풀과 덤불이 우거졌는데, 산꼭대기에 가까워질수록 점점 더 빽빽해지다가 꼭대기에서는 아예 숲을 이루며 퍼져 있었다.

5. 계단 꿈.

(오토 랑크의 보고와 해석.)

다음에 소개할, 속이 빤히 들여다보이는 몽정 꿈은 이 절 앞부분에서 보고한 치아 자극 꿈을 우리에게 제공해 준 바로 그 동료에게서 얻은 것이다.

「 나는 계단집 〔 stair-house 〕 의 계단을 달려 내려가며 작은 여자아이를 쫓는다. 그 아이가 내게 무슨 짓을 해서 벌을 주고 싶은 것이다. 계단 밑에서 누군가가 나를 위해 그 아이를 붙들어 주었다. (다자란 여자였나?) 나는 아이를 움켜잡지만 때렸는지는 모르겠다. 갑자기 나는 계단 중간에 와 있고, 거기서 그 아이와 (말하자면 공중에서) 성교를 하기 때문이다. 사실 성교는 아니다. 나는 내 성기를 그 아이의 외음부에 문지르기만 하는데, 그러면서 그것을 아주 또렷하게 본다. 옆으로 뉘어 있는 아이의 머리를 보는 것만큼이나 또렷하게. 성행위를 하는 동안 나는 내 왼쪽 위에 (이것 역시 공중에 떠 있는 듯이) 작은 그림 두 점이 걸려 있는 것을 본다. 풀밭 위의 집 한 채를 그린 풍경화들이다. 더 작은 그림에는 화가의 서명이 있어야 할 자리에 내 성이 적혀 있었다. 그 그림은 내 생일 선물로 정해진 것 같았다. 그림들 앞에는 더 싼 그림도 구할 수 있다는 내용의 작은 팻말이 걸려 있었다. 그러고 나서 나는, 계단 아래에서 나를 보았던 것처럼, 침대에 누워 있는 나를 아주 흐릿하게 본다. 그리고 몽정에서 비롯한 축축한 느낌에 잠이 깬다.」

해석. 꿈꾼 사람은 꿈 전날 저녁 어느 서점에 들렀는데, 거기서 기다리는 동안 진열된 그림 몇 점을 살펴보았다. 꿈속의 그림들과 비슷한 모티프를 그린 그림들이었다. 특히 마음에 드는 작은 그림 하나가 있어 화가의 이름을 보려고 다가갔지만, 전혀 모르는 이름이었다.

같은 날 저녁 늦게 그는 어느 모임에서 보헤미아 출신 하녀 이야기를 들었다. 그 하녀는 자기 사생아가 「 계단에서 만들어졌다 」 고 자랑했다고 한다. 꿈꾼 사람은 이 별난 일의 자세한 사정을 물어, 그

하녀가 애인과 함께 자기 부모의 집에 갔는데 거기서는 성관계를 가질 기회가 없었고, 흥분한 남자가 계단에서 일을 치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포도주에 섞음질하는 자들을 두고 하는 짓궂은 말에 재치 있게 빗대어 꿈꾼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 「그 아이는 그야말로 지하실 계단에서 자랐군.」

꿈 내용에 꽤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이 낮의 체험들을 꿈꾼 사람은 쉽게 재생해 냈다. 그러나 꿈이 마찬가지로 이용한 오래된 유년기 기억의 한 조각도 그는 그만큼 쉽게 재생해 냈다. 계단집은 그가 어린 시절의 대부분을 보낸 집이자, 그가 처음으로 성 문제를 알게 된 집이었다. 이 집에서 그는 무엇보다도 난간에 걸터앉아 미끄러져 내려오곤 했는데, 그러면 성적으로 흥분했다. 꿈에서도 그는 계단을 아주 빠르게 내려온다. 얼마나 빠른지, 그 자신이 분명하게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계단 하나하나에 발이 거의 닿지 않았고, 오히려 우리가 흔히 쓰던 말로 하자면 「날았다」 거나 「미끄러져 내려왔다」. 이 유년기 체험에 비추어 보면 꿈의 첫머리는 성적 흥분이라는 요인을 표현하는 것 같다. 같은 집과 그 이웃집에서 꿈꾼 사람은 이웃 아이들과 싸움 놀이를 하곤 했는데, 그 놀이에서 그는 꿈에서와 똑같이 욕구를 채웠다.

꿈에서 계단이나 계단 오르기가 거의 어김없이 성교를 상징한다는 것을 성적 상징 표현에 관한 프로이트의 연구[80]에서 떠올린다면 이 꿈은 분명해진다. 이 꿈의 추진력도 그 결과도, 몽정이 보여 주듯이, 순전히 리비도적 성질을 띤다. 잠든 상태에서 성적 흥분이 일어났고(꿈에서는 이것이 계단을 빠르게 달려 내려가거나 미끄러져 내려가는 것으로 표현된다), 거기에 섞인 가학적 가닥은 싸움 놀이를 바탕으로 해서, 아이를 쫓아가 제압하는 데서 암시된다. 리비도적 흥분은 높아져서 성적 행동을 재촉한다(꿈에서는 아이를 움켜잡아 계단 중간으로 데려가는

것으로 표현된다). 여기까지라면 이 꿈은 순전히 성적 상징 표현으로 된 꿈이어서, 서툰 꿈 해석자에게는 알쏭달쏭할 것이다. 그러나 방해받지 않는 잠을 보장해 주었을 이 상징적 충족은 강력한 리비도적 흥분을 감당하기에 모자랐다. 흥분은 오르가슴에 이르고, 그리하여 계단 상징 표현 전체가 가면이 벗겨져 성교의 대용물임이 드러난다. 프로이트는 계단 상징 표현이 성적으로 이용되는 이유의 하나로 두 행위가 모두 리듬을 띤다는 점을 강조하는데, 이 꿈은 특히 이를 뒷받침하는 것 같다. 꿈꾼 사람이 분명하게 주장한 바에 따르면, 꿈 전체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성행위의 리듬이었기 때문이다.

두 그림에 관해서도 한마디 더 해 두자. 이 그림들은 실제 의미 말고도 「Weibsbilder」(문자 그대로는 여자 그림이지만 관용적으로는 여자들)라는 값을 지닌다. 이것은 꿈 내용이 큰(다 자란) 여자아이와 작은 여자아이를 보여 주는 것과 꼭 마찬가지로, 꿈이 큰 그림과 작은 그림을 다룬다는 사실에서 곧바로 드러난다. 싼 그림도 구할 수 있다는 것은 매춘 콤플렉스를 가리키고, 마찬가지로 작은 그림에 적힌 꿈꾼 사람의 성과 그 그림이 그의 생일을 위한 것이라는 생각은 부모 콤플렉스를 가리킨다(계단에서 태어나다 — 성교로 잉태되다).

꿈꾼 사람이 계단참에서 침대에 누워 젖은 느낌을 받는 자신을 보는 흐릿한 마지막 장면은, 유년기의 자위보다도 더 이전의 어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 같으며, 그와 비슷하게 쾌감을 주었던, 잠자리에 오줌을 싸던 장면들에 분명 그 원형이 있다.

6. 변형된 계단 꿈.

신경과민이 몹시 심한 내 환자 가운데 한 사람은 금욕하는 사람이었고, 공상이 어머니에게 붙박여 있었으며, 어머니와 함께 계단을 오르는 꿈을 거듭 꾸었다. 나는 언젠가 그에게, 억지로 금욕하느니

적당히 자위하는 편이 덜 해로울 것이라고 말해 준 적이 있다. 이 영향이 다음 꿈을 불러일으켰다.

「피아노 선생이, 피아노 치기를 게을리하고 모셸레스의 『연습곡(Études)』과 클레멘티의 『그라두스 아드 파르나숨(Gradus ad Parnassum)』〔파르나소스산에 오르는 계단〕을 연습하지 않는다고 그를 나무란다.」 이에 대해 그는, 『그라두스』는 계단일 뿐이고 피아노 자체도 음계가 있으니 계단일 뿐이라고 말했다.

성적 사실을 표현하는 데 맞춰 쓰이지 못할 연상 계열은 없다고 해도 옳다. 나는 한 화학자의 꿈으로 끝을 맺겠다. 젊은 남자인 그는 자위하는 버릇을 여자와의 성교로 대신해 끊어 보려고 애써 왔다.

예비 설명. — 꿈 전날 그는 한 학생에게 그리냐르 반응을 가르쳤다. 이 반응에서는 요오드의 촉매 작용 아래 마그네슘을 완전히 순수한 에테르에 녹여야 한다. 그 이틀 전에는 같은 반응을 하던 중에 폭발이 일어나 실험하던 사람이 손을 데었다.

꿈 I. 그는 페닐마그네슘브로마이드를 만들어야 한다. 그는 실험 장치를 유난히 또렷하게 보는데, 마그네슘 대신 자기 자신을 넣어 놓았다. 이제 그는 묘하게 흔들리는 자세로 있다. 그는 혼잣말로 자꾸 되뇐다. 「이게 맞아, 잘되고 있어, 발이 녹기 시작하고 무릎이 물러지고 있어.」 그러고 나서 그는 손을 아래로 뻗어 발을 더듬는데, 그러는 사이 (어떻게 그랬는지는 그도 모른다) 도가니에서 다리를 꺼내고, 다시 혼잣말을 한다. 「그럴 리가 없어……. 그래, 틀림없이 그래, 제대로 됐어.」 그러고 나서 그는 반쯤 깨어나 꿈을 속으로 되풀이해 본다. 나에게 들려주고 싶어서다. 그는 꿈을 분석하는 것이 뚜렷이 두렵다. 이렇게 반쯤 잠든 상태에서 그는 몹시 흥분해 있고, 쉴 새 없이 되풀이한다. 「페닐, 페닐.」

II. 그는 온 가족과 함께 ……ing에 있다. 열한 시 반에. 그는 어떤 부인과 밀회하기로 되어 있어 쇼텐토어에 가야 하는데, 열한 시 반이 되어서야 잠이

깬다. 그는 혼잣말을 한다. 「이제 너무 늦었어. 거기 가면 열두 시 반일 거야.」 다음 순간 그는 온 가족이 식탁 둘레에 모여 있는 것을 본다 — 어머니와, 수프 그릇을 든 하녀는 유난히 또렷하게. 그러자 그는 혼잣말을 한다. 「뭐, 벌써 밥을 먹고 있으면 나는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지.」

분석: 그는 첫 번째 꿈에도 밀회에서 만나기로 한 부인에 대한 암시가 들어 있다고 확신한다(이 꿈은 기다리던 만남의 전날 밤에 꾼 것이다). 그가 가르친 학생은 유난히 불쾌한 녀석인데, 마그네슘이 아직 아무 반응도 하지 않자 화학자에게 「이거 맞지 않는데요」 하고 말했고, 화학자는 그런 일은 아무래도 좋다는 듯이 「그야 확실히 맞지 않지」 하고 대답했다. 그 자신이 바로 이 학생임이 틀림없다. 학생이 자기 합성에 무관심하듯 그는 자기 분석에 무관심하다. 그러나 꿈속에서 조작을 해내는 그는 나 자신이다. 이루어진 성과에 그토록 무관심한 그가 내 눈에 얼마나 불쾌해 보이겠는가!

게다가 그는 분석(합성)의 재료다. 치료의 성공이 문제이기 때문이다. 꿈속의 다리는 전날 저녁의 한 인상을 떠올리게 한다. 그는 춤 강습에서 한 부인을 만났는데, 그녀를 정복하고 싶었다. 그녀를 어찌나 바짝 끌어안았던지 한번은 그녀가 비명을 질렀다. 그가 그녀의 다리를 누르던 것을 멈추자, 그녀가 그의 넓적다리 아랫부분을 무릎 바로 위까지, 곧 꿈에서 말한 그 자리를 단단히 마주 눌러 오는 것이 느껴졌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여자는 레토르트 속에서 마침내 잘되어 가는 마그네슘이다. 그가 여자에게 남성적이듯 나에게는 여성적이다. 여자와 잘되면 치료도 잘될 것이다. 무릎 언저리에서 자기 몸을 더듬어 느끼고 알아차리는 것은 자위를 가리키며, 전날의 피로에 해당한다……. 밀회는 실제로 열한 시 반으로 정해져 있었다. 늦잠을 자고 늘 대하던 성적 대상 곁에(곧 자위에) 머물고 싶은 그의 소원은 그의 저항에 해당한다.

페닐이라는 이름을 되풀이한 것에 대해 그는 다음과 같은 생각을 떠올린다. yl 〔-일〕 로 끝나는 이 라디칼들은 모두 예전부터 그의 마음에 들었고, 쓰기도 아주 편하다. 벤질, 아세틸 등등. 그러나 이것으로는 아무것도 설명되지 않았다. 그런데 내가 슐레밀(Schlemihl)[81]이라는 라디칼을 내놓자 그는 크게 웃더니, 여름에 프레보의 책을 한 권 읽었는데 그 책에 「Les exclus de l'amour」〔사랑에서 밀려난 사람들〕라는 장이 있었고, 그 장의 묘사를 읽으며 슐레밀들이 떠올랐다고 이야기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제 경우입니다」 하고 덧붙였다. 밀회를 놓쳤더라면 그는 또다시 슐레밀 노릇을 했을 것이다.

---

1. 꿈은 우리 기억이 낮 동안 받아들인 쓸모없는 인상들을 기억에서 치워 없애려는 것이라는 로베르트의 견해는, 어린 시절의 사소한 기억이 꽤 자주 꿈에 나타난다면 더는 지탱할 수 없음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꿈은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를 대개 매우 불충분하게 수행한다는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이다.

2. 1장 (아)에서 말했듯이, H. 스보보다는 W. 플리스가 발견한 23일과 28일이라는 생물학적 간격을 심리 활동에 폭넓게 적용하며, 특히 이 주기들이 꿈에 꿈 요소가 나타나는 것을 결정한다는 점을 힘주어 강조한다. 이것이 증명된다 해도 꿈 해석이 본질적으로 달라지지는 않겠지만, 꿈 재료가 생겨나는 원천이 하나 새로 생기는 셈일 것이다. 나는 최근 「주기 이론」을 꿈 재료에 적용할 수 있는지 시험하려고 내 꿈을 몇 가지 조사해 보았는데, 이를 위해 꿈 내용 가운데 특히 눈에 띄고 그 기원을 확실히 밝힐 수 있는 요소들을 골랐다.

I. — 1910년 10월 1~2일의 꿈

(단편)……. 이탈리아 어딘가. 세 딸이 골동품 가게에서처럼 값진 작은 물건들을 내게 보여 준다. 그러면서 내 무릎에 앉는다. 그 가운데 한 점을 두고 나는 말한다. 「아니, 이건 나한테서 받은 거잖니.」 사보나롤라의 모난 얼굴을 한 작은 옆얼굴 가면도 또렷이 보인다.

사보나롤라의 초상을 마지막으로 본 것이 언제였던가? 여행 일기에 따르면 나는 9월 4일과 5일에 피렌체에 있었고, 거기서 이 광신적인 수도사의 얼굴을 새긴 석고 메달을 동행에게 보여 주려고 생각했다. 메달은 그가 화형을 당한 바로 그 자리인 시뇨리아

광장에 있다. 내가 동행에게 그것을 가리켜 보인 것은 새벽 3시였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 인상에서 그것이 꿈에 되돌아오기까지는 27일과 1일, 곧 플리스의 말로는 「여성 주기」의 간격이 있었다. 그러나 이 예의 논증력에는 안된 일이지만, 덧붙여 말해야겠다. 꿈꾼 바로 그날 (돌아온 뒤 처음으로) 유능하지만 우울해 보이는 동료 하나가 나를 찾아왔는데, 나는 벌써 여러 해 전에 그에게 「랍비 사보나롤라」라는 별명을 붙여 두었다. 그는 폰테바 철도에서 사고를 당한 환자 하나를 데려왔다. 나 자신도 여드레 전에 그 철도로 여행했으므로, 내 생각은 지난번 이탈리아 여행으로 향했다. 꿈 내용에 사보나롤라라는 눈에 띄는 요소가 나타난 것은 꿈꾼 날 동료가 찾아온 것으로 설명된다. 28일이라는 간격은 그 기원에서 아무 의미도 없었다.

II. — 10월 10~11일의 꿈

나는 다시 대학 실험실에서 화학을 공부하고 있다. 궁정 고문관 L.이 다른 곳으로 가자고 청하고는, 치켜든 손에 램프인지 무슨 다른 기구인지를 들어 자기 앞으로 받쳐 든 채, 머리를 앞으로 쭉 뺀 독특한 자세로 복도에서 내 앞을 걸어간다. 그러다 우리는 탁 트인 곳에 이른다…… (나머지는 잊었다).

이 꿈 내용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궁정 고문관 L.이 먼 곳에 시선을 둔 채 램프(또는 lupe〔돋보기〕)를 자기 앞에 들고 가는 모습이다. 나는 L.을 여러 해 동안 보지 못했지만, 이제 그가 다른 더 위대한 인물, 곧 시라쿠사의 아레투사 샘 가까이 있는 아르키메데스의 대리일 뿐이라는 것을 안다. 아르키메데스는 거기서 꿈속의 L.과 똑같은 모습으로, 불을 일으키는 거울을 들고 포위해 온 로마군을 바라보며 서 있다. 이 기념상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본 것은 언제였던가? 내 메모에 따르면 9월 17일 저녁이었고, 그날부터 꿈까지 정말로 13일과 10일, 합해서 23일이 흘렀다. 플리스에 따르면 「남성 주기」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 꿈의 해석에 들어가 보면 여기서도 이 연관은 그리 필연적이지 않아 보인다. 꿈의 계기는 꿈꾼 날 받은 소식이었다. 내가 강의하도록 초빙받은 병원의 강의실이 다른 곳으로 옮겨졌다는 것이다. 나는 새 강의실이 몹시 불편한 곳에 있으리라고 지레짐작하고, 강의실을 아예 못 쓰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혼잣말을 했다. 그러고 나서 내 생각은, 처음 강사가 되었을 때, 정말로 강의실이 없어서 하나 얻으려고 애썼지만 영향력이 대단한 고문관 나리들과 교수 나리들에게서 별 격려를 받지 못했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갔음이 틀림없다. 그때 곤경에 빠진 나는, 당시 학장 직함을 지녔고 내게 호의적이라고 여겼던 L.에게 호소했다. 그는 돕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뒤로 그에게서 들은 것은 그것이 전부였다. 꿈에서 그는 나에게 πηότω〔설 자리〕를 주고 나를 다른 방으로 데려가는 아르키메데스다. 이 꿈에 복수욕도, 자기가 중요한 인물이라는 의식도 빠져 있지 않다는 것은 꿈 해석에 익숙한 사람이라면 쉽게 알아챌 것이다. 그러나 나는, 꿈의 이런 동기가 없었다면 그날 밤 아르키메데스가 꿈에 들어오기는 어려웠으리라고 결론지을 수밖에 없다. 시라쿠사의

그 조각상에서 받은, 강하고 아직 생생한 인상이 다른 시간 간격을 두고도 떠오르지 않았을지는 확실히 모르겠다.

III. — 1910년 10월 2~3일의 꿈.

(단편)…… 오저 교수에 관한 무언가. 그가 몸소 내 식단을 짜 주었고, 그 덕분에 나는 크게 마음을 놓게 되었다(나머지는 잊었다).

이 꿈은 그날의 소화 장애에 대한 반응이었다. 소화 장애 때문에 나는 동료 가운데 누군가에게 식이 요법을 짜 달라고 부탁할까 생각했다. 꿈에서 내가 이 일에, 여름에 세상을 떠난 오저 교수를 고른 것은, 내가 크게 존경하던 다른 대학 교수가 최근(10월 1일)에 세상을 떠난 데 바탕을 두고 있다. 그러면 오저는 언제 죽었고, 나는 그의 죽음을 언제 들었던가? 신문 기사에 따르면 그는 8월 22일에 죽었다. 그러나 나는 그때 네덜란드에 있었고 빈의 신문들이 꼬박꼬박 그리로 부쳐져 왔으므로, 부고는 8월 24일이나 25일에 읽었을 것이다. 이 간격은 이제 어떤 주기에도 맞지 않는다. 7일과 30일과 2일, 합해서 39일, 어쩌면 38일이다. 이 기간에 오저 이야기를 하거나 그를 생각한 기억은 없다.

더 손질하지 않고는 「주기 이론」에 쓸 수 없는 이런 간격이 규칙적인 간격보다 훨씬 더 흔하다는 것이 내 꿈에서 드러났다. 본문에서 주장했듯이, 늘 발견되는 것은 꿈꾼 날 자체의 인상과 맺은 관계뿐이다.

3. 내 논문 「은폐 기억에 대하여(Ueber Deckerinnerungen)」, 『정신의학·신경학 월보(Monatsschrift für Psychiatrie und Neurologie)』, 1899년 참조.

4. 독일어로는 blühend〔꽃이 핀〕. — 영역자 브릴의 주.

5. 눈앞에 있는 관심거리를 모두 한데 녹여 동시에 다루려는 꿈 작업의 경향은 이미 여러 저자가 주목했다. 이를테면 들라주[15](41쪽), 델뵈프[16](「 강제된 접근(Rapprochement Forcé)」, 236쪽).

6. 이르마의 주사 꿈, 친구가 나의 삼촌인 꿈.

7. 젊은 의사의 추도사 꿈.

8. 식물학 연구서 꿈.

9. 분석 중인 내 환자들의 꿈은 대개 이런 종류다.

10. 7장의 「전이」에 관한 대목 참조.

11. 해석해 보면 분명해지겠지만, 정반대의 것으로 대체한 것이다.

12. 프라터는 빈의 으뜸가는 마차 산책로다. — 영역자 브릴의 주.

13. 영역본은 municipal ministry(시 행정부)라 했으나, 여기 이름이 나오는 이들은 1867~1870년 오스트리아의 이른바 시민 내각(Bürgerministerium) 각료였다. — 옮긴이.

14. 그처럼 이룰 수 없어 보이는 소원도 이루는 데는 약간의 용기만 있으면 된다는 것을 나는 이미 오래전에 깨달았다.

15. 초판에는 여기에 하스드루발이라는 이름이 찍혀 있었다. 당혹스러운 오류인데, 그에 대한 설명은 나의 『일상생활의 정신병리학(Psychopathologie des Alltagslebens)』에서 했다.

16. 빈의 한 거리. — 영역자 브릴의 주.

17. Fensterln은 독일 슈바르츠발트의 시골 지방에서 볼 수 있는, 이제는 사라져 가는 풍습이다. 구애하는 젊은이들이 사다리를 들고 와서 애인의 창가에서 사랑을 구하는데, 사실상 일종의 시험 결혼 제도를 누린다고 할 만큼 가까워진다. 젊은 여자의 평판은 fensterln 때문에 손상되는 일이 결코 없다. 너무 많은 구혼자와 가까워지지만 않는다면 말이다. — 영역자 브릴의 주.

18. 이 어린 시절 장면들에 속하는 두 정동, 곧 놀라움과 피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체념은 얼마 전에 꾼 꿈에 나타났는데, 이 어린 시절 체험의 기억을 처음으로 되살려 낸 것이 바로 그 꿈이었다.

19. plagiostomi는 일부러 자세히 다루지 않는다. 그것은 바로 그 스승 앞에서 분하게 망신당한 일을 떠올리게 한다.

20. 1장 (마)에 나온 모리의 킬로-로토 꿈 참조.

21. Popo는 독일어 유아어로 엉덩이를 뜻한다. — 영역자 브릴의 주.

22. 이 되풀이는 아마 내가 방심한 탓에 꿈 본문에 슬며시 끼어든 것 같은데, 분석해 보니 그 나름의 의미가 있으므로 그대로 둔다.

23. 『제르미날』이 아니라 『대지(La Terre)』다. 분석하는 중에야 알아차린 착오다. Huflattich와 Flatus의 글자가 같다는 점에도 주의를 돌려 두고 싶다.

24. 앞의 괄호 풀이는 영역자가 넣은 것이다. — 영역자 브릴의 주.

25. H. 질베러는 의미 있는 논문(「환상과 신화(Phantasie und Mythos)」, 『연보』 제2권, 1910)에서 꿈의 이 부분을 근거로, 꿈 작업이 잠재적 꿈 사고뿐 아니라 꿈 형성의 심리적 과정까지 재현할 수 있음을 보여 주려 했다(「기능적 현상(Das functionale Phänomen)」).

26. 영역본의 이 쪽에는 이 설명에 맞는 꿈이 없어, 가리키는 꿈을 확인하지 못했다. — 옮긴이.

27. 또 다른 해석. 그는 신들의 아버지 오딘처럼 외눈이다…… 오딘의 위안. 새 침대를 사 드리겠다는 어린 시절 장면의 위안.

28. 여기에 해석을 위한 재료를 조금 덧붙인다. 소변기를 받쳐 드는 일은 안경점에서 안경 유리를 하나하나 대어 보지만 여전히 글을 읽지 못하는 농부 이야기를 떠올리게

한다(농부 잡이. 꿈의 한 부분에 나오는 아가씨 잡이처럼). 졸라의 『대지』에서 노망든 아버지가 농부들 사이에서 받는 대우. 아버지가 말년에 아이처럼 잠자리를 더럽힌다는 애처로운 속죄. 꿈에서 내가 그의 간병인인 것도 그래서다. 생각하는 것과 체험하는 것이 여기서는 말하자면 같은 것이라는 대목은, 오스카어 파니차가 쓴 몹시 혁명적인 레제드라마를 떠올리게 한다. 거기서 하느님은 마치 중풍 든 노인이라도 되는 듯 몹시 경멸스럽게 다루어진다. 이런 대목이 있다. 「그에게는 의지와 행위가 같은 것이어서, 일종의 가니메데스인 그의 대천사가 그가 꾸짖고 욕하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 그 저주가 곧바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계획을 세우는 것은 아버지에 대한 비난인데, 내 비판 능력이 발달하던 좀 더 나중 시기에서 비롯한 것이다. 높은 권위를 비웃는, 반역적이고 군주를 모독하는 이 꿈 전체가 아버지에 대한 반항에서 비롯하듯이 말이다. 군주는 나라의 아버지(Landesvater)라고 불리며, 아버지는 아이에게 가장 오래되고 첫째가는 유일한 권위다. 인류 문명의 역사가 흘러가는 동안 다른 사회적 권위들은 이 권위의 절대 권력에서 발전해 나왔다(「모권」이 이 명제에 단서를 달게 만들지 않는 한에서). 꿈속의 생각 「생각하는 것과 체험하는 것은 같은 것이다」는 히스테리 증상의 설명을 가리키며, 남자용 소변기(유리)도 거기에 관계가 있다. 빈 사람에게 「Gschnas」의 원리를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것은 하찮은 것, 되도록이면 우스꽝스럽고 쓸모없는 재료로 진귀하고 값비싸 보이는 물건을 만들어 내는 데 있다. 이를테면 우리 예술가들이 흥겨운 파티에서 즐겨 하듯, 부엌 살림살이와 막대기와 「salzstangeln」(길쭉한 롤빵)으로 갑옷을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 나는 히스테리 환자들도 똑같은 일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실제로 겪은 일 말고도, 자기가 체험한 더없이 무해하고 평범한 것들로 무시무시하거나 터무니없는 공상적 이미지를 무의식적으로 지어낸다. 증상은 오로지 이 공상에 달려 있지, 심각한 것이든 무해한 것이든 실제 체험의 기억에 달려 있지 않다. 이 설명은 내가 많은 어려움을 이겨 내도록 도와주었고 내게 큰 기쁨을 주었다. 내가 꿈 요소 「남자용 소변기」(유리)로 그것을 암시할 수 있었던 것은, 지난번 「Gschnas」 저녁 모임에 루크레치아 보르자의 독배가 전시되었는데 그 주된 재료가 병원에서 쓰는 것 같은 남자용 유리 소변기였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29. 그리징어[31]의 해당 대목과 「방어 신경정신증」에 관한 나의 두 번째 논문에서 한 언급을 참조하라 — 『히스테리 논문 선집』, A. A. 브릴 옮김.

30. 내가 이 꿈을 알게 된 두 출처는 꿈 내용에 대한 보고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31. 영역본은 「wishes the fulfilment of which brings forth pleasure」(성취가 쾌를 불러일으키는 소원)라 했으나, 바로 뒤에서 이 말이 「모순처럼 들린다」고 하고 다음 문단도 억제된 소원의 성취가 불쾌한 느낌으로 표현된다고 설명한다(7장 (마)의 같은 논지 참조). 뜻이 뒤집힌 곳으로 보아 「불쾌」로 옮겼다. — 옮긴이.

32. 꿈꾸는 사람이 잠재적 꿈 사고를 표현하는 데 우리에게 익숙한 상징을 이용하는 경우는 예외다.

33. 「황제의 새 옷」.

34. 동화에도 아이가 나온다. 거기서 한 아이가 갑자기 이렇게 외치기 때문이다. 「아니, 저 사람 아무것도 안 입었잖아.」

35. 영역본은 「the desire to be observed」(지켜보이기를 바라는 욕망)라 했으나, 편집증에서 문제 되는 것은 누가 자기를 지켜본다는 확신, 곧 망상이다(독일어 원문은 Wahn). 뜻이 달라지는 곳이라 「망상」으로 옮겼다. — 옮긴이.

36. 페렌치는 여성들의 흥미로운 알몸 꿈을 여럿 보고했는데, 이 꿈들은 유년기의 노출 욕망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지만 몇몇 특징에서는 위에서 논한 「전형적인」 알몸 꿈과 다르다.

37. 뻔한 이유로, 꿈에 「온 가족」이 나타나는 것도 같은 의미를 지닌다.

38. 독일어 원문의 예는 a+b=ab다. 영역자가 영어 낱말(at)이 되도록 바꾸었다. — 옮긴이.

39. 이 꿈의 보충 해석: 계단에 침 뱉기는 자유로운 번역을 거쳐 나를 「esprit d'escalier〔계단의 재치〕」로 이끌었다. 「Spucken」(영어로는 spit〔침을 뱉다〕, 그리고 spook〔유령〕처럼 구는 것, 곧 출몰하는 것)이 유령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계단 재치」는 재빠르게 받아치는 재주(독일어로는 Schlagfertigkeit — 되받아 때릴, 곧 칠 태세)가 없다는 것과 같은 말이며, 나는 정말이지 이 점에서 나 자신을 나무라야 한다. 그러나 그 유모에게 「때릴 태세」가 모자랐는지가 과연 문제일까?

40. 앞 주의 말장난은 소리가 비슷한 두 독일어 낱말 spucken(침을 뱉다)과 spuken(유령이 나돌다)에 기댄다. 영역본은 두 낱말을 「Spucken」 한 철자로 합쳐 적었다. — 옮긴이.

41. 『정신분석·정신병리 연구 연보(Jahrbuch für psychoanalytische und psychopathologische Forschungen)』 제1권(1909)에 실린 「다섯 살 소년의 공포증 분석(Analyse der Phobie eines fünfjährigen Knaben)」과 『성 문제(Sexualprobleme)』 제1권(1908)에 실린 「유아기의 성 이론에 대하여(Ueber infantile Sexualtheorien)」 참조.

42. 영역본은 the younger(동생)라 했으나 문맥상 동생을 맞는 손위 아이를 가리킨다. — 옮긴이.

43. 앞에서 든 논문에서 그 공포증을 분석한 세 살 반의 한스는, 누이동생이 태어난 직후 열에 들떠 이렇게 외친다. 「난 여동생 싫어.」 일 년 반 뒤 신경증을 앓을 때

한스는, 어머니가 아기를 목욕시키다가 욕조에 빠뜨려 아기가 죽었으면 좋겠다는 소원을 거리낌 없이 털어놓는다. 그러면서도 한스는 마음씨 착하고 다정한 아이여서, 곧 누이동생을 좋아하게 되고 특히 동생을 감싸 주기를 좋아한다.

44. 세 살 반의 한스는 누이동생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똑같은 말로 표현한다(앞의 주들 참조). 한스는 동생이 이가 없어서 말을 못 한다고 생각한다.

45. 나는 아버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난 뒤 재능 있는 열 살 소년이 다음과 같은 생각을 말하는 것을 들었다. 「아빠가 죽은 건 알겠는데, 왜 저녁 먹으러 집에 안 오는지는 모르겠어.」

46.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 영역본의 셈법(개신교)으로는 제5계명이고, 독일어 원문(가톨릭·루터교 셈법)으로는 제4계명이다. — 옮긴이.

47. 적어도 일부 신화적 표현에서는 그렇다. 다른 표현들에 따르면 거세는 크로노스만이 제 아버지에게 행한다.
이 모티프의 신화적 의미에 관해서는 오토 랑크의 『영웅 탄생의 신화(Der Mythus von der Geburt des Helden)』, 『응용 정신학 총서(Schriften zur angew. Seelenkunde)』 제5권, 1909 참조.

48. 제1막 2장. 조지 서머스 클라크 옮김.

49. 비극 문학의 또 다른 위대한 창조물인 셰익스피어의 『햄릿』도 『오이디푸스 왕』과 같은 토대 위에 서 있다. 그러나 멀리 떨어진 두 문명 시대의 정신생활이 보이는 모든 차이, 곧 인류의 감정생활에서 억압이 오랜 세월에 걸쳐 진전해 온 것이, 같은 재료를 다루는 방식이 달라진 데서 드러난다. 『오이디푸스 왕』에서는 아이의 근본적인 소원 공상이 꿈에서처럼 밝은 데로 끌려 나와 실현된다. 『햄릿』에서는 그것이 억압된 채 남아 있으며, 우리는 — 신경증의 경우와 얼마간 비슷하게 — 그것에서 비롯하는 제지를 통해서만 그 존재를 알게 된다. 주인공의 성격에 관해 완전히 어둠 속에 머물러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 기묘하게도 이 근대극의 압도적인 효과와 양립한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 극은 자기에게 맡겨진 복수의 과업을 햄릿이 망설이는 데 바탕을 둔다. 본문은 이 망설임의 이유나 동기를 밝히지 않으며, 수많은 해석의 시도도 그것을 제시하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 괴테로 거슬러 올라가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통용되는 견해에 따르면, 햄릿은 사고 활동이 지나치게 발달한 탓에 본래의 활력이 마비된 인간 유형을 나타낸다. (「사색의 창백한 빛깔에 온통 병들어.」) 다른 사람들에 따르면 시인은 신경 쇠약에 걸린 병적이고 우유부단한 성격을 그리려 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야기의 줄거리는, 햄릿이 결코 행동할 능력이 전혀 없는 인물로 보이도록 의도되지 않았음을 가르쳐 준다. 우리는 그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을 두 번 본다. 한 번은 앞뒤 가리지 않는 격정에 휩싸여 휘장 뒤에서 엿듣는 자를 찔러 죽일 때이고, 또 한 번은 자기에게 마련되어 있던 죽음으로 두 신하를 보낼

때다 — 그것도 신중하게, 심지어 교활하게, 르네상스 시대 군주다운 거리낌 없음을 온전히 드러내며. 그렇다면 아버지의 유령이 그에게 지운 과업을 이루지 못하게 그를 붙드는 것은 무엇인가? 여기서 떠오르는 설명은, 그것이 이 과업의 독특한 성질이라는 것이다. 햄릿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다만 아버지를 없애고 어머니 곁에서 아버지의 자리를 차지한 사람, 곧 자기의 억압된 어린 시절 소원이 실현된 모습을 보여 주는 그 사람에게 복수하는 일만은 할 수 없다. 그리하여 그를 복수로 몰아가야 할 혐오는 그의 안에서 자기 비난으로, 양심의 가책으로 바뀌고, 이 가책은 그 자신도 자기가 벌해야 할 살인자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다고 그에게 들이댄다. 이로써 나는 주인공의 마음속에서 무의식으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던 것을 의식의 언어로 번역한 셈이다. 누군가 햄릿을 히스테리 환자라고 부르고 싶어 한다면, 나는 그것을 내 해석에서 나온 추론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햄릿이 오필리아와 나누는 대화에서 드러내는 성적 거부감도 이 견해와 아주 잘 들어맞는다. 그것은 그 뒤 몇 해 동안 시인을 점점 더 사로잡아 마침내 『아테네의 타이먼』에서 절정에 이르러 표현되는 바로 그 성적 거부감이다. 물론 『햄릿』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것은 시인 자신의 심리일 수밖에 없다. 게오르그 브란데스의 셰익스피어 연구서(1896)에서 나는, 이 극이 셰익스피어의 아버지가 죽은 직후에, 곧 아버지를 잃은 슬픔이 아직 생생할 때, 짐작건대 아버지를 향한 어린 시절의 감정이 되살아나던 무렵에 쓰였다는 사실을 가져온다. 일찍 죽은 셰익스피어의 아들 하나가 햄닛(햄릿과 같은 이름)이라는 이름이었다는 것도 알려져 있다. 『햄릿』이 부모에 대한 아들의 관계를 다루듯, 그 뒤에 나온 『맥베스』는 자식 없음이라는 주제에 바탕을 둔다. 모든 신경증 증상이, 그리고 꿈 자체가 재해석될 수 있으며 완전히 이해되려면 재해석을 필요로 하기까지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참된 시적 창조물도 시인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 이상의 동기, 하나 이상의 충동에서 나왔을 것이 틀림없으며 하나 이상의 해석을 허용할 것이 틀림없다. 나는 여기서 창작하는 시인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충동의 무리만을 해석하려 했다. 이 언급에 담긴 『햄릿』 문제에 대한 견해는 뒤에 토론토(캐나다)의 어니스트 존스 박사가 새로운 논거를 많이 들어 쓴 상세한 연구에서 확인되었다. 『햄릿』의 재료가 『영웅 탄생의 신화』와 이어져 있다는 것도 O. 랑크가 밝혀 보였다. — 「햄릿의 수수께끼를 설명하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동기 연구」(『미국 심리학 저널』, 1910년 1월, 제21권).

50. 마찬가지로 크고, 넘쳐 나고, 엄청나고, 과장된 것은 무엇이든 어린아이다운 특징일 수 있다. 아이에게는 커지고 싶다는 소원, 모든 것을 어른만큼 받고 싶다는 소원보다 더 강렬한 소원이 없다. 아이는 좀처럼 만족하지 않는다. 아이는 그만을 모르며, 마음에 들었거나 맛있었던 것은 무엇이든 되풀이해 달라고 끝없이 조른다. 아이는 문화와 교육을 거치고서야 비로소 절제하는 법, 겸손하고 체념할 줄 아는 법을 배운다. 잘 알려져 있듯이 신경증 환자도 무절제와 지나침으로 기우는 경향이 있다.

51. 존스 박사가 미국의 한 학회에서 강연하며 꿈의 이기주의를 이야기하자, 학식 있는 한 부인이 이 비과학적인 일반화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녀 생각에 강연자는 오스트리아 사람들의 꿈에 대해서나 그런 판단을 내릴 수 있을 뿐, 미국 사람들의 꿈까지 거기 포함할 권리는 없었다. 그녀 자신으로 말하자면, 자기 꿈은 모두 철저히 이타적이라고 확신했다.

52. C. G. 융에 따르면 여성의 경우 치아 자극 꿈은 출산 꿈의 의미를 지닌다.

53. 이 절의 「전기적(傳記的)」 꿈 참조.

54. 이를 뽑는 꿈과 이가 빠지는 꿈은 민간 신앙에서 가까운 벗이 죽는다는 뜻으로 해석되는데, 정신분석은 기껏해야 위에서 비친 패러디적인 뜻으로만 그런 의미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여기에 오토 랑크[109]가 제공해 준 치아 자극 꿈 하나를 끼워 넣는다.

치아 자극 꿈이라는 주제에 관해, 얼마 전부터 꿈 해석의 문제에 큰 관심을 기울여 온 한 동료에게서 다음과 같은 보고를 받았다.

나는 최근에 치과에 가는 꿈을 꾸었다. 치과 의사는 내 아래턱 어금니 하나를 드릴로 파냈다. 그가 그 이를 하도 오래 손보는 바람에 그 이는 못 쓰게 되어 버렸다. 그러자 그는 집게로 그 이를 잡고 너무도 수월하게 뽑아내서 나는 깜짝 놀랐다. 그는 이것은 사실 치료하던 그 이가 아니니 개의치 말라고 하고는 그 이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는데, 거기서 그 이는 (지금 생각하기로는 위 앞니였다) 여러 켜로 갈라졌다. 나는 진료 의자에서 일어나 호기심에 차서 가까이 다가가, 흥미진진하게 의학적인 질문을 하나 던졌다. 의사는 눈에 띄게 하얀 그 이의 조각들을 하나하나 떼어 내 어떤 기구로 갈면서(가루로 빻으면서), 이것이 사춘기와 어떤 관련이 있으며, 이가 이렇게 쉽게 빠지는 것은 사춘기 이전뿐이라고 설명해 주었다. 여자의 경우 여기에 결정적인 계기는 아이를 낳는 것이라고 했다. 그때 나는 (반쯤 깨어서 그랬던 것 같은데) 이 꿈에 몽정이 따랐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러나 그것을 꿈의 어느 대목에 딱 집어 넣을 수는 없다. 이를 뽑는 데서 시작되었다고 생각하는 쪽으로 마음이 기운다.

그러고 나서 나는 이제는 기억나지 않는 무언가를 계속 꿈꾸었는데, 그 꿈은 이렇게 끝났다. 나는 모자와 웃옷을 어딘가에(아마 치과에) 두고 와서, 누가 뒤따라 가져다주기를 바라며 외투만 걸친 채 막 떠나려는 기차를 잡으려고 서둘렀다. 나는 마지막 순간에 맨 끝 칸에 뛰어오르는 데 성공했는데, 거기에는 이미 누군가가 서 있었다. 그러나 나는 객차 안으로 들어갈 수 없어서 불편한 자세로 여행해야 했고, 거기서 벗어나려고 애쓴 끝에 마침내 성공했다. 우리는 긴 터널을 지나갔는데, 그 터널 안에서 맞은편에서 오는 기차 두 대가 마치 우리 기차가 터널이라도 되는 듯 우리 기차를 뚫고 지나갔다. 나는 바깥에서 들여다보듯 객차 창문으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이 꿈을 해석할 재료로 우리는 꿈꾼 사람에게서 다음과 같은 체험과 생각을 얻었다.

I. 얼마 전부터 나는 실제로 치과 치료를 받고 있었고, 꿈을 꿀 무렵에는 꿈에서 드릴로 파낸 그 아래턱 이가 줄곧 아파서 괴로웠다. 치과 의사는 실제로도 그 이를 내가 바라는 것보다 오래 손보았다. 꿈을 꾼 날 오전에 나는 통증 때문에 다시 의사를 찾아갔는데, 그는 치료하던 이 말고 같은 턱의 다른 이, 아마 통증이 거기서 오는 듯한 그 이를 뽑게 해 달라고 권했다. 막 돋아나고 있던 『사랑니』였다. 이 기회에, 또 이와 관련해서, 나는 의사로서의 그의 양심에 호소하는 질문을 하나 했다.

II. 같은 날 오후 나는 치통 때문에 신경이 곤두서 있는 것을 한 부인에게 사과해야 했다. 그러자 그 부인은, 치관은 거의 다 없어졌지만 이뿌리 하나를 뽑는 것이 두렵다고 말했다. 그녀는 눈니(eye teeth)를 뽑는 것이 특히 아프고 위험하다고 생각했다. 다만 아는 사람 하나가 아래턱의 이는 뽑기가 훨씬 쉽다고 말해 주었다고 했다. 그녀의 경우가 바로 그런 이였다. 그 아는 사람은 또 마취 상태에서 엉뚱한 이 하나를 뽑혔다는 이야기도 해 주었는데, 이 말 때문에 그녀는 꼭 받아야 할 수술이 더 두려워졌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눈니라는 것이 어금니를 말하는지 송곳니를 말하는지, 그리고 눈니에 관해 알려진 것이 무엇인지 내게 물었다. 나는 이 모든 의미에 미신의 줄기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그녀에게 일러 주었지만, 민간의 몇몇 견해가 지닌 진짜 의미를 강조하지는 않았다. 그녀는 자기 경험으로 아주 오래되고 널리 퍼진 민간 신앙 하나를 알고 있었는데, 그에 따르면 임신한 여자가 치통을 앓으면 사내아이를 낳는다는 것이었다.

III. 이 속설은, 프로이트가 『꿈의 해석(Traumdeutung)』(독일어판 제2판 193쪽)에서 주장한 치아 자극 꿈의 전형적 의미, 곧 자위의 대용물이라는 의미와 관련해서 내 흥미를 끌었다. 이 민간 속설에서도 치아와 남성 성기(Bub 〔사내아이〕)가 어떤 관계로 맺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같은 날 저녁 『꿈의 해석』에서 해당 대목을 읽었고, 거기서 무엇보다도 곧 인용할 진술들을 발견했다. 이 진술들이 내 꿈에 미친 영향은 앞서 말한 두 체험의 영향만큼이나 뚜렷이 알아볼 수 있다. 프로이트는 치아 자극 꿈에 관해 『남자의 경우 이 꿈들에 추진력을 대 주는 것은 사춘기 시절의 자위에 대한 갈망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고 쓰고 있다(독일어판 제2판 193쪽). 또 이렇게 쓴다. 『나는 전형적인 치아 자극 꿈에 흔히 나타나는 변형들 — 예컨대 다른 사람이 꿈꾸는 사람의 입에서 이를 뽑는 변형 — 도 같은 설명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치아 자극"이 어떻게 이런 의미에 이를 수 있는지는 미심쩍어 보일 수도 있다. 나는 여기서 아래에서 위로의 이동(문제의 꿈에서는 아래턱에서 위턱으로)에 주의를 돌리는데, 이 이동은 그토록 자주 일어나고, 성적 억압에 봉사하며, 그 덕분에 히스테리에서 나타나는, 본래 성기에서 일어나야 할 온갖 감각과 의도가 덜 거리끼는 신체 부위에서 실현될 수 있다』(독일어판 제2판 194쪽). 『그러나 어떤 관용 표현에 담긴 또 다른 연관도 지적해 두어야겠다. 우리 고장에서는 자위 행위를 가리키는 점잖지 못한 말이 쓰이는데, 곧 "잡아 뽑다", 또는 "잡아

내리다"라는 말이다』(독일어판 제2판 195쪽). 이 표현은 내가 어린 시절에 이미 자위를 가리키는 말로 익히 알던 것이다. 여기서부터라면 노련한 꿈 해석자는 이 꿈의 바탕에 깔려 있을지 모를 유년기 재료에 어렵지 않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꿈에서 이가 그렇게 쉽게 빠졌고 빠진 뒤에 위 앞니로 바뀌었다는 사실은, 흔들리던 앞니 하나를 내가 몸소 쉽게, 아프지도 않게 뽑아냈던 어린 시절의 한 체험을 떠올리게 한다. 오늘날까지도 세세한 점까지 또렷이 기억하는 이 일은, 내가 처음으로 의식적으로 자위를 시도하기 시작한 바로 그 이른 시기에 일어났다 — (은폐 기억). 여성의 치아 자극 꿈은 출산을 뜻한다는 C. G. 융의 주장을 프로이트가 언급한 것(독일어판 제2판 194쪽 각주)은, 임신부의 치통이 지니는 의미에 관한 민간 신앙과 함께, 여성적 의미와 남성적 의미(사춘기) 사이에 대립을 세워 놓았다. 이와 관련해 나는, 치료를 마치고 치과 의사에게서 풀려난 직후에 꾼 예전의 꿈 하나를 떠올린다. 막 씌운 금관이 빠져 버리는 꿈이었는데, 꿈속에서 나는 적지 않은 비용 때문에 몹시 속상해했다. 그 비용 걱정은 그때까지도 떨치지 못하고 있었다. 어떤 체험에 비추어 보면, 이 꿈은 이제 경제적으로 덜 유리한 온갖 형태의 대상애와 견주어 자위가 지닌 물질적 이점을 추어올리는 것으로 이해된다(금관은 오스트리아의 금화이기도 하다〔오스트리아의 화폐 단위 크로네(Krone)는 『관(冠)』이라는 뜻이다〕).

이론적으로 이 사례는 두 가지 점에서 흥미로워 보인다. 첫째, 꿈속의 사정이 이를 뽑는 행위 도중에 일어난다는 점에서, 이 사례는 프로이트가 드러내 보인 연관을 확증해 준다. 몽정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든, 우리는 그것을 기계적 자극의 도움 없이 이루어지는 자위적 충족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 경우 몽정으로 얻는 충족은 흔히 그렇듯 상상 속의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상 없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해도 된다면, 그것은 순전히 자기 성애적이며, 기껏해야 어쩌면 가느다란 동성애적 가닥(치과 의사)을 보여 줄 뿐이다.

언급할 만해 보이는 둘째 점은 다음과 같다. 여기서 우리가 프로이트의 견해를 전혀 쓸데없는 방식으로 입증하려 한다는 반론이 쉽게 나올 수 있다. 독서의 체험만으로도 꿈 내용을 설명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이다. 치과 방문, 부인과의 대화, 『꿈의 해석』을 읽은 일만으로도, 밤에 치통으로 잠을 설치기도 한 이 잠자는 사람이 왜 이런 꿈을 꾸는지 충분히 설명되며, 잠을 방해하는 통증이 없어진 것까지 설명될 수 있다(아픈 이를 없애는 표상으로, 그리고 동시에 두려워하던 고통스러운 감각을 리비도로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그러나 이 가정을 얼마만큼 받아들이든, 프로이트의 설명을 읽은 것이 꿈꾼 사람에게서 이 뽑기와 자위 행위의 연관을 만들어 냈다고 진지하게 주장할 수는 없다. 꿈꾼 사람 자신이 인정했듯이(『잡아 뜯다』) 이 연상이 이미 오래전에 형성되어 있지 않았더라면, 그 연관은 효력을 발휘할 수조차 없었을 것이다. 부인과의 대화와 관련해 이 연상을 한층 더 자극했을지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는, 꿈꾼 사람이 나중에 한 말에서 드러난다. 그는 『꿈의 해석』을 읽으면서, 뻔한 이유로 치아

자극 꿈의 이 전형적 의미를 믿을 수 없었고, 그것이 이런 성질의 꿈 모두에 들어맞는지 알고 싶다는 소원을 품었다는 것이다. 꿈은 이제 적어도 그 자신에게는 이것을 확인해 주며, 그가 왜 그것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는지도 보여 준다. 그러므로 이 꿈은 이 점에서도 소원 성취다. 곧 프로이트의 이 견해가 중요하고 확고하다는 것을 확신하고 싶다는 소원의 성취다.

55. 앞 주(랑크의 보고)의 「엉뚱한 이」 — 영역본은 「one of her false teeth」(틀니 하나)라 했으나, 뒤따르는 말(그 말을 듣고 수술이 더 두려워졌다)과 맞지 않는다. 독일어 falscher Zahn(엉뚱한 이, 잘못 뽑은 이)을 「틀니」로 읽은 것으로 보아 바로잡았다. — 옮긴이.

56. 신경과민과는 전혀 거리가 먼 한 젊은 동료가 이와 관련해 내게 이렇게 말한다. 「제 경험으로 아는데, 그네를 탈 때 아래로 내려가는 움직임이 가장 세찬 순간이면 성기에 묘한 느낌이 들곤 했어요. 제게 정말로 즐거운 것은 아니었지만, 관능적인 느낌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느낌이었죠.」 나는 환자들에게서, 관능적인 감각을 동반한 첫 발기가 소년 시절 무언가를 기어오르다가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다. 첫 성적 충동이 어린 시절의 몸싸움과 씨름에서 비롯하는 일이 많다는 것은 정신분석으로 아주 확실하게 밝혀져 있다.

57. 물론 이것은 「vögeln」〔새(Vogel)에서 나온 말로, 성교한다는 뜻〕이라는 비속어를 아는, 독일어를 쓰는 꿈꾸는 사람에게만 들어맞는다. — 영역자 브릴의 주.

58. 『신경증론 소논문집(Sammlung kl. Schriften zur Neurosenlehre)』 제2집, 1909.

59. 저자의 『성 이론에 관한 세 편의 에세이』(A. A. 브릴 옮김) 참조.

60. W. 슈테켈, 『꿈의 언어』, 1911.

61. 알프레트 아들러, 「삶과 신경증에서의 심리적 양성구유(Der Psychische Hermaphroditismus im Leben und in der Neurose)」, 『의학의 진보(Fortschritte der Medizin)』 1910년 제16호, 그리고 『정신분석 중앙지(Zentralblatt für Psychoanalyse)』 제1권(1910~1911)에 실린 그 뒤의 글들.

62. 이런 위장된 오이디푸스 꿈의 전형적인 예 하나를 나는 『정신분석 중앙지』 제1호에 발표했다. 자세한 분석을 곁들인 또 다른 예는 같은 잡지 제4호에 오토 랑크가 보고했다. 사실 고대인들도 드러난 오이디푸스 꿈의 상징적 해석을 모르지 않았다(O. 랑크[108], 534쪽 참조). 이를테면 어머니와 성관계를 맺는 꿈 하나가 율리우스 카이사르에게서 우리에게 전해 오는데, 해몽가들은 이 꿈을 땅(어머니 대지)을 차지하게 될 길조로 해석했다. 또 잘 알려져 있듯이, 신탁은 타르퀴니우스 일가에게 그들 가운데 어머니에게 먼저 입 맞추는 자가 로마의 지배자가 되리라고 일러 주었는데(osculum, matri tulerit〔어머니에게 입맞춤을 바치는〕), 브루투스는 이것을

어머니 대지를 가리키는 말로 알아들었다(terram osculo contigit, scilicet quod ea communia mater omnium mortalium esset〔그는 땅에 입을 맞추었다. 땅이 모든 인간의 공통된 어머니라는 이유에서였다〕, 리비우스, 제1권 61장). 이런 신화와 해석은 올바른 심리학적 인식을 가리킨다. 나는 어머니에게서 남달리 사랑받거나 귀여움을 받는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흔히 영웅적으로 보이고 억지로라도 실제의 성공을 끌어내는 그런 자기 신뢰와 굳건한 낙관주의를 삶에서 드러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63. 태내 생활에 관한 공상과 무의식적 사고의 의미를 제대로 평가하게 된 것은 겨우 최근의 일이다. 그것들에는, 산 채로 묻히지나 않을까 하여 그토록 많은 사람이 품는 기이한 불안에 대한 설명이 들어 있으며, 죽은 뒤의 삶에 대한 믿음의 가장 깊은 무의식적 근거도 들어 있다. 이 믿음은 출생 이전의 이 신비로운 삶을 미래로 투사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더구나 출생 행위는 최초의 불안 체험이며, 따라서 불안 정동의 원천이자 본보기다.

64. 그런 꿈에 대해서는 피스터, 「정신분석적 영혼 돌봄과 치유의 한 사례(Ein Fall von Psychoanalytischer Seelensorge und Seelenheilung)」, 『복음의 자유(Evangelische Freiheit)』, 1909 참조. 「구조」의 상징에 관해서는 내 강연 「정신분석 치료의 앞으로의 전망(Die Zukünftigen Chancen der psychoanalytischen Therapie)」, 『정신분석 중앙지』 제1호, 1910 참조. 또 「사랑 생활의 심리학에 대한 기고 I. 남성에게서 보이는 대상 선택의 특수한 유형에 대하여(Beiträge zur Psychologie des Liebeslebens, I. Ueber einen besonderen Typus der objektwahl beim Manne)」, 『연보(Jahrbuch)』, 블로일러·프로이트 엮음, 제2권, 1910도 참조.

65. 블로일러와 그의 제자인 메더, 아브라함 등 취리히 학파가 상징 표현에 관해 쓴 저작들, 그리고 그들이 참조하는, 의사가 아닌 저자들(클라인파울 등)의 저작 참조.

66. 이 나라에서는 대통령, 주지사, 시장이 꿈에서 흔히 아버지를 나타낸다. — 영역자 브릴의 주.

67. 다른 자리에서 한 말을 여기서 되풀이해도 좋겠다(「정신분석 치료의 앞으로의 전망」, 『정신분석 중앙지』 제1권 1·2호, 1910). 「얼마 전 나는, 우리 연구를 잘 모르는 어떤 심리학자가 내 친구 하나에게, 우리가 꿈의 은밀한 성적 의미를 분명 과대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는 자기가 가장 자주 꾸는 꿈은 계단을 오르는 꿈인데, 그 뒤에 성적인 것은 분명 아무것도 없다고 했다. 이 반론에 주의를 기울이게 된 우리는 꿈에 계단, 층계, 사다리가 나오는 경우를 조사했고, 곧 계단(또는 그와 비슷한 것)이 성교의 확실한 상징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이 비교의 근거는 찾기 어렵지 않다. 리듬 있는 간격을 두고, 숨이 점점 가빠지는 가운데 높은

곳에 이르렀다가, 몇 번 재빨리 뛰어 다시 내려올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계단을 오르는 데서 성교의 리듬을 알아볼 수 있다. 언어 관용도 잊지 말고 고려하자. 언어 관용은 『오르기』나 『올라타기』가 아무 덧붙임 없이 성행위를 대신 가리키는 말로 쓰인다는 것을 보여 준다. 프랑스어에서는 계단의 한 단을 『la marche』라고 하는데, 『un vieux marcheur』〔글자 그대로는 늙은 걸음꾼, 늙은 난봉꾼을 이르는 말〕는 우리의 『늙은 오름꾼』과 꼭 맞아떨어진다.」

68. 넥타이를 거의 「necktie」라는 말로만 부르는 이 나라에서, 영역자는 넥타이가 꿈꾸는 사람이 벗어나고 싶어 하는 짐스러운 여자의 상징이기도 하다는 것을 알아냈다. 「넥타이 — 무거운 짐처럼 내 목에 매인 것 — 내 약혼녀」가 결국 약혼을 깬 한 남자의 꿈에서 나온 연상이다. — 영역자 브릴의 주.

69. 꿈의 상징 표현에 대한 셰르너의 견해와 여기서 전개한 견해 사이에는 온갖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나는 셰르너[58]야말로 꿈속 상징 표현의 참된 발견자로 인정받아야 하며, 그의 책이 쉰 해 가까이 공상적이라는 평을 들은 뒤에 정신분석의 경험이 그 책의 명예를 되찾아 주었다고 주장할 수밖에 없다.

70. 『정신분석 중앙지(Zentralblatt für Psychoanalyse)』 제1권 5·6호(1911)에 실린 「꿈의 해석 보유(Nachträge zur Traumdeutung)」에서.

71. 「꿈 해석에 대한 기여(Beiträge zur Traumdeutung)」, 『정신분석·정신병리 연구 연보(Jahrbuch für Psychoanalyt. und psychop. Forsch.)』 제1권, 1909, 473쪽. 같은 글(475쪽)에는 가운데에 깃털이 비스듬히 꽂힌 모자가 (성 불능인) 남자를 상징하는 꿈도 보고되어 있다.

72. 로툰데(Rotunde)는 1873년 빈 만국 박람회 때 프라터에 세운 거대한 원형 건물이다. — 옮긴이.

73. 『정신분석 중앙지』 제1권 참조.

74. 또는 예배당 — 질.

75. 성교의 상징.

76. Mons veneris〔불두덩〕.

77. Crines pubis〔음모〕.

78. 외투와 두건 차림의 악마들은, 이 방면에 밝은 어떤 사람의 설명에 따르면 남근적 성질을 띤다.

79. 음낭의 두 쪽.

80. 『정신분석 중앙지』 제1권, 2쪽 참조.

81. 이 히브리어 낱말은 독일어를 쓰는 나라들에서는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사이에서도 잘 알려져 있으며, 운이 없고 서투른 사람을 뜻한다. — 영역자 브릴의 주.

제6장 꿈 작업

꿈의 문제를 풀려는 이제까지의 모든 시도는 기억에 남아 있는 그대로의 외현적 꿈 내용에 곧바로 기대어, 이 내용에서 꿈의 해석을 얻어 내려 하거나, 해석을 단념한 경우에는 이 내용이 내놓는 증거를 바탕으로 꿈을 판단하려 했다. 새로운 자료를 손에 쥔 것은 우리뿐이다. 우리에게는 꿈 내용과 우리가 탐구한 결과 사이에 새로운 심리적 재료가 끼어든다. 우리의 방법으로 얻어 낸 잠재적 꿈 내용, 곧 꿈 사고가 그것이다. 우리는 외현적 꿈 내용이 아니라 이것에서 꿈의 해답을 풀어낸다. 우리는 또한 전에는 없던 문제에 처음으로 맞닥뜨린다. 잠재적 꿈 사고와 외현적 꿈 내용 사이의 관계를, 그리고 앞의 것이 자라나 뒤의 것이 되기까지 거친 과정을 살피고 추적하는 문제다.

우리는 꿈 사고와 꿈 내용을, 같은 의미를 서로 다른 두 언어로 나타낸 두 가지 표현으로 본다. 더 낫게 말하자면, 우리에게 꿈 내용은 꿈 사고를 또 다른 표현 방식으로 옮겨 놓은 번역으로 보이며, 그 기호와 구성 법칙은 원문과 번역을 견주어 가며 익혀야 한다. 꿈 사고는 일단 알아내기만 하면 곧바로 이해된다. 꿈 내용은 말하자면 그림 문자로 적혀 있어서, 그 기호들을 하나하나 꿈 사고의 언어로 옮겨야 한다. 이 기호들을 기호로서 지니는 의미가 아니라 그림으로서 지니는 가치에 따라 읽으려 한다면 물론 잘못일 것이다. 이를테면 지금 내 앞에 그림 수수께끼(rebus)가 하나 있다. 지붕 위에 배가 얹힌 집 한 채, 이어서 머리가 아포스트로피로 생략된 채 달려가는 사람의 모습 따위다. 이제

나는 비평가가 되어 이 구성과 그 요소들이 무의미하다고 여기고 싶은 유혹을 느낄 수도 있다. 배는 집 지붕 위에 있을 물건이 아니고, 머리 없는 사람은 달릴 수 없다. 게다가 사람이 집보다 크고, 전체가 어떤 풍경을 나타내려는 것이라면 알파벳 낱글자들은 거기에 어울리지 않는다. 있는 그대로의 자연 속에는 물론 그런 것이 없으니까. 그림 수수께끼를 올바르게 판단하려면 전체와 부분에 그런 이의를 달지 말고, 오히려 그림 하나하나를, 어떤 식의 관련을 거쳐서든 그 그림이 나타낼 수 있는 음절이나 낱말로 바꾸어 놓으려고 애써야 한다. 그렇게 모아 놓은 낱말들은 더는 무의미하지 않고, 더없이 아름답고 뜻깊은 말을 이룰 수도 있다. 그런데 꿈이 바로 이런 그림 수수께끼이며, 꿈 해석 분야에서 우리의 선배들은 이 그림 수수께끼를 예술적 구성으로 판단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예술적 구성으로서라면 그것은 무의미하고 쓸모없어 보인다.

(가) 압축 작업

꿈 내용을 꿈 사고와 비교할 때 탐구자에게 가장 먼저 분명해지는 것은 엄청난 압축 작업이 일어났다는 사실이다. 꿈 사고의 범위와 풍부함에 견주면 꿈은 과묵하고, 빈약하고, 간결하다. 꿈은 적어 놓으면 반 쪽을 채우지만, 꿈 사고가 담긴 분석은 그 여섯 배, 여덟 배, 열두 배의 지면을 차지한다. 이 비율은 꿈마다 다르지만, 내가 관찰할 수 있었던 한 그 본질적인 의미는 결코 달라지지 않는다. 대개 우리는 일어난 압축의 정도를 과소평가한다. 드러난 꿈 사고를 재료의 전부로 여기기 때문인데, 해석 작업을 이어 가면 꿈 뒤에 숨은 새로운 생각들이 드러날 수도 있다. 꿈을 완전히 해석했다고 실제로 확신할 수는 결코 없다는 것은 이미 말했다. 해답이 만족스럽고 흠 없어 보여도, 같은 꿈이

드러내는 또 다른 의미가 있을 가능성은 언제나 남는다. 그러므로 압축의 양은 엄밀히 말해 확정할 수 없다. 꿈 내용과 꿈 사고의 불균형을 근거로 꿈 형성에서 심리적 재료의 풍부한 압축이 일어났다고 결론짓는 주장에는, 얼핏 보기에 아주 그럴듯한 반론이 나올 수 있다. 밤새 꿈을 많이 꾸고는 그 대부분을 잊어버렸다는 인상을 우리는 아주 자주 받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깨어나서 기억하는 꿈은 전체 꿈 작업의 남은 조각에 지나지 않을 것이고, 그 전체 꿈 작업을 온전히 기억할 수 있다면 그것은 아마 범위에서 꿈 사고와 맞먹을 것이다. 이 말은 부분적으로는 분명히 옳다. 깨어난 직후에 기억해 내려고 하면 꿈이 가장 정확하게 재생되고, 저녁이 가까워질수록 꿈의 기억이 점점 더 불완전해진다는 관찰에는 틀림이 없다. 다른 한편, 재생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꿈을 꾸었다는 인상이 흔히 착각에 바탕을 둔다는 것도 인정해야 한다. 그 착각의 원인은 나중에 설명하겠다. 게다가 꿈 작업에서 압축이 일어난다는 가정은 꿈의 망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에 흔들리지 않는다. 그 가정은 기억에 남은 꿈의 개별 부분들에 딸린 표상 무리로 증명되기 때문이다. 꿈의 큰 부분이 실제로 기억에서 사라졌다면, 아마 우리는 새로운 일련의 꿈 사고로 가는 길을 잃은 것이다. 잃어버린 꿈 부분들도 보존된 부분들을 분석해서 이미 알게 된 생각들과 관계가 있으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전혀 정당하지 않다.

분석은 꿈 내용의 개별 요소 하나하나에 대해 엄청나게 많은 떠오른 생각을 내놓는다. 그러니 많은 독자가 품을 가장 큰 의문은, 분석하는 동안 나중에 떠오르는 모든 것을 꿈 사고의 일부로 쳐도 되는가, 다시 말해 이 생각들이 모두 잠든 상태에서 활동했고 꿈 형성에 참여했다고 가정해도 되는가 하는 것이리라. 꿈 형성에는 참여하지 않은 생각의 연결이 분석하는 과정에서 새로 생겨난다고 보는 편이 더 그럴듯하지 않은가? 이 의문에 나는 조건부로만 답할 수 있다. 물론 어떤 생각의

연결은 분석 중에야 비로소 생겨난다. 그러나 그런 새 연결은 꿈 사고 속에서 이미 다른 방식으로 이어져 있던 생각들 사이에서만 맺어진다는 것을 언제나 확신해도 좋다. 새 연결은 말하자면 부수적인 귀결, 곧 합선으로서, 더 근본적인 다른 연결 수단이 있기에 가능해진 것이다. 분석이 드러내는 엄청난 수의 생각의 흐름이 이미 꿈 형성에서 활동했다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 꿈 형성과 아무 관련이 없어 보이는 생각의 사슬 하나를 끝까지 풀어내다 보면, 갑자기 어떤 생각과 마주치기 때문이다. 그 생각은 꿈속에 나타나 있어서 꿈 해석에 없어서는 안 되지만, 그 생각의 사슬을 거치지 않고는 닿을 수 없다. 여기서 독자는 식물학 연구서 꿈을 다시 펼쳐 보아도 좋겠다. 그 분석을 온전히 내놓지는 않았지만, 이 꿈은 분명히 놀라운 압축 작업의 결과다.

그렇다면 꿈꾸기에 앞선 수면 중의 심리적 상태는 어떻게 상상해야 하는가? 꿈 사고들은 모두 나란히 존재하는가, 차례로 하나씩 나타나는가, 아니면 서로 다른 중심에서 동시에 여러 갈래의 생각의 흐름이 만들어졌다가 나중에 만나는가? 꿈 형성의 심리적 상태에 대해 구체적인 관념을 세울 필요는 아직 없다고 나는 생각한다. 다만 우리가 다루는 것이 무의식적 사고라는 것, 그리고 그 과정이, 의식을 동반한 의도적인 숙고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서 지각하는 과정과는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는 것만은 잊지 말자.

그러나 꿈 형성이 압축 과정에 바탕을 둔다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렇다면 이 압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찾아낸 꿈 사고 가운데 꿈의 표상 요소 하나로 꿈속에 대리되는 것은 극히 적다는 점을 생각하면, 압축은 생략으로 이루어진다고 결론지을 수도 있을 것이다. 꿈은 꿈 사고를 정확하게 옮긴 번역이나 한 점 한 점 옮겨 놓은 투영이 아니라, 꿈 사고를 몹시 불완전하고 결함 있게 재현한 것이라는 뜻에서다. 곧 보겠지만 이 견해는 매우 불충분하다. 그러나

당분간은 이것을 출발점으로 삼아 이렇게 물어보자. 꿈 사고의 요소 가운데 몇 개만 꿈 내용에 들어간다면, 어떤 조건이 그것들의 선택을 결정하는가?

이 문제를 밝히기 위해, 우리가 찾는 조건을 충족했음이 틀림없는 꿈 내용의 요소들에 주의를 돌려 보자. 특히 강한 압축이 관여해 형성된 꿈이 이 탐구에 가장 알맞은 재료일 것이다. 나는 5장 (가)에서 인용한 식물학 연구서 꿈을 고르겠다.

꿈 내용: 나는 (불분명한) 어떤 식물에 관한 연구서를 썼다. 그 책이 내 앞에 놓여 있고, 나는 마침 접힌 채색 도판 한 장을 넘기고 있다. 책마다 그 식물의 말린 표본이 한 점씩 함께 제본되어 있다. 마치 식물 표본집에서 나온 것처럼.

이 꿈에서 가장 두드러진 요소는 식물학 연구서다. 이것은 꿈을 꾼 날에 받은 인상에서 나온다. 나는 실제로 어느 서점 진열창에서 「시클라멘」 속(屬)에 관한 연구서를 보았다. 꿈 내용에는 이 속에 대한 언급이 빠져 있고, 연구서와 그것이 식물학과 맺는 관계만 남아 있다. 「식물학 연구서」는 곧바로 내가 예전에 쓴 코카인에 관한 논문과의 관계를 드러낸다. 생각의 연결은 코카인에서 출발해 한편으로는 「기념 논문집」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코카인 활용에 한몫한 내 친구인 안과 의사 쾨니히슈타인 박사에게로 뻗어 간다. 게다가 이 쾨니히슈타인 박사라는 인물에는, 전날 저녁 그와 나누다 중간에 끊긴 대화의 기억과, 동료들 사이의 진료 보수를 둘러싼 여러 가지 생각의 기억이 이어져 있다. 그러니 이 대화가 본래 꿈의 현재적 자극이다. 시클라멘에 관한 연구서도 마찬가지로 현재성을 띠지만, 사소한 성질의 것이다. 곧 알게 되듯이, 꿈속의 「식물학 연구서」는 낮의 두 체험 사이의 공통 중간물임이 드러난다. 그것은 사소한 인상에서 바뀌지 않은 채 옮겨 와, 더없이 풍부한 연상을 통해 심리학적으로 의미 있는 체험과 결합되었다.

그러나 「식물학 연구서」라는 결합된 표상만이 아니라, 「식물학」과 「연구서」라는 개별 요소 하나하나도 꿈 사고의 뒤엉킨 실타래 속으로 점점 더 깊이 파고든다. 「식물학」에는 **게르트너**(독일어 Gärtner = 정원사) 교수라는 인물에 대한 기억, **활짝 핀 꽃 같은** 그의 부인에 대한 기억, 이름이 **플로라**〔꽃의 여신〕인 내 환자에 대한 기억, 그리고 내가 들려준 잊힌 꽃 이야기의 주인공인 한 부인에 대한 기억이 속한다. **게르트너**는 다시 실험실과, 또 **쾨니히슈타인**과 나눈 대화와 이어져 있다. 두 여성 환자가 언급된 것도 같은 대화에서였다. 서둘러 훑어본 연구서의 제목이 한쪽 끝을 이루는 생각의 사슬 하나는, 다른 방향으로는 꽃 이야기의 그 부인에게서 아내가 **가장 좋아하는 꽃**으로 뻗어 간다. 그 밖에도 「식물학」은 김나지움 시절의 한 일화뿐 아니라 대학에 다닐 때 치른 시험 하나를 떠올리게 한다. 또 앞서 말한 그 대화에서 꺼낸 새로운 화제, 곧 내 취미는, 내가 농담 삼아 **가장 좋아하는 꽃**이라고 부르는 아티초크를 매개로, 잊힌 꽃에서 출발하는 생각의 사슬과 이어진다. 「아티초크」 뒤에는 한편으로는 이탈리아의 기억이, 다른 한편으로는 어린 시절 장면 하나의 회상이 숨어 있다. 그 장면에서 나는 처음으로 책과 인연을 맺었고, 그 인연은 그 뒤로 그토록 깊어졌다. 그러니 「식물학」은 참된 핵이며, 이 꿈에서 수많은 생각의 흐름이 모여드는 중심이다. 장담하건대 이 생각의 흐름들은 앞서 말한 그 대화에서 올바르고 정당하게 서로 관계를 맺은 것들이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의 공장 안에 있는 셈이다. 그 공장에서는 「직조공의 걸작」에서와 같은 일이 벌어진다.

「한 번 디디면 실 수천 가닥이 움직이고,」

「작은 북들은 이리저리 날고,」

「실들은 보이지 않게 흘러가고,」

「한 번 치면 수천 매듭이 맺어진다.」

꿈속의 「연구서」는 또 두 가지 주제와 관계가 있다. 내 공부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것, 그리고 내 취미에 돈이 많이 든다는 것이다.

이 첫 조사에서 얻는 인상은 이렇다. 「식물학」과 「연구서」라는 요소가 꿈 내용에 받아들여진 것은, 그것들이 꿈 사고와 가장 폭넓은 연결을 보여 줄 수 있어서 수많은 꿈 사고가 한데 모이는 핵을 이루기 때문이며, 또 꿈 해석에서 여러 겹의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다. 이 설명의 바탕에 있는 사실은 달리 표현할 수도 있다. 꿈 내용의 요소는 하나하나가 중층 결정(over-determined)되어 있다는 것, 다시 말해 꿈 사고 속에 여러 겹으로 대리되어 있다는 것이 드러난다.

꿈의 나머지 구성 부분들이 꿈 사고 속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검토해 보면 더 많은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채색 도판은(5장 (가)의 분석 참조) 새로운 주제, 곧 동료들이 내 작업에 내린 비판을 가리키고, 꿈속에 이미 나타나 있는 주제인 내 취미를 가리키며, 또 내가 채색 도판이 든 책을 갈가리 찢는 어린 시절의 기억을 가리킨다. 그 식물의 말린 표본은 김나지움 시절의 한 체험, 식물 표본집을 중심에 두고 유난히 부각하는 체험과 관계가 있다. 이로써 나는 꿈 내용과 꿈 사고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게 된다. 꿈의 요소들이 꿈 사고 속에서 다중 결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개개의 꿈 사고도 꿈속에서 여러 요소로 대리된다. 꿈의 한 요소에서 출발한 연상의 길은 여러 꿈 사고로 이어지고, 한 꿈 사고에서 출발한 길은 꿈의 여러 요소로 이어진다. 따라서 꿈 형성은, 꿈 사고 하나 또는 한 무리가 꿈 내용 안에 자기 대리자로 축약본 하나를 들여보내고, 이어서 다른 꿈 사고가 또 다른 축약본을 자기 대리자로 들여보내는 식으로, 이를테면 국민이 자기들 가운데서 대표를 뽑듯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꿈 사고 전체가 일종의 가공을 거치며, 그 과정에서 가장 크고 가장 완전한 지지를 받는 요소들이 도드라져 나온다. 아마 scrutins des listes〔명부식 연기 투표〕에 의한 선거와

비슷한 방식일 것이다. 어떤 꿈을 이렇게 해체해 보든, 나는 언제나 같은 기본 원칙이 확인되는 것을 본다. 꿈 요소들은 꿈 사고 전체에서 만들어지며, 그 하나하나가 꿈 사고와의 관계에서 다중 결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원칙이다.

꿈 내용과 꿈 사고의 이 관계를 새로운 예 하나로 보여 주는 것도 분명 부적절한 일은 아니리라. 이 예는 서로 주고받는 관계들이 특히 교묘하게 얽혀 있다는 점에서 두드러진다. 내가 폐소 공포증(닫힌 공간에서 느끼는 두려움)으로 치료하고 있는 한 환자의 꿈이다. 이 유난히 지적인 꿈 활동의 작품에 내가 왜 다음과 같은 제목을 붙일 수밖에 없다고 느끼는지는 곧 드러날 것이다.

II. 「아름다운 꿈」

꿈꾼 사람은 많은 사람들과 함께 X 거리로 타고 가는데, 그 거리에는 수수한 여인숙이 하나 있다(사실은 그렇지 않다). 그곳 방들에서는 연극 공연이 열리고 있다. 그는 처음에는 관객이고, 그다음에는 배우다. 마침내 일행은 시내로 돌아가기 위해 옷을 갈아입으라는 말을 듣는다.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1층 방들에, 다른 사람들은 2층 방들에 배정된다. 그러자 말다툼이 벌어진다. 위에 있는 사람들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아직 끝내지 않아서 자기들이 내려올 수 없다고 화를 낸다. 그의 형제는 위층에 있고, 그는 아래에 있는데, 이렇게 붐비는 것 때문에 그는 형제에게 화가 나 있다. (이 부분은 불분명하다.) 게다가 누가 위층에 있고 누가 밑에 있을지는 그들이 도착할 때 이미 정해져 있었다. 그다음에 그는 혼자서 오르막을 넘어가는데, X 거리는 그 오르막을 가로질러 시내 쪽으로 나 있다. 걷기가 어찌나 어렵고 고된지 그는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가 없다. 나이 든 신사 하나가 그의 길동무가 되어 이탈리아 왕을 두고 욕을 늘어놓는다. 마침내 오르막이 끝나 갈 무렵에는 걷기가 훨씬 쉬워진다.

걸을 때 겪은 어려움이 어찌나 뚜렷했던지, 그는 깨어난 뒤에도 한동안 그것이 꿈이었는지 현실이었는지 확신하지 못했다.

외현 내용으로 보자면 이 꿈은 칭찬할 만한 데가 거의 없다. 나는 규칙을 어기고, 꿈꾼 사람이 가장 뚜렷했다고 말한 부분부터 시작하겠다.

꿈에 나온, 그리고 아마 꿈꾸는 동안 실제로 느꼈을 그 어려움, 곧 호흡 곤란을 동반한 오르기의 어려움은 환자가 여러 해 전에 실제로 보였던 증상 가운데 하나로, 그때는 다른 증상들과 함께 결핵(아마 히스테리성으로 흉내 낸 것) 탓으로 여겨졌다. 꿈 특유의 이 가로막히는 감각은 노출 꿈에서 이미 알게 된 것인데, 여기서도 우리는 그것이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재료로서 온갖 종류의 표현에 동원되는 것을 본다. 오르기가 처음에는 어렵다가 언덕 끝에 이르러 쉬워진다고 하는 꿈 내용의 부분을 듣는 동안, 나는 A. 도데의 『사포』에 나오는, 널리 알려진 거장다운 도입부를 떠올렸다. 거기서는 한 젊은이가 사랑하는 처녀를 안고 위층으로 올라간다. 처음에 그녀는 깃털처럼 가볍지만, 높이 올라갈수록 그의 팔을 점점 더 무겁게 짓누른다. 이 장면은 어떤 일의 경과를 상징하는데, 도데는 그 경과를 이야기함으로써 출신이 비천하거나 과거가 수상쩍은 처녀들에게 진지한 애정을 허비하지 말라고 젊은이들에게 경고하려 한다.[1] 내 환자가 최근에 연극계의 한 여성과 연애를 하다가 관계를 끊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내게 떠오른 해석이 맞으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았다. 게다가 『사포』의 상황은 꿈과 반대였다. 꿈에서는 오르기가 처음에는 어렵고 나중에는 쉬웠지만, 소설에서는 처음에 쉬워 보이던 것이 끝내 무거운 짐으로 드러날 때에만 상징이 제 구실을 한다. 놀랍게도 환자는, 그 해석이 전날 저녁 극장에서 본 연극의 줄거리와 꼭 들어맞는다고 말했다. 그 연극의 제목은 『빈 한 바퀴』였고, 처음에는 품행이 반듯하다가 나중에

화류계로 넘어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그렇게 「올라가지만」, 마지막에는 점점 더 빠르게 「내려가는」 한 처녀의 이력을 다루고 있었다. 이 연극을 보고 그는 『층계에서 층계로』라는 또 다른 연극을 떠올렸는데, 그 연극의 광고에는 층계 몇 칸으로 이루어진 계단이 그려져 있었다.

이제 해석을 이어 가자. 그가 가장 최근에, 그것도 복잡하게 얽힌 관계를 맺었던 여배우는 X 거리에 살았다. 이 거리에는 여관이 없다. 그러나 그는 그 여인 때문에 여름 한동안 빈에서 지내면서 그 근처의 작은 호텔에 묵었다(독일어 abgestiegen은 「묵었다」, 글자 그대로는 「내려섰다」라는 뜻). 호텔을 떠나면서 그는 마부에게 「그래도 벌레는 옮지 않았으니 다행일세」 하고 말했다(덧붙이자면 이것은 그의 공포증 가운데 하나다). 그러자 마부가 대답했다. 「 거기서 누가 묵는단 말입니까! 그건 호텔도 아니에요. 그냥 여인숙이라니까요!」

여인숙은 꿈꾼 사람의 기억 속에 곧바로 인용구 하나를 불러일으킨다.

「그 놀라운 주인의」

「손님이 된 적이 한 번 있었네.」

그러나 울란트의 시에서 그 주인은 사과나무다. 이제 두 번째 인용구가 생각의 흐름을 이어 간다.

파우스트(젊은 마녀와 춤추며).

「언젠가 고운 꿈 하나가 내게 찾아왔지.」

「그때 나는 사과나무 한 그루를 보았는데,」

「거기 더없이 어여쁜 사과 두 알이 반짝였지.」

「어찌나 나를 꾀던지, 나는 그 나무에 올라갔다네.」

미녀.

「사과라면 그대들이 탐내 왔지요,」

「낙원에서 처음 열린 그때부터.」

「그리고 나는 기쁨에 가슴이 설레요,」

「내 정원에도 그런 것이 열린다는 걸 알고서.」

베이어드 테일러 **영역**.

사과나무와 사과가 무엇을 뜻하는지는 조금도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 여배우가 우리의 꿈꾼 사람을 홀린 매력들 가운데 아름다운 젖가슴이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분석의 연관으로 보아, 우리에게는 이 꿈이 어린 시절의 인상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볼 이유가 충분했다. 그렇다면 이 꿈은 환자의 유모와 관계가 있을 것이 틀림없다. 환자는 이제 쉰 살 가까운 남자다. 유모의 젖가슴은 사실 아이에게 여인숙이다. 유모도, 도데의 사포도, 그가 버린 연인에 대한 암시로 나타난다.

환자의 (손위) 형제도 꿈 내용에 나타난다. 형제는 위층에 있고, 꿈꾼 사람 자신은 아래에 있다. 이것 역시 **역전**이다. 내가 마침 알기로 그 형제는 사회적 지위를 잃었고, 내 환자는 자기 지위를 지켰기 때문이다. 꿈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꿈꾼 사람은 형제가 위층에 있고 자기 자신은 **밑**에 있다고 말하기를 피했다. 그렇게 말했다면 너무 노골적인 표현이 되었을 것이다. 사람이 재산과 지위를 잃으면 「down and out」〔밑바닥 신세〕이라고들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꿈의 이 대목에서 무언가가 역전된 것으로 표현되어 있다는 사실에는 뜻이 있을 것이다. 이 역전은 오히려 꿈 사고와 꿈 내용 사이의 다른 어떤 관계에 해당하는 것이 틀림없다. 이 역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일러 주는 단서가 하나 있다. 역전은 분명히 꿈의 끝부분에 해당한다. 거기서는 오르기의 사정이 『사포』와 반대다. 이제 어떤 역전을 가리키는지 쉽게 알 수 있다. 『사포』에서는 남자가 자기와 성적 관계에 있는 여자를 안고 가는데, 꿈 사고에서는 **거꾸로** 여자가 남자를 안고 간다. 이런 사태는

어린 시절에만 일어날 수 있으므로, 이것은 다시 무거운 아이를 안고 다니는 유모를 가리킨다. 이렇게 꿈의 마지막 부분은 『사포』와 유모를 같은 암시 하나로 표현해 낸다.

작가가 『사포』라는 이름을 레스보스의 풍습과 상관없이 고르지 않았듯이, 사람들이 위와 아래에서 행동하는 꿈 요소들도, 꿈꾼 사람의 머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억제된 갈망으로서 그의 신경증과 무관하지 않은 성적인 공상을 가리킨다. 이것들이 실제 사건의 기억이 아니라 공상이라는 것을 꿈 해석 자체가 보여 주지는 않는다. 꿈 해석은 우리에게 생각들의 한 묶음을 내줄 뿐, 그것들이 현실로서 지니는 가치를 가리는 일은 우리에게 맡긴다. 실제의 일과 공상 속의 일은 여기서 처음에는 같은 가치를 지닌 것으로 나타난다. 여기서만이 아니라, 꿈보다 더 중요한 심리적 구조물이 만들어질 때에도 그렇다. 이미 알고 있듯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다는 것은 비밀을 뜻한다. 형제는 다름 아니라 「거슬러 공상하기」를 통해 어린 시절 장면으로 끌려 들어온, 그 여자를 둘러싼 나중의 모든 경쟁자의 대리자다. 그 자체로는 사소한 체험을 매개로 하여, 이탈리아 왕을 두고 욕을 늘어놓는 신사가 나오는 대목은 다시 신분 낮은 사람들이 귀족 사회로 끼어드는 일을 가리킨다. 마치 도데가 젊은이들에게 주는 경고를, 젖먹이에게 해당하는 비슷한 경고로 보충하려는 것 같다.[2]

꿈 형성에서 일어나는 압축을 연구할 셋째 예를 마련하려고, 정신분석 치료를 받고 있는 한 나이 든 부인에게서 얻은 다른 꿈의 부분적인 분석을 인용하겠다. 환자가 앓던 심한 불안 상태에 걸맞게, 그녀의 꿈에는 성적인 사고 재료가 아주 풍부하게 들어 있었고, 그것을 알게 된 그녀는 놀라기도 하고 겁을 먹기도 했다. 꿈의 해석을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재료는 뚜렷한 연관 없이 여러 무리로 흩어지는 것처럼 보인다.

III. 꿈 내용: 그녀는 상자 속에 6월 딱정벌레(June bug) 두 마리가 있다는 것을 떠올린다. 그대로 두면 숨이 막혀 죽을 테니 자유롭게 풀어 주어야 한다. 그녀가 상자를 여니 벌레들은 완전히 탈진해 있다. 한 마리는 창밖으로 날아가지만, 다른 한 마리는 누군지 모를 사람이 창문을 닫으라고 해서 그녀가 창문을 닫는 사이에 창틀에 끼어 으깨진다(역겨움의 표현).

분석: 남편은 여행을 떠나 집에 없고, 열네 살 난 딸이 그녀 옆 침대에서 자고 있다. 저녁에 딸아이는 그녀의 물컵에 나방 한 마리가 빠졌다고 일러 주지만, 그녀는 나방을 건져 내지 않고 내버려 두었다가 아침이 되어서야 그 가엾은 작은 생물을 불쌍히 여긴다. 저녁에 읽은 이야기에는 사내아이들이 고양이를 끓는 물에 던져 넣는 대목이 있었고, 그 동물이 경련하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었다. 이 두 가지가 꿈의 계기인데, 둘 다 그 자체로는 사소한 일이다. 그녀는 또 동물에 대한 잔인함이라는 주제에 마음이 쏠려 있다. 몇 해 전 어느 곳에서 여름을 보낼 때, 딸은 동물에게 몹시 잔인하게 굴었다. 딸은 나비 채집을 시작하면서 나비를 죽이는 데 쓸 비소를 달라고 그녀에게 청했다. 한번은 나방 한 마리가 몸에 바늘이 꽂힌 채 오랫동안 방 안을 날아다닌 일이 있었고, 또 한번은 탈바꿈을 보려고 기르던 나방 몇 마리가 굶어 죽어 있는 것을 그녀가 발견했다. 이 아이는 아주 어렸을 때 딱정벌레와 나비의 날개를 뜯어내는 버릇이 있었는데, 지금이라면 그런 잔인한 짓 앞에서 질겁하며 몸을 움츠릴 것이다. 아주 착한 아이로 자랐기 때문이다.

그녀의 마음은 이 대조에 쏠려 있다. 이 대조는 또 다른 대조, 곧 조지 엘리엇의 『애덤 비드』에 그려진 외모와 성품 사이의 대조를 떠올리게 한다. 그 소설에서는 아름답지만 허영심 많고 아주 어리석은 처녀가, 못생겼지만 마음이 고결한 처녀와 나란히 놓인다. 그 철없는 처녀를 유혹하는 귀족에게는, 스스로 귀족적이라고 느끼고 그에 걸맞게

처신하는 노동자가 맞세워진다. 사람의 겉모습으로는 성격을 알아볼 수 없다. 그녀가 관능적인 욕망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그녀의 겉모습만 보고 누가 알아차릴 수 있겠는가?

어린 딸이 나비 채집을 시작한 바로 그해, 그들이 머물던 지방은 6월 딱정벌레가 들끓어 몹시 시달렸다. 아이들은 벌레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 잔인하게 으깼다. 그 무렵 그녀는 6월 딱정벌레의 날개를 뜯어내고 그것을 먹는 사람을 보았다. 그녀 자신도 6월에 태어났고, 결혼도 6월에 했다. 결혼식을 치르고 사흘 뒤 그녀는 친정에 편지를 써서 자기가 얼마나 행복한지 알렸다. 그러나 그녀는 조금도 행복하지 않았다.

꿈을 꾸기 전날 저녁 그녀는 옛 편지들을 뒤적이다가, 우스운 것과 진지한 것을 가리지 않고 여러 통을 가족에게 읽어 주었다. 처녀 시절 그녀에게 마음을 두었던 피아노 선생이 보낸 몹시 우스꽝스러운 편지도 있었고, 그녀를 숭배하던 한 귀족이 보낸 편지도 있었다.[3]

그녀는 모파상의 나쁜 책 한 권이 딸 가운데 하나의 손에 들어간 것을 두고 자신을 탓한다.[4] 어린 딸이 달라고 하는 비소는 『나바브(Nabab)』에서 모라 공작에게 젊음의 힘을 되찾아 준 비소 환약을 떠올리게 한다.

「자유롭게 풀어 주다」라는 말은 그녀에게 『마술피리』의 한 대목을 떠올리게 한다.

「사랑하라고 그대를 강요할 수는 없으나,」

「그대에게 자유를 주지는 않으리라.」

「6월 딱정벌레」는 케이티의 말을 생각나게 한다.[5]

「나는 당신을 작은 딱정벌레처럼 사랑해요.」

그 사이사이에 『탄호이저』의 말: 「그대는 사악한 정욕에 사로잡혔으니.」

그녀는 집을 떠나 있는 남편 때문에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지낸다. 여행길에 남편에게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낮의 숱한 공상으로 표현된다. 얼마 전 분석을 하다가 그녀는 자기의 무의식적 사고 속에서 남편이 「노쇠」했다고 불평하는 대목과 마주쳤다. 이 꿈이 감추고 있는 소원 사고는, 꿈을 꾸기 며칠 전 그녀가 일을 하던 도중에 남편에게 내뱉은 명령 하나에 스스로 깜짝 놀랐다는 이야기를 하면 아마 가장 잘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명령은 이랬다. 「가서 목이나 매.」 알고 보니 그녀는 그 몇 시간 전에, 사람이 목매달리면 강한 발기가 일어난다는 글을 어디선가 읽었다. 이렇게 섬뜩하게 가려진 형태로 억압에서 풀려난 것은 발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 「가서 목이나 매」는 「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발기 좀 해 봐 」 라는 말이나 마찬가지다. 『나바브』에 나오는 젱킨스 박사의 비소 환약도 이 맥락에 속한다. 가장 강력한 최음제인 칸타리스는 벌레를 으깨어(이른바 스페인파리) 만든다는 것을 환자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꿈 내용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런 뜻을 지닌다.

창문을 여닫는 일은 남편과 늘 다투는 문제다. 그녀는 바람이 잘 통하게 해 놓고 잠자기를 좋아하지만, 남편은 그렇지 않다. 탈진은 요즈음 그녀가 가장 많이 호소하는 병증이다.

방금 인용한 세 꿈 모두에서 나는, 꿈의 요소 하나가 꿈 사고 속에 되풀이해 나타나는 대목의 문구를 글자체를 달리해 강조해 두었다. 그 꿈 요소가 여러 곳과 맺고 있는 관계를 뚜렷이 드러내려는 뜻이었다. 그러나 이 꿈들은 어느 것도 분석이 끝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꿈 내용의 다중 결정을 보여 주려면 분석이 빠짐없이 상세하게 이루어진 꿈을 하나 살펴보는 것이 충분히 보람 있을 것이다. 나는 이 목적으로 이르마의 주사 꿈을 고른다. 이 예에서 우리는 압축 작업이 꿈 형성에 한 가지 수단만 쓰지는 않았다는 것을 힘들이지 않고 알게 될 것이다.

꿈 내용의 중심인물은 내 환자 이르마다. 그녀는 깨어 있는 생활에서 지니는 생김새 그대로 보이고, 그러니 우선은 그녀 자신을 나타낸다. 그러나 내가 창가에서 그녀를 진찰할 때 그녀가 취하는 자세는 다른 사람, 곧 꿈 사고가 보여 주듯 내가 내 환자와 바꾸고 싶어 하는 그 부인의 기억에서 따온 것이다. 이르마는 맏딸에 대한 내 불안을 떠올리게 하는 디프테리아 막을 보이는 한에서 내 딸아이를 대리하게 되고, 이 아이 뒤에는 중독으로 죽은 환자, 이름이 같다는 점으로 이 아이와 이어지는 그 환자가 숨어 있다. 꿈이 더 진행되면서 이르마라는 인물의 의미가 바뀐다(꿈에서 보이는 그녀의 모습은 바뀌지 않은 채로). 그녀는 우리가 아동 질환 공공 진료소에서 진찰하는 아이들 가운데 하나가 되고, 거기서 내 친구들은 저마다 다른 정신적 역량을 드러낸다. 이 옮겨 감은 분명 내 어린 딸이라는 표상을 매개로 이루어졌다. 입을 벌리기 싫어한다는 점 때문에 같은 이르마는 내가 언젠가 진찰했던 다른 부인에 대한 암시로 바뀌고, 그 밖에도 같은 맥락에서 내 아내에 대한 암시로 바뀐다. 게다가 나는 그녀의 목구멍에서 발견하는 병적인 변화들에 다른 수많은 사람에 대한 암시를 모아 놓았다.

「이르마」가 불러일으키는 연상을 따라가며 내가 마주치는 이 모든 사람은 꿈에 몸소 나타나지 않는다. 그들은 「이르마」라는 꿈속 인물 뒤에 숨어 있고, 그래서 이르마는 예상할 수 있듯이 서로 모순되는 특징을 지닌 집합 영상이 된다. 이르마는 압축 작업에서 버려진 이 다른 사람들을 대리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을 세세한 데까지 하나하나 떠올리게 하는 일을 내가 모두 그녀에게 일어나게 하기 때문이다.

나는 꿈의 압축을 위해 또 다른 방식으로 집합 인물을 만들 수도 있다. 두 사람 또는 그 이상의 사람이 실제로 지닌 특징들을 꿈 이미지 하나에 합치면 된다. 내 꿈의 M. 박사는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졌다. 그는 M. 박사라는 이름을 지니고 M. 박사처럼 말하고 행동하지만, 그의 신체적

특징과 그가 앓는 병은 다른 사람, 곧 내 맏형의 것이다. 창백함이라는 특징 하나는 두 사람 모두에게 공통되므로 이중으로 결정되어 있다. 삼촌에 관한 내 꿈의 R. 박사도 비슷한 합성 인물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꿈 이미지가 또 다른 방식으로 마련된다. 나는 한 사람에게 고유한 특징들을 다른 사람의 특징들과 합치고, 그렇게 해서 각자의 기억 이미지에서 몇몇 특징을 덜어 낸 것이 아니라, 골턴이 가족 초상을 만들 때 쓴 방법을 택했다. 골턴은 두 사진을 서로 겹쳐 비추는데, 그러면 공통된 특징은 더 뚜렷하게 도드라지고, 서로 일치하지 않는 특징은 서로를 지워 사진에서 흐려진다. 삼촌 꿈에서는 **금빛 수염**이, 두 사람에게 속하는 까닭에 흐릿해진 얼굴 생김새에서 강조된 특징으로 도드라져 나온다. 게다가 이 수염은 희끗희끗 세어 간다는 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서, 내 아버지와 나 자신에 대한 암시도 담을 수 있다.

집합 인물과 합성 인물을 만드는 일은 꿈 압축 작업의 주된 수단 가운데 하나다. 머지않아 이것을 다른 맥락에서 다룰 기회가 있을 것이다.

주사 꿈에 나오는 「이질〔dysentery〕」이라는 생각도 마찬가지로 다중 결정되어 있다. 한편으로는 디프테리아〔diphtheria〕와 착어(錯語)처럼 소리가 닮았기 때문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동양으로 보낸 환자, 히스테리를 잘못 진단받은 그 환자를 가리키기 때문이다.

꿈에 「프로필류」가 나오는 것도 압축의 흥미로운 예임이 드러난다. 꿈 사고에 들어 있던 것은 「프로필류」가 아니라 「아밀류」였다. 여기서는 꿈 형성 과정에서 단순한 전치가 일어났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실제로 그렇기도 하지만, 다음의 보충 분석이 보여 주듯 이 전치는 압축의 목적에 이바지한다. 「프로필류〔propyls〕」라는 낱말에 잠시 머무르면, 그것이 「프로필라이움〔propylæum〕」이라는 낱말과 소리가 닮았다는 것이 떠오른다. 그런데 프로필라이움은

아테네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뮌헨에도 있다. 뮌헨에서 나는 그 전해에 중병을 앓던 친구를 찾아간 적이 있는데, 프로필류 바로 뒤에 트리메틸아민이 따라 나오니 그 친구를 가리킨다는 것은 틀림없다.

여기서도 꿈 분석의 다른 자리에서와 마찬가지로, 가치가 더없이 다른 연상들이 마치 대등한 것처럼 사고의 연결을 세우는 데 쓰인다는 눈에 띄는 사정은 그냥 넘어가겠다. 그리고 꿈 사고의 아밀류가 프로필류로 대체되는 과정을, 마치 그것이 꿈 내용 속에서 조형적인 것처럼 바라보고 싶은 유혹에 몸을 맡기겠다.

한쪽에는 내 친구 오토에 관한 생각의 사슬이 있다.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틀렸다고 여기며, 아밀류 냄새가 나는 리큐어를 내게 선물하는 친구다. 다른 쪽에는 — 대조로써 첫째 사슬과 이어진 — 내 친구 윌리엄에 관한 생각의 사슬이 있다. 나를 이해하고 언제나 내가 옳다고 여겨 줄 친구, 성적 과정의 화학에 관해 값진 정보를 그토록 많이 일러 준 친구다.

오토를 중심으로 한 연상들 가운데 특히 내 주의를 끌어야 할 특징들은 꿈을 일으킨 최근의 계기들이 결정한다. 아밀류는 이렇게 결정되어 꿈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정해진 요소들에 속한다. 「윌리엄」 연상군은 오토와의 대조로 뚜렷하게 생기를 얻고, 그 가운데서도 「 오토 」 연상들에서 이미 일깨워진 요소들에 대응하는 요소들이 도드라진다. 이 꿈 전체에서 나는 줄곧, 내 기분을 상하게 하는 사람 하나와 내가 마음대로 그 사람에게 맞세울 수 있는 다른 사람 하나를 가리키며, 적에 맞서 친구를 특징 하나하나마다 불러낸다. 그리하여 오토 연상군의 아밀류는 다른 연상군에서 화학에 속하는 기억들을 불러일으키고, 여러 방면에서 뒷받침을 받는 트리메틸아민이 꿈 내용으로 들어간다. 「아밀류」도 바뀌지 않은 채 꿈 내용으로 들어갈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낱말은 「 윌리엄 」 연상군의 영향에

굴복한다. 「윌리엄」 이라는 이름이 아우르는 기억의 온 범위에서, 아밀류에 이중 결정을 제공할 수 있는 요소를 찾아내기 때문이다. 「프로필류」라는 연상은 **아밀류** 가까이에 있고, 「윌리엄」에 속하는 연상 계열에서는 프로필라이움이 있는 뮌헨이 **아밀류**를 마중 나온다. 두 연상군은 **프로필류 — 프로필라이움**에서 하나로 합쳐진다. 마치 타협으로 그렇게 된 것처럼, 이 중간 요소가 꿈 내용으로 들어간다. 여기서는 다중 결정을 허용하는 **공통 중간물**이 만들어졌다. 그러니 다중 결정이 꿈 내용으로 뚫고 들어가는 일을 쉽게 해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아주 분명해진다. 이 중간 형성물을 위해, 실제로 뜻한 것에서 연상 속의 가까운 것으로 주의의 전치가 무심코 일어난 것이다.

이제 주사 꿈을 살펴본 덕분에 우리는 꿈 형성에서 일어나는 압축 과정을 얼마간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다. 꿈 내용에 여러 번 나오는 요소들을 골라내는 것, 새로운 통일체(집합 인물, 합성 영상)를 형성하는 것, 공통 중간물을 만들어 내는 것, 이것들을 우리는 압축 과정의 세부로 알아볼 수 있었다. 압축이 어떤 목적에 이바지하는지, 그리고 어떤 수단으로 이루어지는지는 꿈 형성의 심리 과정 전체를 연구할 때 살펴보겠다. 지금은 꿈 **압축**을 꿈 사고와 꿈 내용 사이의 중요한 관계로 확정해 두는 것으로 만족하자.

꿈의 압축 작업은 낱말과 이름을 대상으로 골랐을 때 가장 손에 잡힐 듯 뚜렷해진다. 꿈은 대체로 낱말을 흔히 사물처럼 다루며, 그래서 낱말은 사물 표상과 똑같이 결합과 전치와 대체를, 따라서 압축까지 겪는다. 이런 꿈이 낳는 결과는 우스꽝스럽고 기괴한 조어(造語)다. 한번은 한 동료가 자기 논문을 한 편 보내왔는데, 내가 보기에 그는 거기서 최근의 어떤 생리학적 발견의 가치를 지나치게 높이 평가하고 과장된 말투로 자기 생각을 펼쳐 놓았다. 그날 밤 나는 분명 이 논문을 가리키는 문장 하나가 나오는 꿈을 꾸었다. 「이건 참으로 norekdal한

문체다.」 이 조어를 푸는 데는 처음에 애를 먹었다. 「colossal」〔엄청난〕, 「pyramidal」〔어마어마한〕 같은 최상급 표현을 본떠 패러디로 만든 말이라는 것은 의심할 나위가 없었지만, 어디서 왔는지 말하기는 쉽지 않았다. 마침내 이 괴물은 입센의 잘 알려진 희곡 두 편에 나오는 두 이름, 노라(Nora)와 에크달(Ekdal)로 갈라졌다. 나는 그 전에 바로 그 저자가 입센에 관해 신문에 쓴 글을 읽은 적이 있었다. 꿈에서 나는 이렇게 그의 최신 작업을 비판하고 있었던 것이다.

II.[6] 내 여성 환자 하나가 이런 꿈을 꾼다. 밝은 빛깔 수염에 눈이 기묘하게 번뜩이는 남자가 나무에 붙은 표지판을 가리키고 있는데, 거기에는 uclamparia — wet이라고 쓰여 있다.

분석. 그 남자는 꽤 권위 있어 보였고, 그의 기묘하게 번뜩이는 눈은 곧바로 로마 근교의 성 바오로 대성당을 떠올리게 했다. 그녀는 거기서 지금까지 재위한 교황들을 모자이크로 보았다. 초기 교황 가운데 한 사람은 금빛 눈을 하고 있었다(이것은 사실 착시였는데, 안내인들은 대개 이 점을 짚어 준다). 연상을 더 따라가 보니, 전체적인 얼굴 생김새는 그녀가 다니는 교회의 성직자(교황)에 해당하고, 밝은 빛깔 수염의 모양은 그녀의 의사(나)를 떠올리게 했으며, 꿈속 남자의 체구는 그녀의 아버지를 떠올리게 했다. 이 사람들은 모두 그녀와 같은 관계에 있다. 모두 그녀의 인생 행로를 이끌고 지도하는 사람들이다. 더 캐물어 보니 금빛 눈은 금 — 돈 — 그녀에게 큰 걱정거리인 꽤 비싼 정신분석 치료를 떠올리게 했다. 게다가 금은 알코올 중독을 고치는 금 요법을 떠올리게 한다 — D. 씨, 역겨운 술버릇에 매달리지만 않았더라면 그녀가 결혼했을 남자 — 그녀는 누가 이따금 한잔하는 것에는 반대하지 않는다. 그녀 자신도 가끔 맥주와 리큐어를 마신다 — 이것이 다시 그녀를, 성 밖의 성 바오로 성당과 그 주변을 찾았던 일로 데려간다. 그녀는 이웃한 세 샘(트레 폰타네) 수도원에서, 그 수도원에 사는

트라피스트회 수사들이 유칼립투스로 빚은 술을 마셨던 것을 기억해 낸다. 이어서 그녀는, 수사들이 그곳에 유칼립투스 나무를 많이 심어서 말라리아가 들끓는 늪 지대를 메마르고 건강에 좋은 고장으로 바꾸어 놓은 이야기를 한다. 그러자 「uclamparia」라는 낱말은 유칼립투스(eucalyptus)와 말라리아(malaria)로 풀리고, 「wet」〔축축한〕이라는 낱말은 그곳이 예전에 늪지였음을 가리킨다. wet은 또 dry〔메마른〕를 떠올리게 한다. 드라이(Dry)는 실제로, 술에 너무 빠지지만 않았더라면 그녀가 결혼했을 그 남자의 이름이다. 드라이라는 특이한 이름은 게르만어에서 온 것이어서(drei = 셋), 앞에서 말한 세(drei) 샘 대수도원을 암시한다. 드라이 씨의 버릇을 이야기하면서 그녀는 「그 사람은 샘 하나라도 다 마셔 버릴 거예요」라는 센 말을 썼다. 드라이 씨는 자기 버릇을 두고 「아시다시피 난 늘 dry〔목마른〕 상태라서 마실 수밖에 없어요」 하고 농담을 한다(자기 이름을 빗댄 말이다). 유칼립투스는 또 그녀의 신경증을 가리키는데, 이 신경증은 처음에 말라리아로 진단되었다. 그녀가 이탈리아에 간 것은, 심한 떨림과 오한이 따르는 불안 발작이 말라리아에서 온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그녀는 수사들에게서 유칼립투스 기름을 조금 샀는데, 그것이 자기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uclamparia — wet이라는 압축은 꿈의 교차점이자 신경증의 교차점이다.[7]

III. 바다 여행이 주된 줄거리인 듯한, 좀 길고 어수선한 내 꿈 하나에서는 다음 선착장의 이름이 Hearsing〔히어싱〕이고, 그다음 선착장의 이름이 Fliess〔플리스〕라는 대목이 나온다. 뒤의 것은 B.에 사는 내 친구의 이름인데, 이 친구는 자주 내 여행의 목적지였다. 그런데 Hearsing은 빈 근교의 지명들과 영어 hearsay〔풍문〕를 짜 맞춘 말이다. 빈 근교에는 ing으로 끝나는 지명이 무척 많다. Hietzing

〔 히칭 〕 , Liesing 〔 리징 〕 , Moedling 〔 뫼들링 〕 (Medelitz 〔메델리츠〕 , 「meæ deliciæ」〔나의 즐거움〕 , 곧 내 이름, 「나의 기쁨」)(기쁨은 독일어로 Freude) 같은 곳이다. hearsay는 중상(中傷)을 가리키며, 사소한 낮의 자극, 곧 『 플리겐데 블레터(Fliegende Blaetter)』에 실린, 남을 헐뜯는 난쟁이 「Saidhe Hashesaid」〔그가 말했대, 그가 그랬대〕에 관한 시와의 관계를 세워 준다. 끝 음절 「ing」을 Fliess라는 이름에 이어 붙이면 「Vlissingen」〔플리싱언〕이 되는데, 이것은 내 형제가 영국에서 우리를 찾아올 때 지나는 뱃길의 실제 항구다. 그런데 Vlissingen의 영어 이름은 Flushing 〔플러싱〕 이고, 이 말은 얼굴 붉힘 〔blushing〕 을 뜻하므로, 내가 치료하는 적면 공포증(얼굴이 붉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떠올리게 하며, 또 이 신경증에 관한 베흐테레프의 최근 발표도 생각나게 한다. 그 발표는 내게 노여운 감정을 불러일으킨 적이 있다.

IV. 또 한번은 두 부분으로 이루어진 꿈을 꾸었다. 첫째 부분은 생생하게 기억에 남은 「Autodidasker」라는 낱말이었고, 둘째 부분은 며칠 전에 지어낸 짧고 무해한 공상과 충실하게 겹쳤다. 그 공상은, 다음에 N. 교수를 만나면 이렇게 말해야겠다는 것이었다. 「지난번에 제가 상태를 여쭈었던 그 환자는 짐작하신 대로 정말 신경증을 앓고 있습니다.」 그러니 「Autodidasker」라는 신조어는 압축된 의미를 담거나 나타내야 한다는 요구를 충족해야 할 뿐 아니라, 그 의미가 깨어 있는 생활에서 넘어와 되풀이되는 내 의도, 곧 N. 교수에게 마땅한 공을 돌리려는 의도와 타당하게 이어져 있어야 한다는 요구도 충족해야 한다.

그런데 Autodidasker는 author 〔 저자 〕 (독일어로는 Autor), autodidact 〔 독학자 〕 , 그리고 Lasker 〔 라스커 〕 로 쉽게 나뉘고, 라스커에는 라살레라는 이름이 이어져 있다. 이 가운데 첫째 낱말은 꿈의 계기로 이어지는데, 이번에는 그 계기가 의미심장하다. 나는 어느

유명한 작가의 책 몇 권을 집에 가져와 아내에게 준 적이 있었다. 그 작가는 내 동생의 친구로, 내가 들어 알기로는 나와 같은 고장 출신이다(J. J. 다비트). 어느 날 저녁 아내는, 다비트의 소설 가운데 한 편에 실린, 재능은 있으나 타락한 사람의 이야기가 자아내는 가슴 저미는 슬픔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내게 이야기했고, 우리의 대화는 우리 아이들에게서 보이는 재능의 징후로 옮겨 갔다. 방금 읽은 것에 영향을 받아 아내는 우리 아이들을 두고 걱정을 털어놓았고, 나는 바로 그런 위험이야말로 교육으로 막을 수 있다는 말로 아내를 달랬다. 밤사이 내 생각의 흐름은 더 나아가 아내의 걱정을 이어받았고, 거기에 온갖 다른 것을 이어 붙였다. 그 시인이 결혼이라는 주제를 두고 내 동생에게 밝힌 의견 하나가, 꿈에서 표현에 이를 수 있을 샛길을 내 생각에 보여 주었다. 이 길은 우리와 무척 가까운 한 부인이 시집을 간 도시, 브레슬라우로 이어졌다. 나는 브레슬라우에서, 여자 손에 파멸하지 않을까 하는 우리의 걱정을 실제로 보여 주는 예로 라스커와 라살레를 찾아냈다. 이 두 예 덕분에 나는 이 해로운 영향이 드러나는 두 가지 모습을 한꺼번에 표현할 수 있었다.[8] 이 생각들을 한마디로 줄이면 「Cherchez la femme」〔여자를 찾아라〕인데, 이 말을 다른 뜻으로 받아들이면 나를 아직 미혼인 동생, 이름이 알렉산더인 동생에게로 데려간다. 이제 보니, 우리가 줄여 부르는 이름 알렉스(Alex)는 라스커(Lasker)를 뒤집은 것과 소리가 거의 같다. 이 요인도 내 생각이 브레슬라우를 거쳐 에둘러 가는 데 한몫했음이 틀림없다.

그런데 내가 여기서 벌이고 있는 이름과 음절의 이 놀이에는 또 다른 의미가 들어 있다. 동생이 행복한 가정생활을 누렸으면 하는 소원이 이 놀이에 다음과 같이 표현되어 있다. 예술가 소설 『작품(L'Œuvre)』에서 작가는, 잘 알려져 있듯이, 자기 자신과 자기 가정의 행복을 곁가지 이야기로 슬쩍 그려 넣었는데, 거기서 그는 Sandoz 〔상도즈〕 라는

이름으로 등장한다. 아마 그는 이름을 바꾸면서 다음과 같은 길을 밟았을 것이다. Zola〔졸라〕를 거꾸로 하면(아이들이 무척 즐겨 하는 일이다) Aloz가 된다. 그러나 그것은 그에게 아직 위장이 너무 허술했다. 그래서 그는 알렉산더(Alexander)라는 이름 첫머리에 있는 음절 Al을 같은 이름의 셋째 음절 sand로 바꾸었고, 그렇게 해서 Sandoz가 생겨났다. 내 autodidasker도 비슷한 방식으로 생겨났다.

내가 N. 교수에게, 우리 둘이 함께 본 그 환자가 신경증을 앓고 있다고 말하는 공상은 다음과 같이 해서 꿈에 들어왔다. 한 해의 진료를 마감하기 얼마 전, 나는 진단이 도무지 서지 않는 환자 하나를 맡았다. 심각한 기질적 질환 — 아마 척추의 어떤 변화 — 을 가정해야 했지만 증명할 수는 없었다. 그 병을 신경증으로 진단하고 싶은 유혹도 컸고, 그랬다면 모든 어려움이 끝났을 것이다. 다만 성적 병력 없이는 신경증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 나로서는, 환자가 그 병력을 그토록 완강하게 부인하는 이상 그럴 수가 없었다. 난처해진 나는, (다른 이들도 그렇듯이) 내가 누구보다 존경하고 그 권위에 가장 온전히 승복하는 의사에게 도움을 청했다. 그는 내 의심을 듣고 나서 그럴 만한 의심이라고 하더니 이렇게 말했다. 「그 사람을 계속 지켜보세요. 아마 신경증일 거예요.」 그가 신경증의 병인에 관한 내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에, 나는 반대 의견을 삼켰지만 미심쩍은 마음을 감추지는 않았다. 며칠 뒤 나는 환자에게, 당신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알리고 다른 의사를 찾아가 보라고 권했다. 그러자 몹시 놀랍게도 그는 거짓말을 해서 죄송하다며 용서를 빌기 시작했다. 너무 부끄러웠다는 것이다. 그러고는 내가 예상했던, 신경증이 있다고 가정하려면 꼭 있어야 한다고 여기던 바로 그 성적 병인을 털어놓았다. 이것은 내게 안도였지만 동시에 굴욕이기도 했다. 병력이 없는데도 흔들리지 않았던 내 자문 의사가 옳게 관찰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기

때문이다. 나는 그를 다시 만나면 이 이야기를 하고, 그가 옳았고 내가 틀렸다고 말하기로 마음먹었다.

꿈에서 내가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그런데 내가 틀렸다고 인정하는 것으로 대체 어떤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인가? 바로 그것이 내 소원이다. 나는 내 염려가 틀린 것이기를 바란다. 다시 말해, 꿈 사고 속에서 내가 그 두려움을 넘겨받은 아내가 틀린 채로 남기를 바란다. 꿈에서 옳고 그름의 문제가 걸려 있는 주제는 꿈 사고가 정말로 관심을 기울이는 것에서 그리 멀지 않다. 그것은 여자로 말미암은, 더 정확히 말하면 성생활로 말미암은 기질적 손상이냐 기능적 손상이냐 — 척수로마비냐 신경증이냐 — 하는 바로 그 양자택일이며, 라살레가 파멸한 방식도 이것과 어느 정도 느슨하게 이어져 있다.

잘 짜인 이 꿈(그래도 주의 깊게 분석하면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꿈)에서 N. 교수가 한 역할을 맡는 것은, 이 유사성과 틀린 채로 남고 싶은 내 소원 때문만도 아니고, 브레슬라우와 그곳으로 시집간 우리 친구의 집안을 가리키는, 연상으로 이어진 암시 때문만도 아니다. 우리가 함께 진료할 때 있었던 다음과 같은 작은 일 때문이기도 하다. 앞에서 말한 제안으로 우리의 의학적 과제를 매듭짓고 나자, 그의 관심은 사적인 일로 향했다. 「지금 자녀가 몇이에요?」 — 「여섯입니다.」 — 경의와 숙고를 담은 몸짓. — 「딸이에요, 아들이에요?」 — 「셋씩입니다. 제 자랑이자 보물입니다. 」 — 「 글쎄요, 딸들은 걱정할 게 없지만, 아들들은 나중에 교육할 때 애를 먹이지요.」 나는 지금까지는 아이들이 아주 순했다고 대답했다. 내 아들들의 앞날에 관한 이 두 번째 진단은, 그가 앞서 내린 진단, 곧 내 환자가 신경증일 뿐이라는 진단만큼이나 물론 달갑지 않았다. 그러니 이 두 인상은 인접성으로, 곧 잇달아 받아들여졌다는 점으로 서로 묶여 있다. 내가 신경증 이야기를 꿈에 끌어들인다면, 나는 그것으로 교육에 관한 대화를 대체한다. 교육에

관한 대화는 나중에 아내가 털어놓은 걱정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므로, 꿈 사고와 훨씬 더 가깝게 이어져 있음이 드러난다. 그리하여 아들들의 교육이 어렵다는 N.의 말이 옳은 것으로 드러날지 모른다는 내 두려움까지도, 그런 염려가 틀렸으면 하는 내 소원의 표현 뒤에 숨음으로써 꿈 내용에 받아들여진다. 같은 공상이 바뀌지 않은 채로, 서로 충돌하는 두 대안을 모두 표현하는 데 쓰인다.

꿈의 낱말 합성은 편집증에서 나타난다고 알려진 낱말 합성과 아주 비슷한데, 그런 합성은 히스테리와 강박 관념에서도 발견된다. 어떤 시기에는 실제로 낱말을 대상처럼 다루고 새로운 언어와 인공적인 구문을 지어내는 아이들의 언어 습관이, 이 경우에 꿈과 정신신경증 모두의 공통된 원천이다.

꿈에 말이 나오고 그것이 한갓 생각과는 뚜렷이 구별된다면, 꿈속의 말은 꿈 재료 속의 기억된 말에서 비롯한다는 것이 변함없는 규칙이다. 그 문구는 온전히 보존되어 있거나, 표현되는 과정에서 조금 바뀌어 있다. 꿈속의 말은 여러 말에 대한 기억을 짜 맞춘 것일 때가 많은데, 이때 문구는 그대로 남고 의미는 두 가지 이상의 뜻을 지니도록 바뀌었을 수도 있다. 꿈속의 말이 그저, 기억된 말이 오갔던 어떤 사건을 암시하는 구실만 하는 일도 드물지 않다.[9]

(나) 전치 작업

꿈 압축의 예를 모으는 동안,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또 다른 종류의 관계가 우리 눈에 띄었을 것이다. 꿈 내용에서 본질적인 구성 요소로 두드러져 나서는 요소들이 꿈 사고에서는 결코 그와 같은 구실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다. 이와 짝을 이루어, 이 명제를 뒤집은 것도 참이다. 꿈 사고에서 분명히 본질적인 것이 꿈에는 전혀 표현되지 않을

수도 있다. 꿈은 말하자면 중심이 어긋나 있다. 꿈의 내용은 꿈 사고와는 다른 요소들을 중심점으로 삼아 그 둘레에 모여 있다. 이를테면 식물학 연구서 꿈에서 꿈 내용의 중심점은 분명 「식물학」이라는 요소다. 그런데 꿈 사고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동료들끼리 베푼 호의가 서로를 빚지게 만드는 데서 생기는 얽힘과 갈등이고, 그다음으로는 내가 취미에 너무 많은 것을 바치곤 한다는 비난이다. 「식물학」이라는 요소는 대립을 통해 꿈 사고의 이 핵심과 느슨하게나마 이어져 있지 않았다면 그 속에 결코 자리를 얻지 못했을 것이다. 식물학은 한 번도 내가 좋아하는 공부에 들지 못했으니 말이다. 내 환자의 사포 꿈에서는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 위층에 있는 것과 아래에 있는 것이 중심점이 되어 있다. 그러나 이 꿈이 다루는 것은 신분이 낮은 사람들과 성관계를 맺는 데 따르는 위험이다. 그러니 꿈 사고의 요소 가운데 오직 하나만, 그것도 걸맞지 않게 부풀려진 채로 꿈 내용에 넘어간 것처럼 보인다. 마찬가지로 성욕과 잔인함의 관계를 주제로 하는 6월 딱정벌레 꿈에서도 잔인함이라는 요소가 다시 나타나기는 하지만, 다른 연관 속에서, 성적인 것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없이 나타난다. 다시 말해 그것은 제 맥락에서 뜯겨 나와 낯선 무언가로 바뀌었다. 또 삼촌 꿈에서는 꿈의 중심점인 듯 보이는 금빛 수염이, 우리가 꿈 사고의 핵심으로 알아낸 위대함을 향한 소원들과 아무런 합리적 연관도 없는 것 같다. 이런 꿈들이 전치된 인상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 이 예들과는 정반대로, 이르마의 주사 꿈은 개별 요소들이 꿈 사고에서 차지하는 것과 똑같은 자리를 꿈 형성에서도 요구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꿈 사고와 꿈 내용 사이의 이 새롭고 전혀 일정하지 않은 관계를 알게 되면 처음에는 놀라움이 앞설 것이다. 정상적인 생활의 심리적 과정에서, 한 표상이 다른 여러 표상 가운데서 골라져 우리 의식 속에서 유난히 생생해진 것을 보면, 우리는 이 결과를 승리한 표상이 유달리 높은 심리적 가치,

곧 어느 정도의 관심을 지니고 있다는 증거로 여기곤 한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꿈 사고 속 개별 요소들의 이 가치가 꿈 형성에서 보존되지 않거나 아예 고려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한다. 꿈 사고의 요소 가운데 어느 것이 가장 가치가 높은지는 의심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의 판단이 곧바로 알려 준다. 그런데 꿈 형성에서는 강렬한 관심으로 강조된 요소들이 마치 하찮은 것처럼 다루어질 수 있고, 꿈 사고에서 분명히 하찮았던 다른 요소들이 그 자리를 차지한다. 처음에는 개별 표상들의 심리적 강도[10]는 꿈의 선택에서 전혀 고려되지 않고, 오직 그 표상들이 얼마나 여러 겹으로 결정되어 있는가만 고려된다는 인상을 받는다. 꿈에 들어가는 것은 꿈 사고에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꿈 사고 속에 여러 번 거듭 들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싶어질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렇게 가정해서는 꿈 형성에 대한 이해가 그리 나아가지 않는다. 다중 결정과 고유한 가치라는 두 요인이 꿈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때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지 않으리라고는 애초에 믿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꿈 사고 속에서 가장 중요한 표상들은 아마 가장 자주 되풀이되는 표상들이기도 할 것이다. 개개의 꿈 사고는 그 표상들을 중심점 삼아 거기서 사방으로 뻗어 나가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꿈은 특히 강조되고 여러 방면에서 뒷받침을 받는 요소들을 물리치고, 뒤의 성질만 지닌 요소들을 자기 내용에 받아들일 수 있다.

이 난점은 꿈 내용의 다중 결정을 조사하면서 받은 또 다른 인상을 살펴보면 풀릴 수 있다. 어쩌면 많은 독자가 이 조사에 대해 벌써 나름의 판단을 내렸을지도 모른다. 꿈 요소들의 다중 결정은 자명한 것이니 대단한 발견이 아니라고 말이다. 분석에서는 꿈 요소에서 출발해 그것과 이어진 생각을 모두 적어 나가니, 이렇게 얻은 사고 재료 속에 바로 그 요소들이 유난히 자주 나타나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나는 이 반론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수 없지만, 나 자신도 그와 비슷하게

들리는 말을 하려 한다. 분석이 밝혀내는 사고 가운데에는 꿈의 중심 생각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어떤 뚜렷한 목적을 위해 인위적으로 끼워 넣은 것처럼 나머지와 구별되어 보이는 것이 많다. 그 목적은 쉽게 알아낼 수 있다. 꿈 내용과 꿈 사고 사이에 연결을, 그것도 흔히 억지스럽고 무리한 연결을 만들어 내는 것이 바로 이런 사고들이다. 이 요소들을 솎아 낸다면 꿈 내용에는 중층 결정은커녕 꿈 사고에 의한 충분한 결정조차 없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꿈의 선택을 결정하는 다중 결정이 꿈 형성에서 늘 일차적인 요인은 아닐지도 모르며, 오히려 우리가 아직 모르는 어떤 심리적 힘이 이차적으로 드러난 것일 때가 많다는 결론에 이른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다중 결정은 역시 개별 요소가 꿈에 들어가는 것을 좌우하고 있음이 틀림없다. 그것이 꿈 재료에서 저절로 생겨나지 않는 경우에는 상당한 수고를 들여 만들어 낸다는 것을 관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가정에 바짝 다가서 있다. 꿈 작업에서는 어떤 심리적 힘이 드러나는데, 이 힘은 한편으로 심리적 가치가 높은 요소들에서 강도를 벗겨 내고, 다른 한편으로는 가치가 적은 요소들에서 **중층 결정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내며, 이렇게 생긴 새 가치가 뒤이어 꿈 내용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일이 이렇게 진행된다면, 꿈 형성에서는 개별 요소들의 심리적 강도의 전이와 전치가 일어난 것이며, 꿈과 사고 내용의 문면이 서로 다른 것은 그 결과다. 여기서 우리가 가정하는 과정은 다름 아닌 꿈 작업의 본질적인 부분이며, **꿈 전치**라는 이름을 붙일 만하다. **꿈 전치**와 **꿈 압축**은 꿈의 형태를 빚어낸 공을 주로 돌려야 할 두 장인이다.

꿈 전치라는 사태에서 드러나는 심리적 힘을 알아보는 일도 어렵지 않으리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 전치의 결과, 꿈 내용은 꿈 사고의 핵심과 더는 조금도 닮지 않게 되고, 꿈은 무의식 속에 있는 꿈 소원을 왜곡된

형태로만 재현하게 된다. 그런데 꿈 왜곡이라면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우리는 그것을, 정신생활에서 한 심리적 심급이 다른 심급에 가하는 검열로 거슬러 올라가 설명했다. 꿈 전치는 이 왜곡을 이루어 내는 주요 수단 가운데 하나다. Is fecit, cui profuit.〔그것으로 이득을 본 자가 그 일을 한 자다.〕 꿈 전치는 이 검열, 곧 내심리적 반발의 영향으로 일어난다고 가정해도 좋다.[11]

꿈 형성에서 전치와 압축과 중층 결정이라는 요인들이 어떻게 서로 맞물려 작용하는지, 어느 것이 주도하는 요인이고 어느 것이 딸린 요인인지, 이 모든 것은 뒤에 연구할 주제로 남겨 두겠다. 지금으로서는, 요소들이 꿈에 들어가기 위해 충족해야 할 둘째 조건으로 그것들이 저항의 검열에서 벗어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 둘 수 있다. 이제부터 우리는 꿈을 해석할 때 꿈 전치를 의심할 수 없는 사실로 셈에 넣을 것이다.

(다) 꿈의 표현 수단

잠재적 꿈 재료가 외현 내용으로 바뀔 때 작용하는 것으로 확인한 꿈 압축과 꿈 전치라는 두 요인 말고도, 우리는 이 연구를 해 나가는 동안 꿈에 들어가는 재료의 선택에 의심할 여지 없이 영향을 미치는 다른 두 조건을 만나게 될 것이다. 걸음을 멈추는 것처럼 보일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나는 꿈의 해석이 어떤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는지 잠깐 살펴보고 싶다. 그 과정을 가장 분명히 밝히고, 공격을 막아 낼 만큼 믿을 만하다는 것을 가장 잘 보여 주는 길은, 2장의 「이르마의 주사」 꿈에서 내가 한 것처럼 꿈 하나를 본보기로 삼아 그 해석을 펼쳐 보인 다음, 찾아낸 꿈 사고들을 한데 모아 거기서 꿈의 형성을 다시 짜 보는 것, 다시 말해 꿈의 분석을 꿈의 종합으로 보완하는 것이리라. 나는 이

점을 부정하지 않는다. 나는 내 공부를 위해 여러 견본으로 이 일을 해 보았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런 논증에 필요한 심리적 재료와 관련된 고려들, 올바른 생각을 지닌 사람이라면 누구나 수긍할 고려들이 가로막기 때문이다. 꿈을 분석할 때는 이런 고려가 덜 걸림돌이 된다. 분석은 불완전해도 되고, 꿈의 사고 미로 속으로 조금밖에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그 가치를 잃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종합은 완전하지 않고서는 설득력을 지닐 수 없다고 나는 본다. 완전한 종합은 독자 대중이 모르는 사람들의 꿈으로만 내놓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단을 내게 주는 것은 신경증 환자들뿐이므로, 꿈을 서술하는 이 부분은 내가 신경증에 대한 심리학적 설명을 — 다른 곳에서 — 충분히 밀고 나가, 지금 다루는 주제와의 연관을 보여 줄 수 있게 될 때까지 미루어 둘 수밖에 없다.[12]

꿈 사고에서 출발해 꿈을 종합적으로 짜 보려고 시도해 본 결과, 나는 해석에서 얻는 재료의 가치가 제각각이라는 것을 안다. 그 한 부분은 본질적인 꿈 사고로 이루어진다. 그러니 이것들은 꿈을 완전히 대신할 것이며, 꿈에 대한 검열이 없다면 그것만으로도 꿈을 대신하기에 충분할 것이다. 다른 부분은 「곁가지」(collaterals)라는 말로 묶을 수 있다. 전체로 보면 이것들은 꿈 사고에서 생겨나는 진짜 소원이 꿈 소원으로 바뀌는 수단을 이룬다. 이 「곁가지」의 첫째 부분은 실제 꿈 사고에 대한 암시들로 이루어지는데, 이 암시들은 도식적으로 보면 본질적인 것을 비본질적인 것으로 옮겨 놓는 전치에 해당한다. 둘째 부분은 전치를 통해 의미를 얻게 된 이 비본질적인 요소들을 서로 이어 주고, 그것들에서 꿈 내용 속으로 뻗어 들어가는 사고들을 아우른다. 끝으로 셋째 부분에는 (해석 작업에서) 우리를 꿈 내용에서 중간의 곁가지들로 이끌어 가는 떠오른 생각과 사고의 연결이 들어 있는데, 이것들이 모두 꿈 형성에 반드시 참여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우리의 관심은 오로지 본질적인 꿈 사고에 있다. 이것들은 대개 더없이 얽히고설킨 구조를 지닌 사고와 기억의 복합체이며, 우리가 깨어 있는 생활에서 아는 사고 과정의 성질을 모두 지니고 있다. 드물지 않게 이것들은 하나 이상의 중심에서 출발하면서도 서로 이어지는 지점이 없지 않은 생각의 흐름들이다. 거의 예외 없이 사고의 사슬 하나에는 그와 모순되는 짝이 나란히 붙어 있고, 둘은 대조 연상으로 이어져 있다.

이 복잡한 구조물의 개별 부분들은 당연히 서로 더없이 다양한 논리적 관계를 맺고 있다. 그것들은 전경이나 배경을 이루고, 곁길로 샌 이야기, 예시, 조건, 논증의 사슬, 반론을 이룬다. 이 꿈 사고의 덩어리 전체가 꿈 작업의 압력을 받으면, 그동안 부분들은 떠다니는 얼음덩이처럼 이리저리 뒤집히고 부서지고 한데 밀려 붙는다. 그러면 이런 물음이 생긴다. 지금까지 이 구조물에 형태를 주던 논리적 결속은 어떻게 되는가? 「만약 ~라면」(if), 「~ 때문에」(because), 「마치 ~처럼」(as though), 「비록 ~지만」(although), 「이것 아니면 저것」(either — or), 그리고 그것 없이는 구절도 문장도 이해할 수 없는 그 밖의 모든 접속사는 꿈에서 어떤 표현을 얻는가?

우선은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다. 꿈에는 꿈 사고 사이의 이런 논리적 관계를 표현할 수단이 없다. 대개 꿈은 이런 접속사를 모두 무시하고 꿈 사고의 객관적 내용만을 가공한다. 꿈 작업이 파괴한 연관을 되살려 내는 일은 꿈의 해석에 맡겨진다.

꿈에 이런 관계를 표현할 능력이 없다면, 그 책임은 꿈을 빚어내는 심리적 재료에 있을 것이다. 조형 예술도 똑같은 제한을 받는다. 말을 부릴 수 있는 시에 견주면 회화와 조각이 그렇다. 여기서도 이 무력함의 까닭은 두 예술이 무언가를 표현하려고 애쓰며 다루는 재료에 있다. 회화는 자기를 묶고 있는 표현의 법칙을 깨닫기 전에는 이 불리함에서

벗어나려고 애썼다. 옛 그림에서는 그려진 인물들의 입에 작은 쪽지를 매달아 그 인물이 하는 말을 적어 넣었다. 화가가 그림으로 표현하기를 단념한 말이었다.

여기서 아마, 꿈이 논리적 관계의 표현을 포기한다는 주장에 맞서 반론이 나올 것이다. 깨어 있을 때의 생각에서처럼 더없이 복잡한 지적 조작이 벌어지고, 증명과 반박이 오가고, 말장난과 비교가 이루어지는 꿈들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도 겉모습은 속인다. 그런 꿈을 계속 해석해 보면, 이 모든 것이 **꿈 재료이지 꿈속에서 벌어지는 지적 활동의 표현이 아님**을 알게 된다. 꿈의 겉보기 사고가 재현하는 것은 꿈 사고의 내용이지 **꿈 사고들 서로의 관계**가 아니며, 사고란 바로 그 관계를 규정하는 데 있다. 그 예를 들어 보이겠다. 그러나 가장 쉽게 입증할 수 있는 명제는 이것이다. 꿈에 나오는 말 가운데 분명히 말로 표시된 것은 모두, 꿈 재료의 기억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찾아볼 수 있는 말을 바꾸지 않은 채로, 또는 조금만 고쳐서 베낀 것이다. 흔히 그 말은 꿈 사고 속에 담긴 어떤 사건을 암시하는 데 그치고, 꿈의 뜻은 전혀 다른 데 있다.

물론 나는 꿈 사고의 재료를 되풀이하기만 하지 않고 꿈의 형성에 참여하는 비판적 사고 활동도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겠다. 이 요인의 영향은 이 논의를 마무리할 때 설명해야 할 것이다. 그때 가면 분명해지겠지만, 이 사고 활동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꿈 사고가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이미 완성된 꿈 자체다.

그러므로 꿈 사고 사이의 논리적 관계는 꿈에서 따로 표현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당분간 확정된 것으로 보겠다. 이를테면 꿈에 모순이 있다면, 그것은 꿈 자체를 향한 모순이거나 꿈 사고 가운데 하나의 내용에서 온 모순이다. 꿈속의 모순이 꿈 사고들 사이의 모순에 대응하는 것은 아주 간접적으로만 그렇다.

그러나 회화가 마침내 매달린 쪽지가 아닌 다른 수단으로, 그려진 인물들에게서 적어도 말하려는 의도만큼은 — 다정함, 위협하는 태도, 경고하는 표정 따위를 — 그려 내는 데 성공했듯이, 꿈도 꿈 특유의 표현 방식을 알맞게 바꾸어 꿈 사고 사이의 논리적 관계 몇 가지를 반영할 길을 찾아냈다. 경험해 보면 꿈마다 이것을 고려하는 정도가 다르다. 어떤 꿈은 자기 재료의 논리적 연관을 완전히 무시하는가 하면, 어떤 꿈은 그것을 되도록 빠짐없이 나타내려 한다. 그렇게 하면서 꿈은 자기가 가공해야 할 소재에서 많든 적든 멀어진다. 꿈은 꿈 사고의 시간적 연관에 대해서도, 그런 연관이 무의식 속에 세워져 있는 경우라면(이를테면 이르마의 주사 꿈에서처럼), 마찬가지로 저마다 다른 태도를 취한다.

그렇다면 꿈 작업은 어떤 수단으로, 꿈 재료 속의 그토록 표현하기 어려운 이 관계들을 나타낼 수 있게 되는가? 그 수단들을 하나씩 늘어놓아 보겠다.

첫째로, 꿈은 꿈 사고의 모든 부분 사이에 부인할 수 없이 있는 연관을, 이 재료를 하나의 상황이나 사건으로 한데 묶어 하나의 구도 속에 담아냄으로써 반영한다. 꿈은 **논리적 연관을 동시성의 형태로** 재현한다. 이 점에서 꿈은 철학자들이나 시인들을 모두 한데 모아 아테네 학당이나 파르나소스를 그리는 화가와 얼마간 비슷하게 행동한다. 그들은 한 번도 어떤 홀에도, 어떤 산꼭대기에도 한꺼번에 모인 적이 없지만, 반성적으로 관조해 보면 하나의 통일체를 이룬다.

꿈은 이 표현 방식을 세부에까지 밀고 나간다. 꿈이 두 요소를 가까이 붙여 보여 줄 때면 언제나, 꿈 사고 속에서 그 둘에 대응하는 요소들 사이에 특히 긴밀한 연관이 있음을 보증한다. 우리가 글을 적는 방식과 같다. to는 두 글자를 한 음절로 발음해야 한다는 뜻이고, t 뒤에 빈칸을 두고 o가 오면 t는 한 낱말의 마지막 글자이고 o는 다른 낱말의 첫

글자임을 보여 준다. 이에 따르면 꿈의 결합은 꿈 재료 가운데 아무렇게나 고른, 서로 전혀 어울리지 않는 요소들로 이루어지지 않고, 꿈 사고 속에서도 서로 꽤 긴밀한 관계에 있는 요소들로 이루어진다.

인과 관계를 표현하는 데 꿈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둘은 본질적으로 하나로 환원된다. 더 흔한 방법은, 이를테면 꿈 사고가 「이것이 이러저러했기 때문에 이런저런 일이 일어나야 한다」는 식일 때, 전제를 서두의 꿈으로 삼고 결론을 본꿈의 형태로 거기에 잇는 것이다. 내 해석이 옳다면 순서가 거꾸로 될 수도 있다. 언제나 더 충실하게 다듬어진 꿈 부분이 결론에 해당한다.

한 여성 환자가 한번은 이런 인과 관계 표현의 깔끔한 예를 내게 보여 주었다. 그녀의 꿈은 나중에 전부 소개하겠다. 그 꿈은 짧은 서막과, 아주 공들였으면서도 잘 짜인 꿈의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이 뒷부분에는 「말의 꽃」〔a flower of speech. 꾸민 말, 곧 비유적 표현〕이라는 제목을 붙일 수 있을 것이다. 꿈의 서막은 다음과 같다. 그녀는 부엌에 있는 두 하녀에게 가서, 「먹을 것 조금」을 장만하는 데 왜 그렇게 오래 걸리느냐고 나무란다. 그녀는 또 부엌에 투박한 그릇이 아주 많이 놓여 있는 것을 보는데, 그릇들은 물이 떨어지도록 엎어진 채 한 무더기로 쌓여 있다. 두 하녀는 물을 길으러 가는데, 말하자면 집까지, 또는 마당 안까지 차오른 강물 속으로 들어서야 한다.

이어서 본꿈이 나오는데, 그 시작은 다음과 같다. 그녀는 높은 곳에서, 기묘하게 만들어진 난간들을 넘어 내려오고 있는데, 옷이 어디에도 걸리지 않는 것이 기쁘다, 운운. 그런데 서두의 꿈은 이 부인의 부모의 집을 가리킨다. 부엌에서 오가는 그 말은 아마 그녀가 어머니에게서 자주 들었던 말일 것이다. 설거지하지 않은 그릇 더미는 같은 집에 있던 수수한 질그릇 가게에서 따온 것이다. 이 꿈의 둘째 부분에는 꿈꾼 사람의 아버지에 대한 암시가 들어 있다. 아버지는 늘 하녀들과 얽힌 일이 많았고, 나중에

홍수가 났을 때 치명적인 병에 걸렸다 — 그 집은 강가 가까이에 서 있었다. 그러니 서두의 꿈 뒤에 숨은 생각은 이런 것이다. 「내가 이 집에서, 이렇게 옹색하고 볼품없는 형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본꿈은 같은 생각을 이어받되, 소원 성취의 경향에 따라 바뀐 형태로 내놓는다. 「나는 고귀한 태생이다.」 그러니 제대로 말하면 이렇다. 「내가 이렇게 낮은 형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내 삶의 행로는 이러저러했다.」

내가 보기에, 꿈이 크기가 다른 두 부분으로 나뉜다고 해서 늘 두 부분의 사고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다는 뜻은 아니다. 두 꿈에서 같은 재료가 서로 다른 관점에서 제시되는 듯이 보일 때가 많다. 또는 두 꿈이 꿈 재료 속의 서로 떨어진 두 중심에서 나와 내용이 겹치는 듯이, 그래서 한 꿈에서 중심인 대상이 다른 꿈에서는 암시로 쓰이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인 듯이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얼마간의 경우에는 짧은 앞 꿈과 긴 뒤 꿈으로 나뉘는 것이 실제로 두 부분 사이의 인과 관계를 뜻한다. 인과 관계를 표현하는 다른 방법은 재료가 덜 풍부할 때 쓰이는데, 꿈속의 한 이미지가, 사람이든 사물이든, 다른 이미지로 바뀌는 것이다. 인과 관계가 있다고 주장되는 것은 꿈속에서 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지켜보는 경우뿐이며, 한 사물이 다른 사물의 자리를 차지했다는 것을 그저 알아차리기만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나는 인과 관계를 표현하는 두 방법이 결국 같은 것으로 환원된다고 말했다. 두 경우 모두 인과는 잇따름으로 표현된다. 한 번은 꿈들의 순서로, 한 번은 한 이미지가 곧바로 다른 이미지로 바뀌는 것으로. 물론 대다수의 경우에 인과 관계는 전혀 표현되지 않고, 꿈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요소들의 순서 속에 지워져 버린다.

꿈은 양자택일, 곧 「이것 아니면 저것」을 도무지 표현하지 못한다. 꿈은 이 양자택일의 두 항을 마치 똑같은 권리를 지닌 것처럼 한 맥락 속에 받아들이곤 한다. 그 고전적인 예가 이르마의 주사 꿈에 들어 있다.

그 꿈의 잠재적 사고는 분명 이런 뜻이다. 이르마의 통증이 가시지 않는 데 대해 나는 결백하다. 탓은 해결책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그녀의 저항에 있거나, 아니면 내가 바꿀 수 없는 불리한 성적 조건에서 그녀가 살고 있다는 사실에 있다. 아니면 그녀의 통증은 아예 히스테리성이 아니라 기질적인 것이다. 그런데 꿈은 거의 서로를 배제하는 이 가능성들을 모두 이루어 주고, 꿈 소원에서 이런 종류의 넷째 해결책을 덧붙여 끌어내는 데도 서슴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꿈을 해석한 뒤에 꿈 사고의 연쇄 속에 이것 아니면 저것을 끼워 넣었다.

꿈꾼 사람이 꿈을 이야기하면서 이것 아니면 저것을 쓸 계기를 찾는 경우, 이를테면 「그것은 정원 아니면 거실이었다」 운운할 때, 꿈 사고 속에 있는 것은 실은 양자택일이 아니라 「그리고」, 곧 단순한 덧붙임이다. 우리가 이것 아니면 저것을 쓸 때는 대개 꿈 요소의 불분명함, 그러나 아직 풀어 밝힐 수 있는 불분명함이라는 특징을 묘사한다. 이 경우의 해석 규칙은 이렇다. 양자택일의 각 항은 대등하게 다루어 「그리고」로 이어야 한다. 이를테면 이탈리아에 사는 친구의 주소를 오랫동안 헛되이 기다린 끝에, 나는 이 주소를 알려 주는 전보를 받는 꿈을 꾼다. 전보 용지의 띠 위에 파랗게 인쇄된 다음 글자가 보이는데, 첫 낱말은 흐릿하다.

어쩌면 via〔길〕,

아니면 villa〔별장〕, 둘째 낱말은 분명하게 Sezerno, 아니면 어쩌면 (Casa〔집〕).

이탈리아 이름처럼 들리고 우리가 나누던 어원 이야기를 떠올리게 하는 둘째 낱말은, 친구가 자기 사는 곳을 그토록 오랫동안 내게 비밀〔secret〕로 해 왔다는 데 대한 내 불쾌감도 표현한다. 첫 낱말에 대한 세 가지 제안은 하나하나가 분석 과정에서, 저마다 자족적이고 똑같이 정당한 관념 연쇄의 출발점으로 드러난다.

아버지 장례식 전날 밤, 나는 인쇄된 게시문이 나오는 꿈을 꾸었다. 카드 아니면 포스터였는데, 기차역 대합실에 붙어 흡연 금지를 알리는 안내문 같은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거기에는 다음 둘 가운데 하나가 적혀 있었다.

두 눈을 감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한쪽 눈을 감아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것을 흔히 다음과 같은 꼴로 적어 보인다.

두
　　눈을 감아 주시기 바랍니다.
한쪽

두 문구는 저마다 고유한 뜻이 있어서, 꿈을 해석할 때 우리를 저마다 다른 길로 이끈다. 나는 장례를 더없이 간소하게 준비했다. 고인이 이런 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가족들은 이런 청교도적인 간소함을 탐탁지 않아 했다. 조문객들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라고 여겼던 것이다. 그래서 꿈의 문구 가운데 하나는 「한쪽 눈을 감아 주기」를, 곧 사람들이 너그럽게 봐주기를 청한다. 우리가 이것 아니면 저것으로 묘사하는 흐릿함의 의미를 여기서는 특히 쉽게 알아볼 수 있다. 꿈 작업은 꿈 사고를 위해, 하나로 통일되어 있으면서도 동시에 두 가지 뜻을 지닌 문구를 짜 내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 그래서 두 갈래의 주된 생각의 흐름은 꿈 내용에서부터 벌써 갈라져 있다.

몇몇 경우에는 꿈이 크기가 같은 두 부분으로 나뉘는 것 자체가, 꿈으로서는 그토록 표현하기 어려운 양자택일을 나타낸다.

대립과 모순이라는 범주에 대한 꿈의 태도는 무척 눈에 띈다. 이 범주는 거리낌 없이 무시된다. 꿈에는 「아니」라는 말이 없는 것 같다. 대립은 유난히 즐겨 하나로 합쳐지거나 하나로 표현된다. 꿈은 또 어떤

요소든 소원대로 그 반대의 것으로 나타내는 자유를 누린다. 그래서 반대를 가질 수 있는 요소라면 무엇이든, 꿈 사고 속에서 그것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할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할지 처음에는 도무지 알 수 없다.[13] 앞서 말한 꿈 가운데 하나, 그 서두 부분을 이미 해석한 꿈(「내 집안이 이러하기 때문에」)에서 꿈꾼 사람은 난간을 넘어 내려오며 손에 꽃 핀 가지를 들고 있다. 이 영상은 그녀에게 수태고지(그녀 자신의 이름이 마리아다) 그림 속에서 손에 백합 줄기를 든 천사와, 거리를 푸른 나뭇가지로 꾸미는 성체 축일에 행렬을 지어 걸어가는 흰옷 입은 소녀들을 떠올리게 한다. 그러니 꿈속의 꽃 핀 가지는 틀림없이 성적 순결에 대한 암시다. 그런데 그 가지에는 붉은 꽃이 빽빽이 달려 있고, 꽃송이 하나하나가 동백꽃을 닮았다. 꿈은 이렇게 이어진다. 걸음이 끝날 무렵이면 꽃들은 벌써 꽤 많이 떨어져 흩어져 있다. 그다음에는 월경을 가리키는 틀림없는 암시들이 뒤따른다. 그런데 백합처럼, 그것도 마치 순결한 소녀가 들고 가듯 들려 있는 바로 이 가지는 카미유 〔『동백꽃 여인(춘희)』의 주인공〕에 대한 암시이기도 하다. 알다시피 카미유는 늘 흰 동백꽃을 달았지만 월경 때에는 붉은 동백꽃을 달았다. 같은 꽃 핀 가지가(괴테가 방앗간 처녀를 두고 지은 노래들에 나오는 「처녀의 꽃」) 성적 순결과 그 반대를 한꺼번에 나타낸다. 꿈꾼 사람이 더럽혀지지 않은 채 삶을 헤쳐 왔다는 기쁨을 표현하는 이 꿈은 또한 여러 군데에서(이를테면 꽃이 떨어지는 대목에서) 그 반대되는 생각의 흐름을 내비친다. 곧 그녀가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성적 순결을 거스르는 여러 가지 죄를 지었다는 생각이다. 꿈을 분석하면 두 생각의 흐름을 뚜렷이 가를 수 있는데, 위안을 주는 흐름은 표면에 있는 것 같고, 자책하는 흐름은 더 깊은 곳에 있는 것 같다. 둘은 정반대로 맞서 있으며, 서로 비슷하면서도 대조되는 그 요소들이 똑같은 꿈 요소로 표현되었다.

꿈 형성의 기제가 더없이 유리하게 작용하는 논리적 관계는 단 하나뿐이다. 유사, 대응, 인접, 「마치 ~처럼」의 관계다. 이 관계는 다른 어떤 관계와도 달리 더없이 다양한 방편으로 꿈에서 표현될 수 있다. 꿈에 나타나는 대응, 곧 「마치 ~처럼」의 경우들은 꿈 형성의 주요 거점이며, 꿈 작업의 적지 않은 부분은, 이미 있는 대응이 저항의 검열에 막혀 꿈에 들어가지 못할 때 이런 종류의 새로운 대응을 만들어 내는 데 있다. 꿈 작업의 압축 경향은 유사 관계를 표현하는 데 한몫한다.

꿈은 **유사**, **일치**, **공통성**을 대개 하나의 **통일체**로 한데 모아 표현한다. 이 통일체는 꿈 재료 속에 이미 있거나 새로 만들어진다. 앞의 경우는 **동일시**, 뒤의 경우는 **합성**이라고 부를 수 있다. 동일시는 꿈이 사람을 다룰 때 쓰이고, 합성은 사물이 하나로 합쳐지는 대상일 때 쓰인다. 그러나 사람으로도 합성이 만들어진다. 장소는 흔히 사람처럼 다루어진다.

동일시란, 어떤 공통점으로 이어진 여러 사람 가운데 한 사람만 꿈 내용에 표현하고, 둘째 사람이나 나머지 사람들은 꿈에 관한 한 억눌린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다. 꿈속의 이 대표 인물 하나가, 자기 자신에게 속하거나 자기가 덮어 가리는 사람들에게 속하는 온갖 관계와 상황 속에 들어간다. 그러나 합성의 경우, 그것이 사람에 관한 것이라면, 꿈 이미지 속에 이미 해당 인물들 각자에게 특징적이되 그들에게 공통되지는 않은 특징들이 들어 있어서, 이 특징들이 합쳐진 결과 새로운 통일체, 곧 합성 인물이 나타난다. 합성 자체는 여러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꿈속 인물이 그것이 가리키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의 이름을 지니고 있으면서 — 그러면 우리는 깨어 있을 때 아는 것과 아주 비슷한 방식으로, 이러저러한 사람을 두고 하는 말임을 안다 — 시각적 특징은 다른 사람의 것일 수도 있고, 꿈 이미지 자체가 실제로는 두 사람이

나누어 지닌 시각적 특징들로 짜여 있을 수도 있다. 시각적 특징 대신, 둘째 사람의 몫은 흔히 그의 것으로 여겨지는 버릇이나 그가 흔히 하는 말, 또는 그가 흔히 놓이는 것으로 상상되는 상황으로 표현될 수도 있다. 이 뒤의 특징짓기 방식에 이르면 인물의 동일시와 합성 사이의 뚜렷한 구별이 흐려지기 시작한다. 그러나 이런 혼합 인물을 형성하는 데 실패하는 일도 있다. 그러면 꿈의 상황은 한 사람에게 돌려지고, 다른 사람은 — 대개는 더 중요한 사람이 —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무심한 구경꾼으로 끼어든다. 꿈꾼 사람은 「어머니도 거기 계셨어요」 같은 식으로 이야기한다(슈테켈).

두 사람의 결합을 정당화하는, 다시 말해 결합의 계기가 되는 공통점은 꿈에 표현될 수도 있고 빠져 있을 수도 있다. 대개 인물의 동일시나 합성은 바로 이 공통점을 표현하지 않아도 되게 하는 데 쓰일 뿐이다. 「A는 내게 적의를 품고 있고, B도 그렇다」라고 되풀이하는 대신, 나는 꿈에서 A와 B로 합성 인물을 하나 만들거나, 평소 B를 특징짓는 낯선 행동을 A가 하는 것으로 그린다. 이렇게 얻은 꿈속 인물은 꿈에서 어떤 새로운 연관 속에 나타나고, 그것이 A와 B를 모두 뜻한다는 사실 덕분에 나는 두 사람에게 공통된 것, 곧 나에 대한 그들의 적의를 꿈 해석의 알맞은 자리에 끼워 넣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나는 흔히 꿈 내용을 아주 놀라운 정도로 압축해 낸다. 어떤 사람에게 속하는 무척 복잡한 관계들을 직접 표현하는 수고는, 그 관계들의 일부에 똑같은 권리를 지닌 둘째 사람을 찾아낼 수만 있다면 덜 수 있다. 동일시를 써서 이렇게 표현하면, 꿈 작업을 그토록 가혹한 조건에 따르게 하는 저항하는 검열을 얼마나 잘 피해 갈 수 있는지도 분명하다. 검열에 거슬리는 것은 꿈 재료 속에서 그 한 사람과 이어진 바로 그 표상들에 있을 수 있다. 그러면 나는 그 못마땅한 재료와 마찬가지로 관계가 있되 그 일부하고만 관계가 있는 둘째 사람을 찾아낸다. 검열에

거슬리는 그 한 점에서 두 사람이 맞닿아 있다는 것이 이제 합성 인물을 만들 근거가 되었고, 이 합성 인물은 양쪽 모두에서 사소한 특징들로 특징지어진다. 합성이나 동일시로 생겨나 검열이 문제 삼지 않는 이 인물은 이제 꿈 내용에 받아들여지기에 알맞으며, 나는 꿈 압축을 적용함으로써 꿈 검열의 요구를 충족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이 표현되어 있는 꿈에서는 그것이 대개, 숨어 있는 또 다른 공통점을 찾아보라는 신호다. 그 공통점은 검열 때문에 표현될 수 없다. 여기서 공통점의 전치가 일어난 것은 부분적으로는 표현을 쉽게 하기 위해서다. 합성 인물이 사소한 공통점을 지닌 채 내게 나타난다는 사정에서, 나는 꿈 사고 속에 결코 사소하지 않은 또 다른 공통점이 있다고 추론해야 한다.

지금까지 말한 바에 따르면, 인물의 동일시나 합성은 꿈에서 여러 목적에 쓰인다. 첫째로 두 사람에게 공통된 특징을 표현하는 데, 둘째로 전치된 공통점을 표현하는 데, 셋째로는 그저 바라기만 하는 특징의 공통성을 나타내는 데까지 쓰인다. 두 사람 사이에 공통성이 있었으면 하는 소원은 흔히 두 사람을 맞바꾸는 것과 겹치므로, 꿈에서는 이 관계도 동일시로 표현된다. 이르마의 주사 꿈에서 나는 이 환자를 다른 사람과 바꾸고 싶어 한다. 다시 말해 앞의 사람이 그랬듯이 뒤의 사람도 내 환자가 되었으면 한다. 꿈은 이르마라고 불리지만 내가 그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만 볼 기회가 있었던 자세로 진찰받는 한 인물을 내게 보여 줌으로써 이 소원을 반영한다. 삼촌 꿈에서는 이 바꿔치기가 꿈의 중심이 된다. 나는 장관이 하듯이 내 동료를 야박하게 판단하고 푸대접함으로써 나 자신을 장관과 동일시한다.

내 경험으로는 — 그리고 나는 여기서 예외를 하나도 찾지 못했다 — 모든 꿈은 자기 자신을 다룬다. 꿈은 철저히 이기적이다. 꿈 내용에 나의 자아가 아니라 낯선 사람만 나오는 경우라면, 나의 자아가 동일시를

통해 그 사람 뒤에 숨어 있다고 안심하고 가정해도 된다. 나는 나의 자아를 보충해 넣어도 된다. 다른 때 나의 자아가 꿈에 나타나면, 그 자아가 놓인 상황을 보고 나는 다른 사람이 그 자아 뒤에 숨어 있음을 알게 된다. 이 경우 꿈은, 해석할 때 이 사람과 이어진 무언가를, 곧 숨은 공통점을 나 자신에게로 옮겨 와야 한다는 것을 내게 알려 주려 한다. 나의 자아가 다른 인물들과 함께 나오는데, 동일시를 풀어 보면 그 인물들이 다시 나의 자아로 드러나는 꿈도 있다. 이 동일시를 통해 나는, 검열이 받아들이기를 거부한 어떤 표상들을 나의 자아 안에서 하나로 합치라는 지시를 받는다. 나는 또 꿈에서 나의 자아를 여러 번 표현할 수도 있다. 한 번은 직접, 한 번은 낯선 사람들과의 동일시를 통해서. 이런 동일시 몇 개로 엄청난 양의 사고 재료가 압축될 수 있다.[14]

제 이름으로 불리는 장소들의 동일시는 인물의 동일시보다 풀기가 훨씬 쉽다. 꿈에서 전능한 자아가 끼치는 교란의 영향이 여기에는 없기 때문이다. 로마에 관한 내 꿈 가운데 하나(5장 (나))에서 내가 있는 곳의 이름은 로마다. 그런데 나는 한 길모퉁이에 독일어 벽보가 무척 많은 데 놀란다. 뒤의 것은 소원 성취이며, 곧바로 프라하를 떠올리게 한다. 소원 자체는 아마, 오늘날에는 억눌려 있는 독일 민족주의 정신에 내가 젖어 있던 젊은 시절에 생겨났을 것이다. 이 꿈을 꾸던 무렵 나는 프라하에서 친구를 만나기를 고대하고 있었다. 그러니 로마와 프라하의 동일시는 바라는 공통점으로 설명된다. 나는 프라하보다는 로마에서 친구를 만나고 싶고, 이 만남을 위해 프라하를 로마와 맞바꾸고 싶다.

합성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은 꿈에 그토록 흔한 환상적 성격의 주된 원인 가운데 하나다. 결코 지각의 대상이 될 수 없었을 요소들을 꿈에 끌어들이기 때문이다. 합성을 형성할 때 일어나는 심리적 과정은 분명 우리가 깨어 있을 때 켄타우로스나 용을 떠올리거나 빚어낼 때 쓰는 것과 같다. 다른 점은 단 하나다. 깨어 있을 때 빚어내는 환상적

창조물에서는 새로 지어낸 것이 주려는 인상 자체가 결정적인 요인인 반면, 꿈의 합성은 이미지의 형태와는 무관한 영향, 곧 꿈 사고 속의 공통점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다. 꿈의 합성은 아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가장 소박한 방식에서는 한 사물의 성질이 표현되고, 이 표현에는 그 성질이 다른 대상에도 속한다는 앎이 따라붙는다. 더 공들인 기법은 두 대상 사이에 실제로 있는 닮은 점을 능숙하게 이용하면서, 한 대상의 특징과 다른 대상의 특징을 하나의 새 이미지 속에 합친다. 새 창조물은 소재에 따라, 그리고 합성 작업에 작용하는 재치에 따라 아주 부조리해지기도 하고 그저 환상적으로 기발한 것에 그치기도 한다. 하나로 압축할 대상들이 서로 너무 어울리지 않으면, 꿈 작업은 비교적 뚜렷한 핵을 만들고 거기에 덜 뚜렷한 변형들을 덧붙인 합성으로 만족한다. 이 경우 하나의 이미지로 통합하는 일은 말하자면 실패했다. 두 표현이 서로 겹쳐서 시각 이미지들 사이의 다툼 같은 것을 빚어낸다. 개별적인 지각 이미지들로 하나의 관념을 짜 맞추려 한다면, 그림으로도 이와 비슷한 표현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꿈에는 물론 이런 합성이 넘쳐난다. 이미 분석한 꿈들에서 그 예를 여럿 들었고, 앞으로도 더 들겠다. 이 절에서 앞서 다룬 꿈, 곧 내 환자의 삶의 행로를 「꽃으로 꾸민 말로」 그려 내는 꿈에서 꿈 자아는 손에 꽃핀 가지를 들고 있는데, 이미 보았듯이 이 가지는 순결과 성적 과오를 한꺼번에 뜻한다. 게다가 이 가지는 꽃이 모여 달린 모양 때문에 체리 꽃을 떠올리게 한다. 꽃송이는 하나하나 따로 떼어 보면 동백꽃이고, 끝으로 전체는 이국적인 식물이라는 인상도 준다. 이 합성을 이루는 요소들의 공통점은 꿈 사고가 보여 준다. 꽃 핀 가지는, 그녀가 상냥하게 굴도록 부추겼거나 부추겼어야 할 선물들에 대한 암시로 이루어져 있다. 어린 시절의 체리가 그랬고, 훗날의 동백꽃 줄기가 그랬다. 이국적인

특징은 여행을 많이 다닌 한 박물학자에 대한 암시인데, 그는 꽃 그림 한 장으로 그녀의 환심을 사려 했다. 또 다른 여성 환자는 해수욕장의 탈의 오두막, 시골의 바깥 변소, 우리 도시 주택의 다락방으로 중간 요소 하나를 만들어 낸다. 처음 두 요소에 공통된 것은 사람의 알몸과 노출에 대한 관련이며, 이 둘이 셋째 요소와 이어져 있다는 점에서 (그녀의 어린 시절에는) 다락방 역시 노출의 무대였다고 추론할 수 있다. 남성인 한 꿈꾼 사람은 「treatment」〔치료, 또는 대접〕가 베풀어지는 두 장소, 곧 내 진료실과 그가 아내를 처음 알게 된 공회당으로 합성 장소 하나를 만든다. 또 다른 여성 환자는 오빠가 캐비아를 한턱내겠다고 약속하자, 오빠의 다리가 검은 캐비아 알로 빽빽이 뒤덮여 있는 꿈을 꾼다. 도덕적인 의미의 「전염」, 그리고 어린 시절 피부에 발진이 돋아 다리가 검은 점이 아니라 붉은 점으로 뒤덮인 것처럼 보였던 기억, 이 두 요소가 여기서 캐비아 알과 합쳐져 하나의 새로운 관념, 곧 「그녀가 오빠에게서 물려받은 것」이라는 관념을 이루었다. 이 꿈에서는 꿈에서 흔히 그렇듯 사람 몸의 부분들이 사물처럼 다루어진다. 페렌치[87]가 보고한 꿈 가운데 하나에는 의사라는 인물과 말 한 마리로 이루어지고 그 위에 잠옷이 덮인 합성이 나왔다. 이 세 구성 요소의 공통점은, 잠옷이 유년기 장면 속 꿈꾼 사람의 아버지를 가리키는 암시로 밝혀진 뒤에야 분석에서 드러났다. 세 경우 모두에 그녀의 성적 탐구심이 향하는 대상이 있었다. 어릴 때 그녀는 유모를 따라 군마 사육장에 자주 갔는데, 거기서 그 무렵만 해도 제지되지 않았던 호기심을 마음껏 채울 기회가 있었다.

꿈에는 모순이나 대조나 부정의 관계를 표현할 수단이 없다고 나는 이미 주장했다. 이제 처음으로 이 주장을 반박하려 한다. 「대조」라는 말로 묶을 수 있는 경우 가운데 일부는, 이미 보았듯이 그저 동일시로 표현된다. 곧 대조에 맞바꿈이나 대체를 결부할 수 있을 때 그렇다. 그

예는 여러 번 들었다. 꿈 사고 속 대조의 다른 일부는 아마 「반대로 뒤바뀐 것」이라는 범주에 들 텐데, 꿈에서는 거의 재치 있다고 할 만한 다음과 같은 기묘한 방식으로 표현된다. 「역전」 자체는 꿈 내용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 이유로 가까이 놓여 있던, 이미 형성된 꿈 내용의 한 부분이 — 말하자면 나중에 — 역전된다는 사실로 제 존재를 드러낸다. 이 과정은 서술하기보다 예를 들어 보이기가 더 쉽다. 아름다운 「위아래」 꿈(이 장 (가))에서 올라가는 것의 표현은 꿈 사고 속의 원형, 곧 도데의 『사포』 도입 장면의 역전이다. 꿈에서는 오르기가 처음에는 어렵고 나중에는 쉽지만, 실제 장면에서는 처음에 쉽다가 나중에는 점점 더 어려워진다. 마찬가지로 꿈꾼 사람의 형제에 관한 「위」와 「아래」도 꿈에서는 역전되어 있다. 이것은 꿈 사고의 소재 가운데 두 부분 사이에 반대나 대조의 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을 가리키며, 우리는 그 관계를 다음 사실에서 찾아냈다. 꿈꾼 사람의 어린 시절 공상에서는 그가 유모에게 안겨 가지만, 소설에서는 그와 반대로 주인공이 사랑하는 여인을 안고 간다는 것이다. 괴테가 M. 씨를 공격하는 내 꿈(이 장 (바))에도 이런 종류의 「역전」이 들어 있어서, 꿈을 해석해 내려면 먼저 이것을 바로잡아야 한다. 꿈에서는 괴테가 젊은이인 M. 씨를 공격한다. 현실에서는, 꿈 사고에 따르면, 뛰어난 인물인 내 친구가 이름 없는 젊은 저자에게 공격을 받았다. 꿈에서 나는 괴테가 죽은 때부터 시간을 헤아리지만, 현실에서는 마비 환자가 태어난 해부터 헤아렸다. 꿈 재료를 결정하는 생각은 괴테를 미치광이로 취급하는 데 대한 반박으로 드러난다. 「거꾸로다」 하고 꿈은 말한다. 「책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머리가 둔한 것은 저자가 아니라 바로 너다.」 게다가 이런 역전의 꿈들은 모두 「누구에게 등을 돌린다」는 경멸적인 말투를 암시하는 것 같다(독일어로는 「einen die Kehrseite zeigen」〔누구에게 뒷면을 보이다〕. 『사포』 꿈에서 꿈꾼 사람의

형제에 관한 역전 참조). 억압된 동성애적 충동에서 비롯하는 꿈에서 역전이 얼마나 자주 필요해지는지도 눈여겨볼 만하다.

그뿐 아니라 역전, 곧 반대의 것으로 바꾸어 놓기는, 꿈 작업이 지닌 표현 방법 가운데 가장 즐겨 쓰이는 것의 하나이자 가장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는 것의 하나다. 그 첫째 구실은 꿈 사고의 특정한 요소에 대해 소원 성취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그게 거꾸로이기만 하다면!」은 불쾌한 기억에 대한 자아의 관계를 가장 잘 표현하는 말일 때가 많다. 그러나 역전은 검열의 목적에 유난히 쓸모가 있다. 표현된 재료에, 꿈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거의 마비시킬 만큼의 왜곡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그래서 꿈이 한사코 제 뜻을 내주지 않는 경우에는 외현 내용의 특정 부분들을 역전해 보는 것이 언제나 허용되며, 그러면 모든 것이 분명해지는 일이 드물지 않다.

이 역전 말고도, 소재를 시간 관계에서 역전하는 것도 놓쳐서는 안 된다. 꿈 왜곡이 자주 쓰는 수법은 어떤 사건의 최종 결말이나 논증의 결론을 꿈 첫머리에 내놓거나, 결론의 전제나 결과의 원인을 꿈 끝에 가서야 대 주는 것이다. 꿈 왜곡의 이 기술적 수법을 고려하지 않는 사람은 꿈 해석의 문제 앞에서 속수무책이다.[15]

실제로 어떤 경우에는 꿈 내용을 여러 방향으로 거듭 역전해 보아야만 꿈의 뜻을 얻을 수 있다. 이를테면 강박 신경증을 앓는 한 젊은 환자의 꿈에서는, 두려운 아버지를 향한 유년기의 죽음 소원에 대한 기억이 다음과 같은 말 뒤에 숨어 있었다. 그가 그렇게 늦게 온다고 아버지가 그를 꾸짖는다. 그러나 정신분석 치료의 맥락과 꿈꾼 사람의 생각은 한결같이, 이 문장을 그는 아버지에게 화가 나 있다로 읽어야 하며, 나아가 아버지가 언제나 너무 일찍(즉 너무 빨리) 집에 온다는 뜻으로 읽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는 아버지가 아예 집에 오지 않기를 바랐을 것이고, 이것은 아버지가 죽었으면 하는 소원(5장 (라) 참조)과 같다. 어린 소년이던

시절 꿈꾼 사람은 아버지가 집을 비운 사이 다른 사람에게 성적 공격을 저질렀고, 「 아버지 집에 오시기만 해 봐라 」 하는 말로 벌을 받으리라는 위협을 받았다.

꿈 내용과 꿈 사고의 관계를 더 추적해 보려 한다면, 꿈 자체를 출발점으로 삼아 이렇게 묻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다. 꿈 표현의 어떤 형식적 특징들은 꿈 사고와 관련하여 무엇을 뜻하는가? 꿈에서 우리의 주의를 끌 수밖에 없는 형식적 특징으로는, 무엇보다 꿈의 개별 부분들이나 꿈 전체가 서로에 견주어 뚜렷함에서 보이는 차이가 있다. 개별 꿈 이미지의 강도 차이는 온 등급에 걸쳐 있다. 한쪽 끝에는 — 물론 근거는 없지만 — 현실보다 더 높이 치고 싶어지는 묘사의 뚜렷함이 있고, 다른 쪽 끝에는 꿈의 특징이라고들 하는 짜증스러운 흐릿함이 있는데, 이 흐릿함이 꿈의 특징으로 꼽히는 것은 우리가 실제 대상에서 보는 어떤 정도의 흐릿함과도 도무지 견줄 수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우리는 꿈속의 흐릿한 대상에서 받는 인상을 흔히 「 스쳐 지나간다 」 고 말하고, 더 뚜렷한 꿈 이미지는 더 오랫동안 지각되며 흐트러지지 않고 남아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 우리는 꿈 내용의 여러 부분이 생생함에서 보이는 이런 차이가 꿈 재료의 어떤 조건에서 생겨나는지 물어야 한다.

여기서 어김없이 생겨나서 짚고 넘어가야 할 기대가 몇 가지 있다. 잠자는 동안의 실제 감각이 꿈 재료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아마 이 감각이나 거기서 생겨난 꿈 요소들이 유별난 강도로 두드러지리라고, 또는 반대로 꿈에서 특히 생생한 것으로 드러나는 것은 아마 잠자는 동안의 그런 실제 감각으로 거슬러 올라가리라고 가정할 것이다. 내 경험은 이것을 한 번도 확인해 주지 않았다. 잠잘 때 생기는 인상(신경 흥분)에서 파생된 꿈 요소들이, 기억에 바탕을 둔 다른

요소들보다 생생함으로 두드러진다는 말은 옳지 않다. 꿈 이미지의 강도를 정하는 데 현실이라는 요인은 아무 구실도 하지 않는다.

나아가, 개별 꿈 이미지의 감각적 강도(생생함)가 꿈 사고 속에서 그것에 대응하는 요소들의 심리적 강도와 관계가 있으리라는 기대를 품을 것이다. 꿈 사고에서는 강도가 곧 심리적 가치다. 가장 강렬한 요소가 실제로 가장 의미 있는 요소이며, 이것들이 꿈의 중심점이다.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바로 이 요소들은 검열 때문에 대개 꿈 내용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렇더라도 이 요소들 바로 뒤에 오면서 그것들을 대리하는 요소들이, 그렇다고 해서 꿈 표현의 중심을 이루지는 않더라도, 더 높은 강도를 보일 수는 있을지 모른다. 이 기대 역시 꿈과 꿈 재료를 비교해 보면 무너진다. 한쪽 요소들의 강도는 다른 쪽 요소들의 강도와 아무 상관이 없다. 꿈 재료와 꿈 사이에서는 「모든 심리적 가치의 전도」가 완전하게 일어난다. 덧없고 뿌옇게 흐려서 더 힘찬 이미지들에 밀려 뒷전으로 물러나 있는 바로 그 요소가, 꿈 사고를 온통 지배하던 주제에서 직접 파생된 것을 찾아볼 수 있는 단 하나뿐인 요소일 때가 많다.

꿈 요소들의 강도는 다른 방식으로, 곧 서로 독립된 두 요인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드러난다. 소원 성취를 표현하는 요소들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것은 처음부터 쉽게 알 수 있다. 그런데 분석은 또한, 꿈의 가장 생생한 요소들에서 가장 많은 생각의 흐름이 출발하며 가장 생생한 요소들이 동시에 가장 잘 결정된 요소들이라는 것도 가르쳐 준다. 이 뒤의 경험적 명제를 다음과 같이 표현해도 뜻은 달라지지 않는다. 가장 큰 강도를 보이는 것은 가장 풍부한 압축 활동이 필요했던 꿈 요소들이다. 그러므로 이 조건과, 소원 성취가 부과하는 다른 조건을 하나의 공식으로 표현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해도 좋다.

내가 방금 다룬 문제, 곧 꿈의 개별 요소들이 더 강하거나 약하고 더 뚜렷하거나 덜 뚜렷한 원인이 무엇이냐는 문제는, 꿈 전체나 꿈의 구간들이 저마다 다르게 뚜렷한 것과 관련된 다른 문제와 혼동되지 않도록 해 두고 싶다. 앞의 경우에 뚜렷함의 반대는 흐려짐이고, 뒤의 경우에는 혼란이다. 물론 두 등급에서 강도가 나란히 오르내린다는 것은 틀림없다. 우리에게 선명해 보이는 꿈 부분에는 대개 생생한 요소들이 들어 있고, 모호한 꿈은 덜 강렬한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선명해 보이는 것에서 흐릿하거나 혼란스러운 것에 이르는 등급이 우리에게 던지는 문제는, 꿈 요소들의 생생함의 차이가 이루는 문제보다 훨씬 복잡하다. 사실 이 등급의 문제는 뒤에 밝힐 이유로 여기서는 논의에서 빼기로 한다. 드물게는, 꿈이 주는 선명함이나 흐릿함의 인상이 꿈의 구조와는 전혀 상관이 없고 꿈 재료의 구성 요소 가운데 하나로서 꿈 재료에서 비롯한다는 것을 알고 놀라는 경우도 있다. 이를테면 나는 유난히 잘 짜이고 흠 없고 선명해 보이는 꿈 하나를 기억한다. 그래서 나는 아직 잠에 취한 상태에서 새로운 부류의 꿈을 인정하기로 마음먹었다. 압축과 전치의 기제를 따르지 않은 꿈, 따라서 「 잠자는 동안의 공상 」 이라고 부를 수 있을 꿈이다. 더 자세히 살펴보니 이 드문 꿈도 다른 모든 꿈과 똑같이 구조에 틈과 흠이 있었고, 그래서 나는 꿈 공상이라는 범주를 버렸다. 꿈 내용을 가장 간단히 줄이면, 내가 오래 찾아 헤맨 어려운 양성성 이론을 한 친구에게 풀어 들려주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 이론이(덧붙이자면 꿈에는 이론의 내용이 나오지 않았다) 그토록 선명하고 흠 없어 보인 것은 소원을 이루어 주는 꿈의 힘 덕분이었다. 그러므로 완성된 꿈에 대한 판단이라고 내가 여긴 것은 꿈 내용의 일부, 그것도 본질적인 일부였다. 꿈 작업은 이를테면 깨어 있을 때의 사고에까지 제 작용을 뻗쳐, 꿈 재료 가운데 정확하게 재현하는 데 성공하지 못한 부분을 판단의 형태로 내게

내놓은 것이다. 이와 정반대되는 경우를 나는 한 여성 환자에게서 본 적이 있다. 그녀는 분석에 꼭 필요한 꿈 하나를 「너무 모호하고 혼란스럽다」는 이유로 처음에는 도무지 이야기하려 하지 않았고, 자기 묘사가 정확하지 않다고 거듭 말한 끝에, 꿈에 여러 사람, 곧 그녀 자신과 남편과 아버지가 나왔는데 남편이 아버지인지, 아니면 도대체 누가 아버지인지, 뭐 그런 것을 모르는 것 같았다고 털어놓았다. 이 꿈을 진료 시간에 꿈꾼 사람에게 떠오른 생각들과 이어서 살펴보니, 그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한 하녀의 이야기와 관련되어 있었다. 그 하녀는 아이를 가졌다고 고백해야 했는데, 이제 「누가 진짜 아버지인가」 하는 의심에 맞닥뜨려 있었다.[16] 그러므로 이 경우에도 꿈이 드러낸 모호함은 꿈을 불러일으킨 재료의 일부다. 이 재료의 일부가 꿈의 형식으로 표현되었다. 꿈의 형식, 또는 꿈꾸기의 형식은 숨은 내용을 표현하는 데 놀랄 만큼 자주 쓰인다.

꿈에 대한 논평, 그리고 꿈에 관한 겉보기에 무해한 소견은, 꿈꾼 것의 일부를 더없이 교묘하게 감추는 데 — 그러면서도 대개는 그것을 드러내고 마는데 — 쓰일 때가 많다. 이를테면 꿈꾼 사람이 여기서 꿈이 흐릿하다고 말하는데, 분석해 보니 누군가 대변을 보고 나서 뒤를 닦는 소리를 엿들은 유년기의 회상이 나오는 경우가 그렇다. 또 하나의 예는 자세히 적어 둘 만하다. 한 젊은이가 아주 뚜렷한 꿈을 꾸는데, 그 꿈은 그가 줄곧 의식 속에 간직해 온 어릴 적 공상들을 떠올리게 한다. 어느 날 저녁 그는 여름 호텔에 있었는데, 방 번호를 잘못 알고 어떤 방에 들어갔더니, 거기서 나이 든 부인과 두 딸이 잠자리에 들려고 옷을 벗고 있었다. 그는 이어서 말한다. 「그다음에는 꿈에 빈틈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뭔가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방에 어떤 남자가 있었는데, 저를 내쫓으려 해서 저는 그 남자와 씨름을 해야 했습니다.」 그는 꿈이 암시하는 듯한 그 소년 시절 공상의 내용과 의도를

떠올리려고 애썼지만 헛일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마침내, 찾던 내용이 꿈의 흐릿한 부분에 관한 그의 말 속에 이미 주어져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빈틈」은 잠자리에 들던 여자들의 성기에 난 구멍이었고, 「여기에 뭔가가 빠져 있습니다」는 여성 성기의 주된 특징을 묘사한 것이었다. 그 어린 시절 그는 여성 성기를 보고 싶은 호기심에 불탔고, 여자에게도 남성 성기가 있다고 여기는 유년기의 성 이론을 여전히 고수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같은 밤에 꾼 꿈들은 모두 내용으로 보면 같은 전체에 속한다. 그 꿈들이 여러 부분으로 나뉘는 것, 그 묶음과 수, 이런 세부는 모두 뜻으로 가득하며, 잠재적 꿈 내용에서 오는 정보로 보아도 좋다. 주요 구간이 여럿인 꿈이나 같은 밤에 속하는 꿈들을 해석할 때는, 서로 다르면서 잇따르는 이 꿈들이 같은 충동을 다른 재료로 표현하고 있을 가능성을 반드시 생각해야 한다. 이렇게 서로 대응하는 꿈들 가운데 시간상 먼저 오는 꿈이 대개 가장 심하게 왜곡되어 있고 가장 수줍으며, 뒤따르는 꿈은 더 대담하고 더 뚜렷하다.

요셉이 해석한, 성서 속 파라오의 이삭과 암소 꿈도 이런 종류였다. 요세푸스는 이 꿈을 성서보다 더 자세히 전한다(『유대 고대사』 제2권 제3장). 첫 번째 꿈을 이야기하고 나서 왕은 말했다. 「나는 이 환상을 보고 잠에서 깨어났다. 마음이 어지러운 가운데 이것이 무슨 모습일까 혼자 곰곰이 생각하다가 다시 잠이 들었는데, 처음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꿈을 또 꾸었고, 그 꿈은 나를 더욱 두렵고 어지럽게 했다.」 꿈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요셉이 말했다. 「왕이시여, 이 꿈은 두 가지 모습으로 보이기는 했으나 뜻하는 일의 결말은 하나이며 같습니다.」

융[99]은 「소문의 심리학에 대한 기여(Beitrag zur Psychologie des Gerüchtes)」에서, 한 여학생의 가려진 에로틱한 꿈을 친구들이 해석도 없이 알아듣고 저마다 변형을 덧붙여 이어 나간 일을 전하면서,

이 꿈의 보고들과 관련해 이렇게 말한다. 「길게 이어진 꿈 영상들의 마지막 것에는, 그 계열의 첫 영상에서 표현하려 했던 것과 똑같은 생각이 담겨 있었다. 검열은 끊임없이 새로워지는 상징적 은폐, 전치, 무해한 것으로 빗나가기 따위를 통해 콤플렉스를 할 수 있는 한 오래 옆으로 밀쳐 두었다」(앞의 책, 87쪽). 셰르너[58]는 꿈 왜곡의 특성을 잘 알고 있었으며, 기관 자극에 관한 자기 이론의 끝에서 그것을 하나의 특별한 법칙으로 서술한다(166쪽). 「 그러나 마지막으로, 상상력은 상징적 꿈 형성물에서 나오는 모든 신경 자극에서 하나의 일반 법칙을 지킨다. 곧 꿈의 첫머리에서는 자극하는 대상을 가장 멀고 가장 자유로운 암시로만 표현하다가, 끝으로 가서 표현하는 힘이 다하면 자극이나 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그 기능을 숨김없는 형태로 내보이며, 이렇게 해서 이 꿈은 제 기관적 동기를 가리켜 보이고 끝에 이른다.」

셰르너의 법칙을 새로 확인해 준 것은 오토 랑크[106]의 논문 「스스로를 해석하는 꿈」이다. 그가 보고한 한 처녀의 이 꿈은 같은 밤에 시간을 두고 떨어져 꾼 두 꿈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두 번째 꿈은 몽정으로 끝났다. 이 몽정 꿈은 꿈꾼 사람이 내놓은 떠오른 생각들 가운데 상당수를 무시하고도 세부까지 모두 해석할 수 있었다. 그리고 두 꿈 내용 사이의 풍부한 관계는 첫 번째 꿈이 두 번째 꿈과 같은 것을 수줍은 말로 표현했음을 보여 주었고, 그래서 뒤의 꿈, 곧 몽정 꿈이 앞의 꿈을 온전히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이 예에서 랑크는 아주 정당하게도 몽정 꿈 일반의 의미에 관한 결론을 끌어낸다.

그러나 내 경험으로는, 꿈의 선명함이나 혼란을 꿈 재료 속의 확신이나 의심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경우는 드물다. 이 질적 등급이 본질적으로 꿈 형성의 어떤 요인의 영향에 달려 있는지, 그 요인을 나는 뒤에 가서 찾아보려 한다.

어떤 꿈들은 한동안 어떤 상황과 무대에 머물러 있다가, 다음과 같은 말로 묘사되는 중단을 겪는다. 「그런데 그때 거기가 동시에 다른 곳인 것 같았고, 거기서 이러저러한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꿈의 주된 흐름을 끊는 것은 — 그 흐름은 잠시 뒤에 다시 이어질 수도 있다 — 꿈 재료 속의 부차적인 생각, 곧 끼워 넣은 생각으로 드러난다. 꿈 사고 속의 조건 관계는 꿈에서는 동시성으로 표현된다(wenn — wann; if — when)〔~라면 — ~할 때〕.

그토록 자주 꿈에 나오고 불안과 그토록 가까운 가로막히는 감각은 무엇을 뜻하는가? 움직이고 싶은데 그 자리에서 꼼짝할 수가 없다. 또는 무언가를 해내고 싶은데 장애물에 잇달아 부딪힌다. 기차가 막 떠나려 하는데 거기에 닿을 수가 없다. 모욕을 앙갚음하려고 손을 치켜드는데 힘이 빠져 버린다, 등등. 이 감각은 노출 꿈에서 이미 만났지만, 아직 진지하게 해석해 보려 한 적은 없다. 잠잘 때는 운동 마비가 있으며 그것이 앞서 말한 감각으로 드러난다고 대답하는 것은 편리하지만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이렇게 물을 수 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렇게 가로막히는 움직임을 줄곧 꿈꾸지는 않는가?」 그리고 잠잘 때면 늘 있는 이 감각이 표현에서 이런저런 목적에 쓰이며, 꿈 재료 속에 이런 종류의 표현이 필요해질 때 그 필요 때문에 불러일으켜진다고 가정하는 것은 정당하다.

해내지 못함은 꿈에서 언제나 감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꿈 내용의 일부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런 경우가 꿈의 이 특징이 지닌 의미를 밝혀 주기에 특히 알맞다고 나는 믿는다. 내가 부정직하다는 혐의를 받는 듯한 꿈 하나를 줄여서 이야기하겠다. 무대는 한 사설 요양원과 다른 건물 몇 채가 뒤섞인 곳이다. 하인 하나가 나타나 나를 검사하는 자리로 부른다. 나는 꿈속에서, 무언가가 없어졌으며 내가 그 잃어버린 물건을 가로챘다는 혐의를 받고 있어서 검사가 열린다는 것을 안다. 분석해 보면 검사는

두 가지 뜻으로 받아들여야 하며, 의학적 검사라는 뜻도 있다. 나는 내가 결백하다는 것도, 자문의로 불려 왔다는 것도 의식하고 있기에 차분하게 하인을 따라간다. 문간에서 다른 하인이 우리를 맞으며 나를 가리키고 말한다. 「데려온 사람이 이분이에요? 아니, 이분은 점잖은 분이잖아요.」 그러자 나는 하인 없이 커다란 홀로 들어가는데, 거기에는 기계들이 서 있고, 그 홀은 지옥 같은 형벌 방식들을 갖춘 「지옥편」을 떠올리게 한다. 기구 하나에 묶여 있는 동료 하나가 보이는데, 그는 나를 걱정할 이유가 충분한데도 나를 본체만체한다. 그러고 나서 이제 가도 된다는 뜻을 전해 듣는다. 그런데 모자를 찾을 수가 없고, 결국 갈 수가 없다.

꿈이 이루어 주는 소원은 분명, 내가 정직한 사람으로 인정받아 가도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꿈 사고 속에는 이 생각에 대한 모순을 담은 온갖 소재가 틀림없이 있을 것이다. 내가 가도 된다는 것은 내가 사면되었다는 표시다. 그러니 꿈이 끝에 가서 나를 가지 못하게 막는 사건을 내놓는다면, 모순을 담은 억제된 소재가 이 특징에서 제 목소리를 낸다고 쉽게 결론지을 수 있다. 내가 모자를 찾을 수가 없다는 사정은 그러니까 이런 뜻이다. 「너는 결국 정직한 사람이 아니다.」 꿈에서 해내지 못함은 모순, 곧 「아니」의 표현이며, 따라서 꿈은 부정을 표현할 수 없다는 앞서의 주장은 그에 맞게 고쳐야 한다.[17]

무언가를 해내지 못함이 상황으로만이 아니라 감각으로도 들어 있는 다른 꿈들에서는, 같은 모순이 의지의 형태로 더 힘주어 표현되고 거기에 반대 의지가 맞선다. 그러므로 가로막히는 감각은 의지의 갈등을 표현한다. 바로 이 운동 마비가 꿈꿀 때 일어나는 심리 과정의 기본 조건에 속한다는 것은 뒤에서 듣게 될 것이다. 그런데 운동 경로로 옮겨지는 충동은 다름 아닌 의지이며, 꿈에서는 이 충동이 틀림없이 가로막혀 있다는 사실 때문에 이 과정 전체는 의지와, 그 의지에 맞서는 「아니」를 표현하는 데 유난히 알맞게 된다. 불안에 대한 내 설명에

비추어 보면, 꺾인 의지의 감각이 왜 불안과 그토록 가깝고 꿈에서 왜 그토록 자주 불안과 이어지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불안은 무의식에서 나오는 리비도적 충동인데, 전의식(foreconscious)이 이 충동을 제지한다. 그러므로 꿈에서 제지의 감각에 불안이 따를 때에는, 한때 리비도를 일깨울 수 있었던 의지도 거기 있을 것이 틀림없다. 성적 충동이 있을 것이 틀림없다.

꿈속에서 자주 떠오르는 「그건 꿈일 뿐이니까」 같은 판단의 표명에 어떤 의미와 어떤 심리적 힘을 부여해야 하는지는 다른 자리에서(아래를 보라, 이 장 (아)) 논하겠다. 지금은 그런 판단이 꿈꾼 것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데 쓰인다는 것만 말해 두겠다. 이와 가까운 흥미로운 문제, 곧 어떤 내용이 꿈 자체 안에서 「꿈꾼 것」으로 지칭되는 일이 있다는 사실의 의미, 다시 말해 「꿈속의 꿈」이라는 수수께끼는, W. 슈테켈[114]이 설득력 있는 몇몇 예를 분석하여 비슷한 뜻으로 풀어냈다. 「꿈꾼」 꿈 부분은 여기서도 가치가 깎이고 현실성을 빼앗기게 되어 있다. 꿈꾸는 사람이 꿈속의 꿈에서 깨어난 뒤에도 계속 꿈꾸는 것은, 꿈 소원이 지워 버린 현실 대신 놓고 싶어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꿈꾼」 부분에는 현실과 실제 회상의 표현이 담겨 있고, 반면에 이어지는 꿈에는 꿈꾸는 사람이 바란 것의 표현이 담겨 있다고 가정해도 좋다. 따라서 어떤 내용을 「꿈속의 꿈」에 넣는 것은, 방금 꿈이라고 지칭된 것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소원과 같다. 꿈 작업은 꿈 자체를, 딴 데로 돌리는 한 형식으로 이용한다.

(라) 표현 가능성에 대한 고려

지금까지 우리는 꿈이 꿈 사고들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알아내려고 애써 왔지만, 꿈 형성을 위해 꿈 재료가 어떤 변화를 겪는가

하는 더 나아간 물음으로도 여러 번 고찰을 넓혔다. 이제 우리는, 꿈 재료가 그 관계의 대부분을 벗겨 낸 뒤 압축을 겪으며, 그와 동시에 요소들 사이의 강도 전치가 이 재료에 심리적 가치의 전도를 강요한다는 것을 안다. 우리가 살펴본 전치들은 한 표상을 다른 표상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때 대체물은 원래의 것과 어떤 식으로든 연상으로 이어져 있었다. 그리고 두 요소 사이의 공통 중간물이 이런 식으로 꿈 형성에서 그 두 요소의 자리를 차지한다는 사실 덕분에 전치는 압축에 봉사하게 되었다. 다른 종류의 전치는 아직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분석을 통해 우리는 또 다른 전치가 있으며, 그것이 문제의 생각에 쓰인 언어 표현이 바뀌는 데서 드러난다는 것을 알게 된다. 두 경우 모두 연상의 사슬을 따르는 전치이지만, 같은 과정이 서로 다른 심리적 영역에서 일어난다. 그래서 이 전치의 결과는 한쪽에서는 한 요소가 다른 요소로 대체되는 것이고, 다른 쪽에서는 한 요소가 제 언어 표현을 다른 표현과 맞바꾸는 것이다.

꿈 형성에서 일어나는 이 둘째 종류의 전치는 이론적으로 큰 흥미를 끌 뿐 아니라, 꿈이 위장으로 두르는 환상적 부조리의 겉모습을 설명하기에도 유난히 알맞다. 전치는 대개 꿈 사고 속의 빛깔 없고 추상적인 표현이 시각적이고 구체적인 표현과 맞바뀌는 식으로 일어난다. 이 대체의 이점, 따라서 그 목적은 분명하다. 시각적인 것은 무엇이든 꿈에서 **표현될 수 있고** 상황 속에 짜 넣을 수 있지만, 추상적인 표현은 정치 사설을 그림 잡지에 그림으로 나타내려 할 때 생길 법한 것과 비슷한 어려움을 꿈 표현에 안길 것이다. 그러나 이 변화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표현의 가능성만이 아니라 압축과 검열의 이해관계이기도 하다. 추상적으로 표현되어 다루기 힘든 꿈 사고를 비유적인 언어로 고쳐 빚으면, 어느 언어에서나 구체적인 말은 그 발달 과정 때문에 개념적인 말보다 연상이 풍부하므로, 이 새 표현과 나머지

꿈 재료 사이에 동일성과 상호 관계가 더 쉽게 마련된다. 꿈 작업에 꼭 필요한 이 동일성과 상호 관계를, 꿈 작업은 손에 없으면 언제든 만들어 낸다. 꿈 형성에서, 따로따로인 꿈 사고들을 꿈속에서 되도록 간결하고 단순한 표현으로 줄이려는 중간 활동의 상당 부분이 위에서 말한 방식으로, 곧 개별 사고들에 알맞은 바꿔 말하기를 마련해 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상상해 볼 수 있다. 그러면 이미 다른 이유로 표현이 정해진 한 생각이 다른 생각을 표현하는 데 쓸 수 있는 수단들에 가르고 골라내는 영향을 미칠 것이며, 어쩌면 처음부터 끝까지 줄곧 그렇게 할 것이다. 시인이 하는 방식과 얼마간 비슷하게 말이다. 운을 맞춘 시를 지으려면, 운을 이루는 둘째 행은 두 가지 조건에 묶인다. 알맞은 뜻을 표현해야 하고, 운이 맞도록 표현해야 한다. 가장 좋은 시는 아마, 운을 찾으려는 시인의 노력이 무의식적이고, 두 생각이 처음부터 서로의 언어 표현을 고르는 데 영향을 주고받아서, 조금만 고쳐 다듬으면 운이 맞게 되는 시일 것이다.

어떤 경우에는 표현의 변화가, 두 가지 뜻을 지녀서 하나 이상의 꿈 사고를 표현하기에 알맞은 말의 짜임을 지어낼 수 있게 해 줌으로써 꿈 압축의 목적에 더 직접 이바지한다. 그리하여 말장난의 모든 영역이 꿈 작업에 봉사하게 된다. 꿈 형성에서 낱말이 하는 역할에 놀랄 필요는 없다. 낱말은 여러 관념이 만나는 교차점이므로 말하자면 미리 정해진 다의성을 지니며, 신경증(강박, 공포증)도 꿈 못지않게 기꺼이, 낱말이 압축과 위장에 제공하는 편의를 이용한다.[18] 꿈의 구상도 이 표현의 전치에서 이득을 본다는 것은 쉽게 보여 줄 수 있다. 두 가지 뜻을 지닌 낱말 둘 대신 두 가지 뜻을 지닌 낱말 하나를 놓으면 당연히 헷갈린다. 또 평범한 일상 표현 대신 비유적 표현을 쓰면 우리의 이해가 가로막히는데, 꿈은 자기가 보여 주는 요소들을 글자 그대로 해석해야 하는지 비유적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그것들이 꿈 재료를 직접

가리키는지 아니면 끼워 넣은 말투를 거쳐서만 가리키는지를 결코 알려 주지 않으니 더욱 그렇다.'[19] 두 가지 뜻으로만 한데 묶여 있는 꿈속 표현의 예는 이미 여럿 인용했다(이르마의 주사 꿈의 「그녀의 입이 어려움 없이 열린다」, 마지막으로 보고한 꿈(이 장 (다))의 「나는 아직 갈 수가 없다」 등). 이제 분석에서 추상적 사고의 비유적 표현이 더 큰 몫을 하는 꿈 하나를 인용하겠다. 이런 꿈 해석과 상징 표현을 통한 해석의 차이는 여기서도 뚜렷이 가를 수 있다. 꿈의 상징적 해석에서는 상징 표현의 열쇠를 해석하는 사람이 제멋대로 고르지만, 우리가 다루는 언어적 위장의 경우에는 이 열쇠들이 모두 널리 알려져 있고 굳어진 말의 관습에서 가져온 것이다. 알맞은 때에 올바른 생각이 떠오르기만 하면, 꿈꾼 사람의 진술과 상관없이 이런 종류의 꿈을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풀 수 있다.

내 친구인 한 부인이 이런 꿈을 꾼다. 그녀는 오페라 극장에 있다. 아침 7시 45분까지 이어진 바그너 공연이다. 1층 객석과 그 뒤쪽 객석에는 식탁들이 놓여 있고, 사람들이 그 둘레에서 먹고 마신다. 신혼여행에서 막 돌아온 그녀의 사촌과 그의 젊은 아내가 그 식탁 가운데 하나에 그녀와 나란히 앉아 있고, 그들 옆에는 귀족 한 사람이 앉아 있다. 이 귀족을 두고는, 젊은 아내가 결혼 여행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다는 생각이 있다. 그것은 조금도 숨길 것 없는 일이어서, 마치 여행에서 모자 하나를 가지고 돌아오는 것 같다. 1층 객석 한가운데에는 높은 탑이 하나 있고, 그 꼭대기에는 쇠창살로 둘러싸인 단이 있다. 거기, 높은 곳에 한스 리히터의 얼굴을 한 지휘자가 서 있다. 그는 창살 뒤에서 땀을 지독하게 흘리며 쉴 새 없이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그 자리에서 탑 밑동에 둘러 자리 잡은 오케스트라를 지휘한다. 그녀 자신은 (나도 아는) 여자 친구와 함께 칸막이 좌석에 앉아 있다. 그녀의 막내 여동생이 1층 객석에서 그녀에게 커다란 석탄 덩어리 하나를 건네주려 하는데, 그렇게 오래 갈 줄 몰랐으니 지금쯤이면

그녀가 몹시 추울 것이라는 생각에서다. (긴 공연 동안 칸막이 좌석에 불을 지펴야 하는 것 같기도 했다.)

이 꿈은 상황이 제법 잘 짜여 있기는 해도 꽤나 무의미하다. 지휘자가 오케스트라를 이끄는, 1층 객석 한가운데의 탑이 그렇고, 무엇보다 여동생이 그녀에게 건네는 석탄이 그렇다! 나는 일부러 이 꿈의 분석을 청하지 않았다. 꿈꾼 사람의 개인적 사정을 알고 있었기에 나는 그 일부를 혼자서 해석할 수 있었다. 나는 그녀가 한 음악가에게 따뜻한 감정을 품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그 음악가의 경력은 광기 때문에 너무 일찍 꺾여 버렸다. 그래서 나는 1층 객석의 탑을 말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러자 그녀가 한스 리히터 대신 그 자리에서 보고 싶어 한 그 남자는 오케스트라의 다른 모든 단원 위로 탑처럼 우뚝 솟아 있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그러므로 이 탑은 병치로 만들어진 합성 영상이라고 불러야 한다. 탑은 그 받침대로는 그 남자의 위대함을 나타내지만, 꼭대기의 창살로는 — 그는 그 창살 뒤에서 죄수처럼, 또는 우리에 갇힌 짐승처럼 뛰어다닌다(이것은 그 불행한 남자의 이름에 대한 암시다) — 그의 나중 운명을 나타낸다. 「미치광이 탑」이 아마 두 생각이 만날 수 있었을 낱말일 것이다.

꿈의 표현 방법을 알아냈으니, 이제 같은 열쇠로 두 번째 겉보기 부조리, 곧 여동생이 그녀에게 건네는 석탄의 부조리를 열어 보자. 「석탄」은 「은밀한 사랑」을 뜻하는 것이 틀림없다.

「어떤 석탄도, 어떤 불도 그토록 뜨겁게 타오르지 않네」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사랑만큼은.」

그녀와 친구는 앉은 채로 있는데, 아직 결혼할 기회가 있는 여동생이 「그렇게 오래 갈 줄 몰랐기 때문에」 그녀에게 석탄을 올려 건넨다. 무엇이 그렇게 오래 가는지는 꿈에 나와 있지 않다. 꿈을 이야기할 때라면 우리는 「공연이」를 보충하겠지만, 꿈에서는 문장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두 가지 뜻을 지녔다고 선언하고 「그녀가 결혼할 때까지」를 덧붙여야 한다. 그러면 「은밀한 사랑」이라는 해석은, 1층 객석에 아내와 함께 앉아 있는 사촌이 언급된다는 점, 그리고 그 아내에게 공공연한 연애가 돌려진다는 점으로 확인된다. 은밀한 사랑과 공공연한 사랑, 그녀의 불과 젊은 아내의 차가움 사이의 대조가 꿈을 지배한다. 게다가 여기에도 귀족과, 높은 기대를 걸 만했던 음악가 사이의 중개념으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다.

위의 논의로 우리는 마침내 셋째 요인을 밝혀냈다. 꿈 사고가 꿈 내용으로 바뀌는 데서 이 요인이 맡는 몫은 하찮게 여길 수 없다. 그것은 꿈이 이용하는 독특한 심리적 재료에 비추어 본 표현 가능성에 대한 고려(regard for presentability)(독일어: Darstellbarkeit)다. 곧 대개는 시각 이미지를 통한 표현 가능성이다. 본질적인 꿈 사고에 딸린 여러 부차적인 생각 가운데서는 시각적 표현을 허용하는 것이 선호된다. 그리고 꿈 작업은, 다른 언어 형식이 더 낯선 것이라 해도 그 형식이 극화를 가능하게 해 주기만 한다면 경직된 생각을 서슴없이 곧바로 그 형식으로 고쳐 빚고, 그렇게 해서 옹색하게 갇힌 사고가 빚어내는 심리학적 곤경을 끝낸다. 사고 내용을 이렇게 다른 틀에 부어 넣는 일은 동시에 압축 작업에 봉사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았다면 없었을 다른 생각과의 관계를 만들어 낼 수도 있다. 이 다른 생각 자체도 어쩌면 이런 관계를 마중 나가려고 앞서 제 원래 표현을 바꾸어 두었을지 모른다.

교양 있는 사람들의 지적 생활에서 말장난, 인용구, 노래, 속담이 하는 몫을 생각하면, 이런 종류의 위장이 유난히 자주 쓰이는 것을 보게 되더라도 전적으로 우리 예상대로일 것이다. 몇몇 종류의 재료에 대해서는 널리 알려진 암시와 등가물을 바탕으로 어디에나 적용되는 꿈 상징 표현이 확립되어 있다. 게다가 이 상징 표현의 상당 부분을 꿈은 정신신경증과, 그리고 전설 및 민간 풍습과 함께 지니고 있다.

실제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꿈이 이런 대체 방법을 쓸 때 대체로 독창적인 일은 하나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이 경우 꿈의 목적은 검열의 방해를 받지 않는 극화의 가능성인데, 꿈은 이 목적을 이루려고 무의식적 사고 속에 이미 나 있는 길을 그저 따라갈 뿐이며, 억제된 재료의 변형 가운데 농담과 암시의 형태로도 의식될 수 있고 신경증 환자들의 공상을 모두 가득 채우고 있는 변형을 선호한다. 여기서 우리는 단번에 셰르너의 꿈 해석 방법을 이해하게 된다. 그 방법의 본질적인 진리를 나는 다른 곳에서 옹호했다. 자기 몸을 두고 공상을 펼치는 일은 결코 꿈에만 고유하거나 꿈만의 특징인 것이 아니다. 내 분석들이 보여 준 바로는, 그것은 신경증 환자들의 무의식적 사고에서 늘 일어나는 일이며 성적 호기심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사춘기의 소년이나 소녀에게 그 호기심의 대상은 이성의, 또는 심지어 동성의 성기다. 그러나 셰르너와 폴켈트가 아주 적절하게 밝히듯이, 꿈에서든 신경증의 무의식적 공상에서든 몸을 상징화하는 데 쓰이는 표상군은 집만이 아니다. 물론 나는 몸과 성기에 대해 건축의 상징 표현을 꾸준히 고수해 온 환자들을 알고 있다(성적 관심은 분명 외부 성기의 영역을 훨씬 넘어선다). 그들에게는 지주와 기둥이 다리를 뜻하고(『아가』 에서처럼), 모든 문이 몸의 개구부(「구멍」)를, 모든 수도관이 비뇨기를 떠올리게 하는 식이다. 그러나 식물과 부엌에 속하는 연상군도 성적 이미지를 감추는 데 그 못지않게 즐겨 선택된다. 앞의 경우에는 아득한 옛날부터 내려온 환상적인 비유의 결과인 말의 쓰임이 넉넉히 준비를 해 두었다(주님의 「포도원」, 「씨」, 『아가』 에 나오는 처녀의 「동산」). 성생활의 가장 추한 세부도, 가장 은밀한 세부도 겉보기에 무해한 부엌일에 대한 암시로 꿈꿀 수 있다. 그리고 성적 상징 표현이 가장 흔하고 가장 눈에 띄지 않는 것들 뒤를 가장 좋은 은신처로 삼아 숨을 수 있다는 것을 잊는다면, 히스테리의 증상은

사실상 이해할 수 없게 된다. 신경증에 걸린 어떤 아이들이 피와 날고기를 쳐다보지 못하고 달걀과 국수를 보면 토한다는 것, 인간에게 본래 있는 뱀에 대한 두려움이 신경증 환자에게서는 터무니없이 부풀려져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에는 뚜렷한 성적 의미가 있다. 신경증은 이런 종류의 위장을 쓰는 곳이면 어디서나, 문명의 초기에 인류 전체가 한때 밟았던 길을 밟는다. 그 길이 있었다는 것은 말의 관습과 미신과 풍속이 오늘날까지도 증언해 준다.

여기에 약속했던 한 여성 환자의 꽃 꿈을 끼워 넣는다. 성적으로 해석해야 할 것은 모두 글자체를 달리해 강조했다. 이 아름다운 꿈은 해석되고 나자 꿈꾼 사람에게 그 매력을 모두 잃어버린 것 같았다.

(ㄱ) 예비 꿈: 그녀는 부엌에 있는 두 하녀에게 가서, 「먹을 것 조금」을 장만하는 데 왜 그렇게 오래 걸리느냐고 나무란다. 그녀는 또 부엌에 투박한 그릇이 아주 많이 놓여 있는 것을 보는데, 그릇들은 물이 방울져 떨어지도록 엎어진 채 한 무더기로 쌓여 있다. 나중에 덧붙인 것: 두 하녀는 물을 길으러 가는데, 말하자면 집 안까지, 또는 마당 안까지 차오른 강물 속으로 들어서야 한다.[20]

(ㄴ) 본꿈[21]: 그녀는 높은 곳에서[22], 기묘하게 만들어진 난간들, 또는 큰 네모꼴로 이어져 있고 작은 네모꼴들이 모여 이루어진 울타리들을 넘어 내려오고 있다.'[23] 그것은 사실 딛고 오르라고 만든 것이 아니다. 그녀는 발 디딜 곳을 찾을 수 있을까 걱정하고, 옷이 어디에도 걸리지 않아 기쁘며, 걸어가는 동안 그토록 단정한 모습을 지키는 것이 기쁘다.'[24] 그녀는 또 손에 커다란 나뭇가지 하나를 들고 있는데,'[25] 실은 나무의 가지로, 붉은 꽃이 빽빽이 달려 있다. 가지는 곁가지가 많고 넓게 퍼져 있다.'[26] 여기에는 체리 꽃이라는 생각이 이어지지만, 꽃들은 활짝 핀 동백꽃처럼 보이는데, 동백꽃은 물론 나무에서 자라지 않는다. 내려오는 동안 그녀는 처음에는 하나를, 그러다 갑자기 둘을,

나중에는 다시 하나만 가지고 있다.'[27] 그녀가 아래에 이르렀을 때 아래쪽 꽃들은 벌써 꽤 많이 떨어져 있다. 이제 아래에 와서 그녀는, 짐꾼 하나가 바로 그런 나무를 — 그녀가 표현하고 싶은 대로 말하자면 — 빗질하는 것을, 다시 말해 나무에서 이끼처럼 늘어진 굵은 머리털 다발을 뜯어내는 것을 본다. 다른 일꾼들은 어느 정원에서 그런 나뭇가지들을 쳐 내어 길에 던져 두었는데, 가지들이 길에 널려 있어서 많은 사람이 몇 개씩 가져간다. 그러나 그녀는 그래도 되는지, 누구든 하나 가져가도 되는지 묻는다.'[28] 정원에는 한 젊은 남자가 서 있는데(그녀가 아는 인물이지만 가족은 아니다) 그녀는 그에게 다가가, 그런 나뭇가지를 어떻게 하면 자기 정원에 옮겨 심을 수 있는지 묻는다.[29] 그가 그녀를 껴안자 그녀는 뿌리치며, 무슨 뜻이냐고, 자기를 그런 식으로 껴안아도 되는 거냐고 묻는다. 그는 거기에 잘못된 것은 없다고, 허락된 일이라고 말한다.'[30] 그러고 나서 그는 옮겨 심는 법을 보여 주려고 그녀와 함께 다른 정원으로 가겠다고 나서며, 그녀가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한다. 「그 밖에도 삼 미터— (나중에 그녀는 제곱미터라고 말한다) 또는 세 길의 땅이 모자랍니다.」 그 남자는 제 친절에 대한 대가로 그녀에게 무언가를 청하려는 것 같고, 그녀의 정원에서 제 손해를 벌충하려는 속셈인 것 같고, 어떤 법인가를 피해 가서 그녀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도 거기서 어떤 이득을 끌어내려는 것 같다. 그가 정말로 그녀에게 무언가를 보여 주는지 아닌지 그녀는 알지 못한다.[31]

꿈에서도 신경증에서도 성적인 뜻을 감추는 데 자주 쓰이는 연상 계열을 하나 더 말해 두어야겠다. 이사 계열이 그것이다. 이사하는 것은 쉽게 「to remove」〔옮기다·이사하다, 그리고 벗다〕로 대체되는데, 이것은 옷과 관련될 수도 있는 두 가지 뜻의 표현이다. 꿈에 「lift」(승강기)도 나온다면 동사 「to lift」〔들어 올리다〕를, 따라서 옷을 들어 올리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물론 내게는 이런 재료가 넘치도록 많지만, 그것을 보고하다 보면 신경증 상태에 대한 논의로 너무 멀리 들어가게 될 것이다. 모든 것이 같은 결론으로 이어진다. 꿈 형성에서 정신의 특별한 상징화 활동을 가정할 필요는 없으며, 오히려 꿈은 무의식적 사고 속에 이미 만들어져 있는 상징화를 이용한다는 것이다. 그런 상징화가 그 표현 가능성 때문에, 그리고 특히 검열을 면한다는 점 때문에 꿈 형성의 요구를 더 잘 충족하기 때문이다.

(마) 예시 — 꿈속의 계산과 말[32]

꿈 형성을 지배하는 넷째 요인을 제자리에 놓기에 앞서, 내가 모은 꿈 가운데서 몇 가지 예를 들려고 한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알게 된 세 요인이 어떻게 함께 작용하는지 보여 주려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증명 없이 내세운 주장들에 증거를 대거나 그 주장들에서 반박할 수 없는 결론을 끌어내려는 것이다. 앞에서 꿈 작업을 서술하는 동안에는 내 결론을 예를 들어 증명하기가 몹시 어려웠기 때문이다. 개별 명제를 뒷받침하는 예는 한 꿈의 해석과 이어서 볼 때에만 설득력이 있고, 맥락에서 떼어 내면 의미를 잃는다. 게다가 꿈 해석은 조금도 깊이 파고들지 않더라도 금세 길어져서, 그것이 예시하려던 논의의 실마리를 흐려 놓는다. 이런 기술적인 동기가 있으니, 이 장 (가)~(라)의 본문과 관계가 있다는 것 말고는 서로 아무 공통점도 없는 온갖 것을 이제 내가 뒤섞어 내놓더라도 양해해 주기 바란다.

먼저 꿈속의 아주 독특하거나 흔치 않은 표현 방식의 예를 몇 가지 살펴보자. 한 부인의 꿈은 다음과 같다. 하녀 하나가 창문을 닦으려는 듯 사다리 위에 서 있고, 침팬지 한 마리와 고릴라 고양이 한 마리를 데리고 있다 (나중에 고쳐서 — 앙고라 고양이). 하녀는 그 동물들을 꿈꾼 사람에게

던진다. 침팬지가 그녀에게 달라붙어 파고드는데, 그녀는 그것이 역겹다. 이 꿈은 더없이 단순한 수단으로 목적을 이루었다. 관용적인 말투 하나를 글자 그대로 받아들여 그 낱말들의 뜻대로 표현한 것이다. 「원숭이」는 동물 이름이 대개 그렇듯 욕으로 쓰이는 말이고, 꿈의 상황은 「욕설을 내던지다」라는 뜻일 뿐이다. 이 간단한 수법을 쓴 예는 같은 모음에서 곧 더 나올 것이다.

다른 꿈 하나도 아주 비슷하게 진행된다. 두개골이 눈에 띄게 기형인 아이를 데리고 있는 여자. 꿈꾼 사람은 아이가 어머니 배 속에 있을 때의 자세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들었다. 의사는 두개골을 눌러 주면 모양을 더 낫게 만들 수는 있겠지만 그러면 뇌가 상할 거라고 말한다. 그녀는 사내아이니까 기형이 있어도 그리 고생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이 꿈에는 「어린 시절의 인상〔Childish impressions. impression에는 눌려서 생긴 자국이라는 뜻도 있다〕」이라는 개념이 조형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꿈꾼 사람이 치료에 관한 설명을 듣는 가운데 들은 적이 있는 말이다.

다음 예에서는 꿈 작업이 다른 길로 들어선다. 이 꿈에는 그라츠 근처의 힐름타이히로 소풍 갔던 기억이 들어 있다. 밖에는 무시무시한 폭풍우가 몰아친다. 초라한 호텔 — 벽에서는 물이 뚝뚝 떨어지고, 침대는 눅눅하다. (내용의 뒷부분은 내가 여기 적은 것만큼 직접적으로 표현되어 있지는 않다.) 이 꿈은 「superfluous〔쓸데없는, 남아도는〕」라는 뜻이다. 꿈 사고 속에 있던 이 추상적인 관념은 먼저 말이 얼마간 억지로 비틀리면서 두 가지 뜻을 띠게 된다. 아마 「overflowing」〔넘쳐흐르는〕으로, 또는 「fluid」〔흐르는〕와 「super-fluid(-fluous)」〔넘치게 흐르는〕로 대체된 다음, 비슷한 인상들을 쌓아 올리는 식으로 표현되었을 것이다. 안에도 물, 밖에도 물, 침대에도 눅눅함이라는 형태로 물 — 모든 것이 fluid〔흐르는 것〕이며 「super」 fluid〔넘치게 흐르는 것〕이다. 꿈이 표현할 때 낱말의

철자를 소리보다 훨씬 덜 따진다는 것도, 각운이 이와 비슷한 특권을 누린다는 사실을 떠올리면 놀랄 일이 아니다.

언어에는 원래 그림처럼 생생하고 구체적인 뜻으로 쓰이다가 지금은 빛바랜 추상적인 뜻으로 쓰이는 낱말이 아주 많은데, 다른 경우에는 바로 이 사실 덕분에 꿈이 자기 사고를 무척 쉽게 표현할 수 있었다. 꿈은 이런 낱말에 본래의 온전한 의미를 되돌려 주거나, 그 의미가 변해 온 길을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면 된다. 이를테면 어떤 남자는, 아주 좁은 곳에서 빠져나오려고 애쓰는 친구가 도와 달라고 자기를 부르는 꿈을 꾼다. 분석해 보니 그 좁은 곳은 구멍이었고, 꿈은 그가 친구에게 한 바로 그 말을 상징적으로 쓰고 있었다. 「Be careful, or you'll get yourself into a hole.」〔조심해, 그러다 구멍에 빠져. 영어에서 「구멍에 빠지다」는 곤경에 빠진다는 뜻으로도 쓰인다.〕[33] 또 다른 꿈꾼 사람은 산에 올라가는데, 거기서는 참으로 놀랄 만큼 드넓은 조망〔view〕이 펼쳐진다. 그는 극동과의 관계를 다루는 「평론지」〔review〕를 편집하는 자기 형제와 자신을 동일시한다.

이런 표현 방식들을 모아 그 바탕에 놓인 원리에 따라 정리하는 것은 따로 해야 할 일일 것이다. 그런 표현 가운데는 꽤 재치 있는 것도 있다. 꿈꾼 사람 자신이 알려 주지 않았더라면 결코 알아맞히지 못했으리라는 인상을 주는 것들이다.

1. 어떤 남자가, 누가 이름 하나를 묻는데 그 이름이 도무지 생각나지 않는 꿈을 꾼다. 그는 이것이 꿈속에서 그것이 내게 떠오르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스스로 설명한다.

2. 한 여성 환자가 꿈을 하나 이야기하는데, 그 꿈에서는 등장인물이 모두 유난히 컸다. 「그건 제가 아주 어렸을 때의 일을 다룬 꿈이 틀림없다는 뜻이에요.」 그녀는 이렇게 덧붙인다. 「그때는 어른들이 모두 당연히 엄청나게 커 보였으니까요.」

어린 시절로 옮겨 놓음은 다른 꿈들에서 시간을 공간으로 바꾸어 달리 표현되기도 한다. 문제의 인물과 장면이 아주 먼 곳에, 기다란 길 끝에 있는 것처럼, 또는 오페라글라스를 거꾸로 대고 보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3. 깨어 있을 때는 추상적이고 막연한 표현을 즐겨 쓰지만 그 밖에는 재치를 넉넉히 갖춘 한 남자가, 어떤 맥락에서 기차가 들어오고 있을 때 자기가 기차역에 있는 꿈을 꾼다. 그런데 그다음에는 역의 승강장이 멈춰 서 있는 기차 쪽으로 다가온다. 실제 사태를 부조리하게 역전시킨 것이다. 이 세부 역시 꿈의 다른 무언가를 뒤집어 놓아야 한다는 것을 일깨우는 표지에 지나지 않는다. 같은 꿈을 분석하자, 사람들이 물구나무를 서서 손으로 걷는 모습이 그려진 그림책의 기억이 되살아난다.

4. 같은 사람이 또 한번은 거의 그림 수수께끼(rebus)의 기법을 떠올리게 하는 짧은 꿈을 이야기한다. 삼촌이 자동차〔automobile〕 안에서 그에게 입을 맞춘다. 그는 곧바로 해석을 덧붙이는데, 나라면 결코 찾아내지 못했을 해석이다. 이 꿈이 Autoerotism〔자가 성애〕을 뜻한다는 것이다. 깨어 있을 때라면 농담으로 지어낼 법한 것이다.

꿈 작업은 고유명사처럼 몹시 다루기 힘든 재료도 아주 동떨어진 관련을 억지로 끌어다 써서 표현해 내는 일이 많다. 내 꿈 가운데 하나에서는 나이 든 브뤼케가 내게 과제를 하나 주었다. 나는 표본을 하나 만들고, 거기서 구겨진 주석박처럼 보이는 무언가를 걷어 낸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 더 이야기하겠다.) 여기에 대응하는 생각은 찾아내기가 쉽지 않았는데, 그것은 「stanniol」〔주석박〕이다. 이제 나는 내가 저자 슈탄니우스(Stannius)의 이름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을 안다. 젊은 시절 내가 경외심을 품고 바라보던, 어류의 신경계에 관한 논문에 붙어 있던 이름이다. 스승이 내게 맡긴 첫 학문적 과제도 실제로 어떤 물고기,

곧 Ammocœtes〔칠성장어의 유생〕의 신경계에 관한 것이었다. 이 뒤의 이름이 그림 수수께끼에는 결코 쓰일 수 없었으리라는 것은 분명하다.

여기서 내용이 기묘한 꿈 하나를 빠뜨리지 않고 끼워 넣겠다. 어린아이의 꿈으로서도 눈여겨볼 만하고, 분석으로 아주 쉽게 풀리는 꿈이다. 한 부인이 이야기한다. 「어렸을 때 하느님이 머리에 뾰족한 종이 모자를 쓰고 계신 꿈을 여러 번 꾼 기억이 나요. 식탁에서 사람들이 제게 그런 모자를 아주 자주 씌웠어요. 다른 아이들 접시를 보고 그 애들이 어떤 음식을 얼마나 받았는지 알지 못하게 하려고요. 하느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고 배웠으니, 그 꿈은 억지로 씌워진 모자에도 불구하고 제가 모든 것을 안다는 뜻이에요.」

꿈 작업이 무엇으로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꿈 작업이 자기 재료인 꿈 사고를 어떻게 다루는지는 꿈에 나오는 숫자와 계산에서 아주 교훈적으로 드러난다. 게다가 미신은 꿈속의 숫자에 유난히 큰 의미를 둔다. 그러니 내가 모은 것 가운데서 이런 종류의 예를 몇 가지 더 들겠다.

1. 다음은 치료가 끝나기 조금 전에 한 부인이 꾼 꿈에서 따온 것이다.

그녀는 무언가 값을 치르려 한다. 딸이 그녀의 지갑에서 3플로린 65크로이처를 꺼낸다. 그러나 어머니는 말한다. 「뭐 하는 거니? 21크로이처밖에 안 하는데.」 꿈꾼 사람의 사정을 알고 있던 나는 더 설명을 듣지 않고도 꿈의 이 토막을 곧바로 알아들었다. 이 부인은 외국인으로, 딸을 빈의 한 교육 기관에 맡겨 두었고, 딸이 이 도시에 머무는 동안에는 내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었다. 세 주 뒤면 딸의 학년이 끝나고, 그와 함께 치료도 끝날 참이었다. 꿈을 꾸기 전날 그 기관의 교장이 그녀에게, 아이를 한 해 더 자기네에게 맡기기로 마음을 정하라고 권했다. 그러자 그녀는 이 제안을 곰곰이 따져 보다가, 그렇게

되면 자기도 치료를 한 해 더 받을 수 있겠다는 결론에 이르렀던 것이 분명하다. 꿈이 가리키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한 해는 365일이고, 학년과 치료가 끝나기까지 남은 세 주는 21일에 해당하기 때문이다(치료 시간이 그만큼 많지는 않지만). 꿈 사고에서 시간을 가리키던 숫자들이 꿈에서는 돈의 값을 얻는다. 「시간은 돈이다」라는 말도 있으니, 여기에는 더 깊은 뜻도 함께 표현되어 있는 셈이다. 365크로이처는 물론 3플로린 65크로이처다. 꿈에 나오는 금액이 적은 것은 뻔한 소원 성취다. 소원이 치료비와 그 기관의 한 해 수업료를 둘 다 깎아 준 것이다.

II. 다른 꿈에서는 숫자들이 더 복잡한 관계를 맺고 있다. 젊은 부인 하나가 — 결혼한 지는 벌써 여러 해가 되었지만 — 자기와 나이가 비슷한 아는 사람 엘시 L.이 막 약혼했다는 소식을 듣는다. 그러고는 이런 꿈을 꾼다. 그녀는 남편과 함께 극장에 앉아 있는데, 아래층 객석 한쪽이 완전히 비어 있다. 남편이 그녀에게 하는 말이, 엘시 L.과 그 남편도 오고 싶어 했지만 나쁜 자리밖에 구할 수 없었는데 세 자리에 1플로린 50크로이처였고, 물론 그런 자리를 살 수는 없었다고 한다. 그녀는 그들이 놓친 것도 별로 없다고 생각한다.

1플로린 50크로이처는 어디서 왔을까? 전날 있었던, 정말로 사소한 일에서 왔다. 꿈꾼 사람의 시누이가 남편에게서 150플로린을 선물로 받았는데, 장신구를 사느라 그 돈을 서둘러 써 버렸다. 150플로린이 1플로린 50크로이처의 100배라는 점을 눈여겨 두자. 극장 좌석 앞에 붙은 3은 어디서 왔을까? 이에 대해 떠오르는 연상은 단 하나, 신부가 자기보다 그만큼 — 석 달 — 어리다는 것이다. 아래층 객석 한쪽이 빈 채로 있다는 특징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게 되자 꿈이 풀린다. 이 특징은 남편이 그녀를 놀릴 좋은 구실이 되었던 작은 일을 위장 없이 암시한다. 그녀는 그 주에 극장에 가기로 하고 며칠 전에 신경 써서 표를 미리 사 두었는데, 그러느라 예매 수수료를 물어야 했다. 극장에 가 보니 객석

한쪽이 거의 비어 있었다. 그녀는 정말이지 그렇게 서두를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이제 꿈 대신 꿈 사고를 놓아 보겠다. 「그렇게 일찍 결혼한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이었어. 내가 그렇게 서두를 필요는 전혀 없었어. 엘시 L.을 보니 알겠어. 기다리기만 했으면(시누이의 성급함과 대조) 나도 남편은 어차피 얻었을 거야. 그것도 백 배는 나은 남편(남편, 애인, 보물)을. 그 돈이면(지참금!) 그런 남자를 셋은 살 수 있었을 텐데.」 이 꿈에서는 숫자들의 의미와 관계가 앞에서 살펴본 꿈에서보다 훨씬 크게 바뀌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이 경우에는 꿈 작업의 변형과 왜곡이 더 컸던 것인데, 우리는 이것을 이 꿈 사고가 표현되기까지 유난히 큰 내적인 심리적 저항을 이겨 내야 했다는 뜻으로 해석한다. 이 꿈에 부조리한 요소, 곧 두 사람이 세 자리를 산다는 요소가 들어 있다는 사정도 놓쳐서는 안 된다. 꿈 내용의 이 부조리한 세부가 꿈 사고에서 가장 강하게 강조된 세부, 곧 「그렇게 일찍 결혼한 건 말도 안 되는 짓이었어」를 표현하려 한다고 말하면, 우리는 꿈의 부조리를 해석하는 쪽으로 잠시 옆길로 새는 셈이다. 비교되는 두 사람 사이의 아주 부차적인 관계(석 달의 나이 차)에 속하는 숫자 3은 이렇게 해서 꿈이 요구하는 무의미를 만들어 내는 데 교묘하게 쓰였다. 실제의 150플로린이 1플로린 50크로이처로 줄어든 것은, 꿈꾼 사람의 억제된 생각 속에서 그녀가 남편을 업신여긴다는 것에 해당한다.

III. 또 다른 예는 꿈의 계산 능력을 보여 주는데, 꿈이 이토록 평판을 잃은 것도 바로 이 능력 때문이다. 한 남자가 꿈을 꾼다. 그는 B——네 집에 (예전에 알고 지내던 집안이다) 앉아서 말한다. 「에이미를 제게 시집보내지 않으신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러고는 아가씨에게 묻는다. 「몇 살이에요?」 대답: 「1882년에 태어났어요.」 「아, 그럼 28살이군요.」

이 꿈을 꾼 것은 1898년이니 이것은 분명 서툰 계산이다.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면, 꿈꾼 사람의 이 계산 능력 부족은 마비 환자의 그것에 견줄 만하다. 내 환자는 눈에 띄는 여자마다 줄곧 생각하는 부류의 사람이었다. 몇 달 동안 내 진료실에서 규칙적으로 그의 다음 차례였던 사람은 젊은 아가씨였는데, 그는 그녀와 마주치곤 했고, 그녀에 대해 자주 물었으며, 그녀에게 무척 예의 바르게 굴고 싶어 했다. 그가 28세로 짐작한 것이 바로 이 아가씨의 나이였다. 겉보기 계산의 결과는 이것으로 설명된다. 그런데 1882년은 그가 결혼한 해였다. 그는 우리 집에서 만난 두 여자, 곧 번갈아 그에게 문을 열어 주던, 결코 젊다고는 할 수 없는 두 아가씨에게 말을 걸지 않고는 배기지 못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별로 살갑게 응해 주지 않자, 그는 아마 그들이 자기를 나이 지긋한 「자리 잡은」 신사로 여기는 모양이라고 스스로 설명을 붙였다.

IV. 결정, 아니 오히려 중층 결정이 뚜렷해서 눈에 띄는 또 하나의 숫자 꿈을 그 해석과 함께 B. 다트너에게서 얻었다.

내 집주인은 시청 소속 경찰관인데, 거리의 자기 초소에 서 있는 꿈을 꾸었다. 이것은 소원 실현이었다. 그때 경감이 그에게 다가왔는데, 경감의 목가리개에는 22와 62, 또는 26이라는 숫자가 붙어 있었다. 어쨌든 거기에는 2가 여럿 있었다. 꿈을 재현하면서 2262라는 숫자를 나누었다는 것부터가 그 구성 요소들이 저마다 따로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곧바로 가리킨다. 그는 전날 근무 중에 동료들과 복무 기간을 두고 이야기를 나누었던 일이 떠오른다. 그 계기는 62세에 연금을 받고 물러난 한 경감이었다. 꿈꾼 사람은 겨우 22년을 복무했을 뿐이어서, 90퍼센트 연금을 받을 자격을 얻으려면 아직 2년 2개월이 더 필요했다. 꿈은 먼저 그에게 오래 바라 온 소원의 성취, 곧 경감 계급을 보여 준다. 옷깃에 2262를 단 상관은 바로 그 자신이다. 그는 거리에서 성실하게 근무하는데, 이것도 그가 즐겨 품는 또 하나의 소원이다. 그는 2년

2개월을 다 채웠으므로, 이제 62세의 그 경감처럼 연금을 전액 받고 퇴직할 수 있다.

이 예들과 (뒤에 나올) 비슷한 예들을 염두에 두면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꿈 작업은 옳게든 그르게든 도무지 계산을 하지 않는다. 꿈 작업은 꿈 사고에 나오는 숫자, 표현될 수 없는 재료를 암시하는 구실을 할 수 있는 숫자를 계산의 형태로 이어 붙일 뿐이다. 이렇게 꿈 작업은, 낱말 표상으로 알려진 이름과 말을 이용할 때와 똑같이, 숫자를 자기 의도를 표현하는 재료로 이용한다.

꿈 작업은 새로운 말을 지어낼 수 없기 때문이다. 꿈에 말과 대답이 아무리 많이 나오더라도, 그리고 그것들이 그 자체로는 이치에 맞든 부조리하든, 이럴 때 분석은 언제나 꿈이 꿈 사고에서 실제로 했거나 들은 말의 조각들을 가져다가 더없이 제멋대로 다루었을 뿐이라는 것을 보여 준다. 꿈은 그 조각들을 맥락에서 떼어 내 토막 내고, 한 토막은 받아들이고 다른 토막은 내버렸을 뿐 아니라, 새로 이어 붙이기까지 했다. 그래서 꿈속에서는 조리 있어 보이던 말이 분석해 보면 서너 토막으로 갈라진다. 꿈은 낱말들을 이렇게 새로 쓰면서 그 낱말들이 꿈 사고 속에서 지녔던 의미를 흔히 제쳐 두고, 거기서 전혀 새로운 의미를 끌어냈다.[34]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꿈속의 말에서 비교적 뚜렷하고 촘촘한 구성 요소를 이음매 구실을 하는 다른 요소와 가려낼 수 있다. 이음매 요소들은 아마 우리가 글을 읽으면서 빠진 글자나 음절을 채워 넣듯이 보충된 것이다. 그러므로 꿈속의 말은 각력암의 구조를 지닌다. 여러 가지 재료로 된 커다란 덩어리들이 굳어진 접합물로 한데 붙어 있는 것이다.

물론 아주 엄밀하게 말하면, 이 서술은 꿈속의 말 가운데 말로서의 감각적 성격을 얼마간 지녀서 「 말 」 이라고 묘사되는 것에만 들어맞는다. 그 밖의 말, 말하자면 듣거나 말한 것처럼 느껴지지 않은 말

(꿈속에서 청각적 강조나 운동적 강조가 따르지 않는 말)은 깨어 있을 때의 사고 활동에서 떠오르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생각일 뿐이며, 많은 꿈에 바뀌지 않은 채 옮겨진다. 우리가 읽는 것도 말의 재료를 풍부하게 대 주는 원천인 듯한데, 이 원천은 쉽게 추적되지 않으며 재료도 사소한 성질의 것이다. 그러나 꿈속에서 말로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든 꿈꾼 사람 자신이 실제로 했거나 들은 말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이런 꿈속의 말을 설명해 주는 예는 다른 목적으로 인용한 꿈들을 분석하면서 이미 보았다. 여기서는 모두 같은 결론으로 이끄는 많은 예 대신 하나만 들겠다.

시체를 화장하는 커다란 안뜰. 꿈꾼 사람이 말한다. 「난 여기서 떠날 거야. 이건 못 보겠어.」 (뚜렷한 말은 아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푸줏간 소년 둘을 만나 묻는다. 「그래, 맛있었니?」 한 소년이 대답한다. 「아뇨, 맛없었어요.」 마치 그것이 사람 고기였다는 듯이.

이 꿈의 무해한 계기는 다음과 같다. 꿈꾼 사람은 아내와 저녁을 먹고 나서, 훌륭하지만 결코 입맛을 돋우지는 않는 이웃 부인을 찾아간다. 손님 대접을 좋아하는 이 노부인은 마침 저녁 식사 중인데, 그에게 맛을 보라고 조른다(남자들끼리는 이 낱말 대신 성적인 뜻을 지닌 합성어를 농담 삼아 쓴다). 그는 입맛이 없다며 사양한다. 「어서요, 좀 더 드실 수 있잖아요」 하는 식의 말이 돌아온다. 그래서 꿈꾼 사람은 내놓은 음식을 억지로 맛보고 칭찬해야 한다. 「아, 이거 맛있네요!」 다시 아내와 단둘이 되자, 그는 이웃 부인의 성가신 강요와 자기가 맛본 음식의 질을 두고 투덜댄다. 꿈에서도 실제의 말로는 나타나지 않는 「그건 눈 뜨고 못 봐주겠어」는 자기를 초대한 부인의 신체적 매력과 관련된 생각이며, 그녀를 보고 싶지 않다는 뜻으로 옮길 수 있을 것이다.

다른 꿈 하나의 분석은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줄 것이다. 이 꿈을 여기서 드는 것은 그 핵을 이루는 아주 뚜렷한 말 때문이지만, 해명은 꿈속의 정동을 다룰 때에야 하려 한다. 나는 아주 또렷하게 꿈을 꾼다. 나는 밤에 브뤼케의 실험실에 가 있다가, 문을 가만히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작고한) 플라이슐 교수에게 문을 열어 준다. 그는 낯선 사람 여럿과 함께 들어와 몇 마디 하고는 자기 책상에 앉는다. 이어서 두 번째 꿈이 나온다. 내 친구 Fl.이 7월에 남의 눈에 별로 띄지 않게 빈에 와 있다. 나는 길에서 그를 만나는데, 그는 내 (작고한) 친구 P.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나는 이 두 사람과 함께 어딘가로 가고, 두 사람은 작은 탁자에라도 앉은 듯이 서로 마주 보고 앉으며, 나는 탁자의 좁은 쪽 끝에 두 사람을 마주하고 앉는다. Fl.은 자기 누이 이야기를 하며 말한다. 「45분 만에 누이는 죽었어.」 그러고는 「그게 문턱이야」 같은 말을 한다. P.가 그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자, Fl.은 내 쪽으로 몸을 돌려 자기 일을 내가 얼마나 이야기했느냐고 묻는다. 그러자 나는 묘한 정동에 사로잡혀, P.는 (아무것도 알 리가 없다, 왜냐하면 그는) 살아 있지 않다고 Fl.에게 말하려 한다. 그러나 나 스스로 잘못을 알아차리고 이렇게 말한다. 「Non vixit〔그는 살지 않았다〕.」 그러고 나서 나는 P.를 뚫어지게 바라보는데, 내 시선을 받자 그는 창백하고 흐릿해지며, 그의 눈은 병적인 푸른빛이 된다 — 그리고 마침내 그는 녹아 없어진다. 나는 이것이 몹시 기쁘다. 이제 나는 에른스트 플라이슐도 한낱 환영, 곧 revenant〔돌아온 망령〕에 지나지 않았음을 깨닫고, 그런 사람은 누군가 원하는 동안만 존재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의 소원으로 사라지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여긴다.

이 아름다운 꿈에는 꿈 내용의 까다로운 특성이 참으로 많이 한데 모여 있다. 꿈 자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비판, 곧 「Non vivit〔그는 살아 있지 않다〕」 대신 「Non vixit」라고 말한 잘못을 나 스스로 알아차린다는 것, 꿈 스스로 죽었다고 밝히는 죽은 이들과 스스럼없이 어울린다는 것, 그리고 추론의 부조리함과 그 추론이 내게 주는 강렬한

충족감이 그렇다. 그러니 「목숨을 걸고서라도」 이 문제들을 남김없이 풀어 보이고 싶은 마음이다. 그러나 실제로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꿈속에서 내가 하는 일, 곧 그토록 소중한 사람들을 내 야심의 제물로 바치는 일을 현실에서는 해낼 수 없는 것이다. 내가 잘 알고 있는 이 꿈의 참뜻을 하나하나 드러낼 때마다 나는 망신을 당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꿈의 요소 가운데 몇 가지만 골라 해석하는 데 만족하려 한다. 일부는 여기서, 나머지는 뒤에 다른 곳에서.

내가 눈길 한 번으로 P.를 소멸시키는 장면이 꿈의 중심을 이룬다. 그의 눈이 기이하고 섬뜩하게 푸르러지고, 그러고 나서 그는 녹아 없어진다. 이 장면은 실제로 겪은 장면을 틀림없이 본뜬 것이다. 나는 생리학 연구소의 실습 조교였고 이른 시간에 근무를 시작했는데, 브뤼케가 내가 학생 실습실에 몇 번 늦게 나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어느 날 아침 그는 실습이 시작되는 시각에 맞춰 와서 나를 기다렸다. 그가 내게 한 말은 짧고 요점만 짚었다. 그러나 말은 전혀 중요하지 않았다. 나를 압도한 것은 나를 바라보던 그 무시무시한 푸른 눈이었고, 나는 그 눈앞에서 녹아 버렸다 — 꿈속의 P.처럼. 꿈에서는 P.가 그와 역할을 바꾸었으니, 내게는 퍽 다행한 일이다. 늙어서까지 놀랄 만큼 아름다웠던 이 위대한 스승의 눈을 기억하는 사람, 그리고 그가 화내는 모습을 한 번이라도 본 사람이라면, 그때 젊은 죄인이 느꼈을 감정을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꿈속에서 내가 판결을 집행하는 말인 「Non Vixit」는 오랫동안 설명할 수 없었다. 그러다가 이 두 낱말이 꿈속에서 그토록 뚜렷했던 것은 들리거나 말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보였기 때문이라는 것이 생각났다. 그러자 그 말이 어디서 왔는지 곧바로 알았다. 빈의 호프부르크에 있는 요제프 황제 동상의 받침대에서 다음과 같은 아름다운 말을 읽을 수 있다.

Saluti patriae vixit〔조국의 안녕을 위해 살았다〕

non diu sed totus.〔오래는 아니었으나 온전히〕

나는 이 비문에서 꿈 사고 속의 적대적인 생각의 흐름 하나에 들어맞는 것을 따왔는데, 그것은 이제 이런 뜻이 되었다. 「그 녀석은 할 말이 없어. 아예 살아 있지도 않으니까.」 그리고 이제야 생각났는데, 이 꿈을 꾼 것은 대학 회랑에서 플라이슐의 기념물 제막식이 있고 며칠 뒤였다. 그 자리에서 나는 브뤼케의 동상을 다시 보았고, 재능이 뛰어나고 학문에 크게 헌신한 내 친구 P.가 너무 일찍 죽는 바람에 이 전당에 동상으로 설 정당한 권리를 잃었다는 것을 (무의식 속에서) 틀림없이 안타까워했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꿈속에서 그에게 이 기념물을 세워 준 것이다. 내 친구 P.의 이름은 요제프다.[35]

꿈 해석의 규칙에 따르면, 내게 필요한 non vivit를 요제프 기념상의 기억이 내어 준 non vixit로 바꿔 놓을 자격이 나에게는 아직 없다. 이제 한 가지 사실이 눈에 들어온다. 꿈의 이 장면에서는 친구 P.에 관한 두 생각의 흐름이 만나는데, 하나는 적대적이고 다른 하나는 우호적이며, 앞의 것은 겉에 드러나 있고 뒤의 것은 가려져 있다. 그리고 둘 다 같은 말, 곧 non vixit로 표현된다. 친구 P.는 학문에 공이 크므로 나는 그에게 동상을 세워 준다. 그러나 그는 나쁜 소원을 품은 죄가 있으므로(이 소원은 꿈의 끝에서 표현된다) 나는 그를 없애 버린다. 나는 여기서 독특한 울림을 지닌 문장을 하나 지었는데, 틀림없이 어떤 본보기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와 비슷한 대조, 곧 같은 사람을 향한 서로 반대되는 두 태도가 둘 다 온전히 정당하다고 주장하면서도 서로 침범하지 않으려 하는 이런 대구(對句)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이런 대구는 단 한 곳에서만 찾을 수 있지만, 그곳은 읽는 사람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다. 셰익스피어의 『줄리어스 시저』에서 브루투스가 자신을 정당화하는 연설이다. 「카이사르가 나를 사랑했기에 나는 그를

위해 우노라. 그가 행운을 누렸기에 나는 그것을 기뻐하노라. 그가 용맹했기에 나는 그를 기리노라. 그러나 그가 야심을 품었기에 나는 그를 죽였노라.」 내가 찾아낸 이것은 꿈 사고에서와 똑같은 문장 구조, 똑같은 사고의 대조가 아닌가? 그러니까 나는 꿈속에서 브루투스를 연기하는 셈이다. 이 놀라운 곁가지 연결을 확인해 줄 흔적을 꿈 사고에서 하나만 더 찾을 수 있다면! 다음이 그런 흔적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내 친구가 7월에 빈에 온다. 이 세부는 현실에서 아무런 근거도 찾을 수 없다. 내가 아는 한 내 친구는 7월에 빈에 온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러나 7월 〔July〕 은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이름을 딴 달이므로, 내가 브루투스 역을 하고 있다는 중간 사고를 암시하는 데 필요한 것을 충분히 대 줄 수 있을 것이다.[36]

참 이상하게도 나는 실제로 브루투스 역을 한 적이 있다. 열네 살 소년이던 나는 아이들을 관객으로 앉혀 놓고 실러의 시에 나오는 브루투스와 카이사르의 장면을 공연했다. 나보다 한 살 위인 조카와 함께였는데, 그는 영국에서 우리에게 와 있었다 — 그 역시 revenant였다 — 그에게서 나는 내 가장 어린 시절의 놀이 친구를 다시 알아보았기 때문이다. 내가 만 세 살이 될 때까지 우리는 떨어질 줄 모르는 사이로,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치고받았다. 그리고 이미 내비쳤듯이, 이 어린 시절의 관계는 그 뒤로 또래들과 어울릴 때 내가 품는 감정을 줄곧 결정해 왔다. 조카 존은 그 뒤로 여러 화신을 얻었고, 그 화신들은 내 무의식적 기억에 지울 수 없이 새겨진 이 인물의 이 면 저 면을 번갈아 되살려 냈다. 그는 이따금 나를 몹시 못살게 굴었고, 나는 이 폭군 앞에서 용기를 보였던 것이 틀림없다. 아버지가 — 그에게는 할아버지가 — 나를 꾸짖었을 때 내가 나 자신을 변호한 짧은 말을 훗날 여러 번 전해 들었으니 말이다. 「걔가 날 때렸으니까 나도 걔를 때렸어.」 non vivit가 non vixit로 갈라져 나가게 만든 것은

틀림없이 이 어린 시절의 장면이다. 좀 더 자란 아이들의 말로는 때리는 것을 wichsen 〔 빅센 〕 이라고 하기 때문이다(독일어 wichsen은 구두약을 칠하다, 무두질하다, 즉 매질하다라는 뜻). 꿈 작업은 이런 연결을 이용하는 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는다. 현실에는 근거가 거의 없는, 친구 P.에 대한 내 적의는 — 그는 나보다 훨씬 뛰어났고, 그렇기에 어린 시절 놀이 친구의 새로운 판이 될 수도 있었다 — 틀림없이 아주 어렸을 때 존과 맺었던 복잡한 관계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나 이 꿈은 뒤에 다시 다루겠다.

(바) 부조리한 꿈 — 꿈속의 지적 활동

지금까지 꿈을 해석하면서 우리는 꿈 내용에서 부조리라는 요소와 워낙 자주 마주쳤으므로, 그 원인과 의미를 따지는 일을 더는 미룰 수 없다. 물론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꿈 연구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꿈이란 위축되고 조각난 정신 활동이 만들어 낸 의미 없는 산물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았는데, 그 주된 논거를 대 준 것이 바로 꿈의 부조리였다.

나는 꿈 내용의 부조리가 겉보기에만 그럴 뿐, 꿈을 좀 더 철저히 살펴보면 곧바로 사라지는 견본들로 시작하겠다. 꿈꾼 사람의 죽은 아버지를 다루는 꿈이 몇 편 있는데, 처음에는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싶어진다.

I. 다음은 여섯 해 전에 아버지를 여읜 한 환자의 꿈이다.

그의 아버지에게 끔찍한 사고가 일어났다. 아버지는 야간열차를 타고 가다가 탈선 사고를 당했는데, 좌석들이 서로 맞붙으면서 그의 머리가 양옆으로 짓눌렸다. 꿈꾼 사람은 아버지가 침대에 누워 있는 것을 보는데, 왼쪽 눈썹 위에 상처가 세로로 뻗어 있다. 꿈꾼 사람은 아버지가 불행을 당했다는 데 놀란다

(아버지는 이미 죽었으니까, 하고 꿈꾼 사람은 꿈 이야기를 하면서 덧붙인다). 아버지의 눈이 너무도 맑다.

꿈 비판에서 통용되는 기준대로라면 이 꿈 내용은 다음과 같이 설명해야 할 것이다. 처음에 꿈꾼 사람은 아버지의 불행을 그려 보는 동안 아버지가 이미 여러 해 전에 무덤에 들어갔다는 것을 잊고 있다. 꿈이 더 진행되면서 이 기억이 되살아나, 그는 아직 꿈을 꾸는 중인데도 자기 꿈에 놀라게 된다. 그러나 분석은 이런 설명을 시도하는 것이 전혀 쓸모없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 꿈꾼 사람은 한 예술가에게 아버지의 흉상을 주문해 두었고, 꿈꾸기 이틀 전에 그것을 살펴보았다. 그에게 사고를 당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 바로 이 흉상이다. 조각가는 그의 아버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건네받은 사진들을 보며 작업하고 있다. 바로 꿈 전날, 효성스러운 아들은 집안의 늙은 하인을 작업실로 보냈다. 하인도 그 대리석 두상을 두고 자기와 같은 판단을, 곧 두상이 관자놀이에서 관자놀이까지 양옆으로 너무 좁게 나왔다는 판단을 내리는지 알아보려는 것이었다. 이제 이 꿈의 형성에 한몫한 기억들이 무더기로 뒤따른다. 꿈꾼 사람의 아버지에게는 사업 걱정이나 집안의 어려움에 시달릴 때마다 두 손으로 관자놀이를 누르는 버릇이 있었다. 마치 자기에게는 너무 커져 버린 듯한 머리를 눌러 줄이려는 것 같았다. 우리의 꿈꾼 사람은 네 살 때, 권총이 잘못 발사되어 아버지의 두 눈이 시커멓게 그을리는 자리에 있었다(그의 눈이 너무도 맑다). 살아 있을 때 아버지는 생각에 잠기거나 슬플 때면, 꿈이 다친 자리를 보여 주는 바로 그곳에 깊은 주름이 졌다. 꿈에서 이 주름이 상처로 바뀌어 있다는 사실은 꿈의 두 번째 계기를 가리킨다. 꿈꾼 사람은 어린 딸의 사진을 찍었는데, 건판이 손에서 떨어졌고, 주워 보니 금이 가 있었다. 그 금은 세로 고랑처럼 이마를 가로질러 눈두덩의 곡선에까지 이르러 있었다. 그때 그는 미신적인 예감을 떨쳐 버릴 수가 없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기 전날, 어머니의 모습이 담긴 사진 건판이 그의 손안에서 금이 간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 꿈의 부조리는 말로 나타내는 방식이 부정확한 데서 나온 결과일 뿐이다. 그런 말투는 흉상이나 사진을 원래의 인물과 굳이 구별하려 들지 않는다. 우리는 누구나 그림을 두고 「아버지 잘 나오지 않았어?」 하고 말하곤 한다. 물론 이 꿈에서 부조리해 보이는 겉모습은 쉽게 피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단 한 번의 경험을 두고 판단을 내려도 된다면, 이 부조리의 외양은 허용된 것이거나 바라던 것이라고 말하고 싶어질 것이다.

II. 다음은 내 꿈 가운데서 가져온, 아주 비슷한 또 하나의 예다(나는 1896년에 아버지를 여의었다).

내 아버지는 죽은 뒤에 마자르인들 사이에서 정치 활동을 해 왔고, 그들을 하나로 뭉쳐 정치 단체를 만들었다. 여기에 곁들여 나는 작고 흐릿한 영상 하나를 본다. 의회에서처럼 모여 있는 사람들의 무리. 긴 의자 하나나 둘 위에 서 있는 사람 하나와 그를 둘러싼 다른 사람들. 나는 그가 임종 때 가리발디를 무척 닮아 보였던 것을 기억하고, 이 약속이 정말로 이루어진 것이 기쁘다.

이것은 분명 부조리하기 짝이 없다. 이 꿈을 꾼 것은 헝가리인들이 의회의 의사 방해〔obstruction〕로 무법 상태에 빠졌다가, 칼만 셀이 그들을 구해 낸 그 위기를 겪고 있던 무렵이었다. 꿈에서 본 장면이 그렇게 작은 영상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소한 사정도 이 요소를 설명하는 데 의미가 없지 않다. 우리의 생각을 보통 시각적으로 표현하면 실물 크기로 느껴지는 영상이 나온다. 그러나 내 꿈 영상은 삽화가 든 오스트리아 역사책의 본문에 끼워 넣은 목판화 한 점을 재현한 것으로, 프레스부르크 의회의 마리아 테레지아를, 곧 「Moriamur pro rege nostro〔우리의 왕을 위해 죽자〕」의 그 유명한 장면을 담은 판화다.[37] 마리아 테레지아처럼 꿈속의 내 아버지도

군중에게 둘러싸여 서 있다. 그러나 그는 긴 의자〔bench〕 하나나 둘 위에 서 있으니, 재판석〔bench〕의 재판관과 같다. (그가 그들을 하나로 뭉쳤다 — 여기서 중간 다리가 되는 것은 「우리에게는 재판관이 필요 없을 것이다」라는 말이다.) 아버지의 임종 자리를 둘러싸고 서 있던 우리는 실제로 그가 가리발디를 많이 닮아 보인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는 사후(死後)에 체온이 올라서 두 뺨이 점점 더 붉게 빛났다…… 우리는 저도 모르게 이렇게 잇게 된다. 「그리고 그의 뒤에는 허깨비 같은 광채 속에, 우리 모두를 굴복시키는 것 — 저 비속한 것이 놓여 있었다.」

생각이 이렇게 드높아지고 나면 우리는 바로 이 「비속한 것」을 다루어야 할 채비를 하게 된다. 체온 상승이 사후의 일이었다는 특징은 꿈 내용의 「죽은 뒤에」라는 말에 대응한다. 아버지가 겪은 고통 가운데 가장 괴로운 것은 마지막 몇 주 동안 찾아온 장의 완전한 마비(폐색〔obstruction〕)였다. 여기에는 온갖 불경한 생각이 이어져 있다. 나와 동갑인 한 남자는 아직 김나지움에 다닐 때 아버지를 여의었는데, 그때 나는 깊이 마음이 움직여 그에게 우정을 청했다. 그가 언젠가 비웃으며 한 친척 부인의 괴로움을 이야기해 준 적이 있다. 그 부인의 아버지는 길에서 죽어 집으로 옮겨졌는데, 시신의 옷을 벗겨 보니 죽는 순간에, 또는 사후에 배변이 있었다는 것이다. 죽은 이의 딸은 이 추한 세부가 아버지에 대한 자기 기억을 더럽힌다는 것이 몹시 불행했다. 이제 우리는 이 꿈에 구현된 소원까지 파고들어 왔다. 죽은 뒤에 자기 아이들 앞에 깨끗하고 위대하게 서는 것, 누가 그것을 바라지 않겠는가? 꿈의 부조리는 어떻게 되었는가? 그 겉모습은 오로지, 전적으로 허용되는 말투 하나가 꿈에 충실하게 표현되었기 때문에 생겼을 뿐이다. 우리는 그런 말투를 쓸 때 그 부분들 사이에 어쩌다 존재하는 부조리를

무시하는 데 익숙하다. 여기서도 우리는 이 부조리의 외양이 바라던 것이며 일부러 빚어낸 것임을 부정할 수 없다.[38]

III. 이제 인용하는 예에서 나는 꿈 작업이 재료 속에 아무런 계기도 없는 부조리를 일부러 지어내는 현장을 붙잡을 수 있다. 이 예는 휴가 여행을 떠나기 전에 툰 백작을 만난 일로 꾸게 된 꿈에서 가져왔다. 「나는 말 한 필이 끄는 마차를 타고 가며, 기차역으로 몰고 가라고 이른다. 내가 자기를 지치게 하기라도 한 듯 마부가 이의를 달자, 나는 『물론 철도 선로 그 자체 위로는 자네와 함께 타고 갈 수 없네』 하고 말한다. 동시에 나는 보통은 기차를 타고 가는 거리를 이미 그와 함께 달려온 것 같다.」 이 뒤죽박죽이고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분석은 다음과 같이 풀어 준다. 그날 낮에 나는 도른바흐의 외진 거리로 가려고 말 한 필이 끄는 마차를 빌렸다. 그런데 마부는 길을 몰랐고, 그 선량한 사람들이 흔히 그러듯 내가 알아차리고 길을 가르쳐 줄 때까지 마냥 몰고 다녔다. 나는 길을 가르쳐 주면서 비꼬는 말도 몇 마디 아끼지 않았다. 이 마부에게서 생각의 흐름 하나가 내가 나중에 만나게 될 귀족 인사에게로 이어졌다. 지금은 이 말만 해 두겠다. 우리 같은 시민 계급의 평민들 눈에는 귀족이 마부석에 앉기를 좋아한다는 점이 두드러져 보인다. 오스트리아라는 나라의 수레를 모는 것도 툰 백작이 아닌가? 그러나 꿈의 다음 문장은 내 아우를 가리키는데, 나는 아우를 말 한 필이 끄는 마차의 마부와 동일시한다. 나는 올해 아우와 함께 이탈리아를 여행하기를 거절했는데(「물론 철도 선로 그 자체 위로는 자네와 함께 타고 갈 수 없네」), 이 거절은 아우가 늘 하던 불평에 대한 일종의 벌이었다. 내가 서둘러 이곳저곳을 돌게 하고 하루에 좋은 것을 너무 많이 보게 해서, 이런 여행에서 으레 자기를 지치게 한다는 불평이었다(이 불평은 바뀌지 않은 채 꿈에 들어간다). 그날 저녁 아우는 나를 기차역까지 바래다주었는데, 역에 거의 다 와서 서부역의 국유 철도 구역에서 뛰어내렸다. 푸르커스도르프로 가는

기차를 타려는 것이었다. 나는 아우에게, 푸르커스도르프에 국유 철도가 아니라 서부 철도로 간다면 나와 조금 더 같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말했다. 꿈에서 내가 보통은 기차를 타고 가는 거리를 마차를 타고 간 것은 이렇게 해서다. 그러나 실제로는 정반대였다. 나는 아우에게, 네가 국유 철도로 타고 가는 거리를 나와 함께 서부 철도로 타고 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니 꿈의 혼란은 모두 내가 꿈에 「국유 철도」 대신 「마차」라는 낱말을 끼워 넣은 데서 빚어졌다. 물론 이 낱말은 마부와 내 아우를 한데 묶는 데 톡톡히 쓸모가 있다. 그러고 나서 나는 꿈에서 내 설명으로도 좀처럼 바로잡히지 않는 듯한 무의미를 발견하는데, 이것은 앞서 한 내 말(「물론 철도 선로 그 자체 위로는 자네와 함께 타고 갈 수 없네」)과 거의 모순을 이룬다. 그러나 내게는 국유 철도를 말 한 필이 끄는 마차와 혼동할 까닭이 전혀 없으므로, 나는 꿈속의 이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 전체를 일부러 이렇게 빚어낸 것이 틀림없다.

그렇다면 무슨 의도로? 이제 우리는 꿈속의 부조리가 무엇을 뜻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허용하거나 만들어 낸 동기가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다. 지금 이 경우의 수수께끼는 이렇게 풀린다. 꿈속에서 나는 「타고 가기」(Fahren)와 관련해 부조리하고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가 필요했다. 꿈 사고 속에 표현을 요구하는 어떤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다. 같은 꿈의 다른 장면에 「안주인」으로 나오는, 손님을 후하게 대접하는 총명한 부인의 집에서 어느 저녁 나는 풀지 못한 수수께끼 두 개를 들었다. 모임의 다른 사람들은 답을 알고 있었으므로, 답을 찾으려고 헛되이 애쓰는 나는 좀 우스운 꼴이 되고 말았다. 그것은 「Nachkommen」(뒤따라오다 — 자손)과 「vorfahren」(앞서 타고 가다 — 선조, 조상)이라는 낱말의 두 가지 뜻을 두고 노는 수수께끼 두 개였다. 그 수수께끼는 다음과 같다.

마부가 그것을 하네

주인의 분부를 받들어.

누구나 그것을 가졌고,

무덤 속에서 그것이 잠드네.

(조상.)

둘째 수수께끼의 절반이 첫째 것과 똑같다는 것이 헷갈렸다.

마부가 그것을 하네

주인의 분부를 받들어.

누구나 그것을 가진 것은 아니고,

요람 속에서 그것이 잠드네.

(자손.)

나는 툰 백작이 그토록 위풍당당하게 앞서 타고 가는(vorfahren) 것을 보았고, 귀족 나리들의 공로란 태어나는 수고를 했다(Nachkommen — 자손이 되다)는 데 있다고 보는 피가로의 기분에 젖어 있었다. 그래서 두 수수께끼는 꿈 작업을 위한 중간 사고가 되었다. 귀족은 마부와 쉽게 혼동될 수 있고, 또 우리 고장에서는 예전에 마부를 매부〔brothers-in-law〕라고 불렀으므로, 압축 작업은 내 아우까지 같은 표현 속에 끌어들일 수 있었다. 그러나 배후에서 작용하던 꿈 사고는 이런 것이었다. 조상을 자랑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Vorfahren.) 차라리 나 자신이 조상이 되겠다. (Vorfahr.) 「무의미하다」는 이 판단 때문에 꿈속에 무의미가 들어 있다. 이제 꿈의 이 모호한 대목에 남은 마지막 수수께끼도 풀 수 있다. 곧 내가 이미 앞서 마부와 함께 달려왔다(vorher gefahren, vorgefahren)는 것이다.

그러므로 꿈 사고 속에 「그건 무의미하다」라는 판단이 요소 하나로 들어 있으면, 그리고 대체로 무의식적인 생각의 흐름 가운데 어느 하나에 경멸과 비판이 동기로 작용하면, 꿈은 부조리해진다. 이리하여 부조리는 꿈 작업이 모순을 표현하는 수단 가운데 하나가 된다. 꿈

사고와 꿈 내용 사이에서 재료 속의 관계를 뒤집는 것이나, 운동이 가로막히는 감각을 이용하는 것도 그런 수단이다. 그러나 꿈속의 부조리를 그저 「아니」로 번역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오히려 꿈 사고의 성향을, 곧 모순과 함께 비웃음과 조롱을 드러내려는 성향을 재현하려는 것이다. 꿈 작업이 무언가 우스꽝스러운 것을 만들어 내는 것은 오로지 이 목적을 위해서다. 여기서도 꿈 작업은 잠재 내용의 일부를 외현적 형태로 바꾸어 놓는다.[39]

사실 우리는 부조리한 꿈의 의미를 보여 주는 설득력 있는 예를 이미 만난 적이 있다. 분석 없이 해석한 그 꿈, 곧 바그너 공연이 아침 7시 45분까지 이어지고 탑 위에서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등등의 꿈(이 장 (라) 참조)은 분명 이렇게 말하려는 것이다. 미친 세상이요 광기 어린 사회다. 무언가를 누릴 자격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얻지 못하고, 아무것에도 마음 쓰지 않는 사람이 그것을 가진다 — 그리고 그녀는 이 말로 자기 운명을 사촌의 운명과 견주려 한다. 죽은 아버지에 관한 꿈들이 꿈속 부조리의 예를 가장 먼저 대 주었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부조리한 꿈이 만들어지는 데 필요한 조건들이 여기에 전형적인 방식으로 한데 모여 있다. 아버지에게 속한 권위는 일찍부터 아이의 비판을 불러일으켰고, 아버지가 내세운 엄격한 요구는 아이로 하여금 자기를 변명하려고 아버지의 약점 하나하나에 유난히 날카롭게 주의를 기울이게 만들었다. 그러나 우리 생각 속에서, 특히 아버지가 죽은 뒤에 아버지라는 인물을 감싸는 경건한 마음은, 이 비판이 드러나 의식되지 못하게 막는 검열을 강화한다.

IV. 다음은 죽은 아버지에 관한 또 하나의 부조리한 꿈이다.

나는 고향 도시의 시의회에서 통지서 한 장을 받는데, 1851년에 내가 앓은 발작 때문에 병원에 수용될 수밖에 없었던 일의 비용에 관한 것이다. 나는 이 일을 웃음거리로 삼는다. 첫째로 1851년에 나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고,

둘째로 그 통지서가 해당될 수도 있는 사람인 내 아버지는 이미 죽었기 때문이다. 나는 옆방으로 아버지에게 가는데, 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있다. 나는 아버지에게 이 일을 이야기한다. 놀랍게도 아버지는 그해에 — 1851년에 — 한 번 술에 취해 갇히거나 수용되어야 했던 일을 떠올린다. T—— 상회에서 일할 때였다. 「그럼 아버지도 술을 마셨어?」 하고 나는 묻는다. 「그 뒤에 곧 결혼했어?」 나는 내가 1856년에 태어났다고 셈해 보는데, 그것이 내게는 곧바로 뒤따르는 것처럼 보인다.

앞의 논의에 비추어, 우리는 이 꿈이 자기의 부조리를 끈질기게 내보이는 것을 꿈 사고 속에 유난히 격하고 열띤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확실한 표지로 번역할 것이다. 그런데 그런 만큼 더 놀랍게도, 이 꿈에서는 논쟁이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아버지가 풍자의 과녁이 되는 인물로 지목되어 있다. 이런 공공연함은 꿈 작업에서 검열이 작용한다는 우리의 가정과 모순되는 듯하다. 그러나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 여기서 아버지는 중간에 끼워 넣은 인물일 뿐이고, 싸움은 다른 사람과 벌어지고 있으며, 그 사람은 단 한 번의 암시를 통해 꿈에 모습을 드러낸다. 꿈은 대개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반항을 다루고 그 뒤에 아버지가 숨어 있는데, 여기서는 그 반대다. 아버지가 다른 사람들을 나타내는 허수아비 노릇을 한다. 그래서 꿈은 평소에는 신성시되는 인물을 이처럼 공공연히 다룰 엄두를 낸다. 실제로 겨냥하는 것이 그가 아니라는 확실한 앎이 거기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사정은 꿈의 계기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이 꿈을 꾼 것은, 판단이 틀림없다고 여겨지는 한 선배 동료가, 내 환자 하나가 그때 다섯 해째 나와 정신분석 작업을 이어 가고 있다는 사실에 못마땅함과 놀라움을 드러냈다는 말을 들은 뒤였다. 꿈의 첫머리 문장들은 이 동료가 한때 내 아버지가 더는 해낼 수 없던 의무를 떠맡았다는 사실(경비, 병원비)을 속이 훤히 비치는 위장으로 가리킨다. 그리고 우리의 우정이 깨지게 되었을 때 나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오해가 생길 때 아버지가 맡아 온 역할과 그가 예전에 해 온 일 때문에 일어나는 것과 똑같은 감정의 갈등에 빠졌다. 이제 꿈 사고는 내가 더 진척을 보지 못한다는 비난에 몹시 분개하는데, 이 비난은 이 환자의 치료에서 다른 일들로까지 번져 나간다. 이 동료는 더 빨리 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도 안단 말인가? 이런 종류의 상태는 대개 고칠 수 없고 평생 간다는 것을 그는 모른단 말인가? 평생에 비하면 네댓 해가 무엇인가? 더구나 치료를 받는 동안 환자의 삶이 그토록 한결 수월해졌는데 말이다.

이 꿈이 주는 부조리의 인상은 대체로, 꿈 사고의 서로 다른 부분에서 온 문장들이 이어 주는 연결 없이 줄줄이 꿰어져 있다는 데서 생긴다. 이를테면 나는 옆방으로 아버지에게 가는데, 운운 하는 문장은 앞의 문장들이 다루던 주제를 떠나, 내가 아버지에게 약혼 사실을 알렸을 때의 정황을 충실하게 재현한다. 그러니 꿈은 그때 노인이 보여 준 고결한 사심 없음을 내게 일깨우고, 그것을 다른 사람, 곧 새로 등장한 한 사람의 처신과 대비하려 한다. 이제 나는 꿈이 내 아버지를 웃음거리로 삼아도 되는 까닭을 알겠다. 꿈 사고 속에서 아버지는 그 공로를 온전히 인정받으며 다른 사람에게 본보기로 내세워지기 때문이다. 금지된 것에 관해서는 진실보다 오히려 거짓을 말하도록 허락하는 것이 모든 검열의 본성이다. 다음 문장, 곧 아버지가 한 번 술에 취했고 그 때문에 갇혔던 일을 기억해 내는 문장도 실제로 내 아버지에게 들어맞는 것은 아무것도 담고 있지 않다. 여기서 아버지가 가려 주는 인물은 다름 아닌 위대한 마이네르트다. 나는 크나큰 존경심을 품고 그의 발자취를 따랐지만, 나를 대하는 그의 태도는 잠시 너그럽더니 이내 노골적인 적대로 바뀌었다. 꿈은 그가 젊은 시절 클로로포름에 중독되어 그 때문에 요양원에 들어가야 했다고 스스로 한 말을 내게 떠올리게 한다. 꿈은 또 그가 죽기 얼마 전에 그와 겪은 두 번째 일도

떠올리게 한다. 나는 남성의 히스테리를 두고 그와 격렬한 지상 논쟁을 벌였는데, 그는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부정했다. 그런데 내가 마지막 병상에 누운 그를 찾아가 몸이 어떠냐고 묻자, 그는 자기 상태를 자세히 늘어놓더니 이런 말로 끝맺었다. 「 아시다시피 나는 언제나 남성 히스테리의 가장 멋진 증례 가운데 하나였지요. 」 이리하여 그는, 나로서는 흐뭇하게도, 그리고 놀랍게도, 그토록 오랫동안 그토록 완강하게 반대하던 것을 인정했다. 그러나 이 장면에서 내가 아버지로 마이네르트를 가릴 수 있다는 것은 두 사람 사이에 있다고 밝혀진 유사성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꿈 사고에 나오는 한 조건문을 간략하지만 넉넉하게 표현한 데 근거한다. 그 조건문을 온전히 적으면 다음과 같다. 「 물론 내가 둘째 세대라면, 곧 교수나 궁정 고문관의 아들이라면, 나는 더 빨리 진척했을 것이다. 」 꿈에서 나는 이제 내 아버지를 궁정 고문관이자 교수로 만든다. 이 꿈에서 가장 눈에 띄고 가장 성가신 부조리는 1851년이라는 연도를 다루는 방식에 있다. 1851년은 내게 1856년과 거의 구별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마치 다섯 해의 차이는 아무 의미도 없다는 듯하다. 그러나 표현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꿈 사고의 이 생각이다. 네댓 해 — 그것은 내가 처음에 말한 그 동료의 후원을 누린 기간이다. 그러나 그것은 또 내가 결혼하기 전에 신부를 기다리게 한 기간이기도 하고, 꿈 사고가 반갑게 붙잡는 우연의 일치로, 지금 내가 가장 좋은 환자 하나에게 치료를 끝내 주지 못한 채 기다리게 하고 있는 기간이기도 하다. 「다섯 해가 뭐란 말인가?」 하고 꿈 사고는 묻는다. 「내게 그건 시간이랄 것도 없다 — 셈에 넣을 것도 못 된다. 내 앞에는 시간이 넉넉하다. 당신이 믿으려 하지 않던 것이 끝내 사실이 되었듯이, 나는 이 일도 해낼 것이다.」 게다가 51이라는 수는 세기의 수에서 떼어 놓고 보면 또 다른 방식으로, 그것도 반대의 뜻으로 결정되어 있다. 그 때문에 이 수는 꿈에 되풀이해 나온다. 쉰한 살은

남자가 특히 위험에 노출되는 듯한 나이로, 나는 동료 여럿이 이 나이에 갑자기 죽는 것을 보았다. 그 가운데에는 오래 기다린 끝에 불과 며칠 전 교수로 임명된 사람도 있었다.

V. 숫자를 가지고 노는 또 하나의 부조리한 꿈은 다음과 같다.

내 지인 가운데 한 사람인 M. 씨가 어느 논문에서 다름 아닌 괴테에게, 우리 모두가 생각하기에 정당한 격렬함으로 공격을 받았다. M. 씨는 물론 이 공격에 짓밟혔다. 그는 어느 만찬 자리에서 이 일을 두고 몹시 원통해하지만, 이 개인적인 일로 괴테에 대한 자기의 존경심이 손상되지는 않았다고 말한다. 나는 그럴 법하지 않아 보이는 연대 관계를 어떻게든 설명해 보려 한다. 괴테는 1832년에 죽었다. 그가 M.을 공격한 것은 물론 그보다 앞선 일이어야 하니, M. 씨는 그때 아주 젊은 사람이었다. 그가 18세였다는 것이 내게는 그럴듯해 보인다. 그러나 나는 지금이 정확히 몇 년인지 모르고, 그래서 계산 전체가 흐릿해지고 만다. 게다가 그 공격은 「자연」이라는 제목이 붙은 괴테의 유명한 논문에 들어 있다.

이 꿈의 무의미를 정당화할 방도는 곧 찾게 될 것이다. 내가 만찬 자리에서 알게 된 M. 씨는 얼마 전 마비성 광기의 징후를 보이는 자기 형제를 진찰해 달라고 내게 부탁했다. 짐작은 맞았다. 이 방문에서 괴로웠던 것은, 대화에 그럴 계기가 전혀 없는데도 환자가 형제의 젊은 시절 장난을 들먹여 그를 망신시킨 일이었다. 나는 환자에게 태어난 해를 말해 보라고 했고, 기억력이 약해진 것을 드러내려고 간단한 계산을 몇 번 시켜 보았는데, 그는 이 시험을 모두 꽤 잘 통과했다. 이제 보니 꿈에서 내가 마비 환자처럼 행동하고 있다(나는 지금이 정확히 몇 년인지 모른다). 꿈의 다른 재료는 또 다른 최근의 원천에서 왔다. 내 친구인 한 의학 잡지 편집자가 베를린의 내 친구 Fl.의 최근 저서에 대한 몹시 호의적이지 않은, 「짓밟는」 비평을 자기 잡지에 받아 실었는데, 그 비평을 쓴 사람은 판단을 내릴 역량이 별로 없는 아주 젊은 평자였다.

나는 개입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편집자에게 해명을 요구했다. 그는 그 비평을 받아 실은 것을 몹시 후회했지만, 바로잡겠다는 약속은 하려 들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그 잡지와 관계를 끊었고, 사직 편지에서 이 일로 우리의 개인적인 관계가 손상되지는 않기를 바란다고 썼다. 이 꿈의 셋째 원천은 한 여자 환자가 들려준 이야기인데 — 그때 내 기억에 아직 생생했다 — 광란에 빠져 「자연, 자연」 하고 외친 그녀 형제의 정신 질환에 관한 것이었다. 담당 의사들은 그 외침이 괴테의 아름다운 논문을 읽은 데서 나왔으며, 환자가 자연 철학 공부로 과로했음을 보여 준다고 생각했다. 나는 오히려 우리 고장에서는 교양이 덜한 사람들까지도 「자연」 이라는 말을 쓸 때 담는 성적인 뜻을 생각했다. 그 불행한 남자가 나중에 자기 성기를 훼손했다는 사실은 내 생각이 크게 틀리지 않았음을 보여 주는 듯했다. 광란의 발작이 일어났을 때 이 환자의 나이가 열여덟 살이었다.

여기에 덧붙여, 그토록 혹독하게 비판받은 내 친구의 책이(「저자가 미친 것인지 우리가 미친 것인지 모르겠다」는 것이 다른 한 비평가의 의견이었다) 삶의 시간 관계를 다루며 괴테의 수명을 생물학적 관점에서 의미 있는 어떤 수의 배수로 돌린다고 말한다면, 내가 꿈에서 친구의 자리에 나 자신을 놓고 있다는 것을 쉽게 인정할 것이다. (나는 연대 관계를 어떻게든 설명해 보려 한다.) 그러나 나는 마비 환자처럼 행동하고, 꿈은 부조리 속에서 흥청댄다. 그렇다면 이것은, 꿈 사고가 빈정거리며 말하듯이, 이런 뜻이다. 「물론 그는 바보요 미치광이이고, 당신은 더 잘 아는 천재겠지. 그런데 혹시 거꾸로가 아닐까?」 그런데 이 거꾸로가 꿈속에 뚜렷하게 표현되어 있다. 괴테가 젊은이를 공격했다고 하는 점이 그렇다. 이것은 부조리하지만, 젊은 녀석이 불멸의 괴테를 공격하는 것은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또 내가 괴테가 죽은 해부터

셈한다는 점이 그렇다. 나는 마비 환자에게는 그가 태어난 해부터 계산하게 했으니 말이다.

그런데 나는 모든 꿈이 이기적인 동기에서 나온 결과임을 보여 주겠다고 이미 약속했다. 그러니 이 꿈에서 내가 친구의 일을 내 일로 삼아 그의 자리에 나를 놓는다는 사실을 해명해야 한다. 깨어 있을 때의 사고에서 내가 지니는 이성적 확신만으로는 이렇게 하기에 모자란다. 그런데 열여덟 살 먹은 환자의 이야기와 그의 외침 「자연」을 두고 나온 갖가지 해석은, 내가 정신신경증의 성적 병인을 주장함으로써 대다수 의사들과 대립하게 된 일을 암시한다. 나는 나 자신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네 친구가 당한 것과 같은 비판을 너도 당할 것이고, 이미 어느 정도는 당했다.」 그러면 이제 꿈 사고 속의 「그」를 「우리」로 바꿔 놓을 수 있다. 「그래, 네 말이 맞아. 우리 둘이 바보야.」 mea res agitur〔내 일이 걸려 있다〕라는 것은 괴테의 짧고 비할 데 없이 아름다운 논문이 언급된 데서 분명히 드러난다. 김나지움 졸업반에서 아직 진로를 정하지 못하고 있던 내가 자연 과학을 공부하기로 마음먹게 된 것은 바로 이 논문이 공개 강연에서 낭독되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다.

VI. 내 자아가 나오지 않는 또 다른 꿈에 대해서도 나는 그것이 이기적이라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한다. 5장 (라)에서 짧은 꿈 하나를 이야기했다. 그 꿈에서 M. 교수는 「내 아들, 근시 ……」 하고 말한다. 그리고 나는 이것이 내가 한몫을 맡는 다른 꿈의 예비 꿈일 뿐이라고 말해 두었다. 여기에 앞에서 빼 두었던 본꿈을 싣는다. 이 꿈은 그 부조리하고 알아들을 수 없는 낱말 형성을 설명해 보라고 우리에게 도전장을 내민다.

로마시에서 일어난 이런저런 일 때문에 아이들이 피신해야 하고, 실제로 피신한다. 그다음 장면은 어느 문 앞에서 펼쳐지는데, 고풍스러운 양식의 두 짝

문이다(꿈을 꾸는 동안에도 나는 그것이 시에나의 포르타 로마나라는 것을 안다). 나는 우물 가장자리에 앉아 있고 몹시 슬프다. 거의 울 것 같다. 여성 인물 하나가 — 유모, 수녀 — 두 사내아이를 데리고 나와 그 아이들의 아버지에게 넘겨주는데, 그 아버지는 내가 아니다. 둘 가운데 큰 아이는 분명 내 맏아들이고, 다른 아이의 얼굴은 보이지 않는다. 사내아이를 데려온 여자가 아이에게 작별의 입맞춤을 청한다. 그녀는 빨간 코가 눈에 띈다. 아이는 입맞춤은 해 주지 않지만, 작별의 뜻으로 그녀에게 손을 내밀며 「Auf Geseres」라고 말하고, 우리 둘에게(또는 우리 가운데 한 사람에게) 「Auf Ungeseres」라고 말한다. 나는 뒤의 말이 더 나은 쪽을 가리킨다는 생각이 든다.

이 꿈은 내가 극장에서 본 『새 게토(Das neue Ghetto)』라는 연극이 불러일으킨 생각의 얽힘 위에 세워져 있다. 유대인 문제, 제 조국을 줄 수 없는 내 아이들의 장래에 대한 불안, 아이들이 토박이 시민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키우는 일에 대한 불안 — 이 모든 특징을 여기에 딸린 꿈 사고에서 쉽게 알아볼 수 있다.

「우리는 바빌론 물가에 앉아 울었다.」 시에나는 로마처럼 아름다운 분수로 이름난 곳이다. 꿈속에서 나는 내가 아는 장소들 가운데서 로마를 대신할 무언가를 찾아야 한다(5장 (나) 참조). 시에나의 포르타 로마나 근처에서 우리는 불이 환하게 밝혀진 커다란 건물 하나를 보았는데, 알고 보니 마니코미오, 곧 정신병원이었다. 꿈을 꾸기 얼마 전, 나는 나와 같은 종교를 가진 사람 하나가 온갖 애를 써서 얻은 국립 정신병원의 자리를 내놓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Auf Geseres」라는 말과 — 꿈 내내 이어지는 상황으로 보면 여기서는 「Auf Wiedersehen」(Au revoir)〔「다시 볼 때까지」라는 작별 인사〕가 나올 법하다 — 그 말의 전혀 의미 없는 반대말 「Auf Ungeseres」다.

히브리어 학자들에게서 얻은 정보에 따르면, Geseres는 동사 goiser에서 나온 진짜 히브리어 낱말로, 「정해진 고난, 운명 지어진 재앙」으로 옮기는 것이 가장 좋다. 유대인들이 쓰는 은어에서의 쓰임새로 보면 「울부짖음과 탄식」을 뜻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Ungeseres는 내가 지어낸 말로, 먼저 내 주의를 끌지만 당장은 나를 어리둥절하게 한다. Ungeseres가 Geseres보다 더 나은 쪽을 가리킨다는, 꿈 끝의 짧은 소견이 연상과 설명으로 가는 길을 열어 준다. 캐비아에도 같은 관계가 들어맞는다. 소금에 절이지 않은 것[40]이 절인 것보다 더 귀하게 여겨진다. 대중에게는 캐비아, 「고상한 취미」. 여기에는 우리 집 식구 한 사람을 두고 하는 농담 섞인 암시가 숨어 있다. 그녀는 나보다 젊으니, 나는 그녀가 내 아이들의 장래를 지켜봐 주기를 바란다. 이것은 우리 집의 또 다른 식구인 훌륭한 유모가 꿈의 유모(또는 수녀)로 분명하게 암시되어 있다는 사실과도 맞아떨어진다. 그러나 소금에 절인 것과 절이지 않은 것이라는 짝과 Geseres — ungeseres 사이에는 이어 주는 고리가 빠져 있다. 그 고리는 발효시킨 것과 발효시키지 않은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집트에서 도망쳐 나올 때, 곧 출애굽 때 빵을 발효시킬 겨를이 없었고, 그 일을 기려 오늘날까지도 부활절 때면 발효시키지 않은 빵을 먹는다. 분석의 이 대목에서 문득 떠오른 생각도 여기서 자리를 찾을 수 있다. 나는 부활절 휴가가 끝날 무렵 베를린에서 온 친구와 내가 우리에게 낯선 도시 브레슬라우를 거닐던 일을 떠올렸다. 어린 여자아이 하나가 내게 어느 거리로 가는 길을 물었다. 나는 모른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고 나서 친구에게 말했다. 「저 꼬마가 커서는 자기를 이끌 사람을 고를 때 좀 더 눈이 밝았으면 좋겠어.」 얼마 뒤 간판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헤롯 박사, 진료 시간…….」 나는 속으로 말했다. 「이 동료가 설마 소아과 의사는 아니겠지.」 그사이 내 친구는 좌우 대칭의

생물학적 의미에 관한 자기 견해를 펼치고 있었는데, 이렇게 말을 꺼냈다. 「 우리가 키클롭스처럼 이마 한가운데 눈이 하나뿐이라면……. 」 이것은 우리를 예비 꿈에 나온 교수의 말로 이끈다. 「내 아들, 근시.」 그리고 이제 나는 Geseres의 주된 원천에 이르렀다. 여러 해 전, 지금은 독자적인 사상가가 된 M. 교수의 이 아들이 아직 학교 걸상에 앉아 있던 시절, 그는 눈병에 걸렸는데 의사는 걱정스러운 병이라고 말했다. 의사의 생각으로는 병이 한쪽 눈에 머물러 있는 동안은 괜찮지만, 다른 쪽 눈으로 번지면 심각해질 것이었다. 병은 한쪽 눈에서는 아무 후유증 없이 나았다. 그러나 얼마 뒤 정말로 다른 쪽 눈에 그 증상이 나타났다. 겁에 질린 소년의 어머니는 한적한 시골 휴양지로 곧장 의사를 불렀다. 그러나 의사는 이 일에 대해 다른 견해를 취했다. 「무슨 『Geseres』를 이렇게 떠십니까?」 하고 그는 소년의 어머니에게 짜증스럽게 말했다. 「한쪽이 나았으면 다른 쪽도 나을 겁니다.」 그리고 그대로 되었다.

이제 이것과 나 자신, 그리고 내게 소중한 이들 사이의 관계를 보자. M. 교수의 아들이 처음 공부를 배운 그 학교 걸상은 내 맏아들의 것이 되었다. 걸상은 맏아들의 어머니에게 선물로 들어온 것인데, 꿈에서 내가 작별의 말을 입에 담게 한 것이 바로 이 맏아들이다. 걸상이 이렇게 넘어온 데 결부될 수 있는 소원 하나는 이제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 학교 걸상은 아이가 근시가 되거나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막게끔 만들어졌다. 그래서 근시(그리고 그 뒤에는 키클롭스)와 좌우 양측성에 관한 논의가 나왔다. 한쪽으로 치우치는 데 대한 염려는 두 겹의 뜻을 지닌다. 몸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과 아울러 지적인 발달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도 가리킬 수 있기 때문이다. 꿈속 장면은 그 온갖 광기에도 바로 이 불안을 부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가? 아이는 한쪽에

작별의 말을 한 뒤, 균형을 잡으려는 듯 다른 쪽에 그 반대말을 외친다. 아이는 말하자면 좌우 대칭에 복종하여 행동하고 있다!

이처럼 꿈은 가장 부조리해 보이는 자리에서 가장 깊은 뜻을 지니는 일이 흔하다. 어느 시대에나 할 말은 있으나 제 몸을 위태롭게 하지 않고는 그 말을 할 수 없던 사람들은 기꺼이 광대의 방울 달린 모자를 썼다. 그 금지된 말이 겨냥한 듣는 이는, 그 말을 웃어넘길 수 있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분명 무언가 부조리한 것이라는 논평으로 스스로를 추켜세울 수 있을 때, 그 말을 더 쉽게 참아 넘겼다. 꿈은 실제로 바보 흉내를 내야 하는 연극 속의 왕자와 똑같이 움직인다. 그러니 햄릿이 참된 사정 대신 알아들을 수 없는 재담을 내세우며 자기 자신에 관해 한 말을 꿈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나는 북북서풍이 불 때만 미칠 뿐이라네. 바람이 남쪽에서 불면 매와 톱쯤은 구별할 줄 안다네.」[41]

그러므로 꿈의 부조리라는 문제에 대한 나의 해답은 이렇다. 꿈 사고는 결코 부조리하지 않다 — 적어도 정신이 온전한 사람들의 꿈에 속하는 꿈 사고는 그렇다. 그리고 꿈 사고 속의 비판과 조롱과 조소를 꿈 작업이 제 나름의 표현 방식으로 나타내야 할 때, 꿈 작업은 부조리한 꿈과 개별적으로 부조리한 요소를 지닌 꿈을 만들어 낸다. 다음으로 내가 보여 주려는 것은 이렇다. 꿈 작업은 무엇보다 앞서 말한 세 요인의 — 그리고 아직 거론하지 않은 넷째 요인의 — 협력으로 이루어진다는 것, 꿈 작업이 해내는 일은 자기에게 정해진 세 조건을 지키면서 꿈 사고를 옮겨 놓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것, 그리고 정신이 꿈속에서 모든 능력을 다해 작동하는가 아니면 그 일부만으로 작동하는가 하는 물음은 설득력을 잃으며 실제 사정에 들어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판단이 내려지고 비판이 가해지고 사실이 인정되며, 꿈의 어느 한 요소에 대한 놀라움이 나타나고 논증과 설명이

시도되는 꿈이 얼마든지 있으므로, 이런 일들에서 끌어낼 수 있는 반론에는 골라낸 예들을 들어 대응해야 한다.

내 대답은 이렇다. 꿈속에서 비판 능력을 행사하는 것처럼 보이는 모든 것은 꿈 작업의 지적 성취로 볼 것이 아니라 꿈 사고의 재료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그것은 완성된 구조물로서 꿈 사고에서 외현적 꿈 내용 속으로 들어왔다. 나는 여기서 더 나아갈 수도 있다. 깨어난 뒤 기억되는 꿈에 대해 내려지는 판단, 그리고 꿈을 재생할 때 일어나는 느낌조차도 상당 부분 잠재적 꿈 내용에 속하며, 꿈 해석에서 저마다 제자리에 맞춰 넣어야 한다.

I. 이것을 보여 주는 인상적인 예는 이미 하나 들었다. 한 여성 환자가 꿈이 너무 막연하다며 이야기하려 하지 않는다. 꿈에서 어떤 사람을 보았는데, 그 사람이 남편인지 아버지인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이어서 두 번째 꿈 조각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거름통」이 하나 등장하고, 이 거름통이 다음과 같은 회상을 불러일으킨다. 젊은 주부였을 때 그녀는 집에 자주 드나들던 젊은 친척 앞에서, 다음에는 새 거름통부터 장만해야겠다고 농담 삼아 말한 적이 있었다. 이튿날 아침 거름통 하나가 배달되어 왔는데, 은방울꽃이 가득 담겨 있었다. 꿈의 이 부분은 「네 거름에서 자란 게 아니다」 라는 속담을 표현하는 데 쓰였다.[42] 분석을 끝까지 해 보면, 꿈 사고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젊은 시절에 들은 한 이야기의 여파라는 것이 드러난다. 한 처녀가 누가 진짜 아버지인지 분명하지 않은 아이를 낳았다는 이야기다. 여기서 꿈의 표현은 깨어 있을 때의 사고로 넘어가, 꿈 사고의 한 요소가 깨어 있는 상태에서 꿈 전체에 대해 내리는 판단으로 표현되게 한다.

II. 비슷한 경우. 내 환자 한 사람이 스스로 흥미롭게 여기는 꿈을 꾼다. 깨어나자마자 곧 「그걸 의사에게 말해야지」 하고 혼잣말을 하니 말이다. 꿈을 분석해 보니, 그가 치료를 받는 동안 휘말려 들었으면서도

「내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던 한 연애 관계를 더없이 뚜렷하게 암시하고 있다.[43]

III. 다음은 내가 직접 겪은 세 번째 예다.

나는 P.와 함께, 집과 정원이 나오는 어느 지역을 지나 병원으로 간다. 그러면서 이 지역을 이미 여러 번 꿈에서 본 적이 있다는 생각이 든다. 나는 길을 잘 모른다. P.가 모퉁이를 지나 어느 식당(정원이 아니라 방)으로 이어지는 길을 가르쳐 준다. 거기서 나는 도니 부인을 찾는데, 그녀가 뒤편의 작은 방에서 아이 셋과 함께 살고 있다는 말을 듣는다. 나는 그리로 가다가 도중에 흐릿한 사람 하나가 내 어린 두 딸을 데리고 있는 것과 마주치고, 한동안 아이들과 함께 서 있다가 아이들을 데리고 간다. 아이들을 거기 두고 갔다는, 아내에 대한 일종의 비난.

깨어나면서 나는 큰 충족감을 느끼는데, 그 까닭은 「그걸 이미 꿈꾼 적이 있다」는 생각이 무엇을 뜻하는지 이제 분석에서 알게 되리라는 데 있다.[44] 그러나 꿈의 분석은 이 문제에 대해 아무것도 가르쳐 주지 않는다. 분석이 보여 주는 것은 그 충족감이 꿈에 대한 내 판단이 아니라 잠재적 꿈 내용에 속한다는 것뿐이다. 그것은 내가 결혼해서 아이들을 얻었다는 데 대한 충족감이다. P.는 한동안 나와 함께 인생길을 걸었지만 그 뒤로 사회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나를 멀찍이 앞질러 간 사람인데, 그의 결혼에는 아이가 없다. 이를 증명해 주는 꿈의 두 계기는 분석을 끝까지 해 보면 찾을 수 있다. 전날 나는 신문에서 도나 A——y 부인이라는 사람의 부고를 읽었는데(나는 이 이름으로 도니를 만든다), 그녀는 아이를 낳다가 죽었다. 아내가 들려준 바로는, 죽은 부인을 돌본 산파는 우리 막내 두 아들이 태어날 때 아내 자신을 돌보았던 바로 그 산파였다. 도나라는 이름이 내 눈길을 끈 것은 얼마 전 한 영국 소설에서 그 이름을 처음 보았기 때문이다. 꿈의 다른 계기는 꿈을 꾼 날짜에서

찾을 수 있다. 그날은 내 맏아들의 생일 전날 밤이었는데, 이 아이는 시적 재능을 타고난 것 같다.

IV. 내 아버지가 죽은 뒤에 마자르인들 사이에서 정치적 역할을 했다는 부조리한 꿈에서 깨어난 뒤에도 같은 충족감이 내게 남아 있었는데, 그 충족감은 꿈의 마지막 문장에 따르던 느낌이 이어진 데서 동기를 얻는다. 「나는 임종 때 그가 가리발디를 그토록 닮아 보였던 것을 기억하고, 그것이 정말로 이루어진 것이 기쁘다. (여기에 잊힌 뒷부분이 들어간다.)」 이제 나는 꿈의 이 빈틈에 들어갈 것을 분석에서 채워 넣을 수 있다. 그것은 내 둘째 아들에 대한 언급이다. 나는 이 아이에게 한 위대한 역사적 인물의 이름을 붙여 주었는데, 그 인물은 소년 시절에, 특히 영국에 머무는 동안 나를 강하게 사로잡았다. 태어날 아이가 아들이면 이 이름을 쓰기로 마음먹고 나서 나는 한 해를 기다려야 했고,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크나큰 충족감 속에 그 이름으로 아이를 맞았다. 아버지의 위대함에 대한 갈망이 생각 속에서 어떻게 자식들에게로 옮겨 가는지는 쉽게 알 수 있다. 살다 보면 이 갈망을 억제해야 할 때가 오는데, 그 억제가 이루어지는 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것이라는 말도 쉽게 믿을 것이다. 이 어린 녀석이 이 꿈의 본문에 한자리를 얻은 것은, 옷을 더럽히는 똑같은 사고가 — 아이나 죽어 가는 사람에게라면 얼마든지 용서될 만한 사고가 — 그에게도 일어났기 때문이다. 여기에 「Stuhlrichter」 라는 암시(걸상 긴 의자 〔stool-bench. stool에는 「대변」 이라는 뜻도 있다〕 위의 재판관, 즉 재판장)와, 자기 아이들 앞에 위대하고 깨끗하게 서는 것이라는 꿈의 소원을 견주어 볼 수 있다.

V. 이제 나는 깨어 있을 때의 우리 사고 속에 간직되거나 거기로 옮겨지지 않고 꿈 자체 안에 머무는 판단의 표현을 찾아내야 하는데, 다른 목적으로 이미 인용한 꿈들에서 그런 예를 찾을 수 있다면 짐을 크게 덜 것이다. 괴테가 M. 씨를 공격하는 꿈에는 판단 행위가 꽤 많이

들어 있는 것 같다. 나는 그럴 법하지 않아 보이는 연대 관계를 어떻게든 설명해 보려 한다. 이것은 괴테가 내가 아는 한 젊은이를 글로 공격했다는 무의미한 생각을 겨냥한 비판적 충동처럼 보이지 않는가? 「 그가 18세였다는 것이 내게는 그럴듯해 보인다.」 이것은 꼭 둔한 머리로 해낸 계산의 결과처럼 들린다. 그리고 「나는 지금이 정확히 몇 년인지 모른다」는 꿈속의 불확실함이나 의심의 예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분석을 통해 안다. 꿈속에서 처음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는 이 판단 행위들은 달리 풀이될 수 있고, 그렇게 풀이하면 꿈을 해석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것이 되는 동시에 부조리도 모두 사라진다. 「나는 연대 관계를 어떻게든 설명해 보려 한다」라는 문장으로 나는 실제로 삶의 연대 관계를 설명하려 애쓰는 내 친구의 자리에 나를 놓는다. 그러면 이 문장은 앞 문장들의 무의미에 이의를 다는 판단이라는 의미를 잃는다. 끼워 넣은 말 「그럴 법하지 않아 보이는」은 뒤따르는 「내게는 그럴듯해 보인다」와 한데 속한다. 나는 자기 형제의 병 이야기를 들려준 그 부인에게 거의 같은 말로 대답한 적이 있었다. 「『자연, 자연』이라는 외침이 괴테와 무슨 관계가 있었다는 것은 제게는 그럴 법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 외침이 부인도 아시는 그 성적인 뜻을 지녔다는 편이 훨씬 더 그럴듯해 보입니다. 」 물론 여기서 판단이 내려지기는 했다. 그러나 꿈에서가 아니라 현실에서, 꿈 사고가 기억해 내어 이용하는 어떤 기회에 내려진 것이다. 꿈 내용은 꿈 사고의 다른 조각과 마찬가지로 이 판단을 제 것으로 삼는다.

꿈에서 판단과 무의미하게 이어져 있는 숫자 18은, 실제 판단이 뜯겨 나온 맥락의 흔적을 아직 간직하고 있다. 끝으로 「 지금이 몇 년인지 확실히 모르겠다」는 나를 마비 환자와 동일시하는 일을 수행하려는 것일 뿐이다. 그 환자를 진찰하면서 실제로 이 점을 확인해 두었던 것이다.

꿈속의 이런 겉보기 판단 행위들을 풀 때에는 해석의 규칙 하나를 상기해 두는 것이 좋겠다. 꿈이 그 구성 부분들 사이에 지어낸 연관은 허울만 그럴듯하고 본질적이지 않은 것으로 여겨 무시해야 하며, 꿈 요소는 하나하나 따로 떼어 그 원천까지 거슬러 올라가 보아야 한다는 규칙이다. 꿈은 뭉쳐진 덩어리여서, 탐구하려면 그것을 요소들로 부수어 나누어야 한다. 그러나 다른 사정들을 보면, 꿈속에는 이 겉보기 연관을 세우는 어떤 심리적 힘이, 다시 말해 꿈 작업이 얻어 낸 재료에 이차 가공을 가하는 힘이 나타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게 된다. 여기서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것은 이 힘이 드러난 모습들이다. 뒤에 우리는 이 힘을 꿈 형성에 관여하는 요인들 가운데 넷째 요인으로 보고 거기에 주의를 기울이게 될 것이다.

VI. 이미 인용한 꿈들에서 비판 활동의 다른 예를 골라 보겠다. 시의회 통지서에 관한 부조리한 꿈에서 나는 이렇게 묻는다. 「그 뒤에 바로 결혼했어? 나는 내가 1856년에 태어났다고 셈해 보는데, 그것이 내게는 바로 뒤따르는 것처럼 보인다.」 이것은 영락없이 추론의 형식을 띠고 있다. 아버지는 1851년에 발작을 겪은 뒤 바로 결혼했다. 나는 맏아들이고 1856년에 태어났다. 그러니 이것은 완벽하게 들어맞는다. 우리는 이 추론을 끼워 넣은 것이 소원 성취이며, 꿈 사고를 지배하는 문장은 다음과 같은 취지라는 것을 알고 있다. 4, 5년, 그건 시간이랄 것도 없다, 그건 계산에 넣을 필요도 없다. 그러나 이 추론의 사슬은 부분 하나하나가 내용으로 보나 형식으로 보나 꿈 사고에서 다른 방식으로 결정된다. 치료가 끝나면 바로 결혼하려는 것은, 내 동료가 그 끈기를 두고 불평하는 바로 그 환자다. 꿈에서 내가 아버지를 다루는 방식은 심문이나 시험을 떠올리게 하고, 그와 함께 대학 선생 한 사람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그는 수강 등록을 받을 때마다 학생의 신상을 빠짐없이 받아 적곤 했다. 「자네는 언제 태어났나?」 1856년. 「Patre?〔아버지는?〕」

그러면 등록하는 학생은 아버지의 이름을 라틴어 어미를 붙여 대었고, 우리 학생들은 그 궁정 고문관이, 등록한 학생 자신의 이름만으로는 언제나 얻을 수 있지는 않았을 추론을 아버지의 이름에서 끌어낸다고 짐작했다. 그렇다면 꿈속에서 추론을 끌어내는 일은, 꿈 사고 속에 재료의 일부로 나타나는 추론을 끌어내는 일을 되풀이한 것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새로운 것을 하나 배운다. 꿈 내용에 추론이 나타나면, 그것은 어김없이 꿈 사고에서 온 것이다. 추론은 기억된 재료의 한 조각으로서 꿈 사고 속에 들어 있을 수도 있고, 일련의 꿈 사고를 논리적으로 이어 주는 고리 노릇을 할 수도 있다. 어느 경우든 꿈속의 추론은 꿈 사고 속의 추론을 나타낸다.[45]

이 꿈의 분석은 여기서 좀 더 이어 가야 한다. 교수의 심문에는 대학생 명부(내가 다니던 시절에는 라틴어로 펴냈다)에 대한 기억이 이어져 있고, 또 내 학업 과정에 대한 기억도 이어져 있다. 의학 공부에 정해진 다섯 해는 여느 때처럼 내게는 모자랐다. 나는 그 뒤로도 몇 해 동안 태평하게 공부를 이어 갔다.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나는 게으름뱅이로 통했고, 내가 과연 「끝마칠」 수 있을지 의심하는 이들이 있었다. 그러다 나는 갑자기 시험을 치르기로 마음먹었고, 늦어지기는 했어도 「끝마쳤다」. 이것은 꿈 사고를 새로이 확인해 주는 것이다. 나는 그 꿈 사고를 나를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반항하듯 내민다. 「내가 시간을 들인다고 해서 당신들이 믿으려 하지 않더라도, 나는 결론(독일어로 Schluss. 끝이라는 뜻도 되고 결론, 곧 추론이라는 뜻도 된다)에 이를 것이다. 그런 일은 여러 번 있었다.」

이 꿈은 첫머리 부분에, 논증의 성격을 지녔다는 것을 부정하기 어려운 문장을 여럿 담고 있다. 그리고 이 논증은 전혀 부조리하지 않다. 깨어 있을 때의 사고에 속한다 해도 이상하지 않을 것이다. 꿈에서 나는 시의회 통지서를 웃음거리로 삼는다. 첫째로 1851년에 나는 아직 세상에

나오지도 않았고, 둘째로 그것이 해당될 수도 있는 사람인 내 아버지는 이미 죽었기 때문이다. 두 가지 모두 그 자체로 옳을 뿐 아니라, 내가 앞서 말한 그런 통지서를 받는다면 쓸 논거와 완전히 일치한다. 앞의 분석에서 우리는 이 꿈이 깊은 원한과 경멸에 찬 꿈 사고에서 솟아났다는 것을 알고 있다. 여기에 더해 검열의 동기가 아주 강하다고 가정해도 된다면, 꿈 작업이 꿈 사고 속에 들어 있는 본보기를 따라 근거 없는 비방에 대한 흠잡을 데 없는 반박을 만들어 낼 이유가 충분하다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분석이 보여 주듯, 이 경우 꿈 작업에 주어진 과제는 자유롭게 본떠 만드는 일이 아니었다. 꿈 작업은 꿈 사고에서 가져온 재료를 제 목적에 쓰도록 요구받았다. 그것은 마치 어떤 대수 방정식에 숫자 말고도 더하기 부호와 빼기 부호, 거듭제곱 부호와 근호가 들어 있는데, 누군가 이 방정식을 이해하지 못한 채 베끼면서 숫자와 함께 연산 부호까지 제 사본에 옮겨 적고 그 두 가지를 구별하지 못하는 것과 같다. 두 논거는 다음과 같은 재료로 거슬러 올라간다. 정신신경증에 대한 내 해명의 바탕이 되는 가정 가운데 많은 것이 알려지자마자 의심과 조롱을 불러일으키리라고 생각하면 괴롭다. 이를테면 나는, 생후 두 번째 해의 인상이, 아니 첫해의 인상조차 나중에 병이 드는 사람들의 기질에 오래가는 흔적을 남기며, 이 인상들이 — 물론 기억 때문에 크게 왜곡되고 과장되기는 하지만 — 히스테리 증상의 최초의 근본적인 토대를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할 수밖에 없다. 알맞은 자리에서 이것을 설명해 주면, 환자들은 그렇다면 자기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던 시기의 회상을 찾아보겠다고 나서며 그 설명을 흉내 내어 비꼬곤 한다. 여자 환자들의 가장 이른 성적 충동에서 아버지가 맡는, 아무도 짐작하지 못한 역할을 밝혀 줄 때에도 비슷한 대접을 받는다면, 그것은 내 예상에 딱 들어맞을 것이다. (5장 (라)의 논의 참조.) 그런데도 근거가 탄탄한 내 확신에 따르면 두 주장은 모두 옳다. 그 증거로 나는 몇 가지 예를

떠올린다. 아이가 아주 어릴 때 아버지가 죽었는데, 달리는 설명할 수 없는 나중의 사건들이, 그 아이가 그토록 일찍 자기 삶에서 사라진 사람들의 기억을 무의식적으로 간직하고 있었음을 증명해 준 예들이다. 나는 내 두 주장이 모두 추론에 바탕을 두고 있고, 그 추론의 타당성이 공격받으리라는 것을 안다. 반박당할까 봐 내가 두려워하는 바로 그 추론들의 재료를 꿈 작업이 반박할 수 없는 추론을 세우는 데 쓴다면, 이것은 소원 성취가 해낸 일이다.

VII. 지금까지 살짝 건드리기만 했던 한 꿈에서는, 꺼내려는 주제에 대한 놀라움이 첫머리에서부터 뚜렷하게 표현되어 있다.

「나이 든 브뤼케가 내게 무슨 과제인가를 준 것이 분명하다. 묘하게도 그 과제는 내 하반신, 곧 골반과 다리를 표본으로 만드는 일과 관계가 있다. 나는 그것을 마치 해부실에서처럼 눈앞에 보지만, 내 몸이 없다는 것을 느끼지 않고 공포의 흔적도 전혀 없다. 루이제 N.이 가까이 서서 내 곁에서 제 일을 하고 있다. 골반은 내장이 들어내져 있다. 그것을 위에서 본 모습이 보이다가 아래에서 본 모습이 보이다가 하고, 두 모습이 뒤섞인다. 두툼하고 살진 붉은 덩어리들이 보인다(꿈속에서도 나는 그것을 보고 치질을 떠올린다). 또 그 위에 놓인, 구겨진 주석박처럼 보이는 무언가를 조심스럽게 골라내야 했다.[46] 그러고 나서 나는 다시 내 다리를 되찾아 시내를 지나는 길에 나섰는데, (피곤해서) 마차를 탔다. 놀랍게도 마차는 어느 집 대문 안으로 들어갔는데, 대문이 열리며 마차를 통로로 들여보냈다. 그 통로는 끝에서 뚝 꺾여 있었고, 결국 더 나아가 탁 트인 바깥으로 이어졌다.'[47] 마침내 나는 알프스 안내인과 함께 바뀌어 가는 풍경 속을 헤맸는데, 안내인은 내 짐을 날라 주었다. 그는 지친 내 다리를 생각해 얼마 동안 나를 업고 갔다. 땅은 질척거렸고, 우리는 가장자리를 따라 걸었다. 사람들이 땅바닥에 앉아 있었는데, 그 가운데 소녀도 하나 있었고, 인디언이나 집시 같았다. 그 전에 나는 미끄러운 땅 위에서 혼자 몸을 움직여 나아갔는데, 표본으로 만든 뒤인데도 그렇게 잘 해낼 수 있다는 것이 줄곧 놀라웠다. 마침내

우리는 열린 창문 하나로 끝나는 작은 나무집에 이르렀다. 여기서 안내인은 나를 내려놓고, 마련되어 서 있던 나무판자 두 장을 창턱에 걸쳐 놓았다. 창문에 가려면 건너야 하는 깊은 틈에 그렇게 해서 다리를 놓으려는 것이었다. 이제 나는 내 다리 때문에 정말로 겁이 났다. 기대했던 건너가기 대신, 오두막 벽에 붙은 나무 긴 의자 위에 어른 남자 둘이 누워 있고, 그 곁에 잠든 아이 둘 같은 것이 있는 것이 보였다. 건너가기를 가능하게 해 주기로 되어 있는 것은 판자가 아니라 아이들인 것 같다. 나는 겁에 질린 생각을 안고 깨어났다.」

꿈 압축이 얼마나 풍부한지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라면, 이 꿈을 자세히 분석하려면 얼마나 많은 쪽을 채워야 할지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다행히 지금의 맥락에서는 이 꿈에서 꿈속 놀라움의 예 하나만 가져오면 된다. 「묘하게도」라는 삽입구에 나타나는 놀라움이다. 꿈의 계기부터 살펴보자. 그것은 꿈에서 작업을 거드는 이 부인, 루이제 N.의 방문이다. 그녀가 말한다. 「읽을 것 좀 빌려 주세요.」 나는 그녀에게 라이더 해거드의 『그녀(She)』를 내민다. 「묘한 책이지만 숨은 뜻으로 가득해요.」 하고 나는 그녀에게 설명하려 한다. 「영원히 여성적인 것, 우리 감정의 불멸성——」 여기서 그녀가 내 말을 끊는다. 「그 책은 벌써 알아요. 직접 쓰신 건 없나요?」 「없어요. 제 불멸의 작품들은 아직 쓰이지 않았거든요.」 「그럼 우리한테 재미있게 읽힐 거라고 약속하신 그 이른바 최신 폭로라는 건 언제 내실 거예요?」 하고 그녀가 조금 빈정거리며 묻는다. 그제야 나는 그녀가 다른 누군가의 말을 대신 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입을 다문다. 나는 꿈에 관한 이 저작 하나를 내는 데에도 얼마나 애를 써야 하는지 생각한다. 이 책에서 나는 내 은밀한 성격을 그토록 많이 내보여야 한다. 「네가 아는 가장 좋은 것을 아이들에게 말해 줄 수는 없다.」 그러니 꿈에서 내가 하라는 명령을 받은, 나 자신의 몸을 표본으로 만드는 일은 내 꿈을 전달하는 데 필요한 자기 분석이다. 나이 든 브뤼케가 여기에 자리를 얻은 것은 아주

마땅하다. 학문 연구를 시작한 처음 몇 해 동안 나는 어떤 발견을 내버려 둔 적이 있는데, 그의 강력한 명령에 떠밀려서야 그것을 발표했다. 그러나 루이제 N.과 나눈 대화에서 출발하는 다른 생각의 흐름들은 너무 깊이 내려가 있어서 의식되지 못한다. 그 흐름들은 라이더 해거드의 『그녀』를 언급하면서 내 안에 깨어난 관련 재료를 거쳐 옆길로 빠진다. 「묘하게도」라는 논평은 이 책과, 같은 저자의 또 다른 책 『세계의 심장』에 해당하는 말이며, 꿈의 수많은 요소가 이 두 환상 소설에서 나왔다. 꿈꾼 사람이 업혀서 지나가는 질척거리는 땅, 가져온 판자로 건너야 하는 깊은 틈은 『그녀』에서 왔고, 인디언들과 소녀와 나무집은 『세계의 심장』에서 왔다. 두 소설 모두 여자가 일행을 이끌고, 둘 다 위험한 방랑을 다룬다. 『그녀』는 미지의 나라, 사람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은 곳으로 가는 모험 여행을 다룬다. 꿈을 적어 둔 기록에서 찾은 메모에 따르면, 다리의 피로는 그 무렵 내가 실제로 느끼던 감각이었다. 틀림없이 여기에 걸맞게 지친 기분과 「내 다리가 앞으로 얼마나 더 나를 데려가 줄까?」 하는 의심 섞인 물음이 찾아왔다. 『그녀』의 모험은 일행을 이끌던 여자가 자기와 남들을 위해 불멸을 얻기는커녕 땅속 한가운데의 신비로운 불 속에서 죽음을 맞는 것으로 끝난다. 이런 종류의 두려움이 꿈 사고 속에 생겨났다는 것은 틀림없다. 「나무집」 또한 분명 관, 곧 무덤이다. 그러나 꿈 작업은 모든 생각 가운데 가장 원치 않는 이 생각을 소원 성취로 표현함으로써 걸작을 이루어 냈다. 나는 이미 한 번 무덤 안에 들어가 본 적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오르비에토 근처의 텅 빈 에트루리아 무덤이었다. 벽에 돌 긴 의자 두 개가 붙어 있는 좁은 방이었고, 그 위에 어른 두 사람의 해골이 눕혀져 있었다. 꿈속 나무집의 내부는 돌 대신 나무가 들어섰다는 것만 빼면 이것과 똑같아 보인다. 꿈은 이렇게 말하는 듯하다. 「네가 그렇게 일찍 무덤에 누워야 한다면, 그 무덤이 이 에트루리아 무덤이기를.」

그리고 이렇게 끼워 넣음으로써 꿈은 가장 슬픈 기대를 정말로 바랄 만한 기대로 바꾸어 놓는다. 앞으로 알게 되겠지만, 꿈이 반대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쉽게도 정동에 딸린 표상뿐이고, 정동 자체는 대개 바꾸지 못한다. 그래서 나는 「겁에 질린 생각」을 안고 깨어난다. 꿈이 내 생각을 — 아버지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을 아이들은 어쩌면 이룰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 표현할 수밖에 없게 된 뒤인데도 그렇다. 이 생각은 한 사람의 동일성이 이천 년에 걸친 여러 세대를 거치며 보존되는 그 묘한 소설을 새로이 암시한다.

VIII. 다른 꿈 하나의 맥락에도 꿈속에서 겪는 일에 대한 비슷한 놀라움의 표현이 있다. 그런데 이 놀라움은, 천재의 솜씨라 불러도 좋을 만큼 눈에 띄고 교묘하게 짜낸 설명 시도와 이어져 있다. 그래서 이 꿈에 흥미로운 특징이 달리 두 가지나 있지 않았더라도, 오로지 그 시도 때문에라도 꿈 전체를 분석해야 할 판이다. 나는 7월 18일에서 19일로 넘어가는 밤에 남부 철도를 타고 여행하고 있는데, 잠결에 누군가 외치는 소리를 듣는다. 「홀투른〔Hollthurn〕, 10분.」 나는 곧바로 해삼〔Holothurian〕을 — 자연사 박물관을 — 떠올리고, 여기가 용감한 사람들이 자기네 영주의 지배에 맞서 헛되이 저항했던 곳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 오스트리아의 반종교 개혁! 마치 슈타이어마르크나 티롤의 어느 곳인 것처럼. 이제 나는 이 사람들의 유해나 유품을 간직한 작은 박물관 하나를 또렷이 본다. 나는 내리고 싶지만 망설인다. 승강장에는 과일을 든 여자들이 서 있다. 그들은 바닥에 쪼그려 앉아, 그 자세로 바구니를 권하듯 내민다. 나는 시간이 아직 남았는지 몰라 망설이지만, 우리는 여전히 서 있다. 나는 갑자기 다른 칸에 와 있는데, 거기서는 가죽과 좌석이 너무 좁아서 등이 곧바로 등받이에 닿는다.[48] 나는 이것이 놀랍지만, 잠든 사이에 객차를 바꿔 탔을지도 모른다. 여러 사람, 그 가운데 영국인 남매. 벽에 붙은 선반 위에 뚜렷이 보이는 책 한 줄. 나는 『국부론』을, 그다음에는 『물질과 운동』(맥스웰 지음)을 본다 — 책들은

두툼하고 갈색 아마포로 제본되어 있다. 남자가 누이에게 실러의 책 한 권을 달라고 하면서, 그것을 잊고 오지 않았느냐고 묻는다. 이 책들은 처음에는 내 것 같다가, 다음에는 남매의 것 같다. 이때 나는 오가는 말을 확인하고 거들려고 대화에 끼어들고 싶다——. 창문이 모두 닫혀 있어서 나는 온몸이 땀에 흠뻑 젖은 채 깨어난다. 기차는 마르부르크에 선다.

꿈을 적어 내려가는 동안, 내 기억이 빼 버리려 했던 한 부분이 떠오른다. 나는 어떤 작품을 두고 남매에게 「It is from ……」 하고 말하다가, 「It is by ……」 하고 스스로 고쳐 말한다. 남자가 누이에게 「그가 맞게 말했어.」 하고 한마디 한다.

꿈은 역 이름 하나로 시작하는데, 아마 그 이름 때문에 내가 반쯤 깨어났을 것이다. 그 이름은 마르부르크 〔Marburg〕 였는데, 나는 그것을 홀투른으로 바꾸어 놓았다. 역 이름을 처음 불렀을 때, 아니 어쩌면 두 번째로 불렀을 때 내가 마르부르크라는 이름을 들었다는 것은, 꿈에 실러가 언급된다는 사실로 증명된다. 실러는 마르부르크에서 태어났다. 슈타이어마르크의 마르부르크는 아니지만 말이다.[49] 그런데 이번 여행은 일등칸을 탔는데도 몹시 불쾌한 형편에서 이루어졌다. 기차는 사람들로 넘쳐 났다. 내 칸에서 나는 신사와 부인 한 쌍과 마주쳤는데, 지체 높은 사람들로 보였지만, 내가 끼어든 데 대한 못마땅함을 감출 만한 교양이 없었거나, 굳이 감출 필요도 없다고 여겼다. 내가 정중하게 인사를 해도 답례가 없었다. 남자와 여자는 (기차가 달리는 방향으로 등을 두고) 나란히 앉아 있었는데도, 여자는 서둘러 자기 맞은편의 창가 자리를 우산으로 차지해 버렸다. 문은 곧바로 닫혔고, 창문을 여는 일을 두고 들으라는 듯한 말이 오갔다. 아마 나는 신선한 공기에 굶주린 사람으로 대번에 알아보였을 것이다. 무더운 밤이었고, 이렇게 사방이 막힌 칸 안의 공기는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여행을 다녀 본 경험으로 나는, 이렇게 배려 없고 주제넘은 행동이

찻삯을 일부만 치렀거나 아예 치르지 않은 사람들의 표지라고 믿게 되었다. 차장이 와서 내가 비싸게 산 표를 내보이자, 부인이 퉁명스럽게, 위협이라도 하듯 외쳤다. 「내 남편은 무임 승차권이 있어요.」 그녀는 풍채는 당당하나 표정이 뚱한 여자로, 나이는 여자의 아름다움이 시들기로 정해진 때에서 그리 멀지 않았다. 남자는 아무 말도 할 틈을 얻지 못한 채 꼼짝 않고 앉아 있었다. 나는 잠을 청했다. 꿈에서 나는 불쾌한 길동무들에게 무서운 복수를 한다. 꿈 전반부의 뚝뚝 끊긴 조각들 뒤에 어떤 모욕과 굴욕이 숨어 있는지 아무도 짐작하지 못할 것이다. 이 욕망이 충족되고 나자, 내 칸을 다른 칸으로 바꾸고 싶다는 두 번째 소원이 모습을 드러낸다. 꿈은 장면을 몹시 자주, 그것도 그렇게 바꾸는 데 조금도 이의를 달지 않고 바꾸므로, 내가 기억 속에서 길동무들을 곧바로 더 유쾌한 사람들로 바꾸어 놓았다 해도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무언가가 장면 바뀜에 이의를 달고 그 바뀜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여긴 경우 가운데 하나였다. 나는 어떻게 갑자기 다른 칸에 오게 되었는가? 객차를 바꿔 탄 일은 도무지 기억나지 않았다. 그러니 설명은 하나뿐이었다. 나는 잠든 사이에 찻간을 떠났던 것이 틀림없다. 드문 일이기는 하지만, 신경병리학자의 경험은 그런 예를 대 준다. 우리는 몽롱 상태에서 기차 여행을 하면서도 어떤 표시로도 자기의 비정상적인 상태를 드러내지 않다가, 여정 중 어느 역에서 완전히 의식을 되찾고는 자기 기억에 난 빈틈에 놀라는 사람들을 알고 있다. 그리하여 나는 아직 꿈을 꾸는 중에, 내 경우가 그런 「Automatisme ambulatoire 〔보행 자동증〕」의 하나라고 선언한다.

분석은 다른 해답을 허락한다. 꿈 작업이 한 일로 여겨야 한다면 나를 그토록 놀라게 하는 이 설명 시도는 독창적인 것이 아니라, 내 환자 한 사람의 신경증에서 베껴 온 것이다. 나는 5장 (라)에서, 교양이 높고

처신으로 보아 마음씨가 착한 한 남자 이야기를 이미 한 적이 있다. 그는 부모가 죽은 뒤 얼마 안 되어 자기에게 살인 성향이 있다고 자책하기 시작했고, 이 성향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려고 취해야 했던 예방 조치들 때문에 괴로워했다. 처음에는 거리를 걷는 일이 그에게 고통스러워졌다. 마주치는 사람마다 어디로 사라졌는지 해명을 요구하도록 그를 몰아대는 강박 때문이었다. 그 가운데 누군가 뒤쫓는 그의 눈길에서 갑자기 벗어나기라도 하면, 괴로운 느낌이 남았고, 자기가 그 사람을 없애 버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남았다. 이 강박 관념은 다른 여러 가지와 함께 카인 공상도 감추고 있었다. 「모든 사람은 형제」 이니 말이다. 이 과제를 도저히 해낼 수 없었으므로, 그는 산책을 그만두고 네 벽 안에 갇혀 살았다. 그러나 바깥에서 저질러진 살인 사건의 소식은 신문을 통해 끊임없이 그의 방으로 들어왔고, 그의 양심은 의심의 모습을 하고서 그가 바로 그 살인자라고 줄곧 고발했다. 몇 주 동안 집을 떠난 적이 없다는 확신이 한동안 이런 고발에서 그를 지켜 주었다. 그러다 어느 날, 자기가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집을 나섰을 수도 있고,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채 살인을 저질렀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그의 머리에 떠올랐다. 그때부터 그는 현관문을 잠그고 열쇠를 늙은 가정부에게 맡기면서, 자기가 달라고 하더라도 절대 손에 쥐여 주지 말라고 엄하게 일렀다.

그러니까 내가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찻간을 바꿔 탔을지도 모른다는 설명 시도는 여기서 나온 것이다. 이 설명은 꿈 사고의 재료에서 완성된 상태로 꿈에 옮겨졌고, 분명 나를 그 환자라는 인물과 동일시하려는 것이다. 그에 대한 기억은 손쉬운 연상으로 깨어났다. 내가 마지막으로 밤 기차 여행을 한 것은 몇 주 전 이 사람과 함께였다. 그는 병이 나은 상태였고, 나를 부른 자기 친척들이 있는 시골로 나를 데려가던 길이었다. 우리끼리 칸 하나를 차지했으므로 우리는 밤새 창문을 모두

열어 두었고, 내가 깨어 있는 동안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나는 어린 시절부터 품어 온, 성적 재료와 이어진 아버지에 대한 적대적 충동이 그의 병의 뿌리에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를 그와 동일시함으로써, 나는 나 자신에게 그와 비슷한 고백을 하고 싶었던 것이다. 꿈의 둘째 장면은 실은 짓궂은 공상 하나로 풀린다. 나이 지긋한 두 길동무가 내게 그토록 무례하게 군 것은, 내가 들어오는 바람에 그들이 작정한 대로 밤새 사랑의 표시를 주고받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공상이다. 그런데 이 공상은 이른 유년기의 한 장면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때 나는 아마 성적 호기심에 이끌려 부모의 침실에 들어갔다가, 아버지의 단호한 명령으로 쫓겨났다.

예를 더 늘어놓는 것은 쓸데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예들은 모두 이미 든 예들에서 우리가 배운 것을 확인해 줄 것이다. 곧 꿈속의 판단 행위는 꿈 사고 속에 있는 원형을 되풀이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개 그것은 어울리지 않는 연관 속에 끌어들인 부적절한 되풀이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마지막 예에서처럼, 아주 교묘하게 배치되어 있어서 꿈속에서 독자적으로 이루어진 사고 활동이라는 인상을 줄 수도 있다. 여기서 우리는 그 심리 활동으로 주의를 돌릴 수도 있을 것이다. 그 활동은 꿈 형성에 늘 협력하는 것 같지는 않지만, 협력하는 곳에서는 어디서든, 기원이 제각각이어서 서로 어울리지 않는 꿈 요소들을 모순 없고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한데 녹여 붙이려고 애쓴다. 그러나 우리는 먼저 꿈에 나타나는 정동의 표현을 다루고, 그것을 분석이 꿈 사고 속에서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는 정동과 견주어 보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한다.

(사) 꿈속의 정동

슈트리커[77]는 깊이 있는 지적 하나로, 꿈속의 정동 표현은 우리가 잠에서 깬 뒤 꿈 자체를 떨쳐 버릴 때 흔히 그러듯 가볍게 처리해 버릴 수 없다는 사실로 우리의 주의를 이끌었다. 「꿈에서 내가 강도를 두려워한다면, 강도는 확실히 상상의 것이지만 강도에 대한 두려움은 실제의 것이다.」 꿈에서 내가 기뻐할 때도 마찬가지다. 우리 느낌이 증언하는 바로는, 꿈에서 체험한 정동은 깨어 있는 생활에서 체험한 같은 강도의 정동과 조금도 다름없이 유효하다. 그리고 꿈은 우리의 실제 정신적 체험의 일부로 받아들여 달라고 요구하는데, 그 요구는 표상 내용보다 정동 내용 때문에 더 힘차다. 깨어 있을 때 우리는 이렇게 둘을 갈라놓지 못한다. 정동을 표상 내용과 이어 놓지 않고서는 심리적으로 평가할 줄 모르기 때문이다. 정동과 표상이 종류나 강도에서 서로 어울리지 않으면 깨어 있을 때의 우리 판단은 갈피를 잃는다.

꿈에서는 표상 내용에, 깨어 있을 때의 사고라면 반드시 따르리라고 기대할 정동의 영향이 따르지 않는다. 이 사실에 사람들은 언제나 놀라워했다. 슈트륌펠은 꿈속의 표상이 심리적 가치를 빼앗긴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꿈에는 그 반대의 예도 없지 않다. 정동이 생겨날 계기라곤 전혀 없어 보이는 내용에서 강렬한 정동의 표현이 나타나는 경우다. 꿈에서 나는 끔찍하거나 위험하거나 역겨운 상황에 놓여 있으면서도 두려움이나 혐오를 조금도 느끼지 않는다. 반대로 해롭지 않은 것에 겁에 질리고 유치한 것에 기뻐할 때도 있다.

외현 내용에서 잠재 내용으로 넘어가기만 하면, 꿈의 이 수수께끼는 아마 다른 어떤 꿈 문제보다도 더 갑작스럽고 더 완전하게 사라진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설명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진다. 수수께끼가 더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분석은 **표상 내용은 전치와 대체를**

겪었지만 정동은 바뀌지 않은 채 남아 있었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 그러니 꿈 왜곡으로 달라진 표상 내용이 온전히 남은 정동과 더는 맞지 않는 것도 놀랄 일이 아니다. 그러나 분석이 올바른 내용을 원래 자리에 되돌려 놓고 나면 역시 놀랄 까닭이 없다.

저항하는 검열의 영향을 받은 심리적 콤플렉스에서는 정동이 굽히지 않는 구성 요소이며, 그 콤플렉스를 올바르게 보충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정동뿐이다. 이런 사정은 꿈에서보다 정신신경증에서 한층 더 뚜렷하게 드러난다. 정신신경증에서 정동은 적어도 그 질에 관한 한 언제나 옳다. 정동의 강도는 신경증적 주의가 옮겨 감으로써 오히려 커질 수도 있다. 히스테리 환자가 하찮은 일을 그토록 두려워하는 자신에게 놀라거나, 강박 관념에 시달리는 환자가 아무것도 아닌 일에서 그토록 고통스러운 자책이 생겨나는 데 어리둥절해한다면, 두 사람은 모두 표상 내용을, 곧 하찮은 일이나 아무것도 아닌 일을 본질적인 것으로 여기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으며, 이 표상 내용을 생각의 출발점으로 삼기 때문에 헛되이 맞서 싸운다. 그러나 정신분석은 거꾸로 정동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정동에 속하되 다른 것으로 대체되어 억제된 표상을 찾아냄으로써 그들에게 올바른 길을 보여 준다. 여기에는, 정동 발생과 표상 내용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 풀 수 없는 유기적 결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두 부분이 말하자면 땜질로 붙어 있을 뿐이어서 분석으로 서로 떼어 낼 수 있다는 가정이 깔려 있다. 꿈 해석은 실제로 그렇다는 것을 보여 준다.

먼저 한 가지 예를 들겠다. 마땅히 정동을 일으켜야 할 표상 내용에 정동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분석이 그 까닭을 밝혀 주는 예다.

I. 꿈꾼 사람은 사막에서 사자 세 마리를 보는데, 그중 한 마리는 웃고 있다. 그러나 그녀는 사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 뒤에 그녀는 사자들을

피해 달아났던 것이 틀림없다. 나무 위로 기어오르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보니 프랑스어 교사인 사촌이 나무 위에 벌써 올라가 있다, 등등.

이 꿈에 대해 분석이 내놓은 재료는 다음과 같다. 꿈꾼 사람의 영어 수업에 나온 한 문장이 이 꿈의 사소한 계기가 되었다. 「사자(lion)의 가장 큰 아름다움은 갈기다.」 아버지는 얼굴을 갈기처럼 둘러싼 수염을 길렀다. 영어 선생님은 이름이 라이언스(Lyons) 양이었다. 아는 사람 하나가 뢰베(독일어 Loewe는 사자라는 뜻)의 발라드집을 보내 준 일도 있었다. 이것이 곧 세 마리 사자다. 그녀가 이 사자들을 두려워할 까닭이 어디 있었겠는가? 그녀는 동료들을 부추겨 반란을 일으킨 흑인 하나가 사냥개에게 쫓기다가 살려고 나무 위로 기어오르는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다. 이어서 장난기 어린 기분에서 나온 조각들이 따라 나온다. 이를테면 『플리겐데 블레터(Die Fliegende Blaetter)』에 실린 사자 잡는 법이 그렇다. 「사막을 하나 가져다 체에 걸러라. 사자들이 남을 것이다.」 몹시 우습지만 그리 점잖지는 못한 일화도 하나 있다. 어떤 관리가 왜 상관의 환심을 사려고 좀 더 애쓰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고, 자기도 비집고 들어가려고 애써 보았지만 앞사람이 벌써 올라가 있더라고 대답했다는 이야기다. 꿈을 꾼 날 남편의 상관이 이 부인을 찾아왔다는 것을 알면 모든 것이 곧 이해된다. 그는 부인에게 무척 정중했고 손에 입을 맞추었는데, 그녀는 그를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가 「거물」(독일어 Grosses Tier는 「큰 짐승」이라는 뜻)이고 그녀 나라의 수도에서 「사교계의 사자」 노릇을 하는 사람인데도 말이다. 그러니까 이 사자는 『한여름 밤의 꿈』에 나오는 사자, 가면을 벗고 보니 소목장이 스너그였던 그 사자와 같다.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때 꿈속의 사자는 모두 그런 재료로 빚어져 있다.

II. 두 번째 예로는 언니의 어린 아들이 관 속에 죽어 누워 있는 것을 본 처녀의 꿈을 들겠다. 이제 덧붙여 말하자면, 이 처녀는 그것을 보고도

아무런 고통도 슬픔도 느끼지 않았다. 왜 그랬는지 우리는 분석으로 알고 있다. 꿈은 사랑하는 남자를 다시 보고 싶다는 그녀의 소원을 감추었을 뿐이다. 정동은 소원에 맞추어져 있어야 하며, 소원을 감춘 겉모습에 맞추어져 있을 수는 없다. 슬퍼할 계기는 전혀 없었다.

여러 꿈에서 정동은 적어도, 본래 정동에 속하던 표상 내용을 대신한 그 표상 내용과는 이어진 채로 남아 있다. 다른 꿈에서는 콤플렉스의 해체가 더 멀리 나아간다. 정동은 자기에게 속한 표상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온 듯이 보이고, 꿈속 다른 어딘가에서 꿈 요소들의 새로운 배열에 들어맞는 자리를 찾아낸다. 이것은 꿈의 판단 행위에 대해 우리가 알게 된 것과 비슷하다. 꿈 사고에 의미 있는 추론이 있으면 꿈에도 추론이 하나 들어 있다. 그러나 꿈속에서는 그 추론이 전혀 다른 재료로 옮겨 갈 수 있다. 이렇게 옮겨 가는 일은 드물지 않게 대립의 원칙에 따라 일어난다.

뒤에 말한 가능성을, 내가 더없이 철저하게 분석한 다음 꿈으로 보여 주겠다.

III. 바닷가의 성. 나중에는 성이 바다에 바로 닿아 있지 않고, 바다로 이어지는 좁은 운하 가에 있다. 어떤 P. 씨가 이 성의 성주다. 나는 그와 함께 창이 셋 달린 커다란 응접실에 서 있는데, 창 앞으로는 요새의 성가퀴 같은 벽의 돌출부들이 솟아 있다. 나는 수비대의 일원이며, 아마 자원한 해군 장교인 듯하다. 우리는 적의 전함이 들이닥칠까 두려워한다. 전쟁 중이기 때문이다. P. 씨는 떠날 작정이다. 그는 두려워하던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내게 지시를 내린다. 그의 병든 아내가 아이들과 함께 위협받는 성 안에 있다. 포격이 시작되면 곧바로 큰 홀을 비워야 한다. 그는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자리를 뜨려 한다. 나는 그를 붙잡고, 만일의 경우 어떤 방법으로 그에게 소식을 전해야 하느냐고 묻는다. 그는 무언가 다른 말을 하더니 갑자기 쓰러져 죽는다. 아마 내가 쓸데없이 질문을 퍼부어 그에게 무리를 준 모양이다. 그의 죽음은 내게

더는 아무 인상도 주지 않는다. 그가 죽은 뒤 나는, 과부가 성에 남아야 할지, 총사령관에게 그의 죽음을 알려야 할지, 서열상 다음 지휘관으로서 성의 지휘를 넘겨받아야 할지 생각한다. 나는 이제 창가에 서서 지나가는 배들을 하나하나 살핀다. 어두운 물 위를 쏜살같이 스쳐 가는 상선들인데, 몇 척은 굴뚝이 여럿 달렸고, 다른 배들은 갑판이 불룩하다 (이 갑판은 여기서 이야기하지 않은 예비 꿈에 나오는 기차역들과 아주 비슷하다). 그때 아우가 내 곁에 서 있고, 우리 둘은 창밖으로 운하를 내다본다. 배 한 척을 보고 우리는 공포에 질려 외친다. 「전함이 온다!」 그러나 알고 보니 내가 이미 알던 바로 그 배들이 돌아오는 것일 뿐이다. 이제 작은 배 한 척이 오는데, 기묘하게 잘려 있어서 폭의 한가운데에서 끝난다. 갑판 위에는 잔이나 소금 그릇 같은 묘한 물건들이 보인다. 우리는 마치 한목소리처럼 외친다. 「저건 아침 식사 배다.」

배들의 빠른 움직임, 물의 짙은 푸른빛, 연통의 갈색 연기, 이 모든 것이 한데 어우러져 몹시 긴박하고 음울한 인상을 자아낸다.

이 꿈의 장소들은 아드리아해로 떠났던 여러 번의 여행(미라마레, 두이노, 베네치아, 아퀼레이아)에서 가져와 짜맞춘 것이다. 꿈을 꾸기 몇 주 전 아우와 함께 아퀼레이아에 다녀온, 짧지만 즐거운 부활절 여행이 아직 기억에 생생했다. 그 밖에 미국과 스페인 사이의 해전과, 그와 이어진 미국에 사는 내 친척들에 대한 걱정도 한몫을 한다. 이 꿈에서 정동은 두 군데에서 표출된다. 한 군데에서는 당연히 기대될 정동이 빠져 있다. 성주의 죽음이 내게 아무 인상도 주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강조되어 있다. 다른 한 군데, 전함들을 보는 자리에서 나는 공포에 질리고, 잠든 채로 공포의 온갖 느낌을 겪는다. 잘 짜인 이 꿈에서 정동은 눈에 띄는 모순이 하나도 생기지 않도록 분배되어 있다. 성주가 죽었다고 해서 내가 공포에 질릴 까닭은 없고, 성의 지휘관인 내가 전함을 보고 놀라는 것은 걸맞은 일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분석해 보면 P. 씨는 다름 아닌 내 자아의 대리다(꿈속에서는 내가 그의 대리다).

갑자기 죽는 성주는 바로 나다. 꿈 사고는 내가 때 이르게 죽은 뒤 내게 소중한 이들이 맞을 앞날을 다룬다. 꿈 사고 가운데 이 밖에 불쾌한 생각은 찾아볼 수 없다. 전함을 본 장면에 붙어 있는 공포는 거기서 떼어 이 불쾌한 생각으로 옮겨 놓아야 한다. 거꾸로, 분석은 전함이 나온 꿈 사고의 영역이 더없이 즐거운 회상으로 가득 차 있음을 보여 준다. 한 해 전 베네치아에서였다. 눈부시게 아름다운 어느 날, 우리는 리바 스키아보니에 있는 우리 방 창가에 서서 푸른 석호를 내다보았는데, 그날은 석호가 여느 때보다 훨씬 부산했다. 영국 배들이 들어올 예정이었고, 성대하게 맞이할 채비가 되어 있었다. 그때 갑자기 아내가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며 외쳤다. 「저기 영국 전함들이 온다!」 꿈속에서 나는 바로 이 말에 공포에 질린다. 꿈속의 말이 생활 속의 말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다시 본다. 이 말에 든 「영국」이라는 요소조차 꿈 작업이 놓치지 않았다는 것도 곧 보여 주겠다. 이렇게 나는 꿈 사고에서 꿈 내용으로 가는 길에 기쁨을 공포로 바꾸는데, 바로 이 변환으로 잠재적 꿈 내용의 일부를 표현한다는 것은 넌지시 비쳐 두는 데서 그쳐도 되겠다. 그러나 이 예는, 꿈 작업이 정동의 계기를 꿈 사고 속의 맥락에서 떼어 내어 꿈 내용 속 어디든 원하는 곳에 끼워 넣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 기회에 곁들여 「아침 식사 배」를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보겠다. 이 배가 꿈에 나타나면서, 그때까지 이치에 맞게 이어지던 상황이 그토록 무의미하게 끝나 버린다. 꿈속의 이 물건을 더 가까이 들여다보니 이제야 눈에 띄는 것이 있다. 그 배는 검은색이었고, 가장 넓은 폭에서 잘려 있었기 때문에 잘린 쪽 끝이 에트루리아 도시들의 박물관에서 우리의 관심을 끌었던 물건과 아주 닮아 있었던 것이다. 그 물건은 검은 점토로 빚은, 손잡이가 둘 달린 네모난 잔이었는데, 그 위에 커피잔이나 찻잔 같은 것들이 놓여 있어서 요즘 우리가 쓰는 아침 식사 식기와 아주

비슷했다. 물어보니 에트루리아 귀부인의 화장 도구로, 연지와 분을 담는 작은 상자들이 딸린 것이라고 했다. 우리는 이런 물건을 하나 집에 가져가 안주인에게 주면 나쁘지 않겠다고 서로 농담을 주고받았다. 그러므로 꿈속의 이 물건은 「검은 화장」(독일어 toilette는 옷차림이라는 뜻), 곧 상복을 뜻하며, 죽음을 곧바로 가리킨다. 꿈속 물건의 다른 쪽 끝은 「조각배」(독일어 Nachen)를 떠올리게 한다. 문헌학자인 한 친구가 일러 준 바로는 이 말은 νεχυς〔시체〕라는 어근에서 왔으며, 선사 시대에는 이 조각배에 시신을 뉘어 바다가 묻어 주도록 떠나보냈다고 한다. 꿈에서 배들이 돌아오는 까닭도 이 사정과 이어져 있다.

「조용히, 건져 낸 조각배에 실려 노인은 항구로 흘러든다.」

이것은 난파(독일어 schiffbruch, 곧 배-깨짐, 즉 난파) 뒤에 돌아오는 항해이며, 아침 식사 배는 한가운데가 깨져 나간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아침 식사」 배라는 이름은 어디서 왔을까? 전함에서 남겨 두었던 「영국」이 끼어드는 것이 바로 여기다. Breakfast〔아침 식사〕, 곧 단식(fast)을 깨뜨림(breaking). 깨뜨림은 다시 난파(Schiffbruch)에 속하고, 단식은 상복과 이어진다.

이 아침 식사 배에서 꿈이 새로 지어낸 것은 그 이름 하나뿐이다. 그 물건은 실제로 있었고, 내게 지난번 여행에서 가장 즐거웠던 시간을 떠올리게 한다. 우리는 아퀼레이아의 음식을 믿을 수 없어서 괴르츠에서 먹을 것을 조금 챙겨 갔고, 아퀼레이아에서는 이스트라의 훌륭한 포도주를 한 병 샀다. 그리고 작은 우편 증기선이 메 운하(Canale delle Mee)를 지나 그라도 쪽으로, 쓸쓸히 펼쳐진 석호 속으로 천천히 나아가는 동안 우리는 갑판에서 아침 식사를 했다. 승객은 우리뿐이었다. 그 아침 식사는 이제껏 맛본 아침 식사 가운데 손꼽을 만큼 맛있었다. 이것이 바로 「아침 식사 배」였고, 꿈은 더없이 즐거웠던

바로 이 기억 뒤에, 알 수 없는 불길한 앞날에 대한 가장 슬픈 생각들을 숨기고 있다.

정동이 자기를 생겨나게 한 표상군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은 꿈 형성 과정에서 정동에 일어나는 일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일이다. 그러나 이것은 꿈 사고에서 외현적 꿈으로 가는 길에서 정동이 겪는 변화 가운데 유일한 것도 아니고, 가장 본질적인 것조차 아니다. 꿈 사고 속의 정동을 꿈속의 정동과 견주어 보면 곧바로 분명해지는 것이 있다. 꿈에 정동이 있는 곳이면 그 정동은 꿈 사고에서도 찾을 수 있지만, 그 역은 참이 아니라는 것이다. 대체로 꿈은 자신이 가공되어 나온 심리적 재료보다 정동이 빈약하다. 꿈 사고를 재구성해 보면, 그 속에서는 더없이 강렬한 심리적 충동들이, 대개 자신과 날카롭게 대립하는 다른 충동들과 다투면서, 어김없이 자기를 관철하려고 애쓰고 있음을 알게 된다. 그러다 꿈으로 돌아가 보면 꿈은 흔히 무채색이고, 더 강렬한 정동의 가락이라고는 조금도 없다. 꿈 작업은 내 생각의 내용뿐 아니라 그 정동의 색조까지도 대수롭지 않은 수준으로 끌어내렸다. 정동의 억제가 일어났다고 말해도 좋겠다. 식물학 연구서 꿈을 예로 들어 보자. 이 꿈은, 내가 지금 하는 대로 행동하고 나에게, 오직 나에게만 옳다고 여겨지는 대로 삶을 꾸려 갈 자유를 달라는 열정적인 변론에 대응한다. 그 결과 나온 꿈은 대수롭지 않게 들린다. 나는 연구서를 썼다, 그것이 내 앞에 놓여 있다, 채색 도판들이 실려 있고, 책마다 말린 식물이 딸려 있다. 전쟁터의 평온과도 같다. 전투의 소란은 흔적조차 남아 있지 않다.

사정이 달리 돌아갈 수도 있다. 꿈에 생생한 정동 표현이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먼저, 많은 꿈이 대수롭지 않아 보이는 반면 깊은 감정 없이 꿈 사고 속으로 깊이 들어가기란 결코 불가능하다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에 머물러 보자.

꿈 작업 과정에서 일어나는 이 정동의 억제를 여기서 이론적으로 완전히 설명할 수는 없다. 그러려면 정동 이론과 억제의 기제를 더없이 세심하게 연구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는 두 가지 생각만 적어 두겠다. 나는 다른 여러 근거에서, 정동 발생을 운동 신경 자극이나 분비 신경 자극의 과정과 비슷한, 몸 안쪽을 향하는 원심적 과정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 수면 상태에서는 외부 세계를 향해 운동 충동을 내보내는 일이 멈춘 것처럼 보이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수면 중에는 무의식적 사고가 정동을 원심적으로 흥분시키는 일도 더 어려워질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꿈 사고가 방출되는 동안 일깨워진 정동 충동은 그 자체가 약한 흥분일 것이고, 따라서 꿈에 들어오는 정동 충동도 더 강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논리에 따르면 「정동의 억제」는 결코 꿈 작업의 결과가 아니라 수면 상태의 결과일 것이다.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일 리는 결코 없다. 우리는 더 복잡한 꿈은 모두 심리적 힘들이 충돌한 끝에 나온 타협의 결과임이 드러났다는 것도 기억해야 한다. 한편으로 소원을 이루는 생각들은 검열의 반대와 싸워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자주 보았듯이 무의식적 사고에서도 생각의 흐름은 저마다 자기와 모순되는 반대편과 한 멍에를 메고 있다. 이 생각의 흐름들은 모두 정동을 띨 수 있으므로, 정동의 억제를 대립하는 것들이 서로에게 가하고 검열이 자기가 억제한 경향들에 가하는 제지의 결과로 본다면, 대체로 보아 크게 틀리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꿈의 왜곡이 꿈 검열의 첫 번째 결과였듯이, 정동의 제지는 그 두 번째 결과일 것이다.

꿈 내용의 정동의 색조가 대수롭지 않다는 것을 꿈 사고 속의 대조로 설명할 수 있는 꿈을 예로 하나 끼워 넣겠다. 이야기할 꿈은 다음과 같이 짧은데, 어느 독자든 역겨워하며 읽을 것이다.

IV. 조그만 둔덕 하나, 그 위에 야외 변소 같은 것. 아주 긴 의자가 있고, 그 끝에 커다란 변기 구멍이 나 있다. 뒤쪽 가장자리는 온통 크기도 제각각이고

신선한 정도도 제각각인 작은 똥 무더기로 빽빽이 덮여 있다. 의자 뒤에 관목 하나. 나는 의자 위에 오줌을 눈다. 긴 오줌 줄기가 모든 것을 깨끗이 헹궈 내고, 똥 자국들은 쉽게 벗겨져 구멍 속으로 떨어진다. 그래도 끝에는 무언가가 남아 있는 것 같다.

이 꿈에서 나는 왜 역겨움을 느끼지 않았을까?

분석이 보여 주듯이, 더없이 즐겁고 충족감을 주는 생각들이 이 꿈의 형성에 함께 작용했기 때문이다. 분석을 시작하자마자 나는 헤라클레스가 청소한 아우게이아스의 외양간을 떠올린다. 내가 바로 이 헤라클레스다. 둔덕과 관목은 지금 내 아이들이 머물고 있는 아우스제의 것이다. 나는 신경증의 유년기 병인을 발견했고, 그렇게 해서 내 아이들이 병에 걸리지 않도록 지켜 냈다. 긴 의자는(물론 구멍은 빼고) 한 여성 환자가 애정 어린 마음으로 내게 선물한 가구를 충실히 본떴다. 이것은 환자들이 나를 얼마나 떠받드는지를 떠올리게 한다. 인간 배설물의 박물관조차 덜 불쾌하게 해석할 여지가 있다. 내가 아무리 그것을 역겨워한다 해도, 그것은 아름다운 나라 이탈리아의 기념품이다. 누구나 알다시피 그 나라의 작은 도시들에서는 변소가 이런 식으로밖에 갖추어져 있지 않다. 모든 것을 깨끗이 씻어 내는 오줌 줄기는 위대함을 틀림없이 암시한다. 걸리버가 릴리퍼트의 큰불을 끄는 것도 이런 식이다. 물론 그 때문에 그는 더없이 조그만 여왕의 노여움을 산다. 라블레 선생이 그린 초인 가르강튀아도 노트르담에 걸터앉아 오줌 줄기를 도시에 겨누며 이런 식으로 파리 사람들에게 앙갚음한다. 바로 어제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나는 가르니에가 그린 라블레 삽화를 뒤적이고 있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이것 또한 내가 초인이라는 증거다! 노트르담의 전망대는 파리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던 구석이었다. 한가한 오후면 나는 으레 그 성당의 탑에 올라가 괴물상과 악마 가면들 사이를 기어오르며 돌아다니곤 했다. 모든 배설물이 오줌 줄기 앞에서 그토록

빨리 사라지는 사정은 Afflavit et dissipati sunt〔그분이 바람을 부시니 그들이 흩어졌다〕라는 표어에 들어맞는다. 나는 언젠가 이 표어를 히스테리 치료법에 관한 장의 제목으로 삼을 생각이다.

이제 꿈의 계기를 보자. 무더운 여름 오후였다. 저녁에 나는 히스테리와 성도착의 관계에 관해 강의를 했는데, 내가 해야 했던 말이 모두 몹시 마음에 들지 않았고 아무 가치도 없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지쳐 있었고, 이 어려운 일에서 조금도 즐거움을 찾지 못했으며, 인간의 오물을 이렇게 뒤적이는 일에서 벗어나 아이들을 보고, 그다음에는 이탈리아의 아름다움을 보고 싶었다. 이런 기분으로 나는 강의실을 나와 카페로 갔다. 입맛을 잃었기에 바깥 공기를 쐬며 가벼운 요기라도 하려던 것이다. 그런데 청중 가운데 한 사람이 따라왔다. 그는 내가 커피를 마시고 롤빵을 삼키는 동안 곁에 앉게 해 달라고 청하더니 내게 듣기 좋은 말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그는 자기가 내게서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웠는지, 이제는 모든 것을 다른 눈으로 보게 되었다는 것, 내가 아우게이아스의 외양간을, 즉 신경증 이론을 청소해 그 오류와 편견을 쓸어 냈다는 것, 한마디로 내가 아주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했다. 내 기분은 그의 찬가와 어울리지 않았다. 나는 역겨움과 싸웠고, 그 자리를 빠져나오려고 일찍 집으로 돌아왔다. 잠들기 전에 나는 라블레를 뒤적였고, C. F. 마이어의 『한 소년의 고난(Die Leiden eines Knaben)』이라는 단편을 읽었다.

꿈은 이런 재료에서 길어 온 것이고, 마이어의 소설은 어린 시절 장면들의 기억을 보탰다(툰 백작 꿈, 마지막 장면 참조). 역겨움과 짜증으로 물든 그날의 기분은, 꿈 내용의 재료를 거의 전부 대도록 허락받았다는 의미에서 꿈속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밤사이에 힘차고 과장되기까지 한 자기주장이라는 반대 기분이 깨어나 앞의 기분을 흩어 버렸다. 꿈은 같은 재료 안에 자기 비하와 과장된 자기주장의 표현을

함께 담을 수 있는 형태를 취해야 했다. 이 타협 형성물에서 모호한 꿈 내용이 나왔고, 대립하는 것들이 서로를 제지한 탓에 대수롭지 않은 정동의 가락도 나왔다.

소원 성취 이론에 따르면, 억제되어 있으면서도 동시에 쾌감을 주는, 자기를 드높이는 일에 관한 생각의 흐름이 역겨움이라는 반대편 생각들과 짝지어지지 않았다면 이 꿈은 생겨날 수 없었을 것이다. 불쾌한 것은 꿈으로 표현되도록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낮에 떠오른 고통스러운 생각은 소원 성취를 감싸 주는 외투 노릇을 할 때에만 꿈속으로 비집고 들어올 수 있다. 꿈 작업은 꿈 사고 속의 정동을 받아들이거나 영으로 줄이는 것 말고도 또 다른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 **꿈 작업은 정동을 그 반대로 바꿀 수 있다.** 꿈의 요소는 모두 그 자체로도, 그 반대로도 해석될 수 있다는 해석 규칙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처음부터 어느 쪽으로 적어야 할지는 결코 알 수 없고, 이 점은 오직 맥락만이 결정할 수 있다. 이런 사정에 대한 어렴풋한 짐작이 분명 민간의 의식에도 스며들었다. 해몽서들은 해석할 때 반대의 원칙을 따르는 일이 아주 잦다. 이렇게 반대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연상이 긴밀한 사슬로 이어져 있기 때문인데, 우리 생각 속에서 이 사슬은 어떤 사물의 표상을 그 반대의 표상 속에서 찾아낸다. 다른 모든 전치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검열의 목적에 봉사하지만, 소원 성취가 해내는 일인 경우도 많다. 소원 성취란 바로 반갑지 않은 것을 그 반대로 대체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꿈 사고의 정동도 표상과 마찬가지로 반대로 바뀐 채 꿈에 나타날 수 있으며, 이런 정동의 전도는 대개 꿈 검열이 일으키는 것으로 보인다. 꿈 검열을 설명할 때 흔히 드는 비유가 이미 보여 주었듯이, 정동의 억제와 전도는 사회생활에서도 쓸모가 있다. 무엇보다 가장(假裝)하는 데 쓸모가 있다. 내가 예의를 지켜야 할 사람과 이야기하면서 그에게 듣기 싫은 말을 해야 한다면, 내 생각의 문구를 누그러뜨리는

것보다 내 감정의 표현을 그에게 감추는 것이 거의 더 중요하다. 공손한 말을 하더라도 증오와 경멸이 담긴 눈길이나 몸짓을 곁들인다면, 내가 그 사람에게 주는 효과는 거리낌 없이 그의 얼굴에 경멸을 내던졌을 때와 별로 다르지 않다. 그러니 무엇보다도 검열은 내게 감정을 억제하라고 명하며, 내가 가장의 기술에 능하다면 나는 위선적으로 반대 감정을 내보일 수 있다. 화내고 싶은 곳에서 웃고, 없애 버리고 싶은 곳에서 애정을 꾸며 보이는 것이다.

꿈 검열의 목적을 위해 정동을 이렇게 전도한 훌륭한 예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삼촌의 수염 꿈에서 나는 내 친구 R.에게 큰 애정을 느낀다. 꿈 사고가 그를 얼간이라고 꾸짖는 바로 그때, 그리고 그렇게 꾸짖기 때문에. 우리는 검열이 존재한다는 첫 증거를 바로 이 정동 전도의 예에서 끌어냈다. 여기서도 꿈 작업이 이런 반대 정동을 무에서 만들어 낸다고 가정할 필요는 없다. 꿈 작업은 대개 그런 정동이 꿈 사고의 재료 속에 이미 마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오직 저항하는 충동의 심리적 힘으로만 그것을 강화해, 마침내 그 정동을 꿈 형성에 끌어들일 수 있는 지점까지 끌어올린다. 방금 말한 삼촌 꿈에서 애정 어린 반대 정동은 아마 유년기의 원천에서 나왔을 것이다(꿈의 뒷부분이 시사하듯이). 내 어린 시절 체험의 특이한 성격 탓에 삼촌과 조카의 관계가 내 모든 우정과 증오의 원천이 되었기 때문이다(이 장 (마)의 분석 참조).

「위선적인」 이라는 이름이 어울리는 꿈의 부류가 하나 있는데, 이 꿈들은 소원 성취 이론을 혹독한 시험대에 올린다. 내가 이런 꿈에 주목하게 된 것은 M. 힐퍼딩 박사가 빈 정신분석학회에서 로제거가 보고한 꿈을 토론에 부쳤을 때였다. 그 꿈을 아래에 옮겨 싣는다.

로제거는 『 숲의 고향(Waldheimat) 』 제11권에 실린 이야기 「타향살이(Fremd gemacht)」 303쪽에서 이렇게 쓴다.

「나는 대체로 잠을 잘 자는 편이었지만, 숱한 밤 안식을 잃기도 했다. 학생이자 문필가로서 소박하게 살아가는 동안, 나는 오랜 세월 그야말로 재단사다운 삶의 그림자를, 떼어 낼 수 없는 유령처럼 끌고 다녔다. 낮 동안 내가 그렇게 자주, 그렇게 생생하게 지난날을 생각하며 지냈다고는 할 수 없다. 속물의 허물을 벗고 나와 하늘과 땅에 덤벼드는 사람에게는 달리 생각할 거리가 있는 법이다. 혈기 왕성한 젊은이였던 나는 밤에 꾸는 꿈을 두고 생각해 보지도 않았다. 나중에야, 무엇이든 곰곰이 생각하는 버릇이 들었을 때, 혹은 내 안의 속물이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꿈을 꿀 때면 내가 언제나 재단 직공이었으며 언제나 장인의 작업장에서 아무 삯도 받지 못한 채 오랜 시간 일하고 있었다는 것이 눈에 띄었다. 그곳에 앉아 바느질하고 다림질하면서도, 나는 내가 더는 그곳 사람이 아니며 어엿한 도시 시민으로서 따로 돌볼 일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늘 휴가 중이었고 시골로 나가 있었으며, 그럴 때면 장인 곁에 앉아 그를 거들었다. 나는 자주 기분이 언짢았고, 더 좋고 더 쓸모 있는 일에 쓸 수도 있을 시간을 잃는 것이 아까웠다. 무언가가 치수에 맞지 않거나 정확하게 재단되지 않으면 장인의 꾸지람을 감수해야 했다. 침침한 작업장에서 허리를 구부리고 앉아 있다가, 일을 그만두겠다고 말하리라 마음먹은 적도 많았다. 한번은 실제로 그렇게 말했지만 장인은 들은 체도 하지 않았고, 다음번에 나는 다시 그의 곁에 앉아 바느질을 하고 있었다.」

「그런 고단한 시간을 보내고 깨어났을 때 나는 얼마나 행복했던가! 그러고 나서 나는, 이 꿈이 또 비집고 들어오면 힘껏 떨쳐 버리고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치리라 다짐했다. 『이건 망상일 뿐이야. 나는 침대에 누워 있고, 자고 싶어.』 …… 그러고도 이튿날 밤이면 나는 또 재단 작업장에 앉아 있곤 했다.」

「이렇게 여러 해가 음울하도록 규칙적으로 흘러갔다. 장인과 내가 알펠호퍼네, 곧 내가 도제 생활을 시작한 농부의 집에서 일하고 있을 때, 장인이 유난히 내 일솜씨를 못마땅해하는 일이 있었다. 『도대체 네 정신이 어디 가 있는 건지 좀 알아나 보자?』 하고 외치며 그는 어두운 얼굴로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내가 그저 호의로 그와 함께 있는 것뿐이라고 장인에게 설명하고 떠나 버리는 것이 가장 현명하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오히려 장인이 도제 하나를 들이고 나더러 작업대에서 그에게 자리를 내주라고 명했을 때도 순순히 따랐다. 나는 구석으로 옮겨 앉아 계속 바느질을 했다. 같은 날 재단사가 또 하나 고용되었다. 그는 편협한 사람이었다. 열아홉 해 전에 우리 밑에서 일하다가 선술집에서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호수에 빠진 체코 사람이었으니 말이다. 그가 앉으려 하자 그에게는 앉을 자리가 없었다. 내가 묻는 듯이 장인을 쳐다보자 그가 내게 말했다. 『너는 재단 일에 재주가 없다. 가도 좋다. 너는 이제 자유다.』 그때 내가 느낀 공포가 어찌나 압도적이었던지 나는 잠에서 깨어났다.」

「새벽의 잿빛이 사랑하는 내 집의 맑은 창으로 어렴풋이 비쳐 들었다. 예술품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었다. 품위 있는 책장에는 영원한 호메로스, 거대한 단테, 비길 데 없는 셰익스피어, 찬란한 괴테가 서 있었다 — 모두 빛나며 불멸하는 이들이었다. 옆방에서는 잠에서 깨어 엄마와 재잘거리는 아이들의 맑고 작은 목소리가 울려 왔다. 나는 목가적으로 달콤하고, 평화로우며 시적이고 정신적인 그 삶, 내가 그토록 자주 그토록 깊이 인류의 관조적인 행복으로 그려 보았던 그 삶을 다시 찾은 것만 같았다. 그런데도 나는, 장인이 나를 내보내게 둘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그만두겠다고 말하지 못한 것이 분했다.」

「그런데 얼마나 신기한 일인가. 장인이 『나를 내보낸』 그 밤 뒤로 나는 편히 쉴 수 있었다. 나는 더는 재단 일을 꿈꾸지 않았다. 아득한

과거에 놓인 이 체험, 소박함 속에서 참으로 행복했으면서도 내 삶의 훗날에 긴 그림자를 드리운 이 체험을.」

I. 젊은 시절 재단 직공이었던 시인의 이 꿈, 곧 이 연작 꿈에서는 소원 성취가 지배하고 있음을 알아보기 어렵다. 즐거운 일은 모두 깨어 있는 상태에서 일어났고, 꿈은 오래전에 잊힌 불행한 삶의 유령 같은 그림자를 끌고 다니는 것처럼 보였다. 이와 비슷한 성격의 내 꿈들 덕분에 나는 이런 꿈을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 젊은 의사 시절 나는 오랫동안 화학 연구소에서 일했지만 그 까다로운 학문에서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 그래서 깨어 있을 때 나는 내 삶에서 결실 없이 끝난 이 한 토막, 참으로 부끄러운 이 일을 결코 떠올리지 않는다. 그런데 내가 실험실에서 일하며 분석을 하고 거기서 이런저런 일을 겪는 따위의 꿈이 되풀이해 찾아오게 되었다. 시험 꿈과 마찬가지로 이 꿈들은 불쾌하고, 결코 아주 또렷하지 않다. 이 꿈 가운데 하나를 분석하다가 나는 「분석」이라는 낱말에 주의를 기울이게 되었고, 그 낱말이 이 꿈들을 이해하는 열쇠가 되었다. 그사이에 나는 「분석가」가 되어 있었던 것이다. 나는 높이 칭찬받는 분석을 한다 — 물론 정신분석이다. 그러자 나는 알게 되었다. 내가 깨어 있을 때 하는 이 분석들을 자랑스러워하며 그것으로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는지 뽐내고 싶어질 때면, 꿈은 밤마다 내가 자랑스러워할 까닭이 없는 저 다른 분석들, 실패한 분석들을 내 앞에 들이밀었던 것이다. 이 꿈들은 이름난 시인이 된 재단사의 꿈처럼 벼락출세자의 처벌 꿈이다. 그러나 꿈이 어떻게 벼락출세자의 자만과 다투는 자기비판에 봉사하고, 금지된 소원의 성취 대신 이성적인 경고를 내용으로 삼을 수 있는가? 이 물음에 답하기가 무척 어렵다는 것은 이미 말했다. 처음에는 지나친 야심의 공상이 꿈의 토대를 이루었지만, 그 대신 꿈 내용에 이른 것은 그 공상이 억제되고 무안을 당한 모습뿐이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정신생활에는

이런 전도의 원인으로 돌릴 수 있는 마조히즘적 경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러나 개개의 꿈을 좀 더 철저히 살펴보면 또 다른 요소를 알아볼 수 있다. 내 실험실 꿈들 가운데 하나의 흐릿한 곁가지 부분에서, 나는 마침 내 직업 경력에서 가장 암울하고 가장 성과 없던 해에 해당하는 나이였다. 아직 자리도 생계 수단도 없던 때였는데, 문득 보니 결혼할 수 있는 여자가 여럿이라 내가 골라잡을 수 있었다! 그러니까 나는 다시 젊어진 것이고, 더구나 그녀도 다시 젊어졌다. 이 힘든 세월을 모두 나와 함께 나눈 그 여인 말이다. 이렇게 해서, 늙어 가는 남자의 마음을 끊임없이 갉아먹는 소원 가운데 하나가 무의식적인 꿈의 유발 요인으로 드러났다. 다른 심리적 층위에서 허영심과 자기비판 사이에 벌어진 격렬한 싸움이 꿈 내용을 결정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을 꿈으로 만들 수 있었던 것은 더 깊이 뿌리내린 젊음의 소원뿐이었다. 깨어 있을 때에도 사람은 이렇게 혼잣말을 할 수 있다. 물론 지금은 아주 좋고, 한때는 참 힘든 시절이었지. 하지만 그때도 좋았어. 너는 아직 그렇게 젊었으니까.

시인이 보고한 꿈을 살펴볼 때는, 그가 거슬린다고 느끼고 본질적이지 않다고 여긴 세부를 보고에서 빼 버렸으리라고 가정해도 좋을 때가 많다. 그렇다면 그의 꿈은 우리에게 수수께끼를 내는 셈인데, 꿈 내용을 정확하게 재현한 것이 있다면 쉽게 풀릴 수수께끼다.

O. 랑크는 그림 동화 「용감한 꼬마 재단사」, 곧 「한 방에 일곱」에 아주 비슷한 벼락출세자의 꿈이 이야기되어 있다는 데 내 주의를 돌려 주었다. 영웅이 되어 왕의 딸과 결혼한 재단사가 어느 날 밤 아내인 공주 곁에서 자기 생업에 관한 꿈을 꾸었다. 공주는 의심을 품고 이튿날 밤 무장한 호위병들을 세워 두어, 꿈속에서 하는 말을 엿듣고 꿈꾼 사람을 처치하게 했다. 그러나 꼬마 재단사는 미리 귀띔을 받았고, 자기 꿈을 바로잡을 줄 알았다.

꿈 사고의 정동이 정지되고 삭감되고 전도되어 마침내 꿈의 정동이 되기까지 거치는 과정의 복합체는, 완전히 분석된 꿈들을 알맞게 종합해 보면 잘 관찰할 수 있다. 여기서는 앞에서 논한 경우 가운데 몇 가지의 예가 되는, 꿈속 정동 흥분의 사례를 몇 가지 다루겠다.

나이 든 브뤼케가 나 자신의 골반을 표본으로 만들라는 기이한 과제를 내게 주는 꿈에서는 **마땅히 있어야 할 공포가 꿈 자체에는 빠져 있다**. 그런데 이것은 여러 의미에서 소원 성취다. 표본 만들기는 자기 분석을 뜻한다. 나는 꿈에 관한 책을 펴냄으로써 말하자면 이 자기 분석을 해내는 셈인데, 그 일이 내게는 몹시 불쾌해서 다 써 둔 원고의 인쇄를 벌써 한 해 넘게 미루어 왔다. 이제 이 거부감을 무시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소원이 발동하고, 그 때문에 나는 꿈에서 공포(Grauen. 이 낱말은 머리가 센다는 뜻도 된다)를 느끼지 않는다. 나는 또 다른 (독일어) 뜻의 공포, 곧 머리가 세는 일에서도 벗어나고 싶다. 내 머리는 이미 빠르게 세어 가고 있고, 희끗해진 머리는 이제 더는 머뭇거리지 말라고 나를 일깨우기도 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알다시피, 꿈의 끝에서 이 생각은 그 고된 여정의 목적지에 이르는 일을 내가 아이들에게 맡겨야 하리라는 데서 표현을 얻는다.

충족감의 표현을 깨어난 직후의 순간으로 옮겨 놓는 두 꿈 가운데 한 꿈에서, 이 충족감은 「그것을 이미 꿈꾼 적이 있다」가 무엇을 뜻하는지 이제 알게 되리라는 기대에서 동기를 얻으며, 실제로는 내 첫아이의 탄생을 가리킨다. 다른 꿈에서는 「징조로 예고되었던 것」이 이제 일어나리라는 확신에서 동기를 얻는데, 이 뒤의 충족감은 둘째 아들이 태어났을 때 내가 느낀 것과 같은 충족감이다. 여기서는 꿈 사고를 지배하던 바로 그 정동이 꿈에도 남아 있다. 그러나 모든 꿈에서 과정이 이렇게 단순하지는 않을 것이다. 두 분석을 조금만 살펴보면, 검열에 굴복하지 않는 이 충족감에, 검열을 두려워해야 하는 원천에서

오는 것이 덧붙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 원천에서 끌어온 정동은, 기꺼이 받아들여지는 비슷한 충족감의 정동으로 제 몸을 감싸지 않았다면, 말하자면 다른 정동의 뒤에 숨어 몰래 끼어들지 않았다면, 틀림없이 반발을 불러일으켰을 것이다. 안타깝게도 실제 꿈 견본에서는 이것을 보여 줄 수 없지만, 다른 영역에서 가져온 예 하나로 내 뜻을 알아듣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과 같은 경우를 지어 보자. 내 가까이에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기쁘겠다는 강한 마음이 내 안에 일어난다고 하자. 그러나 내 본성의 도덕적인 부분은 이 마음에 굴복하지 않는다. 나는 이 악의 어린 소원을 감히 입 밖에 내지 못하고, 그가 당해서는 안 될 일을 당하면 그 일로 생긴 충족감을 억제하며, 억지로 유감의 말을 하고 유감스러운 생각을 한다. 누구나 이런 처지에 놓여 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그 미운 사람이 무슨 잘못을 저질러 마땅한 불행을 자초했다고 해 보자. 그러면 나는 그가 정당한 벌을 받았다는 충족감에 마음껏 고삐를 풀어 줄 수 있고, 이 일을 두고, 공정한 다른 많은 사람의 의견과 일치하는 의견을 말한다. 그러나 내 충족감이 남들의 것보다 더 강렬하다는 것을 나는 알 수 있다. 다른 원천에서, 곧 내 증오에서 덧붙은 것이 있기 때문이다. 이 증오는 지금까지 내면의 검열에 가로막혀 정동을 풀어놓지 못했지만, 달라진 상황에서는 더는 가로막히지 않는다. 이 경우는 대체로 사회에서 흔히 보는 전형이다. 반감을 산 사람이나 인기 없는 소수파를 따르는 사람이 죄를 지을 때가 그렇다. 그들이 받는 벌은 그들의 잘못에 상응하지 않고, 그들의 잘못 더하기 지금까지 힘을 쓰지 못하던, 그들을 향한 악의에 상응한다. 벌을 집행하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부당한 일을 저지르지만, 오래 묵은 억제가 자기 안에서 풀려나며 생기는 충족감 때문에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이런 경우 정동은 그 질로 보면 정당하지만 그 양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 그리고 한

가지 점에서 달래진 자기비판은 둘째 점을 검토하는 일을 너무도 쉽게 소홀히 한다. 일단 문을 열어 놓으면 처음에 들이려던 것보다 더 많은 사람이 들어오는 법이다.

신경증적 성격의 두드러진 특징, 곧 정동을 일으킬 수 있는 유발 요인이 질적으로는 정당하지만 양적으로는 지나친 결과를 낳는다는 특징도, 어쨌든 심리학적 설명을 허락하는 한에서는 이런 식으로 설명해야 한다. 그 지나침은 무의식에 머물러 지금까지 억제되어 온 정동의 원천들에서 온다. 이 원천들은 연상 속에서 현재적 유발 요인과 연결을 맺을 수 있고, 그리하여 나무랄 데 없고 허용된 정동의 원천이 열어 주는 배출구로 자기 정동을 풀어놓을 수 있다. 그러므로 서로 제지하는 관계가 억제된 심리적 판단과 억제하는 심리적 판단 사이에서만 성립한다고 여겨서는 안 된다는 데 우리는 주의하게 된다. 두 판단이 협력하고 서로 강화해 병적인 정동을 일으키는 경우도 똑같이 주목할 만하다. 독자는 심리 기제에 관한 이 암시들을 꿈속의 정동 표현을 이해하는 데 적용해 주기 바란다. 꿈에 나타나고 꿈 사고 속 제자리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충족감이라도, 그 자리를 가리켜 보이는 것만으로 늘 완전히 설명되지는 않는다. 대개는 꿈 사고 속에서 둘째 원천을 찾아야 할 것이다. 검열의 압력이 가해지는 원천, 그 압력 아래에서라면 충족감이 아니라 반대 정동을 낳았을 원천이다. 그러나 이 원천은 첫째 원천이 있는 덕분에 자기의 충족 정동을 억제에서 풀어놓고, 다른 원천에서 솟는 충족감을 강화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꿈속의 정동은 여러 지류가 합쳐져 이루어진 것처럼, 그리고 꿈 사고의 재료에 비추어 중층 결정된 것처럼 보인다. 같은 정동을 내줄 수 있는 정동의 원천들은 꿈 작업 속에서 서로 합류해 그 정동을 만들어 낸다.[50]

「Non vixit〔그는 살지 않았다〕」가 중심점을 이루는 저 훌륭한 꿈을 분석하면 이 얽히고설킨 관계를 얼마간 들여다볼 수 있다(이 장

(마) 참조). 이 꿈에서 질이 서로 다른 정동 표현들은 외현 내용의 두 지점에 억지로 몰려 있다. 적대적이고 고통스러운 정동이(꿈 자체에는 「묘한 정동에 사로잡혀」라는 구절이 있다), 내가 적수인 친구를 두 낱말로 없애 버리는 지점에서 겹친다. 꿈의 끝에서 나는 몹시 흐뭇해하며, 깨어 있을 때라면 부조리하다고 여길 가능성을 기꺼이 믿으려 한다. 곧, 한낱 소원만으로 치워 버릴 수 있는 revenants〔돌아온 망령〕가 있다는 것이다.

이 꿈의 계기는 아직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 계기는 본질적인 것이어서 꿈을 설명하는 데 큰 몫을 한다. 나는 베를린에 있는 친구(내가 F.라고 불러 온 친구다)[51]에게서, 그가 곧 수술을 받을 것이며 빈에 사는 그의 친척들이 그의 상태를 내게 알려 주리라는 소식을 받았다. 수술 뒤 처음 몇 차례 온 소식은 안심할 만한 것이 못 되어 나를 불안하게 했다. 무엇보다 직접 그에게 가 보고 싶었지만, 그 무렵 나는 통증이 심한 병을 앓고 있어서 몸을 움직일 때마다 고문을 당하는 것 같았다. 꿈 사고에서 나는 내가 소중한 친구의 목숨을 걱정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나는 그의 하나뿐인 누이가, 나와는 안면이 없던 사람이었지만, 더없이 짧게 앓고 일찍 죽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꿈에서 F.는 자기 누이 이야기를 하며 말한다. 「45분 만에 누이는 죽었어.」) 나는 그의 체질도 누이보다 크게 튼튼하지는 않으리라고, 그래서 곧 훨씬 나쁜 소식을 받고 건강을 무릅쓰고 길을 떠나게 되리라고, 그러고도 너무 늦게 도착해 두고두고 나 자신을 탓하게 되리라고 상상했음이 틀림없다.[52] 너무 늦게 도착한다는 이 비난이 꿈의 중심점이 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내 학창 시절의 존경하는 스승 브뤼케가 무시무시한 푸른 눈으로 쏘아보며 똑같은 일로 나를 꾸짖는 장면으로 표현되었다. 실제 장면에서 이렇게 벗어난 까닭은 곧 분명해질 것이다. 꿈은 그 장면 자체를 내가 겪은 모습 그대로 재현할 수는 없다. 물론 꿈은 푸른 눈을 다른 사람에게 남겨 두지만, 소멸시키는

자의 역할은 내게 맡긴다. 이 전도는 분명히 소원 성취의 결과다. 친구의 목숨에 대한 걱정, 그에게 가 보지 않았다는 자책, 부끄러움(그는 여러 번 빈으로 나를 찾아왔었다), 병 때문이니 나는 용서받았다고 여기고 싶은 욕망 — 이 모든 것이 정동의 폭풍을 이룬다. 그 폭풍은 잠결에도 뚜렷이 느껴지며, 꿈 사고의 구석구석에서 몰아쳤다.

그런데 꿈의 계기에는 정반대로 작용한 것이 하나 더 있었다. 수술 뒤 처음 며칠 동안 좋지 않은 소식과 함께, 이 일은 누구에게도 일절 말하지 말라는 당부도 받았는데, 그것이 내 마음을 상하게 했다. 내 입이 무겁다는 것을 쓸데없이 믿지 못한다는 뜻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물론 나는 이 부탁이 친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소식을 전하는 사람의 서투름이나 지나친 소심함 탓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 속에 감춰진 비난이 내 마음을 몹시 언짢게 했다. 전혀 근거 없는 비난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누구나 알듯이, 「 뭔가 짚이는 데가 있는 」 비난만이 사람을 짜증 나게 할 힘을 지닌다. 오래전에 나는, 서로 친하게 지내며 기꺼이 나를 벗으로 대해 주던 두 사람 사이에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해 한 말을 아무 쓸데없이 고자질한 적이 있었던 것이다. 물론 이 일은 내 친구 F.의 일과는 아무 관계도 없었다. 그때 들어야 했던 비난도 나는 잊지 않았다. 내가 그 사이에서 말썽을 일으킨 두 친구 가운데 한 사람은 플라이슐 교수였다. 다른 한 사람은 요제프라고 불러도 되겠다. 꿈에 나오는 내 친구이자 적수인 P.도 이 이름을 지니고 있었다.

두 꿈 요소, 곧 첫째로 드러나지 않게라는 말과, 둘째로 자기 일을 내가 P.에게 얼마나 언급했느냐는 Fl.의 물음은, 내가 아무것도 혼자 간직하지 못한다는 비난을 증언한다. 그러나 너무 늦게 도착한다는 비난을 현재에서 떼어, 내가 브뤼케의 실험실에서 지내던 시절로 옮겨 놓는 것은 바로 이 기억들이 섞여 들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꿈의 소멸

장면에서 둘째 인물을 요제프라는 사람으로 바꿔 놓음으로써, 나는 내가 너무 늦게 도착한다는 첫째 비난뿐 아니라, 더 엄하게 억제된 둘째 비난, 곧 내가 비밀을 지키지 못한다는 비난까지 표현해 내는 데 성공한다. 이 꿈이 압축하고 대체하는 작업과 그 동기가 이제 분명해졌다.

아무것도 발설하지 말라는 당부에 대한 내 분노는 원래 아주 하찮은 것이었지만, 수면 아래 깊숙이 흐르는 원천들에서 뒷받침을 받아, 실제로는 내게 소중한 사람들을 향한 적대적 정동의 불어난 물줄기가 된다. 이 뒷받침을 대 주는 원천은 어린 시절에서 찾을 수 있다. 또래들과 맺는 내 우정도 적대도 나보다 한 살 위인 조카와의 어린 시절 관계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은 이미 말했다. 그 관계에서 우위에 선 쪽은 그였고, 나는 일찍부터 나를 지키는 법을 배웠다. 우리는 떨어질 줄 모르고 함께 살며 서로 사랑했고, 어른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러면서도 서로 치고받고 서로 일러바쳤다. 어떤 의미에서 내 친구들은 모두 이 첫 인물, 「일찍이 흐릿한 내 눈에 모습을 드러냈던」 인물의 화신이다. 그들은 모두 revenants다. 조카 자신도 소년 시절에 돌아왔고, 그때 우리는 카이사르와 브루투스를 연기했다. 절친한 친구와 미운 적은 내 감정 생활에 언제나 없어서는 안 될 것이었다. 나는 언제나 그들을 새로 만들어 낼 수 있었고, 드물지 않게 내 어린 시절의 이상에 아주 가까이 다가가 친구와 적이 한 사람 안에서 겹치기도 했다. 물론 내 가장 어린 시절에 그랬듯이 동시에 겹치거나 거듭 번갈아 가며 겹친 것은 아니다.

최근에 생긴 정동의 계기가, 방금 서술한 것 같은 연결을 거쳐 어린 시절의 계기로 거슬러 올라가, 정동의 효과를 키우려고 이 이전의 계기에서 자기를 대신할 것을 찾아내는 방식을 여기서 추적하지는 않겠다. 그런 연구는 무의식의 심리학에 속할 것이며, 신경증의 심리학적 해명에서 제자리를 찾을 것이다. 꿈 해석을 위해, 어린 시절의 기억 하나가 떠오른다고, 또는 공상이 그런 기억을 지어낸다고 가정해

보자. 이를테면 다음과 같은 기억이다. 두 아이가 어떤 물건 때문에 싸움을 벌인다 — 그 물건이 무엇인지는, 기억이나 기억의 착각이 아주 분명한 물건을 염두에 두고 있기는 하지만, 정하지 않고 두겠다 — 그리고 저마다 자기가 먼저 거기에 닿았으니 자기에게 먼저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둘은 주먹다짐을 벌인다. 힘이 곧 정의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꿈이 넌지시 알려 주는 바에 따르면, 나는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이 틀림없다(나 스스로 오류를 알아차리고). 그러나 이번에는 내가 더 강한 쪽으로 남아 싸움터를 차지한다. 진 쪽은 내 아버지, 곧 자기 할아버지에게 달려가 나를 일러바치고, 나는 아버지에게서 들어 알고 있는 말로 나를 변호한다. 「걔가 날 때렸으니까 나도 걔를 때렸어.」 이렇게 해서, 분석하는 동안 — 지금 내가 아는 것으로는 나 자신도 어떻게 그랬는지 모르지만 — 내 주의에 억지로 밀려든 이 기억, 아니 아마도 공상은, 분수의 수반이 흘러드는 물줄기를 모으듯이 꿈 사고 속에 있는 정동의 흥분들을 모으는 꿈 사고의 중간 요소가 된다. 이 지점에서 꿈 사고는 다음과 같은 길을 따라 흘러간다. 「네가 나한테 자리를 비켜 줘야 했다니, 아주 꼴좋다. 왜 날 내 자리에서 밀어내려고 했어? 난 네가 필요 없어. 같이 놀 딴 애는 금방 찾을 거야」 운운. 그러면 이 생각들이 다시 꿈의 표현 속으로 이어져 들어가는 길이 열린다. 이런 「ôte-toi que je m'y mette〔비켜라, 내가 그 자리에 앉게〕」를 두고 나는 한때 작고한 친구 요제프를 나무라야 했던 적이 있다. 그는 브뤼케의 실험실에서 승진 순서로 내 다음 자리에 있었지만, 그곳의 승진은 아주 더뎠다. 두 조수는 누구도 자리에서 꿈쩍하지 않았고, 젊은이들은 조바심을 냈다. 내 친구는 자기에게 주어진 삶이 길지 않다는 것을 알았고 윗사람과는 아무런 끈으로도 묶여 있지 않았는데, 그 윗사람은 중병을 앓는 사람이었다.[53] 윗사람이 물러나기를 바라는 소원은 고약한 해석을 허락했다 — 윗사람은 승진 말고 다른

일로도 물러날 수 있었으니까. 몇 해 전에는 자리가 비기를 바라는 똑같은 소원이 당연히 나에게서 더 강했다. 세상 어디서든 지위의 등급과 승진이 있는 곳이면 억제해야 할 소원들에게 문이 열린다. 셰익스피어의 할 왕자는 병든 아버지의 머리맡에서조차 왕관이 자기에게 어떻게 맞는지 보고 싶은 유혹을 떨치지 못한다. 그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듯이, 꿈은 이 무자비한 소원을 두고 내가 아니라 그를 벌한다.[54]

「그가 야심을 품었기에 나는 그를 죽였노라.」 그는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자리를 비켜 주기를 기다리지 못했으므로, 그 자신이 치워지고 말았다. 나는 대학에서 열린 그 다른 사람의 동상 제막식에 참석한 직후에 이런 생각을 품는다. 그러므로 내가 꿈에서 느끼는 충족감의 일부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정당한 벌이다. 꼴좋게 됐다.

이 친구의 장례식에서 한 젊은이가 자리에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 말을 했다. 「설교자가 마치 이 사람 하나 없으면 세상이 존재할 수 없다는 듯이 말하더군.」 과장 때문에 슬픔에 흠이 간 진실한 사람의 불쾌감이 그의 안에서 일기 시작한다. 그런데 이 말에 꿈 사고가 이어진다. 「정말로 대신할 수 없는 사람이란 없다. 나는 벌써 몇 사람이나 무덤까지 배웅했던가. 그러나 나는 아직 살아 있다. 나는 그들 모두보다 오래 살았고, 싸움터는 내 차지다.」 그를 만나러 가 보면 친구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두려워하는 순간에 이런 생각이 들면, 그 생각은 다음과 같이 더 나아갈 수밖에 없다. 누군가보다 내가 오래 살아남아 기쁘다는 것, 죽은 것은 내가 아니라 그라는 것, 한때 공상 속 어린 시절 장면에서 그랬듯이 내가 싸움터를 차지한다는 것이다. 어린 시절의 원천에서 오는, 싸움터가 내 차지라는 사실에 대한 이 충족감이 꿈에 나타나는 정동의 대부분을 덮고 있다. 나는 내가 살아남은 사람이라는 것이 기쁘다 — 나는 이 마음을, 아내에게 「우리

둘 중 하나가 죽으면 나는 파리로 이사 갈 거야」 하고 말하는 남편의 순진한 이기주의로 드러낸다. 그 하나가 내가 아니리라는 것은 내가 기대하기에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자기 꿈을 해석하고 보고하려면 대단한 자제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함께 삶의 숨결을 나누는 모든 고귀한 영혼들 가운데 자기만이 유일한 악당임을 드러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나는 revenants가 누군가 원하는 동안만 존재하며 소원 하나로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을 아주 자연스럽게 여긴다. 내 친구 요제프가 벌을 받은 것도 바로 이 일 때문이다. 그러나 revenants는 내 어린 시절 친구가 잇달아 입은 화신들이다. 나는 또 이 사람을 나 자신을 위해 거듭거듭 다른 사람으로 대신해 왔다는 사실에도 충족감을 느낀다. 이제 잃으려는 친구를 대신할 사람도 틀림없이 곧 찾아질 것이다. 대신할 수 없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 그동안 꿈 검열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왜 이토록 잔인한 이기심으로 물든 생각의 흐름에 가장 단호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거기 달라붙은 충족감을 깊은 혐오로 바꿔 놓지 않는가? 내 생각에 그것은, 나무랄 데 없는 다른 생각의 흐름들도 마찬가지로 충족감에 이르러, 금지된 유년기의 원천에서 오는 정동을 자기네 정동으로 덮어 주기 때문이다. 생각의 다른 층위에서 나는 그 성대한 제막식 자리에서 이렇게 혼잣말을 했다. 「나는 소중한 친구를 참 많이 잃었다. 더러는 죽음으로, 더러는 우정이 깨져서. 그런데 그들을 대신할 사람을 찾았다는 것, 새 우정을 맺기가 쉽지 않은 나이에, 다른 이들이 해 줄 수 있었던 것보다 내게 더 큰 의미를 지니며 이제부터 언제까지나 곁에 둘 사람을 하나 얻었다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 아닌가?」 잃어버린 친구들을 대신할 사람을 찾았다는 충족감은 방해받지 않고 꿈으로 넘어갈 수 있다. 그러나 그 뒤에 숨어, 유년기의 원천에서 온 적대적인 충족감이

몰래 끼어든다. 어린 시절의 애정이 오늘날의 정당한 애정을 강화하는 데 한몫하는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어린 시절의 증오도 표현 속으로 길을 찾아 들어왔다.

그러나 그 밖에도 꿈에는, 충족감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 또 다른 생각의 사슬을 뚜렷이 가리키는 곳이 있다. 내 친구는 오래 기다린 끝에 얼마 전 어린 딸을 얻었다. 나는 그가 일찍 잃은 누이를 얼마나 애통해했는지 알고 있었기에, 누이에게 품었던 사랑을 이 아이에게 옮겨 쏟게 될 것이라고 그에게 편지를 썼다. 이 어린 딸이 마침내 그 돌이킬 수 없는 상실을 잊게 해 주리라는 것이었다.

이렇게 이 사슬도 잠재적 꿈 내용의 중간 사고들과 이어지고, 거기서 길들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갈라져 나간다. 대신할 수 없는 사람은 없다. 보라, 온통 revenants뿐이다. 잃어버린 것은 모두 돌아온다. 그리고 이제 꿈 사고의 모순된 요소들을 잇는 연상의 끈은 우연한 사정 하나로 더욱 단단히 조여진다. 내 친구의 어린 딸이 내 어린 시절의 여자 놀이 친구와 같은 이름을 지녔다는 것이다. 그 아이는 꼭 나와 동갑이었고, 내 가장 오랜 친구이자 적수의 누이였다. 나는 「파울리네」라는 이름을 충족감을 느끼며 들었고, 이 우연의 일치를 암시하려고 꿈에서 한 요제프를 다른 요제프로 바꿔 놓았으며, 플라이슐과 F.라는 두 이름의 소리가 비슷하다는 것도 놓치지 않았다. 이 지점에서 생각의 흐름 하나가 내 아이들의 이름 짓기로 이어진다. 나는 아이들의 이름을 그때그때의 유행을 따라 고를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추억을 기려 정해야 한다고 고집했다. 아이들의 이름은 아이들을 「revenants」로 만든다. 그리고 결국, 자식을 두는 것이야말로 우리 모두에게 불멸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 아닌가?

꿈의 정동에 관해서는 다른 관점에서 몇 마디만 덧붙이겠다. 정동의 성향, 곧 우리가 기분이라고 부르는 것이 잠든 사람의 마음속에

지배적인 요소로 자리 잡아, 꿈에서도 그에 걸맞은 기분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 기분은 낮의 체험과 생각의 결과일 수도 있고, 신체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다. 어느 경우든 기분에는 그에 대응하는 생각의 사슬이 따를 것이다. 한 경우에는 이 표상 내용이 정동의 성향을 일차적으로 조건 짓고, 다른 경우에는 신체에서 비롯된 정동의 소인(素因)이 이 표상 내용을 이차적으로 불러일으킨다는 사실은, 꿈 형성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꿈 형성은 언제나, 소원 성취만을 표현할 수 있으며 자신의 심리적 추진력을 오직 소원에만 봉사하게 할 수 있다는 제한을 받는다. 실제로 있는 기분은 수면 중에 실제로 떠오르는 감각과 똑같은 취급을 받을 것이다(5장 (다) 참조). 그 감각은 무시되거나, 소원 성취를 뜻하도록 새로 해석된다. 수면 중의 불쾌한 기분은 힘찬 소원들을 발동시켜 꿈의 추진력이 되고, 꿈은 그 소원들을 이루어 주어야 한다. 기분이 달라붙어 있는 재료는 마침내 이루어진 소원을 표현하기에 알맞게 될 때까지 가공된다. 꿈 사고에서 불쾌한 기분이라는 요소가 강렬하고 지배적일수록, 가장 엄하게 억제되어 온 소원 충동들이 이 기회를 이용해 더욱 확실하게 표현을 얻어 낼 것이다. 표현을 얻는 데 필요한 일 가운데 어려운 부분이 이미 이루어져 있음을 그 충동들이 발견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았다면 제 힘으로 만들어 내야 했을 혐오가 이미 실제로 있으니 말이다. 이 논의로 우리는 다시 불안 꿈의 문제에 닿는다. 불안 꿈은 꿈 작업의 영역을 경계 짓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아) 이차 가공

이제 마침내 꿈 형성에 관여하는 요인들 가운데 넷째 요인을 설명할 차례다.

앞에서 대강 밝힌 방식대로, 곧 눈에 띄는 대목마다 꿈 사고의 어디에서 비롯했는지 따져 가며 꿈 내용을 계속 검토하다 보면, 전혀 새로운 가정을 세워야만 설명할 수 있는 요소들과 마주치게 된다. 내가 염두에 둔 것은 꿈속에서 놀라움이나 분노나 저항을 드러내는데, 그것도 꿈 내용의 한 부분 자체를 향해 드러내는 경우다. 꿈속에서 비판 능력이 이렇게 발휘되는 경우는 대부분, 적절한 예를 들어 보여 주었듯이, 꿈 내용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꿈 재료의 일부를 넘겨받아 알맞게 이용한 것으로 드러난다. 그러나 이런 종류의 것 가운데 몇몇은 그렇게 처리되지 않는다. 꿈 재료에서는 그에 대응하는 것을 찾을 수 없다. 이를테면 꿈속에서 드물지 않게 나오는 「뭐, 꿈일 뿐이야」라는 비판은 무엇을 뜻하는가? 이것은 내가 깨어 있을 때 할 법한, 꿈에 대한 진짜 비판이다. 이 비판은 깨어남의 전조가 되는 일이 결코 드물지 않고, 그보다 더 자주는 이 비판에 앞서 고통스러운 느낌이 오는데, 이 느낌은 꿈을 꾸고 있는 상태임이 확실해지면 가라앉는다. 꿈을 꾸는 도중에 떠오르는 「하지만 꿈일 뿐이야」라는 생각은, 오펜바흐의 아름다운 헬레네가 무대 위에서 제 입으로 전하려는 것과 같은 목적을 지닌다. 방금 일어난 일을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만들고, 뒤따를 일에 관용을 얻어 내려 한다. 그 목적은 어떤 심급을 안심시키고, 말하자면 잠재우는 데 있다. 그 심급으로서는 바로 이 순간 나서서 꿈의 — 또는 그 장면의 — 계속을 금지할 이유가 충분하다. 「어차피 꿈일 뿐이니까」 계속 잠을 자면서 꿈을 참아 주는 편이 더 기분 좋다. 내가 생각하기에, 「하지만 꿈일 뿐이야」라는 깎아내리는 비판이 꿈속에 들어오는 것은, 한 번도 완전히 잠든 적이 없는 검열관이 자기가 이미 들여보낸 꿈에 허를 찔렸다고 느끼는 순간이다. 꿈을 억제하기에는 너무 늦었고, 그래서 그 심급에는 꿈속에 나타나는 저 불안이나 고통스러운 느낌의 기색이 따라붙는다. 이것은 심리적 검열관 쪽의 esprit d’escalier

〔계단의 재치, 곧 때를 놓치고 뒤늦게 떠오르는 재치〕가 드러난 것이다.

이 예에서 우리는, 꿈에 담긴 것이 모두 꿈 사고에서 오는 것은 아니며 깨어 있을 때의 우리 사고와 구별할 수 없는 심리 기능도 꿈 내용에 무언가를 보탤 수 있다는 흠잡을 데 없는 증거를 얻는다. 그러면 이제 물음은 이것이다. 이런 일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일어나는가, 아니면 평소에는 검열로서만 활동하는 심리적 심급이 꿈 형성에 규칙적으로 한몫하는가?

주저 없이 뒤의 견해를 택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가 꿈 내용의 제한과 생략에서만 그 영향을 알아보았던 검열하는 심급이 이 내용에 무언가를 끼워 넣고 덧붙이는 일에도 책임이 있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끼워 넣은 것들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이것들은 머뭇거리며 보고되고, 「마치 ……인 듯」 이라는 말을 앞세우며, 그 자체로는 딱히 생생하지 않고, 꿈 내용의 두 부분을 잇거나 꿈의 두 대목 사이의 흐름을 매끄럽게 하는 데 쓰일 수 있는 자리에 어김없이 끼어든다. 또 꿈 재료에서 나온 진짜 산물보다 기억에 달라붙는 힘이 약하다. 꿈이 잊히게 되면 가장 먼저 떨어져 나가는 것이 이것들이며, 꿈을 그토록 많이 꾸었는데 대부분을 잊어버리고 조각만 기억한다는 우리의 흔한 불평도 이어 붙이는 구실을 하던 바로 이 생각들이 곧장 떨어져 나가는 데서 비롯한다는 쪽으로 나는 강하게 기운다. 완전한 분석에서는 꿈 사고 속에서 이 끼워 넣은 것들에 해당하는 재료를 찾을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그 정체가 드러나는 일이 많다. 그러나 주의 깊게 검토해 본 끝에 나는 이런 경우를 드물다고 할 수밖에 없다. 대개는 끼워 넣은 생각도 꿈 사고 속의 한 요소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다만 그 요소는 제 가치로도, 중층 결정으로도 꿈속에 자리를 요구할 수 없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꿈 형성에 관여하는

이 심리 기능은 아주 극단적인 경우에만 독창적인 창작에 손을 뻗는다. 할 수만 있으면 꿈 재료에서 찾아낼 수 있는 쓸 만한 것은 무엇이든 이용한다.

꿈 작업의 이 부분을 다른 것과 구별해 주고 그 정체를 드러내 주는 것은 그 경향이다. 이 기능은 시인이 짓궂게도 철학자의 짓으로 돌린 것과 비슷하게 일한다. 넝마 조각과 누더기로 꿈의 구조물에 뚫린 틈을 틀어막는다. 그 노력의 결과 꿈은 부조리하고 앞뒤가 맞지 않는 겉모습을 잃고, 이해할 수 있는 체험의 본보기에 가까워진다. 그러나 이 노력이 언제나 완전한 성공을 거두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대충 살펴보면 흠잡을 데 없이 논리적이고 올바르게 보이는 꿈들이 생긴다. 이런 꿈은 있을 법한 상황에서 출발해 일관된 변화를 거치며 그 상황을 이어 가다가 — 아주 드문 일이기는 하지만 — 부자연스럽지 않은 결말로 끝난다. 깨어 있을 때의 사고와 비슷한 심리 기능의 손에서 더없이 철저한 가공을 거친 꿈들이다. 의미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의미는 꿈의 참된 뜻과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다. 분석해 보면 이차 가공이 재료를 아주 제멋대로 왜곡하여 재료 본래의 관계를 되도록 남겨 두지 않았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 말하자면 우리가 깨어서 해석하기도 전에 이미 해석되어 있는 꿈이다. 다른 꿈에서는 이 목적에 맞춘 가공이 어느 지점까지만 성공했다. 그 지점까지는 일관성이 지배하는 듯하다가 꿈이 무의미해지거나 혼란스러워지고, 어쩌면 마지막에 가서 그 흐름 속에서 다시 한번 합리적인 겉모습으로 올라서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꿈에서는 가공이 완전히 실패했다. 우리는 조각난 내용이 뜻 없이 뭉친 덩어리 앞에서 속수무책이다.

나는 꿈을 빚는 이 넷째 힘에게 — 이 힘은 곧 우리에게 낯익게 보일 것이다. 실은 꿈을 빚는 것들 넷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것은 이것 하나뿐이다 — 그러니까 이 넷째 요인에게 창조적으로 새로운 기여를

꿈에 보태는 능력이 있음을 부정하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이 요인의 영향도 다른 요인들과 마찬가지로, 무엇보다 꿈 사고 속에 이미 만들어져 있는 심리적 재료를 우선하여 골라내는 데서 드러나는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이 요인이 꿈에 말하자면 전면(파사드)을 세우는 수고를 대부분 덜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런 구조물이 꿈 사고의 재료 속에 이미 완성된 채 쓰이기를 기다리고 있는 경우다. 여기서 염두에 둔 꿈 사고의 요소를 나는 「공상」이라 부르곤 한다. 깨어 있는 생활의 백일몽을 곧바로 비슷한 예로 들면 아마 오해를 피할 수 있을 것이다.[55] 이 요소가 우리 정신생활에서 맡는 역할을 정신의학자들은 아직 충분히 인정하지도 연구하지도 않았다. 내가 보기에 이 연구에서는 M. 베네디크트가 매우 유망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백일몽의 의의는 시인들의 어김없는 통찰을 비껴가지 못했다. A. 도데가 『나바브(Nabab)』에서 한 조연 인물의 백일몽을 그려 낸 대목은 누구나 알고 있다. 정신신경증을 연구해 보면, 이런 공상 또는 백일몽이 히스테리 증상의 — 적어도 그 가운데 아주 많은 것의 — 바로 앞 단계라는 놀라운 사실이 드러난다. 히스테리 증상은 기억 자체가 아니라 기억을 바탕으로 세워진 공상에 곧바로 기대고 있다. 의식적인 낮의 공상이 자주 일어나기에 우리는 이런 형성물을 알게 된다. 그러나 그런 의식적인 공상이 있듯이 무의식적 공상도 아주 많은데, 이것들은 그 내용 때문에, 그리고 억압된 재료에서 나왔기 때문에 무의식적인 채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 이 낮의 공상의 성격을 더 깊이 살펴보면, 이런 형성물에 우리가 밤에 하는 사고의 산물과 같은 이름, 곧 꿈이라는 이름이 붙은 데에 얼마나 충분한 까닭이 있는지 알게 된다. 낮의 공상은 그 특성의 본질적인 부분을 밤의 꿈과 함께 지닌다. 사실 이것을 살펴보았더라면 밤에 꾸는 꿈을 이해하는 가장 짧고도 좋은 길이 열렸을 것이다.

꿈과 마찬가지로 이 공상들은 소원 성취다. 꿈과 마찬가지로 그 가운데 상당 부분은 어린 시절 체험의 인상에 바탕을 둔다. 꿈과 마찬가지로 그 산물은 검열의 관용을 어느 정도 누린다. 그 형성 과정을 더듬어 보면, 이 공상들을 만들어 내는 데 작용하는 소원 동기가 그 재료를 가져다가 한데 뒤섞고, 다시 배열하고, 새로운 하나로 짜 맞추었음을 볼 수 있다. 이 공상들이 거슬러 올라가는 어린 시절의 기억과 맺는 관계는, 로마의 몇몇 진기한 궁전이 고대 유적과 맺는 관계와 같다. 그 유적의 마름돌과 기둥이 근대식으로 지은 건물의 재료가 되었다.

꿈을 만드는 넷째 요인의 몫으로 돌린 꿈 내용의 「이차 가공」에서, 우리는 백일몽을 지어낼 때 다른 영향에 방해받지 않고 마음껏 드러나는 바로 그 활동을 다시 발견한다. 더 에두를 것 없이 말하자면, 우리의 이 넷째 요인은 주어진 재료로 백일몽 같은 것을 만들어 내려 한다. 그런데 꿈 사고와 관련해 그런 백일몽이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경우에는, 꿈 작업의 이 요인은 즐겨 그것을 손에 넣어 꿈 내용 속으로 들여오려 애쓴다. 그런 낮의 공상, 어쩌면 무의식적인 채로 남아 있었을지도 모르는 공상을 되풀이하는 것만으로 이루어진 꿈들이 있다 — 이를테면 트로이 전쟁의 영웅들과 함께 전차를 타고 달리는 소년의 꿈이 그렇다. 내 꿈 「Autodidasker」에서는 적어도 꿈의 둘째 부분이, N. 교수와 나 사이의 일을 두고 품었던 — 그 자체로는 무해한 — 낮의 공상을 충실하게 되풀이한 것이다. 이렇게 마련된 공상이 꿈의 한 부분만을 이루는 일이 더 많다는 것, 또는 공상의 한 부분만이 꿈 내용에 이른다는 것은, 꿈이 생겨날 때 충족해야 하는 조건들이 복잡하다는 데서 비롯한다. 대체로 공상은 잠재적 재료의 다른 구성 요소와 다름없이 다루어지지만, 꿈속에서 하나의 전체로 알아볼 수 있는 경우도 많다. 내 꿈에는 나머지 부분과는 다른 인상으로 두드러지는 부분들이 자주

나온다. 그런 부분은 내게 유동하는 상태에 있는 듯하고, 같은 꿈의 다른 조각보다 더 잘 짜여 있으면서도 동시에 더 덧없어 보인다. 나는 이것이 연상의 힘으로 꿈속에 들어오는 무의식적 공상이라는 것을 알지만, 그런 공상을 붙잡아 적어 두는 데 성공한 적은 한 번도 없다. 그 밖의 점에서 이 공상들은 꿈 사고의 다른 모든 구성 요소와 마찬가지로 한데 뒤섞이고, 압축되고, 하나가 다른 하나에 덮이는 따위의 일을 겪는다. 그러나 여기에는 온갖 단계가 있다. 공상이 바뀌지 않은 채로 꿈 내용을, 또는 적어도 꿈의 전면을 이루는 경우가 한쪽 끝이라면, 그 반대쪽 끝에는 공상이 제 요소 하나로만, 또는 그런 요소에 대한 먼 암시로만 꿈 내용에 표현되는 경우가 있다. 공상이 검열의 요구와 압축의 경향을 얼마나 견뎌 낼 수 있느냐도 물론 꿈 사고 속에서 그 공상이 맞을 운명을 결정한다.

나는 꿈 분석의 예를 고를 때, 무의식적 공상이 꽤 중요한 역할을 하는 꿈은 되도록 피했다. 이 심리적 요소를 끌어들이면 무의식적 사고의 심리학을 길게 논해야 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렇게 예를 드는 일에서도 「공상」을 아주 빼놓을 수는 없다. 공상은 꿈속에 통째로 들어가는 일이 많고, 꿈에 뚜렷이 배어드는 일은 그보다 더 많기 때문이다. 꿈 하나를 더 들어 보겠다. 서로 다르고 대립하는 두 공상이 몇몇 자리에서 겹치며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꿈인데, 첫째 공상은 표면에 있고, 둘째 공상은 말하자면 첫째 공상의 해석자가 된다.[56]

꿈은 — 내가 꼼꼼히 적어 두지 못한 꿈은 이것 하나뿐이다 — 대략 다음과 같다. 꿈꾼 사람은 — 미혼 청년이다 — 어느 술집에 앉아 있는데, 술집은 실제 모습 그대로 보인다. 몇 사람이 그를 데리러 오고, 그 가운데 그를 체포하려는 사람이 하나 있다. 그는 같은 탁자에 앉은 사람들에게 말한다. 「돈은 나중에 낼게, 다시 올 거야.」 그러나 그들은 비웃으며 그에게 외친다. 「그런 건 다 알아. 누구나 그렇게 말하지.」

손님 하나가 그의 등 뒤에 대고 외친다. 「또 하나 가는군.」 그러고 나서 그는 좁은 방으로 끌려가는데, 거기서 아이를 안은 여자를 발견한다. 그를 데려가는 사람 가운데 하나가 말한다. 「이분이 뮐러 씨입니다.」 담당관인지 다른 어떤 관리인지 하는 사람이 표인지 서류인지 하는 뭉치를 훑어 넘기며 뮐러, 뮐러, 뮐러 하고 되풀이한다. 마침내 그 담당관이 그에게 무언가를 묻고, 그는 「예」 하고 대답한다. 그러고 나서 그는 그 여자를 한번 쳐다보고, 그녀에게 커다란 수염이 나 있는 것을 알아차린다.

여기서는 두 구성 부분을 쉽게 가를 수 있다. 표면에 있는 것은 체포되는 공상으로, 꿈 작업이 새로 지어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뒤에서 결혼 공상이 모습을 드러내는데, 이 재료는 반대로 꿈 작업의 손을 거치면서도 조금밖에 바뀌지 않았다. 두 공상에 공통된 특징들은 골턴의 합성 사진에서처럼 뚜렷하게 두드러진다. 단골 탁자의 제자리로 돌아오겠다는 총각의 약속, 숱한 경험으로 약아진 술친구들의 의심, 뒤에 대고 외치는 「또 하나 (장가)가는군」 — 이 모든 특징은 쉽게 다른 해석도 받아들일 수 있다. 관리에게 한 긍정의 대답도 마찬가지다. 이름을 되풀이하며 서류 뭉치를 훑어 넘기는 것은 결혼식의 부수적이지만 누구나 아는 특징 하나, 곧 제각각 도착한 축전을 소리 내어 읽는 일에 해당한다. 축전은 물론 모두 같은 이름 앞으로 와 있다. 이 꿈에 신부가 몸소 나타난다는 점에서는, 결혼 공상이 자기를 가리고 있는 체포 공상을 이기기까지 했다. 이 신부에게 끝내 수염이 나 있다는 것은 물어서 알아낸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 분석할 기회는 없었다. 꿈꾼 사람은 전날, 자기 못지않게 결혼을 싫어하는 친구와 함께 길을 건너다가 마주 오는 아름다운 갈색 머리 여자를 친구에게 가리켜 보였다. 그러자 친구가 말했다. 「그래, 이런 여자들이 나이 들면서 제 아버지처럼 수염만 나지 않는다면 말이야.」

물론 이 꿈에도 꿈 왜곡이 더 철저하게 손을 댄 요소가 없지 않다. 이를테면 「돈은 나중에 낼게」라는 말은 지참금 문제에서 장인이 보일 태도를 가리키는지도 모른다 — 그것은 확실하지 않다. 온갖 망설임 때문에 꿈꾼 사람이 결혼하는 공상에 기꺼이 몸을 내맡기지 못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런 걱정 가운데 하나가 — 결혼하면 자유를 잃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 체포 장면으로 바뀌면서 모습을 얻었다.

꿈 작업은 꿈 사고의 재료로 공상을 새로 지어내기보다 이미 완성되어 손에 닿는 공상을 즐겨 이용한다는 명제로 돌아가 보자. 이 사실을 염두에 두면 꿈의 가장 흥미로운 수수께끼 하나를 풀 수 있을지도 모른다. 나는 1장 (다)에서 모리[48]의 꿈을 이야기했다. 막대기로 목덜미를 얻어맞은 모리는 긴 꿈 하나, 곧 프랑스 대혁명 시대를 무대로 한 완결된 소설 한 편을 지닌 채 깨어난다. 이 꿈은 앞뒤가 맞게 이어져 있고 방해 자극 하나만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제시되는데, 잠자는 사람은 그 자극이 일어나리라는 것을 조금도 짐작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남는 가정은 하나뿐인 듯하다. 곧 이토록 풍부하게 짜인 꿈 전체가, 막대기가 모리의 경추에 떨어진 순간부터 그 타격으로 깨어날 때까지의 짧은 시간 안에 지어지고 또 진행되었으리라는 것이다. 깨어 있을 때의 정신 활동에 그런 속도가 있다고 볼 근거는 없으므로, 우리는 놀라운 사고의 가속을 꿈 작업의 특성 가운데 하나로 쳐 주고 싶어진다.

순식간에 널리 받아들여진 이 추론에 맞서 근래의 저자들(르 로랭[45], 에게르[20] 등)이 단호하게 반론을 폈다. 그들은 한편으로는 모리가 꿈을 정확하게 보고했는지 의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깨어 있을 때 우리 정신 능력의 속도도 꿈 작업에 서슴없이 인정해 줄 수 있는 속도 못지않게 빠르다는 것을 보여 주려 한다. 이 논의는 근본적인 물음을 불러일으키지만, 그 물음을 매듭짓는 일은 나와 그리 밀접한 관계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를테면 에게르의 논증은 모리의 단두대 꿈을

반박하기에 설득력 있다는 인상을 내게 주지 못했음을 털어놓아야겠다. 나는 이 꿈을 이렇게 설명해 보고 싶다. 모리의 꿈이 여러 해 전부터 완성된 채 그의 기억 속에 간직되어 있던 공상을 보여 주고, 그 공상이 그가 방해 자극을 알아차린 순간에 일깨워졌다고 — 아니, 넌지시 암시되었다고 하는 편이 낫겠다 — 보는 것은 그렇게도 있을 법하지 않은 일일까? 그렇게 보면, 여기서 꿈꾼 사람에게 주어진 지극히 짧은 시간 안에 그토록 긴 이야기를 세부까지 모두 지어내야 한다는 어려움은 사라진다. 이야기는 이미 지어져 있다. 막대기가 깨어 있는 모리의 목을 쳤다면, 아마 「아니, 이건 꼭 단두대에서 목이 잘리는 것 같군」 하고 생각할 틈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잠든 채 막대기에 맞았으므로, 꿈 작업은 들어오는 자극을 재빨리 계기로 삼아 소원 성취를 짜 맞춘다. 마치 (이것은 순전히 비유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러저러한 때 책을 읽으면서 만들어 두었던 소원 공상을 실현할 좋은 기회가 여기 왔군」 하고 생각하기라도 한 것처럼 말이다. 이 꿈 소설이 바로 젊은이가 강렬한 인상에 사로잡혀 지어낼 법한 그런 것이라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공포 정치를 그린 글을 읽고 누가 — 더구나 프랑스인이자 문명사를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겠는가? 그 글에서 귀족들, 곧 국민의 꽃인 남자들과 여자들은 가벼운 마음으로 죽을 수 있음을 보여 주었고, 운명의 호출이 올 때까지 날랜 재치와 세련된 삶의 태도를 잃지 않았다. 그 모든 일의 한가운데서, 사랑하는 여인의 손에 입 맞추어 작별하고 두려움 없이 처형대에 오르는 젊은이 가운데 하나로 자신을 공상해 보는 것은 얼마나 마음 끌리는 일인가! 아니면 이 공상을 지배하는 동기는 야심일까? 오로지 사고의 힘과 불같은 웅변만으로 인류의 심장이 그토록 경련하듯 고동치는 도시를 다스리고, 확신에 떠밀려 수천 명을 죽음으로 보내며, 유럽의 변혁에 길을 닦으면서도, 정작 제 머리가 온전하리라고는 장담하지 못해

언젠가 그 머리를 단두대의 칼날 아래 눕힐지도 모르는 저 막강한 인물들 가운데 하나의 자리에, 어쩌면 지롱드파의 한 사람이나 영웅 당통의 역할로, 자신을 놓아 보려는 야심 말이다. 기억에 남아 있는 「헤아릴 수 없는 무리가 뒤따르는 가운데」라는 특징은 모리의 공상이 이런 야심 찬 공상임을 보여 주는 것 같다.

그러나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있던 이 공상은 잠 속에서 다시 체험될 필요가 없다. 말하자면 「건드려지기만」 하면 충분하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렇다. 음 몇 개가 울리고, 『돈 후안』에서처럼 누군가가 「이건 모차르트의 『피가로의 결혼』에 나오는 거야」 하고 말하면, 내 안에서 갑자기 기억들이 밀려 올라오는데, 그 가운데 어느 것도 바로 다음 순간 의식에 불러낼 수는 없다. 그 특징적인 악구가 입구 정거장 구실을 하고, 거기서 하나의 완결된 전체가 한꺼번에 움직이기 시작한다. 무의식적 사고의 경우에도 다를 까닭이 없다. 깨우는 자극은 단두대 공상 전체로 가는 길을 여는 심리적 정거장을 움직인다. 그러나 이 공상은 잠자는 동안 하나하나 훑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깨어나서 기억할 때에야 비로소 훑어진다. 깨어나면서 사람은 꿈속에서는 하나의 전체로 여겨졌던 공상의 세부를 기억해 낸다. 게다가 꿈에서 꾼 무언가를 정말로 기억해 냈는지 확인할 방법은 없다. 같은 설명, 곧 깨우는 자극이 통째로 움직이게 한 완성된 공상을 다루고 있다는 설명은 깨우는 자극에서 생겨나는 다른 꿈에도 적용할 수 있다. 이를테면 폭탄이 폭발할 때 나폴레옹이 꾼 전투 꿈이 그렇다. 그렇다고 깨우는 자극에서 생긴 꿈이 모두 이렇게 설명된다거나, 꿈에서 표상이 가속되어 방출되는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남김없이 풀린다고 주장하려는 것은 아니다.

꿈 내용의 이 이차 가공이 꿈 작업의 다른 요인들과 맺는 관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과정은 이런 것일까? 꿈을 지어내는 요인들, 곧 압축하려는 충동, 검열을 피해야 할 필요, 그리고 꿈이 쓸 수 있는

심리적 수단에 비추어 본 표현 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먼저 잠정적인 꿈 내용을 만들어 내고, 그 뒤에 이 내용이 둘째 심급의 요구를 충족할 때까지 고쳐지는 것일까? 그럴 것 같지는 않다. 오히려 이 심급의 요구가 처음부터 꿈이 충족해야 하는 조건 가운데 하나에 들어 있고, 이 조건이 압축, 검열, 표현 가능성의 조건과 꼭 마찬가지로 꿈 사고 속 재료 전체에 동시에 작용하여 그것을 유도하고 선별한다고 가정해야 한다. 그러나 꿈 형성에 필요한 네 조건 가운데 가장 나중에 알게 된 이 조건은, 그 요구가 꿈을 가장 느슨하게 구속하는 것으로 보인다. 꿈 내용의 이른바 이차 가공을 떠맡는 이 심리 기능이 우리가 깨어 있을 때 하는 사고의 작업과 같은 것이라는 점은 다음과 같은 고찰에서 꽤 확실하게 추론할 수 있다. 깨어 있을 때의 우리 (전의식적) 사고는 주어진 지각 대상을 대할 때, 문제의 그 기능이 꿈 내용을 대할 때와 꼭 같이 행동한다. 지각 재료에 질서를 세우고, 관계를 짜 맞추고,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연관의 요구에 따르게 하는 것은 깨어 있을 때의 사고에는 자연스러운 일이다. 사실 우리는 여기서 도를 넘는다. 마술사의 묘기는 이 지적 습관을 이용해 우리를 속인다. 주어진 감각 인상을 이해할 수 있게 짜 맞추려 애쓰다가 우리는 흔히 더없이 기이한 잘못을 저지르고, 심지어 눈앞에 놓인 재료의 진실을 왜곡하기까지 한다. 이에 대한 증거는 누구나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여기서 길게 다룰 필요가 없다. 우리가 인쇄된 지면에서 오식을 보지 못하는 것은 상상이 바른 낱말을 그려 넣기 때문이다. 널리 읽히는 프랑스의 한 신문 편집자는, 긴 기사의 문장마다 「앞에서」나 「뒤에서」라는 말을 찍어 넣어도 독자 가운데 누구도 알아차리지 못하리라는 데 내기를 걸었다고 한다. 그는 내기에서 이겼다. 여러 해 전 신문에서 읽은 그릇된 연상의 기묘한 예 하나가 내 눈길을 끌었다. 프랑스 하원의 어느 회의에서 무정부주의자가 의사당 안으로 던진 폭탄이 터져 공황이 일어났을 때,

뒤퓌는 「La séance continue〔회의를 계속합니다〕」 하고 침착하게 말해 공황을 가라앉혔다. 그 회의가 끝난 뒤 방청석에 있던 사람들은 이 암살 기도에서 받은 인상을 증언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 가운데 시골에서 온 사람이 둘 있었다. 한 사람은 어떤 연설이 끝나자마자 폭음을 들었지만, 연사가 연설을 마칠 때마다 한 방씩 쏘는 것이 의회의 관습인 줄 알았다고 말했다. 다른 한 사람은 이미 연사 여럿의 연설을 들었던 듯한데, 역시 같은 생각을 했다. 다만 그는 이 발포가 특히 훌륭한 연설 뒤에 보내는 찬사의 표시라고 여겼다는 점이 달랐다.

그러므로 꿈 내용에 이해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요구를 들고 다가가, 그것에 예비 해석을 가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것을 완전히 오해하게 만드는 심리적 심급은 다름 아닌 우리의 정상적인 사고다. 우리가 해석할 때는 어떤 경우에나 꿈의 겉보기 연관을 출처가 의심스러운 것으로 여겨 무시하고, 요소가 분명하든 혼란스럽든 똑같이 꿈 재료로 되돌아가는 퇴행적인 길을 따르는 것이 규칙이 될 것이다.

이제 우리는, 앞서 이 장 (다)에서 언급한, 혼란에서 선명함에 이르는 꿈의 질적 등급이 본질적으로 무엇에 달려 있는지 알게 된다. 이차 가공이 무언가를 해낼 수 있었던 꿈의 부분은 우리에게 선명해 보이고, 이 활동의 힘이 미치지 못한 부분은 혼란스러워 보인다. 꿈의 혼란스러운 부분은 흔히 덜 생생하게 새겨진 부분이기도 하므로, 우리는 이차적 꿈 작업이 개별 꿈 구조물의 조형적 강도에도 한몫한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정상적인 사고의 영향 아래 드러나는 꿈의 최종적인 형태에 견줄 대상을 찾는다면, 『플리겐데 블레터(Die Fliegende Blaetter)』가 그토록 오랫동안 독자를 즐겁게 해 온 저 수수께끼 같은 비문보다 나은 것은 없다. 독자는 주어진 문장 속에 숨은 라틴어 비문을 찾아내야 하는데, 그 문장은 대조의 효과를 노려 사투리로 되어 있고 뜻도 되도록

상스럽다. 이를 위해 글자들을 음절의 묶음에서 떼어 내어 새로 배열한다. 군데군데 진짜 라틴어 낱말이 생겨나고, 다른 자리에서는 그런 낱말의 약어가 눈앞에 있는 것처럼 여겨지며, 비문의 또 다른 자리에서는 부서져 떨어져 나간 부분처럼 보이는 겉모양이나 비문에 난 틈에 이끌려, 흩어진 글자들이 뜻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그냥 넘겨 버린다. 이 농담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비문을 찾으려는 생각을 버리고, 글자를 보이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어진 배열에는 아랑곳하지 말고 우리 모국어의 낱말로 짜 맞추어야 한다.

이제 꿈 작업에 관한 이 긴 논의를 요약해 보겠다. 우리 앞에 놓인 물음은, 정신이 꿈 형성에서 제 능력을 모두 한껏 펼치는가, 아니면 능력의 한 조각만을, 그것도 활동이 제한된 채로 발휘하는가 하는 것이었다. 우리는 연구 끝에, 이런 식으로 물음을 세우는 것 자체가 우리 사정에 맞지 않는다며 통째로 물리치게 된다. 그러나 물음이 우리에게 들이밀어진 바로 그 지반 위에 머물러 대답하자면, 겉보기에 서로 대립하고 서로 배제하는 두 견해를 둘 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꿈을 형성하는 심리 활동은 두 가지 기능으로 나뉜다. 꿈 사고를 마련하는 기능과, 그것을 꿈 내용으로 바꾸는 기능이다. 꿈 사고는 전적으로 올바르며, 우리가 치를 수 있는 온갖 심리적 비용을 들여 형성된다. 꿈 사고는 의식되지 않은 우리 사고에 속하며, 의식된 우리 사고도 어떤 전환을 거쳐 이 사고에서 생겨난다. 꿈 사고에 관해 알 만한 것, 수수께끼 같은 것이 아무리 많다 해도, 이 문제들은 꿈과 특별한 관계가 없으며 꿈의 문제와 함께 다루어져야 할 까닭도 없다. 반면에 무의식적 사고를 꿈 내용으로 바꾸는 저 둘째 부분의 활동이 있다. 이것은 꿈 생활에 고유하고 꿈 생활을 특징짓는 활동이다. 그런데 이 독특한 꿈 작업은, 꿈을 형성하는 심리 활동을 가장 단호하게 깎아내린 사람들이 생각한 것보다도 깨어 있을 때 사고의 본보기에서 훨씬 더 멀리 떨어져

있다. 꿈 작업은,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 깨어 있을 때의 사고보다 더 소홀하거나, 더 부정확하거나, 더 쉽게 잊히거나, 더 불완전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깨어 있을 때의 사고와 질적으로 전혀 다른 무엇이며, 따라서 결코 그것과 견줄 수 없다. 대체로 생각하지도, 계산하지도, 판단하지도 않으며, 바꾸어 놓는 데 그친다. 그 산물이 생겨날 때 충족되어야 하는 조건을 염두에 두면 꿈 작업은 남김없이 서술할 수 있다. 이 산물, 곧 꿈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검열을 벗어나야 하며, 이를 위해 꿈 작업은 **심리적 강도의 전치**를 이용하되 그것을 모든 심리적 가치의 전도에까지 밀고 나간다. 사고는 오로지 또는 주로 시각적·청각적 기억 흔적의 재료로 재현되어야 하는데, 이 요구가 꿈 작업에 **표현 가능성에 대한 고려**를 안기고, 이 고려는 새로운 전치를 마련해 그 요구에 응한다. 밤마다 꿈 사고가 쓸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강도를 (아마도) 마련해야 하는데, 이 목적에 이바지하는 것이 꿈 사고의 구성 요소를 가지고 벌이는 풍성한 **압축**이다. 사고 재료의 논리적 관계는 거의 고려되지 않는다. 논리적 관계는 결국 꿈의 **형식적** 특성 속에서 가려진 표현을 얻는다. 꿈 사고의 정동은 그 표상 내용보다 덜 바뀐다. 정동은 대개 억제된다. 보존되는 경우에는 표상에서 풀려나 서로 비슷한 것끼리 한데 모인다. 꿈 작업 가운데 단 한 부분만이 — 부분적으로 깨어난 의식적 사고가 가하는, 양이 그때그때 다른 손질만이 — 저자들이 꿈 형성의 활동 전체로 넓히려 한 견해와 조금이나마 들어맞는다.

---

1. 작가의 이 묘사를 가늠할 때에는, 5장 (라)에서 언급한 계단 꿈의 의미를 떠올려 볼 만하다.

2. 꿈꾼 사람의 유모를 둘러싼 상황이 공상이라는 것은, 이 경우 유모가 그의 어머니였다는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정에서 드러난다. 덧붙여, 일화 속의 젊은이(5장 (나))가 유모를 상대로 기회를 더 잘 이용하지 못한 것을 아쉬워했던 일을, 아마 이 꿈의 원천일 것으로 짚어 두고 싶다.

3. 이것이 이 꿈의 진짜 유발 요인이다.

4. 보충하자면 이렇다. 그런 책은 어린 처녀에게 독이다. 그녀 자신도 젊은 시절 금지된 책에서 많은 것을 알아냈다.

5. 생각의 흐름은 더 나아가 같은 작가의 『펜테질레아』로 이어진다. 연인을 향한 잔인함이다.

6. 원저자의 예를 번역할 수 없어서 영역자가 대신 든 예다. — 영역자 브릴의 주.

7. 음절을 이렇게 분석하고 합성하는 일, 곧 참으로 음절의 화학이라 할 만한 것은 깨어 있는 생활에서 우리가 하는 숱한 농담에도 쓰인다. 「은을 가장 싸게 얻는 방법은? 은열매〔silver-berries〕가 자라는 들판에 가서 그것을 따면 된다. 그러면 열매〔berries〕는 제거되고 은〔silver〕은 유리(遊離) 상태로 남는다.」 이 책을 처음 읽고 비평한 사람은 내게 이런 반론을 폈는데, 아마 다른 독자들도 되풀이할 것이다. 「꿈꾸는 사람이 너무 재치 있어 보일 때가 많다」는 것이다. 꿈꾸는 사람에게 해당하는 한 그 말은 옳다. 그것이 비난이 되는 것은 그 말을 꿈을 해석하는 사람에게까지 넓혀 적용할 때뿐이다. 깨어 있는 현실에서 나는 「재치 있다」는 술어를 내세울 만한 것이 거의 없다. 내 꿈이 재치 있어 보인다면 그것은 내 개성 탓이 아니라 꿈이 만들어지는 독특한 심리학적 조건 탓이며, 이것은 농담과 희극적인 것의 이론과 긴밀하게 이어져 있다. 꿈이 재치 있게 되는 것은 자기 사고를 표현하는 가장 짧고 가장 곧은 길이 꿈에게 막혀 있기 때문이다. 꿈은 강제 아래 놓여 있다. 내 환자들의 꿈도 내 꿈과 같은 정도로, 아니 그보다 더 재치 있다는(재치를 부리려 한다는) 인상을 준다는 것을 독자들은 스스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는 해도 이 비난에 떠밀려 나는 농담의 기법을 꿈 작업과 비교하게 되었고, 1905년에 펴낸 책 『농담과 무의식의 관계』에서 그 일을 했다. (원저자의 주.)

8. 라스커는 진행성 마비로, 곧 여자에게서 옮은 감염(매독)의 결과로 죽었다. 라살레는 잘 알려져 있듯이 한 여인 때문에 결투를 벌이다 죽었다.

9. 강박에 시달리지만 지적 기능은 온전하고 고도로 발달한 한 젊은이의 경우에서, 나는 최근 이 규칙의 유일한 예외를 발견했다. 그의 꿈에 나오는 말은 그가 들었거나 스스로 한 말에서 비롯한 것이 아니라, 그의 강박 사고의 왜곡되지 않은 문구에 해당했다. 그 문구는 깨어 있을 때는 바뀐 모습으로만 그의 의식에 떠올랐다.

10. 표상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하는 심리적 강도·가치·강조는 물론 감각의 강도와도, 표상된 것의 강도와도 구별해야 한다.

11. 꿈 왜곡을 이렇게 검열로 거슬러 올라가 설명하는 것을 나는 내 꿈 이론의 핵심으로 여기므로, 여기에 륑코이스의 『어느 현실주의자의 공상(Phantasien eines Realisten)』(빈, 제2판, 1900)에 실린 이야기 「깨어 있을 때처럼 꿈꾸기(Traumen

wie Wachen)」의 뒷부분을 끼워 넣는다. 나는 이 이야기에서 내 이론의 이 주된 특징이 그대로 되풀이되어 있는 것을 본다.

「결코 무의미한 꿈을 꾸지 않는다는 놀라운 특성을 지닌 한 남자에 관하여…….」

「깨어 있을 때처럼 꿈꾸는 자네의 그 놀라운 특성은 자네의 미덕에, 자네의 선량함과 정의로움과 진리에 대한 사랑에 바탕을 두고 있네. 자네를 둘러싼 모든 것을 알기 쉽게 해 주는 것은 자네 본성의 도덕적 명료함일세.」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고 상대가 대답했다. 「모든 사람이 나처럼 만들어져 있고, 어떤 인간도 무의미한 꿈은 꾸지 않는다고 나는 믿고 싶을 지경일세! 다시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또렷하게 기억되는 꿈, 그러니까 섬망 상태에서 꾼 꿈이 아닌 꿈은 언제나 의미가 있다네. 아니, 달리 될 수가 없지! 스스로 모순되는 것은 결코 하나의 전체로 묶일 수 없으니 말일세. 시간과 공간이 흔히 완전히 뒤죽박죽이 된다고 해서 꿈의 진짜 의미가 조금이라도 줄어들지는 않네. 둘 다 꿈의 본질적인 내용에는 아무 의미도 없었기 때문일세. 우리는 깨어 있을 때도 흔히 그렇게 하지. 동화를, 대담하고 심오한 숱한 환상적 창작물을 생각해 보게. 무지한 사람만이 그런 것을 두고 『그건 무의미해! 불가능한 일이니까』 하고 말할 걸세.」

「방금 내 꿈을 풀어 준 것처럼 언제나 꿈을 바르게 해석할 수만 있다면야!」 하고 친구가 말했다.

「그건 분명 쉬운 일이 아닐세. 하지만 꿈꾸는 사람 자신이라면 주의를 조금만 모아도 언제나 해낼 수 있을 걸세……. 왜 대개는 그게 불가능하냐고? 자네 꿈은 무언가 비밀스러운 것, 독특하고 더 고상한 종류의 순결하지 못한 무언가, 생각으로는 쉽게 드러낼 수 없는 자네 본성의 어떤 신비를 감추고 있는 것 같네. 그래서 자네 꿈은 그토록 자주 의미가 없거나 심지어 모순인 것처럼 보이는 걸세. 그러나 가장 깊은 뜻에서는 결코 그렇지 않네. 아니, 그럴 수가 전혀 없지. 잠들어 있든 깨어 있든 언제나 같은 사람이니 말일세.」

12. 그 뒤 나는 「어느 히스테리 분석의 단편(Bruchstueck einer Hysterieanalyse)」(1905)에서 두 꿈을 완전히 분석하고 종합해 보였다.

13. 1884년에 나온 K. 아벨의 저작 『원시어의 반대 의미(Der Gegensinn der Urworte)』(이 책에 대한 내 서평은 『연보』(블로일러·프로이트 엮음) 제2권, 1910 참조)에서 나는 다른 언어학자들도 확인해 준 사실 하나를 알고 놀랐다. 가장 오래된 언어들이 이 점에서 꿈과 아주 똑같이 행동했다는 것이다. 그런 언어들에는 원래 어떤 성질이나 활동의 계열에서 양극단을 함께 가리키는 낱말이 하나뿐이었고(강한 — 약한, 늙은 — 젊은, 먼 — 가까운, 묶다 — 떼다), 두 극단을 따로 가리키는 이름은 공통된 원초적 낱말을 조금 바꾸어 이차적으로야 만들어 냈다. 아벨은 이런 관계를

드문 예외를 빼고는 고대 이집트어에서 입증했으며, 셈어와 인도게르만어에서도 같은 발달의 뚜렷한 잔재를 보여 줄 수 있었다.

14. 꿈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누구 뒤에서 나의 자아를 찾아야 할지 모를 때, 나는 다음 규칙을 따른다. 꿈속에서, 내가 잠든 동안 느끼는 정동에 사로잡혀 있는 인물이 바로 나의 자아를 숨기고 있는 인물이다.

15. 히스테리 발작도 때로 보는 사람에게 제 뜻을 감추려고 같은 수법, 곧 시간 관계의 역전을 쓴다. 이를테면 한 히스테리 소녀의 발작은 짤막한 연애담을 연기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연애담은 그녀가 전차에서 누군가와 마주친 일과 관련해 무의식적으로 공상해 낸 것이다. 한 남자가 그녀 발의 아름다움에 끌려, 책을 읽고 있는 그녀에게 말을 건다. 그러자 그녀는 그를 따라가 격렬한 사랑의 장면을 겪는다. 그녀의 발작은 몸을 비트는 움직임으로 이 장면을 표현하는 데서 시작하고(입맞춤을 뜻하는 입술 움직임과 포옹을 뜻하는 팔 감기가 따른다), 그다음에 그녀는 다른 방으로 서둘러 가서 의자에 앉아, 발을 보여 주려고 치마를 들어 올리고, 책을 읽으려는 듯이 행동하며, 내게 말을 건다(내게 대답한다).

16. 동반된 히스테리 증상: 무월경, 그리고 이 환자의 주된 병이던 깊은 우울.

17. 완전히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은 중간 고리들을 거쳐 어린 시절의 체험을 가리키는 것이 있음이 드러난다. 「무어인은 제 할 일을 다 했다, 무어인은 가도 된다.」 그러고 나서 익살스러운 물음이 뒤따른다. 「무어인이 제 할 일을 다 했을 때 몇 살인가? 한 살. 그러면 가도 된다.」(내가 검은 곱슬머리를 하도 많이 달고 세상에 나와서, 젊은 어머니가 나를 무어인이라고 했다고 한다.) 내가 모자를 찾지 못한다는 사정은 여러 뜻으로 이용된 낮의 체험이다. 물건을 치워 두는 데 천재인 우리 집 하녀가 모자를 숨겨 두었던 것이다. 꿈의 결말 뒤에는 죽음에 관한 슬픈 생각의 억제도 숨어 있다. 「나는 아직 내 할 일을 다 하려면 멀었다. 나는 아직 가면 안 된다.」 얼마 전에 꾼, 괴테와 마비 환자에 관한 꿈(이 장 (바))에서처럼 탄생과 죽음이다.

18. 『농담과 무의식의 관계(Der Witz und seine Beziehung zum Unbewussten)』(제2판, 1912)와, 신경증 증상을 풀어낼 때 나타나는 「낱말 다리」 참조.

19. 일반적으로 꿈의 요소 하나하나를 해석할 때마다 그 요소가 —

(ㄱ) 부정의 뜻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지 긍정의 뜻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지(대립 관계),

(ㄴ) 역사적으로(회상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인지,

(ㄷ) 상징적인 것인지, 아니면

(ㄹ) 그 값을 말로 된 표현의 소리에 따라 매겨야 하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이렇게 뜻이 여러 갈래인데도, 꿈 작업의 표현이 그 번역자에게 안기는 어려움은 옛 상형 문자를 쓴 사람들이 독자에게 안긴 어려움보다 크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

20. 「인과적」인 것으로 보아야 할 이 예비 꿈의 해석은 이 장 (다)를 보라.

21. 그녀의 삶의 행로.

22. 높은 태생. 예비 꿈과 이루는 소원 대조.

23. 두 장소를 하나로 합친 합성 영상. 하나는 그녀가 남자 형제와 함께 놀던 아버지 집의 이른바 다락(독일어 Boden — 바닥, 다락)인데, 이 남자 형제는 나중에 그녀의 공상의 대상이 된다. 다른 하나는 그녀를 곧잘 놀리던 심술궂은 삼촌의 정원이다.

24. 잠든 사이에 몸을 드러내곤 했다는, 삼촌의 정원에 대한 실제 기억과 이루는 소원 대조.

25. 수태고지에서 천사가 백합 줄기를 들고 있듯이.

26. 이 합성 영상의 설명은 이 장 (다)를 보라. 순결, 월경, 카미유.

27. 그녀의 공상에 쓰이는 인물이 여럿임을 가리킨다.

28. 「하나 잡아 뜯는」 것이 허락되는지, 즉 자위해도 되는지.

29. 나뭇가지는 오래전부터 남성 성기를 나타내는 데 쓰여 왔고, 게다가 꿈꾼 사람의 성(姓)을 아주 뚜렷이 암시한다.

30. 뒤따르는 대목과 마찬가지로 혼인 생활의 예방 조치를 가리킨다.

31. 꿈 상징 표현의 셋째 예로 보고한 비슷한 「전기적(傳記的)」 꿈(5장 (라))이 있다. 둘째 예는 랑크[106]가 「스스로를 해석하는 꿈(Traum der sich selbst deutet)」이라는 제목으로 전문을 보고한 꿈이며, 「반대 방향」으로 읽어야 하는 또 하나의 예는 슈테켈[114], 486쪽을 보라.

32. 영역본 표제는 「Examples — Arithmetic Speeches in the Dream」이어서 하나의 주제처럼 읽히나, 이 절은 꿈속의 계산과 꿈속의 말을 차례로 다룬다. 절의 내용에 따라 옮겼다. — 옮긴이.

33. 원저자의 예를 번역할 수 없어서 영역자가 대신 든 예다. — 영역자 브릴의 주.

34. 신경증도 같은 식으로 진행한다. 내가 아는 한 여성 환자는 본의 아니게 — 자기 바람과는 반대로 — 노래나 노래의 토막을 (환각으로) 듣는데, 그것이 자기 정신생활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이해하지 못한다. 그녀는 분명 편집증 환자가 아니다. 분석해 보니 그녀는 일정한 자유를 부려 이 노래들의 가사를 잘못 이용하고 있었다. 「오 복된 이여, 오 기쁜 이여」는 한 크리스마스 노래의 첫머리다. 그녀는 이 노래를 「크리스마스 때」라는 말까지 이어 가지 않음으로써 결혼 축가로 만든다 운운. 같은 왜곡 기제는 환각 없이 그저 정신적인 사건으로도 일어날 수 있다.

35. 중층 결정에 한 가지 보태자면, 늦은 데 대한 내 핑계는 밤늦게까지 일하고 나서 아침에 카이저 요제프 거리에서 베링거 거리까지 먼 길을 가야 했다는 것이었다.

36. 게다가 Cæsar〔카이사르〕 — Kaiser〔카이저, 독일어로 황제〕.

37. 유난히 작은 인물들이 가득한 꿈 하나를 어느 저자의 글에서 보았는지 잊어버렸다. 그 꿈의 원천은 꿈꾼 사람이 낮에 들여다본 자크 칼로의 판화 가운데 하나로 밝혀졌다. 이 판화들에는 아주 작은 인물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 있는데, 그 가운데 한 연작은 30년 전쟁의 참상을 다룬다.

38. 꿈에서 죽은 사람들이 살아 있는 사람으로 나타나 행동하고 우리와 교섭하는 일이 잦다는 것은 지나친 놀라움을 불러일으켰고 기이한 설명들을 낳았는데, 그 설명들에서 꿈에 대한 우리의 무지가 두드러지게 드러난다. 그러나 이런 꿈들의 설명은 아주 가까이에 있다. 우리는 「만약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신다면 이걸 보고 뭐라고 하실까?」 하고 생각할 일이 얼마나 잦은가. 꿈은 이 만약을 특정한 상황 속의 현재 시제로밖에는 표현할 수 없다. 이를테면 할아버지에게서 큰 유산을 물려받은 한 젊은이가, 돈을 너무 많이 쓴다고 꾸지람을 들은 일을 계기로, 할아버지가 살아 있어서 자기에게 셈을 따져 묻는 꿈을 꾼다. 우리가 꿈에 대한 저항으로 여기는 것, 곧 그 사람은 어쨌든 이미 죽었다는, 더 잘 아는 우리 지식의 반론은 실은 위안이다. 죽은 사람은 이런저런 일을 겪지 않고 갔으니 말이다. 또는 그가 이제 더는 참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느끼는 만족이다.

죽은 친척이 나오는 꿈에서 보이는 또 다른 형태의 부조리는 어리석음과 부조리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극단적인 거부를 나타내는 데 쓰인다. 곧 사람들이 가장 생각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게 하고 싶어 하는 억압된 생각을 표현한다. 이런 종류의 꿈은 꿈이 바라는 것과 현실을 구별하지 않는다는 것을 떠올릴 때에만 풀린다. 이를테면 아버지가 앓는 동안 곁에서 간호했고 그 죽음을 몹시 가슴 아파한 한 남자가, 얼마 뒤 다음과 같은 터무니없는 꿈을 꾸었다. 아버지는 다시 살아 있었고 여느 때처럼 아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나(이것이 이 꿈의 기묘한 점인데) 아버지는 그런데도 죽은 것이었다. 비록 그것을 알지 못했지만. 「아버지는 그런데도 죽은 것이었다」 뒤에 꿈꾼 사람의 소원 때문에, 그리고라는 말을 끼워 넣고, 「그러나 아버지는 그것을 알지 못했다」 뒤에 꿈꾼 사람이 이런 소원을 품었다는 것을 덧붙이면 이 꿈을 이해할 수 있다. 아버지를 간호하는 동안 아들은 아버지의 죽음을 자주 바란다. 즉 죽음이 마침내 아버지의 고통을 끝내 주었으면 하는, 정말로 연민 어린 욕망을 품었다. 아버지가 죽은 뒤 애도하는 동안, 바로 이 연민의 소원이 무의식적인 자책이 되었다. 마치 그 소원이 정말로 병자의 목숨을 줄이는 데 한몫하기라도 했다는 듯이. 아버지에게 맞서는 이른 유년기의 충동들이 깨어나면서 이 자책을 꿈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이 꿈이 이토록 부조리하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꿈의 유발 요인과 낮의 사고 사이에 하늘과 땅만큼 큰 대조가 있었기 때문이다(이에 대해서는 「정신 작용의 두

원리에 관한 정식화(Formulierungen über die zwei Prinzipien des seelischen Geschehens)」, 『연보』(블로일러·프로이트 엮음) 제3권 제1호, 1911 참조).

39. 여기서 꿈 작업은 우스꽝스럽다고 지목하는 생각을, 그 생각과 관련해 무언가 우스꽝스러운 것을 만들어 냄으로써 패러디한다. 하이네도 바이에른 왕의 엉터리 각운을 조롱하려 할 때 이와 비슷한 일을 한다. 그는 그보다 더 엉터리인 각운으로 조롱한다.

「Herr Ludwig ist ein grosser Poet」〔루트비히 씨는 위대한 시인이라네〕

「Und singt er, so stuerzt Apollo」〔그가 노래하면 아폴론이〕

「Vor ihm auf die Knie und bittet und fleht,」〔그 앞에 무릎 꿇고 빌며 애원하네〕

「『Halt ein, ich werde sonst toll oh!』」〔『그만두시오, 안 그러면 나 미치겠소!』〕

40. Geseres와 Ungeseres가 소금에 절인 것과 절이지 않은 것을 뜻하는 독일어 gesalzen, ungesalzen과 닮았고, 또 발효시킨 것과 발효시키지 않은 것을 뜻하는 독일어 gesauert, ungesauert와도 닮았다는 데 주목하라. — 영역자 브릴의 주.

41. 이 꿈은 같은 밤에 꾼 꿈들은 기억 속에서 서로 떨어져 있더라도 같은 사고 재료에서 나온다는 일반 명제를 보여 주는 좋은 예이기도 하다. 게다가 내가 로마시에서 아이들을 구해 내는 꿈의 상황은 내 어린 시절에 속하는 한 일화를 가리키는 암시 때문에 왜곡되어 있다. 그 뜻은, 여러 해 전에 자기 아이들을 다른 땅으로 옮겨 심을 기회가 있었던 어떤 친척들을 내가 부러워한다는 것이다.

42. 이 독일어 표현은 우리가 흔히 「그건 네 책임이 아니다」, 또는 「그건 네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뜻이다. — 영역자 브릴의 주.

43. 정신분석 치료를 받는 동안 꾸는 꿈에 나오는 「그걸 의사에게 말해야지」라는 지시나 의도는, 꿈에 담긴 고백에 대한 커다란 저항에 어김없이 대응하며, 그 뒤에 꿈을 잊어버리는 일이 따르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44. 『철학 평론(Revue philosophique)』 여러 권에 걸쳐 폭넓게 논의된 주제다(꿈속의 기억 착오).

45. 이 결과는 논리적 관계의 표현에 관해 앞서 내가 한 진술(이 장 (다))을 여러 점에서 바로잡는다. 그 진술은 꿈 작업의 일반적인 조건을 기술했지만, 꿈 작업의 가장 섬세하고 가장 공들인 성취는 고려하지 않았다.

46. Stanniol〔주석박〕, 슈탄니우스(Stannius)에 대한 암시, 곧 어류의 신경계. 이 장 (마) 참조.

47. 내가 사는 공동 주택의 복도에서 다른 세입자들의 유모차가 서 있는 자리. 이것은 그 밖에도 여러 가지로 중층 결정되어 있다.

48. 이 묘사는 나 자신도 이해할 수 없다. 그러나 나는 꿈을 적어 내려가는 동안 떠오르는 바로 그 말로 꿈을 재현한다는 원칙을 따른다. 문구 자체가 꿈 표현의 일부다.

49. 실러는 여러 마르부르크 가운데 어느 곳에서도 태어나지 않았고 마르바흐〔Marbach〕에서 태어났다. 김나지움을 마친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나 또한 알고 있던 사실이다. 이것도 다른 자리에서 의도한 기만을 대신해 끼어드는 그런 오류(5장 (나) 참조) 가운데 하나이며, 그에 대한 설명은 『일상생활의 정신병리학(Psychopathologie des Alltagslebens)』에서 시도한 바 있다.

50. 이와 견줄 만한 것으로, 나는 그 뒤에 「경향」 위트가 자아내는 비상한 쾌감 효과를 설명했다.

51. 영역본은 여기서 이 친구를 「F.」로 적지만, 이 장 (마)의 꿈 본문에서는 「Fl.」로 적었다. 영역본의 표기를 그대로 두었다. 뒤에서 말하는, 플라이슐과 F.라는 두 이름의 소리가 비슷하다는 것도 「Fl.」이라는 표기에 기대어 있다. — 옮긴이.

52. non vixit 대신 non vivit〔그는 살아 있지 않다〕를 막무가내로 요구하는 것은 무의식적 꿈 사고에서 나온 바로 이 공상이다. 「너는 너무 늦게 왔다. 그는 이제 살아 있지 않다.」 외현적 상황도 「non vivit」 쪽으로 기운다는 것은 이 장 (마)에서 이미 말했다.

53. 영역본은 이 대목을 「내 친구는 …… 중병을 앓는 사람이었다」로 적어, 중병을 앓던 사람이 친구인 것처럼 읽힌다. 그러나 독일어 원문에서 중병을 앓던 사람은 친구의 윗사람이고, 그 때문에 그가 물러나기를 바라는 소원이 「고약한 해석」을 허락한다. 영역본에는 그 사이의 한 문장(친구가 이따금 이 조바심을 소리 내어 드러냈다는 것)도 빠져 있다. 뜻이 바뀌는 곳이어서 원문에 따라 윗사람으로 옮겼다. — 옮긴이.

54. 요제프라는 이름이 내 꿈에서 이토록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은 눈에 띄는 일이다(삼촌 꿈 참조). 나는 꿈속에서 이 이름을 지닌 사람들 뒤에 내 자아를 유난히 쉽게 숨길 수 있다. 성서에서 꿈 해석자의 이름이 요제프〔요셉〕였기 때문이다.

55. Rêve, petit roman〔꿈, 짧은 소설〕 — day-dream, story〔백일몽, 이야기〕.

56. 여러 공상이 층층이 겹친 데서 생겨난 이런 종류의 꿈을 나는 「어느 히스테리 분석의 단편(Bruchstück einer Hysterie Analyse)」(1905)에서 좋은 예로 분석했다. 덧붙이자면, 나는 주로 내 꿈을 가지고 작업하는 동안에는 꿈 형성에서 이런 공상이 지니는 의의를 과소평가했다. 내 꿈은 백일몽에 바탕을 두는 일이 드물었고, 대개는 토론과 마음속 갈등에 바탕을 두었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에게서는 밤의 꿈과 백일몽 사이의 완전한 유사성을 증명하기가 훨씬 쉬운 일이 많다. 히스테리 환자에게서는

발작을 꿈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백일몽의 공상이 두 심리적 형성물 모두의 첫 단계라는 것이 분명해진다.

제7장 꿈 과정의 심리학[1]

남에게서 들은 꿈 가운데 이 대목에서 특히 눈여겨볼 만한 것이 하나 있다. 한 여성 환자가 내게 들려준 꿈인데, 그녀 자신도 꿈에 관한 어느 강연에서 들은 것이었다. 본래의 출처는 나도 모른다. 이 꿈이 그 부인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것은 분명하다. 그녀는 이 꿈을 흉내 내기까지 했는데, 즉 이 꿈의 요소들을 자기 꿈속에서 되풀이하여, 이런 전이로 어떤 한 점에서 이 꿈에 동의한다는 뜻을 나타내려 한 것이다.

이 본보기 꿈의 요점은 다음과 같다. 한 아버지가 여러 날 밤낮으로 아이의 병상을 지켰다. 아이가 죽자 그는 옆방으로 물러나 쉬었는데, 자기 방에서 다른 방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문을 조금 열어 두었다. 그 방에는 타오르는 촛불에 둘러싸여 아이의 시신이 놓여 있었다. 지키는 사람으로 남겨 둔 한 노인이 시신 곁에 앉아 기도문을 중얼거리고 있었다. 몇 시간 잠을 잔 뒤 아버지는 꿈을 꾸었다. 아이가 그의 침대 곁에 서서 그의 팔을 붙잡고 「아버지, 제가 불타는 게 안 보이세요?」 하고 원망하듯 외쳤다. 아버지는 잠에서 깨어 옆방에서 환한 빛이 새어 나오는 것을 알아차렸다. 달려 들어가 보니 노인은 잠들어 있었고, 사랑하는 아이의 시신은 넘어진 촛불에 덮개와 한쪽 팔이 타 있었다.

이 가슴 아픈 꿈의 뜻은 아주 단순하며, 내 환자가 전한 대로라면 강연자가 내놓은 설명도 옳았다. 열린 문으로 들어와 잠든 사람의 눈에 비친 환한 빛이, 그가 깨어 있었다면 받았을 것과 똑같은 인상, 곧 넘어지는 촛불 때문에 시신 가까이에서 불이 났다는 인상을 그에게

주었다는 것이다. 그가 잠자리에 들면서 그 늙은 파수꾼이 제 소임을 감당하지 못하리라고 걱정했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이 해석에서 우리가 고칠 것은 아무것도 없다. 덧붙일 수 있는 것은 다만, 꿈 내용이 중층 결정되어 있음에 틀림없다는 것, 그리고 아이의 말은 아이가 살아 있을 때 했던 말들로 이루어져 있었고, 그 말들이 아버지에게 중요한 일들을 떠올리게 했다는 것이다. 어쩌면 「제가 불타요」라는 호소는 아이의 목숨을 앗아 간 열병을 떠올리게 했을 것이고, 인용된 말 「아버지, 안 보이세요?」는 우리가 모르는 어떤 감정적인 일을 떠올리게 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꿈을 우리의 심리적 존재와 연관 지을 수 있는 의미 있는 사건으로 인정하고 나면, 그토록 곧바로 깨어나야 할 사정에서 꿈이 생겨났다는 것이 놀라울 수도 있다. 우리는 또 이 꿈에도 소원 성취가 빠져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아이는 살아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 아이는 몸소 아버지에게 경고하고, 그의 침대로 와서 그의 팔을 붙잡는다. 꿈속 말의 첫 부분을 낳은 그 일이 있었을 때에도 아마 그렇게 했을 것이다. 아버지가 한순간 더 잠을 잔 것은 이 소원 성취를 위해서였다. 꿈이 의식적 숙고를 이긴 것은 아이를 한 번 더 살아 있는 모습으로 보여 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아버지가 먼저 깨어나서, 자기를 옆방으로 이끈 결론을 그다음에 끌어냈더라면, 그는 아이의 생명을 바로 이 한순간만큼 줄여 버렸을 것이다.

이 짧은 꿈에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특이한 점은 아주 분명하다. 지금까지 우리는 주로 꿈의 숨은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는지, 꿈 작업이 어떤 수단으로 그것을 감추는지를 밝히려고 애썼다. 달리 말해 지금까지 우리의 가장 큰 관심은 해석의 문제에 쏠려 있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마주친 꿈은 쉽게 설명되고 뜻이 훤히 드러나 있는데도, 우리의 꿈꾸기를 의식적 사고와 뚜렷이 가르는 본질적

특징들을 여전히 지니고 있어서 분명히 설명을 요구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차린다. 해석의 문제를 모두 풀고 난 뒤에도 우리는 우리의 꿈 심리학이 얼마나 불완전한지를 여전히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이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서기 전에, 여기까지 오는 길에 무언가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았는지 잠시 멈추어 생각해 보자. 솔직히 인정해야 하거니와, 지금까지 우리가 지나온 것은 여정 가운데 쉽고 편안한 구간이었다. 내가 틀리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따라온 길은 모두 빛으로, 해명으로, 온전한 이해로 이어졌다. 그러나 꿈의 심리 과정 속으로 더 깊이 파고들려는 순간부터 모든 길은 어둠으로 이어진다. 꿈을 심리 과정으로서 설명하는 것은 전혀 불가능하다. 설명한다는 것은 알려진 것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일인데, 꿈을 심리학적으로 연구해 그 근본적 설명으로 추론해 낼 수 있는 것을 그 아래 거두어 넣을 만한 심리학적 지식이 우리에게는 아직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우리는 심리 장치의 구조와 그 안에서 작용하는 힘들에 관해 일련의 새로운 가정을 세울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가정들을 가장 단순한 논리적 연결 너머로까지 밀고 나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그 가치가 불확실함 속으로 녹아들어 버릴 수 있다. 또 설령 우리가 결론을 내리면서 아무런 실수도 하지 않고 거기 걸린 논리적 가능성을 모두 헤아린다 하더라도, 기초 자료가 불완전할 공산이 커서 우리의 해답은 여전히 완전한 실패의 위협을 받을 것이다. 또한 꿈이나 그 밖의 단 하나의 활동을 아무리 꼼꼼히 조사하더라도 심리 장치의 구조와 작동 방식에 대한 설명을 얻거나, 적어도 확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오히려 그러려면 일련의 심리 활동 전체를 비교 연구한 뒤에 결정적으로 변함없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을 한데 모아야 한다. 그러므로 꿈 과정의 분석에서 얻게 될 심리학적 견해들은, 다른 출발점에서 같은 문제의

핵심으로 나아갔을지도 모르는 다른 연구들의 결과와 이어질 수 있을 때까지 말하자면 연결점에서 기다려야 할 것이다.

(가) 꿈의 망각

그러면 먼저 한 가지 주제로 눈을 돌려 보자. 이 주제는 지금까지 주목받지 못한 반론 하나를 낳았는데, 그 반론은 꿈 해석에서 우리가 해 온 작업의 토대를 허물 기세다. 여러 방면에서 이런 반론이 나왔다. 우리가 해석하려는 꿈을 우리는 실은 알지 못한다는 것, 더 정확히 말하면 그 꿈을 실제로 일어난 그대로 알고 있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다(1장 (라) 참조). 우리가 꿈에 대해 기억하는 것, 우리가 해석 방법에 맡기는 것은 무엇보다 먼저 믿을 수 없는 기억 때문에 왜곡되어 있다. 이 기억은 꿈을 간직하는 데 유난히 알맞지 않아 보이며, 하필 꿈 내용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빠뜨렸을 수도 있다. 자기 꿈에 주의를 기울여 보면, 기억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꿈을 꾸었는데 안타깝게도 이 한 조각밖에 알지 못하고, 그 조각마저 유난히 불확실해 보인다고 한탄할 까닭을 우리는 자주 발견한다. 다른 한편, 우리 기억이 꿈을 조각조각 재현할 뿐 아니라 착각에 빠져 그릇되게 재현한다는 것은 모든 점으로 보아 확실하다. 한편으로 꿈꾼 재료가 정말로 우리가 기억하는 만큼 앞뒤 없고 어지러웠는지 의심할 수 있듯이, 다른 한편으로는 꿈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만큼 앞뒤가 이어져 있었는지도 의심할 수 있다. 재현하려고 애쓰는 동안, 원래 있던 빈틈이나 망각으로 생긴 빈틈을 멋대로 고른 새 재료로 메우지 않았는지, 꿈을 꾸미고 다듬고 매만져서 그 실제 내용에 대한 판단을 아예 불가능하게 만들지 않았는지 의심할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한 저자(슈피타[64])는, 질서 있고 앞뒤가 이어진 것은 모두 우리가 꿈을 떠올리려고 애쓰는 동안에야 비로소

꿈속에 들어간다는 믿음을 밝혔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그 가치를 밝히겠다고 나선 바로 그 대상을 손에서 빼앗길 위험에 처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꿈을 해석하면서 이런 경고를 무시해 왔다. 아니, 오히려 꿈 내용의 가장 작고 가장 하찮으며 가장 불확실한 구성 요소에서도, 뚜렷하고 확실한 부분을 담은 요소에서 못지않게 해석의 요구가 뚜렷이 느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르마의 주사 꿈에서 우리는 「나는 급히 M. 박사를 불러들였다」라는 대목을 읽었고, 이 작은 덧붙임조차 특별한 유래가 없었다면 꿈속에 들어오지 않았으리라고 가정했다. 그리하여 우리는 내가 나이 많은 동료를 그 병상으로 「급히」 불러들였던 그 불운한 환자의 이야기에 이르렀다. 51과 56의 차이를 quantité négligé〔무시해도 좋은 양〕으로 다룬, 겉보기에 부조리한 꿈에서는 51이라는 수가 거듭 언급되었다. 우리는 이것을 당연하거나 대수롭지 않은 일로 여기지 않고, 거기서 꿈의 잠재 내용 속에 51이라는 수로 이어지는 두 번째 생각의 흐름이 있다고 추론했다. 이 실마리를 따라가자 51세를 수명의 한계로 여기는 두려움에 이르렀는데, 이 두려움은 삶에 한계 따위는 없다고 큰소리치던 지배적인 생각의 흐름과 더없이 뚜렷하게 대조되었다. 「Non Vixit〔그는 살지 않았다〕」 꿈에서 나는 「P.가 그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자, Fl.은 내게 묻는다」 운운하는 문장을 발견했는데, 처음에는 하찮은 삽입구로 보고 지나쳤던 문장이다. 해석이 막혀 멈추자 나는 이 말로 되돌아갔고, 이 말을 거쳐 유년기의 공상에 이르는 길을 찾아냈다. 그 공상은 꿈 사고 속에서 중간 연결점으로 나타나 있었다. 길을 이어 준 것은 시인의 다음 시구였다.

그대가 나를 이해한 적은 드물었고,

내가 그대를 이해한 적도 드물었네.

그러나 우리가 진창에 빠졌을 때,

우리는 대번에 서로를 이해했다네.

모든 분석은 꿈의 가장 하찮은 특징이 분석에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처음에 그 특징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탓에 과제의 완수가 늦어진다는 것을 여러 예로 보여 줄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꿈을 해석하면서 꿈에 나타난 언어 표현의 미묘한 차이 하나하나를 존중했다. 아니, 꿈을 알맞은 문체로 옮기려던 노력이 실패했음을 드러내는 무의미하거나 모자란 문구와 마주쳤을 때에도 우리는 그 표현의 결함까지 존중했다. 요컨대 권위자들이 그때그때 급히 꾸며 낸 자의적인 즉흥물로 여긴 것을 우리는 경전처럼 다루었다. 이 모순은 설명을 요구한다.

그 설명은 권위자들을 깎아내리지 않고도 우리에게 유리하게 나온다. 꿈의 기원에 관해 새로 얻은 이해의 관점에서 보면 이 모순들은 완전히 들어맞는다. 꿈을 재현하려 할 때 우리가 꿈을 왜곡한다는 것은 사실이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이차 가공이라고 이름 붙인 것, 곧 정상적인 사고의 영향으로 꿈이 겪는, 흔히 오해받는 그 가공의 또 다른 예를 발견한다. 그러나 이 왜곡 자체는 꿈 사고가 꿈 검열 때문에 으레 겪는 가공의 일부일 뿐이다. 권위자들은 여기서 꿈 왜곡 가운데 가장 뚜렷하게 작용하는 부분을 짐작해 냈거나 관찰했다. 우리에게 이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만큼 쉽게 알아볼 수는 없지만 훨씬 폭넓은 왜곡 작업이 이미 숨은 생각들 가운데서 꿈을 제 대상으로 골라 놓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이다. 권위자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은 다만, 꿈을 떠올려 말로 옮기는 동안 꿈이 겪는 변경을 자의적이고 풀 수 없는 것으로, 따라서 꿈을 해석할 때 우리를 그르치기 쉬운 것으로 여긴다는 점뿐이다. 우리는 심리적인 것의 결정성을 과소평가한다.[2] 이 영역에는 자의적인 것이 하나도 없다. 첫째 생각의 흐름이 결정하지 않고 남겨 둔 요소는 곧바로 둘째 생각의 흐름이 떠맡아 결정한다는 것을 아주

일반적으로 보여 줄 수 있다. 이를테면 나는 전적으로 마음대로 수 하나를 떠올려 보려 한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하다. 내게 떠오르는 수는, 순간의 내 의도와는 동떨어져 있을지도 모르는 내 안의 생각들이 분명하고도 필연적으로 결정한다.[3] 깨어 있는 상태의 손질을 거치며 꿈이 겪는 변경도 그와 똑같이 자의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다. 그 변경들은 자기가 대신 들어선 내용과 연상으로 이어진 채 남아 있으면서 그 내용에 이르는 길을 우리에게 가리켜 주는데, 그 내용 자체가 또 다른 무언가의 대리물일 수도 있다.

환자들의 꿈을 분석할 때 나는 이 주장을 확인하는 다음과 같은 시험을 으레 해 보는데, 이 시험이 실패한 적은 한 번도 없다. 꿈 보고가 처음에 알아듣기 어려워 보이면 나는 꿈꾼 사람에게 그것을 되풀이해 달라고 청한다. 그가 같은 말로 되풀이하는 일은 드물다. 표현이 바뀌는 대목들이 꿈의 위장에서 약한 곳이라는 것을 나는 알게 되었는데, 이 대목들은 지크프리트의 옷에 수놓은 표시가 하겐에게 쓸모 있었던 것과 똑같이 내게 쓸모가 있다. 분석은 이 지점들에서 출발할 수 있다. 꿈을 푸는 데 특별히 공을 들이겠다는 내 예고가 이야기하는 사람에게는 경고가 된다. 그래서 그는 곧바로 저항에 떠밀려 꿈의 위장에서 약한 곳을 감싸고, 속을 드러내는 표현을 더 먼 표현으로 바꾼다. 그렇게 해서 그는 자기가 버린 표현에 오히려 내 주의를 끌어 준다. 꿈의 풀이를 막으려고 들이는 수고를 보면, 꿈의 옷을 얼마나 공들여 짰는지도 추론할 수 있다.

그러나 꿈을 이야기할 때 우리의 판단이 부딪히는 의심을 저자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그보다 덜 정당하다. 이 의심이 지적인 확신이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 기억은 본래 아무런 보증도 알지 못하며, 그런데도 우리는 객관적으로 정당한 것보다 훨씬 자주 기억의 진술을 믿으라는 압력에 굴복한다. 꿈을, 또는 꿈의

개별 자료를 바르게 재현했는가 하는 의심 역시 꿈 검열, 곧 꿈 사고가 의식으로 침투하는 데 맞서는 저항의 파생물일 뿐이다. 이 저항은 전치와 치환을 일으키는 데 힘을 다 써 버리지 않았으므로, 통과를 허락받은 것에 의심의 형태로 들러붙는다. 이 의심이 꿈의 강렬한 요소는 건드리지 않도록 조심하고 약하고 희미한 요소만 공격한다는 점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더욱 쉽게 알아볼 수 있다. 꿈 사고와 꿈 사이에서 모든 심리적 가치의 전도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다. 왜곡은 가치를 바꿔 놓음으로써만 가능했다. 왜곡은 으레 이런 방식으로 나타나며, 때로는 이것으로 만족하기도 한다. 꿈 내용의 희미한 요소에 의심이 달라붙어 있다면, 우리는 그 암시를 따라 이 요소에서 추방된 꿈 사고 가운데 하나의 직접적인 파생물을 알아볼 수 있다. 여기서 일어나는 일은 고대나 르네상스 시대의 어느 공화국에서 큰 혁명이 일어난 뒤와 꼭 같다. 예전의 고귀하고 강력하던 지배 가문들은 이제 추방되고, 높은 자리는 모두 벼락출세한 자들이 차지하며, 도시 안에는 몹시 가난하고 힘없는 시민이나 패배한 당파의 먼 추종자들만 용인된다. 그들조차 온전한 시민권을 누리지 못한다. 그들은 혐의를 받으며 감시당한다. 비유 속의 혐의 자리에, 우리의 경우에는 의심이 있다. 그러므로 나는 꿈 분석에서는 신빙성을 가늠한다는 생각 전체에서 벗어나야 하며, 이것이나 저것이 꿈에 나왔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을 온전히 확실한 것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꿈 요소를 추적하면서 이런 고려를 물리치기로 마음먹기 전까지 분석은 제자리걸음을 할 것이다. 해당 요소에 대한 반감은 분석받는 사람에게서, 그 원치 않는 표상이 그의 머릿속에 아무 생각도 불러일으키지 않는다는 형태로 심리적 효과를 드러낸다. 이런 효과는 사실 당연한 것이 아니다. 누군가 「이것이나 저것이 꿈에 들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쪽으로는 다음과 같은 생각이

떠오릅니다」 하고 말한다 해도 앞뒤가 어긋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분석에서 의심이 바로 이렇게 방해하는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야말로 의심을 심리적 저항의 파생물이자 도구로 낙인찍는다. 정신분석이 무엇이든 미심쩍어하는 것은 정당하다. 정신분석의 규칙 가운데 하나는 이렇다. **작업의 진행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이든 저항이다.**

꿈의 망각 역시, 그것을 설명하면서 심리적 검열의 힘을 고려하지 않는 한 헤아릴 수 없는 채로 남는다. 밤새 꿈을 많이 꾸었는데 조금밖에 간직하지 못했다는 느낌은, 사실 여러 경우에 다른 뜻을 지닐 수도 있다. 어쩌면 꿈 작업이 밤새도록 느낄 수 있을 만큼 이어졌고 그러고서 이 짧은 꿈 하나만 남겼다는 뜻일 수도 있다. 그러나 깨어나면서 꿈이 점점 더 잊혀 간다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떠올리려고 몹시 애를 써도 꿈을 잊는 일이 잦다. 그렇지만 나는, 사람들이 대개 자기가 잊은 것의 범위를 과대평가하듯이, 꿈에 난 빈틈을 보고 제 앎의 결함을 판단하여 그 결함 또한 과대평가한다고 믿는다. 망각으로 꿈 내용에서 잃어버린 것은 모두 분석으로 되찾을 수 있을 때가 많다. 적어도 상당히 많은 경우에는 남은 조각 하나에서 꿈 사고를 모두 찾아낼 수 있다. 물론 꿈 자체를 되찾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분석에서 더 많은 주의와 자제력을 들여야 할 뿐이다. 그러나 이것은 동시에 꿈의 망각에 적대적인 의도가 없지 않다는 것을 시사한다.

꿈의 망각이 목적을 지니며 저항에 봉사한다는 것을 설득력 있게 증명해 주는 것은, 분석에서 망각의 예비 단계를 살펴보는 일이다.[4] 해석 작업 도중에 빠졌던 꿈 조각 하나가 갑자기 떠오르는 일이 자주 있다. 망각에서 이렇게 건져 낸 꿈 부분은 언제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그것은 꿈의 풀이로 가는 가장 짧은 길 위에 놓여 있으며, 바로 그 때문에 저항에게 가장 거슬리는 것이었다. 이 논고와 관련해 내가 모은

꿈의 예 가운데서, 이런 꿈 내용 한 조각을 나중에 끼워 넣어야 했던 일이 한 번 있었다. 정이 가지 않는 여자 길동무에게 앙갚음을 하는 여행 꿈이었는데, 일부가 상스럽고 추잡한 탓에 나는 그 꿈을 거의 해석하지 않은 채 남겨 두었다. 빠졌던 부분은 이렇다. 「나는 실러의 책 한 권을 두고 『It is from ——』 하고 말했다가, 나 스스로 잘못을 알아차렸기 때문에 『It is by.』 하고 고쳐 말했다. 그러자 남자가 누이에게 『정말이지, 그가 맞게 말했어.』 하고 한마디 했다.」

몇몇 저자에게는 그토록 놀라워 보이는 꿈속의 자기 교정은 우리가 고려할 가치가 없다. 그보다 나는 꿈속 문법적 실수의 본보기를 내 기억에서 끌어내 보이려 한다. 내가 처음 영국에 간 것은 열아홉 살 때였고, 나는 아일랜드해 바닷가에서 하루를 보냈다. 나는 당연히 파도가 남기고 간 바다 동물들을 잡으며 놀았고, 특히 불가사리 한 마리에 매달려 있었는데(꿈은 홀투른 〔Hollthurn〕 — 해삼 〔Holothurian〕 으로 시작한다), 그때 예쁘장한 여자아이 하나가 다가와 내게 「Is it a starfish? Is it alive?〔그거 불가사리예요? 살아 있어요?〕」 하고 물었다. 나는 「Yes, he is alive〔응, 그는 살아 있어〕」 하고 대답했다가, 곧 내 잘못이 부끄러워져 그 문장을 바르게 고쳐 되풀이했다. 그때 내가 저지른 문법적 실수 대신, 꿈은 독일 사람들이 아주 흔히 저지르는 다른 실수를 들여놓는다. 「Das Buch ist von Schiller」〔그 책은 실러가 쓴 것이다〕는 the book is from〔그 책은 ~에게서 왔다〕이 아니라 the book is by〔그 책은 ~이 지었다〕로 옮겨야 한다. 꿈 작업이 이렇게 바꿔 놓는 까닭이, from이라는 낱말이 소리가 닮은 덕분에 독일어 형용사 fromm(경건한, 독실한)과 놀라운 압축을 이룰 수 있게 해 주기 때문이라는 것은, 꿈 작업의 목적과, 수단을 고르는 데 거리낌이 없는 그 방식에 대해 우리가 들은 모든 것을 생각하면 이제 더는 놀랍지 않다. 그런데 바닷가의 이 무해한 회상은 이

꿈과 관련해 무엇을 뜻할까? 그 회상은 아주 순진한 예를 들어, 내가 성(性)을 잘못 썼다는 것, 즉 성별을, 또는 성적인 것을 가리키는 낱말인 「he」를 그것이 있어서는 안 될 자리에 놓았다는 것을 설명해 준다. 이것은 분명 꿈 풀이의 열쇠 가운데 하나다. 『물질과 운동(Matter and Motion)』이라는 책 제목의 유래(몰리에르의 『상상병 환자(Malade Imaginaire)』 : La matière est-elle laudable? 〔변은 좋은 상태인가?〕 — A motion of the bowels 〔배변〕)를 들어 본 사람이라면 빠진 부분을 쉽게 채워 넣을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나는 꿈의 망각이 대부분 저항의 활동 탓이라는 것을 demonstratio ad oculos 〔눈앞에 보여 주는 증명〕으로 결정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 한 환자가 내게, 꿈을 꾸기는 했는데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고 말한다. 그래도 우리는 작업을 이어 간다. 나는 저항에 부딪히고 그것을 환자에게 분명히 짚어 준다. 격려하고 재촉하면서 그가 어떤 불쾌한 생각과 화해하도록 돕는다. 그리고 그 일에 성공하자마자 그는 외친다. 「이제 무슨 꿈을 꾸었는지 떠오릅니다.」 그날 그를 작업에서 방해하던 바로 그 저항이 꿈도 잊게 한 것이다. 이 저항을 극복함으로써 나는 꿈을 기억 속으로 불러왔다.

마찬가지로 환자는 작업의 어떤 대목에 이르러, 사흘이나 나흘, 또는 그보다 더 전에 꾸었고 그동안 내내 망각 속에 잠들어 있던 꿈을 떠올리기도 한다.

권위자들은 꿈의 망각이 깨어 있는 상태와 잠든 상태 사이의 낯섦에 달려 있다고 믿어 왔지만, 정신분석의 경험은 꿈의 망각이 그보다는 저항에 더 많이 달려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또 하나의 증거를 우리에게 주었다. 나뿐 아니라 다른 분석가들과 치료받는 환자들에게도, 흔히 말하듯 꿈 때문에 잠에서 깨어나 곧바로, 정신 활동을 온전히 쥔

채로 그 꿈을 해석하기 시작하는 일이 자주 있다. 이런 경우 나는 꿈을 온전히 이해할 때까지 쉬지 않은 적이 많았는데, 그런데도 깨어난 뒤에는 꿈 내용 자체와 마찬가지로 해석 작업도 까맣게 잊어버리는 일이 있었다. 꿈을 꾸었다는 것도, 그 꿈을 해석했다는 것도 알고 있었는데 말이다. 정신 활동이 꿈을 기억 속에 붙들어 둘 수 있었던 경우보다, 꿈이 해석 작업의 결과까지 망각 속으로 데려가 버린 경우가 더 잦았다. 그런데 이 해석 작업과 깨어 있을 때의 생각 사이에는, 권위자들이 꿈의 망각을 오로지 그것으로 설명하고 싶어 하는 그 심리적 간극이 없다. 모턴 프린스는 꿈의 망각에 대한 내 설명에 반대하는데, 꿈의 망각은 해리 상태에 대한 기억 상실의 한 특수한 예일 뿐이며, 내 이론을 다른 유형의 기억 상실과 조화시킬 수 없으니 다른 목적에도 쓸모가 없다는 것이다. 그렇게 말함으로써 그는, 그런 해리 상태를 그토록 서술하면서도 이 현상들의 역동적 설명을 찾으려는 시도는 한 번도 하지 않았으리라고 독자가 짐작하게 만든다. 그런 시도를 했더라면 그는 틀림없이, 억압과 그로써 생겨나는 저항이 「이 해리의 원인인 것과 꼭 마찬가지로 그 심리적 내용에 대한 기억 상실의 원인이기도 하다」는 것을 발견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꿈이 다른 심리적 행위와 마찬가지로 잊히지 않으며 다른 심리 활동과 똑같이 굳게 기억에 달라붙어 있다는 것은, 이 원고를 엮으면서 해 볼 수 있었던 실험 하나가 내게 증명해 주었다. 나는 내 꿈 가운데 그때 어떤 이유로 불완전하게밖에 분석하지 못했거나 전혀 분석하지 못한 것을 많이 적어 두었다. 내 주장을 예시할 재료를 얻으려고 나는 그 가운데 몇몇을 한두 해 뒤에 분석해 보려 했다. 이 시도는 하나도 빠짐없이 성공했다. 아니, 해석은 꿈이 막 꾸어졌을 때보다 이 나중 시기에 더 쉽게 풀렸다고까지 말할 수 있다. 이 사실에 대해 한 가지 설명을 들자면, 꿈을 꿀 무렵 나를 방해하던 저항 가운데 몇 가지를 그사이에

극복했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이렇게 나중에 해석하면서 나는 예전에 얻은 꿈 사고의 결과를 지금의 결과와 견주어 보았는데, 지금의 결과가 대개 더 풍부했고, 예전의 결과는 바뀌지 않은 채 어김없이 지금의 결과 속에 들어 있었다. 그러나 나는 곧 놀라움을 거두었다. 환자들이 이따금 내게 이야기하는 지난 몇 해의 꿈을, 마치 간밤의 꿈인 것처럼 같은 방법으로, 같은 성과를 거두며 해석하는 데 나는 오래전부터 익숙해 있었다는 것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이렇게 뒤늦은 꿈 해석의 예 두 가지를 불안 꿈을 논할 때 보고하겠다. 이 실험을 처음 했을 때 나는 이 점에서 꿈이 신경증 증상처럼 행동하리라고 기대했고, 그 기대는 옳았다. 신경증 환자, 이를테면 히스테리 환자를 정신분석으로 치료할 때 나는 환자를 내게 데려온, 지금도 남아 있는 증상과 마찬가지로 오래전에 잊힌 병의 첫 증상에 대해서도 설명을 찾아내야 한다. 그리고 첫 증상의 문제가 오늘의 더 급박한 문제보다 풀기 쉽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일찍이 1895년에 펴낸 『히스테리 연구(Studien über Hysterie)』에서 나는, 마흔이 넘은 한 여성 환자가 열다섯 살 되던 해에 겪은 첫 히스테리성 불안 발작의 해명을 보고할 수 있었다.[5]

이제 꿈 해석에 관해 격식 없이 몇 가지 소견을 더 늘어놓아도 좋겠다. 자기 꿈을 분석해 내 주장을 검증해 보려는 독자에게 어쩌면 도움이 될 것이다.

자기 꿈의 해석이 아무 수고 없이 하룻밤 사이에 저절로 찾아오리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내시(內視) 현상이나, 평소 주의에서 벗어나 있는 그 밖의 감각을 지각하는 데에도 연습이 필요하다. 이런 지각에는 어떤 심리적 동기도 맞서지 않는데도 그렇다. 「원치 않는 표상」을 다스리기란 그보다 훨씬 어렵다. 그렇게 하려는 사람은 이 논고에서 내세운 요구를 채워야 한다. 여기서 제시한 규칙을 따라, 작업하는 동안 그는 자기 안의 모든 비판, 모든 편견, 모든 감정적 또는 지적 편향을

억누르려 애쓸 것이다. 우리는 생리학 실험실의 실험자에게 준 클로드 베르나르의 계율 「Travailler comme une bête〔짐승처럼 일하라〕」를 언제나 마음에 새길 것이다. 곧 짐승만큼 끈질기되 결과에도 짐승만큼 무심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 권고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이 과제가 분명 더는 어렵지 않을 것이다. 꿈 해석은 언제나 한자리에서 끝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생각의 사슬을 따라가다 보면 작업 능력이 바닥났다고 느낄 때가 많다. 그날은 꿈이 더는 아무것도 알려 주지 않는다. 그럴 때는 작업을 멈추고 다음 날 다시 돌아오는 것이 가장 좋다. 그러면 꿈 내용의 다른 부분이 주의를 끌고, 그렇게 해서 꿈 사고의 새로운 층으로 들어가는 입구를 찾게 된다. 이것을 꿈의 「분할」 해석이라고 부를 수 있겠다.

꿈 해석을 처음 하는 사람에게, 꿈의 모든 요소를 설명하는 재치 있고 앞뒤가 이어진 완전한 해석을 손에 넣었다 해도 과제가 끝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하기란 무척 어렵다. 그 해석 말고도, 그가 미처 보지 못한 같은 꿈의 또 다른 해석이 그 위에 겹쳐 있을 수 있다. 우리 마음속에서 표현되려고 애쓰는 무의식적 생각의 흐름이 얼마나 풍부한지 짐작해 보기란 참으로 간단하지 않다. 동화 속 떠돌이 재봉사처럼, 꿈 작업이 여러 뜻을 품은 표현 방식으로 말하자면 한 방에 파리 일곱 마리를 잡는 솜씨를 믿기란 더욱 그렇다. 독자는 저자가 쓸데없이 재주를 낭비한다고 줄곧 나무라고 싶어지겠지만, 스스로 경험해 본 사람은 누구든 생각을 고치게 될 것이다.

모든 꿈을 해석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는 아니라고 답할 수 있다. 해석 작업에서는 꿈의 왜곡을 일으킨 심리적 힘들과 맞서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지적 관심과 자제력, 심리학적 지식, 꿈 해석의 숙련으로 내면의 저항을 다스릴 수 있느냐는 결국 힘의 우열 문제가 된다. 어느 정도 나아가는 것은 언제나 가능하다. 적어도 꿈이 재치 있는

구조물이라는 것을 확신할 만큼은, 대개는 그 뜻을 짐작할 만큼은 나아갈 수 있다. 두 번째 꿈이 첫 번째 꿈에 대해 세운 해석을 확증하고 이어 가는 일은 아주 흔하다. 몇 주나 몇 달에 걸쳐 이어지는 꿈 한 계열 전체가 공통의 바탕 위에 서 있고, 그래서 서로 연관 지어 해석해야 하는 일도 있다. 잇달아 꾼 꿈들에서는 한 꿈이 다음 꿈에서는 가장자리로만 암시되는 것을 중심점으로 삼거나, 아니면 바로 그 반대여서, 두 꿈이 해석에서 서로를 보완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다. 같은 밤에 꾼 여러 꿈을 해석할 때 아주 으레 하나의 전체로 다루어야 한다는 것은 이미 예를 들어 보였다.

가장 잘 해석된 꿈에서도 우리는 한 부분을 어둠 속에 남겨 두어야 할 때가 많다. 해석해 보면 그 부분이 꿈 사고의 엉킨 실타래가 시작되는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 실타래는 풀어낼 수 없지만 꿈 내용에 새로 보탠 것도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꿈의 쐐기돌, 곧 꿈이 미지의 것 속으로 솟아오르는 자리다. 해석에서 마주치는 꿈 사고는 대개 끝맺음 없이 남아 있을 수밖에 없고, 사방으로 뻗어 나가 우리 사고 세계의 그물처럼 얽힌 짜임 속으로 녹아들기 때문이다. 이 짜임의 어느 더 촘촘한 곳에서, 버섯이 균사체에서 돋아나듯 꿈 소원이 솟아오른다.

이제 꿈의 망각이라는 사실로 돌아가 보자. 우리는 거기서 중요한 결론 하나를 끌어내는 것을 정말로 소홀히 했다. 깨어 있는 생활이 밤에 형성된 꿈을 깨어난 직후 통째로, 또는 낮 동안 조각조각 잊으려는 뚜렷한 의도를 보이고, 이 망각에 주로 관여하는 것이 이미 밤에 꿈에 맞서 제 몫을 한 꿈에 대한 심리적 저항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이런 물음이 생긴다. 꿈 형성은 이 저항에 맞서 도대체 무엇을 해낸 것인가? 깨어 있는 생활이 꿈을 마치 없었던 일처럼 치워 버린 가장 두드러진 경우를 생각해 보자. 심리적 힘들의 작용을 고려하면, 저항이 낮에 그러하듯 밤에도 지배하고 있었다면 꿈은 결코 생겨나지

못했으리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저항이 밤 동안 힘의 일부를 잃는다고 결론짓는다. 저항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은 알고 있다. 왜곡을 만들어 내는 데서 저항이 꿈 형성에 관여한다는 것을 증명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저항이 밤에는 약해진다는 가능성, 저항이 이렇게 약해진 덕분에 꿈 형성이 가능해졌다는 가능성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 저항이 깨어나면서 온전한 힘을 되찾자마자, 힘을 잃고 있는 동안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을 곧바로 치워 버린다는 것도 쉽게 이해된다. 기술 심리학은 꿈 형성의 주된 결정 요인이 정신의 잠든 상태라고 가르친다. 이제 우리는 다음과 같은 해명을 덧붙일 수 있다. **수면 상태는 내심리적 검열을 약하게 함으로써 꿈 형성을 가능하게 한다.**

우리는 분명 이 결론을 꿈의 망각이라는 사실에서 끌어낼 수 있는 유일한 결론으로 여기고, 거기서 수면 상태와 깨어 있는 상태의 에너지 관계에 관한 추론을 더 펼쳐 나가고 싶은 유혹을 느낀다. 그러나 당분간은 여기서 멈추기로 하자. 꿈의 심리학 속으로 조금 더 깊이 파고들고 나면, 꿈 형성의 기원을 달리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꿈 사고가 의식에 이르지 못하게 막는 저항은 어쩌면 그 자체로는 조금도 약해지지 않은 채 따돌려질 수도 있다. 또 꿈 형성에 유리한 두 요인, 곧 저항의 약화와 저항의 따돌림이 수면 상태 덕분에 동시에 가능해진다는 것도 그럴듯하다. 그러나 여기서는 멈추고, 이 생각의 흐름은 나중에 이어 가기로 하자.

이제 살펴보아야 할, 우리의 꿈 해석 절차에 대한 또 다른 일련의 반론이 있다. 이 해석에서 우리는 평소에 숙고를 이끄는 목적 표상을 모두 내려놓고 꿈의 한 요소에 주의를 기울인 다음, 그와 관련해 우리에게 떠오르는 원치 않는 생각들을 적어 둔다. 그러고는 꿈 내용의 다음 구성 요소를 붙잡고 같은 작업을 되풀이한다. 생각이 우리를 어느

방향으로 데려가든 상관하지 않고 그 생각에 이끌려 가다 보면, 끝내 이 주제에서 저 주제로 헤매게 된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마침내 애쓰지 않고도 우리 꿈이 비롯한 꿈 사고와 마주치리라는 확신에 찬 희망을 품는다. 비판자는 이에 맞서 다음과 같이 반론한다. 꿈의 한 요소에서 출발해 어딘가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은 조금도 놀랍지 않다. 어떤 표상에든 무언가는 연상으로 이어 붙일 수 있다. 놀라운 것은 다만, 이렇게 목적 없고 자의적인 생각의 나들이에서 꿈 사고를 용케 맞힌다는 점이다. 그것은 아마 자기기만일 것이다. 연구자는 한 요소에서 연상의 사슬을 따라가다가 어떤 이유로 그 사슬이 끊기는 것이 보이면 두 번째 요소를 붙잡는다. 그러니 처음에는 한없이 뻗어 나가던 연상이 이제 좁아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는 앞의 연상 사슬을 기억하고 있으므로, 분석에서 첫 사슬의 생각들과 무언가 공통점이 있는 어떤 생각들을 더 쉽게 만나게 된다. 그러고는 꿈의 두 요소 사이의 연결점을 나타내는 생각을 찾아냈다고 상상한다. 게다가 그는 정상적인 사고에서 이루어지는, 한 표상에서 다른 표상으로 넘어가는 이행만 빼고는 생각을 잇는 데 온갖 자유를 허락하므로, 일련의 「중간 사고」로 자기가 꿈 사고라고 부르는 무언가를 꾸며 내는 것은 결국 어렵지 않다. 그리고 그 중간 사고들은 달리 알려진 바가 없으므로, 그는 아무런 보증도 없이 그것을 꿈의 심리적 등가물이라며 내놓는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는 자의적인 방법과, 우연을 지나치게 재치 있게 이용하는 일이 따라붙는다. 이런 쓸데없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이런 식으로 어떤 꿈에서든 원하는 해석을 얼마든지 짜낼 수 있다.

실제로 이런 반론이 우리에게 제기된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변호하며 다음과 같은 것들을 내세울 수 있다. 우리의 꿈 해석이 서로 들어맞는다는 것, 개별 표상을 하나하나 따라가다 보면 다른 꿈 요소들과 놀라운 연관이 드러난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꿈 해석처럼

꿈을 그토록 완벽하게 덮고 설명하는 것을 앞서 확립된 심리적 연관을 따라가는 것 말고 다른 방법으로 얻을 수 있으리라고는 도무지 생각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꿈 분석의 방법이 히스테리 증상을 풀 때 쓰는 방법과 같다는 사실로도 우리를 정당화할 수 있다. 히스테리 증상에서는 증상이 나타났다 사라지는 것으로 방법의 올바름이 입증된다. 곧 끼워 넣은 삽화가 본문의 해명을 확증해 준다. 그러나 우리가 이 문제, 곧 이렇게 자의적이고 목적 없이 자아낸 생각의 사슬을 따라가서 어떻게 미리 정해진 목표에 이를 수 있느냐는 문제를 피해 갈 까닭은 없다. 우리는 이 문제를 풀 수는 없지만, 문제 자체를 완전히 없앨 수는 있기 때문이다.

꿈 해석에서처럼 숙고를 내려놓고 원치 않는 표상이 떠오르게 내버려 둘 때 우리가 목적 없는 생각의 흐름에 몸을 맡긴다는 주장은, 사실 틀렸음을 증명할 수 있다. 우리가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익숙한 목적 표상뿐이며, 이것이 멈추자마자 미지의, 더 정확히 말하면 무의식적인 목적 표상이 곧바로 작동하기 시작하여 이제 원치 않는 표상들의 흐름을 결정한다는 것을 보여 줄 수 있다. 목적 표상이 없는 사고방식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정신생활에 미칠 수 있는 어떤 영향으로도 결코 만들어 낼 수 없다. 또 그런 사고방식이 자리 잡는 정신착란 상태도 나는 알지 못한다. 정신과 의사들은 이 분야에서 심리적 구조의 견고함을 너무 일찍 내버렸다. 목적 표상이 없는 무질서한 생각의 흐름은, 꿈의 형성이나 풀이에서와 마찬가지로 히스테리와 편집증의 영역에서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확인했다. 어쩌면 그런 흐름은 내인성 정신 질환에서는 아예 나타나지 않을지도 모른다. 혼란 상태의 섬망조차 뢰레의 재기 넘치는 이론에 따르면 의미를 지니며, 빠진 부분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뿐이다. 관찰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나도 같은 확신에 이르렀다. 섬망은 제 지배를 더는 숨기려 애쓰지 않는 검열이 해 놓은 일이다. 이 검열은 더는 자기에게 거슬리지

않는 손질을 거들어 주는 대신 자기가 반대하는 것을 사정없이 지워 버리고, 그 때문에 남은 것은 앞뒤 없이 보이게 된다. 이 검열은 러시아 국경의 신문 검열관과 비슷하게 행동한다. 그 검열관은 자기가 보호하는 독자들의 손에 검은 연필이 지나간 외국 신문만 들어가게 한다.

어떤 연상의 사슬이든 따라가는 표상들의 자유로운 유희는 아마 파괴적인 기질적 뇌 병변에서나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정신신경증에서 그렇게 여겨지는 것은 언제나, 숨은 목적 표상이 전면으로 밀어낸 일련의 생각에 검열이 미친 영향으로 설명할 수 있다.[6] 떠오르는 표상들(또는 영상들)이 이른바 피상적 연상, 곧 소리의 닮음, 낱말의 이중 의미, 내적인 의미 관계 없는 우연한 결합으로 서로 이어져 있을 때, 다시 말해 우리가 재담과 말장난에서 쓰기를 스스로 허락하는 온갖 연상으로 이어져 있을 때, 그것은 목적 표상에서 풀려난 연상의 틀림없는 표지로 여겨져 왔다. 이 구별 표지는 꿈 내용의 요소들에서 곁가지로, 곁가지에서 본래의 꿈 사고로 우리를 이끄는 생각의 연결에 들어맞는다. 그 놀라운 예를 우리는 꿈 분석에서 숱하게 발견했다. 거기서는 한 생각에서 다른 생각으로 건너가는 다리가 되기에 너무 느슨한 연결도, 너무 고약한 재담도 없었다. 그러나 이런 너그러움을 올바로 이해하는 길은 멀리 있지 않다. 하나의 심리적 요소가 다른 요소와 거슬리거나 피상적인 연상으로 이어져 있을 때에는 언제나, 둘 사이에 검열의 저항에 굴복하는 올바르고 더 깊은 연결도 존재한다.

피상적 연상이 우세한 까닭을 올바로 설명하는 것은 목적 표상의 억제가 아니라 검열의 압력이다. 검열이 정상적인 연결 통로를 지나갈 수 없게 만들 때마다, 표상 속에서 피상적 연상이 깊은 연상을 밀어내고 그 자리를 차지한다. 그것은 마치 산악 지방에서 전반적인 교통 두절, 이를테면 홍수 때문에 길고 넓은 간선 도로를 지나갈 수 없게 되어,

평소에는 사냥꾼이나 다니는 불편하고 가파른 오솔길로 교통을 이어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과 같다.

여기서 우리는 두 경우를 구별할 수 있지만, 둘은 본질적으로 하나다. 첫째 경우에 검열은 두 생각의 연결에만 향하고, 두 생각은 서로 떨어져 나와 반대를 피한다. 그러면 두 생각은 차례로 의식에 들어오고 그 연결은 가려진 채 남는데, 그 대신 달리는 생각지도 못했을 둘 사이의 피상적 연결이 우리에게 떠오른다. 이 피상적 연결은 대개, 억제되었으나 본질적인 연결을 낳은 표상 복합체의 모서리가 아니라 다른 모서리에 붙어 있다. 둘째 경우에는 두 생각 모두 그 내용 때문에 검열에 굴복한다. 그러면 두 생각은 올바른 형태가 아니라 변형되어 대체된 형태로 나타나며, 대체된 두 생각은 자기들이 대신한 생각들 사이에 있던 본질적 관계를 피상적 연상으로 나타내도록 골라진다. 그러므로 두 경우 모두, 검열의 압력 아래 정상적이고 긴요한 연상이 피상적이고 겉보기에 부조리한 연상으로 전치되는 일이 일어난 것이다.

이 전치를 알고 있기에 우리는 꿈 분석에서 피상적 연상에도 서슴없이 기댄다.[7]

신경증 환자의 정신분석은 두 가지 공리를 풍성하게 활용한다. 첫째, 의식적 목적 표상을 내려놓으면 표상의 흐름을 지배하는 힘이 숨은 목적 표상에게로 넘어간다는 것, 둘째, 피상적 연상은 억제된 더 깊은 연상을 대신하는 전치일 뿐이라는 것이다. 아니, 정신분석은 이 두 공리를 제 기법의 기둥으로 삼는다. 환자에게 숙고를 모두 떨쳐 버리고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무엇이든 말해 달라고 청할 때, 나는 그가 치료라는 목적 표상을 내려놓을 수 없으리라는 전제를 굳게 붙든다. 그리고 그가 말하는 것이 아무리 무해하고 자의적으로 보여도 이 병적 상태와 연관이 있다고 결론 내릴 자격이 있다고 느낀다. 환자가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또 하나의 목적 표상은 나 자신의 인격이다. 따라서 이 두 해명을 온전히

평가하고 자세히 증명하는 일은 치료 방법인 정신분석 기법을 서술하는 일에 속한다. 여기서 우리는 인접한 주제 가운데 하나에 이르렀는데, 우리는 이런 주제에 닿는 곳에서 꿈 해석이라는 주제를 떠나려 한다.[8]

모든 반론 가운데 옳은 것, 그리고 여전히 남는 것은 하나뿐이다. 해석 작업에서 일어나는 정신적 사건을 모두 밤의 꿈 작업에 돌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깨어 있는 상태에서 해석할 때 우리는 꿈 요소에서 꿈 사고로 거슬러 올라가는 길을 낸다. 꿈 작업은 반대 방향으로 길을 냈는데, 이 길들이 거꾸로도 똑같이 지나갈 수 있으리라고는 도무지 생각하기 어렵다. 오히려 낮 동안 우리는 새로운 생각의 연결로 중간 사고와 꿈 사고에 이곳저곳 다른 자리에서 가닿는 길을 낸다는 것이 드러났다. 낮의 새로운 생각 재료가 어떻게 해석의 무리 속에 자리를 잡는지, 그리고 아마 밤사이 더해진 저항까지 새롭고 더 먼 우회로를 내도록 몰아붙이는지 우리는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낮에 자아내는 곁가지의 수와 형태는, 그것이 찾고자 하는 꿈 사고로 가는 길을 열어 주기만 한다면 심리학적으로 전혀 문제 되지 않는다.

(나) 퇴행

이제 반론에 맞서 방비를 갖추었거나, 적어도 방어의 무기가 어디에 놓여 있는지는 가리켜 보였으니, 그토록 오래 준비해 온 심리학적 탐구에 들어서는 일을 더는 미룰 필요가 없다. 지금까지 탐구해 얻은 주요 결과를 한데 모아 보자. 꿈은 중대한 심리 행위이며, 그 추진력은 언제나 소원을 이루려는 것이다. 꿈이 소원이라는 것을 알아볼 수 없다는 점, 그리고 꿈의 숱한 특이성과 부조리는 꿈이 형성되는 동안 받은 심리적 검열의 영향에서 비롯한다. 이 검열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압박 말고도, 심리적 재료를 압축하려는 강한 경향, 심상으로의 극화에

대한 고려, 그리고 (늘 그런 것은 아니지만) 꿈 구조물에 합리적이고 이해할 수 있는 겉모습을 입히려는 고려가 꿈의 형성에 한몫했다. 이 명제들 하나하나에서 길은 더 나아가 심리학적 요청과 가정으로 이어진다. 그러므로 소원 동기와 네 조건 사이의 상호 관계, 그리고 네 조건이 서로 맺는 관계를 탐구해야 할 것이며, 꿈을 정신생활과 연관 지어야 할 것이다.

이 장 첫머리에서 우리는 아직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들을 떠올리려고 꿈 하나를 인용했다. 이 불타는 아이 꿈의 해석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의미에서 완전하게 주어지지는 않았지만, 우리에게 아무런 어려움도 주지 않았다. 우리는 아버지가 도대체 왜 깨어나지 않고 꿈을 꾸어야 했는지 스스로 물었고, 아이를 살아 있는 모습으로 나타내려는 소원을 꿈의 유일한 동기로 알아보았다. 여기에 또 다른 소원 하나가 한몫하고 있었다는 것은 나중의 논의를 거친 뒤에 보여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당분간은, 소원 성취를 위해 수면 중의 정신 과정이 꿈으로 바뀌었다고 말해 두자.

소원 실현을 되돌려 놓으면, 두 형태의 심리적 사건을 서로 가르는 성질은 이제 하나만 남는다. 꿈 사고는 아마 이렇게 되어 있었을 것이다. 「시신이 누워 있는 방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 나오는 것이 보인다. 어쩌면 촛불이 넘어져 아이가 불타고 있다!」 꿈은 이 숙고의 결과를 바꾸지 않고 전하되, 그것을 현재에 일어나며 깨어 있을 때의 체험처럼 감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상황 속에 표현한다. 그런데 이것이야말로 꿈의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두드러진 심리학적 성격이다. 어떤 사고가, 대개는 바라던 사고가, 꿈에서는 객관화되어 장면으로, 또는 우리가 믿기로는 체험된 것으로 표현된다.

그렇다면 이제 꿈 작업의 이 특징적인 특이성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아니 좀 더 겸손하게 말해서, 이것을 심리 과정들과 어떻게

관련지어야 할까?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꿈이 드러내는 모습에 서로 거의 독립된 뚜렷한 성격이 두 가지 있다는 것이 분명히 보인다. 하나는 「어쩌면」을 빼고 현재의 상황으로 표현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고를 시각 영상과 말로 바꾼다는 것이다.

꿈 사고에서 일어나는 이 변형, 곧 꿈 사고에 담긴 기대를 현재로 옮겨 놓는 변형은 바로 이 꿈에서는 그다지 눈에 띄지 않을지도 모른다. 이는 아마 이 꿈에서 소원 성취가 맡는 특별한, 아니 오히려 부차적인 역할과 맞아떨어질 것이다. 잠 속에서 꿈 소원이 깨어 있을 때의 사고의 연장과 갈라지지 않는 다른 꿈, 이를테면 이르마의 주사 꿈을 들어 보자. 여기서 표현에 이르는 꿈 사고는 기원법으로 되어 있다. 「이르마의 병이 오토 탓이라면 좋으련만!」 꿈은 기원법을 지워 버리고 그 자리에 단순한 현재형을 놓는다. 「그래, 이르마의 병은 오토 탓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왜곡되지 않은 꿈조차 꿈 사고에 가하는 변화 가운데 첫째 것이다. 그러나 꿈의 이 첫째 특이성에 오래 머무르지는 않겠다. 의식적 공상, 곧 백일몽을 끌어와 이것을 밝혀 두자. 백일몽도 제 표상 내용을 이와 비슷하게 다룬다. 도데의 주아외즈 씨는 딸에게는 자기가 일자리가 있어 사무실에 나가 있는 줄로 믿게 해 두고 일자리 없이 파리 거리를 헤매는데, 그러면서 그 역시 자기에게 후원과 일자리를 얻게 해 줄지도 모를 사정을 현재형으로 꿈꾼다. 그러므로 꿈은 백일몽과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현재형을 쓴다. 현재형은 소원이 이루어진 것으로 표현되는 시제다.

그러나 둘째 성질은 백일몽과 구별되는, 꿈 특유의 것이다. 곧 표상 내용이 생각되는 것이 아니라 지각할 수 있는 이미지로 바뀌고, 우리는 그 이미지를 믿으며 그것을 체험한다고 믿는다는 것이다. 다만 모든 꿈이 표상을 지각할 수 있는 이미지로 바꾸는 이 변형을 보여 주지는

않는다는 것을 덧붙여 두자. 오로지 사고로만 이루어진 꿈들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꿈들이 꿈으로서 지니는 실질을 부정할 수는 없다. 내 꿈 「Autodidasker — N. 교수에 관한 깨어 있을 때의 공상」이 그런 성질의 것이다. 이 꿈에는 그 내용을 내가 낮 동안 생각했다고 할 때보다 지각할 수 있는 요소가 거의 더 들어 있지 않다. 게다가 긴 꿈에는 어느 것에나, 지각할 수 있는 것으로 바뀌지 않은 채 우리가 깨어 있는 상태에서 흔히 생각하거나 알듯이 그저 생각되거나 알려질 뿐인 요소들이 들어 있다. 또 표상이 지각할 수 있는 이미지로 바뀌는 이런 변형은 꿈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할 때 저절로 나타날 수도 있고 정신신경증의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환각과 환영에서도 일어난다는 것을 여기서 떠올려 볼 수 있다. 한마디로, 우리가 여기서 살피는 관계는 결코 배타적인 것이 아니다. 그래도 꿈의 이 성격이 나타나는 곳에서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주목할 만한 것으로 보여서 꿈 생활과 떼어서는 생각할 수 없다는 사실은 그대로 남는다. 그러나 그것을 설명하려면 아주 자세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 분야의 권위자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꿈 이론에 관한 모든 소견 가운데, 나는 언급할 만한 것으로 하나를 강조하고 싶다. 위대한 G. Th. 페히너[25]는 꿈에 할애한 몇몇 논의와 관련하여, 꿈의 자리가 깨어 있을 때의 표상 활동과는 다른 곳에 있다는 믿음을 밝힌다(『정신물리학 원론(Psychophysik)』, 제2부, 520쪽). 다른 어떤 이론으로도 꿈 생활의 특별한 성질을 파악할 수 없다.

우리 손에 주어지는 관념은 심리적 장소라는 관념이다. 여기서 다루는 심리 장치가 해부학적 표본으로도 우리에게 알려져 있다는 사실은 아예 무시하기로 하고, 심리적 장소를 어떤 식으로든 해부학적으로 규정하려는 유혹은 조심스럽게 피하기로 하자. 우리는 심리학의 땅 위에 머물 것이며, 심리 활동에 쓰이는 장치를 복합 현미경이나 사진기, 또는

그 밖의 비슷한 장치 같은 것으로 떠올려 보라는 요구만을 받았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렇다면 심리적 장소는 그런 장치 안에서 영상의 일차 요소 가운데 하나가 생겨나는 자리에 해당한다. 잘 알려져 있듯이, 현미경과 망원경에는 장치의 손에 잡히는 부분이 하나도 놓여 있지 않은, 어느 정도는 상상의 것인 장소나 영역이 있다. 이 비유와 그 밖의 비슷한 모든 비유가 불완전하다고 사과하는 것은 쓸데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비교들은 심리 활동을 분해하여 개별 활동을 장치의 개별 구성 부분에 하나하나 돌림으로써 심리 활동의 복잡함을 알기 쉽게 하려는 우리의 시도를 거들기 위한 것일 뿐이다. 내가 아는 한, 이런 분석으로 심리 장치의 짜임새를 밝혀내려는 시도를 감행한 사람은 아직 아무도 없다. 나는 그런 시도에서 해로울 것이 없다고 본다. 냉정한 판단을 잃지 않고 비계를 건물로 착각하지만 않는다면 우리의 가정에 마음껏 고삐를 풀어 주어도 된다고 나는 믿는다. 미지의 대상에 처음 다가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보조 관념뿐이므로, 우리는 가장 조잡하고 가장 손에 잡히는 가설을 다른 어떤 가설보다 앞세울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심리 장치를 하나의 복합 장치로 생각하고, 그 구성 부분을 심급, 또는 명료함을 위해 체계라고 부르기로 하자. 그러면 이 체계들이 어쩌면 망원경의 여러 렌즈계처럼 앞뒤로 차례차례 놓여 서로 일정한 공간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리라는 기대를 품게 된다. 엄밀히 말하면 심리 체계가 실제로 공간적으로 배열되어 있다고 가정할 필요는 없다. 어떤 심리학적 사건들에서 흥분이 일정한 시간 순서에 따라 체계를 거쳐 간다는 사실로 확고한 순서가 세워지기만 하면 우리의 목적에는 충분하다. 다른 과정들에서는 이 순서가 바뀔 수도 있는데, 그런 가능성은 열어 두어도 좋다. 간결하게 말하기 위해, 이제부터 장치의 구성 부분을 「Ψ-체계」라고 부르겠다.

맨 먼저 눈에 띄는 것은 Ψ-체계로 이루어진 이 장치에 방향이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의 모든 심리 활동은 (내적 또는 외적) 자극에서 출발해 신경 자극으로 끝난다. 그래서 우리는 장치에 감각 말단과 운동 말단을 부여한다. 감각 말단에는 지각을 받아들이는 체계가 있고, 운동 말단에는 운동성의 수문을 여는 또 다른 체계가 있다. 심리 과정은 대체로 지각 말단에서 운동 말단으로 흘러간다. 그러므로 심리 장치의 가장 일반적인 도식은 다음과 같은 모양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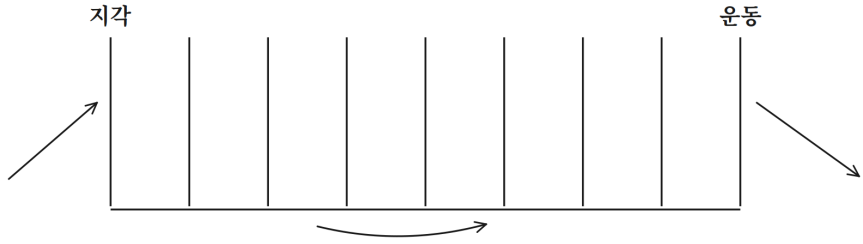


그림 1.

그러나 이것은 심리 장치가 반사 장치처럼 짜여 있어야 한다는, 우리에게 오래전부터 익숙한 요구를 따른 것일 뿐이다. 반사 행위는 모든 심리 활동의 본보기로 남는다.

이제 우리에게는 감각 말단에서 첫 분화를 인정할 이유가 있다. 우리에게 들어오는 지각은 우리 심리 장치 안에 흔적을 남기는데, 이것을 「기억 흔적」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 기억 흔적과 관계되는 기능을 우리는 기억이라 부른다. 심리 과정을 체계들에 결부시키겠다는 결심을 진지하게 지킨다면, 기억 흔적은 체계의 요소들에 생긴 지속적인 변화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이미 다른 곳에서 밝혀졌듯이, 하나의 같은 체계가 제 요소에 생긴 변화를 충실히 간직하면서 동시에 여전히 새것 그대로 남아 변화를 일으키는 새로운 동기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면 뻔한 어려움이 생긴다. 우리의 시도를 이끄는 원칙에 따라,

우리는 이 두 활동을 서로 다른 두 체계에 나누어 맡기겠다. 장치의 첫째 체계는 지각 자극을 받아들이되 그 가운데 아무것도 간직하지 않는다고, 즉 기억이 없다고 가정하자. 그리고 그 뒤에 첫째 체계의 순간적인 흥분을 지속적인 흔적으로 바꾸는 둘째 체계가 놓여 있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우리 심리 장치의 도식은 이렇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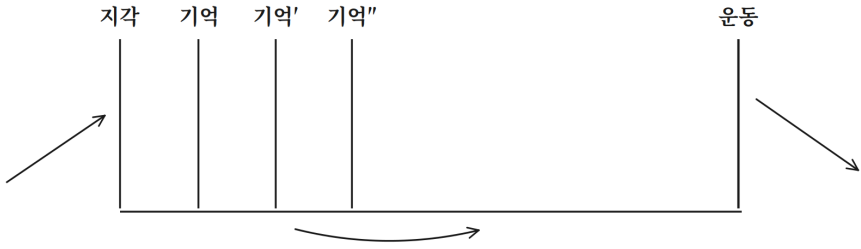


그림 2.

지각 체계에 작용하는 지각에서 우리가 그 내용 자체 말고도 그만큼 지속적인 다른 무언가를 간직한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우리의 지각은 기억 속에서 서로 이어져 있는 것으로 드러나며, 한때 동시에 일어났던 지각들은 특히 그렇다. 우리는 이것을 연상이라는 사실이라 부른다. 그런데 지각 체계에 기억이 전혀 없다면 연상을 위한 흔적도 간직할 수 없으리라는 것은 이제 분명하다. 예전 연결의 잔재가 새로운 지각에 맞서 영향을 미친다면, 개별 지각 요소는 제 기능에서 견딜 수 없을 만큼 방해를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히려 기억 체계가 연상의 토대라고 가정해야 한다. 그렇다면 연상이라는 사실은 이런 데 있다. 저항이 줄어들고 길이 닦인 결과, 흥분이 기억 요소 가운데 하나에서 셋째 기억 체계보다는 둘째 기억 체계로 전해진다는 것이다.

더 살펴보면, 그런 기억 체계를 하나가 아니라 여럿 가정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지각 요소들이 퍼뜨린 같은 흥분이 이 체계들 속에서 여러 가지로 고정된다. 이 기억 체계들 가운데 첫째 것은 어쨌든

동시성에 따른 연상을 고정해 담고 있을 것이며, 더 멀리 놓인 체계들에서는 같은 흥분 재료가 다른 형태의 합치에 따라 배열될 것이다. 그래서 유사성 따위의 관계가 어쩌면 이 뒤쪽 체계들로 표현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체계의 심리적 의미를 말로 전하려는 시도는 물론 부질없을 것이다. 그 특징은 기억의 원재료 요소들과 맺는 관계가 얼마나 긴밀한가에, 더 깊은 이론을 가리키고자 한다면 이 요소들을 향한 전도 저항이 어떤 등급을 이루는가에 있을 것이다.

여기서, 어쩌면 무언가 중요한 것을 가리킬지도 모르는 일반적인 소견 하나를 끼워 넣어도 되겠다. 변화를 간직하는 능력이 없고 따라서 기억도 없는 지각 체계는 우리 의식에 감각적 성질의 온갖 다양성을 가져다준다. 반면에 우리의 기억은 그 자체로는 무의식적이며, 가장 깊이 새겨진 기억도 예외가 아니다. 기억은 의식될 수 있지만, 무의식 상태에서 제 영향을 모두 펼친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우리가 성격이라 부르는 것은 분명 우리가 받은 인상의 기억 흔적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그것도 우리에게 가장 강하게 작용한 인상, 곧 아주 어린 시절의 인상, 거의 한 번도 의식되지 않는 그 인상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러나 기억이 다시 의식될 때에는 지각과 비교해 감각적 성질을 전혀 보이지 않거나 아주 조금만 보인다. 이제 Ψ-체계 안의 의식에 관한 한 기억과 성질은 서로를 배제한다는 것이 확인될 수 있다면, 뉴런 흥분을 결정하는 요인들에 대해 매우 유망한 통찰이 우리에게 열린다.

지금까지 감각 말단에서 심리 장치가 어떻게 짜여 있는지에 관해 가정한 것은 꿈과도, 꿈에서 끌어낸 심리학적 설명과도 상관없이 나온 것이다. 그러나 꿈은 장치의 다른 부분을 아는 데 증거의 원천이 되어 준다. 두 심리적 심급을 감히 가정하지 않고서는 꿈 형성을 설명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다. 그 가운데 한 심급은 다른 심급의

활동을 비판에 부치며, 그 비판의 결과로 의식에서 배제되는 일이 생긴다.

우리가 보았듯이, 비판하는 심급은 비판받는 심급보다 의식과 더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다. 앞의 것은 칸막이처럼 뒤의 것과 의식 사이에 서 있다. 게다가 우리는 비판하는 심급을, 우리의 깨어 있는 생활을 이끌고 의지에 따른 의식적 행동을 결정하는 심급과 동일시할 본질적인 근거를 찾아냈다. 이제 우리 이론을 전개하면서 이 심급들을 체계로 바꾸어 놓는다면, 방금 말한 사실 때문에 비판하는 체계는 운동 말단 쪽에 두어야 한다. 이제 두 체계를 우리의 도식에 그려 넣고, 거기 붙인 이름으로 두 체계가 의식과 맺는 관계를 나타내기로 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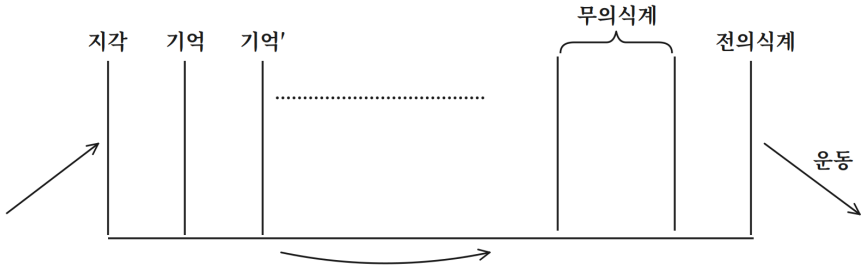


그림 3.

운동 말단 쪽의 체계들 가운데 마지막 것을 우리는 전의식이라 부른다. 이 체계 안의 흥분 과정이 다른 몇몇 조건만 채워지면, 이를테면 일정한 강도에 이르거나 주의라고 불러야 할 기능이 일정하게 배분되거나 하는 따위의 조건만 채워지면 더 지체하지 않고 의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려는 이름이다. 이 체계는 동시에 수의적 운동성의 열쇠를 쥐고 있는 체계이기도 하다. 그 뒤에 있는 체계를 우리는 무의식이라 부르는데, 이 체계는 전의식을 거치지 않고서는 의식에 다가갈 길이 없고, 전의식을 지나가는 동안 그 흥분이 어떤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꿈 형성의 충동을 우리는 이 체계들 가운데 어디에 자리매길 것인가? 단순하게 하기 위해, 무의식계(Unc.)에 자리매긴다고 해 두자. 물론 나중의 논의에서 우리는 이것이 아주 옳지는 않다는 것, 꿈 형성은 전의식 체계에 속하는 꿈 사고와 결부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중에 꿈 소원을 다룰 때 꿈의 추진력은 무의식계가 대준다는 것을 배우게 될 것이며, 이 후자의 움직임 때문에 우리는 무의식 체계를 꿈 형성의 출발점으로 가정할 것이다. 이 꿈의 충동은 다른 모든 사고 형성물과 마찬가지로 이제 전의식 안으로 자신을 이어 가고, 거기서부터 의식에 들어가려고 애쓸 것이다.

경험이 가르쳐 주듯이, 전의식에서 의식으로 가는 길은 낮 동안에는 검열의 저항 때문에 꿈 사고에 닫혀 있다. 밤이면 꿈 사고는 의식에 들어가는데,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어떤 변화 때문에 들어가는가 하는 물음이 생긴다. 무의식과 전의식의 경계를 지키는 저항이 밤에 가라앉는다는 사실 덕분에 꿈 사고가 의식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라면, 우리는 표상의 재료로 이루어진 꿈, 곧 지금 우리의 관심을 끄는 환각적 성격을 보이지 않는 꿈을 얻을 것이다.

두 체계, 곧 무의식계와 전의식계(Forec.) 사이의 검열이 가라앉는다는 것으로는 「Autodidasker」 같은 꿈만 설명할 수 있을 뿐, 지금 이 탐구의 첫머리에서 문제로 삼은 불타는 아이 꿈 같은 꿈은 설명할 수 없다.

환각적인 꿈에서 일어나는 일을 우리는, 흥분이 퇴행 경로를 밟는다고 말하는 것 말고는 달리 기술할 길이 없다. 흥분은 장치의 운동 말단이 아니라 감각 말단으로 옮겨 가, 마침내 지각 체계에 이른다. 심리 과정이 무의식에서 깨어 있는 상태로 이어져 나아가는 방향을 전진적이라고 부른다면, 꿈은 퇴행적 성격을 지닌다고 말할 수 있다.

이 퇴행은 분명 꿈 과정의 가장 중요한 특이성 가운데 하나다. 그러나 퇴행이 꿈에만 속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의도적인 회상과 우리의 정상적인 사고를 이루는 다른 과정들도, 심리 장치 안에서 어떤 복합적인 표상 행위로부터 그 밑바탕에 놓인 기억 흔적이라는 원재료로 거슬러 가는 퇴행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깨어 있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뒤로 돌아감은 기억 이미지 너머까지 이르지 못하며, 지각 이미지의 환각적 생생함을 만들어 내지 못한다. 꿈에서는 왜 이것이 다른가? 꿈의 압축 작업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표상들에 들러붙어 있는 강도가 꿈 작업을 거치며 하나에서 다른 하나로 온전히 전이된다고 가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지각 체계의 집중(occupation)이 사고와는 반대 방향으로 완전한 감각적 생생함에 이르기까지 일어날 수 있게 하는 것은, 아마 앞의 심리 과정에 일어난 이런 변경일 것이다.

지금 이 논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두고 우리가 조금도 스스로를 속이고 있지 않기를 바란다. 우리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 하나에 이름을 붙였을 뿐, 그 이상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꿈에서 표상이, 한때 그것이 생겨 나온 지각할 수 있는 이미지로 되바뀌면 우리는 그것을 퇴행이라 부른다. 그러나 이 한 걸음조차 정당화가 필요하다. 새로운 것을 하나도 가르쳐 주지 않는다면 무엇하러 이런 이름을 붙이는가? 그래도 나는 「퇴행(regression)」이라는 이름이, 우리에게 익숙한 사실 하나를 방향을 갖춘 심리 장치의 도식과 이어 준다는 점에서 쓸모가 있으리라고 믿는다. 이 대목에 와서 처음으로, 그런 도식을 세우는 것이 수고할 만한 일이 된다. 이 도식의 도움을 받으면 꿈 형성의 다른 어떤 특이성도 더 생각할 것 없이 분명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꿈을 우리가 가정한 심리 장치 안에서 일어나는 퇴행 과정으로 본다면, 꿈 사고의 정신적 관계는 모두 꿈 작업에서 사라지거나 힘겹게만 표현될 수 있다는, 경험으로 입증된 사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우리 도식에

따르면 이 정신적 관계들은 첫째 기억 체계들이 아니라 그보다 더 앞쪽에 놓인 체계들에 담겨 있으며, 퇴행 속에서 지각 이미지에 자리를 내주고 제 표현을 잃을 수밖에 없다. **꿈 사고의 구조는 퇴행 속에서 그 원재료로 분해된다.**

그러나 낮 동안에는 불가능한 이 퇴행을 어떤 변화가 가능하게 하는가? 여기서는 가정으로 만족하기로 하자. 개별 체계들에 딸린 에너지 충전에 틀림없이 어떤 변화가 있어서, 그 때문에 체계들이 흥분의 방출에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그런 장치라면 어느 것에서든, 흥분의 흐름에 미치는 같은 효과가 이런 변화의 여러 형태를 통해 생겨날 수 있다. 이것은 물론 수면 상태와, 이 상태가 장치의 감각 말단에 일으키는 숱한 에너지 변화를 떠올리게 한다. 낮 동안에는 지각의 Ψ-체계에서 운동성 쪽으로 끊임없이 흐르는 물줄기가 있다. 이 흐름은 밤에는 멎고, 흥분의 흐름이 반대 방향으로 흐르는 것을 더는 가로막지 않는다. 몇몇 저자의 이론에 따르면 꿈의 심리학적 성격을 설명해 준다는 저 「외부 세계로부터의 격리」가 바로 이것인 듯하다(1장 참조). 그러나 꿈의 퇴행을 설명하면서 우리는, 병적인 깨어 있는 상태에서 생겨나는 다른 퇴행들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 다른 형태들 앞에서는 방금 한 설명이 분명히 우리를 저버린다. 퇴행은 전진 방향의 감각 흐름이 끊임없이 이어지는데도 일어난다.

히스테리와 편집증의 환각, 그리고 정신이 정상인 사람들의 환영을 나는 실제로 퇴행에 해당하는 것, 곧 사실상 이미지로 바뀐 사고라고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변형을 겪는 것은 억제되었거나 무의식적인 기억과 긴밀하게 이어져 있는 사고뿐이다. 그 예로 내 히스테리 환자 가운데 가장 어린 축에 드는 열두 살 난 소년을 들겠다. 소년은 「붉은 눈을 한 초록 얼굴들」에 겁에 질려 잠들지 못했다. 이

현상의 원천은 억제되었지만 한때는 의식되었던 기억, 곧 그가 네 해 동안 자주 보았던 한 소년에 대한 기억이었다. 그 소년은 자위를 비롯한 어린아이의 숱한 나쁜 버릇에서 그에게 본받지 말아야 할 무서운 본보기였고, 그 버릇들은 이제 환자 자신이 스스로를 책망하는 거리가 되어 있었다. 환자의 어머니는 그때, 그 버릇없는 소년의 안색이 초록빛을 띠고 있으며 그 소년이 붉은(즉 가장자리가 붉은) 눈을 하고 있다는 것을 눈여겨보았다. 그 무서운 환영은 여기서 나왔으며, 그런 아이들은 정신이 이상해지고, 학교에서 공부가 늘지 않으며, 일찍 죽을 운명이라는 어머니의 경고를 끊임없이 그에게 일깨웠다. 이 어린 환자에게서 그 예측의 일부는 들어맞았다. 그는 중등학교 공부를 제대로 해 나가지 못했고, 그가 비의지적으로 떠올린 공상들을 살펴보니 드러났듯이 예언의 나머지 부분을 몹시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러나 짧은 기간의 치료가 성공을 거둔 뒤로 그는 다시 잠을 이루게 되었고 두려움을 떨쳤으며, 그 학년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쳤다.

여기에 마흔 살 된 히스테리 여성 환자가 자기의 정상적인 생활에서 겪은 일이라며 내게 들려준 환영 하나의 해석도 덧붙여 두겠다. 어느 날 아침 눈을 뜨자, 그녀는 정신병원에 수용되어 있는 줄로 알고 있던 남자 형제가 방 안에 있는 것을 보았다. 어린 아들이 그녀 곁에서 자고 있었다. 아이가 외삼촌을 보고 공포에 질려 경련을 일으키지 않도록 그녀는 홑이불을 끌어당겨 아이를 덮었다. 그렇게 하자 허깨비는 사라졌다. 이 환영은 그녀의 유년기 회상 하나를 고쳐 빚은 것이다. 그 회상은 의식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녀 마음속의 무의식적 재료 전체와 더없이 긴밀하게 이어져 있다. 그녀의 유모는 그녀에게, 젊어서 세상을 떠난 어머니가(환자는 그때 겨우 한 살 반이었다) 간질성 또는 히스테리성 경련을 앓았으며, 그 경련은 어머니의 남자 형제(환자의 외삼촌)가 머리에 홑이불을 뒤집어쓰고 유령으로 꾸며 어머니 앞에

나타났을 때 받은 공포에서 비롯되었다고 이야기해 주었다. 환영에는 회상과 똑같은 요소들, 곧 남자 형제의 출현, 홑이불, 공포, 그리고 그 결과가 들어 있다. 그러나 이 요소들은 다른 관계 속에 배열되어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이되어 있다. 생각을 대신하는 이 환영의 뚜렷한 동기는, 외삼촌을 꼭 빼닮은 어린 아들이 외삼촌과 같은 운명을 겪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다. 여기 든 두 예는 모두 수면과 전혀 관계가 없지는 않으므로, 내 주장의 증거로는 알맞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나는 환각성 편집증에 관한 나의 분석[9]과, 아직 발표하지 않은 정신신경증 심리학 연구의 결과를 끌어와, 이처럼 사고가 퇴행적으로 변형되는 경우에는 억제되었거나 무의식적인 회상, 대개는 유년기의 성격을 띤 회상의 영향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 기억은 말하자면, 자기와 이어져 있으면서 검열 때문에 표현되지 못하는 사고를 퇴행 속으로, 곧 그 기억 자체가 심리적으로 존재하는 표현 형식 속으로 끌어들인다. 히스테리 연구의 결과로서 여기서 한 가지 말해 두자면, 유년기 장면을 (기억이든 공상이든) 의식으로 되돌리는 데 성공하면 그 장면은 환각으로 보이며, 재현된 뒤에야 비로소 이 성격을 벗는다. 또 가장 이른 유년기의 기억은, 평소에는 기억이 시각적이지 않은 사람에게서도 늘그막까지 지각할 수 있을 만큼 생생하다는 성격을 간직한다는 것도 알려져 있다.

이제 유년기의 회상이나 그것에 바탕을 둔 공상이 꿈 사고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 회상의 조각들이 얼마나 자주 꿈 내용에 떠오르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얼마나 자주 꿈 소원을 낳기까지 하는지를 염두에 둔다면, 꿈에서도 사고가 시각 이미지로 바뀌는 것은 시각적으로 표현되어 있으면서 되살아나려고 애쓰는 회상들이, 의식에서 떨어져 나와 표현되려고 몸부림치는 사고들에 미치는 끌어당김의 결과일 수 있다는 개연성을 부정할 수 없다. 이 견해를 따르면, 꿈은 최근의 재료로

전이되어 생겨난, 유년기 장면의 변형된 대체물이라고도 기술할 수 있을 것이다. 유년기의 것은 스스로 되살아나기를 관철할 수 없으므로, 꿈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다.

유년기 장면(또는 그 장면의 공상적 반복)이 말하자면 꿈 내용의 본보기를 제공한다는 뜻에서 그 의의를 이렇게 가리켜 두면, 셰르너와 그 제자들이 세운 가정, 곧 내적인 흥분 원천이 있다는 가정은 쓸데없어진다. 셰르너는 꿈이 유난히 생생하거나 시각 요소가 유난히 풍부할 때 「시각적 흥분」의 상태, 곧 시각 기관 안의 내적 흥분 상태를 가정한다. 이 가정에 반대할 필요는 없으며, 그런 흥분 상태를 시각 기관의 심리적 지각 체계에 대해서만 인정하는 것으로 만족해도 된다. 다만 우리는 이 흥분 상태가 기억을 통해 만들어지며, 예전에 현재적이었던 시각적 흥분을 새로 되살린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겠다. 내 경험에서는 유년기 회상이 이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 주는 좋은 예를 들 수 없다. 내 꿈은 남들의 꿈이 그러리라고 내가 상상할 수밖에 없는 것보다 분명 지각할 수 있는 요소가 덜 풍부하다. 그러나 최근 몇 해 사이에 꾼 가장 아름답고 가장 생생한 꿈에서, 나는 꿈 내용의 환각적 선명함을 최근에 받은 인상들의 감각적 성격으로 쉽게 거슬러 올라가 설명할 수 있다. 6장 (사)에서 이야기한 꿈에서는 물의 어두운 푸른 빛깔, 배의 연통에서 피어오르는 연기의 갈색 빛깔, 그리고 내가 본 건물들의 음울한 갈색과 붉은색이 내 마음에 깊고 오래가는 인상을 남겼다. 어떤 꿈을 시각적 흥분 탓으로 돌려야 한다면 바로 이 꿈이다. 그런데 무엇이 내 시각 기관을 이렇게 흥분하기 쉬운 상태로 만들었는가? 그것은 앞선 일련의 인상과 결합한 최근의 인상이었다. 내가 본 색깔들은, 꿈꾸기 전날 내 아이들이 나더러 감탄하라고 웅장한 건물을 쌓아 올린 장난감 블록의 색깔이었다. 큰 블록들은 똑같은 음울한 붉은색으로, 작은 블록들은 똑같은 푸른색과 갈색으로 덮여

있었다. 여기에 지난번 이탈리아 여행에서 받은 색채 인상, 곧 이손초강과 석호 〔베네치아 라구나〕의 매혹적인 푸른빛, 알프스 지방의 갈색 색조가 이어져 있었다. 꿈에서 본 아름다운 색깔들은 기억 속에서 본 색깔들을 되풀이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꿈이 제 표상 내용을 조형적 이미지로 바꾸는 이 특이성에 관해 우리가 알게 된 것을 되짚어 보자. 우리는 꿈 작업의 이 성격을 설명하지도, 알려진 심리학 법칙으로 거슬러 올라가 밝히지도 못했다. 그러나 그것을 미지의 연관을 가리키는 것으로 따로 골라내어 「역행적」 성격이라는 이름으로 불렀다. 이 퇴행이 일어난 곳이면 어디서나 우리는 그것을, 사고가 의식으로 가는 정상적인 길을 따라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저항의 효과로, 그리고 거기 있는 생생한 기억들이 그 사고에 동시에 미치는 끌어당김의 결과로 보았다. 꿈에서는 낮 동안 감각 기관에서 흘러나오는 전진적 흐름이 멎는 덕분에 퇴행이 쉬워지는지도 모른다. 다른 형태의 퇴행에서는 이 보조 요인을 대신할 보상이, 퇴행의 다른 동기들이 강화되는 것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 병리적 퇴행의 경우에는 꿈에서와 마찬가지로 에너지 전이 과정이 정상적인 정신생활의 퇴행에서와는 달라야 한다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 과정이 지각 체계들의 완전한 환각적 집중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꿈 작업을 분석하면서 우리가 「표현 가능성에 대한 고려」라고 기술한 것은, 꿈 사고가 건드린, 시각적으로 기억된 장면들의 선택적 끌어당김으로 돌릴 수 있을 것이다.

꿈을 심리학적으로 활용하는 이 첫 부분이 우리 자신조차 온전히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우리는 어둠 속에서 쌓아 올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로 스스로를 위로해야 한다. 우리가 올바른 길에서 아주 벗어나지 않았다면, 다른 출발점에서

출발해도 틀림없이 거의 같은 곳에 이를 것이며, 그 뒤에는 어쩌면 앞길을 더 잘 내다볼 수 있을 것이다.

(다) 소원 성취

앞에서 인용한 불타는 아이 꿈은 소원 성취 이론이 부딪히는 어려움을 헤아려 볼 반가운 기회를 준다. 꿈이 소원 성취일 뿐이라는 것은 분명 우리 모두에게 이상하게 여겨졌다 — 그것도 불안 꿈이 내놓는 모순 때문만은 아니었다.

처음의 분석적 해명들에서 꿈 뒤에 뜻과 심리적 타당성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뒤로, 우리는 이 뜻이 그토록 단순하게 규정되리라고는 좀처럼 기대할 수 없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정확하지만 간결한 정의에 따르면, 꿈은 잠 속에서 (잠들어 있는 한에서) 이어지는 사고다. 낮 동안 우리의 사고가 판단, 추론, 반박, 기대, 의도 따위의 그토록 다양한 심리 행위를 낳는다는 것을 생각하면, 잠든 동안의 사고는 왜 소원을 낳는 일에만 매여 있어야 하는가? 오히려 다른 심리 행위, 이를테면 걱정을 꿈의 형태로 나타내는 꿈이 많지 않은가? 그리고 앞서 말한 아버지의 아주 투명한 꿈이야말로 바로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닌가? 아버지는 잠든 사이 눈에 비쳐 든 불빛을 보고, 촛불이 넘어져 시신에 불이 붙었을지도 모른다는 걱정스러운 결론을 끌어낸다. 그리고 이 결론에 현재 시제로 펼쳐지는, 감각에 와닿는 상황을 입혀 그것을 꿈으로 바꾼다. 이 꿈에서 소원 성취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느 쪽이 우세하다고 짐작해야 하는가? 깨어 있는 상태에서 이어진 사고인가, 아니면 새로운 감각 인상이 불러일으킨 사고인가?

이런 고려는 모두 정당하며, 꿈에서 소원 성취가 맡는 역할과, 잠 속으로 이어지는 깨어 있을 때의 사고가 지니는 의의를 더 깊이

파고들지 않을 수 없게 한다.

사실 우리가 꿈을 두 무리로 나누게 된 것도 이미 소원 성취 때문이었다. 우리는 드러내 놓고 소원 성취인 꿈들을 찾아냈고, 또 소원 성취를 알아볼 수 없고 흔히 갖은 수단으로 그것이 감추어져 있는 꿈들도 찾아냈다. 뒤의 부류에서 우리는 꿈 검열의 영향을 알아보았다. 위장되지 않은 소원 꿈은 주로 아이들에게서 발견되었지만, 잠깐 스쳐 가는 솔직한 소원 꿈이 어른에게서도 일어나는 것처럼 **보였다**(이 낱말은 일부러 강조했다).

이제 꿈에서 이루어지는 소원이 어디서 비롯하는지 물을 수 있다. 그런데 이 「어디서」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떤 대립, 또는 어떤 차이를 염두에 두는가? 내 생각에 그것은 의식적인 낮의 생활과, 무의식적인 채로 남아 밤에만 제 존재를 알릴 수 있는 심리 활동 사이의 대립이다. 그리하여 나는 소원의 기원에서 세 가지 가능성을 찾아낸다. 첫째, 소원은 낮 동안 일깨워졌으나 외적인 사정 때문에 충족을 얻지 못했을 수 있다. 그러면 인정은 받았으되 이루어지지 않은 소원이 밤으로 넘겨진다. 둘째, 소원은 낮 동안 떠올랐으나 물리쳐졌을 수 있다. 그러면 이루어지지 않았을뿐더러 억제된 소원이 남는다. 또는 셋째, 소원은 낮의 생활과 아무 관계가 없고, 밤중에 억제된 것에서 생겨나는 소원들에 속할 수도 있다. 이제 심리 장치에 관한 우리의 도식을 따른다면, 첫째 종류의 소원은 전의식계에 자리매길 수 있다. 둘째 종류의 소원은 전의식계에서 무의식계로 밀려났으며, 어딘가에서 버틸 수 있다면 오직 그곳에서만 버틸 수 있다고 가정해도 될 것이다. 한편 셋째 종류의 소원 충동은 무의식계를 아예 벗어날 수 없다고 우리는 본다. 그렇다면 이렇게 서로 다른 원천에서 생겨나는 소원들이 꿈에 대해 같은 가치를 지니는지, 꿈을 일으키는 힘도 같은지 하는 물음이 떠오른다.

이 물음에 답하려고 우리가 가진 꿈들을 훑어보면, 곧바로 꿈 소원의 넷째 원천으로 갈증이나 성욕처럼 밤중에 생겨나는 현재적 소원 자극을 덧붙이고 싶어진다. 그러고 나면 꿈 소원의 원천은 꿈을 일으키는 능력에 아무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해진다. 낮에 중단된 바다 여행을 꿈에서 이어 간 어린 소녀의 꿈과, 앞에서 말한 다른 아이들의 꿈이 이 견해를 뒷받침한다. 이 꿈들은 낮에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억제되지는 않은 소원으로 설명된다. 낮 동안 억제된 소원이 꿈에서 제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아주 많은 예로 보여 줄 수 있다. 이 부류에서 아주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 보겠다. 빈정거리기를 좀 좋아하는 한 젊은 여성이 있다. 그녀보다 어린 친구가 약혼을 하자, 그녀는 하루 내내 아는 사람들에게서 그 약혼자를 아느냐, 그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는다. 그녀는 아낌없는 칭찬으로 대답하면서 자기 판단은 입 밖에 내지 않는다. 사실은 진실을, 곧 그가 평범한 사람(Dutzendmensch)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데도 말이다.[10] 그날 밤 그녀는 같은 질문을 받고 「추가 주문 시에는 번호만 알려 주셔도 충분합니다」라는 상투 문구로 대답하는 꿈을 꾼다. 끝으로 우리는 수많은 분석에서, 왜곡을 겪은 모든 꿈에서 소원은 무의식에서 나온 것이며 깨어 있는 상태에서는 지각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을 배웠다. 그러니 모든 소원이 꿈 형성에 대해 같은 가치와 힘을 지니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사정이 실제로는 다르다는 것을 지금 나는 증명할 수 없다. 그러나 꿈 소원이 이보다 더 엄격하게 결정된다고 가정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다. 아이들의 꿈을 보면, 낮에 이루어지지 않은 소원이 꿈을 일으키는 장본인일 수 있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그것이 어디까지나 아이의 소원이며, 유년기의 힘을 지닌 소원 충동일 뿐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낮에 이루어지지 않은 소원이 어른에게 꿈을

만들어 내기에 충분할지 나는 몹시 의심스럽다. 오히려 우리가 지적 활동으로 충동을 다스리는 법을 배워 감에 따라, 어린 시절에는 자연스러운 그런 강렬한 소원을 만들어 내거나 품고 있는 일을 헛된 것으로 여겨 점점 더 물리치게 되는 것 같다. 물론 여기에는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유년기 유형의 심리 과정을 더 오래 간직한다. 여기서 보이는 차이는, 본래 또렷하던 시각적 상상이 차츰 쇠퇴해 가는 데서 볼 수 있는 차이와 같다.

그러나 대체로 나는, 낮에 이루어지지 않은 소원만으로는 어른에게 꿈을 만들어 내기에 모자란다고 생각한다. 의식 생활에서 비롯하는 소원 자극이 꿈을 일으키는 데 한몫한다는 것은 기꺼이 인정하지만, 아마 그것이 전부일 것이다. 전의식적 소원이 다른 원천에서 힘을 보강받지 않는다면 꿈은 생겨나지 않을 것이다.

그 원천은 무의식이다. 나는 의식적 소원은 자신을 강화해 줄 비슷한 무의식적 소원을 일깨우는 데 성공할 때에만 꿈의 유발 요인이 된다고 믿는다. 신경증의 정신분석에서 얻은 시사를 따라, 나는 이 무의식적 소원들이 언제나 활동하고 있어서 의식 생활에서 오는 충동과 결합할 기회를 찾기만 하면 언제든 표현될 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자신의 더 큰 강도를 그 충동의 더 작은 강도에 옮겨 준다고 믿는다.[11] 그래서 꿈에서는 의식적 소원만 실현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꿈의 형성에 나타나는 작은 특이점 하나가, 무의식에서 온 강력한 조력자의 자취로 우리를 이끌 것이다. 언제나 활동하며 말하자면 불멸인, 무의식에서 온 이 소원들은 전설 속의 티탄들을 떠올리게 한다. 까마득한 옛날 승리한 신들이 그들 위로 굴려 얹은 육중한 산들을 그때부터 줄곧 짊어지고 있으며, 억센 사지가 경련할 때마다 지금도 이따금 그 산들을 뒤흔드는 티탄들 말이다. 신경증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에서 배웠듯이, 억압 속에서 발견되는 이 소원들은 그 자체로 유년기에 기원을 둔다고 나는

말한다. 그러므로 나는 꿈 소원이 어디서 비롯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앞서 밝힌 견해를 거두어들이고, 다음과 같은 다른 견해로 바꾸고 싶다. 꿈에 나타나는 소원은 유년기의 소원이어야 한다. 그 소원은 어른에게서는 무의식계에서 비롯하는 반면, 전의식계와 무의식계 사이에 분리와 검열이 아직 없거나 이제 막 형성되는 중인 아이에게서는, 깨어 있는 상태에서 온,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억압되지 않은 소원이다. 이 견해를 일반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다는 것을 나도 안다. 그러나 이 견해는 짐작조차 하지 못한 곳에서도 자주 증명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반박할 수는 없다고 나는 주장한다.

그러므로 의식적인 깨어 있는 상태에서 남은 소원 충동은 꿈 형성에서 뒷전으로 밀려난다. 꿈 내용에서 나는 이 소원 충동에, 잠자는 동안의 현재적 감각이라는 재료에 돌린 몫만을 돌리려 한다(5장 (다) 참조). 이제 깨어 있는 상태에서 남은, 소원이 아닌 다른 심리적 자극들을 고려한다 해도, 나는 이 생각의 흐름이 내게 그어 준 노선을 지키기만 하면 될 것이다. 우리는 잠자리에 들기로 마음먹음으로써, 깨어 있을 때의 사고에 쓰이던 에너지 총량을 잠정적으로 끊어 내는 데 성공할 수도 있다. 이것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 잘 자는 사람이다. 나폴레옹 1세는 이런 사람의 본보기였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우리가 늘 이 일에 성공하는 것은 아니며, 늘 완벽하게 성공하는 것도 아니다. 풀리지 않은 문제, 시달리게 하는 근심, 압도적인 인상은 잠자는 동안에도 사고 활동을 이어 가게 하며, 우리가 전의식이라고 이름 붙인 체계 속에서 심리 과정을 유지한다. 잠 속으로 이어지는 이 정신 과정들은 다음 무리로 나눌 수 있다. 1, 우연한 방해 때문에 낮 동안 끝맺지 못한 것. 2, 정신력이 일시적으로 마비되어 끝내지 못한 채 남은 것, 즉 풀리지 않은 것. 3, 낮 동안 물리쳐지고 억제된 것. 여기에, 낮 동안 전의식의 작업으로 우리의 무의식계에서 흥분된 것이 이루는 강력한 무리 (4)가

합쳐진다. 끝으로 사소하고 그래서 처리되지 않은 채 남은 낮의 인상으로 이루어진 무리 (5)를 덧붙일 수 있다.

깨어 있는 삶의 이 잔재들이 잠 속으로 끌고 들어오는 심리적 강도를, 특히 풀리지 않은 것의 무리에서 나오는 강도를 얕잡아 보아서는 안 된다. 이 흥분들은 틀림없이 밤에도 표현되려고 계속 애쓴다. 그리고 수면 상태에서는 전의식 속에서 흥분이 평소처럼 이어지는 일도, 흥분이 의식되어 끝맺어지는 일도 불가능해진다고 그만큼 확실하게 가정할 수 있다. 우리가 밤에도 우리의 정신 과정을 정상적으로 의식할 수 있는 만큼, 그만큼 우리는 잠들어 있지 않은 것이다. 수면 상태가 전의식계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감히 말하지는 않겠다. 그러나 수면의 심리학적 성격이 본질적으로 바로 이 체계의 에너지 변화에서 비롯한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 체계는 운동성으로 들어가는 길목도 지배하는데, 잠자는 동안 이 운동성은 마비되어 있다. 이와 달리 꿈의 심리학에는, 수면이 무의식계의 상태에 이차적인 변화 말고 다른 변화를 일으킨다고 가정할 근거가 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 그러므로 전의식계 안의 밤의 흥분에는, 무의식계에서 오는 소원 흥분이 밟는 길 말고는 다른 길이 남아 있지 않다. 이 흥분은 무의식계에서 힘을 보강받아야 하고, 무의식적 흥분이 밟는 우회로를 따라가야 한다. 그렇다면 전의식적인 낮의 잔재(day remnants)는 꿈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낮의 잔재가 꿈속으로 풍부하게 침투하고, 꿈 내용을 이용해 밤에도 의식 앞에 억지로 나선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아니, 낮의 잔재는 때로 꿈 내용을 지배하기까지 하며, 낮의 작업을 이어 가도록 꿈 내용을 몰아붙인다. 또 낮의 잔재가 소원이라는 성격 말고 다른 어떤 성격이든 똑같이 지닐 수 있다는 것도 확실하다. 그러나 낮의 잔재가 꿈에 받아들여지려면 어떤 조건을 따라야 하는지 살펴보는 것은 몹시 유익하며, 소원 성취 이론에는 결정적이기까지 하다.

앞에서 예로 든 꿈 가운데 하나, 이를테면 내 친구 오토가 바제도병의 증상을 보이는 것 같은 꿈(5장 (라))을 골라 보자. 낮 동안 내 친구 오토의 모습이 나를 얼마간 걱정스럽게 했고, 이 걱정은 이 사람에 관한 다른 모든 일과 마찬가지로 내 마음을 흔들었다. 이런 감정이 잠 속까지 나를 따라왔다고 가정해도 될 것이다. 나는 아마 그에게 무슨 탈이 났는지 알아내려고 골몰해 있었을 것이다. 밤에 내 걱정은 내가 보고한 그 꿈으로 표현되었는데, 그 꿈의 내용은 무의미했을 뿐 아니라 소원 성취도 전혀 보여 주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낮에 느낀 걱정이 이렇게 어울리지 않게 표현된 원천을 캐기 시작했고, 분석이 그 연관을 드러내 주었다. 나는 내 친구 오토를 어떤 L. 남작과, 나 자신을 어떤 R. 교수와 동일시했다. 낮의 사고 대신 하필 이런 대체물을 고르도록 내가 떠밀린 데에는 설명이 하나밖에 없었다. 나는 무의식계에서 언제나 나 자신을 R. 교수와 동일시할 태세를 갖추고 있었음이 틀림없다. 그것은 불멸하는 유년기 소원 가운데 하나, 곧 위대해지려는 소원의 실현을 뜻했기 때문이다. 깨어 있는 상태였다면 틀림없이 물리쳤을, 내 친구에 대한 꺼림칙한 생각들이 이 기회를 틈타 꿈속으로 숨어들었지만, 낮의 걱정 역시 꿈 내용 속의 대체를 통해 나름의 표현을 얻었다. 그 자체로는 소원이 아니라 오히려 걱정이었던 낮의 사고는, 이제는 무의식적이고 억제된 유년기 소원과 어떻게든 연결되어야 했다. 그러면 그 소원이 이 낮의 사고를 — 물론 이미 알맞게 손질된 모습으로 — 의식에 대해 「생겨나게」 해 주었다. 이 걱정이 강하게 지배할수록 맺어야 할 연결도 그만큼 강해야 한다. 소원의 내용과 걱정의 내용 사이에는 아무 연관이 없어도 되며, 우리 예에서도 연관은 전혀 없었다.

이제 우리는 꿈에 대해 무의식적 소원이 지니는 의의를 날카롭게 규정할 수 있다. 꿈을 일으키는 자극이 주로, 또는 오로지 낮의 잔재에서 나오는 꿈이 한 부류를 이룬다는 것은 인정해도 좋다. 그리고 언젠가

「원외 교수」가 되고 싶다는 나의 간절한 욕망조차, 친구의 건강에 대한 걱정이 아직 활동하고 있지 않았다면 그날 밤 나를 방해받지 않고 잠들어 있게 내버려 두었으리라고 나는 믿는다. 그러나 이 걱정만으로는 꿈이 생겨나지 않았을 것이다. 꿈에 필요한 추진력은 소원이 대 주어야 했고, 그런 소원을 꿈의 추진력으로 제 손으로 구해 오는 것은 걱정이 할 일이었다. 비유로 말하자면, 낮의 사고가 꿈에서 기업가(entrepreneur) 역할을 하는 일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누구나 알다시피 기업가는 머릿속에 어떤 구상을 품고 있든, 그것을 실행에 옮기고 싶은 마음이 아무리 간절하든, 자본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는 필요한 비용을 치러 줄 자본가에게 기대야 한다. 그리고 꿈에 드는 심리적 비용을 대 주는 이 자본가는, 깨어 있을 때의 사고가 어떤 성질의 것이든, 언제나 그리고 틀림없이 무의식에서 온 소원이다.

다른 경우에는 자본가 자신이 꿈의 기업가가 된다. 사실 이쪽이 더 흔한 경우인 것 같다. 낮의 작업이 무의식적 소원을 불러일으키고, 이 소원이 다시 꿈을 만들어 낸다. 게다가 꿈 과정은 여기서 비유로 쓴 경제적 관계의 다른 모든 가능성과도 나란히 간다. 그러니까 기업가가 자본을 얼마간 스스로 댈 수도 있고, 여러 기업가가 같은 자본가의 도움을 구할 수도 있으며, 여러 자본가가 기업가에게 필요한 자본을 함께 댈 수도 있다. 이처럼 꿈 소원 둘 이상이 함께 만들어 내는 꿈도 있고 그와 비슷한 변형도 많지만, 이런 것들은 쉽게 건너뛸 수 있고 우리에게 더는 흥미롭지 않다. 꿈 소원에 관한 이 논의에서 끝맺지 못한 것은 나중에 더 전개할 수 있을 것이다.

방금 쓴 비유들의 「tertium comparationis」〔비교되는 두 것의 공통점〕, 즉 알맞게 할당되어 우리가 자유로이 쓸 수 있게 주어진 액수는, 꿈의 구조를 예시하는 데 한층 더 섬세하게 쓰일 수 있다. 6장 (나)에서 보였듯이, 대부분의 꿈에서 우리는 지각할 수 있는 강도를

특별히 많이 공급받은 중심 하나를 알아볼 수 있다. 이 중심은 으레 소원 성취의 직접적인 표현이다. 꿈 작업의 전치를 되돌림의 과정으로 풀어 보면, 꿈 사고 속 요소들의 심리적 강도가 꿈 내용 속 요소들의 지각할 수 있는 강도로 대체되어 있음을 알게 되기 때문이다. 소원 성취 곁에 있는 요소들은 흔히 소원 성취의 뜻과는 아무 관계가 없고, 소원에 맞서는 불쾌한 사고의 파생물로 드러난다. 그러나 이 요소들은 흔히 인위적으로 중심 요소와 연결됨으로써, 표현에 이를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강도를 얻었다. 이렇게 소원 성취의 표현력은 연상의 일정한 범위에 퍼지고, 그 범위 안에서 그 자체로는 힘이 없는 요소까지 포함해 모든 요소를 표현으로 끌어올린다. 강한 소원이 여럿 있는 꿈에서는 개별 소원 성취의 범위를 서로 쉽게 가를 수 있다. 꿈속의 틈도 흔히 그런 경계 지대로 설명할 수 있다.

앞의 논의로 꿈에 대한 낮의 잔재의 의의가 상당히 제한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낮의 잔재에 얼마간 주의를 기울일 만한 가치는 있다. 모든 꿈은 그 내용에서 최근 어느 날의 어떤 인상, 그것도 흔히 더없이 사소한 인상과의 연관을 보인다는 놀라운 사실을 경험이 드러내 주는 만큼, 낮의 잔재는 꿈 형성에 없어서는 안 될 성분임이 틀림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꿈의 혼합물에 이것이 덧붙여져야 할 필연성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5장 (가) 참조). 이 필연성은 무의식적 소원이 맡는 역할을 면밀히 좇은 다음 신경증 심리학에서 가르침을 구할 때에야 비로소 드러난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무의식적 표상은 그 자체로는 전의식에 결코 들어갈 수 없으며, 이미 전의식에 속해 있는 무해한 표상과 결합하여 그 표상에 자기 강도를 옮기고 그 밑에 자신을 숨김으로써만 그곳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것이 전이라는 사실이며, 신경증 환자의 정신생활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일 가운데 아주 많은 것이 이 사실로 설명된다.

이렇게 해서 과분하게 풍부한 강도를 얻은 전의식의 표상은, 전이를 겪고도 바뀌지 않은 채 남을 수도 있고, 전이하는 표상의 내용에서 비롯한 변형을 억지로 떠안을 수도 있다. 일상생활에서 비유를 끌어오기 좋아하는 나를 독자가 너그러이 봐주리라 믿거니와, 억압된 표상이 놓인 처지는 오스트리아에서 미국인 치과 의사가 놓인 처지와 비슷하다고 말하고 싶은 유혹을 느낀다. 미국인 치과 의사는 정규 의사에게서 그 의사의 이름을 공개 간판에 써도 된다는 허락을 받아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개업할 수 없다. 또 치과 의사와 이런 동맹을 맺는 것이 당연히 가장 바쁜 의사들이 아니듯이, 정신생활에서도 억압된 표상을 가려 주는 데는, 전의식에서 작용하는 주의를 그 자신은 그다지 많이 끌지 않은 전의식적 표상이나 의식적 표상만이 선택된다. 무의식은 전의식의 인상과 표상 가운데, 사소하다고 해서 눈길을 받지 못한 채 남은 것들이나 물리쳐지는 바람에 곧 이 주의를 빼앗긴 것들을 즐겨 자기 연결 속에 휘감는다. 한 방향으로 긴밀한 연결을 맺은 표상은 새로운 연결의 무리 전체에 대해 거의 거부하는 태도를 취한다는 것은, 연상 연구에서 잘 알려져 있고 모든 경험이 확인해 주는 사실이다. 나는 예전에 이 원리에서 출발해 히스테리성 마비의 이론을 세워 보려 한 적이 있다.

신경증 분석에서 알게 된, 억압된 표상의 전이에 대한 바로 그 필요가 꿈에서도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면, 우리는 꿈의 두 수수께끼를 단번에 설명할 수 있다. 곧 모든 꿈 분석에서 최근의 인상이 엮여 들어가 있음이 드러난다는 것, 그리고 이 최근 요소가 흔히 더없이 사소한 성격을 띤다는 것이다. 여기에 우리가 이미 다른 곳에서 배운 것을 덧붙일 수 있다. 이 최근의 사소한 요소들이 꿈 사고 가운데 가장 깊숙이 놓인 것의 대체물로 그토록 자주 꿈 내용에 들어오는 것은, 저항하는 검열을 가장 덜 두려워해도 되기 때문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검열에서

자유롭다는 것은 하찮은 요소가 선호되는 까닭만 설명해 줄 뿐이고, 최근 요소가 늘 있다는 것은 전이의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가리킨다. 두 무리의 인상은 모두 아직 연상에서 자유로운 재료를 원하는 억압의 요구를 채워 준다. 사소한 인상은 폭넓은 연상을 맺을 계기를 준 적이 없었기 때문이고, 최근의 인상은 그런 연상을 맺을 시간이 모자랐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는, 낮의 잔재가 — 사소한 인상도 꿈 형성에 참여할 때에는 이제 여기에 넣을 수 있다 — 억압된 소원이 쓸 수 있는 추진력을 무의식계에서 빌려 올 뿐 아니라, 무의식에 없어서는 안 될 무언가, 곧 전이에 필요한 발판을 제공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여기서 심리 과정을 더 깊이 파고들려 한다면, 먼저 전의식과 무의식 사이에서 벌어지는 충동의 움직임을 더 밝혀야 할 것이다. 정신신경증 연구는 실로 우리를 그쪽으로 떠밀지만, 꿈 자체는 이 점에서 아무 도움도 주지 않는다.

낮의 잔재에 관해 한 가지만 더 말해 두자. 낮의 잔재야말로 수면의 진짜 방해꾼이며 꿈은 그렇지 않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꿈은 오히려 수면을 지키려고 애쓴다. 그러나 이 점은 나중에 다시 다루겠다.

지금까지 우리는 꿈 소원을 논의하면서 그것을 무의식계의 영역까지 거슬러 추적했고, 그것이 낮의 잔재와 맺는 관계를 분석했다. 낮의 잔재는 그 자체가 소원일 수도 있고, 다른 어떤 종류의 심리적 충동일 수도 있으며, 그저 최근의 인상일 수도 있다. 이로써 우리는 꿈 형성에서 의식적 사고 활동이 온갖 변이 속에서 지니는 중요성에 대해 제기될 수 있는 어떤 주장에도 자리를 내준 셈이다. 우리의 사고 계열에 기댄다면, 꿈이 낮의 작업을 이어받아 깨어 있는 상태에서 풀지 못한 문제를 성공적으로 매듭짓는 저 극단적인 경우조차 설명하는 것이 결코 불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분석해 보면 전의식적 활동의 노력에 이런 동맹과 성공적인 보강을 제공한 유년기의 또는

억압된 소원의 원천이 드러날 만한 예가 없다. 그리고 우리는 다음 수수께끼의 해답에 한 걸음도 더 다가가지 못했다. 무의식은 왜 잠자는 동안에만 소원 성취를 위한 추진력을 댈 수 있는가? 이 물음의 답은 소원의 심리적 본성을 밝혀 줄 것이 틀림없다. 그리고 그 답은 심리 장치 도식의 도움을 받아 주어질 것이다.

이 장치 역시 오랜 발달 과정을 거쳐서야 지금처럼 완성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의심하지 않는다. 이 장치를 그 활동의 이른 단계에 있던 모습으로 복원해 보자. 다른 곳에서 확증될 가정들에서, 우리는 장치가 처음에는 되도록 흥분 없이 지내려고 애썼으며, 그래서 처음 형성될 때 그 도식은 반사 장치의 형태를 취했다는 것을 안다. 그 덕분에 장치는 밖에서 자기에게 닿는 감각 자극을 무엇이든 운동 경로를 통해 곧바로 방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삶의 욕구가 이 단순한 기능을 흔들어 놓았다. 장치가 더 발달하도록 떠미는 힘을 주는 것도 이 삶의 욕구다. 삶의 욕구는 처음에 커다란 신체적 욕구의 형태로 장치에 나타났다. 내적 욕구가 일으킨 흥분은 운동성에서 출구를 찾는데, 이것을 「내적 변화」 또는 「정서 표현」이라 부를 수 있다. 배고픈 아이는 어쩔 줄 모르고 울거나 버둥거리지만, 아이의 처지는 달라지지 않는다. 내적 욕구에서 비롯하는 흥분이 요구하는 것은 한순간의 분출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작용하는 힘이기 때문이다. 변화는 어떤 식으로든 — 아이의 경우에는 바깥의 도움을 받아야 하지만 — 충족 체험이 이루어져 내적 흥분이 없어질 때에만 일어날 수 있다. 이 체험의 본질적인 구성 요소는 어떤 지각(우리 예에서는 음식의 지각)이 나타나는 것이며, 그 지각의 기억 이미지는 이후 욕구의 흥분이 남긴 기억 흔적과 연합된 채 남는다.

이렇게 맺어진 연결 덕분에, 이 욕구가 다음번에 나타날 때에는 하나의 심리적 충동이 생겨난다. 이 충동은 이전 지각의 기억 이미지를 되살리고, 그리하여 이전 지각 자체를 다시 불러낸다. 즉 첫 충족의

상황을 실제로 되살려 놓는다. 이런 충동을 우리는 소원이라 부른다. 지각이 다시 나타나는 것이 소원 성취이며, 욕구 흥분이 지각을 온전히 되살리는 것이 소원 성취에 이르는 가장 짧은 길이다. 이 길을 실제로 밟는 심리 장치의 원시적 상태, 즉 소원하는 일이 환각으로 녹아드는 상태를 가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첫 심리 활동은 지각 동일성(identity of perception)을 목표로 한다. 즉 욕구가 채워지는 일과 결부된 그 지각을 되풀이하려 한다.

이 원시적인 정신 활동은 쓰라린 삶의 경험을 거쳐 더 목적에 맞는 이차적 활동으로 바뀌었음이 틀림없다. 장치 안의 짧은 퇴행적 경로에서 지각 동일성을 세우는 것은, 같은 지각을 바깥에서 되살릴 때 반드시 뒤따르는 결과를 다른 면에서는 가져오지 못한다. 충족은 일어나지 않고 욕구는 계속된다. 내적 에너지 총량을 외적 에너지 총량과 같게 하려면 앞의 것을 끊임없이 유지해야 한다. 환각성 정신병과, 원하는 대상에 매달리느라 심리적 능력을 다 써 버리는 굶주림의 섬망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 바로 이것이다. 심리적 힘을 더 알맞게 쓰려면 완전한 퇴행을 제지하여, 퇴행이 기억 이미지 너머로 뻗어 나가지 않게 해야 한다. 그래야 기억 이미지에서 출발해, 바라던 동일성을 마침내 외부 세계로부터 세우는 데 이르는 다른 길을 고를 수 있다. 이 제지와, 그에 따라 흥분을 딴 길로 돌리는 일은 수의적 운동성을 지배하는 둘째 체계의 과제가 된다. 즉 이제 그 활동을 통해 운동성이라는 비용이 미리 떠올려 둔 목적에 쓰이게 되는 체계다. 그러나 기억 이미지에서 출발해 외부 세계로부터 지각 동일성을 세우는 데까지 길을 헤쳐 나가는 이 복잡한 정신 활동 전체는, 경험이 소원 성취에 떠안긴 우회로를 나타낼 뿐이다.[12] 사고란 실로 환각적 소원의 대체물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꿈을 소원 성취라고 부른다면 이것은 자명해진다. 소원 말고는 그 무엇도 우리의 심리 장치를 활동하도록 몰아붙일 수 없기 때문이다.

소원을 이루면서 짧은 퇴행적 경로를 따르는 꿈은, 그렇게 함으로써 목적에 맞지 않는다 하여 버려진 심리 장치의 일차적 형태를 보여 주는 한 예를 우리에게 보존해 줄 뿐이다. 정신생활이 아직 어리고 서툴렀을 때 깨어 있는 상태를 지배하던 것이 수면 상태로 쫓겨난 듯하다. 어른이 된 인류가 내버린 원시적 무기인 활과 화살을 아이 방에서 다시 보게 되는 것과 같다. 꿈은 아이의 버려진 정신생활의 한 조각이다. 정신병에서는 깨어 있는 상태에서 평소 억제되어 있는 심리 장치의 이런 작동 방식이 다시 힘을 얻고, 그러면서 외부 세계에서 우리의 욕구를 채우지 못하는 무능을 드러낸다.

무의식적 소원 충동은 분명 낮에도 제 힘을 내세우려 애쓰며, 전이라는 사실과 정신병은 이 충동이 전의식 체계를 거쳐 가는 길을 따라 의식에 침투하고 운동성을 지배하려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심리적 건강의 파수꾼으로 인정하고 존중해야 할 것은, 꿈이 그 존재를 가정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 무의식계와 전의식계 사이에 놓인 검열관이다. 그러나 이 파수꾼이 밤이면 경계를 늦추어 무의식계의 억제된 충동이 표현되도록 내버려 두고, 그리하여 환각적 퇴행을 다시 가능하게 하는 것은 파수꾼의 부주의가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비판적인 파수꾼은 쉬러 갈 때 — 그리고 그의 잠이 깊지 않다는 증거를 우리는 가지고 있다 — 운동성으로 가는 문을 닫는 일을 잊지 않기 때문이다. 평소에는 제지되어 있는 무의식계에서 나온 충동들이 무대 위를 어떻게 돌아다니든 간섭할 필요가 없다. 외부 세계에 변화를 일으키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일한 것인 운동 장치를 움직이지 못하므로, 그 충동들은 해롭지 않은 채로 남는다. 수면은 지켜야 할 요새의 안전을 보장한다. 비판적 검열의 작용이 밤에 줄어들어서가 아니라, 이 검열이 병적으로 약해지거나 무의식적 흥분이 병적으로 강해져서 힘의 이동이 일어날 때,

그것도 전의식이 에너지로 충전되어 있고 운동성으로 가는 통로가 열려 있는 동안에 일어날 때에는 사정이 그리 무해하지 않다. 그러면 파수꾼은 제압당하고, 무의식적 흥분이 전의식계를 굴복시킨다. 무의식적 흥분은 전의식계를 거쳐 우리의 말과 행동을 지배하거나, 환각적 퇴행을 억지로 일으키고는, 지각이 우리의 심리 에너지 분배에 미치는 끌어당기는 힘을 빌려 자기들을 위해 설계되지 않은 장치를 다스린다. 우리는 이런 상태를 정신병이라 부른다.

이제 우리는 무의식계와 전의식계라는 두 체계를 도입하느라 중단되었던 우리의 심리학적 구성을 완성하기에 가장 좋은 위치에 있다. 그러나 꿈의 유일한 심리적 추진력인 소원을 더 살펴볼 이유는 아직 충분하다. 꿈이 어느 경우에나 소원 실현인 까닭은 꿈이 무의식계의 산물이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설명했다. 무의식계는 활동의 목표로 소원 성취 말고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며, 소원 충동 말고는 쓸 수 있는 힘을 하나도 갖고 있지 않다. 꿈 해석에서 이렇게 멀리 나아가는 심리학적 사변을 끌어낼 권리를 조금 더 누리려 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함으로써 꿈을 다른 심리적 구조물도 포괄할 수 있는 연관 속에 놓는다는 것을 보여 줄 의무가 있다. 무의식계라는 체계가 — 또는 우리 논의의 목적에 비추어 그와 충분히 비슷한 무언가가 — 존재한다면, 꿈이 그것의 유일한 발현일 수는 없다. 모든 꿈이 소원 성취일 수는 있겠지만, 꿈이라는 이 소원 성취 말고도 비정상적인 소원 성취의 다른 형태가 있음이 틀림없다. 실제로 모든 정신신경증 증상에 관한 이론은 그것들 역시 무의식의 소원 성취로 보아야 한다는 명제에서 정점에 이른다. 우리의 설명에 따르면 꿈은 정신의학자에게 가장 중요한 한 무리의 첫째 항일 뿐이며, 그 무리를 이해하는 것은 정신의학 문제 가운데 순수하게 심리학적인 부분을 푸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이 소원 성취 무리의 다른 항들, 이를테면 히스테리성 증상은 내가 지금까지 꿈에서 찾아내지 못한

본질적인 성질 하나를 보여 준다. 곧 이 논고에서 자주 언급한 연구들에서 나는, 히스테리성 증상이 형성되려면 우리 정신생활의 두 흐름이 합쳐져야 한다는 것을 안다. 증상은 실현된 무의식적 소원의 표현에 그치지 않는다. 같은 증상으로 이루어지는 전의식의 다른 소원이 거기에 합류해야 한다. 그래서 증상은 적어도 이중으로 결정되어 있다. 서로 다투는 두 체계가 저마다 한 번씩 결정한다. 꿈에서와 마찬가지로 그 이상의 중층 결정에는 한계가 없다. 무의식계에서 나오지 않은 결정은, 내가 아는 한 언제나 무의식적 소원에 맞서 반동하는 생각의 흐름, 이를테면 자기 처벌이다. 그러므로 나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다. **히스테리성 증상은 서로 다른 심리 체계에 원천을 둔, 서로 대립하는 두 소원 성취가 하나의 표현 속에 합쳐질 수 있는 곳에서만 생겨난다.** (히스테리성 증상의 기원에 관한 나의 최근 정식화는 히르슈펠트 등이 펴내는 『성과학 잡지(Zeitschrift für Sexualwissenschaft)』에 실린 논문(1908)을 참조하라.) 이 점에 관해서는 예를 들어 보아야 별 소용이 없을 것이다. 문제의 얽힘을 남김없이 벗겨 보이는 것 말고는 무엇도 확신을 주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주장만 하는 데 그치고, 확신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설명하기 위해 예를 하나 들겠다. 한 여성 환자의 히스테리성 구토는, 한편으로는 사춘기 시절부터 품어 온 무의식적 공상, 곧 끊임없이 임신하여 아이를 아주 많이 갖고 싶다는 공상의 실현으로 드러났고, 이 공상은 나중에 될 수 있는 한 많은 남자에게서 아이를 얻고 싶다는 소원과 결합되었다. 이 무절제한 소원에 맞서 강력한 방어 충동이 일어났다. 그런데 구토는 환자의 몸매와 아름다움을 망쳐 사람들 눈에 들지 못하게 할 수 있었으므로, 증상은 그녀의 처벌하려는 생각의 흐름에도 들어맞았다. 이렇게 양쪽에서 받아들일 수 있었기에 증상은 현실이 되도록 허락되었다. 이것은 파르티아 여왕이 삼두 정치가 크라수스에게 택한 것과 같은, 소원

성취를 허락하는 방식이다. 여왕은 크라수스가 황금에 대한 탐욕 때문에 원정에 나섰다고 믿고, 녹인 금을 그의 시신의 목구멍에 부어 넣게 했다. 「이제 그대가 갈망하던 것을 얻었도다.」 지금까지 꿈에 관해 우리가 아는 것은 꿈이 무의식의 소원 성취를 표현한다는 것뿐이다. 그리고 지배적인 전의식은 소원에 몇 가지 왜곡을 가한 뒤에야 이것을 허락하는 듯하다. 꿈 소원에 적대하면서 그 짝으로서 꿈에서 실현되는 생각의 흐름을, 우리는 사실 규칙적으로 증명해 보일 처지가 못 된다. 꿈에서 반동 형성의 흔적을 찾아낸 것은 이따금뿐이었다. 이를테면 「삼촌 꿈」(4장)에서 친구 R.을 향한 애정 같은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빠져 있는 전의식의 몫은 다른 자리에서 찾을 수 있다. 지배적인 체계가 수면 소원 쪽으로 물러나 있는 동안, 꿈은 무의식계에서 온 소원을 여러 겹의 왜곡을 거쳐 표현하고, 심리 장치 안에 필요한 에너지 변화를 일으켜 이 소원을 실현하며, 마침내 잠이 지속되는 내내 그것을 붙들어 둘 수 있다.[13]

전의식의 이 끈질긴 수면 소원은 대체로 꿈 형성을 쉽게 해 준다. 죽은 이가 누운 방에서 새어 나온 불빛을 보고 시신에 불이 붙었다는 결론에 이른 아버지의 꿈을 떠올려 보자. 아버지가 불빛에 깨어나는 대신 이런 결론을 내리게 만든 결정적인 심리적 힘 가운데 하나는, 꿈에 보이는 아이의 생명을 한순간이나마 늘리려는 소원이었음을 우리는 보여 주었다. 억압에서 나오는 다른 소원들은 아마 우리 눈을 벗어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 꿈을 분석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꿈의 둘째 추진력으로 아버지의 수면 소원을 들 수 있다. 아이의 생명과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잠도 꿈 덕분에 한순간 늘어나기 때문이다. 밑바닥에 깔린 동기는 이렇다. 「꿈이 계속되게 두자. 그러지 않으면 깨어나야 하니까.」 이 꿈에서와 마찬가지로 다른 모든 꿈에서도 수면 소원은 무의식적 소원을 거든다. 3장에서 우리는 보기에도 편의 꿈인

꿈들을 보고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모든 꿈이 이 이름을 요구할 수 있다. 계속 자려는 소원의 효력은 깨우는 자극에서 생긴 꿈에서 가장 쉽게 알아볼 수 있다. 이런 꿈은 객관적 감각 자극을 수면의 지속과 양립할 수 있게 바꾸어 놓는다. 이 자극을 꿈속에 엮어 넣어, 그것이 외부 세계에 대한 경고로서 내세울 수 있는 권리를 모조리 빼앗는 것이다. 그러나 계속 자려는 이 소원은, 오로지 안에서만 수면 상태를 어지럽힐 수 있는 다른 모든 꿈의 형성에도 한몫하고 있음이 틀림없다. 「자, 그냥 계속 자. 그래 봐야 꿈일 뿐이야.」 꿈이 너무 멀리 나갈 때 전의식계가 의식에게 건네는 암시는 많은 경우 이것이다. 그리고 비록 입 밖에 나오지 않는 생각이기는 하지만, 이 말은 꿈꾸기에 대해 우리의 지배적인 심리 활동이 취하는 태도를 대체로 나타내 주기도 한다. 나는 우리는 잠들어 있는 동안 내내, 우리가 꿈꾸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잠자고 있다는 것만큼이나 확실히 안다는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 없다. 이 결론에 맞서, 우리의 의식은 뒤의 것을 아는 쪽으로는 결코 향하지 않으며 앞의 것을 아는 쪽으로는 검열관이 뜻밖에 허를 찔리는 특별한 경우에만 향한다는 반론이[14] 제기되지만, 우리는 이 반론을 무시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반론에 맞서서는, 자기가 자고 있고 꿈꾸고 있다는 것을 온전히 의식하며, 꿈 생활을 이끄는 의식적 능력을 타고난 듯한 사람들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꿈꾸는 사람은 꿈이 흘러가는 방향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깨어나지 않은 채 꿈을 끊고, 다른 방향으로 이어 가려고 꿈을 새로 시작한다. 요청을 받으면 자기 극에 더 행복한 결말을 붙여 주는 인기 작가와 같다. 또 다른 때에는, 꿈이 그를 성적으로 흥분시키는 상황에 놓으면 그는 잠결에 이렇게 생각한다. 「이 꿈을 계속해서 몽정으로 기운을 빼고 싶지는 않다. 이것은 진짜 상황을 위해 미뤄 두는 편이 낫겠다.」

(라) 꿈에 의한 깨어남 — 꿈의 기능 — 불안 꿈

밤에는 전의식이 수면 소원 때문에 활동을 멈춘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 이제 우리는 꿈 과정을 조리 있게 탐구해 나갈 수 있다. 그러나 먼저 이 과정에 관해 이미 얻은 지식을 정리해 보자. 우리가 밝힌 것은 이렇다. 깨어 있을 때의 활동은 낮의 잔재를 남기는데, 이 잔재에서는 에너지량을 완전히 거두어들일 수 없다. 또는 깨어 있을 때의 활동이 낮 동안 무의식적 소원 하나를 되살린다. 또는 두 조건이 동시에 일어난다. 여기서 생길 수 있는 여러 변형도 이미 알아냈다. 무의식적 소원은 낮 동안에, 늦어도 잠이 시작될 무렵에는 이미 낮의 잔재로 가는 길을 찾아 그것에 전이를 이루어 놓았다. 그리하여 최근의 재료로 전이된 소원이 생겨나거나, 억제되어 있던 최근의 소원이 무의식에서 온 보강을 받아 다시 살아난다. 이제 이 소원은 정신 과정의 정상적인 경로를 따라 전의식을 거쳐 의식으로 나아가려 애쓴다. 사실 이 소원은 그 구성 요소 하나로 말미암아 전의식에 속해 있기도 하다. 그러나 소원은 여전히 활동하고 있는 검열과 맞닥뜨리고, 이제 그 영향에 굴복한다. 소원은 왜곡을 입는데, 그리로 가는 길은 소원이 최근의 재료로 전이되면서 이미 닦여 있었다. 여기까지만 보면 소원은 강박 관념이나 망상 따위와 닮은 것, 즉 전이로 보강되고 검열 때문에 표현이 왜곡된 사고가 되어 가는 중이다. 그러나 소원이 더 나아가는 길은 이제 전의식의 잠든 상태 때문에 저지된다. 이 체계는 제 흥분을 줄여서 침입에 맞서 자신을 지킨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꿈 과정은 수면 상태의 특이성으로 방금 열린 퇴행의 길로 들어서고, 그러면서 기억군이 자기에게 미치는 끌어당김을 따른다. 이 기억군은 그 일부가 아직 뒤쪽 체계들의 말로 옮겨지지 않은 시각적 에너지로만 존재한다. 퇴행하는 길에서 꿈은 극화의 형태를 띤다. 압축이라는 주제는 뒤에서 다루겠다. 꿈 과정은 이제 거듭 가로막힌 제 행로의 둘째 부분을 끝마쳤다. 첫째 부분은 무의식적

장면이나 공상에서 전의식 쪽으로 전진하며 펼쳐졌고, 둘째 부분은 검열이 들어선 자리에서부터 다시 지각 쪽으로 기운다. 그러나 꿈 과정이 지각 내용이 되면, 말하자면 검열과 수면 상태가 전의식계에 세워 둔 장애물을 비켜 간 셈이다. 꿈 과정은 주의를 제게로 끌어당겨 의식의 눈에 띄는 데 성공한다. 우리에게 의식이란 심리적 성질을 받아들이는 감각 기관을 뜻하는데, 이 의식은 두 곳에서 자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첫째는 장치 전체의 주변부, 곧 지각 체계이고, 둘째는 쾌와 불쾌의 자극이다. 쾌와 불쾌의 자극은 장치 안에서 에너지가 변환될 때 생겨나는 유일한 심리적 성질을 이룬다. Ψ-체계 안의 다른 과정은 모두, 전의식 안의 과정마저도 심리적 성질을 전혀 지니지 않으며, 따라서 지각에 쾌나 불쾌를 건네지 않는 한 의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쾌와 불쾌의 이런 방출이 집중 과정의 출구를 자동으로 조절한다고 가정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더 섬세한 기능을 가능하게 하려면 표상의 흐름을 불쾌의 발현에서 더 독립시켜야 한다는 것이 나중에 드러났다. 그러려면 전의식계에는 의식을 끌어당길 수 있는 제 나름의 성질이 있어야 했는데, 전의식계는 아마도 전의식적 과정을 언어 기호의 기억 체계와 이음으로써 그 성질을 얻었을 것이다. 이 기억 체계에는 성질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이 체계의 성질 덕분에, 그때까지 지각만을 위한 감각 기관이던 의식은 이제 우리 정신 과정의 일부를 위한 감각 기관도 된다. 그리하여 이제 우리에게는 이를테면 두 개의 감각 표면이 있는 셈이다. 하나는 지각을 향하고, 다른 하나는 전의식적 정신 과정을 향한다.

의식의 감각 표면 가운데 전의식계에 바쳐진 쪽은, 지각 체계를 향한 쪽보다 잠 때문에 흥분성이 더 떨어진다고 가정할 수밖에 없다. 밤의 정신 과정에서 관심을 거두어들이는 것은 참으로 목적에 맞는 일이다. 무엇도 정신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전의식계는 자고 싶어 한다. 그러나

꿈이 일단 지각이 되면, 그렇게 얻은 성질을 통해 의식을 흥분시킬 수 있다. 감각 자극은 본래 제 몫으로 정해진 일을 해낸다. 곧 전의식계가 쓸 수 있는 에너지의 일부를 주의의 형태로 자극하는 대상에 돌린다. 그러므로 꿈은 언제나 우리를 깨운다는 것, 즉 전의식계의 잠든 힘 일부를 활동하게 만든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이 힘이 꿈에 미치는 영향을, 우리는 연관성과 이해 가능성을 위한 이차 가공이라고 불러 왔다. 이 말은 이 힘이 꿈을 다른 모든 지각 내용과 똑같이 다룬다는 뜻이다. 적어도 재료가 허락하는 한, 꿈에도 똑같은 기대 표상이 적용된다. 꿈의 이 셋째 부분에서 방향을 두고 말하자면, 여기서도 움직임은 다시 전진적이라고 할 수 있다.

오해를 막기 위해 이 꿈 과정들의 시간적 특성에 관해 몇 마디 해 두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고블로[29]는 모리의 수수께끼 같은 단두대 꿈에서 착안한 듯한 매우 흥미로운 논의에서, 꿈에 필요한 시간은 잠과 깨어남 사이의 이행기뿐이라는 것을 증명하려 한다. 깨어나는 데는 시간이 걸리고, 꿈은 바로 그동안 일어난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꿈의 마지막 영상이 너무 강렬해서 꿈꾸는 사람을 깨어나게 한다고 믿기 쉽다. 그러나 실은 그 영상이 나타날 때 꿈꾸는 사람이 이미 깨어나기 직전에 와 있기 때문에 영상이 강렬할 뿐이다. 「Un rêve c’est un réveil qui commence.」〔꿈이란 시작되는 깨어남이다.〕

고블로가 자기 이론을 일반화하려고 많은 사실을 부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은 이미 뒤가[18]가 강조했다. 게다가 우리가 깨어나지 않는 꿈도 있다. 예컨대 꿈을 꾸고 있다는 꿈을 꾸는 몇몇 꿈이 그렇다. 꿈 작업에 대해 우리가 아는 바로는, 꿈 작업이 깨어나는 동안에만 걸쳐 있다고는 결코 인정할 수 없다. 오히려 꿈 작업의 첫째 부분은 우리가 아직 전의식의 지배 아래 있는 낮 동안에 시작된다고 보는 것이 그럴듯하다. 꿈 작업의 둘째 국면, 곧 검열이 가하는 변형, 무의식적

장면들의 끌어당김, 지각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일은 밤새 이어지는 것이 틀림없다. 그리고 무엇을 꾸었는지는 말하지 못하면서도 밤새 꿈을 꾼 것 같다고 말할 때, 우리는 아마 언제나 옳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의식되기에 이르기까지 꿈 과정이 우리가 서술한 시간적 순서를 실제로 따른다고, 곧 먼저 전이된 꿈 소원이 있고, 다음에 검열이 일으키는 왜곡이 있고, 그 결과 퇴행으로 방향이 바뀌는 식으로 진행된다고 가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그런 순서를 세울 수밖에 없었던 것은 서술을 위해서였다. 실제로는 오히려 이 길과 저 길을 동시에 더듬어 보고 충동들이 이리저리 흔들리다가, 마침내 가장 합목적적인 배분 덕분에 어떤 특정한 배치 하나가 자리를 잡아 남는 것이다. 나 자신의 몇몇 경험으로 보아, 나는 꿈 작업이 결과를 내놓기까지 하루 낮과 하룻밤보다 더 걸리는 일이 많다고 믿는 편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꿈의 구성에 드러나는 비범한 솜씨도 그 경이로움을 모두 잃는다. 내 생각에는, 꿈을 하나의 지각 사건으로서 이해할 수 있게 하려는 고려조차 꿈이 의식을 제게로 끌어당기기 전에 작용할 수 있다. 물론 이때부터 과정은 빨라진다. 이제부터 꿈은 다른 모든 지각과 똑같은 취급을 받기 때문이다. 몇 시간이나 준비해야 하지만 불을 붙이는 데는 한순간이면 되는 불꽃놀이와 같다.

꿈 작업을 거친 꿈 과정은 이제, 시각이나 잠의 깊이와는 전혀 상관없이 의식을 제게로 끌어당기고 전의식을 깨울 만큼 충분한 강도를 얻거나, 아니면 강도가 모자라서 깨어나기 직전에 움직이기 시작하는 주의와 마주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대부분의 꿈은 비교적 약한 심리적 강도로 움직이는 것 같다. 깨어남을 기다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깊은 잠에서 갑자기 깨었을 때 우리가 으레 꿈꾼 무언가를 지각한다는 사실도 이것으로 설명된다. 이때에도 저절로 깨어날 때와 마찬가지로,

첫 눈길은 꿈 작업이 만들어 낸 지각 내용에 가 닿고, 다음 눈길이 밖에서 생겨난 지각 내용에 가 닿는다.

그러나 이론적으로 더 흥미로운 것은 한창 잠든 우리를 깨울 수 있는 꿈이다. 다른 곳에서 두루 입증되는 합목적성을 염두에 두고, 꿈이나 무의식적 소원이 왜 잠, 즉 전의식적 소원의 성취를 방해할 힘을 지니는지 물어야 한다. 이것은 아마 우리가 들여다볼 수 없는 어떤 에너지 관계 때문일 것이다. 그것을 들여다볼 수 있다면, 꿈에 주는 자유와, 떼어 낸 주의를 어느 정도 들이는 비용이, 무의식을 낮과 마찬가지로 밤에도 붙잡아 두어야 하는 경우에 비하면 꿈으로서는 에너지의 절약이 된다는 것을 아마 알게 될 것이다.[15] 경험으로 알다시피, 꿈은 같은 밤에 거듭 잠을 끊더라도 여전히 잠과 양립한다. 우리는 잠깐 깨었다가 곧바로 다시 잠든다. 자다가 파리를 쫓는 것과 같다. 우리는 오직 그 일을 위해 깨어나고, 다시 잠들 때에는 방해를 치운 뒤다. 유모의 잠 따위에서 익히 알려진 예들이 보여 주듯, 수면 소원의 성취는 정해진 방향으로 얼마간의 주의를 붙들어 두는 것과 충분히 양립한다.

그러나 여기서 무의식적 과정을 더 잘 아는 데서 나온 반론 하나를 짚어 두어야 한다. 우리는 무의식적 소원이 언제나 활동하고 있다고 스스로 기술하면서도, 낮에는 그 소원이 스스로를 지각되게 할 만큼 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우리가 잠들고, 무의식적 소원이 꿈을 만들고 그 꿈으로 전의식을 깨울 힘을 보여 주었다면, 왜 꿈이 알아차려지고 나면 이 힘이 바닥나 버리는가? 쫓아내도 신이 나서 자꾸만 되돌아오는 성가신 파리처럼, 꿈이 끊임없이 되살아나는 편이 더 그럴듯하지 않은가? 꿈이 잠의 방해를 없애 준다는 우리의 주장은 무엇으로 정당화되는가?

무의식적 소원이 언제나 활동을 멈추지 않는다는 것은 전적으로 옳다. 그것은 어떤 흥분량이 이용하기만 하면 언제든 지나갈 수 있는 길이다. 게다가 무의식적 과정의 두드러진 특성은 그것이 파괴되지 않은 채 남는다는 사실이다. 무의식 속에서는 아무것도 끝맺어질 수 없고, 아무것도 그치거나 잊힐 수 없다. 이런 인상은 신경증, 특히 히스테리를 연구할 때 가장 강하게 받는다. 발작을 통한 방출로 이어지는 무의식적 사고의 흐름은 충분한 흥분이 쌓이자마자 다시 지나갈 수 있게 된다. 서른 해 전에 당한 모욕은 무의식적 정동 원천에 닿는 길을 얻고 나면, 그 서른 해 내내 방금 당한 모욕처럼 작용한다. 그 기억이 건드려질 때마다 모욕은 되살아나, 운동 발작으로 방출되는 흥분을 지니고 있음을 드러낸다. 바로 여기서 정신 치료의 소임이 시작된다. 그 과제는 무의식적 과정을 매듭짓고 잊히게 하는 것이다. 사실 기억이 바래고 정동이 시드는 것을 우리는 자명한 일로 여기고 시간이 심리적 기억에 미치는 일차적 영향으로 설명하기 쉽지만, 실은 그것은 공들인 작업이 가져온 이차적 변화다. 이 작업을 해내는 것은 전의식이다. 그리고 정신 치료가 걸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의식계를 전의식계의 지배 아래 굴복시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개개의 무의식적 충동 과정에는 출구가 두 가지 있다. 그 과정은 제멋대로 내버려져 결국 어딘가에서 뚫고 나와 한 번은 제 흥분을 운동성으로 방출하거나, 아니면 전의식의 영향에 굴복하여 그 흥분이 방출되는 대신 이 영향 때문에 묶이게 된다. 꿈에서 일어나는 것은 뒤의 과정이다. 지각으로 자라난 꿈을 맞닥뜨리는 전의식계의 에너지는 의식의 흥분에 이끌리기 때문에, 꿈의 무의식적 흥분을 제한하여 방해 요인으로서는 무해하게 만든다. 꿈꾸는 사람이 잠깐 깨어날 때, 그는 실제로 잠을 방해하려던 파리를 쫓아 버린 것이다. 이제 우리는 잠자는 내내 무의식을 억누르기보다, 무의식적 소원에 마음껏

활개를 치게 하고 퇴행으로 가는 길을 터 주어 꿈을 만들게 한 다음, 전의식적 노동을 조금 들여 이 꿈을 제한하고 매듭짓는 편이 실제로 더 합목적적이고 경제적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실로 우리는, 꿈이 본래 합목적적인 과정이 아니었더라도 정신생활에서 힘들이 벌이는 상호 작용 속에서 어떤 기능을 얻었으리라고 기대해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는 이 기능이 무엇인지 안다. 꿈은 풀려난 무의식계의 흥분을 다시 전의식의 지배 아래 데려오는 일을 떠맡았다. 그렇게 해서 꿈은 무의식계의 흥분에 숨통을 틔워 주며 그 흥분의 안전판 구실을 하고, 동시에 깨어 있는 상태라는 비용을 조금만 치르고 전의식의 잠을 지켜 준다. 꿈은 같은 계열의 다른 심리적 형성물처럼 하나의 타협으로 나서는데, 두 소원이 서로 양립할 수 있는 한에서 둘 다 이루어 줌으로써 두 체계에 동시에 봉사한다. 1장 (사)에서 말한 로베르트의 「배설 이론」을 한번 돌아보면, 우리가 가설에서도 꿈 과정을 다루는 방식에서도 이 저자와 다르지만, 요점, 곧 꿈의 기능을 규정하는 데서는 그와 의견을 같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두 소원이 서로 양립할 수 있는 한에서라는 위의 단서에는, 꿈의 기능이 난파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암시가 담겨 있다. 꿈 과정은 처음에는 무의식의 소원 성취로서 허용된다. 그러나 이 시험적인 소원 성취가 전의식을 몹시 흔들어 전의식이 더는 휴식을 지킬 수 없게 되면, 꿈은 타협을 깨뜨리고 제 과제의 둘째 부분을 수행하지 못한다. 그러면 꿈은 곧바로 중단되고, 완전히 깨어난 상태가 그 자리를 차지한다. 여기서도, 평소에는 수면의 파수꾼인 꿈이 이 경우에는 수면의 방해꾼으로 나설 수밖에 없다 해도 그것은 실은 꿈의 잘못이 아니며, 이 때문에 꿈의 효능을 의심할 까닭도 없다. 유기체 안에서 평소에는 효능을 발휘하던 기제가, 그것이 생겨난 조건 가운데 어떤 요소가 바뀌자마자 효능을 잃고 방해가 되는 경우는 이것만이 아니다. 그럴 때

방해는 적어도, 변화를 알리고 그 변화에 맞서 유기체의 조절 수단을 움직이게 한다는 새로운 목적에 이바지한다. 이와 관련해 나는 당연히 불안 꿈의 경우를 염두에 두고 있다. 소원 성취 이론에 불리한 이 증언을 마주칠 때마다 밀어내려 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적어도 몇 가지 시사를 곁들여 불안 꿈을 설명해 보겠다.

불안을 일으키는 심리적 과정이 그래도 소원 성취일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모순으로 느껴지지 않게 된 지 오래다. 이 일은, 소원은 한 체계(무의식계)에 속하는 반면 다른 체계(전의식계)는 이 소원을 거부하고 억제했다는 사실로 설명할 수 있다. 전의식계가 무의식계를 굴복시키는 일은 완벽한 심리적 건강 상태에서도 완전하지 않다. 이 억제의 정도가 우리의 심리적 정상성의 정도를 보여 준다. 신경증 증상은 두 체계 사이에 갈등이 있음을 보여 준다. 증상은 이 갈등의 타협이 낳은 결과이며, 갈등을 잠시 끝낸다. 한편으로 증상은 무의식계에 흥분을 방출할 출구를 마련해 주어 무의식계의 출격구 구실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전의식계에 무의식계를 어느 정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을 준다. 예컨대 어떤 히스테리성 공포증이나 광장 공포증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크게 배울 점이 있다. 혼자서는 길을 건너지 못하는 신경증 환자가 있다고 하자. 우리는 이것을 마땅히 「증상」이라고 부를 것이다. 우리는 그가 스스로 할 수 없다고 여기는 행동을 하도록 다그쳐 이 증상을 없애려 한다. 그 결과는 불안 발작일 것이다. 거리에서 일어난 불안 발작이 광장 공포증을 자리 잡게 한 원인이 된 일이 흔하듯이 말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증상이 불안의 발발을 막으려고 형성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공포증은 국경의 요새처럼 불안 앞에 버티고 서 있다.

이 과정들에서 정동이 하는 역할을 파고들지 않고서는 논의를 이어 갈 수 없는데, 여기서는 그 일을 불완전하게밖에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런

명제를 내세워 보자. 무의식의 억제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지는 까닭은, 표상의 방출을 제멋대로 내버려 두면 무의식계 안에 정동이 생겨나기 때문이다. 그 정동은 본래 쾌의 성격을 띠었으나, 억압이 나타난 뒤로는 불쾌의 성격을 띤다. 억제의 목적이자 결과는 이 불쾌의 발생을 막는 데 있다. 억제는 무의식적 표상 활동에까지 미치는데, 불쾌의 방출이 표상 활동에서 비롯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정동 발생의 본성에 관한 아주 분명한 가정의 토대가 놓인다. 정동 발생은 운동 활동 또는 분비 활동으로 여겨지며,[16] 그 신경 자극의 열쇠는 무의식계의 표상들 안에 있다. 전의식계의 지배 때문에 이 표상들은, 말하자면 정동을 일으키는 충동을 내보내는 출구에서 목이 졸리고 제지된다. 그러므로 전의식계가 에너지 집중을 그만두는 데서 비롯하는 위험은, 무의식적 흥분이 정동을 방출하되, 앞서 일어난 억압 탓에 그 정동이 불쾌나 불안으로밖에 지각될 수 없다는 데 있다.

이 위험은 꿈 과정이 마음껏 활개를 칠 때 풀려난다. 위험이 현실이 되는 조건은 억압이 일어났다는 것, 그리고 억제된 소원 충동이 충분히 강해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조건들은 꿈 구조의 심리학적 영역 바깥에 온전히 놓여 있다. 우리의 주제가 단 하나의 요인, 곧 잠자는 동안 무의식계가 풀려난다는 요인을 통해 불안 발생이라는 주제와 이어져 있지 않다면, 나는 불안 꿈을 논하지 않고 넘어가 그것에 얽힌 모든 모호함을 피할 수도 있을 것이다.

여러 번 되풀이해 말했듯이, 불안 이론은 신경증 심리학에 속한다. 꿈속의 불안은 불안의 문제이지 꿈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하고 싶다. 꿈 과정이라는 주제와 불안이 맞닿는 지점을 한 번 밝히고 나면, 우리는 더는 불안과 상관할 일이 없다. 내게 남은 일은 하나뿐이다. 나는 신경증적 불안이 성적 원천에서 비롯한다고 주장했으므로, 불안 꿈을 분석해 그 꿈 사고에 들어 있는 성적 재료를 보여 줄 수 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나는 신경증 환자들이 내게 건네준 수많은 예 가운데 어느 것도 여기서 인용하지 않고, 차라리 젊은 사람들의 불안 꿈을 들겠다.

나 자신은 수십 년 동안 제대로 된 불안 꿈을 꾼 적이 없지만, 일곱 살인가 여덟 살 때 꾼 꿈 하나가 기억난다. 서른 해쯤 지나서 해석해 본 꿈이다. 꿈은 아주 생생했는데, 나는 꿈속에서 **묘하게 평온한 얼굴로 잠든 사랑하는 어머니를 새 부리를 한 두 (또는 세) 사람이 방 안으로 옮겨 와 침대에 눕히는 것**을 보았다. 나는 울고 소리 지르며 깨어나 부모님의 잠을 어지럽혔다. 기묘한 모양으로 천을 두르고 부리를 한 그 아주 키 큰 인물들은 필리프손 성서의 삽화에서 가져온 것이었다. 이집트 무덤 부조에 새겨진, 새매의 머리를 한 신들을 나타낸 삽화였던 것 같다. 분석은 또 관리인의 버릇없는 아들에 대한 회상을 끌어들였다. 그 아이는 집 앞 풀밭에서 우리 아이들과 곧잘 어울려 놀았는데, 덧붙이자면 이름이 필리프였다. 성교를 뜻하는 비속한 낱말을 나는 이 아이에게서 처음 들은 것 같다. 교양 있는 사람들은 그 말 대신 라틴어 「coitus」를 쓰지만, 꿈은 새의 머리를 고름으로써 바로 그 낱말을 뚜렷하게 암시한다.[17] 그 낱말의 성적인 의미를 나는 세상 물정에 밝은 이 스승의 얼굴 표정에서 짐작했음이 틀림없다. 꿈속 어머니의 얼굴 생김새는 할아버지의 얼굴을 본뜬 것이었다. 나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며칠 전 혼수상태에서 코를 고는 모습을 보았다. 그러므로 꿈속 이차 가공이 내린 해석은 어머니가 죽어 가고 있다는 것이었음이 틀림없다. 무덤 부조도 이와 들어맞는다. 이 불안 속에서 나는 깨어났고, 부모님을 깨울 때까지 진정할 수가 없었다. 어머니와 얼굴을 마주하자 갑자기 마음이 가라앉았던 일이 기억난다. 마치 어머니가 죽지 않았다는 확인이 필요했다는 듯이. 그러나 꿈에 대한 이 이차 해석은 이미 생겨난 불안의 영향 아래에서야 비로소 이루어진 것이었다. 어머니가 죽어 가는

꿈을 꾸었기 때문에 내가 공포에 질린 것이 아니라, 이미 불안에 지배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의식적 가공 속에서 꿈을 그렇게 해석한 것이다. 그런데 이 불안은 억압을 매개로, 막연하지만 분명히 성적인 어떤 욕망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었다. 그 욕망은 꿈의 시각적 내용에서 저를 충족시키는 표현을 얻었던 것이다.

한 해 전부터 중병을 앓아 온 스물일곱 살 남자는 열한 살에서 열세 살 사이에 무서운 꿈을 많이 꾸었다. 도끼를 든 남자가 자기를 뒤쫓아 오는 것 같았고, 그는 달아나고 싶었지만 몸이 마비된 듯하여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가 없었다. 이것은 매우 흔하고 겉보기에는 성과 무관한 불안 꿈의 좋은 예로 볼 수 있다. 분석에서 꿈꾼 사람은 먼저 삼촌이 들려준 이야기를 떠올렸다. 시간상으로는 꿈보다 뒤의 일인데, 밤에 수상쩍어 보이는 자에게 습격을 당했다는 이야기였다. 이 일을 떠올리자 그는, 꿈을 꾸던 무렵에 자기도 이미 비슷한 일을 들었을지 모른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도끼와 관련해서는, 그 시절에 장작을 패다가 도끼에 손을 다친 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냈다. 이것은 곧바로 남동생과의 관계로 이어졌다. 그는 동생을 괴롭히고 때려눕히곤 했다. 특히 장화로 동생의 머리를 피가 나도록 때린 일이 떠올랐는데, 그때 어머니는 「언젠가 저 애가 동생을 죽이지나 않을지 겁이 나」 하고 말했다. 그가 겉보기에는 폭력이라는 주제를 생각하고 있던 참에, 아홉 살 때의 회상 하나가 불쑥 떠올랐다. 부모가 밤늦게 집에 돌아와 잠자리에 들었고, 그는 자는 척하고 있었다. 곧 헐떡이는 소리와, 그에게는 이상하게 여겨지는 다른 소리들이 들려왔고, 그는 침대 위 부모의 자세도 분간할 수 있었다. 그 뒤로 이어진 연상은, 그가 부모 사이의 이 관계와 남동생에 대한 자신의 관계를 서로 빗대어 놓았음을 보여 주었다. 그는 부모 사이에서 일어난 일을 「폭력과 몸싸움」이라는 관념 아래 묶었고, 그리하여 아이들에게

흔히 일어나듯 성교 행위에 대한 가학적 관념에 이르렀다. 어머니의 침대에서 자주 피를 보았다는 사실이 그의 이 관념을 뒷받침했다.

어른들의 성교가 그것을 목격한 아이들에게 이상하게 보이고 그들에게 불안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은, 감히 말하건대 날마다 경험하는 사실이다. 나는 이 불안을, 성적 흥분이 아이들의 이해력으로는 감당되지 않으며 부모가 거기에 얽혀 있어서 아마 받아들일 수도 없다는 사실로 설명했다. 같은 이유로 이 흥분은 불안으로 변환된다. 앞서 5장 (라)에서 보았듯이, 그보다 더 이른 시기에는 자기와 성이 다른 부모를 향한 성적 충동이 억압에 부딪히지 않고 자유롭게 표현된다.

아이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환각을 동반한 야경증(pavor nocturnus)에 대해서도 나는 서슴없이 같은 설명을 내놓겠다. 여기서도 우리가 다루는 것은 분명 이해할 수 없고 물리쳐진 성적 충동이다. 그 충동을 기록해 둔다면 아마 시간적인 주기성이 드러날 것이다. 성적 리비도의 고조는 저절로 서서히 진행되는 발달 과정을 통해서만큼이나 정서적 인상을 통해서도 우연히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설명을 관찰로 뒷받침하는 데 필요한 재료가 내게는 없다. 한편 소아과 의사들에게는 신체적 측면에서든 심리적 측면에서든 이 일련의 현상 전체를 이해할 수 있게 해 주는 유일한 관점이 없는 것 같다. 의학적 신화라는 눈가리개를 쓴 사람이 이런 사례를 어떻게 이해하지 못하고 지나치는지 우스꽝스러운 예로 보여 주기 위해, 드바케르[17]가 야경증(pavor nocturnus)을 다룬 1881년의 학위 논문(66쪽)에서 찾아낸 사례 하나를 이야기하겠다. 몸이 약한 열세 살 소년이 불안해하고 몽상에 잠기기 시작했다. 잠이 뒤숭숭해졌고, 일주일에 한 번쯤은 환각을 동반한 급성 불안 발작으로 잠이 끊겼다. 이 꿈들에 대한 기억은 언제나 아주 또렷했다. 이를테면 그는 악마가 자기에게 「이제 우리가 널 잡았다, 이제 우리가 널 잡았다」 하고 소리쳤고, 이어서 유황 냄새가

났으며, 불이 살갗을 태웠다고 이야기했다. 이 꿈 때문에 그는 겁에 질려 깨어났다. 처음에는 소리도 지르지 못하다가 이윽고 목소리가 돌아왔고, 그가 또렷하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아니에요. 전 아무 짓도 안 했다고요」라거나 「제발 그러지 마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하고 말하는 것이 들렸다. 때로는 「알베르는 그런 짓 안 했어요」 하고 말하기도 했다. 나중에 그는 옷 벗기를 피했는데, 그의 말로는 옷을 벗고 있을 때만 불이 덮쳐 오기 때문이었다. 건강을 위협하는 이 나쁜 꿈들에 시달리던 중에 그는 시골로 보내졌고, 거기서 일 년 반 만에 회복했다. 그런데 열다섯 살 때 그는 한번 이렇게 털어놓았다. 「Je n'osais pas l'avouer, mais j'éprouvais continuellement des picotements et des surexcitations aux parties;[18] à la fin, cela m'énervait tant que plusieurs fois, j'ai pensé me jeter par la fenêtre au dortoir.」〔감히 털어놓지 못했지만, 저는 늘 그 부위에 따끔거림과 지나친 흥분을 느꼈어요.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신경이 너무 곤두서서, 기숙사 창문으로 몸을 던질까 하는 생각을 여러 번 했어요.〕

다음을 짐작하기는 확실히 어렵지 않다. 1. 소년은 예전에 자위를 했고, 아마 그 사실을 부인했을 것이며, 그 잘못 때문에 엄한 벌을 주겠다는 위협을 받았다(그의 고백: Je ne le ferai plus〔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의 부인: Albert n'a jamais fait ça〔알베르는 그런 짓 한 번도 안 했어요〕). 2. 사춘기의 압박을 받아, 성기를 간질여 수음하려는 유혹이 다시 깨어났다. 3. 그러나 이제 그의 안에서 억압의 싸움이 일어나 리비도를 억제하고 그것을 불안으로 바꾸었으며, 이 불안이 나중에 그때 위협받았던 벌의 모습을 띠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의 저자가 끌어낸 결론을 인용해 보자(69쪽). 이 관찰은 다음을 보여 준다. 1. 사춘기의 영향은 몸이 약한 소년에게 극도의 쇠약 상태를 낳을 수 있고, 매우 현저한 뇌빈혈에 이르게 할 수 있다.[19]

2. 이 뇌빈혈은 성격의 변화, 악마 망상적 환각, 그리고 밤에, 어쩌면 낮에도 나타나는 매우 격렬한 불안 상태를 낳는다.

3. 악마 망상과 낮 동안의 자책은 이 환자가 어린 시절에 받은 종교 교육의 영향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4. 나타났던 모든 현상은 시골에서 오래 머무르고, 몸을 단련하고, 사춘기가 끝난 뒤 체력을 되찾은 결과로 사라졌다.

5. 소년의 뇌 상태가 생겨나는 데 소인으로 작용한 영향은 유전과 아버지의 만성 매독 상태에 돌릴 수 있다.

저자의 맺음말은 이렇다. 「Nous avons fait entrer cette observation dans le cadre des délires apyrétiques d'inanition, car c'est à l'ischémie cérébrale que nous rattachons cet état particulier.」〔우리는 이 관찰 사례를 영양 결핍으로 인한 무열성 섬망의 범주에 넣었다. 이 특이한 상태를 우리는 뇌 허혈과 결부시키기 때문이다.〕

(마) 일차 과정과 이차 과정 — 억압[20]

꿈 과정의 심리학 속으로 더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감히 나서면서, 나는 어려운 과제를 떠맡았다. 사실 내 서술 능력으로는 좀처럼 감당하기 어려운 과제다. 그토록 복잡하게 얽힌 사건의 사슬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을 낱말을 하나씩 늘어놓는 서술로 재현하면서, 설명하는 내내 아무 선입견도 없는 듯이 보이기란 내 힘에 꽤 부치는 일이다. 이제 나는 꿈의 심리학을 서술하면서 내 견해가 역사적으로 발전해 온 길을 따라가지 못한 것을 속죄해야 한다. 꿈을 파악하는 내 관점은 그에 앞선 신경증 심리학 연구를 거쳐 얻은 것이다. 여기서는 그 연구를 끌어들이지 않기로 되어 있는데도 나는 거듭 그것을 끌어들일 수밖에 없다. 차라리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 꿈에서 출발해 신경증 심리학과 연관을 맺고 싶은데도 말이다. 이 어려움 때문에 독자가 겪을 온갖 불편을 나는 잘 알지만, 그것을 피할 길은 알지 못한다.

이런 사정이 마음에 차지 않으니, 내 노력의 가치를 높여 줄 듯한 다른 관점에 기꺼이 잠시 머물러 보겠다. 1장 첫머리에서 보였듯이, 나는 권위자들 사이의 더없이 날카로운 모순으로 얼룩진 주제와 마주하고 있었다. 우리가 꿈 문제를 다듬어 낸 뒤에는 이 모순들 대부분에 자리를 찾아 줄 수 있었다. 다만 제기된 견해 가운데 두 가지, 곧 꿈은 무의미한 과정이라는 견해와 꿈은 신체적 과정이라는 견해에는 단호히 이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 이 두 경우를 빼면, 서로 모순되는 견해들을 모두 복잡한 논증의 이 대목 저 대목에서 받아들여야 했고, 그 견해들이 저마다 무언가 옳은 것을 찾아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다. 꿈이 깨어 있을 때의 충동과 관심사를 이어 간다는 것은 꿈의 잠재적 사고를 찾아냄으로써 아주 널리 확인되었다. 이 사고들은 우리에게 중요해 보이고 크나큰 관심을 끄는 것만을 다룬다. 꿈은 결코 하찮은 일에 매달리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그 반대 견해에도 동의했다. 곧 꿈은 낮의 사소한 잔재를 주워 모으며, 낮의 중요한 사건은 깨어 있을 때의 활동에서 어느 정도 빠져나간 뒤에야 비로소 꿈에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견해다. 우리는 이것이 꿈 내용에 들어맞는다는 것을 알았다. 꿈 내용은 왜곡을 통해 꿈 사고에 달라진 표현을 준다. 꿈 과정은 연상 기제의 본성상 깨어 있을 때의 정신 활동이 아직 붙잡지 않은 최근의 재료나 사소한 재료를 더 쉽게 차지하며, 검열 때문에 심리적 강도를 중요하지만 불쾌하기도 한 재료에서 사소한 재료로 옮겨 놓는다고 우리는 말했다. 꿈의 기억 과잉과, 꿈이 유년기 재료에 기대는 것은 우리 이론의 주요한 버팀목이 되었다. 우리는 꿈 이론에서, 유년기적인 것에서 비롯된 소원이 꿈 형성에 없어서는 안 될 원동기 구실을 한다고

보았다. 잠자는 동안의 객관적 감각 자극이 지닌, 실험으로 입증된 의의를 우리는 물론 의심할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 다만 우리는 이 재료를, 깨어 있을 때의 활동에서 남은 사고의 잔재와 똑같은 관계로 꿈 소원과 이어 놓았다. 꿈이 객관적 감각 자극을 착각의 방식으로 해석한다는 사실을 반박할 필요도 없었다. 다만 권위자들이 미결로 남겨 둔 이 해석의 동기를 우리가 채워 넣었다. 해석은, 지각된 대상이 수면 방해꾼으로서는 무해해지고 소원 성취에 쓰일 수 있게 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트럼불 래드[40]가 증명한 듯한, 잠자는 동안 감각 기관이 보이는 주관적 흥분 상태를 우리는 꿈의 특별한 원천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그래도 이 흥분을 꿈 뒤에서 작용하는 기억들이 퇴행적으로 되살아나는 것으로 설명할 수는 있다. 꿈을 설명할 때 흔히 요체로 여겨지는 내적 기관 감각에도 우리의 견해에서는 소박한 역할이 주어졌다. 떨어지는 감각, 하늘을 나는 감각, 제지되는 감각 같은 것들은 필요할 때마다 꿈 작업이 꿈 사고를 표현하는 데 쓸 수 있도록 늘 준비된 재료로 놓여 있다.

꿈 과정이 빠르고 순간적이라는 것은, 이미 마련된 꿈 내용을 의식이 지각하는 데에는 들어맞는 듯하다. 그에 앞선 꿈 과정의 부분들은 아마 느리게, 이리저리 흔들리며 진행될 것이다. 가장 짧은 순간에 몰아넣어진, 넘치도록 많은 꿈 내용이라는 수수께끼를 우리는, 정신생활에서 거의 다 만들어진 구조물을 가져다 쓰기 때문이라고 설명함으로써 풀었다. 꿈이 기억 때문에 왜곡되고 일그러진다는 것이 옳기는 하지만 성가신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았다. 그것은 꿈 작업이 시작될 때부터 작용해 온 왜곡 작업 가운데 눈에 드러나는 마지막 작업일 뿐이기 때문이다. 정신생활이 밤에는 잠드는가, 아니면 낮과 똑같이 제 모든 능력을 쓸 수 있는가를 둘러싼 격렬하고 도무지 화해할 수 없어 보이는 논쟁에서, 우리는 양쪽 모두에 동의할 수 있었다.

어느 쪽에도 온전히 동의하지는 않았지만 말이다. 우리는 꿈 사고가, 심리 장치가 제공하는 거의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더없이 복잡한 지적 활동이라는 증거를 찾아냈다. 그렇더라도 이 꿈 사고가 낮 동안에 생겨났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으며, 정신생활에 수면 상태가 있다고 가정하는 것은 필수 불가결하다. 그러니 부분 수면설조차 제 몫을 찾은 셈이다. 그러나 우리는 수면 상태의 특징을 심리적 연관의 붕괴에서가 아니라, 낮을 지배하는 심리 체계가 제 수면 소원 때문에 활동을 멈추는 데서 찾았다. 외부 세계에서 물러남도 우리의 견해에서 그 의의를 잃지 않는다. 그것은 유일한 요인은 아니지만 퇴행을 도와 꿈의 표현을 가능하게 한다. 표상의 흐름을 의지로 이끄는 일을 물리친다는 것은 반박할 수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정신생활이 목적 없는 것이 되지는 않는다. 우리가 보았듯이, 원하는 목적 표상을 버리고 나면 원치 않는 목적 표상이 지배권을 쥐기 때문이다. 꿈속의 느슨한 연상 결합을 우리는 인정했을 뿐 아니라, 짐작할 수 있었던 것보다 훨씬 넓은 영역을 그 지배 아래 두었다. 다만 우리는 그것이 올바르고 뜻있는 다른 결합을 대신하는, 꾸며 낸 대용물일 뿐임을 알아냈다. 물론 우리도 꿈을 부조리하다고 불렀다. 그러나 꿈이 부조리를 꾸며 보일 때 실은 얼마나 지혜로운지를 우리는 여러 예에서 배울 수 있었다. 꿈에 부여되어 온 기능 가운데 우리가 부정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 꿈이 밸브처럼 정신의 짐을 덜어 준다는 것, 그리고 로베르트의 주장대로 온갖 해로운 재료가 꿈속의 표현을 거쳐 무해해진다는 것은 꿈속의 이중 소원 성취에 관한 우리 이론과 정확히 맞아떨어질 뿐 아니라, 그의 표현 그대로 두어도 로베르트 자신에게보다 우리에게 한층 더 잘 이해된다. 심리적인 것이 제 능력들의 유희에 자유롭게 몸을 맡긴다는 것은, 우리에게서는 전의식적 활동이 꿈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표현된다. 「꿈속에서 정신생활의 태아적 상태로 되돌아감」과 해블록 엘리스[23]의 관찰, 곧

「거대한 감정과 불완전한 생각으로 이루어진 태곳적 세계」는, 낮 동안 억제된 원시적 작업 방식이 꿈 형성에 참여한다는 우리의 추론을 절묘하게 앞질러 내다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들라주[15]에게서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서도 억제된 재료가 꿈꾸기의 원동력이 된다.

셰르너가 꿈의 상상력에 부여하는 역할도, 심지어 그의 해석도 우리는 온전히 인정했다. 다만 말하자면 그것들을 문제의 다른 부문으로 데려가야 했다. 꿈이 상상력을 낳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 상상력이 꿈 사고의 형성에 가장 큰 몫을 하는 것이다. 꿈 사고의 원천을 알려 주는 실마리는 셰르너에게 빚지고 있지만, 그가 꿈 작업의 몫으로 돌리는 것은 거의 모두 무의식의 활동으로 돌려야 한다. 이 활동은 낮 동안에도 움직이며, 꿈만이 아니라 신경증 증상에도 계기를 대 준다. 우리는 꿈 작업을 이 활동과는 전혀 다르고 훨씬 좁게 제한된 것으로 떼어 놓아야 했다. 끝으로 우리는 꿈과 정신 장애의 관계를 결코 버리지 않았으며, 오히려 새로운 땅 위에 더 단단한 토대를 놓아 주었다.

이렇게 우리 이론의 새로운 재료로, 말하자면 더 높은 통일체 안에 한데 묶이자, 권위자들의 더없이 다양하고 더없이 모순된 결론들이 우리의 구조물 안에 들어맞는 것을 보게 된다. 그 가운데 몇몇은 달리 배치되었고, 완전히 물리쳐진 것은 몇 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 자신의 구조물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심리학의 어둠 속으로 나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마주친 숱한 불분명한 점들은 제쳐 두더라도, 이제 우리는 새로운 모순에 부딪혀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인 듯하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우리는 꿈 사고가 완전히 정상적인 정신 작용에서 나온다고 인정했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꿈 사고 가운데서 전적으로 비정상적인 정신 과정을 여럿 발견했고, 그 과정들은 꿈 내용에까지 똑같이 미친다. 그래서 우리는 꿈을 해석하면서 이 과정들을 되풀이했다. 우리가 「꿈 작업」이라고 이름 붙인 것은 모두 우리가 올바르다고 인정하는 심리적

과정과 너무나 동떨어져 보여서, 꿈꾸기의 심리적 활동이 저급하다는 저자들의 더없이 가혹한 판단도 우리에게는 근거가 충분해 보인다.

어쩌면 한층 더 나아가야만 해명과 개선을 이끌어 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 꿈 형성으로 이어지는 배치 가운데 하나를 골라내 보겠다.

우리는 꿈이 일상생활에서 비롯된,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짜인 여러 사고를 대신한다는 것을 배웠다. 그러니 이 사고들이 우리의 정상적인 정신생활에서 나온다는 것을 의심할 수는 없다. 우리가 정신 작용에서 높이 사는 성질, 정신 작용을 고차원의 복잡한 활동으로 돋보이게 하는 성질을 우리는 꿈 사고에서 모두 다시 발견한다. 그러나 이 정신 작업이 잠자는 동안에 이루어진다고 가정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가정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고수해 온, 수면의 심리 상태에 관한 견해가 크게 흔들릴 것이다. 이 사고들은 얼마든지 낮에 생겨났을 수 있으며, 처음부터 우리 의식에 알아채이지 않은 채 계속 자라나 잠이 들 무렵에는 완성된 채로 서 있었을 수도 있다. 이런 사정에서 무언가를 결론지어야 한다면, 그것은 기껏해야 **가장 복잡한 정신 작용도 의식의 협력 없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할 뿐이다. 이것은 히스테리나 강박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정신분석할 때마다 우리가 이미 따로 배운 사실이다. 이 꿈 사고들은 그 자체로는 분명 의식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낮 동안 우리에게 의식되지 않았다면 거기에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다. 의식되는 상태는 어떤 심리 기능, 곧 주의가 발휘되느냐에 달려 있다. 주의는 정해진 양만큼만 쓰일 수 있는 듯하며, 다른 목적들 때문에 문제의 생각의 흐름에서 거두어졌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의 흐름이 의식에서 멀어지는 또 다른 경로는 다음과 같다. 의식적으로 되짚어 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는 주의를 기울일 때 일정한 길을 따라간다. 그런데 그 길이 비판을 견디지 못하는 표상으로 우리를 이끌면, 우리는 거기서 멈추고 더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그렇게 시작되었다가

버려진 생각의 흐름은, 주의를 억지로 되돌려 놓을 만큼 강도가 유난히 뚜렷한 지점에 이르지 않는 한, 주의를 되찾지 못한 채 계속 자아져 나갈 수 있는 듯하다. 그러므로 처음의 거부, 어쩌면 옳지 않다거나 그 사고 행위의 현재 목적에 쓸모없다는 이유로 판단이 의식적으로 내렸을 거부가, 어떤 사고 과정이 의식에 알아채이지 않은 채 잠이 들 때까지 이어지는 까닭을 설명해 줄 수 있다.

요약해 말하자면, 우리는 이런 생각의 흐름을 전의식적인 것이라고 부르며, 그것이 완전히 올바른 것이라고 믿는다. 또 그것은 그저 소홀히 된 것일 수도 있고, 중단되어 억제된 것일 수도 있다. 이 표상의 흐름을 우리가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도 솔직히 말해 두자. 우리는, 집중 에너지라고 부르는 일정한 흥분량이 목적 표상에서 출발해 그 목적 표상이 고른 연상 통로를 따라 전치된다고 믿는다. 「소홀히 된」 생각의 흐름은 그런 집중을 받지 못했고, 「억제된」 또는 「거부된」 생각의 흐름에서는 이 집중이 거두어졌다. 그러니 둘 다 제 충동에 내맡겨진 셈이다. 에너지를 비축한, 목표를 향한 생각의 흐름은 일정한 조건에서 의식의 주의를 제 쪽으로 끌어당길 수 있으며, 그렇게 해서 「에너지의 잉여」를 받는다. 의식의 본성과 활동에 관한 우리의 가정은 조금 뒤에 밝혀야 할 것이다.

이렇게 전의식계에서 촉발된 생각의 흐름은 저절로 사라질 수도 있고 계속 이어질 수도 있다. 앞의 결말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 생각의 흐름은 제 에너지를 자기에게서 뻗어 나가는 모든 연상 통로로 퍼뜨려 생각의 사슬 전체를 흥분 상태에 빠뜨리는데, 이 흥분 상태는 한동안 이어지다가, 출구를 요구하는 흥분이 휴면 에너지로 변환되면서 가라앉는다.[21] 이 첫째 결말에 이르면 그 과정은 꿈 형성에 더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나 우리의 전의식 속에는 다른 목적 표상들이 도사리고 있으며, 이것들은 우리 무의식의 원천과 늘 활동하는

소원들에서 나온다. 이 목적 표상들은 그렇게 홀로 내버려진 생각의 권역 안에 있는 흥분들을 장악하고, 그 권역과 무의식적 소원 사이에 연결을 세우며, 무의식적 소원에 깃든 에너지를 그리로 옮겨 줄 수 있다. 이때부터 소홀히 되었거나 억제된 생각의 흐름은 스스로를 유지할 수 있는 처지가 된다. 다만 이렇게 힘을 보강받아도 의식에 이르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금까지 전의식적이던 생각의 흐름이 무의식 속으로 끌려 들어갔다고 말할 수 있겠다.

전의식적인 생각의 흐름이 처음부터 무의식적 소원과 이어져 있어서 그 때문에 지배적인 목표 집중에 거부당했다면, 또는 무의식적 소원이 다른 — 어쩌면 신체적인 — 이유로 활성화되어 전의식계가 집중하지 않은 심리적 잔재로 스스로 전이를 꾀했다면, 꿈 형성의 다른 배치가 생겨났을 것이다. 세 경우는 모두 결국 한 가지 결말로 모인다. 곧 전의식 안에, 전의식적 집중에게서 버림받고 무의식적 소원에게서 집중을 받는 생각의 흐름이 하나 자리 잡는 것이다.

이때부터 생각의 흐름은 일련의 변형을 겪는데, 우리는 이 변형을 더는 정상적인 심리적 과정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그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결과, 곧 정신병리적 형성물을 내놓는다. 이 변형들을 두드러지게 짚어 한데 묶어 보자.

1. 개개 표상의 강도가 통째로 방출될 수 있게 되고, 한 관념에서 다른 관념으로 옮아가면서 뚜렷한 강도를 지닌 개별 표상들을 이룬다. 이 과정이 거듭 되풀이되면 마침내 생각의 흐름 전체의 강도가 표상 요소 하나에 모일 수 있다. 이것이 우리가 6장에서 알게 된 **압축**의 원리다. 꿈이 주는 낯선 인상은 주로 압축 탓인데, 의식이 다가갈 수 있는 정상적인 정신생활에서는 그와 비슷한 것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기서도 생각의 사슬 전체의 결절점이나 최종 결과로서 큰 심리적 의의를 지니는 표상들을 볼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유효성은 내적

지각에 띌 만큼 두드러진 특징으로는 드러나지 않으며, 그래서 그 표상에 담긴 것이 조금이라도 더 강렬해지는 일은 없다. 압축 과정에서는 심리적 연관 전체가 표상 내용의 강도로 바뀐다. 책에서 본문을 이해하는 데 특히 중요한 낱말을 자간을 띄워 찍거나 굵은 글씨로 인쇄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말로 할 때라면 같은 낱말을 크고 또박또박, 힘주어 발음할 것이다. 첫째 비유는 곧바로 6장 (가)에서 든 예(이르마의 주사 꿈에 나오는 트리메틸아민)로 우리를 이끈다. 미술사가들은, 역사상 가장 오래된 조각들이 표현된 인물의 지위를 조상(彫像)의 크기로 나타내면서 비슷한 원리를 따른다는 데 우리의 주의를 돌린다. 왕은 수행원이나 정복당한 적보다 두세 배 크게 만들어진다. 그러나 로마 시대의 어느 미술품은 같은 목적을 이루는 데 더 섬세한 수단을 쓴다. 황제의 형상은 한가운데에 꼿꼿이 선 자세로 놓이고, 그 모습을 제대로 빚어내는 데 각별한 공을 들이며, 그의 적들은 그의 발치에 웅크리고 있다. 그러나 그는 더는 난쟁이들 사이의 거인으로 표현되지 않는다. 오늘날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허리를 굽혀 절하는 것도 저 오래된 표현 원리의 메아리일 뿐이다.

꿈의 압축이 나아가는 방향은 한편으로는 꿈 사고의 참된 전의식적 관계가, 다른 한편으로는 무의식 속 시각적 회상이 끌어당기는 힘이 정한다. 압축 작업이 성공하면 지각 체계로 침투하는 데 필요한 강도가 생겨난다.

2. 게다가 강도의 이런 자유로운 전이 가능성 덕분에, 그리고 압축에 이바지하면서, 말하자면 타협물이라 할 **중간 표상**이 만들어진다(수많은 예 참조). 이것 역시 정상적인 표상의 흐름에서는 들어 보지 못한 일이다. 정상적인 표상의 흐름에서는 무엇보다 「알맞은」 표상 요소를 골라서 붙들어 두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이다. 반면 전의식적 사고에

맞는 언어 표현을 찾으려고 애쓸 때에는 합성 형성물과 타협 형성물이 유난히 자주 생긴다. 이것들은 「말실수」로 간주된다.

3. 서로 강도를 옮겨 주는 표상들은 아주 느슨하게 이어져 있으며, 진지한 사고에서는 멸시당하고 재치의 효과를 낼 때에나 쓰이는 연상 형식으로 결합된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소리가 같거나 울림이 비슷한 데 기대는 유형의 연상이 눈에 띈다.

4. 서로 모순되는 사고들은 서로를 없애려 애쓰지 않고 나란히 남아 있다. 그것들은 흔히 마치 모순이 없다는 듯이 합쳐져 압축을 이루거나, 사고에서라면 결코 용서하지 않겠지만 행동에서는 자주 용인하는 타협을 이룬다.

앞서 합리적으로 형성된 사고들이 꿈 작업 도중에 겪는 비정상적인 과정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 몇 가지가 이것이다. 이 과정들의 주된 특징으로 우리는, 집중 에너지를 이동 가능하고 방출 가능하게 만드는 일에 큰 비중이 실린다는 점을 알아본다. 이 에너지가 들러붙어 있는 심리적 요소의 내용과 본래 의미는 부차적인 문제가 된다. 압축과 타협 형성은 사고를 영상으로 바꿀 계기가 생겼을 때 퇴행에 이바지하려고만 일어난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영상으로의 퇴행이 없는 꿈, 예컨대 「Autodidasker — 궁정 고문관 N.과의 대화」 꿈을 분석해 보면, 그리고 더욱 뚜렷하게는 종합해 보면, 다른 꿈들과 똑같은 전치와 압축의 과정이 드러난다.

그러므로 본질적으로 다른 두 종류의 심리적 과정이 꿈 형성에 참여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는 정상적인 사고와 대등한, 완전히 올바른 꿈 사고를 만들어 내고, 다른 하나는 이 생각들을 몹시 놀랍고도 올바르지 않은 방식으로 다룬다. 뒤의 과정을 우리는 이미 6장에서 본래의 꿈 작업으로 따로 떼어 놓았다. 이제 이 뒤의 심리적 과정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내놓을 수 있는가?

신경증, 특히 히스테리의 심리학 속으로 꽤 깊이 파고들어 가 보지 않았더라면, 여기서 이 물음에 답할 수 없었을 것이다. 거기서 우리는 이와 똑같은 올바르지 않은 심리적 과정이 — 여기 열거하지 않은 다른 과정들과 함께 — 히스테리성 증상의 형성을 지배한다는 것을 배운다. 히스테리에서도 우리는 곧바로, 우리의 의식적 사고와 대등한 완전히 올바른 일련의 사고를 발견한다. 그러나 그 사고들이 이런 형태로 존재한다는 것은 알 길이 없고, 나중에야 재구성할 수 있을 뿐이다. 그 사고들이 어딘가에서 우리의 지각으로 밀고 들어왔다면, 형성된 증상을 분석해 보고서 우리는 이 정상적인 사고들이 비정상적인 취급을 받아 압축과 타협 형성을 통해, 피상적인 연상을 거쳐, 모순을 덮어 가린 채, 그리고 마침내 퇴행의 길을 거쳐 증상으로 변형되었다는 것을 알아낸다. 꿈 작업의 특성과 정신신경증 증상을 형성하는 심리적 활동의 특성 사이에 완전한 동일성이 있다는 것을 보았으니, 히스테리가 우리에게 강요하는 결론을 꿈에 옮겨 적용해도 정당하다고 느낄 것이다.

히스테리 이론에서 우리는 다음 명제를 빌려 온다. 정상적인 생각의 흐름이 이처럼 비정상적인 심리적 가공을 겪는 것은, 그 생각의 흐름이 유년기 생활에서 비롯되어 억압 상태에 있는 무의식적 소원의 전이에 쓰였을 때뿐이다. 이 명제에 따라 우리는 꿈을 추동하는 꿈 소원이 언제나 무의식에서 비롯된다는 가정 위에 꿈 이론을 세웠는데, 우리 스스로 인정했듯이 이 가정은 보편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지만 반박할 수도 없다. 그러나 우리가 그토록 거리낌 없이 써 온 억압이라는 용어의 참뜻을 밝히려면, 우리의 심리학적 구조물에 무언가를 좀 더 덧붙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위에서 원시적 심리 장치라는 허구를 공들여 그려 보았다. 이 장치의 작업은 흥분이 쌓이는 것을 피하고 될 수 있는 대로 흥분 없는 상태를 유지하려는 노력으로 조절된다. 그래서 이 장치는 반사 장치의 설계에 따라 만들어졌다. 본래 몸 내부의 변화로 가는 길이던 운동성이,

장치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방출 통로를 이루었다. 이어서 우리는 충족 체험이 가져오는 심리적 결과를 논의했는데, 그때 둘째 가정도 함께 끌어들일 수 있었을 것이다. 곧 흥분이 쌓이면 — 여기서 우리가 상관하지 않는 어떤 양식에 따라 — 불쾌로 지각되어, 흥분의 감소가 쾌로 지각되는 충족 체험을 다시 불러오도록 장치를 움직인다는 가정이다. 불쾌에서 출발해 쾌를 향해 나아가는, 장치 안의 이런 흐름을 우리는 소원이라고 부른다. 우리는 소원 말고는 아무것도 장치를 움직일 수 없으며, 장치 안의 흥분 방출은 쾌와 불쾌의 지각으로 자동 조절된다고 말했다. 최초의 소원은 충족의 기억을 환각적으로 집중하는 것이었음이 틀림없다. 그러나 이 환각은 기진맥진할 때까지 유지되지 않는 한 욕망을 그치게 하지 못했고, 따라서 충족과 결부된 쾌를 확보하지도 못했다.

그래서 둘째 활동, 우리 용어로 말하면 둘째 체계의 활동이 필요해졌다. 이 활동은 기억 집중이 지각으로까지 나아가 거기서부터 심리적 힘을 묶어 두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욕구 자극에서 나오는 흥분을 자발적 운동성을 거치는 우회로로 이끌어야 했으며, 그 운동성은 마침내 외부 세계를 바꾸어 놓음으로써 충족 대상을 실제로 지각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했다. 여기까지 우리는 심리 장치의 설계를 그려 보았다. 이 두 체계는, 우리가 완전히 발달한 장치 안에 설정하는 무의식계와 전의식계의 싹이다.

운동성을 통해 외부 세계를 성공적으로 바꿀 수 있으려면, 기억 체계에 많은 경험이 쌓여야 하고, 여러 목적 표상이 이 기억 재료 속에서 불러일으키는 관계들이 다양하게 고정되어야 한다. 이제 우리의 가정을 더 밀고 나가 보자. 에너지를 시험 삼아 내보냈다 거두어들이는 둘째 체계의 다양한 활동은, 한편으로는 모든 기억 재료를 마음대로 부릴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개개의 사고 통로에 많은 양의

에너지를 보낸다면 그것은 둘째 체계로서는 쓸데없는 비용일 것이다. 그 에너지는 아무 목적 없이 유출되어 외부 세계를 바꾸는 데 쓸 수 있는 양을 줄여 놓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합목적성을 위해, 둘째 체계가 집중 에너지의 대부분을 휴면 상태로 붙들어 두고 작은 일부만을 전치에 쓰는 데 성공한다고 상정한다. 이 과정들의 기제를 나는 전혀 모른다. 이런 생각을 끝까지 따라가 보려는 사람은 물리적 유비를 찾아내고, 뉴런이 자극될 때의 운동 과정을 증명할 길을 닦아야 할 것이다. 나는 다만 이런 생각을 고수할 뿐이다. 첫째 Ψ-체계의 활동은 **흥분량의 자유로운 유출을** 지향하며, 둘째 체계는 자기에게서 나오는 에너지로 이 유출을 제지한다. 즉 둘째 체계는 **아마 수준을 높임으로써 휴면 에너지로의 변환을** 일으킨다. 그러므로 나는 둘째 체계의 지배 아래에서는 첫째 체계의 지배 아래에서와 달리 흥분의 경과가 전혀 다른 역학적 조건에 매인다고 가정한다. 둘째 체계는 시험 삼아 하는 사고 작업을 마치고 나면 흥분의 제지와 정체를 풀어, 그 흥분이 운동성으로 유출되게 한다.

둘째 체계가 방출을 이렇게 제지하는 것이 불쾌 원칙(principle of pain)에 따른 조절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흥미로운 생각의 흐름이 떠오른다. 이제 일차적 충족 체험의 짝, 곧 객관적인 두려움 체험을 찾아보자. 지각 자극 하나가 원시적 장치에 작용해 불쾌한 정동의 원천이 된다고 하자. 그러면 불규칙한 운동 표출이 잇따르다가 그 가운데 하나가 장치를 지각에서, 동시에 불쾌에서 빼내게 되는데, 지각이 다시 나타나면 이 표출은 곧바로 (이를테면 도피 운동으로) 되풀이되고 지각이 다시 사라질 때까지 이어질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불쾌의 원천에 대한 지각을 환각의 형태로든 다른 어떤 형태로든 다시 집중하려는 경향은 남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일차적 장치에는 불쾌한 기억 이미지가 어떻게든 깨어나기만 하면 곧바로

그것을 버리려는 경향이 있을 것이다. 그 흥분이 넘쳐흐르면 틀림없이 불쾌를 일으킬(더 정확히 말하면 일으키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이다. 기억을 비켜 가는 일은 예전에 지각에서 달아났던 일을 되풀이하는 것일 뿐인데, 이 일은 기억이 지각과 달리 의식을 흥분시켜 새로운 에너지를 제 쪽으로 끌어올 만한 성질을 넉넉히 지니지 못한다는 사실 덕분에 더 쉬워지기도 한다. 심리적 과정이 예전의 불쾌한 기억을 이처럼 쉽게, 그리고 규칙적으로 비켜 가는 일은 우리에게 **심리적 억압**의 본보기이자 첫 사례를 보여 준다. 널리 알려져 있듯이, 불쾌한 것을 이렇게 비켜 가는 일의 상당 부분, 곧 타조가 하는 행동의 상당 부분은 성인의 정상적인 정신생활에서도 쉽사리 증명할 수 있다.

그러므로 불쾌 원칙 때문에 첫째 체계는 불쾌한 것을 사고의 연관 속으로 끌어들이는 일을 도무지 할 수 없다. 첫째 체계는 소원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사정이 그대로라면, 경험으로 쌓인 모든 기억을 마음대로 쓸 수 있어야 할 둘째 체계의 사고 활동이 방해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두 길이 열린다. 둘째 체계의 작업은 불쾌 원칙에서 완전히 벗어나 불쾌한 회상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제 길을 가거나, 아니면 불쾌가 풀려나지 않도록 하는 방식으로 불쾌한 기억을 집중할 방도를 찾아낸다. 첫째 가능성은 물리쳐도 좋다. 불쾌 원칙은 둘째 체계의 정동 방출을 조절하는 조절기로도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둘째 가능성으로 이끌린다. 곧 이 체계는 회상의 방출을 제지하는 방식으로, 따라서 불쾌를 발생시키는, 운동 신경 자극에 견줄 만한 방출도 제지하는 방식으로 회상을 집중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두 출발점, 곧 불쾌 원칙에 대한 고찰과 신경 자극의 비용을 최소로 한다는 원칙에서, 우리는 둘째 체계를 통한 집중이 동시에 정동 방출에 대한 제지라는 가설에 이른다. 그러나 다음 사실을 꼭 붙들어 두기로 하자. 이것이 억압 이론의 열쇠다. 곧 둘째 체계는 어떤 표상에서 나오는

불쾌의 발생을 막을 수 있는 처지에 있을 때에만 그 표상을 집중할 수 있다. 이 제지를 빠져나가는 것은 무엇이든 둘째 체계에게도 다가갈 수 없는 것으로 남으며, 불쾌 원칙 때문에 곧 버려질 것이다. 그렇지만 불쾌의 제지가 완전할 필요는 없다. 불쾌가 시작되는 것만큼은 허용되어야 한다. 그것이 둘째 체계에게 그 기억의 성질을 알려 주고, 어쩌면 정신이 추구하는 목적에 그 기억이 잘 들어맞지 않는다는 것도 알려 주기 때문이다.

첫째 체계만이 허용하는 심리적 과정을 나는 이제 **일차 과정**(primary process)이라 부르고, 둘째 체계의 제지에서 생겨나는 과정을 **이차 과정**(secondary process)이라 부르겠다. 다른 한 가지 점을 들어, 둘째 체계가 무엇 때문에 일차 과정을 바로잡을 수밖에 없는지 보여 주겠다. 일차 과정은 흥분을 방출해, 그렇게 모인 흥분량으로 **지각 동일성**을 이루려고 애쓴다. 이차 과정은 이 의도를 버리고, 그 대신 **사고 동일성**을 이루는 과제를 떠맡았다. 모든 사고는, 목적 표상으로 삼은 충족의 기억에서 출발해 같은 기억을 동일하게 집중하는 데 이르는 우회로일 뿐이며, 이 동일한 집중에는 운동 경험의 궤도를 따라 다시 도달해야 한다. 사고라는 상태는 표상들 사이의 연결 통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표상들의 강도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표상들에서 일어나는 압축과 중간 형성물 또는 타협 형성물이 이 목표 동일성에 이르는 것을 가로막는다는 것은 뻔하다. 그것들은 한 표상을 다른 표상으로 바꿔 놓음으로써, 그렇지 않았다면 원래의 표상에서 이어졌을 길에서 벗어나 버린다. 그래서 이차적 사고에서는 이런 과정을 조심스럽게 피한다. 불쾌 원칙 역시, 생각의 흐름에 가장 중요한 출발점을 제공하기는 하지만, 사고 동일성을 추구하는 생각의 흐름이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지 않다. 그러므로 사고 과정은 불쾌 원칙에 의한 배타적 조절에서 점점 더 벗어나, 정신의

작업을 통해 정동의 발생을 신호로서 필요한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런 활동의 세련화는 의식이 가져오는 새로운 에너지 과잉 집중으로 이루어졌음이 틀림없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이 세련화는 가장 정상적인 정신생활에서도 완전히 성공하는 일이 드물며, 우리의 사고는 불쾌 원칙이 끼어들어 변조될 여지를 늘 안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이차적 정신 작업의 재료를 이루는 사고가 일차적 심리 과정 속으로 흘러들 수 있게 해 주는, 우리 심리 장치의 기능 효율에 난 틈이 아니다 — 꿈과 히스테리성 증상으로 이어지는 작업을 이제 우리는 이 공식으로 기술할 수 있다. 이런 기능 부족의 경우는 우리 발달사의 두 요인이 합쳐져 생긴다. 그 가운데 하나는 오로지 심리 장치에 속하며 두 체계의 관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쳐 왔고, 다른 하나는 들쭉날쭉 작용하면서 기관에서 비롯된 추진력을 정신생활 속으로 끌어들인다. 두 요인은 모두 유년기 생활에서 비롯되며, 유년기 이래 우리의 심리적·신체적 유기체가 겪어 온 변형의 결과다.

심리 장치 안의 심리적 과정 가운데 하나를 일차 과정이라고 이름 붙였을 때, 나는 서열과 능력만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시간적 관계도 이름 짓는 데 한몫 끼게 할 생각이었다. 우리가 아는 한 일차 과정만 지닌 심리 장치는 없으며, 그런 한에서 그것은 이론적 허구다. 그러나 일차 과정은 처음부터 장치 안에 있는 반면, 이차 과정은 살아가는 동안 차츰 발달해 일차 과정을 제지하고 덮으며, 어쩌면 인생의 절정기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일차 과정을 완전히 지배하게 된다는 것만큼은 사실에 근거한다. 이차 과정이 이렇게 늦게 나타나기 때문에, 무의식적 소원 충동으로 이루어진 우리 존재의 핵심은 전의식이 붙잡을 수도 제지할 수도 없다. 전의식의 몫은, 무의식에서 비롯된 소원 충동에게 가장 알맞은 길을 가리켜 주는 일로 영영 제한되어 있다. 이 무의식적

소원들은 그 뒤의 모든 심리적 노력에 강제를 가한다. 그 노력들은 이 강제에 따를 수밖에 없으며, 할 수만 있다면 그것을 제 길에서 돌려세워 더 높은 목표로 이끌려고 애써야 한다. 전의식적 집중이 이처럼 늦어진 결과, 기억 재료의 넓은 영역이 다가갈 수 없는 채로 남는다.

유년기 생활에서 비롯된, 파괴할 수 없고 거칠 것 없는 이 소원 충동들 가운데에는, 그 성취가 이차적 사고의 목적 표상과 모순 관계에 들어서게 된 것들도 있다. 이 소원들이 성취되면 더는 쾌의 정동이 아니라 불쾌의 정동이 생겨날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 정동 변환이야말로 우리가 「억압」이라고 부르는 것의 본질을 이루며, 우리는 억압에서, 단죄 곧 이성으로 물리치는 일이 유년기에 내딛는 첫걸음을 알아본다. 이런 변환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추진력으로 일어날 수 있는지를 탐구하는 것이 억압의 문제인데, 여기서는 이 문제를 스치듯 건드리기만 하면 된다. 이런 정동 변환이 발달 과정에서 일어난다는 것(본래는 없던 혐오가 유년기 생활에 나타나는 것을 떠올려 보면 된다), 그리고 그것이 이차 체계의 활동과 이어져 있다는 것을 말해 두면 충분하다. 무의식적 소원이 정동 방출을 일으키는 출발점인 기억들은 전의식계가 한 번도 다가갈 수 없었던 것이며, 그 때문에 그 기억들의 정동 방출은 제지될 수 없다. 바로 이 정동 발생 때문에, 이 표상들은 자기가 소원의 힘을 옮겨 준 전의식적 사고에게조차 지금도 다가갈 수 없는 것으로 남아 있다. 오히려 불쾌 원칙이 작동해 전의식계가 이 전이 사고를 비켜 가게 만든다. 이렇게 내버려진 전이 사고는 「억압된」 것이 되며, 이로써 처음부터 전의식계에서 물러나 있던 유년기 기억의 저장고가 존재한다는 것이 억압의 전제 조건이 된다.

가장 유리한 경우에는 전의식계 안의 전이 사고에서 에너지가 거두어지자마자 불쾌의 발생이 그치며, 이 효과는 불쾌 원칙의 개입이 합목적적임을 보여 준다. 그러나 억압된 무의식적 소원이 기관에서 오는

강화를 받아 그것을 제 전이 사고에게 빌려줄 수 있고, 그 강화로 전이 사고가 전의식계의 집중에게서 버림받은 뒤에도 제 흥분을 가지고 침투하려 애쓸 수 있게 해 준다면 사정은 달라진다. 그러면 방어 투쟁이 벌어진다. 전의식계가 억압된 표상에 맞서는 대항을 강화하기 때문이며, 그 뒤 이 투쟁은 전이 사고(무의식적 소원의 운반자)가 증상 형성을 통해 어떤 타협의 형태로 침투하는 데로 이어진다. 그러나 억제된 사고가 무의식적 소원 충동에게 강하게 집중을 받고 전의식적 집중에게서 버림받는 순간부터, 그 사고는 일차적 심리 과정에 굴복하여 오직 운동 방출만을, 또는 길이 트여 있다면 바라던 지각 동일성을 환각으로 되살리는 것만을 추구한다. 앞서 우리는 경험적으로, 앞에서 기술한 올바르지 않은 과정들이 억압 속에 있는 사고에서만 일어난다는 것을 알아냈다. 이제 우리는 그 연관의 또 다른 부분을 파악한다. 이 올바르지 않은 과정들은 심리 장치 안에서 일차적인 과정이다. 그것들은 전의식적 집중에게서 버림받은 사고가 홀로 내버려져, 무의식에서 나와 방출을 추구하는, 제지되지 않은 에너지로 제 몸을 채울 수 있는 곳이면 어디서나 나타난다. 「올바르지 않다」고 불리는 이 과정들이 사실은 정상적인 것의 변조, 곧 결함 있는 사고가 아니라 제지에서 풀려났을 때의 심리 장치의 활동 방식이라는 견해를 뒷받침하는 관찰을 몇 가지 더 보탤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전의식적 흥분이 운동성으로 전이되는 일도 같은 과정에 따라 일어나며, 전의식적 표상이 낱말과 결합할 때에도 부주의 탓으로 돌려지는 똑같은 전치와 혼합이 쉽사리 나타난다는 것을 본다. 끝으로, 이런 일차적 경과를 제지하는 데에는 반드시 작업의 증가가 따른다는 증거를 하나 들고 싶다. 이런 생각의 흐름이 의식에 이르도록 내버려 두면, 우리는 희극적 효과, 곧 웃음으로 방출되어야 할 잉여를 얻는다는 사실이 그것이다.

정신신경증 이론은, 어린 시절의 발달기에 억압(정동 변환)을 겪는 것은 오직 유년기 생활에서 온 성적 소원 충동뿐이라고 완전히 확신하며 주장한다. 이 소원 충동들은 나중의 발달기에 다시 활동할 수 있으며, 본래의 양성성에서 형성되는 성적 체질의 결과로, 또는 성생활의 불리한 영향의 결과로 되살아날 능력을 지닌다. 그렇게 해서 이것들은 모든 정신신경증 증상 형성에 추진력을 대 준다. 이 성적 힘들을 끌어들여야만 억압 이론에 아직 드러나 보이는 빈틈을 메울 수 있다. 성적인 것과 유년기적인 것이라는 요청을 꿈 이론에서도 주장할 수 있는지는 미결로 남겨 두겠다. 꿈 소원은 언제나 무의식에서 비롯된다고 가정하면서 나는 이미 증명할 수 있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갔기에, 이 문제는 여기서 미완으로 남겨 둔다.[22] 꿈 형성과 히스테리성 증상 형성에서 심리적 힘들의 작용이 어떻게 다른지도 더 파고들지 않겠다. 그러려면 비교할 두 항 가운데 하나에 대해 더 분명한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다른 한 가지를 중요하게 여기며, 두 심리 체계와 그 작동 방식과 억압에 관한 이 논의 전체를 방금 벌인 것도 바로 그 한 가지 때문이었음을 여기서 고백해 두겠다. 내가 문제의 심리학적 관계를 대체로 올바르게 파악했는지, 아니면 이토록 어려운 문제에서 쉽게 그럴 수 있듯이 그릇되고 단편적으로 파악했는지는 이제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심리적 검열과, 꿈 내용의 올바른 가공 및 비정상적 가공을 어떻게 달리 해석하게 되든, 그런 과정들이 꿈 형성에서 작용하며 본질적으로 히스테리성 증상 형성에서 관찰되는 과정과 더없이 가까운 유비를 보인다는 사실은 그대로 남는다. 그런데 꿈은 병리적 현상이 아니며, 정신 능력의 쇠약을 뒤에 남기지도 않는다. 내 꿈과 신경증 환자의 꿈에서 건강한 사람의 꿈에 관해 아무것도 추론할 수 없다는 반론은 논평 없이 물리쳐도 좋다. 그러므로 현상에서 그 추진력을 추론해 보면, 신경증이 이용하는 심리 기제는

정신생활의 병적 장애가 만들어 낸 것이 아니라 심리 장치의 정상적인 구조 안에 이미 마련되어 있음을 알게 된다. 두 심리 체계, 그 사이를 가로지르는 검열, 한 활동이 다른 활동을 제지하고 덮는 일, 두 체계가 의식과 맺는 관계 — 또는 이것들 대신 실제 사정을 더 올바르게 해석해 줄 수 있는 무엇이든 — 이 모든 것은 우리 심리 장치의 정상적인 구조에 속하며, 꿈은 이 구조를 아는 데 이르는 길 가운데 하나를 우리에게 가리켜 준다. 우리 지식에 보탤 것으로서 완벽하게 확증된 최소한에 만족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꿈이 억제된 재료가 정상적인 사람에게서도 계속 존재하며 심리적 활동을 할 능력을 잃지 않는다는 증거를 제공한다고 말할 것이다. 꿈 자체가 이 억제된 재료의 표출 가운데 하나다. 이론적으로는 모든 경우에 그렇고, 실질적인 경험에 따르면 적어도 꿈 생활의 두드러진 특징을 가장 눈에 띄게 보여 주는 꿈들 가운데 상당수에서 그렇다. 깨어 있는 상태에서는 모순들의 대립적 조정 때문에 표현을 가로막히고 내적 지각에서 차단되어 있던 억제된 심리적 재료는, 밤이 되면 타협 형성물의 지배 아래에서 의식으로 밀고 들어올 길과 방도를 찾아낸다.

「Flectere si nequeo superos, Acheronta movebo.」〔천상의 신들을 꺾을 수 없다면, 저승을 움직이리라〕

어쨌든 꿈 해석은 정신생활 속 무의식을 아는 데 이르는 via regia〔왕도〕다.

꿈의 분석을 따라가면서 우리는, 모든 장치 가운데 가장 경이롭고 가장 신비로운 이 장치의 구성을 이해하는 쪽으로 조금 나아갔다. 물론 그리 멀리 가지는 못했지만, 이른바 병적인 다른 형성물들에서 출발해 무의식의 분석으로 더 나아갈 수 있을 만큼의 첫걸음은 떼었다. 병은 — 적어도 기능적이라고 불러 마땅한 병은 — 이 장치가 파괴되거나 그 내부에 새로운 분열이 생겨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병은 오히려, 정상적으로 기능할 때 그토록 많은 활동을 가려 버리는 힘들의 상호

작용 속에서 구성 요소들이 강해지고 약해지는 것으로 역동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장치가 두 체계로 이루어져 있기에 정상적인 활동조차 단일한 체계로는 불가능했을 만큼 섬세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른 곳에서 보여 줄 수 있었다.[23]

(바) 무의식과 의식 — 현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장 (마)의 심리학적 논의에서 우리가 그 존재를 가정하고 설명한 것은 장치의 운동 말단 가까이에 있는 두 체계가 아니라 두 종류의 과정 또는 정동 방출 방식이었음을 알게 된다. 그렇다고 우리에게 달라질 것은 없다. 미지의 실재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다른 무언가로 보조 관념을 바꿀 수 있겠다고 판단될 때면, 우리는 언제든 그 보조 관념을 버릴 채비가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가 두 체계를 가장 조잡하고 뻔한 의미에서 심리 장치 안의 두 장소로 여기는 동안 잘못 생겨났을 법한 몇몇 견해를 바로잡아 보자. 그런 견해들은 「억압」과 「침투」라는 용어에 흔적을 남겼다. 그러니까 무의식적 표상이 나중에 의식에 침투하기 위해 전의식으로 전이되려고 애쓴다고 말할 때, 새로운 장소에 두 번째 표상이 생겨나 그대로 남아 있는 원래의 표상 곁에 마치 행간에 써넣은 글처럼 자리 잡는다는 뜻으로 하는 말이 아니다. 또 의식으로 침투한다고 말할 때에도 우리는 장소가 바뀐다는 생각은 무엇이든 조심스럽게 피하려 한다. 전의식적 표상이 억압되고 이어서 무의식에 받아들여진다고 말할 때에는, 영토를 둘러싼 싸움이라는 생각에서 빌려 온 이런 비유에 이끌려, 한 심리적 장소에서 어떤 배열이 실제로 해체되고 다른 장소에서 새로운 배열로 대체된다고 가정하고 싶어질지도 모른다. 우리는 이런 비유 대신 실제 사정에 더 잘 들어맞을 듯한 말을 쓴다. 곧

어떤 에너지 집중이 특정한 배열로 전치되거나 그 배열에서 거두어짐으로써, 심리적 형성물이 한 체계의 지배 아래 들어가거나 그 지배에서 벗어난다고 말하는 것이다. 여기서도 우리는 장소론적 표현 방식을 역동적 표현 방식으로 바꾸는 셈이니, 우리에게 움직이는 요인으로 보이는 것은 심리적 형성물이 아니라 그것의 신경 자극이다.

그렇지만 두 체계라는 직관적인 관념을 앞으로도 계속 활용하는 것이 알맞고 또 정당하다고 나는 생각한다. 표상과 사고와 심리적 형성물은 대체로 신경계의 기관적 요소 속에 자리 잡게 할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그 요소들 사이, 곧 저항과 통로가 그것들에 대응하는 상관물을 이루는 곳에 자리 잡게 해야 한다는 점만 기억한다면, 이런 표현 방식을 잘못 적용하는 일은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내적 지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모두, 광선이 지나가면서 망원경 안에 맺히는 상이 그렇듯이 허상이다. 그러나 망원경에서 상을 그려 내는 렌즈에 해당하는 체계들이 존재한다고 가정하는 것은 정당하다. 이 체계들은 그 자체로는 심리적인 데가 전혀 없으며, 우리의 심리적 지각으로는 결코 다가갈 수 없다. 이 비유를 이어 가자면, 두 체계 사이의 검열은 광선이 새로운 매질로 넘어갈 때 일어나는 굴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 나름의 책임 아래 심리학을 해 왔다. 이제는 오늘날의 심리학을 지배하는 이론적 견해들을 살펴보고, 그것들이 우리의 이론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따져 볼 때다. 립스의 권위 있는 말을 빌리면,[24] 심리학에서 무의식의 문제는 심리학적 문제의 하나라기보다 심리학 그 자체의 문제다. 심리학이 「심리적인 것」은 곧 「의식적인 것」이며 「무의식적 심리 현상」은 뻔한 모순이라는 말풀이로 이 문제를 처리하는 한, 의사가 비정상적인 정신 상태에서 얻은 관찰을 심리학적으로 평가할 길은 막혀 있었다. 의사와 철학자는 무의식적 심리 과정이 「확증된 사실을 나타내는 적절하고도 충분히 정당한 표현」

이라는 것을 둘 다 인정할 때에만 서로 뜻이 맞는다. 「의식은 심리적인 것의 필수 불가결한 성질이다」 라는 주장을 의사는 어깨를 한번 으쓱하고 물리칠 수밖에 없다. 철학자들의 발언을 존중하는 마음이 아직 충분히 강하다면, 의사는 자기와 철학자들이 같은 대상을 다루지도, 같은 학문을 하지도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신경증 환자의 정신생활을 한 번만 지혜롭게 관찰해 보아도, 꿈 하나만 분석해 보아도, 의사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누구도 심리적 현상이라는 이름을 거절하지 못할 가장 복잡하고 올바른 정신작용이, 당사자의 의식을 불러일으키지 않고도 일어날 수 있다는 확신이다. 물론 의사가 이 무의식적 과정을 알게 되는 것은, 그 과정이 의식에 효과를 미쳐 전달이나 관찰이 가능해진 뒤의 일이다. 그러나 의식에 나타난 이 효과는 무의식적 과정과는 크게 다른 심리적 성격을 띨 수 있어서, 내적 지각은 하나를 다른 하나의 대리물로 도저히 알아볼 수 없다. 의사는 의식에 미친 효과에서 출발해 추론을 거쳐 무의식적 심리 과정까지 파고들어 갈 권리를 자기 몫으로 지켜야 하며, 그렇게 해서 의식에 미친 효과란 무의식적 과정에서 멀찍이 떨어져 나온 심리적 산물일 뿐이고, 무의식적 과정 자체는 그대로 의식된 적이 없으며, 의식에 조금도 제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 존재하고 작용해 왔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의식이라는 성질을 과대평가하던 데서 돌아서는 것이, 심리적인 것의 움직임을 올바로 통찰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전제 조건이 된다. 립스의 말대로, 무의식은 정신생활의 일반적 토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무의식은 의식적인 것이라는 작은 원을 제 안에 품고 있는 더 큰 원이다. 의식적인 것은 모두 무의식 속에 예비 단계를 두고 있지만, 무의식은 이 단계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심리적 활동으로서 온전한 가치를 주장할 수 있다. 엄밀히 말해 무의식이야말로 참된 심리적인 것이며, 그 내적 본성은

외부 세계의 실재만큼이나 우리에게 알려져 있지 않고, 외부 세계가 우리 감각 기관의 신호를 통해 불완전하게 전해지듯이 무의식도 의식의 자료를 통해 꼭 그만큼 불완전하게 우리에게 전해진다.

의식 생활과 꿈 생활을 맞세우던 오래된 대립을 버리고, 무의식적인 심리적인 것에 마땅한 자리를 내주면, 옛 저자들이 깊이 골몰했던 일련의 꿈 문제가 제쳐지게 된다. 그러면 꿈속에서 해낸 일로 우리의 감탄을 자아냈던 활동의 많은 부분은 이제 꿈의 몫이 아니라, 낮에도 활동하는 무의식적 사고의 몫으로 돌려야 한다. 셰르너의 말대로 꿈이 몸을 상징화해 표현하며 노니는 것처럼 보인다면, 우리는 그것이 아마도 성적 충동에 굴복한 어떤 무의식적 공상들이 해낸 일이며, 이 공상들이 꿈에서만이 아니라 히스테리성 공포증과 그 밖의 증상에서도 표현된다는 것을 안다. 꿈이 낮의 활동을 이어 가 매듭짓고 값진 영감까지 드러내 준다면, 우리는 거기서 꿈의 위장만 떼어 내면 된다. 그 위장은 꿈 작업이 이룬 솜씨이자 마음 깊은 곳의 어두운 힘이 거들었다는 표시다(타르티니의 소나타 꿈에 나오는 악마 참조). 지적 과업 자체는 낮 동안 그런 과업을 모두 해내는 바로 그 심리적 힘들의 몫으로 돌려야 한다. 우리는 지적·예술적 창작에서조차 그 의식적 성격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너무 강한 것 같다. 괴테나 헬름홀츠처럼 창작력이 누구보다 왕성했던 몇몇 사람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 실제로 그들 창작에서 가장 본질적이고 독창적인 부분은 영감의 형태로 찾아와 거의 완성된 채로 그들의 지각에 이르렀다고 한다. 모든 심리적 힘이 한데 뭉쳐 애쓴 다른 경우에 의식적 활동이 거들었다 해도 이상할 것은 없다. 그러나 의식적 활동이 자기가 끼어드는 곳마다 다른 모든 활동을 우리 눈에서 가려도 된다는 것은, 의식적 활동이 누리는, 몹시 남용되어 온 특권이다.

꿈의 역사적 의의를 따로 하나의 주제로 다룰 만한 가치는 거의 없을 것이다. 예를 들어 어느 족장이 꿈에 떠밀려 대담한 일을 벌였고, 그 일이 성공해 역사를 바꾸어 놓았다고 하자. 이때 새로운 문제가 생기는 것은 꿈을 낯선 힘으로 여겨 더 친숙한 다른 심리적 힘들과 맞세우는 동안뿐이다. 꿈을, 낮에는 저항에 짓눌려 있다가 밤이면 깊은 정동의 원천에서 힘을 보강받을 수 있는 충동들의 표현 형식으로 보면 문제는 사라진다.[25] 그러나 고대인들이 꿈에 보인 큰 존중은 올바른 심리학적 짐작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것은 인간 정신 속의 길들지 않은 것, 파괴할 수 없는 것에 바치는 경의이며, 꿈 소원을 대 주고 우리의 무의식 속에서 다시 찾아볼 수 있는 저 마성적인 것에 바치는 경의다.

내가 「우리의 무의식 속에서」라는 표현을 쓴 것은 무심코 한 일이 아니다.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 것은 철학자들의 무의식과도, 립스의 무의식과도 겹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두 용법에서 무의식은 그저 의식적인 것의 반대를 가리킬 뿐이다. 의식적인 과정 곁에 무의식적 심리 과정도 있다는 것, 이것이 뜨겁게 논박되고 힘차게 옹호되어 온 쟁점이다. 립스는 한층 더 나아간 이론을 내놓는다. 심리적인 것은 모두 무의식적인 것으로 존재하며, 그 가운데 일부가 의식적인 것으로도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꿈과 히스테리성 증상 형성이라는 현상을 끌어온 것은 이 이론을 증명하려고 한 일이 아니었다. 정상적인 생활을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이 이론이 옳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 없이 확증된다. 우리가 정신병리적 형성물을 분석해서, 그것도 그 첫째 항인 꿈을 분석해서 알게 된 새로운 사실은, 무의식이 — 따라서 심리적인 것이 — 서로 떨어진 두 체계의 기능으로 나타나며, 정상적인 정신생활에서도 이미 그렇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무의식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심리학자들은 아직 이 둘을 구별하지 않는다. 둘 다 심리학적 의미에서는 무의식적이다. 그러나 우리의

의미에서는, 우리가 무의식계라고 부르는 첫째 것은 의식될 수도 없다. 반면 둘째 것을 우리가 「 전의식계 」 라고 이름 붙이는 것은, 그 충동들이 일정한 규칙을 지키고 나면 의식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 어쩌면 그 전에 다시 한번 검열을 거쳐야 하겠지만, 그래도 무의식계와는 상관없이 이른다. 충동이 의식에 이르려면 바꿀 수 없는 일련의 사건, 곧 심급의 연쇄를 거쳐야 한다. 검열이 충동을 변형하는 데서 드러나는 이 사실 덕분에, 우리는 공간성에서 비유를 끌어올 수 있었다. 우리는 전의식계가 무의식계와 의식 사이의 칸막이와 같다고 말함으로써, 두 체계가 서로에 대해, 그리고 의식에 대해 맺는 관계를 기술했다. 전의식계는 의식으로 가는 길을 막을 뿐 아니라 수의적 운동성으로 들어가는 입구도 지배하며, 이동 에너지를 일정량 내보낼 수 있는데, 우리는 그 일부를 주의라는 이름으로 알고 있다.

최근의 정신신경증 문헌에서 크게 환영받는 초의식(superconscious)과 잠재의식(subconscious)이라는 구별도 우리는 멀리해야 하는데, 바로 그런 구별이 심리적인 것과 의식적인 것의 등가성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한때 전능하여 다른 모든 것을 그늘 아래 두었던 의식에게, 우리의 서술에서 이제 어떤 역할이 남는가? 심리적 성질을 지각하는 감각 기관의 역할, 오직 그것뿐이다. 도식을 세우려는 우리 시도의 기본 착상에 따르면, 의식적 지각은 독립된 한 체계의 고유한 활동으로밖에 파악할 수 없으며, 이 체계에는 「의식계(Cons.)」라는 약칭이 알맞다. 우리는 이 체계가 기계적 특성에서 지각 체계와 비슷하다고, 따라서 성질에 반응해 흥분할 수 있으되 변화의 흔적을 간직하지 못한다고, 즉 기억이 없다고 생각한다. 지각 체계의 감각 기관들로 외부 세계를 향하고 있는 심리 장치는 의식계의 감각 기관에 대해서는 그 자신이 외부 세계이며, 이 감각 기관이 목적론적으로 정당화되는 근거는 바로

이 관계에 있다. 여기서 우리는 장치의 구조를 지배하는 듯한 심급 연쇄의 원리와 다시 한번 마주친다. 흥분 상태의 재료는 두 방향에서 의식계 감각 기관으로 흘러드는데, 첫째는 지각 체계에서 오며 질적으로 규정된 지각 체계의 흥분은 의식적 지각에 이르기까지 아마 새로운 가공을 거칠 것이고, 둘째는 장치 자체의 내부에서 오며 장치 내부의 양적 과정은 일정한 변화를 겪자마자 쾌와 불쾌라는 질적 계열로 지각된다.

올바르고 매우 복잡한 사고 구조물이 의식의 협력 없이도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된 철학자들은, 의식에 어떤 기능을 부여해야 할지 난감해했다. 그들에게 의식은 이미 완성된 심리적 과정을 쓸데없이 되비추는 거울처럼 보였다. 우리의 의식계를 지각 체계에 빗대어 보면 이 곤혹에서 벗어날 수 있다. 우리는 감각 기관을 통한 지각이, 들어오는 감각 흥분이 퍼져 나가는 통로 쪽으로 주의의 집중을 향하게 한다는 것을 안다. 지각 체계의 질적 흥분은 심리 장치의 이동 가능한 양에 대해, 그 방출을 조절하는 조절기 구실을 한다. 그 위에 놓인 의식계의 감각 기관에도 같은 기능을 인정할 수 있다. 이 감각 기관은 새로운 성질을 받아들임으로써 이동 가능한 집중량을 이끌고 알맞게 배분하는 데 새로이 이바지한다. 또 쾌와 불쾌의 지각으로 심리 장치 안에서 집중이 흘러가는 경로에 영향을 미치는데, 심리 장치는 보통 무의식적으로, 양의 전치를 통해 작동한다. 처음에 집중의 전치를 자동으로 조절하는 것은 아마 불쾌 원칙일 것이다. 그러나 이 성질들을 의식하게 되면 둘째의, 더 섬세한 조절이 덧붙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이 조절은 첫째 조절에 맞서기까지 할 수 있고, 장치가 본래 설계와는 반대로 불쾌의 방출과 결부된 것까지 집중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처지에 놓이게 함으로써 장치의 작업 능력을 완성할 수 있다. 신경심리학에서 우리는, 장치의 기능 활동에서 감각 기관의 질적 흥분을 통한 이런

조절이 중요한 몫을 맡는다는 것을 배운다. 일차적 불쾌 원칙의 자동적 통제와 그에 따르는 정신 능력의 제한은 감각적 조절로 깨지는데, 이 조절 또한 다시 자동 기제다. 우리는 또 이런 것도 배운다. 억압은 본래 합목적적인 것이었으나 결국 제지와 심리적 지배를 해롭게 거부하는 데로 끝나고 마는데, 이 억압이 지각에서보다 회상에서 훨씬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회상에는 심리적 감각 기관의 흥분으로 집중이 늘어나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물리쳐야 할 표상이 한 번 억압에 굴복해 의식되지 못했다면, 그 표상이 다른 기회에 억압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것이 다른 이유로 의식적 지각에서 떨어져 나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것들이 치료가 이미 이루어진 억압의 되돌림을 이끌어 내려고 쓰는 실마리다.

의식계 감각 기관이 이동 가능한 양에 조절하는 영향을 미쳐 생겨나는 과잉 집중의 가치는, 목적론적 연관에서 볼 때 새로운 성질 계열이 만들어지고 그에 따라 새로운 조절이 생겨나는 데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인간이 동물보다 앞서는 점을 이루는 것이 바로 이 새로운 조절이다. 정신 과정은 그 자체로는, 거기 따르는 쾌와 불쾌의 흥분을 빼면 아무 성질도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흥분은 사고를 어지럽힐 수 있으므로 제어해 두어야 한다. 인간에게서는 정신 과정에 성질을 입히기 위해 정신 과정이 언어 기억과 연합되는데, 언어 기억의 질적 잔재는 의식의 주의를 정신 과정 쪽으로 끌어오기에 충분하고, 이 주의가 다시 사고에 새로운 이동 에너지를 부여한다.

의식을 둘러싼 갖가지 문제는 히스테리성 정신 과정을 분석해야만 그 전체를 살펴볼 수 있다. 이 분석에서 우리는 전의식에서 의식의 집중으로 넘어가는 데에도 무의식계와 전의식계 사이의 검열과 비슷한 검열이 따른다는 인상을 받는다. 이 검열 역시 일정한 양적 정도에 이르러야 비로소 작동하기 시작하므로, 강도 높은 사고 형성물 가운데

이 검열을 빠져나가는 것은 거의 없다. 의식에서 멀리 붙잡아 두는 일이든 제한을 받으며 의식에 침투하는 일이든, 있을 수 있는 경우는 모두 정신신경증 현상의 그림 속에 들어 있으며, 그 하나하나가 검열과 의식 사이의 긴밀하고 이중적인 연관을 가리킨다. 이런 일 두 가지를 보고하는 것으로 이 심리학적 논의를 마치려 한다.

몇 해 전 동료 의사와 함께 진찰하는 자리에서 만난 환자는 영리하고 순진해 보이는 아가씨였다. 옷차림이 이상했다. 여자의 옷이란 보통 마지막 주름 하나까지 매만져져 있기 마련인데, 이 아가씨는 스타킹 한 짝이 흘러내려 있었고 블라우스 단추 두 개가 풀려 있었다. 그녀는 한쪽 다리에 통증이 있다고 호소하더니, 청하지도 않았는데 다리를 드러내 보였다. 그러나 가장 큰 호소는 그녀 자신의 말로 하면 이러했다. 몸속에 무언가가 박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것이 이리저리 움직이며 온몸을 속속들이 떨게 한다는 것이었다. 그 때문에 때로는 온몸이 뻣뻣해진다고 했다. 이 말을 듣자 함께 진찰하던 동료가 나를 쳐다보았다. 그에게는 그 호소가 무슨 뜻인지 너무나 뻔했다. 우리 둘 다 기이하게 생각한 것은 환자의 어머니가 이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점이었다. 물론 어머니 자신도 딸이 묘사한 상황에 여러 번 놓였을 것이 틀림없다. 아가씨 쪽은 자기 말이 무슨 뜻인지 전혀 몰랐다. 알았다면 결코 그런 말을 입 밖에 내지 않았을 것이다. 여기서는 검열관이 감쪽같이 속아 넘어간 나머지, 그렇지 않았다면 전의식 속에 머물렀을 공상 하나가 순진한 호소라는 가면을 쓰고 의식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다.

또 하나의 예. tic convulsif〔경련성 틱〕, 히스테리성 구토, 두통 따위를 앓던 열네 살 소년의 정신분석 치료를 시작하면서, 나는 소년에게 눈을 감으면 영상이 보이거나 생각이 떠오를 것이라고 장담하고, 그것을 내게 알려 달라고 청했다. 소년은 영상을 묘사하는

것으로 대답했다. 나를 찾아오기 직전에 받은 마지막 인상이 그의 기억 속에 시각적으로 되살아난 것이다. 그는 삼촌과 체커를 두고 온 참이었는데, 이제 그 체커판이 눈앞에 보였다. 그는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형세며 두면 위험한 수들에 대해 이런저런 말을 했다. 그러더니 그는 체커판 위에 단검 한 자루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아버지의 물건이었지만, 그의 공상 속에서 체커판 위로 옮겨 놓인 것이었다. 이어서 판 위에 낫 한 자루가 놓였고, 다음에는 큰 낫이 더해졌으며, 마침내 그는 멀리 떨어진 본가 앞에서 풀을 베는 늙은 농부의 모습을 보았다. 며칠 뒤 나는 이 일련의 영상이 무슨 뜻인지 알아냈다. 소년은 언짢은 집안 사정 때문에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었다. 내막은 이러했다. 엄격하고 괴팍한 아버지는 어머니와 불행하게 살았고, 아버지가 아이를 가르치는 방법이란 위협이 전부였다. 그러다 아버지는 다정하고 여린 어머니와 헤어지고 재혼하여, 어느 날 젊은 여자를 새엄마라며 집에 데려왔다. 열네 살 소년의 병은 그 며칠 뒤에 터졌다. 이 영상들을 알아들을 수 있는 암시로 엮어 낸 것은 아버지에 대한 억제된 분노였다. 재료를 대 준 것은 신화에 대한 회상이었다. 낫은 제우스가 아버지를 거세할 때 쓴 바로 그 낫이었다. 큰 낫과 농부의 모습은 크로노스를 나타냈다. 제 자식들을 먹어 치우고, 제우스에게 그토록 불효막심한 복수를 당하는 난폭한 노인 말이다. 아버지가 결혼하자 소년에게는 아버지의 비난과 위협을 되돌려 줄 기회가 생겼다. 그 비난과 위협은 예전에 아이가 자기 성기를 가지고 놀았다고 해서 받은 것이었다 (체커판, 금지된 수,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단검). 여기에는 오래전에 억압된 기억과 그 무의식적 잔재가 있으며, 이것들이 무의미한 영상으로 위장한 채 자기들에게 열려 있던 우회로를 따라 의식 속으로 숨어든 것이다.

그러므로 꿈 연구의 이론적 가치는, 그것이 심리학적 지식에 이바지하고 신경증을 이해할 준비를 해 준다는 데 있으리라고 나는 기대한다. 지금 정도의 지식만으로도 치유할 수 있는 형태의 정신신경증에서 좋은 치료 효과를 거두고 있는 터에, 심리 장치의 구조와 활동을 철저히 알게 된다면 그것이 얼마나 중요할지 누가 미리 내다볼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마음을 알고 개개인의 성격에 숨은 특성을 찾아내는 데 이런 연구가 지니는 실천적 가치는 어떠냐고 누군가 물을지도 모른다. 꿈이 드러내 보이는 무의식적 충동은 정신생활 속 실제 힘의 값어치를 지니지 않는가? 지금은 꿈을 만들어 내지만 언젠가는 다른 것을 만들어 낼지도 모르는 억제된 소원의 윤리적 의미를 가볍게 여겨도 되겠는가?

나는 이 물음들에 답할 자격이 있다고 느끼지 않는다. 꿈 문제의 이런 측면을 나는 더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다. 다만 황제를 죽이는 꿈을 꾸었다는 이유로 신하 하나를 처형하게 한 로마 황제는 어쨌든 잘못했다고 나는 믿는다. 황제는 먼저 그 꿈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아내려고 애썼어야 했다. 십중팔구 그 꿈의 뜻은 겉보기와 달랐을 것이다. 설령 내용이 다른 꿈이 이런 불경죄의 의미를 지녔다 하더라도, 덕 있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 실제 삶에서 저지르는 일을 꿈꾸는 데 만족한다는 플라톤의 말을 떠올리는 편이 옳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꿈에는 자유를 허락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한다. 무의식적 소원에 현실성을 인정해야 하는지, 인정한다면 어떤 의미에서인지는 선뜻 말할 수 없다. 모든 과도적 사고와 중간 사고에는 당연히 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 무의식적 소원이 그 마지막이자 가장 참된 표현에 이른 모습으로 우리 앞에 있다 하더라도, 심리적 현실에는 단 하나의 존재 형식만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편이 좋을 것이다. 사람의 성격을 판단해야 하는 실제적 필요에는 대개 행동과, 생각을 의식적으로 표현한

것만으로 충분하다. 무엇보다 행동을 첫째 자리에 놓아야 마땅하다. 의식에 침투하는 충동 가운데 많은 것이 행동으로 옮겨지기 전에 정신생활의 실제 힘에 상쇄되기 때문이다. 아니, 그런 충동이 가는 길에 흔히 아무런 심리적 장애물도 만나지 않는 것은, 그것들이 나중에 저항에 부딪히리라는 것을 무의식이 확신하기 때문이다. 어쨌든 우리의 미덕이 자랑스럽게 솟아오르는 저 숱하게 헤집힌 땅을 잘 알아 두면 배울 것이 많다. 사방으로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인간 성격의 복잡함은, 우리의 낡은 도덕철학이 바라는 대로 단순한 양자택일로 정리되는 일이 극히 드물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미래를 아는 데 꿈은 어떤 가치가 있는가? 그런 것은 물론 생각할 수도 없다.[26] 그 대신 「과거를 아는 데」라고 말하고 싶어진다. 꿈은 어느 모로 보나 과거에서 비롯하기 때문이다. 하기야 꿈이 미래를 보여 준다는 옛 믿음에도 진실이 전혀 없지는 않다. 꿈은 소원을 이루어진 것으로 우리 앞에 나타내 보임으로써 분명 우리를 미래로 이끌지만, 꿈꾸는 사람이 현재로 받아들이는 이 미래는 파괴할 수 없는 소원이 저 과거를 닮게 빚어 놓은 것이다.

---

1. 영역본 표제는 「The Psychology of the Dream Activities」다. 이 장 본문은 「dream activity」라는 말을 쓰지 않고 「dream process」를 쓰며, 이 번역은 dream activity를 「꿈 작업」으로 옮겼으므로 표제를 그대로 따르면 6장과 뒤섞인다. 본문의 말에 따라 「꿈 과정」으로 옮겼다. — 옮긴이.

2. 영역본은 「We over-estimate the determination of the psychic」(과대평가한다)이라 했으나, 바로 뒤의 「이 영역에는 자의적인 것이 하나도 없다」와 이 대목 전체의 논지(꿈 보고의 변형을 자의적이라 여기는 것은 결정성을 얕보는 잘못이다)와 정반대다. 독일어 원문(unterschätzen)에 따라 「과소평가한다」로 바로잡았다. — 옮긴이.

3. 『일상생활의 정신병리학』, 제4판, 1912 참조. (영역본 준비 중.)

4. 망각 일반의 목적에 관해서는 『일상생활의 정신병리학』 참조.

5. A. A. 브릴이 번역하여 『히스테리 논문 선집』이라는 제목으로 나와 있다.

6. 융은 조발성 치매의 분석으로 이 명제를 훌륭하게 입증했다. (『조발성 치매의 심리학』, F. 피터슨·A. A. 브릴 옮김.)

7. 피상적 연상이 꿈속에 드러나 있는 경우에도 같은 고찰이 물론 들어맞는다. 이를테면 모리가 보고한 두 꿈(1장 (마), pélerinage〔순례〕 — pelletier — pelle〔삽〕, kilometer — kilogram — gilolo, Lobelia — Lopez — Lotto)이 그렇다. 어떤 종류의 회상이 즐겨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지 나는 신경증 환자들과의 작업에서 알고 있다. 사춘기의 호기심 많은 시기에 대부분의 사람이 성의 수수께끼를 풀고 싶은 욕구를 달래려고 백과사전을 뒤적이던 일이다.

8. 위의 명제들은 쓸 당시만 해도 몹시 있을 법하지 않게 들렸지만, 그 뒤 융과 그의 제자들이 『진단적 연상 연구(Diagnostische Assoziationsstudien)』에서 실험으로 입증했다.

9. 『히스테리와 기타 정신신경증에 관한 논문 선집』, 165쪽, A. A. 브릴 옮김 (『신경정신질환 저널』 출판사).

10. 독일어 낱말 「Dutzendmensch」(한 다스짜리 사람)는, 그 젊은 여성이 친구의 약혼자에 대한 자기의 진짜 의견을 나타내려고 쓰고 싶어 한 말로, 숫자가 전부인 사람을 가리킨다. — 영역자 브릴의 주.

11. 이 소원들은 이런 파괴될 수 없는 성격을, 참으로 무의식적인 모든 심리 행위, 곧 오로지 무의식 체계에만 속하는 심리 행위와 함께 지니고 있다. 이 경로들은 늘 열려 있으며 쓰이지 않아 버려지는 일이 결코 없다. 흥분 과정이 무의식적 흥분을 부여받을 때마다 이 경로들은 몇 번이고 그 방출을 이끈다. 비유해서 말하면, 이것들이 겪는 소멸은 『오디세이아』에 나오는 저승의 망령들이 겪는 소멸과 같은 형태다. 망령들은 피를 마시는 순간 새로운 생명으로 깨어났다. 전의식 체계에 달린 과정들은 이와 다른 방식으로 파괴될 수 있다. 신경증의 정신 요법은 이 차이에 바탕을 두고 있다.

12. 르 로랭은 꿈의 소원 성취를 옳게도 이렇게 찬양한다. 「Sans fatigue sérieuse, sans être obligé de recourir à cette lutte opiniâtre et longue qui use et corrode les jouissances poursuivies.」〔심한 피로도 없이, 좇는 즐거움을 닳게 하고 좀먹는 저 끈질기고 기나긴 싸움에 기댈 필요도 없이.〕

13. 이 생각은 우리 시대에 최면 연구를 되살린 리에보의 『수면 이론』에서 빌려 온 것이다. (『유도 수면(Du Sommeil provoqué)』 운운, 파리, 1889.)

14. 영역본은 「앞의 것」(꿈꾸고 있다는 앎)과 「뒤의 것」(잠자고 있다는 앎)을 뒤바꾸어, 검열이 허를 찔릴 때 알게 되는 것이 잠자고 있다는 사실인 것처럼 적었다. 이는 6장 (아)의 설명(검열이 허를 찔리면 「꿈일 뿐이야」라는 생각이 끼어든다)과 맞지 않아, 독일어 원문대로 두 말의 자리를 바로잡았다. — 옮긴이.

15. 영역본은 「keeping in view the fact that the unconscious must be held in check at night just as during the day」(무의식은 낮과 마찬가지로 밤에도 붙잡아 두어야 한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라 하여, 밤에도 무의식을 붙잡아 두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내세운다. 그러나 이 대목의 논지와 뒤에 나오는 결론(잠자는 내내 무의식을 억누르기보다 꿈을 허락하고 매듭짓는 편이 더 합목적적이고 경제적이다)은 그 반대다. 독일어 원문은 무의식을 밤에도 낮처럼 붙잡아 두어야 하는 「경우에 비하면」(gegen den Fall, daß …) 절약이라는 뜻이어서 바로잡았다. — 옮긴이.

16. 영역본은 「a motor or secondary activity」(운동 활동 또는 이차적 활동)라 했으나, 정동 발생을 신경 자극에 따른 방출로 설명하는 이 대목에서 「이차적」은 뜻이 서지 않고 이 장의 「이차 과정」과도 헷갈린다. 독일어 원문(motorische oder sekretorische Leistung)에 따라 「분비 활동」으로 바로잡았다. — 옮긴이.

17. 새를 가리키는 독일어 낱말은 「Vogel」이며, 여기서 성교를 뜻하는 비속한 표현 「vöglen」이 생겨났다. — 영역자 브릴의 주.

18. 강조는 내가 한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뜻은 충분히 분명하지만 말이다.

19. 강조는 내가 한 것이다.

20. 영역본 표제 끝은 「Regression」(퇴행)이지만, 이 절이 다루는 것은 억압(repression)이고 퇴행은 앞 절 (나)의 주제다. 영역자 자신의 찾아보기도 이 절의 쪽을 「Repression」 아래에 둔다. 전달 과정의 오류로 보아 「억압」으로 옮겼다. — 옮긴이.

21. J. 브로이어가 우리의 『히스테리 연구』(1895년, 제2판 1909년)에서 밝힌 의미심장한 견해 참조.

22. 여기서도 다른 곳에서와 마찬가지로 주제를 다루는 데 빈틈이 있는데, 나는 그 빈틈을 일부러 남겨 두었다. 그것을 메우려면 한편으로는 너무 큰 노력이 들고, 다른 한편으로는 꿈과 동떨어진 재료를 폭넓게 끌어대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억제된」이라는 낱말과 「억압된」이라는 낱말에 서로 다른 뜻을 결부하는지를 밝히지 않고 피해 왔다. 분명히 해 둔 것은 다만, 뒤의 낱말이 앞의 낱말보다 무의식과의 관계를 더 강조한다는 것뿐이다. 꿈 사고가 의식으로 나아가는 전진적 진행을 버리고 퇴행의 길을 택할 때에도 왜 검열에 의한 왜곡을 겪는가 하는, 이와 가까운 문제에도 나는 들어가지 않았다. 나는 무엇보다, 꿈 작업을 더 분석해 나가면 이르게 되는 문제들에 관심을 일깨우고, 도중에 그 문제들과 마주치는 다른 주제들을 가리켜 보이는 데 마음을 썼다. 어디서 추적을 멈추어야 할지 정하기가 늘 쉽지는 않았다. 꿈에서 정신성적 생활이 하는 역할을 샅샅이 다루지 않고 성적 내용이 뻔히 드러나는 꿈의 해석을 피한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독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지도 모른다. 물론 성생활을 의사와 과학 연구자가 고려하지 말고 내버려

두어야 할 「pudendum」〔부끄러운 것〕으로 여기는 것은 내 생각과도, 내가 신경병리학에서 밝혀 온 원칙과도 거리가 한참 멀다. 달디스의 아르테미도로스를 옮긴 번역자는 도덕적 분개에 떠밀려 『꿈의 상징』에 들어 있는 성적인 꿈에 관한 장을 독자가 알지 못하게 감추었는데, 나는 그 분개 또한 우스꽝스럽다고 생각한다. 나로 말하자면, 성적인 꿈을 설명하다 보면 아직 해명되지 않은 도착과 양성성의 문제에 깊이 얽혀 들 수밖에 없으리라는 확신 하나에 따라 움직였을 뿐이다. 그래서 나는 이 재료를 다른 맥락을 위해 남겨 두었다.

23. 정신병리학을 심리학 위에 세우는 데 이바지하는 현상은 꿈만이 아니다. 나는 미완성 논문 몇 편으로 이루어진 짧은 연작(『정신의학·신경학 월보(Monatsschrift für Psychiatrie und Neurologie)』에 실린 「건망증의 심리 기제에 대하여(Über den psychischen Mechanismus der Vergesslichkeit)」, 1898년, 그리고 「은폐 기억에 대하여(Über Deckerinnerungen)」, 1899년)에서 일상생활의 여러 심리적 현상을 같은 견해에 따라 해석하려고 한다. 이 논문들과 「망각」, 「말실수」 등에 관한 다른 논문들은 그 뒤 『일상생활의 정신병리학』이라는 제목으로 한데 묶여 1904년과 1907년에 나왔으며, 그 영역본도 곧 나올 것이다.

24. 「심리학에서의 무의식 개념」. 1897년 뮌헨에서 열린 제3회 국제 심리학 대회에서 한 강연.

25. 2장에 나온, 티로스 포위 때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꾼 꿈(Σα-τυρος〔티로스는 네 것이다〕) 참조.

26. 에른스트 오펜하임 교수(빈)는 민속 자료를 들어, 민중조차 미래를 가리키는 해석을 기대하지 않고 잠자는 동안 일어나는 소원 충동과 욕구에서 나온 것이라고 아주 올바르게 짚어 내는 한 부류의 꿈이 있음을 내게 보여 주었다. 그는 머지않아 이 꿈들을 자세히 보고할 것인데, 이 꿈들은 대부분 「우스운 이야기」의 형태를 띠고 있다.

제8장 문헌 목록

1. Aristoteles. Über Träume und Traumdeutungen. Translated by Bender.

2. Artemidoros aus Daldis. Symbolik der Träume. Translated by Friedrich. S. Krauss. Wien, 1881.

3. Benini, V. “La Memoria e la Durata dei Sogni.” Rivista Italiana de Filosofia, Marz-April 1898.

4. Binz, C. Über den Traum. Bonn, 1878.

5. Borner, J. Das Alpdrücken, seine Begründung und Verhütung. Würzburg, 1855.

6. Bradley, J. H. “On the Failure of Movement in Dream.” Mind, July 1894.

7. Brander, R. Der Schlaf und das Traumleben. 1884.

8. Burdach. Die Physiologie als Erfahrungswissenschaft, 3 Bd. 1830.

9. Büchsenschütz, B. Traum und Traumdeutung in Altertum. Berlin, 1868.

10. Chaslin, Ph. Du Rôle du Rêve dans l’Evolution du Délire. Thèse de Paris. 1887.

11. Chabaneix. Le Subconscient chez les Artistes, les Savants et les Ecrivains. Paris, 1897.

12. Calkins, Mary Whiton. “Statistics of Dreams.” Amer. J. of Psychology, V., 1893.

13. Clavière. “La Rapidité de la Pensée dans le Rêve.” Revue philosophique, XLIII., 1897.

14. Dandolo, G. La Coscienza nel Sonno. Padova, 1889.

15. Delage, Yves. “Une Théorie de Rêve.” Revue scientifique, II, Juli 1891.

16. Delbœuf, J. Le Sommeil et les Rêves. Paris, 1885.

17. Debacker. Terreurs nocturnes des Enfants. Thèses de Paris. 1881.

18. Dugas. “Le Souvenir du Rêve.” Revue philosophique, XLIV., 1897.

19. Dugas. “Le Sommeil et la Cérébration inconsciente durant le Sommeil.” Revue philosophique, XLIII., 1897.

20. Egger, V. “La Durée apparente des Rêves.” Revue philosophique, Juli 1895.

21. Egger. “Le Souvenir dans le Rêve.” Revue philosophique, XLVI., 1898.

22. Ellis Havelock. “On Dreaming of the Dead.” The Psychological Review, II., Nr. 5, September 1895.

23. Ellis Havelock. “The Stuff that Dreams are made of.” Appleton’s Popular Science Monthly, April 1899.

24. Ellis Havelock. “A Note on Hypnogogic Paramnesia.” Mind, April 1897.

25. Fechner, G. Th. Elemente der Psychophysik. 2 Aufl., 1889.

26. Fichte, J. H. “Psychologie.” Die Lehre vom bewussten Geiste des Menschen. I. Teil. Leipzig, 1864.

27. Giessler, M. Aus den Tiefen des Traumlebens. Halle, 1890.

28. Giessler, M. Die physiologischen Beziehungen der Traumvorgänge. Halle, 1896.

29. Goblot. “Sur le Souvenir des Rêves.” Revue philosophique, XLII., 1896.

30. Graffunder. Traum und Traumdeutung. 1894.

31. Griesinger. Pathologie und Therapie der psychischen Krankheiten. 3 Aufl. 1871.

32. Haffner, P. “Schlafen und Träumen. 1884.” Frankfurter zeitgemässe Broschüren, 5 Bd., Heft. 10.

33. Hallam, Fl., and Sarah Weed. “A Study of the Dream Consciousness.” Amer. J. of Psychology, VII., Nr. 3, April 1896.

34. D’Hervey. Les Rêves et les Moyens de les Diriger. Paris, 1867 (anonym.).

35. Hildebrandt, F. W. Der Traum und seine Verwertung für Leben. Leipzig, 1875.

36. Jessen. Versuch einer Wissenschaftlichen Begründung der Psychologie. Berlin, 1856.

37. Jodl. Lehrbuch der Psychologie. Stuttgart, 1896.

38. Kant, J. Anthropologie in pragmatischer Hinsicht. Kirchmannsche Ausgabe. Leipzig, 1880.

39. Krauss, A. “Der Sinn im Wahnsinn.” Allgemeine Zeitschrift für Psychologie, XV. u. XVI., 1858–1859.

40. Ladd. “Contribution to the Psychology of Visual Dreams.” Mind, April 1892.

41. Leidesdorf, M. Das Traumleben. Wien, 1880. Sammlung der “Alma Mater.”

42. Lémoine. Du Sommeil au Point de Vue physiologique et psychologique. Paris, 1885.

43. Lièbeault, A. Le Sommeil provoqué et les Etats analogues. Paris, 1889.

44. Lipps, Th. Grundtatsachen des Seelenlebens. Bonn, 1883.

45. Le Lorrain. “Le Rêve.” Revue philosophique. Juli 1895.

46. Maudsley. The Pathology of Mind. 1879.

47. Maury, A. “Analogies des Phénomènes du Rêve et de l’Aliènation Mentale.” Annales med. psych., 1854, p. 404.

48. Maury, A. Le Sommeil et les Rêves. Paris, 1878.

49. Moreau, J. “De l’Identité de l’Etat de Rêve et de Folie.” Annales med. psych., 1855, p. 361.

50. Nelson, J. “A Study of Dreams.” Amer. J. of Psychology, I., 1888.

51. Pilcz. “Über eine gewisse Gesetzmässigkeit in den Träumen.” Autorreferat in Monatsschrift für Psychologie und Neurologie. März 1899.

52. Pfaff, E. R. Das Traumleben und seine Deutung nach den Prinzipien der Araber, Perser, Griechen, Indier und Ägypter. Leipzig, 1868.

53. Purkinje. Artikel: Wachen, Schlaf, Traum und verwandte Zustände in Wagners Handwörterbuch der Physiologie. 1846.

54. Radestock, P. Schlaf und Traum. Leipzig, 1878.

55. Robert, W. Der Traum als Naturnotwendigkeit erklärt. 1886.

56. Sante de Sanctis. Les Maladies mentales et les Rêves. 1897. Extrait des Annales de la Société de Médecine de Gand.

57. Sante de Sanctis. "Sui rapporti d'Identità, di Somiglianza, di Analogia e di Equivalenza fra Sogno e Pazzia." Rivista quindicinale di Psicologia, Psichiatria, Neuropatologia. 15, Nov. 1897.

58. Scherner, R. A. Das Leben des Traumes. Berlin, 1861.

59. Scholz, Fr. Schlaf und Traum. Leipzig, 1887.

60. Schopenhauer. "Versuch über das Geistersehen und was damit zusammenhängt." Parerga und Paralipomena, 1. Bd., 1857.

61. Schleiermacher, Fr. Psychologie. Edited by L. George. Berlin, 1862.

62. Siebek, A. Das Traumleben der Seele. 1877. Sammlung Virchow-Holtzendorf. Nr. 279.

63. Simon, M. "Le Monde des Rêves." Paris, 1888. Bibliothèque scientifique contemporaine.

64. Spitta, W. Die Schlaf- und Traumzustände der menschlichen Seele. 2. Aufl. Freiburg, I. B., 1892.

65. Stumpf, E. J. G. Der Traum und seine Deutung. Leipzig, 1899.

66. Strümpell, L. Die Natur und Entstehung der Träume. Leipzig, 1877.

67. Tannery. "Sur la Mémoire dans le Rêve." Revue philosophique, XLV., 1898.

68. Tissié, Ph. "Les Rêves, Physiologie et Pathologie." 1898. Bibliothèque de Philosophie contemporaine.

69. Titchener. "Taste Dreams." Amer. Jour. of Psychology, VI., 1893.

70. Thomayer. "Sur la Signification de quelques Rêves." Revue neurologique. Nr. 4, 1897.

71. Vignoli. "Von den Träumen, Illusionen und Halluzinationen." Internationale wissenschaftliche Bibliothek, Bd. 47.

72. Volkelt, J. Die Traumphantasie. Stuttgart, 1875.

73. Vold, J. Mourly. "Expériences sur les Rêves et en particulier sur ceux d'Origine musculaire et optique." Christiania, 1896. Abstract in the Revue philosophique, XLII., 1896.

74. Vold, J. Mourly. "Einige Experimente über Gesichtsbilder im Träume." Dritter internationaler Kongress für Psychologie in München. 1897.

74a. (Vold, J. Mourly. "Über den Traum." Experimentell-psychologische Untersuchungen. Herausgegeben von O. Klemm. Erster Band. Leipzig, 1910.)

75. Weygandt, W. Entstehung der Träume. Leipzig, 1893.

76. Wundt. Grundzüge der physiologischen Psychologie. II. Bd., 2 Aufl. 1880.

77. Stricker. Studien über das Bewusstsein. Wien, 1879.

78. Stricker. Studien über die Assoziation der Vorstellungen. Wien, 1883.

꿈에 관한 정신분석 문헌

79. Abraham, Karl (Berlin): Traum und Mythos: Eine Studie zur Volker-psychologie. Schriften z. angew. Seelenkunde, Heft 4, Wien und Leipzig, 1909.

80. Abraham, Karl (Berlin): "Über hysterische Traumzustände." (Jahrbuch f. psychoanalyt. und psychopatholog. Forschungen, Vol. II., 1910.)

81. Adler, Alfred (Wien): "Zwei Träume einer Prostituierten." (Zeitschrift f. Sexualwissenschaft, 1908, Nr. 2.)

82. Adler, Alfred (Wien): "Ein erlogener Traum." (Zentralbl. f. Psychoanalyse, 1. Jahrg. 1910, Heft 3.)

83. Bleuler, E. (Zürich): "Die Psychoanalyse Freuds." (Jahrb. f. psychoanalyt. u. psychopatholog. Forschungen, Bd. II., 1910.)

84. Brill, A. A. (New York): "Dreams and their Relation to the Neuroses." (New York Medical Journal, April 23, 1910.)

84a. Brill. Hysterical Dreamy States. Ebenda, May 25, 1912.

85. Ellis, Havelock: "The Symbolism of Dreams." (The Popular Science Monthly, July 1910.)

86. Ellis, Havelock: The World of Dreams. London, 1911.

87. Ferenczi, S. (Budapest): “Die psychologische Analyse der Träume.” (Psychiatrisch-neurologische Wochenschrift, XII., Jahrg., Nr. 11–13, Juni 1910. English translation under the title: The Psychological Analysis of Dreams in the American Journal of Psychology, April 1910.)

88. Freud, S. (Wien): “Über den Traum.” (Grenzfragen des Nerven- und Seelenlebens. Edited by Löwenfeld und Kurella, Heft 8. Wiesbaden, Bergmann, 1901, 2. Aufl. 1911.)

89. Freud, S. (Wien): “Bruchstück einer Hysterieanalyse.” (Monatsschr. f. Psychiatrie und Neurologie, Bd. 18, Heft 4 und 5, 1905. Reprinted in Sammlung kleiner Schriften zur Neurosenlehre, 2. Folge. Leipzig u. Wien, 1909.)

90. Freud, S. (Wien): “Der Wahn und die Träume in W. Jensen’s Gradiva.” (Schriften zur angewandten Seelenkunde, Heft 1, Wien und Leipzig, 1907.)

91. Freud, S. (Wien): “Über den Gegensinn der Urworte.” A review of the brochure of the same name by Karl Abel, 1884. (Jahrbuch für psychoanalyt. und psychopatholog. Forschungen, Bd. II., 1910.)

92. “Typisches Beispiel eines verkappten Ödipustraumes.” (Zentralbl. für Psychoanalyse, I. Jahrg. 1910, Heft 1.)

93. Freud, S. (Wien): Nachträge zur Traumdeutung. (Ebenda, Heft 5.)

94. Hitschmann, Ed. (Wien): Freud’s Neurosenlehre. Nach ihrem gegenwärtigen Stande zusammenfassend dargestellt. Wien und Leipzig, 1911. (Kap. V., “Der Traum.”)

95. Jones, Ernest (Toronto): “Freud’s Theory of Dreams.” (American Journal of Psychology, April 1910.)

96. Jones, Ernest (Toronto): “Some Instances of the Influence of Dreams on Waking Life.” (The Journ. of Abnormal Psychology, April-May 1911.)

97. Jung, C. G. (Zürich): “L’Analyse des Rêves.” (L’Année psychologique, tome XV.)

98. Jung, C. G. (Zürich): “Assoziation, Traum und hysterisches Symptom.” (Diagnostische Assoziationsstudien. Beiträge zur experimentellen Psychopathologie, hrg. von Doz. C. G. Jung, II. Bd., Leipzig 1910. Nr. VIII., S. 31–66.)

99. Jung, C. G. (Zürich): “Ein Beitrag zur Psychologie des Gerüchtes.” (Zentralblatt für Psychoanalyse, I. Jahrg. 1910, Heft 3.)

100. Maeder, Alphonse (Zürich): “Essai d’Interprétation de quelques Rêves.” (Archives de Psychologie, t. VI., Nr. 24, April 1907.)

101. Maeder, Alphonse (Zürich): “Die Symbolik in den Legenden, Märchen, Gebrauchen und Träumen.” (Psychiatrisch-Neurolog. Wochenschr. X. Jahrg.)

102. Meisl, Alfred (Wien): Der Traum. Analytische Studien über die Elemente der Psychischen Funktion V. (Wr. klin. Rdsch., 1907, Nr. 3–6.)

103. Onuf, B. (New York): “Dreams and their Interpretations as Diagnostic and Therapeutic Aids in Psychology.” (The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Feb.-Mar. 1910.)

104. Pfister, Oskar (Zürich): Wahnvorstellung und Schülerselbstmord. Auf Grund einer Traumanalyse beleuchtet. (Schweiz. Blätter für Schulgesundheitspflege, 1909, Nr. 1.)

105. Prince, Morton (Boston): "The Mechanism and Interpretation of Dreams." (The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Oct.-Nov. 1910.)

106. Rank, Otto (Wien): "Ein Traum, der sich selbst deutet." (Jahrbuch für psychoanalyt. und psychopatholog. Forschungen, Bd. II., 1910.)

107. Rank, Otto (Wien): Ein Beitrag zum Narzissismus. (Ebenda, Bd. III., 1.).

108. Rank, Otto (Wien): "Beispiel eines verkappten Ödipustraumes." (Zentralblatt für Psychoanalyse, I. Jahrg., 1910.)

109. Rank, Otto (Wien): Zum Thema der Zahnreiztraume. (Ebenda.)

110. Rank, Otto (Wien): Das Verlieren als Symptomhandlung. Zugleich ein Beitrag zum Verständnis der Beziehungen des Traumlebens zu den Fehlleistungen des Alltagslebens. (Ebenda.)

111. Robitsek, Alfred (Wien): "Die Analyse von Egmonts Traum." (Jahrb. f. psychoanalyt. u. psychopathol. Forschungen, Bd. II. 1910.)

112. Silberer, Herbert (Wien): "Bericht über eine Methode, gewisse symbolische Halluzinationserscheinungen hervorzurufen und zu beobachten." (Jahr. Bleuler-Freud, Bd. I., 1909.)

113. Silberer, Herbert (Wien): Phantasie und Mythos. (Ebenda, Bd. II., 1910.)

114. Stekel, Wilhelm (Wien): "Beiträge zur Traumdeutung." (Jahrbuch für psychoanalytische und psychopatholog. Forschungen, Bd. I., 1909.)

115. Stekel, Wilhelm (Wien): Nervöse Angstzustände und ihre Behandlung. (Wien und Berlin, 1908.)

116. Stekel, Wilhelm (Wien): Die Sprache des Traumes. A description of the symbolism and interpretation of the Dream and its relation to the normal and abnormal mind for physicians and psychologists. (Wiesbaden, 1911.)

117. Swoboda, Hermann. Die Perioden des menschlichen Organismus. (Wien und Leipzig, 1904.)

118. Waterman, George A. (Boston): "Dreams as a Cause of Symptoms." (The Journal of Abnormal Psychol., Oct.-Nov. 1910.)

판권면

꿈의 해석

지크문트 프로이트 지음

◆

저본

Sigmund Freud, The Interpretation of Dreams, authorised translation of third edition by **A. A. Brill** (New York: The Macmillan Company, 1913).

이 책은 독일어 원전이 아니라 위 영역본을 저본으로 삼은 중역(重譯)입니다.

원작 초판	1899년 11월(속표지 표기 1900년), 『Die Traumdeutung』
영역본의 바탕	독일어 제3판, 1911년
저본 영역본	1913년
원작자	지크문트 프로이트(1856–1939)
영역자	A. A. 브릴(1874–1948)

두 사람의 저작권은 모두 소멸했으며, 이 책의 저본은 퍼블릭도메인입니다.

◆

이 판에 관하여

머리말과 서문 셋, 일곱 장을 원문 문단 구조 그대로 옮겼습니다. **원문 1,222문단, 번역 1,222문단**으로 한 문단도 합치거나 쪼개지 않았습니다. 제8장 문헌 목록 120항목은 서지를 영역본 그대로 두었습니다.

프로이트의 주 168개, 영역자 브릴의 주 17개, 옮긴이 주 27개.

책 자신의 쪽을 가리키는 참조는 장과 절로 바꾸어 적었고, 영역본 끝의 찾아보기는 싣지 않았습니다. 7장 (나)의 도식 세 개는 한국어 이름표로 다시 그렸습니다.

1.1판(2026년 10월)에서 에테르 라이브러리 총서의 공통 인명·지명 표기에 맞춰 일부 표기와 띄어쓰기를 고쳤습니다(예: 『율리우스 카이사르』 → 『줄리어스 시저』, 탈리아멘토 강 → 탈리아멘토강). 본문 내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번역 원칙과 저본의 성격은 「일러두기」에 밝혀 두었습니다.

◆

에테르 라이브러리

퍼블릭도메인 고전을 한국어로 완역해 무료로 공개하는 기획입니다.

이 책은 여덟 번째 권이자, 중역본으로는 세 번째 권입니다.